연구보고 2020-28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2020 (한국아동패널 II)

김은설·배윤진·김근진·조혜주·김혜진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연구보고 2020-28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2020 (한국아동패널 Ⅱ)

저 자 김은설, 배윤진, 김근진, 조혜주, 김혜진

연 구 진
연구책임자 **김 은 설**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자 **배 윤 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자 **김 근 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자 **조 혜 주** (육아정책연구소 전문연구원)
공동연구자 **김 혜 진** (육아정책연구소 전문연구원)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연구보고 2020-28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2020 (한국아동패널 II)

발행일 2020년 12월
발행인 백선희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소 04535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70 9층 육아정책연구소
전화 02) 398-7700
팩스 02) 398-7798
홈페이지 http://www.kicce.re.kr
인쇄처 (주)승림디엔씨 02) 2271-2581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979-11-90485-79-1 93330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머리말

우리나라 아동의 성장과 발달, 환경적·사회적 영향을 지난 13년간 추적, 조사해 온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한국아동패널"은 육아정책연구소의 소위 시그니처 연구라고 내세울 만한 과제입니다. 타 연구기관에서도 다양한 패널조사를 수행하고 있지만 출생기 신생아부터 시작된 단일 패널의 유지, 패널아동과 부모, 담임교사까지 포함한 생활반경 전반에 걸친 데이터 수집, 육아정책의 효과 분석을 지향하는 국책기관 주관 20년 장기 연구는 한국아동패널 조사가 갖는 유일무이한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착수 당시인 2008년생 2,000여 명의 패널아동은 2020년 현재 만12세 초등학교 6학년에 이르렀고, 평균 연령이 30세에 못 미치던 패널 가정의 어머니들은 이제 40대가 되었습니다. 10년이 넘는 시기를 지나면서 500가구 이상의 패널이 유실되기는 하였으나 종단데이터로서 한국아동패널은 여전히 그 가치와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확산 속에서 온라인 생중계로 개최되었던 올해 제11회 학술대회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연구논문이 발표되어 성황리에 진행된 바 있었습니다.

2020년 제13차년도 조사는 아동의 인지 발달에 관심을 두고 '다요인 지능검사'를 실시한 점을 특징으로 들 수 있으며, 심층조사를 통해 아동의 인성발달과 부모의 성격, 정서능력 측정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한 본 보고서를 통해 2019년도 패널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만11세 아동의 전반적 특징을 신체, 사회정서, 언어, 학교적응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결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2020년 유래 없는 코로나 19 팬데믹의 극한 상황에서도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한국아동패널(II)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조사에 참여해 주신 1,500여 패널아동과 가족여러분, 조사를 위해서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도 쉼 없이 움직여서 데이터를 쌓아주신 50여명의 전국 조사원분들, 그리고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애써주신 모든 연구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아울러 본 보고서는 연구진의 의견이며, 육아정책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2020년 12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백 선 희

목차

요약 1

Ⅰ. 서론 13

1. 연구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15
2.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한국아동패널) 조사 개요 17
3. 2020년 연구사업 내용 22
4. 2020년 연구사업 방법 25
5. 아동패널 자료의 활용 현황 30
6. 보고서 구성 32

Ⅱ. 13차년도(2020년) 사업 보고 33

1. 13차년도 조사절차 35
2. 13차년도 조사내용 44
3. 패널 관리 57
4. 제11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개최 62

Ⅲ. 12차년도(2019년) 조사결과 분석 65

1. 12차년도 조사대상자 특성 67
2. 아동 특성 68
3. 부모 및 가구 특성 165
4. 학교, 지역사회 및 정책 특성 201

Ⅳ. 주요 변인 종단적 추이 분석 235

1. 아동 특성 237
2. 부모 및 가구 특성 243
3. 탈락 패널 성향 분석 249

Ⅴ. 정책적 시사점 253
1. 주제별 요약 및 주요 논의점 ····· 255
2. 정책 개발을 위한 시사점 ····· 263

참고문헌 ——— 267

Abstract ——— 271

부록 ——— 273

부록 1. 한국아동패널 2020 소개 리플렛 ····· 273
부록 2. 차수별 조사내용 상세표 ····· 275
부록 3. 제11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연구논문 공모 안내 ····· 295
부록 4. 제11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포스터 ····· 296
부록 5. 13차년도(2020) IRB 승인통지서 ····· 297
부록 6. 13차년도(2020) 조사 안내문 ····· 298
부록 7. 한국아동패널조사 주요 결과 리플렛 ····· 299
부록 8. 가중치 작성 및 추정 ····· 300
부록 9. 2020 한국아동패널 코로나 19 대응 전략 ····· 304
부록 10. 12차년도(2019) 질문지 ····· 310
부록 11. 13차년도(2020) 조사 신규포함 문항 도구프로파일 ····· 371

표 목차

〈표 Ⅰ-2- 1〉 한국아동패널 조사 참여자 유지 현황 ····· 18
〈표 Ⅰ-2- 2〉 한국아동패널 연도별 실시 계획 ····· 19
〈표 Ⅰ-3- 1〉 2020년 한국아동 종단연구 조사대상별 주요 내용 ····· 23
〈표 Ⅰ-4- 1〉 전문가 자문 현황 ····· 26
〈표 Ⅰ-5- 1〉 한국아동패널 데이터 활용 ····· 30
〈표 Ⅰ-5- 2〉 연도별 분석방식에 따른 연구 수: 2011-2019년 ····· 31
〈표 Ⅰ-5- 3〉 한국아동패널 데이터 활용 논문 변수 범주화:
2019년 발간 논문 기준 ····· 31
〈표 Ⅱ-1- 1〉 13차년도 조사원 집체교육 일정 ····· 40
〈표 Ⅱ-1- 2〉 13차년도 조사원 집체교육 일정표 ····· 41
〈표 Ⅱ-1- 3〉 13차년도 질문지별 조사 일정 ····· 42
〈표 Ⅱ-2- 1〉 13차년도 질문지별 응답자 및 주요 조사내용 ····· 45
〈표 Ⅱ-2- 2〉 12~13차년도 아동 특성 조사 변인 ····· 50
〈표 Ⅱ-2- 3〉 12~13차년도 부모 특성 조사 변인 ····· 54
〈표 Ⅱ-2- 4〉 12~13차년도 가구 특성 조사 변인 ····· 55
〈표 Ⅱ-2- 5〉 12~13차년도 학교·사교육 특성 조사 변인 ····· 56
〈표 Ⅱ-2- 6〉 12~13차년도 지역 및 정책 특성 조사 변인 ····· 57
〈표 Ⅱ-3- 1〉 한국아동패널 2008~2020년 조사 참여율 ····· 61
〈표 Ⅱ-4- 1〉 제11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추진 주요 일정 ····· 62
〈표 Ⅱ-4- 2〉 제11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일정 ····· 63
〈표 Ⅱ-4- 3〉 제11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발표 논문 목록 ····· 63
〈표 Ⅲ-1- 1〉 12차년도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68
〈표 Ⅲ-2- 1〉 12차년도 아동 특성 변인 ····· 69
〈표 Ⅲ-2- 2〉 아동의 인구학적 특성 ····· 71
〈표 Ⅲ-2- 3〉 아동의 식생활 진단: 섭취 권장 항목 ····· 72
〈표 Ⅲ-2- 4〉 아동의 식생활 진단: 과잉섭취 자제 권장 항목 ····· 73
〈표 Ⅲ-2- 5〉 아동의 식생활 진단: 균형 잡힌 식생활 ····· 74
〈표 Ⅲ-2- 6〉 최근 7일간 아동의 카페인음료(탄산음료) 섭취 빈도 ····· 75
〈표 Ⅲ-2- 7〉 최근 7일간 아동의 인스턴트식
(라면, 피자, 치킨, 편의점 음식 등) 섭취 빈도 ····· 76

〈표 Ⅲ-2- 8〉 아동의 기상 및 취침 시각 ····· 77
〈표 Ⅲ-2- 9〉 수면시간 ····· 78
〈표 Ⅲ-2-10〉 아동의 일과활동 시간: 공·사교육 기관 이용 ····· 79
〈표 Ⅲ-2-11〉 아동의 책읽기 시간 ····· 80
〈표 Ⅲ-2-12〉 아동의 독서량(주당) 빈도표 ····· 81
〈표 Ⅲ-2-13〉 아동의 숙제 및 학습, 인터넷 수업 등 통신교육 시간 ····· 82
〈표 Ⅲ-2-14〉 아동의 TV, 컴퓨터, 휴대전화 등을 통한 영상 시청, 게임 시간 ····· 83
〈표 Ⅲ-2-15〉 아동의 스마트폰, PC(인터넷) 이용 여부 및 이용시간 ····· 84
〈표 Ⅲ-2-16〉 미디어기기 중독 ····· 85
〈표 Ⅲ-2-17〉 아동의 스마트폰, PC(인터넷) 이용 정도 ····· 86
〈표 Ⅲ-2-18〉 스포츠, 집 밖 레저 활동 및 취미 생활 ····· 87
〈표 Ⅲ-2-19〉 친인척, 친구 등과의 놀이 등 사교 활동, 종교 활동 ····· 88
〈표 Ⅲ-2-20〉 한번에 30분 이상 실내에서 신체활동 한 일수(7일간) ····· 89
〈표 Ⅲ-2-21〉 한번에 30분 이상 실외에서 신체활동 한 일수(7일간) ····· 90
〈표 Ⅲ-2-22〉 취미(악기, 운동) ····· 91
〈표 Ⅲ-2-23〉 취미(악기 종류)(다중응답) ····· 92
〈표 Ⅲ-2-24〉 취미(운동 종류)(다중응답) ····· 92
〈표 Ⅲ-2-25〉 기본생활 시간, 가사 돕기 시간 ····· 93
〈표 Ⅲ-2-26〉 아동의 활동별 참여 빈도: 장보기 및 쇼핑, 친인척 방문 ····· 95
〈표 Ⅲ-2-27〉 아동의 활동별 참여 빈도: 당일 여행 및 나들이, 국내여행, 해외연수 ····· 96
〈표 Ⅲ-2-28〉 아동의 활동별 참여 빈도: 문화체험 및 예술감상, 견학, 종교활동 ····· 97
〈표 Ⅲ-2-29〉 아동의 활동별 참여 빈도: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 98
〈표 Ⅲ-2-30〉 아동의 시간사용 만족도: 가족과의 시간 ····· 99
〈표 Ⅲ-2-31〉 아동의 시간사용 만족도: 친구, 휴식, 여가활동 시간 ····· 100
〈표 Ⅲ-2-32〉 아동의 시간사용 만족도: 숙제, 가족을 도와주는 시간 ····· 101
〈표 Ⅲ-2-33〉 가족과의 식사 횟수(일주일 평균) ····· 102
〈표 Ⅲ-2-34〉 아동의 신체 치수(신장, 허리둘레, 체중, BMI) ····· 103
〈표 Ⅲ-2-35〉 아동의 특성별 신체 치수 ····· 103
〈표 Ⅲ-2-36〉 아동의 시력 보정 도구 착용 시기1) ····· 104
〈표 Ⅲ-2-37〉 남아의 2차 성징(몽정) 발현 여부 및 처음 나타난 시기 ····· 105

〈표 Ⅲ-2-38〉 여아의 2차 성징(초경) 발현 여부 및 처음 나타난 시기 ····· 105
〈표 Ⅲ-2-39〉 어머니가 인식한 아동의 주관적 건강 상태 ····· 106
〈표 Ⅲ-2-40〉 신체적 자아상 ····· 107
〈표 Ⅲ-2-41〉 아동의 치료 및 입원 여부 ····· 108
〈표 Ⅲ-2-42〉 아동의 만성 질환별 진단 및 치료 여부 ····· 109
〈표 Ⅲ-2-43〉 아동의 알레르기 질환별 의사 진단 여부 ····· 110
〈표 Ⅲ-2-44〉 아동의 심리사회적 질환별 의사 진단 여부 ····· 110
〈표 Ⅲ-2-45〉 비속어 사용 ····· 111
〈표 Ⅲ-2-46〉 아동의 학업수행 능력 ····· 112
〈표 Ⅲ-2-47〉 아동의 학업수행 능력(평균) ····· 113
〈표 Ⅲ-2-48〉 학업 스트레스 ····· 114
〈표 Ⅲ-2-49〉 학업 동기: 학업적 자기효능감 ····· 115
〈표 Ⅲ-2-50〉 학업 동기: 학업적 실패내성 ····· 117
〈표 Ⅲ-2-51〉 아동의 과목선호도: 1순위 ····· 118
〈표 Ⅲ-2-52〉 아동의 과목선호도: 1+2순위 ····· 118
〈표 Ⅲ-2-53〉 아동의 자아개념: 자아탄력성 및 자아정체감 ····· 119
〈표 Ⅲ-2-54〉 아동의 전반적 행복감 ····· 120
〈표 Ⅲ-2-55〉 아동의 자율성 ····· 121
〈표 Ⅲ-2-56〉 성격검사: 하위 성격 영역별 패널아동 분포 ····· 122
〈표 Ⅲ-2-57〉 아동의 성격: 외향성 ····· 123
〈표 Ⅲ-2-58〉 아동의 성격: 개방성 ····· 124
〈표 Ⅲ-2-59〉 아동의 성격: 친화성 ····· 125
〈표 Ⅲ-2-60〉 아동의 성격: 성실성 ····· 126
〈표 Ⅲ-2-61〉 아동의 성격: 신경증 ····· 127
〈표 Ⅲ-2-62〉 집단 괴롭힘 피해 경험(뺨, 얼굴, 머리 등을 맞은 경험) ····· 128
〈표 Ⅲ-2-63〉 집단 괴롭힘 피해 경험(따돌림 경험) ····· 128
〈표 Ⅲ-2-64〉 집단 괴롭힘 피해 경험 (험담, 심한 욕설 등 폭언을 들은 경험) ····· 129
〈표 Ⅲ-2-65〉 집단 괴롭힘 피해 경험 (고의적으로 툭툭침, 심부름, 숙제를 해오라는 등의 괴롭힘) ·· 130
〈표 Ⅲ-2-66〉 집단 괴롭힘 피해 경험(돈이나 물건을 빼앗긴 경험) ····· 131
〈표 Ⅲ-2-67〉 집단 괴롭힘 피해 경험(협박이나 위협을 당한 경험) ····· 132

〈표 Ⅲ-2-68〉 집단 괴롭힘 피해 경험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말이나 행동을 당한 경험) ····· 133
〈표 Ⅲ-2-69〉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욕설 등) ····· 133
〈표 Ⅲ-2-70〉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채팅방 따돌림) ····· 134
〈표 Ⅲ-2-71〉 아동의 친구 수 ····· 135
〈표 Ⅲ-2-72〉 이성친구 ····· 136
〈표 Ⅲ-2-73〉 아동의 학교적응 ····· 137
〈표 Ⅲ-2-74〉 아동의 적응 및 사회성, 학업수행: 보호자 응답 ····· 138
〈표 Ⅲ-2-75〉 아동의 적응 및 사회성, 학업수행: 교사 응답(Ⅰ) ····· 139
〈표 Ⅲ-2-76〉 아동의 적응 및 사회성, 학업수행: 교사 응답(Ⅱ) ····· 140
〈표 Ⅲ-2-77〉 증후군 척도에 따른 아동의 문제행동 정도 ····· 142
〈표 Ⅲ-2-78〉 문제행동 점수: 보호자 응답 ····· 143
〈표 Ⅲ-2-79〉 문제행동 점수: 교사 응답 ····· 144
〈표 Ⅲ-2-80〉 내재화 문제행동: 보호자 응답 ····· 146
〈표 Ⅲ-2-81〉 내재화 문제행동: 교사 응답 ····· 146
〈표 Ⅲ-2-82〉 외현화 문제행동: 보호자 응답 ····· 148
〈표 Ⅲ-2-83〉 외현화 문제행동: 교사 응답 ····· 149
〈표 Ⅲ-2-84〉 기타문제행동 하위요인: 보호자 응답 ····· 150
〈표 Ⅲ-2-85〉 기타문제행동 하위요인: 교사 응답 ····· 151
〈표 Ⅲ-2-86〉 DSM 척도에 따른 아동의 문제행동 정도 ····· 153
〈표 Ⅲ-2-87〉 DMS 진단척도 1: 보호자 응답 ····· 153
〈표 Ⅲ-2-88〉 DMS 진단척도 1: 교사 응답 ····· 154
〈표 Ⅲ-2-89〉 DSM 진단척도 2: 보호자 응답 ····· 155
〈표 Ⅲ-2-90〉 DSM 진단척도 2: 교사 응답 ····· 156
〈표 Ⅲ-2-91〉 특수척도에 따른 아동의 문제행동 정도 ····· 157
〈표 Ⅲ-2-92〉 문제행동 특수척도: 보호자 응답 ····· 158
〈표 Ⅲ-2-93〉 문제행동 특수척도: 교사 응답 ····· 159
〈표 Ⅲ-2-94〉 삶의 만족도 ····· 160
〈표 Ⅲ-2-95〉 아동의 미래기대 ····· 161
〈표 Ⅲ-2-96〉 결혼 의사/자녀양육 의사 ····· 162
〈표 Ⅲ-2-97〉 상대적 박탈지수(가정형편) ····· 163
〈표 Ⅲ-2-98〉 저축 실태 ····· 164
〈표 Ⅲ-2-99〉 저축의 방식 ····· 165

〈표 Ⅲ-3- 1〉 12차년도 부모 특성 변인 ····· 166
〈표 Ⅲ-3- 2〉 부모의 인구학적 특성 ····· 167
〈표 Ⅲ-3- 3〉 아동과의 동거 여부 및 비동거 이유 ····· 167
〈표 Ⅲ-3- 4〉 부모의 우울 ····· 168
〈표 Ⅲ-3- 5〉 부모의 주관적 행복감 ····· 169
〈표 Ⅲ-3- 6〉 모의 일상적 스트레스 ····· 170
〈표 Ⅲ-3- 7〉 부의 일상적 스트레스 ····· 171
〈표 Ⅲ-3- 8〉 모의 삶의 만족도 ····· 172
〈표 Ⅲ-3- 9〉 부의 삶의 만족도 ····· 173
〈표 Ⅲ-3-10〉 모 일-가정 양립 시 일-가정 이점과 갈등 ····· 174
〈표 Ⅲ-3-11〉 모 일-가정 양립 시 일-양육 이점과 갈등 ····· 175
〈표 Ⅲ-3-12〉 부 일-가정 양립 시 일-가정 이점과 갈등 ····· 176
〈표 Ⅲ-3-13〉 부 일-가정 양립 시 일-양육 이점과 갈등 ····· 177
〈표 Ⅲ-3-14〉 부모의 결혼 상태 및 기간 ····· 177
〈표 Ⅲ-3-15〉 부모의 결혼만족도 ····· 178
〈표 Ⅲ-3-16〉 모의 주관적 건강 상태 ····· 179
〈표 Ⅲ-3-17〉 부의 주관적 건강 상태 ····· 180
〈표 Ⅲ-3-18〉 부모의 1·2급 장애 유무 ····· 181
〈표 Ⅲ-3-19〉 부모의 음주 실태 ····· 181
〈표 Ⅲ-3-20〉 부모의 흡연 실태 ····· 182
〈표 Ⅲ-3-21〉 부모 취/학업 상태 ····· 182
〈표 Ⅲ-3-22〉 부모의 재직 상태 및 직장 변동 여부 ····· 183
〈표 Ⅲ-3-23〉 부모의 종사상 지위 ····· 184
〈표 Ⅲ-3-24〉 어머니 근무일 및 시간 ····· 184
〈표 Ⅲ-3-25〉 어머니의 일자리 만족도 ····· 185
〈표 Ⅲ-3-26〉 부모의 성취압력 ····· 186
〈표 Ⅲ-3-27〉 아동학대 (신체적 학대 경험) ····· 187
〈표 Ⅲ-3-28〉 아동학대 (언어적 학대 경험) ····· 188
〈표 Ⅲ-3-29〉 부모애착: 어머니 ····· 189
〈표 Ⅲ-3-30〉 부모애착: 아버지 ····· 190
〈표 Ⅲ-3-31〉 보호자가 알고 있는 아동의 친구 수 ····· 191
〈표 Ⅲ-3-32〉 하루 중 성인 없이 있는 시간 ····· 192
〈표 Ⅲ-3-33〉 부모의 자녀 감독 수준 ····· 193

〈표 Ⅲ-3-34〉 부모 참여 ····· 194
〈표 Ⅲ-3-35〉 가구 구성 및 가구원 수 ····· 195
〈표 Ⅲ-3-36〉 패널아동의 단독 방 여부 ····· 195
〈표 Ⅲ-3-37〉 월평균 가구 소득 및 어머니 근로소득 ····· 196
〈표 Ⅲ-3-38〉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 196
〈표 Ⅲ-3-39〉 경제적 상황에 대한 가족의 걱정 빈도 ····· 197
〈표 Ⅲ-3-40〉 월평균 지출 ····· 198
〈표 Ⅲ-3-41〉 패널아동에 대한 용돈 지급 여부 및 지급 시 액수 ····· 199
〈표 Ⅲ-3-42〉 패널아동의 용돈 사용처 ····· 200
〈표 Ⅲ-3-43〉 가구 자산 ····· 201
〈표 Ⅲ-4- 1〉 12차년도 학교·사교육 특성 조사 변인 ····· 201
〈표 Ⅲ-4- 2〉 12차년도 지역 및 정책 특성 조사 변인 ····· 202
〈표 Ⅲ-4- 3〉 돌봄서비스 이용 여부 및 유형 ····· 203
〈표 Ⅲ-4- 4〉 돌봄서비스 하루 평균 이용시간 ····· 203
〈표 Ⅲ-4- 5〉 돌봄서비스 주당 이용일 ····· 204
〈표 Ⅲ-4- 6〉 돌봄서비스 월 평균 이용 비용 ····· 204
〈표 Ⅲ-4- 7〉 돌봄서비스 이용 만족도 ····· 205
〈표 Ⅲ-4- 8〉 전학 여부 ····· 206
〈표 Ⅲ-4- 9〉 결석/결석이유 ····· 206
〈표 Ⅲ-4-10〉 설립유형 ····· 207
〈표 Ⅲ-4-11〉 학교 유형 ····· 208
〈표 Ⅲ-4-12〉 전체 학급 수 및 해당학급 학생 수 ····· 208
〈표 Ⅲ-4-13〉 학교 환경에 대한 인식 ····· 209
〈표 Ⅲ-4-14〉 교사 성별 ····· 209
〈표 Ⅲ-4-15〉 교사 연령 및 경력 ····· 210
〈표 Ⅲ-4-16〉 교사 최종학력 ····· 210
〈표 Ⅲ-4-17〉 교사 업무 스트레스 ····· 211
〈표 Ⅲ-4-18〉 아동과 교사 관계 ····· 211
〈표 Ⅲ-4-19〉 창의적 학교 환경 ····· 212
〈표 Ⅲ-4-20〉 부모의 학교생활 참여도 ····· 213
〈표 Ⅲ-4-21〉 부모의 학교행사 참여 여부(중복응답) ····· 214
〈표 Ⅲ-4-22〉 부모의 학교생활 관심정도 ····· 214
〈표 Ⅲ-4-23〉 학교 수업 이외 교육 및 사교육 여부 ····· 215

〈표 Ⅲ-4-24〉 학교 수업 이외 교육서비스 이용 유형(중복응답) ····· 216
〈표 Ⅲ-4-25〉 학교 외 교육서비스 주당 이용시간 ····· 217
〈표 Ⅲ-4-26〉 학교 외 교육서비스 만족도 ····· 217
〈표 Ⅲ-4-27〉 학교 외 교육서비스 월 평균 이용비용 ····· 218
〈표 Ⅲ-4-28〉 학교 외 교육서비스 비용 부담 정도 ····· 218
〈표 Ⅲ-4-29〉 아동이 인식한 사교육: 개수 ····· 219
〈표 Ⅲ-4-30〉 아동이 인식한 사교육: 부담 정도 ····· 220
〈표 Ⅲ-4-31〉 출생 후 총 이사 횟수 ····· 221
〈표 Ⅲ-4-32〉 지역규모 ····· 221
〈표 Ⅲ-4-33〉 6개 권역 구분 ····· 222
〈표 Ⅲ-4-34〉 교육·의료·복지시설 편리성 ····· 223
〈표 Ⅲ-4-35〉 여가 공간·시설 편리성 ····· 224
〈표 Ⅲ-4-36〉 문화시설 편리성 ····· 225
〈표 Ⅲ-4-37〉 교육·의료·복지시설 이용 만족도 ····· 226
〈표 Ⅲ-4-38〉 여가 공간·시설 이용 만족도 ····· 227
〈표 Ⅲ-4-39〉 문화시설 이용 만족도 ····· 228
〈표 Ⅲ-4-40〉 양육환경 안전성 ····· 229
〈표 Ⅲ-4-4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구분 ····· 231
〈표 Ⅲ-4-42〉 생활비 지원 여부 및 지원처 ····· 232
〈표 Ⅲ-4-43〉 지난 1년간 직장 내 육아지원제도 이용비율 ····· 233
〈표 Ⅲ-4-44〉 학교정책 수혜여부 ····· 233
〈표 Ⅲ-4-45〉 학교정책 만족도 ····· 234
〈표 Ⅳ-1- 1〉 조사 차수별 아동의 체중 ····· 237
〈표 Ⅳ-1- 2〉 조사 차수별 아동의 신장 ····· 239
〈표 Ⅳ-1- 3〉 조사 차수별 아동의 BMI ····· 240
〈표 Ⅳ-1- 4〉 차수별 아동의 수면, 미디어이용, 독서시간 ····· 241
〈표 Ⅳ-1- 5〉 차수별 아동의 미디어(인터넷) 이용시간 및 독서 시간 ····· 242
〈표 Ⅳ-2- 1〉 차수별 부모의 취업률 ····· 243
〈표 Ⅳ-2- 2〉 어머니의 종사상 지위 ····· 244
〈표 Ⅳ-2- 3〉 차수별 월평균 가구소득 및 총 지출 ····· 246
〈표 Ⅳ-2- 4〉 차수별 부모의 부부갈등 ····· 247
〈표 Ⅳ-2- 5〉 부모의 결혼만족도 ····· 248
〈표 Ⅳ-2- 6〉 여가 시설 및 문화시설 이용 편리성 ····· 249

〈표 Ⅳ-3- 1〉 탈락 패널의 거주 시·도 분포(2017~2019) ····· 250
〈표 Ⅳ-3- 2〉 제 특성별 패널 탈락 현황 (2017~2019) ····· 251
〈표 Ⅳ-3- 3〉 아동패널 탈락 영향 요인 분석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 ····· 252

그림 목차

[그림 Ⅰ-2-1] 한국아동패널 조사 연도별 참여자 유지율 ····· 18
[그림 Ⅰ-2-2] 한국아동패널 조사 영역 ····· 20
[그림 Ⅰ-3-1] 2020년도 한국아동패널 사업의 구성 ····· 22
[그림 Ⅰ-4-1] 2020년 한국아동패널 조사 개관 ····· 27
[그림 Ⅱ-1-1] 한국아동패널 13차년도 조사절차 ····· 36
[그림 Ⅱ-1-2] 13차년도 조사원 교육 ····· 40
[그림 Ⅱ-1-3] 13차년도 조사 진행도 ····· 43
[그림 Ⅱ-3-1] 13차년도 패널 유지·관리 4대 원칙 ····· 58
[그림 Ⅱ-3-2] 2020년 가정의 달 선물 ····· 59
[그림 Ⅱ-3-3] 2020년 연말 선물 및 초등학교 졸업 선물 ····· 59
[그림 Ⅱ-3-4] 2020년 가정의 달 선물 발송 안내문 ····· 60
[그림 Ⅱ-3-5] 한국아동패널 2008~2020년 조사 참여율 ····· 61
[그림 Ⅱ-4-1] 제11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개최 모습 ····· 64
[그림 Ⅲ-2-1] 아동의 문제행동 측정(CBCL-보호자용 분석 결과) ····· 142
[그림 Ⅲ-2-2] 아동의 문제행동 측정(TRF-교사용 분석 결과) ····· 143
[그림 Ⅲ-2-3] 아동의 내재화 문제행동(TRF-교사용 분석) ····· 145
[그림 Ⅲ-2-4]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TRF-교사용 분석) ····· 147
[그림 Ⅲ-2-5] 아동의 기타 문제행동(TRF-교사용 분석) ····· 150
[그림 Ⅳ-1-1] 조사 차수별 아동의 체중 변화 ····· 238
[그림 Ⅳ-1-2] 조사 차수별 아동의 신장 변화 ····· 239
[그림 Ⅳ-1-3] 조사 차수별 아동의 BMI ····· 240
[그림 Ⅳ-1-4] 차수별 아동의 수면시간 ····· 241
[그림 Ⅳ-1-5] 차수별 아동의 미디어이용, 독서시간 ····· 242
[그림 Ⅳ-2-1] 부모의 취업률 변화 ····· 244
[그림 Ⅳ-2-2] 어머니의 종사상 지위 ····· 245
[그림 Ⅳ-2-3] 부모의 부부갈등 ····· 247
[그림 Ⅳ-2-4] 부모의 결혼만족도 ····· 248
[그림 Ⅳ-3-1] 시·도별 패널 탈락율(2017~2019 기준) ····· 251

부록 표 목차

〈부록 표 2-1〉 차수별 아동 특성 변인 ····· 275
〈부록 표 2-2〉 차수별 부모 특성 변인 ····· 281
〈부록 표 2-3〉 차수별 가구 특성 변인 ····· 285
〈부록 표 2-4〉 차수별 교육 및 돌봄 특성 변인: 영유아기 ····· 287
〈부록 표 2-5〉 차수별 학교·사교육 특성 변인: 아동기 ····· 291
〈부록 표 2-6〉 차수별 지역사회 변인: 일반적 특성 ····· 292
〈부록 표 2-7〉 차수별 정책 변인 ····· 293
〈부록 표 4-1〉 연도별 한국아동패널조사 참여 분포 ····· 302
〈부록 표 4-2〉 12차년도 횡·종단면 자료 무응답 로지스틱 모형 분석결과 ····· 303
〈부록 표 4-3〉 12차년도 최종 횡·종단면 가중치 부여 결과 ····· 303

요약

1. 서론

가. 연구사업의 목적

□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이하 한국아동패널 연구)는 2008년 출생 2,150명 신생아와 그 가구를 대상으로,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추적, 조사하는 20년 장기 동일 패널 대상 연구임.

□ 한국아동패널 연구에서는 발달심리학자인 E. Bronfenbrenner의 생태학적 체계이론과 G. Elder의 생애이론을 기초로 아동발달, 부모특성, 가족특성, 영유아기 교육보육경험 및 학교 특성, 지역사회, 육아지원정책의 영향 등 성장, 양육, 발달을 둘러싼 광범위한 요소들을 조사함.

□ 2020년도 한국아동패널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으로 진학한 패널아동과 그 가족, 학교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신체적, 인지적, 정신적 발달과 변화를 조사하고 그들을 둘러싼 환경의 역할과 영향을 확인하고자 함.

나. 연구사업의 내용

□ 13차년도(2020년) 패널조사 실시

- 13차년도 조사 문항 개발
- 조사 준비 작업 및 실사 진행

□ 제4차 심층조사 실시

□ 12차년도(2019년) 조사결과 자료 분석

- 조사결과 분석 및 보고서 작성

□ 아동패널 자료 활용 활성화 및 성과 확산

- 제11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개최
- 11차년도(2018) 수집 자료 공공데이터로서 일반 개방

□ 패널 유지 업무

- 안내 브로슈어 배포, 선물 송부, 검사결과서 전달, 경품 추첨 활동 등

다. 연구 방법

□ 13차년도(2020년) 조사 및 제4차 심층조사 수행

- 문헌고찰, 전문가 자문회의, 설문조사(패널 일반조사/부모조사/교사조사, 아동 및 부모 대상 심층조사), 아동 수행검사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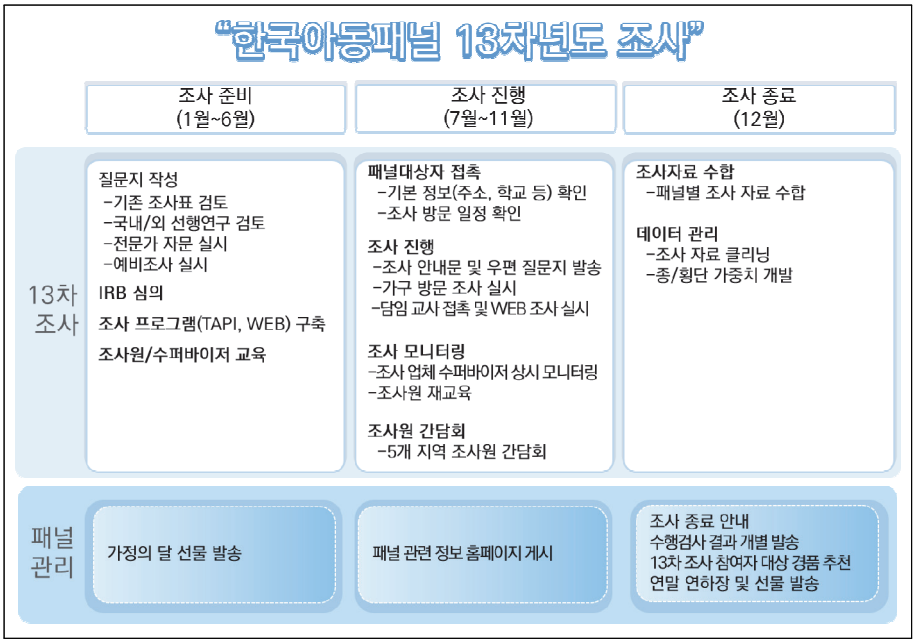
□ 계량적 분석

- 12차년도 자료 분석
- 가중치의 추정 및 적용

2. 13차년도(2020년) 사업 보고

가. 13차년도 조사절차

□ 2020년 13차년도 조사의 절차는 크게 세 단계이며, 다음의 그림과 같음.



나. 13차년도 조사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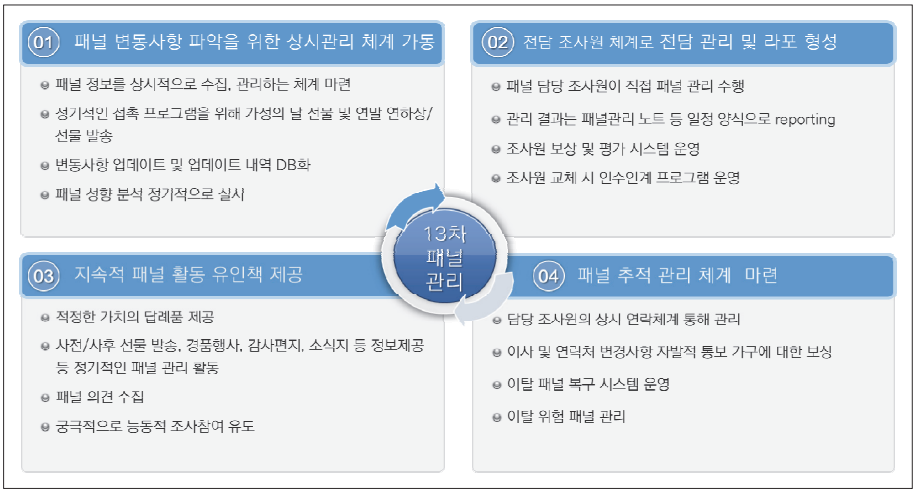
□ 13차년도 조사는 패널아동, 어머니, 아버지, 보호자, 담임교사의 5종 질문지를 통해 다면적으로 실시됨.

- 아동용 조사는 신체계측, 대면 면접(신체자아상 등 신체 및 건강특성, 인지 및 언어발달, 사회 및 정서발달 등), 수행검사(다요인 지능검사)로 이루어짐.
- 부모 대상 질문지는 부부 간 상호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되며, 우편으로 전달하여 지필식 기입을 통해 방문 수거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어머니 대상 질문지는 알러지 심층 문항과 같은 아동 특성과 주관적 행복감, 일-가정 양립 시 이점과 갈등, 부부갈등과 같은 개인 및 부부 특성, 부모신체 및 건강특성, 직업특성, 일부 양육 특성 등을 포함함. 아버지 대상 질문지는 아동 특성을 제외하고 어머니 설문지와 동일함.
- TAPI(보호자용) 조사는 방문 면접 조사로 이루어지며, 아동, 부모, 가구, 학교·사교육, 지역, 정책 특성 등 다분야에 대해 조사함.

  * 2020년 11월까지도 코로나 19로 대면조사를 거부한 일부 패널가정에 한해, 영구적인 패널 이탈 방지를 위해 아동용 일반조사는 웹기반 조사, 보호자용 조사는 전화 설문조사, 아동용 수행검사는 비대면 화상전화로 변경하여 진행함.
- 담임교사 조사는 학교 및 담임교사 특성, 수업 운영과 학교에서 관찰할 수 있는 아동의 특성에 대해 조사하며 Web조사 방식으로 진행됨.
- 2020년은 특별히 제4차 심층조사를 수행하였는데, 아동을 대상으로는 인성검사를, 부모를 대상으로는 정서조절곤란검사, 성격검사를 진행하였고, 모두 지필식 기입방식으로 실시함.

다. 패널 관리

□ 패널 대상자 유지·관리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13차년도 패널 관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됨.



라. 제11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개최

□ 제11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는 2020년 9월 25일(금)에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한가정학회, 한국교육심리학과, 한국아동복지학회, 한국아동학회, 한국초등교육학회와 공동으로 개최되었음.

- 1부에서는 한국아동패널에 대한 소개와 대학원생 논문 공모전 수상 논문 시상 등이 있었음.
- 2부 논문발표 세션에서는 학교적응, 아동발달, 양육, 인지 및 적응 4개의 분과별 주제에 따라 총 25개의 아동패널 연구논문이 발표되었고, 이에 따른 전문가들의 토론이 진행되어 활발한 학술교류의 장이 되었음.
-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원칙에 의거하여 발표, 토론, 좌장 등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하고, 비대면으로 진행하였으며, 본 연구주관 기관의 유튜브채널에서 실시간 생중계되었음.

3. 12차년도(2019년) 조사결과 분석

가. 12차년도 조사대상자 특성

□ 12차년도 조사에 참여한 패널아동의 성별은 남아 51.3%, 여아 48.7%이고 출생순위는 외동아 10.6%, 첫째아 35.5%, 둘째아 이상이 53.8%임. 월령은 평균 136.44개월(만 11.37세)임.

나. 아동 특성

□ 일상생활 특성

- 식생활 관련하여 남녀 아동 간 섭취 경향에 차이가 있어 유제품이나 단백질류는 남아의 섭취빈도가 높고 채소나 과일은 여아의 섭취가 많았음. 또한 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정도에서는 소득이 높은 가구에서 규칙적으로 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왔고, 수면시간에서는 소득이 낮은 가구의 아동의 수면시간이 비교적 더 긴 것으로 조사되었음.
- 아동의 숙제나 학습시간의 길이에서도 가구 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소득이 높은 가구에서 학습시간이 긴 것으로 나왔고, TV나 컴퓨터 등 미디어 이용과 게임시간은 취업모 가정의 자녀가 미취업모 가정 자녀보다 상대적으로 길게 측정됨.
-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이용은 소득이 높은 집단의 이용시간이 긴 것으로 조사되었고, 미디어 중독 정도 검사에서는 남자아이의 고위험 사용 비율이 높았으며 신체활동이나 운동 정도에서도 남자아이의 활동성이 높은 것으로 나왔음.

□ 신체 및 건강 특성

- 패널아동 전체의 약 43%가 안경 또는 시력보정도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신의 신장이나 외모 등에 만족하는 정도에서는 남아가 여아보다 대체로 높았으며 지난 1년간 입원이나 응급실 치료 경험 여부에 대한 질문에서도 남아가 유의하게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인지 및 언어 발달 특성

- 담임교사들이 평정한 패널아동의 학업수행 능력이 상위 20% 이상이 47.6%에 달해 많은 수가 우수한 학업 능력을 가졌다고 볼 수 있는데, 특히 과목들 중 수 연산 등 수학 능력 측면에서 특히 높은 능력을 가진 것으로 교사들이 평가하였음.
- 학교성적에 대한 스트레스에서 여아들의 점수가 남아보다 높은데, 학업적 자기효능감에서는 남아가 높은 것으로 나와 학업 능력과 인식 측면에서 성별 차이가 두드러짐을 알 수 있음.

□ 사회 및 정서 발달 특성

- 아동의 출생순위에 따라 자아정체감 수준이 다른 것으로 나타나는데 외동아

의 자아정체감 점수가 높은 것이 특이한 결과이며, 가구소득에 따라서도 자아정체감에 차이가 나타났음.

- 전반적 행복감에서는 남아가 여아보다 유의하게 점수가 높았고, 과목선호도에 있어서도 남아는 체육과 수학에 대한 선호가 비교적 높고 여아는 남아에 비해 국어와 미술에 대한 선호가 높은 것으로 측정되었음.
- 성격점수에서는 지배성, 개방성, 사고유연성, 친화성 등에서 남아의 점수가 높은 반면, 여아는 신경증, 적대감, 우울, 충동성 등 신경증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소득이 낮은 집단의 아동이 적대감, 우울감 점수가 높고 고소득 집단 아동의 지배성 점수가 높은 특징이 발견됨.
- 학교폭력에의 노출 경험을 보면 전혀 없다라는 응답이 82%고, 18%는 연중 1번 이상의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 중 8.5%는 보다 심각한 정도로 보여, 이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이고 특히 남아에서 노출 정도가 많았음.
- 삶의 전반적 만족도와 상대적 발달지수에서 남아가 여아보다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학교적응에서는 여아의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학교적응에서 취업모의 자녀보다 미취업모의 자녀 점수가 높은 것은 특이점임.
- 결혼과 자녀양육에 대한 의사를 묻는 질문에서 여아가 남아보다 2배 이상 부정적 의사를 나타내어 큰 성차를 보임.

다. 부모 및 가구 특성

□ 부모 특성

- 부모의 심리적 특성과 부부 특성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 최종학력 수준과 가구소득 수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음.
- 어머니와 아버지의 응답을 비교하면, 심리적 특성에서 서로 유사한 수준이나, 주관적 행복감, 삶의 만족도와 같은 긍정적 특성에서 근소하게 아버지가 높게 나타났음. 이러한 차이는 결혼만족도 조사결과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남.
- 일-가정생활(양육) 병행 시 경험하는 이점과 갈등에서도 아버지와 어머니 간 응답에 차이가 있었음. 직장과 가정생활을 병행하면서 겪는 이점은 아버지가 더 높게 인식하고 있었고, 갈등은 어머니가 더 높게 인식하고 있었음. 동일하게 일과 자녀양육 병행 시 느끼는 이점은 아버지가 더 높게 인식하고 있었

고, 갈등은 어머니가 더 높게 인식하고 있었음.

- 어머니의 일-양육 양립 시 이점과 갈등에서, 대도시에 거주하는 어머니가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어머니보다 갈등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음.
- 부모의 건강 특성에서, 대부분 부모가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주관적 건강 상태도 보통 이상의 수준이었으며, 아버지가 어머니에 비해 음주나 흡연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부모의 직업 특성에서 어머니의 취업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음.
- 어머니의 근로 여건과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어머니의 학력이 고졸 이하로 비교적 낮은 경우 근무일과 근무시간이 길어서 근무 강도는 높고,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는 다른 집단에 비해 더 낮게 보고되었음.
- 부모의 양육 특성을 살펴보면, 부모의 성취압력에 대해 남아가 여아보다 학업에 대한 성취압력을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음. 신체적 학대를 경험한 적 있는 아동은 12.4%, 언어적 학대를 경험한 적 있는 아동은 21.8%이었음. 아동은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와 보통 수준 이상의 긍정적인 애착 수준을 형성하고 있었으며, 점수만 비교하였을 때는 어머니와의 애착 수준이 좀 더 높게 나타났음.
- 부모의 감독이나 참여와 관련하여 대부분 어머니의 학력, 취업 여부, 그리고 가구소득에 따른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음.

□ 가구 특성

- 패널 가구 다수(86.6%)가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 형태이며, 평균 자녀 수는 2.22명이었음.
- 여아들이 남아에 비해 가족들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걱정을 좀 더 빈번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아동에게 정기적으로 용돈을 지급하고 있는 가구는 44.1%이며, 이는 2018년 11차년도에 비해 증가한 결과임.

라. 돌봄 및 학교 특성

□ 돌봄서비스

- 아동패널가구의 돌봄서비스 이용 비율은 학기 중 13.5%, 방학 중 15.4%로 나타났는데, 이는 2018년 11차년도 조사의 결과(학기 중 27.6%, 방학 중

18.5%)보다 감소한 결과임.

- 돌봄서비스 이용 유형은 조부모/친인척이 맡아주는 경우가 80% 내외로 나타나 조부모/친인척에 대한 돌봄 의존도가 매우 높은 수준임을 보여주었음. 학기 중 초등돌봄교실 이용 비율은 5.9%이나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비율은 14.8%로 작년과 비슷하게 나타났음.
- 돌봄서비스의 하루 평균 이용시간은 조부모/친인척의 경우 학기 중 4.51시간, 방학 중 6.3시간으로 가장 많았음.
- 돌봄서비스 월 평균 이용 비용은 학기 중과 방학 중 모두 비혈연 대리양육자를 이용하는 경우가 가장 높았고, 학기 중에는 초등돌봄교실의 이용 비용이 가장 낮았으나, 방학 중에는 지역아동센터가 가장 낮았음. 돌봄서비스 이용 만족도는 학기 중과 방학 중 모두 조부모/친인척이 가장 높았고, 비혈연 대리양육자를 이용하는 경우가 가장 낮았음.

□ 학교 특성

- 전체 아동의 9.8%가 전학한 적이 있었고, 17.5%가 결석한 적이 있었음.
- 학급운영에서 아동 교사 관계는 5점 척도 기준으로 평균 3.9점, 갈등 정도는 평균 1.36점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음.
- 가정협력에서 부모의 학교생활 참여와 관련하여, 참여한다는 응답이 56.6%이었고, 부모의 학교생활 관심 정도에서는 관심을 보인다는 응답이 74.4%였음.
- 보호자를 대상으로 사교육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학교 수업 이외 교육에 대해서는 전체의 96.3%가 이용한다고 응답하였고, 사교육에 대해서는 전체의 93%가 이용한다고 응답하였음. 학교 수업 이외의 교육서비스 이용 유형(중복응답)을 보면 영어가 7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수학이 72.1%였음. 학교 외 교육서비스 주당 이용시간으로 학원이 8.49시간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주민센터, 복지관 등 공공기관이 4.98시간이었음.
- 학교 외 교육서비스 월 평균 이용 비용을 보면 학원이 36.67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가정 내 개인/그룹과외가 20.19만원으로 나타남. 주민센터, 복지관 등 공공기관은 4.42만원으로 이용 비용이 가장 낮았음.
- 패널아동이 받고 있는 사교육 개수가 적당한지에 대해서는 적당하다는 응답이 77.4%로 가장 많았으며, 패널아동이 인식하는 사교육의 부담 정도에 대해서는 부담스럽지 않다는 응답이 64.2%로 과반을 넘었음.

마. 지역사회 특성

□ 패널가구의 출생 후 총 이사 횟수는 1회가 31.2%, 2회가 13.4%였음.

□ 패널가구가 거주하는 지역 규모는 54.6%가 중소도시, 대도시는 40.1%, 읍면지역은 5.3%였으며, 패널 거주지역을 6개 권역으로 구분한 결과, 경인권에 거주하는 가구가 31%로 가장 많았음.

□ 보호자에게 양육환경에 대해 조사한 결과, 패널가구 중 60% 이상이 의료기관 접근성이 편리하다고 응답하였고, 47.2%와 39.7%의 가구가 각각 교육기관과 공공복지시설 접근이 편리하다고 응답하였음.

□ 여가공간과 시설 접근 편리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놀이터, 공원, 산책로 이용이 편리하다는 응답이 많았고, 이러한 응답은 대도시가 읍면지역보다 유의미하게 높았음.

□ 실내체육시설 및 실외체육시설에 대한 접근성과 영화관 및 도서관 접근성에 대해서는 대도시가 읍면지역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음.

□ 교육, 의료, 복지시설에 대한 만족도 관련하여 의료기관에 대한 만족도가 60%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의료기관과 교육기관의 이용 만족도는 대도시가 읍면지역보다 유의미하게 높았음.

□ 지역 내 여가공간 및 시설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놀이터, 공원, 산책로에 대한 만족도가 6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음.

□ 문화시설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영화관과 도서관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이 6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음.

□ 양육환경 안전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범죄로부터의 안전, 유해시설로부터의 안전, 경찰이나 방범대원의 정기순찰은 6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음. 정기순찰에 대한 평가는 대도시가 읍면지역보다 유의미하게 높았음.

바. 정책 특성

□ 전체 패널가구 중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97.3%로 차상위계층은 1.9%,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는 0.8%로 나타났음.

□ 지난 1년간 직장 내 육아지원제도를 활용한 경우에 대해,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90% 이상으로 전년도와 별다른 차이는 없었음. 이용

률이 높은 제도는 아버지는 유연근무제(5.1%), 어머니는 육아휴직(3.5%)으로 나타났음.

□ 보호자에게 학교 정책의 수혜 여부에 대해 질문한 결과, 학교폭력예방정책, 학교급식안전관리가 6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고, 진로탐색교육은 51.3%로 전년도의 48.3%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음.

□ 학교정책 만족도에 대한 질문에서는 대부분의 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7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가족체험 학습 출석 인정 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82.8%로 가장 높았음.

4. 주요 변인 종단적 추이 분석

가. 아동 특성

□ 체중 특성에서는 만11세가 넘은 2019년에는 이전년도에 비해 남녀모두 약 6kg의 증가가 있었고 증가폭이 그 전 어느 때보다도 큰 것으로 나타남.

□ 신장 특성에는 12차년도(11세)에 남녀 간 신장의 차이가 역전된 결과를 보였음. 10차년도(9세)까지는 남아가 여아보다 다소 큰 경향을 보였는데 12차년도(11세)에는 결국 여아의 평균이 더 커졌음. 그러나 표준편차는 이전년도 보다 상당히 큰 수치를 나타냄.

□ 아동의 수면시간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는데, 평균 매년 10분 정도씩 수면시간이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아동의 미디어 이용시간은 점차 길어지고 독서시간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경향을 보임.

나. 부모 및 가구 특성

□ 어머니의 취업률은 해마다 조금씩 상향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자녀가 만11세가 된 12차년도 조사에서는 어머니의 59.1% 이상이 취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11차년도에 비해 약 4%p가 늘어난 결과임.

□ 아버지의 취업률은 96.5%가 취업중인 것으로 나타나 연도 간 1~3%p씩 차이를 보이고는 있으나 12차년도에는 11차년도에 비해 아버지 미취업 비율이 1.5%p 떨어졌음.

□ 취업모인 경우 어머니의 종사상 지위를 연도별로 비교해보면, 자녀가 태어날 무렵에는 85.7%가 정규직/상용직이었으나 자녀가 만1세일 때 80% 이하로 비율이 떨어졌고 점차 줄어들어, 그 이후 취업 어머니의 정규직 비율은 65% 이내로 정체되어 있는 경향임.

□ 월평균 가구소득은 꾸준히 증가되고 있는 경향을 알 수 있는데, 12차년도에는 565.4만원이 평균으로 조사되어 전년도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고, 표준편차는 좀 줄어들어 가구간 소득 격차는 적어진 듯함. 월평균 가구소득의 중간값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음.

□ 가구 총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12차년도에는 이전년도에 비해 12만원 가량 높아졌음. 자녀에 대한 지출이 전체 가구 지출의 33.2%를 차지하고 가구 소득 대비로 27.1%를 차지함. 기존의 자녀에 대한 지출을 전체 가구 지출 대비 비율로 보면, 각 연령별로는 0세는 24.5%, 2세 17.4%, 5세 32.7%, 8세 33.4%로 나타나 영아기를 벗어나서 유아기부터 아동기는 거의 비슷한 비중으로 지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1차년도부터 측정해온 부모 갈등 점수를 보면 어머니의 경우 7차년도 6세를 기점으로 갈등점수가 줄어들면서 안정화된 모습을 보이고 아버지의 경우는 연도마다 오르락내리락하는 점수 변화를 보임.

□ 부모의 결혼만족도는 이전연도에 비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고, 자녀가 6세가 된 이후 부부 모두 조금씩 상승하는 모습을 보임.

□ 거주 가정에서의 여가시설 및 문화시설 이용 편리성과 관련하여 영아기에는 이들 시설에 대한 접근 편리성이 높은 편이다가 유아기가 되면서 떨어졌음. 그러나 자녀가 초등학교에 들어간 이후에는 조금씩 상승하는 경향을 보임.

5. 정책 개발을 위한 시사점

□ 초등학교 내 집단 폭력의 심각성 인지와 적극적 대응 필요

- 월 1회 이상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다는 비율이 8.5%에 이르고 있으므로, 초등학교 시기 아동들 간 폭언, 폭력, 따돌림 등 학교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가해 아동에 대한 재발 방지 교육, 피해 아동에 대한 정서적, 심리적 치료를 통해 이러한 현상이 더 심화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할 필요가 있음.

□ 아동 성별에 따른 전문적 심리 건강 지원

- 초등학생 남아와 여아가 가진 성차에 따라 심리적 건강과 발달을 지원하는 강조점을 다르게 둘 필요가 있으며, 특히 5학년 여아에 대해서는 자존감과 자기효능감 훈련 기회가 있어야 함.

□ 초등 자녀 양육과 교육 활동에 대한 아버지 참여 활성화

- 자녀 학교 상담이나 교육 활동에 대한 어머니 참여 편중 현상이 여전하므로 아버지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유연근무 강화 등 사회 제도적 장치 마련과 활용 보장이 필요함.

□ 한국아동패널 자료에 대한 심층 분석 필요

- 정책 개발을 위한 아이디어 도출을 위해 패널 데이터에 대한 다측면적 분석과 심층적 논의의 노력이 추가적으로 필요해 보임.

I

서 론

01 연구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02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한국아동패널) 조사 개요

03 2020년 연구사업 내용

04 2020년 연구사업 방법

05 아동패널 자료의 활용 현황

06 보고서 구성

Ⅰ. 서론

1. 연구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한국아동패널 연구)는 2008년 4월~9월 사이 출생한 2,150명의 신생아와 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우리나라 아동의 성장과 발달, 그에 대한 환경적 영향에 대한 광범위한 자료의 수집을 목적으로 시작된 20년 장기패널 조사 연구이다. 본 연구는 미국의 발달심리학자인 E. Bronfenbrenner의 생태학적 체계이론과 G. Elder의 생애이론을 기초로 아동발달, 부모특성, 가족특성, 영유아기 교육·보육경험 및 학교 특성, 지역사회, 육아지원정책의 영향 등 성장, 양육, 발달을 둘러싼 광범위한 요소들을 매년 조사해 오고 있다.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이하 한국아동패널 연구)는 2020년 현재 13년차를 맞이하였다. 지금까지 연구에 참여해온 패널아동들은 만12세가 되었고 대부분 초등학교 6학년으로 진학했으며 전 해인 2019년 조사결과 총 1,412명이 패널로 유지되고 있다. 2020년 조사에서도 기존과 같이 초등학교 고학년인 패널아동들의 인지적·신체적·심리적 측면의 발달과 변화에 대한 측정과 조사를 진행하고, 가정, 학교, 지역사회와 패널아동들 간의 역동성 및 다양한 영향 관계, 부모와 교사, 또래친구들과의 상호관계성 등에 연결된 문제에 답을 찾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종단연구는,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종단연구는 한 인간으로서 또는 코호트로서의 성장, 발달의 궤적을 시간의 흐름과 함께 파악함과 더불어 교육정책을 비롯한 환경이 그에게 미친 영향을 양적으로, 질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하는 매우 희귀한 원천자료를 생산한다. 그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심리학, 교육학, 사회학, 아동학, 행정학 등 여러 학문 분야에서 관련 변인과의 분석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학자들에게 간학문적 통찰과 이를 통한 사회적 변화에 정확한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 종단연구의 역할일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20년이라는 장시간 동안 동일 패널을 유지하며 해마다 조사를 진행하고 매해 보고서를 발간해야하는 종단연구는 지속적인 끈기와 과업에 대한 깊은 책임감, 그리고 안정적 재정 기반을 갖추고서야 가능한

일이다. 이러한 환경과 의지 속에서 2020년 제13차 한국아동성장발달 종단연구가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해마다 한국아동패널은 직전 연도에 수합된 데이터를 공개하여 학자들로 하여금 이를 이용한 연구논문을 작성하고 발표하도록 장려하고 있으며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보다 많은 관련자가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18년부터 국가가 승인·관리하는 공공데이터포털(https://www.data.go.kr)에 등록 데이터로 선정되어 학자, 언론인, 산업기술인 등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다방면에서 더욱 활발한 데이터 활용이 기대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아동학, 교육학 등 일부 영유아발달이나 교육, 보육, 복지 분야 학술 연구에 치우쳤던 연구논문들이 보다 통섭적이고 종합적인, 그리고 실용적인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020년도에도 한국아동패널에서는 초등학교의 제일 마지막 학년인 6학년 패널 가구를 대상으로 아동과 그 가족, 학교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하여 아동의 신체적, 인지적, 정신적 발달과 적응, 변화를 조사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둘러싼 환경의 역할과 영향을 드러내는 데이터를 생성하고, 기존 자료의 정확한 제공을 통해 패널 종단 데이터를 이용한 연구의 활성화에 더 큰 성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지금까지 13년간 조사 진행 과정 속에서 총 4번째에 해당하는 제4차 심층조사도 진행하였다.

심층조사는 한국아동패널 연구의 두드러지는 특징 중 하나로, 비용이나 시간, 대상 특성으로 인해 전체 패널에게 실시하기는 힘들지만 패널 종단 연구에 반드시 필요한 특정 변인을 발굴하여 일부 가능한 패널만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조사이다. 지금까지 2009년 1차, 2013년 2차, 2016년 3차의 심층조사가 이루어졌으며 각각 영아의 인지, 정서, 건강 측면의 전문적 수행검사 또는 전문병원의 알레르기 검사를 실시한 바가 있었다. 이러한 심층조사는 전국의 관련 전문가가 거점 대학이나 병원을 중심으로 하여 수행했으며 전체 패널 중 200~400여명에 대해서 진행되었다.

한편 2020년 제4차 심층조사는 여러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패널아동뿐 아니라 아동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대상으로 아동기 이후의 발달과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변인을 선정하여 수행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조사의 주제는 '정의적 변인의 측정: 인성, 정서, 성격'으로 정하였다. 결과적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는 성격과 정서조절능력, 아동에게는 인성검사를 실시하였다. 심층조사를 통해서는 비록 전체 패널의 1/3 정도 참여자에게서만 데이터를 얻을 수 있지만 아동의 인성 형성과 발달에 관한 의문점을 풀어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데이터로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2.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한국아동패널)[1] 조사 개요

가. 진행 경과 및 의의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는 2008년부터 시작하여 2027년까지 지속적으로 매년 동일한 패널아동과 가구에 대해 조사하는 종단연구이다. 2006년 패널연구를 위한 모형이 개발되었고 2007년 예비조사를 거쳐 2008년 제1주기 패널조사가 진행되었다. 초기에는 패널아동이 초등학교 6학년이 되는 2020년까지를 조사 기간으로 예상하였으나, 아동에 대한 성장, 발달을 매년 측정하는 패널자료의 희귀성과 중요도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어 패널아동이 만19세가 되는 2027년까지 7년을 더 확장하여 실시하는데 정부(기획재정부)가 동의하였다. 그러므로 한국아동패널 연구는 2008년 출생 아동의 신체, 인지, 정서 등 전인적 성장과 발달 및 보육, 교육, 사회관계, 정책 등 환경 변화의 영향을 포괄하여 산출하는 인간발달 데이터를 신생아기부터 성인초기까지 모두 포함하는 기간(基幹) 자료로서 의의를 갖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육아정책 수립과 발전에는 한국아동패널이라는 20년 간의 종단자료가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나. 조사대상

한국아동패널 조사는 아동과 아동의 부모, 아동이 영유아기에 다니는 보육·교육기관과 아동기 이후 학교에서 만나는 담임교사를 모두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는 '다면적 조사'이다. 표본은 2008년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아동 2,150명이며 대표성을

1) 2008년 첫 주기 조사가 시작되었던 '한국아동패널연구'가 2016년부터는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한국아동패널Ⅱ)'로 행정상의 이유로 명칭을 변경하여 지속되었음. 동일한 패널아동에 대한 동일 내용의 조사가 그대로 연결된 경우이므로 초기 정착된 한국아동패널이라는 명칭이 학계에서 더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본 보고서에도 두 명칭을 혼용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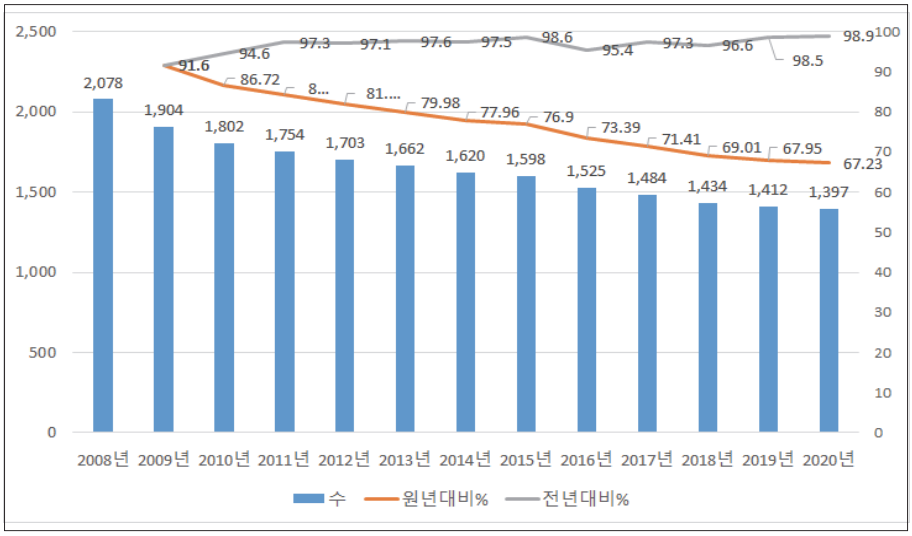
확보하기위해 층화다단계추출법을 사용하여 2단계로 표집하였다. 1단계에서는 전국을 6개 권역(서울, 경기, 충청/강원, 경북, 경남, 전라)로 구분하고 신생아 분만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을 추출하였고, 2단계에서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분만한 산모를 대상으로 2,150명의 신생아 가구를 표집하였다. 2020년 현재 패널아동은 초등학교 6학년 만12세가 되었고 1,397명(67.2%)이 2020년 조사에 참여하였다.

〈표 Ⅰ-2-1〉 한국아동패널 조사 참여자 유지 현황

년도	서울/경기[1)]	부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충청	광주/전라	전체	전년대비 %	원년대비 %
2008년	992	349	240	271	226	2,078	-	
2009년	879	320	221	271	213	1,904	91.6	91.6
2010년	838	309	213	246	196	1,802	94.6	86.7
2011년	809	299	216	239	191	1,754	97.3	84.4
2012년	784	291	199	234	195	1,703	97.1	82.0
2013년	759	287	198	222	196	1,662	97.6	80.0
2014년	731	281	188	227	193	1,620	97.5	78.0
2015년	727	284	180	223	184	1,598	98.6	76.9
2016년	692	277	180	198	178	1,525	95.4	73.4
2017년	685	261	170	188	180	1,484	97.3	71.4
2018년	649	253	164	188	180	1,434	96.6	69.0
2019년	634	252	159	184	183	1,412	98.5	68.0
2020년	642	247	157	175	176	1,397	98.9	67.2

1) 강원, 제주 포함

[그림 Ⅰ-2-1] 한국아동패널 조사 연도별 참여자 유지율



다. 조사 구성과 방법

한국아동패널 조사는 일반조사와 심층조사로 구분이 가능하고, 일반조사는 매년 1회, 심층조사는 2~4년의 기간을 두고 적정한 시기에 주요한 변인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다.

〈표 Ⅰ-2-2〉 한국아동패널 연도별 실시 계획

구분	만 0~2세	만 3~6세	만 7~9세 (초등1~3)	만11~12세 (초등4~6)	만13-15세 (중 1~3)	만16-18세 (고 1~3)	만 19세 (대학교 1)	심층 조사
시기	영아기	유아기	아동초기	아동후기	청소년초기	청소년후기	성년기	
2008년	1차							
2009년	2차							1차
2010년	3차							
2011년		4차						
2012년		5차						
2013년		6차						2차
2014년		7차						
2015년			8차					
2016년			9차					3차
2017년			10차					
2018년				11차				
2019년				12차				
2020년				13차				4차
2021년					14차			
2022년					15차			
2023년					16차			
2024년						17차		5차
2025년						18차		
2026년						19차		
2027년							20차	6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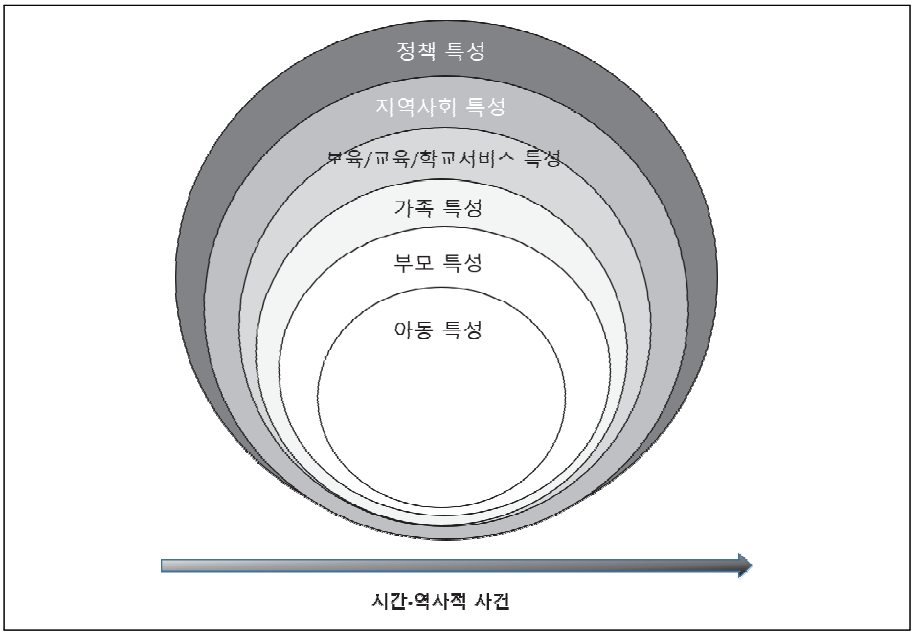
주: 한국아동패널 조사는 크게 '일반조사'와 '심층조사'로 구분됨. '일반조사'는 한국아동패널의 기본조사로써 매년 실시함. '심층조사'는 2~4년에 한 번씩 시행되며, 문항 내용 및 검사 방법이 일반조사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내용을 실행함.

1) 일반조사

일반조사는 한국아동패널의 기본조사로서, 아동을 둘러싼 주요 환경에 대한 조사와 아동의 사고, 신체, 감정 등 전분야의 발달을 측정하는 검사(문항)로 크게 구성되어 있다고 하겠다. 주요 환경에 대한 조사는 아동의 주양육자 혹은 아버지와 어머니,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교사가 대상이 된다.

한국아동패널은 Bronfenbrenner(1979, 1989: 이정림 외, 2011, 재인용)의 생태학이론과 Elder(1998, 2006: 이정림 외, 2011, 재인용)의 생애이론을 이론적인 틀(frame)로 삼아, 성장·발달하는 아동의 주위에 있는 환경을 체계적·종합적으로 분류하고 이에 따라 조사 영역을 조직하였다(이정림 외, 2011). 조사 영역은 출생 후 연령에 따른 발달영역별 아동특성과 아동의 주요 환경인자로는 부모, 가족, 보육서비스, 교육의 특성을 각각 조사하고자 하였다. 또한 정책적 시사점의 도출과 환경적 영향의 이해를 위해 아동이 속한 지역사회 및 국가인 거시(巨視) 체계를 연구 영역에 포함하였다.

[그림 Ⅰ-2-2] 한국아동패널 조사 영역



자료: 장명림·신나리·박수연(2006). 아동패널조사 모형개발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 66. [그림 Ⅳ-1-1]을 가져와 일부 단어를 변경하였음.

일반조사는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설문조사와 아동에 대한 발달검사를 기본으로 한다. 설문조사는 질문지를 이용한 가구방문 면접조사와 우편조사를 병행한다. 가구방문 면접조사는 TAPI 방식으로 조사대상아동의 주양육자인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다. 경우에 따라서 주양육자에 해당하는 어머니 외의 다른 성인 가구원이

응답할 수 있으나, 대상 아동과 동일 가구 거주자이더라도 비혈연 관계(예: 유급 비혈연 육아 도우미 등)인 가구원은 응답자에서 제외된다. 우편조사는 가구방문 면접조사에 앞서 각 가구에 우편 발송한 후, 조사원이 면접조사를 위해 각 가구를 방문할 때 취합하는 유치조사 방식을 활용한다. 대상 아동의 발달특성을 조사하기 위한 검사는 가구방문 시 면접조사와 함께 실시한다(이정림 외, 2011).

이와 더불어, 패널아동이 다니는 유치원, 어린이집(영유아기) 및 학교(아동기 이후)의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웹조사를 별도로 실시한다.

2) 심층조사

한국아동패널에서는 2009년, 2013년, 2016년, 2020년의 4차례에 걸쳐 심층조사를 실시하였고, 이후 2024년과 2027년에 추가적 심층조사를 더 계획하고 있다.

심층조사의 실시 목적에 대해, 이정림 외(2011)은 “아동기는 신체 및 운동, 언어, 인지, 사회·정서 등 모든 발달의 변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시기로 1년에 한 차례 이루어지는 일반조사로는 아동들이 발달해 가는 양상을 포착하기에 불충분할 수 있다. 따라서 아동의 발달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를 추가로 수행하여 아동의 발달 상태 및 주변 인적환경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자료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하였다. 심층조사는 2,000명에 가까운 전체 패널을 모두 대상으로 하기 어려운 여건이므로 일부(※차수에 따라 200~500명으로 차이가 있음) 패널을 표집하여 동의를 받고 진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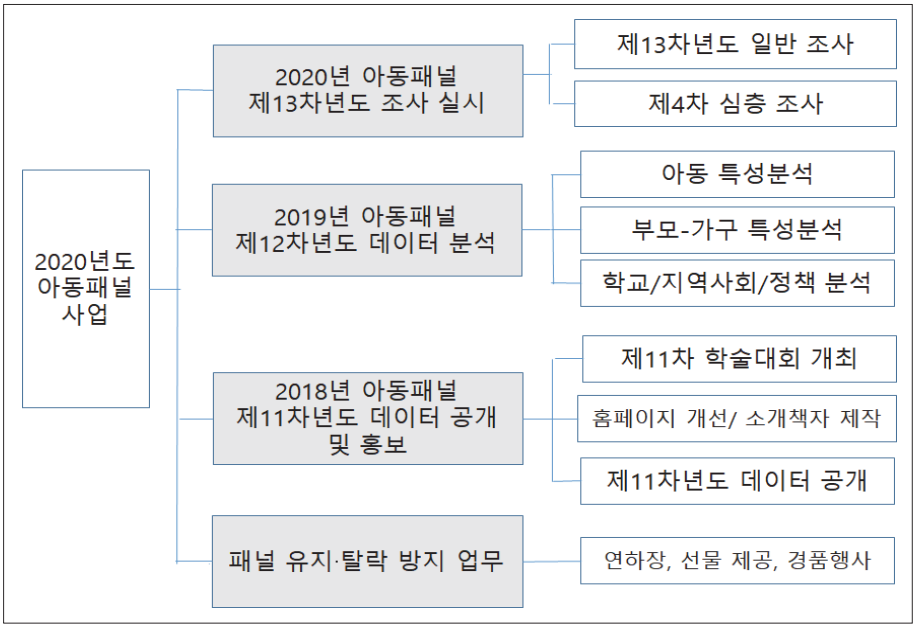
제1차 심층조사가 진행되었던 2009년에는 만1세 영아의 인지, 동작, 행동 등 발달 전반을 전문가가 참여하여 베일리(Bayley) 발달검사와 그 외 기질, 성격, 애착 검사를 진행하였고, 2013년 제2차 심층조사에서는 400여명 5세 아동들에게 어휘력 검사와 지능검사를 실시하였다. 2015년과 2016년 초반에 걸쳐 진행된 제3차 심층조사는 유수 종합병원인 서울아산병원 소아청소년과 의료진과 함께 전국의 소아알레르기 분야 전문의 20여명이 참여한 알레르기, 천식 관련 검사를 병원 방문을 통해 진행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모두 데이터화되어 일반 공개되고 있다.

2020년 진행될 예정인 제4차 심층조사에서는 인간발달의 정의적 영역인 인성과 성격에 관심을 두고 만12세 패널아동의 인성검사와 더불어 부모의 성격, 정서조절 등 심리검사를 실시하였다.

3. 2020년 연구사업 내용

한국아동패널의 13차년도인 2020년도 연구사업의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그림 Ⅰ-3-1 참조). 지속되는 아동패널 제13차년도 조사의 실시, 2019년도 조사 데이터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 2018년 조사된 제11차년도 패널 조사 데이터의 일반 공개와 활용 홍보를 위한 활동, 그리고 조사 참여자인 패널가구의 탈락을 방지하고 유지하기 위한 활동이다.

[그림 Ⅰ-3-1] 2020년도 한국아동패널 사업의 구성



가. 13차년도(2020년) 조사 실시

2020년도에 제13차년도 아동패널 일반조사와 제4차 심층조사를 실시하였다.

1) 13차년도 일반조사 문항 개발과 조사 실시

한국아동패널이 지속적으로 조사해 온 주요 변인들을 검토하여 현 시점에서 적절한 문항이 될 수 있도록 유지, 추가, 삭제 여부를 결정하였다. 또한 아동패널조사

모형개발 연구(장명림·신나리·박수연, 2006)에서 제시한 조사 영역 및 변인을 토대로 하되, 만11세 아동의 발달 특성에 대한 이론적 탐구를 통해 아동의 연령과 발달에 적합한 발달검사 및 조사 문항들을 선정하였다. 특히 아동의 학교생활과 인지, 정서, 사회성 등 발달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변인을 보강하였다.

개발된 2020년도 문항 질문지를 다음의 〈표 Ⅰ-3-1〉과 같이 구성하여 전체 패널아동과 부모,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조사 실시 이전에 IRB 승인을 요청하였고 육아정책연구소 IRB 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아 진행하였다.

〈표 Ⅰ-3-1〉 2020년 한국아동 종단연구 조사대상별 주요 내용[2)]

대상	구분	주요 조사내용
패널아동의 주양육자	대면 TAPI 조사	가구 및 지역사회 특성(가구원 구성, 가구 경제, 물리적 환경, 가족 상호작용, 지역사회 인프라 및 안전성 등) 주양육자 특성(직업 특성, 사회적 지지, 양육태도 등) 아동 특성(공사교육 이용, 건강 특성, 미디어 이용 등)
	대면 PAPI 조사	아동 특성(문제행동 등의 심리·사회적 특성)
패널아동의 어머니, 아버지	우편 PAPI 조사	부모의 심리·사회적 특성(우울, 결혼만족도, 행복감 등) 부모의 건강 특성(흡연, 음주, 주관적 건강 상태 등) 양육 관련 특성(교육관, 자녀와의 상호작용 등) 아버지의 직업 특성(직업 상태, 직업군 등)
패널아동	대면 TAPI 조사	신체 특성(신장, 체중, 허리둘레 등) 심리적 특성(행복감, 자아존중감, 미래기대 등) 일과 및 사회적 특성(또래관계, 하루생활 시간 등)
	대면 수행 검사	인지능력, 성격 또는 도덕성 검사
아동의 학교 담임교사	온라인 CAWI 조사	학교 및 학급 특성(소속 교육청, 물리적 환경 등) 교사 특성(인구학적 특성, 수업방식 등) 아동 특성(집행기능, 강점/약점, 학업수행 정도 등)

주: 1) TAPI: Tablet Assisted Personal Interview
2) PAPI: Pap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
3) CAWI: Computer Aided Web Interviewi

2020년 13차년도 조사의 경우, 코로나 19로 인해 전체 가구를 전면 대면조사로 진행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다. 지역별 코로나 19 확진자 추이를 고려하여,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되도록 기존과 같은 조사방식을 통해 데이터 품질

2) 2020년 조사의 구체적 내용과 실시 과정은 본 보고서 제Ⅱ장에서 상술함.

유지와 패널가구 유지 및 관리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11월부터는 일부 대면조사를 거부한 패널가구에 한해 웹기반 설문, (영상)전화설문으로 전환하여 조사하였다.

2) 제4차 심층조사 실시

2020년 초등학교 6학년인 패널아동과 그 부모를 대상으로 제4차 심층조사를 진행하였다. 심층조사는 전체 가용 패널 1,400여명 중 조사 참여에 동의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부모 및 아동의 심리적 특성을 측정하는 수행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구체적인 주제는 전문가 자문회의, 육아정책연구소 내부 동료 멘토링 등 의견수렴 및 연구진의 판단을 통해 확정하였다. 아동 특성으로 인성검사를 채택하였고 부모 특성으로는 성격검사와 함께 정서조절곤란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를 실시하였다.

나. 12차년도(2019년 실시) 조사 자료 분석 및 결과 보고

2019년에 실시된 12차년도 조사의 데이터를 클리닝하고 결과를 분석하였다. 자료의 횡단 분석을 통해 주요 변인을 중심으로 아동의 성장 및 발달과 초등학교 5학년 시점의 생애주기 특성을 파악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와 더불어 1~12차년도 자료에 포함된 연도별 연속적 변인들을 중심으로 종단분석을 실시하여, 2008년부터 2019년까지 11년간 축적된 자료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았다.

다. 11차년도(2018년 실시) 데이터 공개 및 홍보

1) 학술대회 개최

제11회 한국아동패널 연구논문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2018년도까지 누적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작성한 국내 유수 연구자들의 논문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장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관한 국내 종·횡단연구 활성화를 도모하고, 아동패널 자료의 활용도를 높이며 관련 분야 연구자간 내실 있는 학문적 교류를 지원하고자 하였다. 또한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아동패널 자료의 국가적 중요성을 내외로 인지시키며, 결과가 보여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정부 관련자에게 홍보

하였다. 뿐만 아니라 역량 있는 신진 연구자들을 선정하여 포상하고 향후 아동패널 자료를 활용한 연구논문 생산의 확대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2) 패널자료 활용성 제고를 위한 웹페이지 관리

공공데이터 포털과 연계되어 있는 개정된 아동패널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데이터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다. 지금까지 패널자료 분석이 보여주는 여러 의미 있는 통계자료를 시각적으로 게시하고, 아동패널 자료를 활용한 종단 및 횡단 분석 연구 논문, 학술대회 발표 자료 등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업데이트하였다.

3) 데이터 공개 작업

패널조사의 제11차년도인 2018년에 수집된 자료를 일반에게 공개하기 위해 데이터 전반에 대한 검토 작업을 실시하고. 접근성과 활용성 제고를 위한 데이터 형태 전환(SPSS, SAS, STATA, EXCEL 등으로 변환)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를 국가공공데이터 포털에 연결하고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공개 준비작업을 거쳐 2020년 12월 말 일반공개하였다.

라. 패널가구 탈락 방지 및 유지를 위한 업무

조사에 참여하는 패널을 유지하고 데이터의 질을 관리하기 위해 패널가구 이탈 방지를 위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며, 여기에는 패널 조사 참여 및 중요성에 대한 안내문 발송, 브로슈어 제작, 연하장 및 선물 제공 등이 포함된다.

4. 2020년 연구사업 방법

가. 13차년도(2020년) 일반조사 및 제4차 심층조사 수행 관련

1) 문헌고찰

○ 기존 조사 문항 검토 및 수정

○ 관련 심리·발달검사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 아동패널 기존 연구 보고서 검토

2) 전문가 회의

○ 초등학교 6학년 신규 조사 변인 제안 및 검토
○ 신규 및 기존 문항의 적절성 검토
○ 추가 변인 선정과 문항에 대한 의견 수렴
○ 심층조사 실시 방법 및 주요 내용 선정
○ 한국아동패널 활용성 제고를 위한 패널사업 개선 방안 논의 등

〈표 Ⅰ-4-1〉 전문가 자문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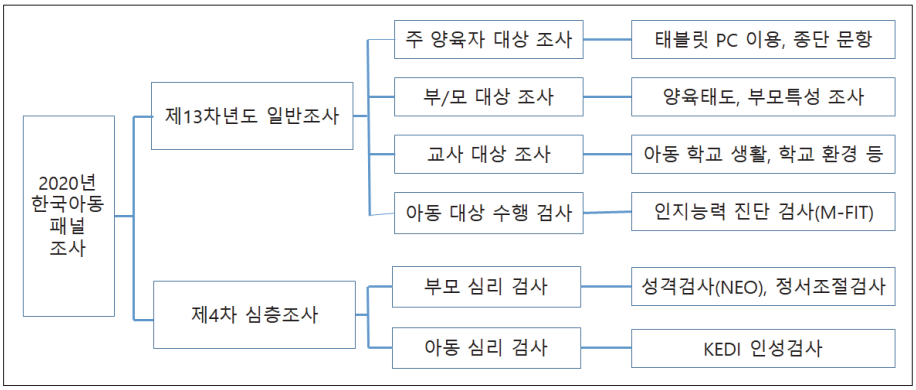
	일정	참석 전문가 (전문 분야)	비고
1차	2020. 3	김○○(초등교육) 교수	조사 계획 검토
2차	2020. 4	박○○, 최○○, 이○○(교육학), 정○○(사회복지학), 김○○, 김○○(초등교육학), 박○○(아동가정복지학) 교수	조사 문항 및 중장기 계획 검토
3차	2020. 5	홍○○, 오○○, 이○○ 교수(소아호흡기 내과 전문의)	알레르기 관련 건강 문항 개발
4차	2020. 6	박○○(교육학) 교수, 하○○(경제학) 연구위원	보고서 구성 자문
5차	2020. 10	이○○, 염○○(유아교육) 교수	조사결과 분석 및 아동패널 활용성 제고 방안 자문

3) 조사 실시

2020년 아동패널 조사는 [그림 Ⅰ-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13차년도 일반조사와 제4차 심층조사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조사는 주양육자(주로 어머니) 대상 조사와 아버지 대상 조사 및 어머니 대상 조사, 그리고 아동의 학교 담임교사 대상 조사가 있고 아동을 대상으로 한 수행 검사가 있다. 이번 13차년도 조사에서 아동 수행 발달 검사로서는 '인지능력 진단 검사'를 실시하였다.

심층조사로는 부모 심리 검사로서 성격검사, 정서조절검사를 실시하였고, 아동 심리검사로서 KEDI 인성검사를 진행하였다.

[그림 Ⅰ-4-1] 2020년 한국아동패널 조사 개관



가) 주양육자 대상 조사(TAPI 조사)

○ 조사대상: 아동패널 1,589가구의 아동 및 양육자(주로 어머니)

○ 조사내용

- 패널 특성조사: 아동 특성, 부모 특성, 가구 특성, 학교 및 돌봄서비스 이용 특성, 지역사회, 육아정책에 대한 인식 등

○ 조사방법: 컴퓨터 프로그램화된 테블릿 PC용 설문(TAPI)을 이용한 대인면접

* 2020년 11월 기준으로 코로나 19로 대면조사를 거부한 일부 패널가정에 한해, 아동용 일반조사는 웹기반 조사, 보호자용 조사는 전화 설문조사로 변경하여 진행함.

나) 부/모 대상 조사

○ 조사대상: 1,589명 패널아동의 어머니와 아버지

○ 조사내용: 양육태도, 심리적 특성, 직업 특성, 자녀 가치관 등

○ 조사방법: 우편용 질문지

다) 교사 대상 조사

○ 조사대상: 패널아동이 재학 중인 학교의 담임교사

○ 조사내용: 인구학적 특성 및 경력, 전공, 학교 특성, 아동발달 특성 등

○ 조사방법: 인터넷 web을 이용한 온라인 조사

라) 아동대상 수행(발달)검사

○ 조사대상: 패널아동 전체

○ 조사내용: 인지·학습능력 진단검사인「다요인지능검사(M-FIT)」5-6학년용 실시

○ 조사도구: 다요인지능검사(M-FIT)는 지능 다요인론에 근거하여, 어휘적용력, 언어유추력, 도식화능력, 수리력, 공간지각력, 추리력의 총 6개 영역 검사로 지능을 측정함. 검사 결과는 각 영역별 T점수와 백분율로 제시됨.

○ 조사방법: 지필식 검사(검사 실시 후 개인별 검사결과 배부)

* 2020년 11월 기준으로 코로나 19로 대면조사를 거부한 일부 패널가정에 한해, 아동발달 수행검사의 경우 (영상)전화 설문조사로 변경하여 진행함.

마) 심층조사

○ 조사대상: 심층조사 참여에 동의한 600가구의 부모 및 아동

○ 조사내용: 정서조절곤란검사(부/모), NEO 성격검사(부/모), KEDI 인성검사(아동)

○ 조사도구: 정서조절곤란검사는 충동통제, 정서에 대한 주의와 자각 부족 등 6개 하위척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NEO성격검사는 외향성,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 신경증의 5개 영역에서 개인의 성격정보를 분석함. KEDI 인성검사는 자기존중, 배려소통, 정의, 시민성 등 10개 영역 총 70문항으로 구성됨.

○ 조사방법: 지필식 검사(검사 실시 후 개인별 검사 결과 배부)

나. 계량분석 및 가중치 산출

아동패널 12차년도(2019년 조사) 일반조사 자료를 분석하고, 1~12차년도 종단자료에 대한 주제별 변화 추이를 확인하였다.

1) 12차년도 자료의 분석

2019년도에 실시한 12차년도 아동패널 자료를 교차분석 등 기술통계방법으로 분석하여 우리나라 만11세 아동의 발달, 부모와 가정생활, 학교생활, 지역사회 영

향 및 정책 관련 특성 등을 제시하였다.

2) 1~12차년도 자료 종단 추이 확인

아동의 신체, 정서, 인지 발달과 성장적 변화를 데이터 분석을 통해 연속 비교가 가능한 변인을 중심으로 지난 12년간의 종단적 추이를 제시하였다.

3) 가중치의 추정 및 적용

12차년도 데이터에 대한 가중치를 산출하여 적용한다. 한국아동패널은 층화다단계 표본추출에 의해 구축된 복합표본설계(Complex sample design)에 해당하여 표본설계와 조사 차수별 응답실태를 반영하여 매년 가중치 산출하고 있다. 구체적 가중치 산출 방식은 본 보고서 부록 8에 제시되고 있다.

다. 학술대회 개최

2018년도에 조사된 아동패널 11차년도 자료를 활용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자료를 공개하였다. 학술대회 개최를 위해 데이터 및 활용 방안을 홍보하고 패널데이터를 활용한 학계 전문가의 연구논문 발표와 토론회를 진행하였다. 2020년도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는 다음의 일정으로 개최하였다.

- 학술대회 홍보 및 논문 공모: 2020년 3월 ~ 7월
- 논문 심사: 2020년 8월 ~ 9월
- 개최 일시 및 장소: 2020. 9. 25(금). 13:00~18:00, 대한상공회의소(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의거하여 발표 관련자 등을 제외하고 비대면으로 진행하였으며, 육아정책연구소 유튜브 채널(http://bitly.kr.kicce)에서 실시간 생중계되었음.)

라. 패널 관리, 홍보 및 데이터 관리

○ 데이터 활용을 위한 다운로드 지원, 홈페이지 관리

○ 발달 관련 브로슈어 배포

○ 이사 등 변동 사항 추적
○ 선물 발송 및 경품
○ 생일 카드 및 연하장 발송

5. 아동패널 자료의 활용 현황

가. 한국아동패널 데이터 활용 논문

한국아동패널은 2018년에 공공데이터로 선정되어 2017년도 데이터까지 완전 개방이 된 상태이므로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내려 받을 수 있고 별도 승인절차 없이 활용이 가능하도록 제공되고 있다. 그러므로 향후 패널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가 보다 활발해지고 양적, 질적으로 다양하고 우수한 연구논문이 산출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패널아동이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이후의 자료인 2015년 데이터를 쓸 수 있게 된 2016년을 기점으로 연구결과물의 수가 확연히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1차년도 데이터가 공개되어 학술대회가 최초 개최된 2010년 이래 지금까지 총 713편의 연구물이 발표되었고 그 중 58편은 2019년에 학술대회와 연구논문 등으로 활용되었다.

〈표 Ⅰ-5-1〉 한국아동패널 데이터 활용

단위: 편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공개자료	1차	1~2차	1~3차	1~4차	1~5차	1~6차	1~7차	1~8차	1~9차	1~10차	
전체	39	53	40	52	77	87	131	83	93	58	713
연구보고서	3	3	2	1	2	2	2	1	-	-	16
세미나 등	-	2	2	1	1	1	-	1	-	-	8
학위논문	-	2	2	5	8	9	12	4	1	16	59
학술대회	36	29	9	18	22	3	12	18	16	-	163
학술논문	-	17	25	27	44	72	105	59	76	42	467

주: 1) 데이터 활용 사실을 보고하거나 검색된 경우를 기준으로 하였으므로 일부 누락된 경우가 있을 수 있음.
2) 기준일: 2019. 12. 30.

데이터가 어느 정도 누적되고 패널아동이 유아기를 벗어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종단연구의 수가 괄목할만한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2019년에는 종단/횡단연구 모두 21편씩 발표되어 총 42편의 연구가 있었다(표 Ⅰ-5-2 참조). 결과

적으로 데이터가 처음 개방되어 학술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지금까지 총 467편의 연구가 발표되었다.

〈표 Ⅰ-5-2〉 연도별 분석방식에 따른 연구 수: 2011-2019년

단위: 편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전체	17	25	27	44	72	105	59	76	42	467
횡단연구	17	24	23	36	48	61	40	45	21	315
종단연구	0	1	4	8	24	44	19	31	21	152

주: 1) 원문 공개된 논문을 기준으로 하여 발간 논문수와는 상이할 수 있음.
2) 각 년도에 국내외 학술지에 발간된 논문만을 대상으로 분석함.

뿐만 아니라 분석에 활용된 종단변수의 종류 또한 다양해져서 그간 집중되었던 아동 특성이나 부모 특성 변인뿐 아니라 학교 특성, 가구 특성, 지역사회 특성까지 종속변수로 활용된 경우들이 나타났다. 영유아기를 벗어난 패널아동이 가진 특성에 대해 보다 넓은 시각에서 분석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Ⅰ-5-3 참조).

〈표 Ⅰ-5-3〉 한국아동패널 데이터 활용 논문 변수 범주화: 2019년 발간 논문 기준

단위: 회

구분	아동 특성						부모 특성					
	일상생활 1)	신체건강 2)	인지언어 3)	자아정서 4)	사회성발달 5)	기타 6)	인구학적특성 7)	심리적특성 8)	부부특성 9)	신체건강특성 10)	직업특성 11)	양육특성 12)
전체	14	8	70	23	68	44	24	17	16	-	11	60
종속변수	2	3	23	7	21	-	-	2	2	-	-	5
기타변수	12	5	47	16	47	44	24	15	14	-	11	55

구분	돌봄		학교/사교육		가구 특성				지역사회 특성			
	기관 13)	교사특성 14)	학교특성 15)	사교육특성 16)	인구학적특성 17)	물리적특성 18)	경제적특성 19)	가정환경특성 20)	일반적특성 21)	양육환경 22)	위탁가구 23)	직장지원 24)
전체	6	7	-	1	1	1	21	19	11	6	-	-
종속변수	-	-	-	-	-	-	-	1	2	2	-	-
기타변수	6	7	-	1	1	1	21	18	9	4	-	-

주 1: 기타변수는 한 논문당 1회 이상 중복되어 나타남
주 2: 각 영역별 포함 변수는 다음과 같음
1) 일상생활: 식습관 특성, 미디어 이용시간, 모유수유 여부,배변/씻기 습관특성, 수면시간, 미디어 이용시간, 실내 놀이 일, 바깥놀이 및 외출일, 미디어 이용정도
2) 신체 건강: 체중, 신장, 알레르기 질환별 의사 진단 여부, 대근육운동, 소근육 운동, 운동발달, 미세운동 및 적응발달
3) 인지언어: 인지발달, 수용어휘력, 표현어휘력, 문제해결, 언어발달, 의사소통, 학습준비도, 창의성, 발화능력, 학업 능력, 학교준비도
4) 자아정서: 기질, 자아개념, 자아존중감, 주관적 행복감, 육아지원기관, 교사선호도
5) 사회성 발달: 또래와의 상호작용, 문제행동, 발달, 사회적 유능감, 개인-사회성
6) 기타: 성별, 출생순위, 출생순위, 종교참여 횟수
7) 인구학적 특성: 연령, 직업, 학력
8) 심리적 특성: 우울,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주관적행복감, 자기효능감, 일가정 양립/갈등
9) 부부 특성: 부부갈등, 결혼만족도
10) 신체건강 특성: 음주, 흡연
11) 직업특성: 취업여부, 취업/학업상태, 근무시간
12) 양육특성: 양육행동(16,3), 부모-자녀상호작용(6,2), 아버지의 양육참여(6,1), 양육분담(1,2), 양육 스트레스, 후속출산 계획, 양육시간, 양육관, 자녀가치, 자녀의 미래기대, 사회적 지원정도
13) 기관: 이용여부 및 유형, 이용시간, 설립유형, 재원 아동 수, 학급 수, 학급 내 교사 및 아동수, 교실 규모 적절성, 실내 대근육 활동 공간 유무, 기관 규모
14) 교사특성: 아동과의 상호작용, 교수효능감, 교실환경, 주관적행복감, 기관선호도, 교사선호도, 특별활동 이용횟수, 부모 참여 행사(교육) 참여여부
15) 학교 특성: 가정기관 소통, 부모 학교생활 관심정도, 방과 후 교육시간
16) 사교육 특성: 사교육 참여 횟수
17) 인구학적 특성 : 조부모 동거 여부
18) 물리적 특성: 개인 방 여부
19) 경제적 특성: 가계 소득, 소비성 지출 비용
20) 가정환경 특성: 가족상호작용, 가족기능. 가족응집성, 가족유연성
21) 일반적 특성: 지역 규모, 6개 권역 구분, 시/군/구, 17개 시/도 구분
22) 양육환경 특성: 교육 · 의료 · 복지 시설, 공공 여가 공간 · 시설, 문화시설 접근 편리성 및 이용 만족도
23) 위탁가구 특성
24) 직장지원 특성: 근로 직장의 육아지원제도, 알·가정 양립 지원 제도

6. 보고서 구성

본 보고서는 다섯 개의 장으로 구성되었다.

제1장은 서론으로서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2020의 목적과 필요성 및 연구내용을 소개하고 제2장은 2020년에 실시되는 13차년도 패널 조사의 개요와 내용 등을 제시한 조사 사업 보고이다. 제3장은 조사결과 분석 보고서로서, 12차년도(2019년) 조사결과에 대한 기초 분석을 제시하며, 제4장은 주요 변인에 대한 종단분석,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올해 진행된 사업과 작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조사를 위한 제안 및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여 제시한 결과로 구성하였다.

Ⅱ

13차년도(2020년) 사업 보고

01 13차년도 조사절차

02 13차년도 조사내용

03 패널 관리

04 제11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개최

Ⅱ. 13차년도(2020년) 사업 보고

1년간의 한국아동패널 연구사업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는 당해년에 실시해야 하는 조사를 기획하고 진행하는 조사 업무이고, 둘째는 직전년도에 진행하여 완료된 전년도 조사의 자료에 대한 기술 통계 분석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전년도에 조사된 데이터를 클리닝하여 일반 연구자가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공개하고 제공하는 업무이다. 여기에는 연구논문을 쓰는 등 데이터를 활용하면서 드러날 수 있는 종단 및 횡단 데이터의 오류를 바로잡아 보다 완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드는 업무가 포함된다.

본 장은 위의 세 가지 중 첫 번째에 해당하는 업무의 보고로, 2020년 실시 한국아동패널 13차년도 조사의 진행 과정과 주요 내용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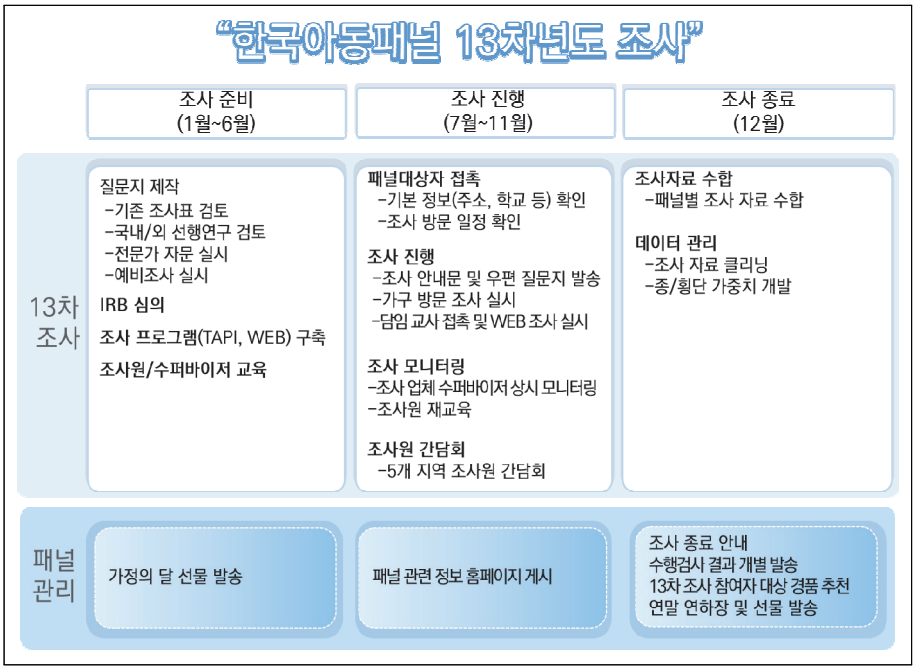
1. 13차년도 조사절차

2020년 한국아동패널 13차년도 조사절차는 크게 조사 준비-조사 진행-조사 종료로 진행되며 〈그림 Ⅱ-1-1〉과 같다.

조사 준비과정은 기존의 조사표를 검토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연구진이 올해 조사하고자 하는 변인을 확정하여 문항을 제작하는 질문지 구성과 해당 조사에 대한 IRB 심의, 조사 문항에 로직을 더해 실제 조사도구로 활용할 TAPI용 웹 구축, 조사원 교육으로 구성된다. 조사 진행은 실제로 교육받은 조사원들이 각 패널가구를 방문하여 이루어지며, 패널대상자를 접촉하고 조사를 진행하며 수퍼바이저가 조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2020년 13차년도 조사에서는 지역별 조사원 간담회를 예년보다 1개월 가량 앞당겨 10월 말~11월 초에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는 코로나 19로 인하여 전반적인 조사 진행이 더딘 상태에서 전반적인 조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피드백을 받아 즉각 반영하기 위해서였다. 덧붙여 코로나 19로 인하여 대면조사를 거부한 일부 가정에 한하여 웹조사와 전화조사로의 전환에 대한 설명회를 겸하기로 하였다.

조사는 12월에 종료되며, 조사 종료 이후 수합 데이터에 대한 검토, 클리닝 등 자료 관리 관련 후속 작업을 실시한다.

[그림 II-1-1] 한국아동패널 13차년도 조사절차



가. 조사 준비

1) 질문지 작성 및 조사 프로그램 구축

조사대상자인 패널아동의 연령 증가와 발달 특성을 반영하여 기존 질문지를 검토하는 작업이 가장 먼저 진행되었다. 2020년 조사대상인 초등학교 6학년 아동의 발달 수준에 맞도록 질문지의 수준을 조정하고, 가구 조사와 주양육자, 담임교사의 조사내용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하여 첫째, 전년도 조사내용 및 조사 자료를 검토하였다. 2017년에 수립한 한국아동패널 중장기 계획(도남희 외, 2017)에 기반하여 조사 시점과 조사내용, 조사 응답자 등을 조정하고 연령 증가와 발달 과업 등을 반영하여 진행하였다. 중장기 계획에 따라 올해(13차년도) 신규로 추가된 변인으로는 '학습태도', '안전의

식 및 대처', '인성', '다중지능' 등이 있다.

둘째, 유사 연령 국내·외 패널 및 코호트 조사를 검토하여, 연구 추이를 파악함으로써, 국내·외의 연구경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선정된 변인 및 세부 문항은 변인별 조사대상및 자료수집 방법 등을 고려하여 2020년 질문지에 반영하였다.

셋째, 아동학/(초등)교육학/사회복지학 교수 등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변인 및 세부 문항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변인 및 세부 문항은 변인별 조사대상및 자료 수집 방법 등을 고려하여 2020년 질문지에 반영하였다.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학령후기에서 청소년시기로 전환되는 시점인 초등 6학년 아동기에 조사될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 변인으로 '진로성숙도' 등을 추가하였다.

넷째, 시대적 흐름에 따른 사회 변화를 반영하여 일부 변인의 문항을 수정하였다. 예를 들어, '사이버비행' 문항은 12차년도 질문지 개발 당시 삭제하기로 결정되었으나, 이후 데이터 분석 결과에서 사이버폭력 인지에 대한 성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변인으로 판단되었다. 더욱이 최근 사회적 범죄로 이슈가 된 N번방 사건 등으로 청소년 사이버비행 인식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다섯째, 예비조사를 통해 설문지를 최종 확정하였다. 예비조사는 패널이 아닌 초등학교 6학년 아동 4명을 대상으로 6월 말 실시하였다. 신규 추가된 문항뿐만 아니라, 전체 설문지에 관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실제 조사 수행에서 고려해야할 점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를 반영하여 문항 표현 및 순서 조정, 연구 도구의 진행 방법의 조율을 거쳐 조사원 지침서를 작성하고 실사 문항 구성을 완료하였다.

여섯째, 아동이 재학 중인 초등학교의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한 질문지 역시 전문가 자문회의와 현직 초등교사의 자문을 통해 문항을 확정하였다.

일곱째, '보호자용', '아동용' 조사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 프로그램의 디버깅 작업을 실시하였다 '보호자용'과 '아동용'은 기존과 동일하게 조사기기의 휴대성 및 접근 편이성이 우수한 TAPI(Tablet-PC Aided Personal Interviewing, 이하 TAPI)로 진행하였다.

2) IRB 승인

한국아동패널연구 13차년도 질문지에 관하여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

를 거쳐 2020년 5월 19일에 최종 승인을 받았다(부록 5: IRB 승인 통지서 참조).[3)]

한국아동패널은 주된 연구대상이 '취약한 연구대상자'인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아동의 자율성을 보호하고 자발적인 동의를 위해 연구 참여 전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연구계획서의 윤리 및 과학적 타당성, 연구대상자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동의를 획득하였는지, 연구대상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보호대책 등에 대하여 IRB 심의 절차에 따라 심의를 받았다. 기존과 다른 점으로, 올해 13차년도 조사는 일반조사 이외에 심층조사도 추가적으로 실시하여, IRB 심의서류 중 일부 설명문과 동의서의 경우는 일반조사와 심층조사로 나누어 작성하였고 심의받았다.

3) 코로나 19 대응 전략

2020년 13차년도 조사 실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조사원 및 응답자 안전 확보 방안 마련이었다. 조사원과 패널가구를 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조사원 선발, 조사원 교육, 실사, 전화컨택 단계별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자 하였다. 먼저, 조사원 선발 단계에서부터 문진(해외 여행 이력, 발열 및 기침 증상, 기타 건강상 문제, 자가격리자 및 확진자 접촉 여부 등)을 통해 안정성을 확보하였다. 두 번째, 조사원 교육 시에는 교육장 내 기본적인 방역수칙(발열체크, 손 소독제, 마스크 제공) 준수 외에도 아크릴 칸막이를 설치하여 교육장 내에서의 감염을 예방하고, 가구방문 시 준수해야 하는 기본 위생내용을 교육에 포함하여 진행하였다. 조사 전 준비 단계에서는 실사 진행 전체 기간 동안 조사원들이 TAPI에서 직접 건강 자가진단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해야 조사 참여가 가능하도록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운영하였다. 실제 가구를 방문하여 조사를 진행하는 단계에서는 마스크 필수 착용, 응답자-조사원 간 1m 이상 거리 유지, 조사 시작 전 응답자-조사원 모두 손소독제 사용 등의 수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였다. 조사 직후에는 스프레이형 소독제로 태블릿 PC 등을 매번 소독하도록 하였다. 또한 전화컨택 단계에서의 집단감염을 막기 위한 방역수칙을 수립하고 철저히 준수하였다. 구체적인 코로나 19 대응 전략과 한국아동패널 수행

3) 연구(220996-200507-HR-004)에 대한 IRB 승인(KICCEEIRB-2020-제02호, 2020년 5월 19일)

관련한 조사원 안내 지침, 한국아동패널 가구 대상 방문 안내지침에 대한 내용은 부록 9에서 확인할 수 있다.

4) 조사원 선발 및 교육

가) 조사원 선발

대규모 패널조사에서 조사원의 패널조사 경험, 패널가구와의 유대관계 형성이 매우 중요한 요인임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특히, 2020년 조사에서는 코로나 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기존에 패널가구와 라포가 형성된 조사원을 90% 이상 투입하여 패널 유지율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지난해(2019년) 조사원에 대한 평가 및 추가 인센티브 지급을 통해 우수 조사원이 패널조사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조사원 중도탈락을 대비하여 예비조사원을 15% 범위 내에서 추가 선발하여 운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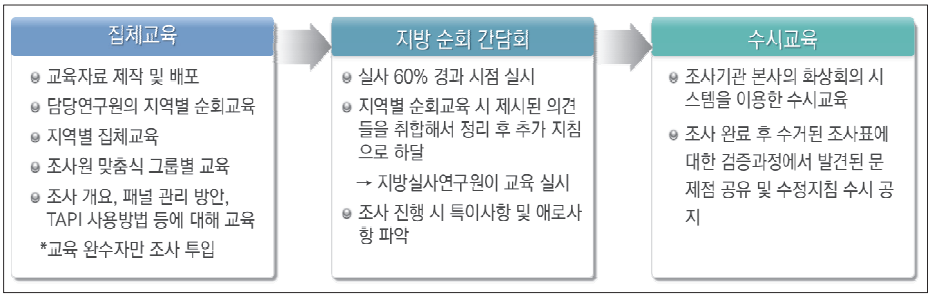
나) 조사원 교육

한국아동패널은 조사 특성상, 패널아동, 아버지와 어머니, 담임교사 등 다양한 대상자에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한다. 따라서 각 조사의 내용, 절차 및 실행 방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자료의 신뢰도와 직결되므로 한국아동패널은 단계별 조사원 교육을 통해 현장 에디팅 능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조사원 집체교육에 앞서, 조사수행기관 연구진과 실사관리자가 같은 기준으로 조사원 교육 및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슈퍼바이저에 대한 사전교육을 진행하였다. 이후 조사원 교육은 3단계에 걸쳐 진행되는데, 1) 집체교육, 2) 지방 순회 간담회, 3) 수시교육으로 구성되어있다. 첫 번째로 집체교육은 조사수행기관 담당연구원의 지역별 순회를 통해 조사 개요, 패널 관리 방안, TAPI 사용방식 등을 교육하고, 조사원 맞춤식 그룹별 교육방식을 도입하여 기존 조사원에 대해서는 전년도 조사에서 변경된 내용을 위주로, 신규 조사원에 대해서는 조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교육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다. 두 번째 지방 순회간담회는 실사 진행 60% 단계에서 실시하는데, 주로 조사 진행 시의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이었다. 추가적으로 1단계 집체교육에서 제시된 의견을 정리하여 추가 지침으로

공유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수시교육은 조사수행기관 본사 주체로 화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시로 진행하는 교육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3단계 조사원 교육의 내용은 〈그림 II-1-2〉와 같다.

[그림 II-1-2] 13차년도 조사원 교육



13차년도 조사원 집체교육은 지역별(서울, 광주, 부산, 대전, 대구, 제주)로 6일간 진행하였으며, 교육 진행 일정(안) 및 상세내용은 〈표 II-1-1〉, 〈표 II-1-2〉에 제시하였다.

〈표 II-1-1〉 13차년도 조사원 집체교육 일정

일시	장소	대상자	
		지역	조사원(수퍼바이저 포함)
2020. 7. 6	서울	서울, 인천, 경기, 강원	23명
2020. 7. 7	대전	대전, 충남, 충북	9명
2020. 7. 8	광주	광주, 전남, 전북	8명
2020. 7. 9	대구	대구, 경북	10명
2020. 7. 10	부산	부산, 울산, 경남	11명
2020. 7. 17	제주	제주	1명
계			62명

조사원 집체교육은 강의식 설명, 실습, 질의응답, 이해도 테스트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첫째, 아동패널 조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향상을 위해 패널 조사의 취지 및 조사목적, 기대효과, 조사연혁, 주요 이슈 등 전반적인 내용을 공유하였다. 기본적인 이해를 토대로 패널 접촉 시의 주의사항 및 요령, 조사대상자별 특성에 따른 라포

형성 방법, 동의서 취득 절차, 접촉 및 조사 진행시의 주의점 등을 교육하여, 조사 진행과정에서 조사대상가구의 연구에의 지속적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둘째, 조사 진행 순서, 각 질문지별 문항 구성과 주의사항, 아동 신체측정 도구, TAPI, 수행검사 등에서의 조사도구 활용 방법을 교육하였다. 특히 13차년도에는 정해진 시간 안에 수행해야 하는 다요인지능검사(M-FIT)가 아동 수행검사로 계획되어 있어 정확한 검사진행을 위한 실시 스크립트 사전교육이 필수적이다.

셋째, 조사원의 기본자세 및 윤리교육, 조사 진행시에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방안 및 보고 등의 내용을 공유하였다. 지역별 집체교육 중 발생한 질의응답은 교육 종료 후 수합하였고 전국적으로 공유하였다.

〈표 Ⅱ-1-2〉 13차년도 조사원 집체교육 일정표

교육 시간		일정	세부 내용
09:55~10:05	10	자리 정돈 및 교육 준비	
10:05~10:30	25	연구진 소개 및 조사개요 안내	-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진 소개 - 13차년도 조사 개요
10:30~10:50	20	조사 준비 단계 설명	- 조사 준비물 설명 - IRB 관련 동의서 설명 - 설문지 종류별 설명
10:50~11:00	10	*휴식	
11:00~11:30	30	조사원 현장조사 교육	- 조사원 기본소양 교육 - 조사 시 유의 사항 - 19년 사례 공유
11:30~12:00	30	에디팅 교육(지필질문지 등)	- 지필 질문지 에디팅 - 교사 대상 조사 설명
12:00~13:20	80	*점심 식사 및 휴식	
13:20~14:20	60	TAPI(보호자) 서면 교육	- 문항별 주의사항 - 현장 에디팅
14:20~15:00	40	TAPI(아동용) 서면 교육	- 문항별 주의사항 - 현장 에디팅 - 신체 계측 요령 등 - 수행 검사
15:00~15:50	50	TAPI 교육 및 실습	- TAPI 진행 절차 및 활용법 - 아동수행검사 진행 절차 및 진행방법 - 조사 실습
15:50~16:20	30	질의응답 및 이해도 테스트	- 질의응답 - 이해도 파악 테스트

나. 실사 진행

1) 13차년도 조사 구성 및 진행

2020년 실사 진행 일정은 〈표 II-1-3〉과 같다. 가구 방문 조사 일정은 이전 조사 참여 시기, 가구별 일정 등을 고려하여 진행하였다. 부모용 우편설문지의 경우, 가구 방문 조사가 진행되기 약 2~3주 전에 발송하여, 응답을 위한 충분한 숙고가 이루어지고, 조사 분량에 대한 조정, 시간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가구 방문 조사 이후 진행되는 아동의 담임교사 조사의 경우, 학과 운영 일정과 특성을 고려하여 2학기 중에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담임교사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본 조사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담긴 육아정책연구소장 발행의 편지글과 조사 참여 공문, 한국아동패널 홍보 리플렛을 교사에게 전달한다. 또한 기존과 동일하게, 담임교사의 조사 참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한국아동패널 홈페이지에 「담임교사 온라인 조사 참여 하기」 배너를 설치하여, 조사를 원하는 담임교사가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인터넷으로 접속하여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유학, 이민 등으로 이탈하는 가구의 경우, 귀국 예정시기를 파악하여 추적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에는 당분간 참여가 어려울지라도, 지속적인 관리는 필요하기 때문이다.

〈표 II-1-3〉 13차년도 질문지별 조사 일정

	질문지	조사방법	조사 시작	조사 완료
일반조사	어머니 대상 아버지 대상	지필식 기입 (우편 전달, 방문 수거)	7월	12월 말
	TAPI(보호자용) TAPI(아동용)	면접 및 관찰	8월	12월 말
	아동수행검사 (다요인지능검사)	Web 기반 개인 수행 검사		
	담임교사 대상	Web 기반 설문	9월	12월 말
심층조사	어머니 대상 아버지 대상 (성격검사/정서조절곤란검사)	지필식 기입 (직접 전달, 방문 수거)	8월	12월 말
	아동대상 (인성검사)	지필식 기입	8월	12월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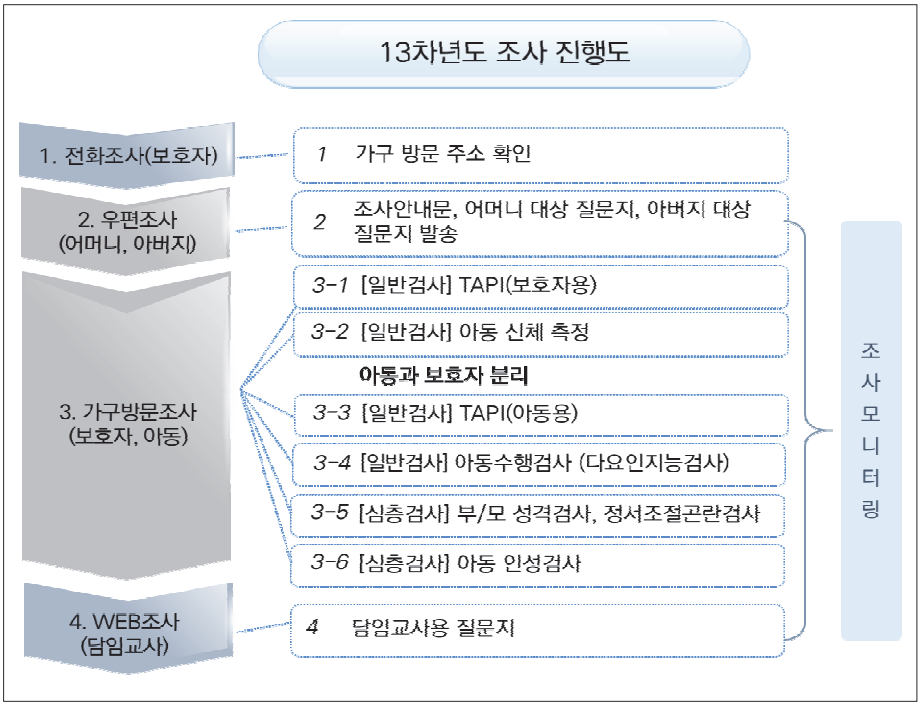
주: 코로나 19로 대면조사를 거부한 일부 패널가정에 한해, 일반조사 중 아동용 일반조사는 웹기반 조사, 보호자용 조사는 전화 설문조사로, 아동수행검사는 (영상)전화 설문조사로 변경하여 진행함.

한국아동패널 13차년도 조사 진행도는 〈그림 Ⅱ-1-3〉과 같다. 우선 본격적 조사 진행에 앞서 가정의 달 선물 발송 시 각 패널가구별 방문 주소, 연락처 등의 기본 정보 확인을 완료하였다. 다음으로 전체 가구에 조사 시작을 알리는 문자를 전송하며, 가구 방문 2~3주 전에 각 가구별로 '조사 안내문'과 '부모용 지필 설문지'를 발송하였다. '부모용 지필 설문지'는 이후 가구 방문 시 수거하였다.

가구 방문 조사는 보호자 조사와 아동 조사를 차례로 진행하며, 아동의 컨디션, 조사 환경 등에 따라 보호자와 아동의 조사 순서는 변동 가능하도록 하였다. 단, TAPI(아동용)와 아동 수행검사는 반드시 보호자와 분리하여 진행하도록 하였다. 특히, 올해 아동 수행검사로 진행하는 '다요인지능검사(M-FIT)'는 정해진 시간 내 일정한 장소에서 검사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아동의 담임교사 조사의 경우, 가구 방문 조사 시에 보호자의 동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접촉을 시도하며, 담임교사의 조사 동의가 이루어지면, 한국아동패널 홈페이지에 탑재된 링크를 통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림 Ⅱ-1-3] 13차년도 조사 진행도



2) 실사 관리

조사원 선발 및 교육과 별도로 13차년도 실사가 진행되는 동안 자료 수집과정의 질 관리를 위한 점검·보완을 수시로 실시하였다.

첫째, 조사수행기관 인트라넷을 통한 실시간 실사관리 시스템 운영으로 실사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여, 문항오류를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둘째, 조사수행기관 실사 진행팀과 조사원 간 본 조사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하여 수시 보고 및 1일 조사 보고 체계를 운영, 조사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고자 하였다. 셋째, 집체교육 이후 실사 60% 경과시점에 조사수행기관 연구진의 주관으로 지방순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조사 진행 시 특이사항 및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공통지침을 하달하여 즉각적으로 조사에 반영하도록 한다.

다만, 예년과 달리 현장모니터링은 추진하기 어려웠다. 당초 계획은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진을 동반하여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하였으나, 코로나 19 확산으로 다수의 연구진의 패널가구 방문이 어려워진 상황을 고려하여 현장모니터링 관리 단계는 생략하기로 하였다.

2. 13차년도 조사내용

한국아동패널 13차년도 조사는 패널아동, 어머니, 아버지, 보호자, 담임교사 총 5종의 질문지를 통해 다면적으로 실시되었다. 질문지별 조사내용은 응답자, 조사내용, 소요시간, 조사도구 및 변인 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였으며, 13차년도 질문지별 응답자 및 주요 조사내용은 〈표 Ⅱ-2-1〉과 같다.

부모 대상(어머니 대상 및 아버지 대상) 질문지는 부부 간 상호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되었고 지필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다만, 부모 중 한 사람에게만 받아도 되는 패널아동의 알러지 문항의 경우는 어머니 질문지에만 포함하도록 하였다.

가구 방문으로 조사하는 보호자용 질문지(TAPI)에는 조사내용의 전반적인 사항이 포함되었다. 올해도 작년의 TAPI 조사내용을 준수하여 적용하며 가구의 인구학적 특성, 물리적/경제적 특성 등을 주요 조사항목으로 포함하였다.

아동 조사(TAPI)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된다. 첫째로 조사원이 직접 신장, 몸

무게, 허리둘레 등 신체 성장 정도를 측정한다. 두 번째로, 아동의 자아, 사회성 발달 등에 대한 자기보고식 조사는 대인 면접 방식으로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수행검사가 있는데, 2020년에는 다요인지능검사(M-FIT)가 지필식으로 진행되었다.

2020년은 심층검사를 진행하는 해로, 심층조사에 동의한 아동 600명과 그 부모를 대상으로 추가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아동을 대상으로는 인성검사를, 부모를 대상으로는 정서조절곤란검사, 성격검사를 진행하였고, 모두 지필식 기입방식으로 실시되었다.

또한 아동이 재학 중인 초등학교의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아동이 생활하는 학교 및 담임교사 특성, 수업 운영과 학교에서 관찰할 수 있는 아동의 특성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표 Ⅱ-2-1〉 13차년도 질문지별 응답자 및 주요 조사내용

조사명	주요 조사내용	조사방법	응답자
어머니 조사	- 아동 특성: 알레르기 - 부모 특성: 개인 및 부부 특성, 신체 및 건강 특성, 양육 특성 등	지필식 기입 (우편 전달, 방문 수거)	어머니
아버지 조사	- 부모 특성: 개인 및 부부 특성, 신체 및 건강 특성, 양육 특성, 직업 특성		아버지
TAPI (보호자용)	- 아동 특성: 인구학적 특성, 일상생활, 신체 및 건강 특성, 사회성 발달 등 - 부모 특성: 부부 특성, 직업 특성, 질환 및 장애, 양육 특성 등 - 가구 특성: 인구학적 특성, 물리적 특성, 경제적 특성, 가정환경 특성 등 - 학교·사교육 특성: 돌봄서비스 이용, 학교 이용, 사교육 특성, 부모의 학교생활 참여 등 - 지역 특성: 일반적 특성, 양육환경 등 - 정책 특성: 국가 및 직장 지원, 기타 지원 등	대면 면접	주양육자 (주로 어머니)
TAPI (아동용)	- 신체 측정: 신장, 체중, 허리둘레	측정	아동
	- 인지 발달, 학습스트레스, 자아 발달, 사회성 발달, 사회 관련의식, 미래/진로 등	대면 면접	아동
수행검사 (아동용)	- 다요인지능검사(M-FIT)	수행 검사 (지필식 기입)	아동
심층조사 (아동용)	- 인성검사	지필식 기입 (우편 전달, 방문 수거)	아동
심층조사 (부모용)	- 정서조절곤란검사, 성격검사(NEO)	지필식 기입 (우편 전달, 방문 수거)	아버지, 어머니

조사명	주요 조사내용	조사방법	응답자
교사 조사	- 아동 특성: 학업 수행능력 - 학교 특성: 물리적 특성, 교사 특성, 학급 운영, 가정 협력 등	Web 기반 온라인 설문	담임교사

주: 코로나 19로 대면조사를 거부한 일부 패널가정에 한해, 일반조사 중 아동용 일반조사는 웹기반 조사, 보호자용 조사는 전화 설문조사로, 아동수행검사는 (영상)전화 설문조사로 변경하여 진행함.

가. 아동 특성 조사 변인

2008년 출생아인 패널아동의 초등학교 고학년(6학년 진학)에 해당되는 2020년도(13차)에는 아동 특성 관련 변인으로 〈표 II-2-2〉의 항목을 조사하였다. 패널아동이 초등학교 고학년이 됨에 따라, 아동의 특성 전범위에 걸쳐 새로운 조사 항목이 일부 추가되거나 변경되었다. 각 주요 조사 변인과 신규 추가 및 삭제 등 변경 항목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일상생활 영역: 가사 참여 여부 추가

일상생활 영역으로 아동의 식생활, 미디어, 생활시간, 실내·외 활동, 가사 참여 여부에 대해 조사하였다.

일상생활 영역에서는 ‘가사 참여’ 문항이 신규로 추가되었는데,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학령후기에서 청소년시기로 전환되는 시점인 초등 6학년 아동기에 조사될 가치가 있는 변인으로 판단되었다. 가사 참여 문항은 조신옥(2002)이 개발한 ‘집에서 하는 일에 대한 참여도 조사’ 문항을 참고하여 연구진이 새로 개발하였다. 조신옥(2002)의 본 질문지는 의생활 참여도, 식생활 참여도, 주생활 참여도, 가족돌보기 네 가지 하위척도가 각 10문항씩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패널조사에서는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돌봄 네 가지 하위척도의 틀을 가지고 각 1문항으로 가사 참여 실태를 조사하고, 전혀 하지 않는다(1점)~항상 한다(4점)의 4점 척도로 측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컴퓨터 사용능력’은 초등학교 6학년 아동들의 평균적인 컴퓨터 사용능력과 미디어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나는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릴 수 있다’ 문항을 신규로 추가하였다. 이에 ‘컴퓨터 사용능력’ 문항은 기존 문항 7개에서 총 8개로 변경되었다. ‘사이버비행’ 문항은 12차년도 질문지 개발 당시(2019년) 삭제하기로 결정되었으나, 이후 데이터 분석 결과에서 사이버폭력 인지에 대한 성차가 큰 것으

로 나타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변인으로 판단되었다. 더욱이 최근 N번방 이슈 등으로 청소년 사이버비행 인식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2) 신체 및 건강 특성 영역: 체중조절경험 추가, 알레르기 질환 재조사

신체 및 건강 특성 영역으로 신장, 체중, 허리둘레 등 신체 치수에 대한 측정, 주관적 건강 상태, 시력 보정도구 착용, 2차 성징이 나타난 시작시기 등 신체 특성과 질환 및 치료에 대한 항목을 조사하였다.

신규로 추가된 변인으로 '체중조절경험'이 있는데, 국민건강영양조사 중 건강설문조사 청소년용 질문지(질병관리청 홈페이지[4])를 활용하였으며, 기존 총 3문항에서 2문항만 발췌하여 조사하였다.

또한 아동패널 연구에서는 신체 및 건강 특성 영역과 관련하여 알레르기 질환 유병률에 대한 구체적인 설문조사를 2013년부터 2016년에 걸쳐 진행한 바 있다. 특히 2015년에는 연구대상자의 절반 정도가 병원을 방문하여 혈액검사, 알레르기 반응검사, 폐기능검사, 기관지 과민성검사를 시행하였다. 올해 조사에서 알레르기 질환 설문조사를 다시 진행하기로 하였는데, 그 이유는 청소년 시기에 접어든 아동패널을 대상으로 알레르기 질환을 재조사하여, 2015년도 조사결과와 연계한다면 알레르기의 호전, 지속, 새로운 발생 등을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에 조사되었던 알레르기 질환 설문과 비교하였을 때 13차년도의 설문은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던 2017, 2018, 2019년(10~12차년)의 조사를 보강하기 위해 지난 3년간의 각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의사 진단 여부를 묻는 문항이 이전의 지금까지 의사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지를 묻는 문항 대신으로 대체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해당 문항들은 최초 개발자였던 '서울아산병원 소아청소년과 호흡기질환 교실(대표 홍수종 박사)' 전문연구진과의 협업을 통해 재검토, 수정하였다.

3) 인지 및 언어 발달 영역: 집행기능, 학습태도 추가

아동의 인지 및 언어 발달 영역으로 집행기능, 다요인지능검사(M-FIT), 학업 수

4)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국민건강영양조사: 청소년용 질문지(2016년) 중 청소년 행태 조사지_비만 및 체중조절 문항: 만12-18세 대상 https://knhanes.cdc.go.kr/knhanes/sub04/sub04_01_02.do?classType=2 (인출일: 2020.04.01.)

행능력, 학습스트레스, 학습태도, 비속어 사용에 대한 항목을 조사하였다.

인지발달 중 '집행기능'은 12차년도 설문지 개발 단계에서 계획한 바와 같이 13차년도부터는 기존 어머니가 평정하는 질문지에서 아동이 스스로 평정하는 도구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집행기능'은 송현주(2014)가 개발한 '간편형 자기보고식 아동청소년 집행기능 곤란 질문지'를 활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40문항으로 계획-조직화곤란(11문항), 행동통제곤란(11문항), 정서통제곤란(8문항), 부주의(10문항) 4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자주 그렇다(3점)의 3점 Likert 척도이다.

학습과 관련하여 신규로 추가된 변수로 '학습태도'가 있다. 한국아동패널 중장기 계획(도남희 외, 2017)에서도 초등학교 고학년 단계에서 자기주도학습, 학습책략, 학습습관과 같은 변인에 대한 탐색이 예정되어 있었고, 올해 전문가 자문과정에서도 패널아동들이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본격적인 '학습' 상황을 경험하게 되므로 학습태도 관련 문항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이다. '학습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한국교육종단연구(KELS) 2013(II) 학습자 특성 검사(김양분·남궁지영·김정민·박경호·임현정, 2014)에서 공부태도 부분(총 12문항)만 활용하기로 하였다. 이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4점)의 4점 Likert 척도로 측정한다.

'다요인지능' 역시 한국아동패널 중장기 계획(도남희 외, 2017)에 의거하여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에 추가하기로 계획된 변인이며, '다요인지능'을 측정하기 위하여 M-FIT(이종구·현성용·최인수, 2015)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검사도구는 어휘적용력(20문항), 언어유추력(20문항), 도식화능력(20문항), 수리력(20문항), 공간지각력(20문항), 추리력(20문항)의 6가지 하위영역 총 120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인지능력 중심의 6개 영역을 측정함으로써 여러 요인으로 구성된 지능의 다각적인 측면을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피검사자의 각 하위영역별 점수와 종합점수 결과를 패널가구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학업 수행능력'은 현직 초등학교 교사의 검토를 통해 개정 교육과정 내용 및 초등학교 6학년 상반기 학습진도에 적합하도록 수정하였다.

4) 사회 및 정서 발달 영역: 인성, 진로성숙도, 안전의식 및 대처 추가

아동의 사회 및 정서 발달 영역으로 자아존중감, 학교생활 느낌, 과목 선호도, 전반적 행복감, 끈기 등의 자아 발달 변인과 친구 수, 또래애착, 학교적응, 인성,

집단괴롭힘, 삶의 만족도, 상대적 박탈지수, 이성관계 등의 사회성 발달 항목, 진로관, 장래희망, 진로성숙도, 미래에 대한 인식 등에 대한 미래/진로 항목, 결혼관, 자녀관, 저축관, 안전의식 및 대처의 사회 관련 의식 항목을 조사하였다.

인성 항목은 한국아동패널 중장기계획(도남희 외, 2017)에 의거하여 신규 추가된 변인으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개발한 '초중등학생 인성수준 조사 및 검사도구(KEDI 인성검사)'를 활용하기로 하였다(현주·임소현·한미영·임현정·손경원, 2014). 본 인성검사 도구는 자기존중, 성실, 배려·소통, (사회적)책임, 예의, 자기조절, 정직·용기, 지혜, 정의, 시민성 10개의 하위요인을 포함하고 있으며 총 7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검사는 편안하고 조용한 분위기에서 피검자가 검사지에 기술된 각 문항을 읽고 평소 자신의 모습이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정도를 5점 Likert 척도(① 전혀 아니다 ~⑤ 매우 그렇다)로 평정하도록 하고, 검사 소요시간은 대략 10분~20분이다(현주·임소현·한미영·임현정·손경원, 2014). 검사의 채점은 KEDI 인성검사의 각 하위요인별로 측정하는 개별문항 점수를 합산하여 하위요인별 총점을 산출하도록 한다(현주·임소현·한미영·임현정·손경원, 2014). 단, 인성검사는 13차년도 심층조사 변인으로 패널 중 심층조사 참여에 동의한 600여명의 아동만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진로성숙도 항목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추가된 변인으로, 기존의 진로관 문항에 보다 구체적인 문항으로 진로성숙도를 추가하여 향후 패널아동들의 자립이슈에 미리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진로성숙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청소년패널조사(초4패널, 중2패널)[5] 및 2018년도 아동종합실태조사(류정희 외, 2019)에서 사용한 진로성숙도 7개 문항을 활용하기로 하였다. 본 문항은 전혀 아니다(1점)~매우 그렇다(4점)의 4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있다.

사회 및 정서 발달 영역에서의 마지막 신규 문항으로 '안전의식 및 대처'는 한국아동패널 중장기계획(도남희 외, 2017)에 따라 추가되었다. 중장기계획에서 자조능력, 자연재해대비와 관련한 생존기술, 안전의식 측면에 대한 문항을 계획한 바 있었고, 최근 들어 국내에서도 지진 등의 자연재해 증가와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패널아동들의 안전의식 및 대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안전의식 및 대처를 알아보기 위하여 연구진이 신규로 개발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신규개발

5) 한국 아동·청소년 데이터 아카이브 홈페이지. 한국청소년패널조사 초4패널, 중2패널 설문지. https://www.nypi.re.kr/archive/mps/program/examinDataCode/dataDwloadAgreeView?menuId=MENU00226 (인출일: 2020.04.23.)

된 문항은 가정/학교/지역사회/국가 단위별 안전체감 총 4개 문항과 대처인식 1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한편, 정서 및 사회 발달 영역 중 '학교참여'도 신규 문항으로 검토되었으나, 아동용 설문지 양이 방대해짐에 따라 차년도에 추가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하였다. 당초 중장기 계획에서 있었던 '우울' 변인 역시, 신규문항으로 고려하였으나, 최종적으로는 격년조사로 진행하고 있는 CBCL 하위영역 내 우울 문항으로 대체하였다. '성역할고정관념'은 12차년도 설문지 개발 당시 13차년도에 추가하기로 하여 신규 문항으로 검토했으나 최종적으로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기존 도구의 '성역할고정관념' 문항이 시대적 흐름과 맞지 않다고 판단하여, 향후에도 논의하지 않기로 하고, 다만, 14차년도에 '성인지감수성' 등의 문항 추가 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하였다.

〈표 II-2-2〉 12~13차년도 아동 특성 조사 변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2차	13차
인구학적 특성		성별, 출생월, 월령, 출생순위	○	○
일상 생활	식생활	식생활 진단	●	○
		카페인음료(에너지음료) 섭취 및 인스턴트식 섭취	◉	◉
	미디어	휴대폰(스마트폰) 소유, 미디어 이용시간, 정도	○	○
		미디어기기 중독	●	○
		컴퓨터 사용 능력(격년)	-	◉
		사이버 비행	-	◉
	생활시간	(주중, 주말) 기상 및 취침 시각, 수면시간	○	○
		(주중, 주말) 일과 활동 시간, 활동별 참여 빈도	○	○
		시간사용만족도 (대화시간, 식사시간, 여가활동시간, 숙제시간 등)	◉	◉
		가족과의 식사 횟수	○	○
	실내/외 활동	독서량	◉	◉
		실내외 운동 정도	○	○
		취미(악기연주, 스포츠 경험 등)	○	○
	참여	가사 참여 여부	-	◉
신체 및 건강 특성	신체특성	체중, 신장, 허리둘레	◉	◉
		주관적 건강 상태	○	○
		시력 보정도구 착용 여부, 시기	○	○
		2차 성징이 나타난 시작 시기	○	○
		신체적 자아상	◉	◉
		체중조절경험	-	◉
	질환 및	장애 판정 여부, 유형 및 급수	○	○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2차	13차
	치료	만성 질환, 심리사회적 질환별 의사 진단 여부, 시기, 상담 또는 병원 치료 여부	○	○
		알러지 심층문항	-	●
		응급실, 입원 치료 여부 및 이유	○	○
인지 및 언어 발달	인지 발달	집행기능(격년)	-	◉
		다요인지능검사(M-fit)(수행검사)	-	◉
	학습 관련	학업 수행 능력 -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영어/수와 연산, 도형, 측정, 규칙성, 자료와 가능성/과학/사회/예체(신체활동 및 운동, 미술, 음악)/전반	■	■
		학업 스트레스	◉	◉
		학습동기(수행검사)	◉	-
		학습태도	-	◉
	언어 발달	비속어 사용	◉	◉
사회 및 정서 발달	자아 발달	자아존중감(격년)	-	◉
		자아개념(자아탄력성, 자아정체감)(격년)	◉	-
		학교생활 느낌(교사 선호도, 학교 선호도 포함)	-	◉
		과목 선호도	◉	◉
		전반적 행복감	◉	◉
		GRIT(끈기)(격년)	-	◉
		성격(수행검사)	◉	-
		자율성(격년)	◉	-
	사회성 발달	친구 수	◉	◉
		또래 애착(의사소통, 신뢰, 소외)(격년)	-	◉
		학교적응	◉	◉
		인성(공감, 정서조절 등)(심층검사)	-	◉
		문제행동(격년)	○■	-
		집단괴롭힘(피해)	◉	◉
		사이버폭력	◉	◉
		삶의 만족도	◉	◉
		상대적 박탈지수(가정형편)	◉	◉
		이성관계	◉	◉
	미래/진로	진로관, 미래직업에 대한 인식	◉	◉
		장래희망	◉	◉
		진로성숙도	-	◉
		미래에 대한 인식	◉	◉
	사회 관련 의식	결혼관/자녀관	◉	◉
		저축관	◉	◉
		공동체의식(격년)	-	◉
		안전의식 및 대처	-	◉

주: 1) 음영으로 표시한 변인은 13차년도 신규 추가 항목임.
2) 약호설명(○:보호자응답, ●:어머니응답, ◑어머니/아버지응답,◉:아동응답, ■:교사응답)

나. 부모 특성 조사 변인

13차년도 조사 항목으로 포함된 부모 특성은 다음 〈표 II-2-3〉과 같다. 각 주요 조사 변인과 신규 추가 변인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 및 부부 특성으로 인구학적 특성 및 주관적 행복감, 일상적 스트레스, 삶의 만족도, 일-가정 양립시 이점과 갈등, 자아존중감, 정서조절곤란, 성격검사, 행동유형 등의 개인의 심리적 특성, 결혼 상태 및 기간, 부부갈등과 같은 부부 특성을 조사하였다. 우울과 결혼만족도는 격년 실시 문항으로 13차년도(2020년) 조사에서는 제외되었으며, 12차년도(2019년)에 조사하지 않았던 격년문항 자아존중감, 부부갈등 변인이 추가되었다. 패널아동이 청소년기로 접어드는 13차년도 시점에서 부모의 심리적 특성 변인이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고자 신규로 추가된 변인으로는 정서조절곤란, 성격, 행동유형이 있다. 다만, 정서조절곤란과 성격 변인은 13차년도 심층검사 변인으로 패널 중 심층조사 참여에 동의한 600명의 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정서조절곤란 변인은 Grats와 Roemer(2004, 이종환, 2012, 재인용)가 제작한 자기보고식 질문지(총 36문항, DERS)를 조용래(2007)가 번안 및 타당화한 한국판 정서조절곤란 척도(The Koream Version of the Difficulties in Emotion Reguration Scale; K-DERS)를 활용하기로 하였다. K-DERS에서는 원판 DERS에서 1문항을 제외한 총 3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충동통제곤란, 정서에 대한 주의와 자각부족, 정서에 대한 비수용성, 정서적 명료성의 부족, 정서조절전략에 대한 접근제한과 목표지향행동의 어려움, 총 6개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Likert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성격 변인은 12차년도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한 NEO 성격검사 도구(안현의·안창규, 2017)의 성인용 버전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외향성(사회성, 지배성, 자극추구, 활동성), 개방성(창의성, 정서성, 사고유연성, 행동진취성), 친화성(온정성, 신뢰성, 공감성, 관용성), 성실성(유능감, 성취동기, 조직성, 책임감), 신경증(불안, 적대감, 우울, 충동성, 사회적 위축, 정서충격, 심약성, 특이성, 반사회성, 자손감)의 5요인과 26개 하위척도, 총 21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활동성, 행동진취성, 공감성, 성취동기, 심약성, 특이성, 반사회성 및 자손감(자아손상감)은 초등학생용 성격검사에서 추가된 요인이다.

행동유형은 여러 학자에 의해 개념화된 요인으로 사람의 행동유형을 A형과 B형으로 나누어, A형 행동유형은 성취추구적이고, 시간에 대한 높은 압박을 느끼고,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공격성과 적개심 등을 보이는 특성이 대표적이고, B형 행동유형은 A형 행동유형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느긋하고 여유 있는 특성이 있다고 알려져있다(신승욱, 2008, 재인용). 행동유형을 측정하기 위해, 장현갑과 강성군(1996, 신승욱, 2008, 재인용)이 번안한 Girdano·Everly(1979, 신승욱, 2008, 재인용) 및 Dusek(1990, 신승욱, 2008, 재인용)의 Hart Type A척도를 5점 척도로 구성한 공소영(2007, 신승욱, 2008, 재인용)의 척도를 그대로 인용한 신승욱(2008)판을 사용하였다. 총 10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으로 점수가 클수록 A형 행도유형이 강한 개인으로 해석한다.

둘째, 부모의 신체 및 건강 특성으로 주관적 건강 상태, 장애 유무, 음주 및 흡연 관련 항목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조사하였다.

셋째, 부모의 직업 특성으로 취·학업 상태, 재직상태, 직장 변동 여부, 직업분류, 근무 시간, 출퇴근 시간 및 전반적 일자리 만족도를 전년도와 동일하게 조사하였다.

넷째, 부모의 양육 특성으로 양육방식(성취압력), 양육스트레스, 아동학대, 아동의 친구 수 인식, 학습에 대한 부모 참여, 부모 감독, 하루 중 성인 없이 지내는 시간 등을 조사하였다. 부모애착척도는 격년문항으로 12차년도 조사에서 포함되었기 때문에 13차년도 조사에서는 제외하였다.

양육스트레스는 패널 초기부터 초등학교 1학년(8차년도) 시기까지 지속적으로 조사하였지만, 그 이후로는 측정하지 않던 변인이었다. 학령후기에 접어든 자녀와의 관계 문항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자문의견에 따라 13차년도 조사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 부모가 겪는 양육스트레스에 대해 다시 측정하기로 하였다. 양육스트레스는 강희경(2003)이 Abidin(1990, 강희경, 2003, 재인용)의 PSI(Parenting Stress Index)와 김기현과 강희경(1997)의 양육스트레스 척도를 학령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요인을 고려하여 개정한 양육스트레스 도구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부모생활 스트레스 문항(7문항), 학부모역할 스트레스(17문항)으로 총 2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로 구성된 Likert식 5점 척도로 응답한다.

또한 13차년도에는 부모의 미디어 기기 중독에 대한 조사를 추가하기로 하였는

데, 이를 통해 아동들의 미디어 기기 중독과 부모들의 중독 경향과의 관련성 탐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광우 외(2011)가 개발한 스마트폰 중독 자가진단 척도(Smartphone Addiction Proneness Scale for Adult, S척도)를 사용할 예정이며, 총 15문항으로 총 4가지 하위 요인(일상생활, 가상세계지향, 금단, 내성)으로 구성되어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로 구성된 Likert식 5점 척도로 응답하며, 총점 및 요인별 점수에 따라 고위험 사용자군,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 일반 사용자군으로 분류된다.

〈표 II-2-3〉 12~13차년도 부모 특성 조사 변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2차	13차
개인 및 부부 특성	인구학적 특성	연령, 최종학력	○	○
	심리적 특성	우울(격년)	◑	-
		주관적 행복감, 일상적 스트레스, 삶의 만족도	◑	◑
		일-가정 양립시 이점과 갈등	◑	◑
		자아존중감(격년)	-	◑
		자기조절(정서조절곤란)(심층)	-	◑
		행동유형	-	◑
		성격검사(심층)	-	◑
	부부 특성	결혼 상태, 결혼 상태 유지 기간	○	○
		결혼만족도(격년)	◑	-
		부부갈등(격년)	-	◑
부모 신체 및 건강특성	신체 특성	주관적 건강 상태	◑	◑
	질환/장애	1·2급 장애 유무	○	○
	음주 및 흡연	음주 여부, 횟수, 양, 과음 횟수	◑	◑
		흡연 여부, 하루 흡연량	◑	◑
직업특성	일반적 특성	취/학업 상태	◑	◑
	취업 특성	재직 상태, 직장 변동 여부, 지위, 직업분류	◑	◑
		(주중, 주말) 근무 일, 시간, 출퇴근 시간	○	○
		전반적 일자리 만족도	○	○
양육특성	양육 실제	양육방식(성취압력)	◉	◉
		양육스트레스	-	◑
		아동학대	◉	◉
		부모애착척도(IPPA) (학교급별로)	◉	-
		보호자가 인식한 친구 수	○	○
		학습에 대한 부모 참여	○	○
		부모 감독, 하루 중 성인 없이 있는 시간	○	○
	지원 특성	사회적 지원 정도, 지원 인원(격년)	-	○
기타		미디어 중독	-	◑

주: 1) 음영으로 표시한 변인은 13차년도 신규 추가 항목임.
2) 약호설명(○:보호자응답, ●:어머니응답, ◑어머니/아버지응답,◉:아동응답, ■:교사응답)

다. 가구 특성 조사 변인

가구 특성 변인은 가구 구성과 구성 특성에 대한 인구학적 특성, 주거 및 생활환경의 물리적 특성, 소득과 지출, 자산/부채에 대한 경제적 특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13차년도 조사는 전년도와 동일한 문항으로 진행하였다. 가구 특성 조사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 Ⅱ-2-4〉와 같다.

개별 방 여부에 대한 문항은 12차년도 설문지 개발 당시 격년 문항으로 조정하였으나, 종단값 확인 문항으로 응답자의 부담을 줄이는 선에서 매년 조사하기로 변경하였다. 경제적 특성 중 용돈사용처 문항은 14차년도부터는 기존의 보호자 응답에서 아동이 직접 응답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표 Ⅱ-2-4〉 12~13차년도 가구 특성 조사 변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2차	13차
인구학적	가구 구성	○○(이)와 부모의 동거 여부, 비동거 이유	○	○
		가구 구성 형태, 가구원 수	○	○
	구성원 특성	성별, 생년월일, 결혼 여부, 합가 사유	○	○
물리적 특성	주거환경	○○(이) 개별 방 여부	○	○
	생활환경	애완동물 수	○	○
경제적 특성	소득	가구 소득, 취업 모 근로 소득	○	○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	○
		경제적 상황에 대한 가족의 걱정빈도	◉	◉
	지출	가구 및 자녀에 대한 소비성, 비소비성 지출	○	○
		○○(이) 용돈 지급 여부, 지급액	○	○
		용돈사용처	○	○
	자산 및 부채	부동산, 금융자산	○	○
		부채 여부, 부채액, 월 상환액	○	○

주: 약호설명(○:보호자응답, ●:어머니응답, ◑어머니/아버지응답,◉:아동응답, ■:교사응답)

라. 학교·사교육 특성 조사 변인

학교·사교육 특성은 크게 학교 특성, 사교육 특성, 돌봄서비스 특성으로 나누어 조사하게 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표 Ⅱ-2-5〉와 같다.

첫째, 아동이 재학 중인 학교에 대해서는 이용 특성, 학교 특성, 물리적 특성, 교사 특성, 학급운영, 가정협력에 대해 조사한다. 이용 특성에는 아동의 학교 진학

여부, 미진학 사유, 대체이용기관, 전학/결석 여부 및 이유가 있고, 학교 특성 관련해서는 설립유형, 시범학교 유형 등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이외에도 학급 및 학생 수, 학교 환경에 대한 물리적 특성, 담임교사 특성에 대해 조사하며, 마지막으로 교사와 아동 관계, 창의적 학교 환경 등에 관한 학급 운영 특성, 부모의 행사 참여 여부 및 정도, 학교생활 관심 정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둘째, 사교육 특성은 아동이 학교 이외에 다니고 있는 사교육 기관, 종류, 시간, 만족도, 비용, 비용 부담 정도에 대해 보호자가 응답하게 하며, 12차년도부터 포함된 부분으로 아동 스스로가 응답하는 사교육의 개수에 대한 인식 및 부담감 문항도 있다.

셋째, 학기·방학 중에 이용하는 돌봄서비스의 종류, 시간, 만족도, 비용 등에 대해 조사한다. 전년도와 동일한 문항으로 구성하지만, 돌봄교실 운영 현황을 고려하여 초등돌봄교실 보기 문항에 방과후학교연계형돌봄교실을 괄호로 추가하기로 하였다.

〈표 Ⅱ-2-5〉 12~13차년도 학교·사교육 특성 조사 변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2차	3차
학교	이용 특성	학교 진학 여부, 미진학 사유, 대체 이용 기관	○	○
		전학 여부, 결석 여부, 이유	○	○
	학교 특성	소속 교육청	■	■
		설립 유형	■	■
		시범학교 유형	■	■
	물리적 특성	학급 수, 학급 학생 수, 학교 환경	■	■
		교육시설 만족도	삭제	삭제
	교사특성	성별, 연령, 최종학력, 교사 경력, 근무 시간	■	■
		업무 스트레스	■	■
	학급운영	교사-아동 관계(친밀, 갈등)	■	■
		창의적 학교 환경	◉	◉
	가정협력	부모의 행사 참여 여부 및 정도	○■	○■
		부모의 학교생활 관심 정도	■	■
사교육	이용 특성	이용 종류, 시간, 기관, 만족도, 비용, 비용 부담 정도	○	○
	사교육 인식	아동이 인식하는 사교육	◉	◉
돌봄서비스	이용 특성	(학기/방학 중) 이용 유형, 시간, 빈도, 비용, 만족도	○	○

주: 약호설명(○:보호자응답, ●:어머니응답, ◑어머니/아버지응답,◉:아동응답, ■:교사응답)

마. 지역·정책 특성 조사 변인

지역, 정책 특성은 지역 특성과 정책 특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역 특성에는 가구의 일반적 특성과 교육·복지·의료·문화·여가 및 사회 안전과 관련한 양육환경 특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책 특성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구분 및 초등시기에 해당하는 국가지원정책의 수혜 여부와 만족도, 주로 직장과 관련한 육아지원제도와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등에 대한 항목을 조사하였다.

〈표 Ⅱ-2-6〉 12~13차년도 지역 및 정책 특성 조사 변인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2차	13차
지역 특성	일반적 특성	가구 특성	지난 조사 후 이사 횟수	○	○
			지역 규모, 6개 권역 구분, 시/군/구, 17개 시/도 구분	○	○
	양육환경	교육·복지·의료 문화·여가	교육·의료·복지 시설, 공공 여가 공간·시설, 문화 시설 접근 편리성 및 이용 만족도	○	○
		사회 안전	양육환경 안전성	○	○
정책 특성	국가 지원	수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구분	○	○
			정책 수혜 여부 및 만족도	○	○
	직장 지원	시행 및 이용	육아지원제도	◑	◑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	◑
	기타 지원	시행 및 이용	생활비 지원 여부 및 지원처	○	○

주: 약호설명(○:보호자응답, ●:어머니응답, ◑어머니/아버지응답,◉:아동응답, ■:교사응답)

3. 패널 관리

가. 패널 유지

패널 연구에서 대상자의 유지는 연구를 지속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이에 한국아동패널에서는 패널 이탈 최소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패널 유지·관리 4대 원칙을 세워 관리하고자 히였다(그림 Ⅱ-3-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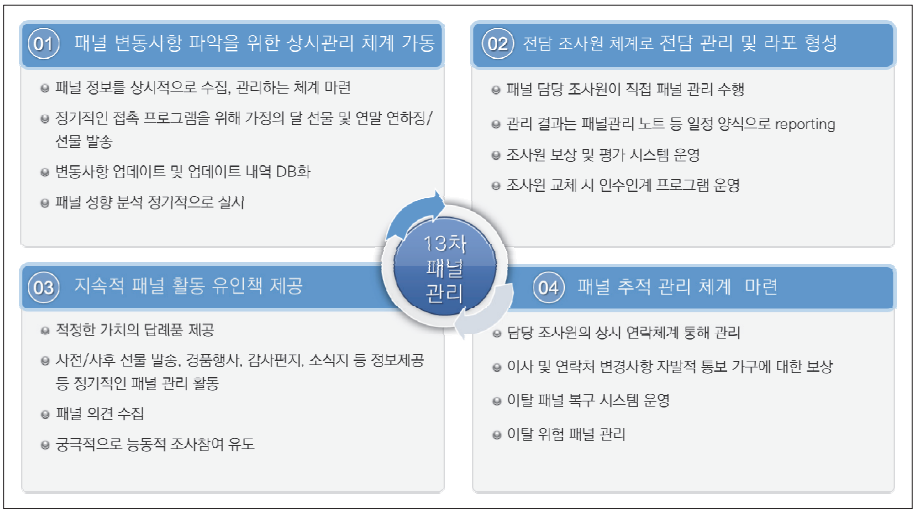
첫째, 상시적 관리 체계로써 조사내용, 문의 등을 토대로 패널 성향을 정기적으로 분석하여 일반·이탈·위험 패널로 나누어 특성을 파악하였다. 관련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조사 시간 및 기간 등을 조율하였다. 또한 패널 관련 정보 및 주요 연구성과물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패널의 참여 의지를 독려하고, 연말에는 연하장

을 발송하여 지속적으로 관리체계에 속한다는 연대의식을 촉구하고자 하였다. 또한 기존의 패널 전용 핫라인 번호를 유지하여, 연중 24시간 패널가구와 접촉·소통할 수 있게 하였다.

둘째, 패널가구와의 라포 형성을 위하여 담당 조사원이 상시 연락 체계를 유지하였다. 패널가구별 관리 노트를 작성하여 가구의 특성을 파악·관리하여 중앙에 보고하고, 이는 조사원이 변동되더라도 꾸준한 관리 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거절 패널가구 유형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함으로써 각 가구의 특성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지속적 패널 참여를 위한 유인책을 지속·확대하고자 하였다. 패널아동의 발달 정보뿐만 아니라, 지난 12년간 조사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정리한 브로슈어를 각 패널가구에 제공하였다(부록 7 참조). 특히 올해 13차년도 조사에서는 아동수행검사(다요인지능검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지를 보호자에게 개별 발송하여 자녀에 대한 발달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패널가구의 지속적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였다.

[그림 II-3-1] 13차년도 패널 유지·관리 4대 원칙



또한 응답자별 참여 답례품을 직접 제공하여 개개인의 참여 의사를 독려하고자 하였다. 아동의 직접적 참여 의사가 보다 뚜렷해지는 점을 고려해 아동 답례품은 작년과 동일하게 문화상품권으로 선정하였으며, 예외가 없는 한 아동이 직접 수령

하게 하였다. 조사 종료 후에는 패널의 지속적 참여 유인을 위한 경품 추첨 행사를 진행하는데, 경품 행사는 13차년도 조사 참여 패널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패널가구의 자발적 참여 의지를 유도하기 위하여 되도록이면 많은 패널가구들이 혜택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품을 준비하였다. 2020년 조사를 준비하면서 지난 5월 모든 패널가구에게 가정의 달 편지 및 선물을 발송하였다(그림 Ⅱ-3-2, Ⅱ-3-4 참조). 이때 13차년도 조사 일정에 대한 간략한 안내와 함께 손세정제 등 위생용품 세트를 선물하고, 기본정보를 확인하였다. 또한 연말에는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패널을 포함한 모든 패널가구에게 새해선물과 연하장을 발송하여, 조사 참여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 내년 조사에 대한 참여를 요청하였다.

넷째, 패널의 추적관리를 위하여 가구에서 이사 및 변경 연락처/주소를 자발적으로 알리는 경우, 선물을 제공하였다. 특별히 2020년 연말에는 2021년 2월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패널아동들을 축하하고 격려하기 위해 졸업선물을 추가로 발송하였다(그림 Ⅱ-3-3 참조). 이탈 위험 패널의 경우 조사원과 연구원이 직접 접촉하고, 가능할 시 가구 방문을 통해 참여를 독려하여 가구별 특성에 맞는 지지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그림 Ⅱ-3-2] 2020년 가정의 달 선물

[그림 Ⅱ-3-3] 2020년 연말 선물 및 초등학교 졸업 선물

[그림 II-3-4] 2020년 가정의 달 선물 발송 안내문

한국아동패널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한국아동패널 2020년도 안내문

안녕하세요. 한국아동패널 조사팀입니다.
한국아동패널 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2019년 제12차 조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올 해는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패널 아동의 개학이 연기되고 온 국민의 외부 활동이 제한되어 힘든 봄을 보내고 계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 아동패널팀에서도 올 해 하반기에 진행될 13차 한국아동패널 조사가 안전한 환경에서 실시될 수 있도록 국내 코로나19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상황이 충분히 안정세에 접어든 이후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조사 과정에서 직접 만나는 방문조사원의 건강 상태 및 해외여행 이력, 가족 및 지역사회 감염 상황 등을 충분히 검증한 뒤 조사 투입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습니다. 또한 방역마스크, 손소독제, 소독용 티슈를 착용·지참하여 조사에 임하도록 철저한 관리·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올해 조사에는 아동을 위한 다요인 지능검사(M-FIT)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동의 전반적 학습능력, 문제해결력, 환경적응능력 등을 나타내는 종합점수와 6개의 하위 영역(어휘력, 언어유추, 도식화, 수리력, 공간지각, 추리력)별 점수를 분석하여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본 검사 결과를 참고하시면 우리 아이의 학업 지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올해에도 경품 추첨 및 가정의달·연말·이사 선물 등 다양한 이벤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늘 받으신 LG생활건강 핸드워시·손세정제·소독용티슈 세트는 가정의 달을 맞아 저희가 준비한 선물로, 모든 패널 가정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끝까지 잘 이겨내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마련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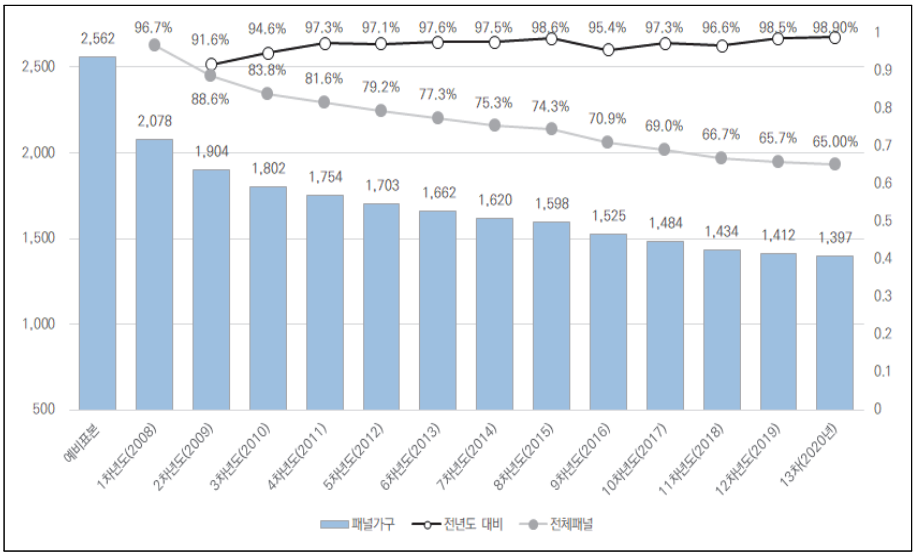
패널 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로 한국아동패널이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한국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아동패널 홈페이지 http://panel.kicce.re.kr
한국아동패널 전용 핫라인 010-9772-2133 (전화, 문자, 카카오톡 가능)

나. 조사 성공률 및 표본 유지율

지난 1차부터 13차년도까지의 연도별 조사 참여율은 다음 〈그림 Ⅱ-3-5〉, 〈표 Ⅱ-3-1〉과 같다. 2020년에 실시한 13차년도 조사 참여 가구는 최종적으로 1,397가구로, 전체 패널 2,150가구 대비 65.0%의 유지율을 나타내었다. 이는 2019년 조사대상 1,412가구의 98.9%에 해당하며, 2020년에 정리한 유효패널[6] 기준 87.9%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그림 Ⅱ-3-5] 한국아동패널 2008~2020년 조사 참여율



〈표 Ⅱ-3-1〉 한국아동패널 2008~2020년 조사 참여율

단위: 가구

패널 현황	서울	인천·경기	대전·충청·강원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라·제주	계
전체 패널	335	683	281	248	371	232	2,150
1차(2008년)	328	662	272	242	348	226	2,078
2차(2009년)	280	604	275	221	315	209	1,904
3차(2010년)	260	580	251	209	308	194	1,802

6) 2020년에는 조사대상자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총 2,150 패널가구 중 사망, 유학, 강력참여 거절 등의 사유가 있는 가구를 제외하고 1,589 패널가구를 유효패널로 정리하였음.

패널 현황	서울	인천·경기	대전·충청·강원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라·제주	계
4차(2011년)	246	562	243	211	299	193	1,754
5차(2012년)	231	553	234	199	291	195	1,703
6차(2013년)	226	532	223	196	287	198	1,662
7차(2014년)	223	508	227	188	281	193	1,620
8차(2015년)	209	512	226	179	283	189	1,598
9차(2016년)	182	481	222	178	277	185	1,525
10차(2017년)	175	480	212	170	261	186	1,484
11차(2018년)	165	454	213	163	252	187	1,434
12차(2019년)	167	438	208	160	252	187	1,412
13차(2020년)	171	444	197	157	247	181	1,397

4. 제11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개최

한국아동패널에서는 매년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국내·외 연구자 간 학술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한국아동패널 데이터를 활용한 논문 공모전을 개최함으로써 한국아동패널 데이터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힘쓰고 있다. 2020년도 제11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를 9월 25일(금)에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한가정학회, 한국교육심리학과, 한국아동복지학회, 한국아동학회, 한국초등교육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대회는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원칙에 의거하여 발표 관련자 등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하고, 비대면으로 진행하되 육아정책연구소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생중계되었다.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개최를 위한 주요 일정은 다음 〈표 Ⅱ-4-1〉과 같이 진행되었다.

〈표 Ⅱ-4-1〉 제11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추진 주요 일정

내용	2020년 일정
연구계획서 공모 마감	2020. 5. 10
연구계획서 공모 심사 결과 발표	2020. 5. 18
최종 원고 마감	2020. 7. 31
최종 원고 심사결과 발표	2020. 8. 10
학술대회 개최	2020. 9. 25

〈표 Ⅱ-4-2〉 제11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일정

시간	프로그램
13:00 - 13:20	등록
개회식	
13:20 - 13:40	개회사 및 축사
13:40 - 13:50	대학원생 논문 시상
13:50 - 14:00	한국아동패널 소개
논문발표	
14:00 - 17:50	[주제발표] 세션 1 학교적응/세션 2 아동발달/세션 3 양육/세션 4 인지 및 적응
17:50 - 18:00	폐회

제11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개회식에서는 한국아동패널에 대한 소개, 대학원생 논문 공모전 수상 논문 시상 등이 있었으며, 논문발표 세션에서는 학교적응, 아동발달, 양육, 인지 및 적응 총 4개의 분과별 주제발표에 따라 총 25개의 다양한 아동패널 연구논문이 발표되었고, 이에 따른 전문가들의 토론이 진행되어 활발한 학술교류의 장이 되었다. 이번 학술대회는 특별히 관련 분야 주요 학회와 공동 주최하는 방식으로 개최하여 데이터 활용의 다양성을 키우고 국가 연구 자료로써의 역할을 더욱 확대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

〈표 Ⅱ-4-3〉 제11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발표 논문 목록

주제	내용
학교적응	1.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부모- 자녀 상호작용 수준이 초등학교 학업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 유아의 학습준비도 및 사회적 유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2. 학습준비도, 부모, 교사 요인이 아동의 초등학교 적응과 학업수행 변화에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간의 구조적관계
	3. 유아기 또래놀이행동이 예측하는 학령초기 집행기능 곤란과 학교적응 간의 평행잠재성장 모형 분석
	4. 생애초기 누적위험요인이 유아기 문제행동을 통해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5. 성장혼합모형을 적용한 1~4학년 초등학교 아동의 학교적응 잠재계층 분류 및 영향요인 분석
	6. 초등학교 저학년의 자아존중감 발달궤적과 또래애착 및 학교폭력 피해 경험
아동발달	(자아존중감과 행복감)
	1. 초등학교 저학년의 자아존중감 발달궤적과 또래애착 및 학교폭력 피해 경험
	2. 초등학교 아동의 자아존중감 변화양상과 관련 변인 탐색

주제	내용
	3. 유아기 놀이시간, 부모-유아 상호작용, 유아기 행복감과 아동기 행복감 간의 구조적 관계: 아동의 연령에 따른 다집단분석
	(미디어사용과 문제 행동)
	1.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통한 아동의 미디어 사용유형화와 유형별 인지발달 특성
	2. 어머니의 부부갈등과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과의 관계: 양육행동의 매개효과
	3. 소극양극집단 아동의 주의력 집행기능 예측에 관한 머신러닝분석
양육	1. 아동물질주의에 대한 종단 연구: 행복과 사회적적응에 미치는 영향 및 부모요인
	2. 공동양육의양과 질을 반영한 잠재프로파일분석과 집단 간 차이
	3. 유아기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학령기 아동의 그릿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4. 잠재전이모형을 적용한 취업모의 일-가정 이점과 갈등의 유형 및 영향 요인 검증
	5. 맞벌이 가구 남편의 성역할태도 유형이 부인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남편의 양육참여 빈도와 온정적 양육행동의 매개효과
	6. 초등학교 학생의 학교적응 잠재프로파일의 전이와 부모, 교사의 예측요인 검증
인지 및 적응	(아동집행기능)
	1. 잠재 궤적 추적과 머신러닝을 활용한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 예측 및 분별모델 개발
	2. 유아기 사회적 지지와 모의 양육이 아도으이 집행기능과 불안을 통해 아동기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기회기교차모델을 적용한 종단연구
	3.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 집행기능 곤란, 학교적응간의 구조적관계: 자기회귀교차지연모델 효과검증
	(적응과 환경)
	1. 취업모의 일-양육갈등과 가족공동체 활동간의 관계: 우울, 부부공동양육, 사회벅 지지의 조절효과
	2. PC, 스마트폰 중독위험 아동예측,: 생태체계 관점의 적용
	3.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학업수행능력과 학교적응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 유아기 또래행동의 역할
	4. 아동의 창의성 변화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잠재계층성장분석의 적용

[그림 Ⅱ-4-1] 제11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개최 모습

III

12차년도(2019년) 조사결과 분석

01 12차년도 조사대상자 특성

02 아동 특성

03 부모 및 가구 특성

04 학교, 지역사회 및 정책 특성

Ⅲ. 12차년도(2019년) 조사결과 분석

본 장에서는 2019년 진행된 한국아동패널의 12차년도 조사결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아동 특성, 부모 및 가구 특성, 학교, 지역사회 및 정책 특성 등으로 구분하여 결과를 기술하였다.

1. 12차년도 조사대상자 특성[7)]

2019년도 12차년도에 조사한 참여한 패널아동의 일반적인 특성을 아동의 성별, 출생순위, 월령, 부모의 취·학업 상태, 최종학력, 연령, 마지막으로 가구 구성 형태와 자녀 수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12차년도 참여 패널은 총 1,412가구였다.

먼저 아동의 성별을 살펴보면 남아가 전체의 51.3%, 여아가 48.7%였으며, 출생순위별로는 외동아가 10.6%, 첫째아 35.5%, 둘째 이상인 경우는 53.8%로 나타났다. 조사 당시의 아동 월령을 조사한 결과, 패널아동의 평균 월령은 136.44월이었고, 이를 연령으로 환산하면 만11.37세로 초등학교 5학년 나이였다.

패널아동 부모의 취·학업상태를 분석한 결과, 어머니의 경우는 취업 혹은 학업 중인 경우가 전체의 58.8%였고, 아버지는 전체의 96.4%가 취업 혹은 학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최종학력으로 어머니의 경우는 대학교 졸업 이상이 44.8%로 가장 많았고, 전문대 졸업 29.2%, 고등학교 졸업 이하는 26.0%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버지의 경우는 어머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학교 졸업이 가장 많은 53.5%의 분포를 보였고, 전문대 졸업 20.6%, 고등학교 졸업은 25.8%로 나타났다. 패널아동 초등학교 5학년 시기의 어머니와 아버지의 연령을 조사한 결과,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42.09세, 아버지는 44.56세였다.

다음으로 패널가구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전체 조사대상의 86.8% 가구는 부모와 자녀로 구성되었으며, 조부모와 부모, 자녀로 구성된 가구는 8.8%였다.

---

7) 2019년(12차년도) 일반조사 결과 분석은, 횡단 가중치로 보정하지 않은 원자료를 토대로 분석하였음.

패널가구는 평균적으로 2.22명의 자녀를 두고, 총 가구원 수는 평균 4.67명, 월 평균 가구소득은 실수령 기준으로 565.39만원이고, 월 평균 가구의 총 지출액은 460.93만원이었다. 이 중 패널아동을 포함한 자녀를 위한 지출액은 월 평균 153.19만원으로 보고하였다.

〈표 Ⅲ-1-1〉 12차년도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명)

구분	아동	구분	어머니	아버지
성별		취·학업 상태		
남아	51.3(725)	취·학업 중	58.8(802)	96.4(1,198)
여아	48.7(687)	미취·미학업 중	41.2(563)	3.6(45)
출생순위		최종학력		
외동아	10.6(150)	고졸 이하	26.0(361)	25.8(353)
첫째	35.5(501)	전문대 졸	29.2(405)	20.6(282)
둘째 이상	53.8(759)	대졸 이상	44.8(621)	53.5(731)
계(수)	100.0(1,412)	계(수)	100.0(1,365)	100.0(1,243)
월령		연령		
평균(표준편차)	136.44(1.52)	평균(표준편차)	42.09(3.63)	44.56(3.91)
구분	**가구**	**구분**	**평균**	**표준편차**
가구 구성 형태				
부모+자녀	86.8(1,225)	자녀수(명)	2.22	0.70
조부모+부모+자녀	8.8(124)	가구원 수(명)	4.67	1.95
조부모+부모+자녀+친척	3.8(53)	가구 소득(만원)	565.39	425.62
부모+자녀+친척	0.6(9)	가구 지출(만원)	460.93	213.43
기타	0.1(1)	자녀 지출(만원)	153.19	87.09
계(수)	100.0(1,412)			

2. 아동 특성

가. 아동 특성 관련 변인 구성

12차년도 아동의 특성을 인구학적 특성, 일상생활 특성, 신체 및 건강 특성, 인지 및 언어발달 특성, 사회 및 정서발달 특성으로 나누어 각 세부 변인을 조사하였다. 아동 특성과 관련한 대부분의 조사는 아동이 직접 기입하거나, 보호자, 어머니, 교사의 응답을 토대로 수집되었으며, 상세한 변인은 〈표 Ⅲ-2-1〉과 같다.

아동의 인구학적 특성 변인으로는 먼저 성별, 출생월, 월령, 출생순위 등에 대한

확인조사가 실시되었다.

일상생활 중 식생활 부분에서는 식생활 진단, 카페인 음료 및 인스턴트식 섭취에 대한 정보를 조사하였고, 미디어 부분에서는 아동의 휴대폰 소유 여부, 미디어 이용시간과 시간, 미디어 중독에 대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주중과 주말의 기상 및 취침시각, 수면시간, 일과 활동시간 등 생활시간 정보와 독서량, 실내·외 운동 정도, 악기연주, 스포츠 활동 경험에 대한 취미생활 등 실내외 활동에 대한 자료도 조사하였다.

신체 및 건강 특성 중 체중, 신장, 허리둘레는 조사원이 가구 방문 시 아동의 신체사이즈를 직접 계측하였고, 시력 보정기구 착용 여부 관련 정보, 주관적 건강상태, 2차 성징이 나타난 시작 시기, 장애 등급 관련 정보와 응급실 치료 및 만성질환 진단, 심리사회적 질환 진단 등은 보호자가 응답한 항목이다.

12차년도 조사에서 언어발달은 비속어 사용 여부에 대한 조사만 이뤄져있다. 인지발달에서 학습 관련 변인으로는 학업 수행능력, 학업 스트레스, 학업 동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는데, 이 중 학업 수행능력은 패널아동의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응답한 자료이다.

패널아동의 사회 및 정서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측정한 변인으로는 자아/정서발달 부분에서는 자아탄력성, 자아정체감, 전반적 행복감, 과목 선호도, 성격, 자율성 변인이 있고, 사회성 발달 관련하여 친구 수, 학교적응, 문제행동, 집단괴롭힘, 사이버폭력, 삶의 만족도, 상대적 박탈지수(가정형편), 이성관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 외에 진로관, 미래에 대한 인식, 장래희망과 결혼관 및 자녀관, 저축관에 대해서도 아동에게 직접 응답하게 하여 조사하였다.

〈표 Ⅲ-2-1〉 12차년도 아동 특성 변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인구학적 특성	인구학적 특성	• 성별, 연령, 월령 • 출생순위
일상생활 특성	식생활	• 식생활 진단 • 카페인 음료(탄산음료) 및 인스턴트식 섭취
	일과활동	• 기상 및 취침 시각, 수면시간 • 공사립 교육기관 이용 시간 • 독서, 숙제 및 학습 관련 • 미디어 이용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여가 및 교제 •기본생활 및 가사 돕기
	외출/활동 참여	• 여행·연수 빈도 • 문화체험, 예술감상, 종교활동 • 봉사활동, 동아리 활동 • 장보기, 친척 방문
	시간 사용 및 가족 식사	• 시간사용 만족도(대화시간, 식사시간, 여가활동시간, 숙제시간 등) • 가족과의 식사 횟수
신체 및 건강 특성	신체 특성/ 건강 상태	• 체중, 신장, 허리둘레 • 시력 보정도구 착용 여부, 시기 • 주관적 건강 상태 • 2차 성징이 나타난 시작 시기 • 신체적 자아상
	질환 및 치료	• 응급실 치료 여부, 이유, 입원 치료 여부 • 만성 질환별 진단 여부, 병원 치료 여부 • 심리사회적 질환별 진단, 치료 여부 • 알레르기 질환 진단, 치료 여부
언어 및 학습 특성	언어	• 비속어사용
	학습	• 학업 수행능력 • 학업 스트레스 • 학업 동기 • 과목 선호도
사회 및 정서 특성	자아개념/정서	• 자아개념(자아탄력성, 자아정체감) • 전반적 행복감 • 자율성
	성격	• 외향성,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 신경증
	폭력 피해	• 집단괴롭힘 • 사이버 폭력
	사회성과 학교적응	• 친구 수, 이성친구 수 • 학교적응 • 문제행동 • 삶의 만족도 • 상대적 박탈지수(가정형편)
	문제행동	• 내재화 문제행동, 외현화 문제행동 • 정서, 불안, 신체화, ADHD, 반항행동문제 등 • 강박, 외상후스트레스, 인지속도부진
	미래/진로	• 진로관 • 미래에 대한 인식 • 장래희망
	사회관련 의식	• 결혼관/자녀관 • 저축관

나. 인구학적 특성

12차년도 조사에 참여한 아동의 인구학적 특성으로, 성별을 살펴보면 전체 1,412명의 아동 중 남아가 51.3%, 여아는 48.7%로 나타났다. 앞서 조사대상자 특성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출생순위별로는 형제자매가 없는 외동아가 10.6%, 첫째아인 경우는 35.5%, 둘째 이상인 경우는 53.8%로 759명으로 조사되었다. 조사 당시 패널아동의 평균 월령은 136.44월이었고, 이를 연령으로 환산하면 만 11.37세로 초등학교 5학년 나이임을 확인하였다.

〈표 Ⅲ-2-2〉 아동의 인구학적 특성

단위: %(명), 개월

성별		출생순위			계(수)	월령	
남아	여아	외동아	첫째아	둘째아 이상		평균	표준편차
51.3 (725)	48.7 (687)	10.6 (150)	35.5 (501)	53.8 (759)	100.0 (1,412)	136.44 (11.37세)	1.52

다. 일상생활 특성

1) 식생활

가) 식생활 진단

아동의 식생활 진단을 위해 어머니에게 질문을 하였다. 각 항목에 대해 1~3점 사이에 동의 정도를 표하도록 하는 척도 형식이다.

‘우유나 유제품을 매일 2병 이상 마신다’라는 문항에서 평균이 1.93점으로 보통 수준에서 응답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성별 비교에서는 남아가 2.03으로 여아보다 우유/유제품 섭취 빈도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육류, 생선, 달걀, 콩, 두부 등으로 된 음식을 끼니마다 먹는다’라는 단백질 섭취에 대한 질문에서는 평균 2.36점이었고 남아가 여아보다, 출생순위 첫째가 외동이나 둘째이상보다, 소득 400만원 미만 가구보다 소득 600만원대 가구에서 단백질류를 매끼 섭취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왔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치였다.

‘김치 이외의 채소를 끼니마다 먹는다’라는 항목에서는 평균 2.05점으로 보통

정도의 응답 수준을 보였다. 성별 비교에서 여아가 남아보다 끼니마다 채소를 먹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과일섭취의 경우는 평균 2.31점이고 남아보다 여아의 점수가 높고 월소득 500만원대와 700만원 이상 집단에서 과일을 더 자주 먹는 경향을 보였다.

〈표 Ⅲ-2-3〉 아동의 식생활 진단: 섭취 권장 항목

단위: (명), 점

구분	수	우유/유제품		단백질류		채소		과일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1,308)	1.93	0.74	2.36	0.63	2.05	0.72	2.31	0.72
아동 성별									
남	(679)	2.03	0.74	2.40	0.63	2.00	0.72	2.24	0.75
여	(629)	1.82	0.72	2.32	0.63	2.10	0.71	2.39	0.67
t		5.10***		2.16*		−2.54*		−3.67***	
아동 출생순위									
외동아[a]	(140)	1.91	0.77	2.38	0.65	1.97	0.74	2.39	0.72
첫째[b]	(461)	1.91	0.74	2.42	0.60	2.11	0.71	2.35	0.70
둘째 이상[c]	(705)	1.95	0.73	2.32	0.64	2.03	0.71	2.28	0.73
F		0.49		3.23* b〉a,c		2.83		2.00	
모 취업 여부									
취업	(745)	1.96	0.75	2.36	0.63	2.03	0.72	2.30	0.73
미취업	(526)	1.88	0.72	2.36	0.63	2.07	0.70	2.34	0.71
t		1.96		−0.21		−0.92		−0.95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a]	(273)	1.91	0.71	2.26	0.64	1.97	0.73	2.25	0.73
400~499만원[b]	(230)	1.88	0.75	2.35	0.58	2.05	0.69	2.25	0.71
500~599만원[c]	(270)	1.95	0.72	2.35	0.65	2.04	0.73	2.40	0.71
600~699만원[d]	(168)	1.96	0.79	2.45	0.62	2.08	0.73	2.23	0.73
700만원 이상[e]	(282)	2.00	0.73	2.43	0.62	2.06	0.71	2.40	0.70
F		1.12		3.4** d〉a		0.94		3.62**	

주: 1) 어머니의 응답임.
2) 3점 척도임('1.그런편이다~3.아닌편이다'로 응답되었지만, 해석의 편의를 위해 모두 역코딩을 실시함).
* $p < .05$, ** $p < .01$, *** $p < .001$.

과잉섭취를 자제해야 할 항목에 대한 질문으로, '튀김이나 볶음 요리를 주 2회 이상 먹는다'라는 항목에서 2.44점으로 3점 척도 기준 상당히 높은 점수를 보였고

외동아가 첫째 아이보다, 저소득가구일수록 주 2회 이상 먹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과잉 섭취와 관련해서도 전체 점수는 2.26점이고 남아가 여아보다, 600만원 이상 고소득 가정이 399만원 이하 저소득 가정에 비해 지방류 섭취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사할 때 소금이나 간장을 더 넣는다'라는 항목에 대해서는 1.45점으로 낮은 동의 수준을 보였고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단순당류 주 2회 의상 섭취는 2.45점으로 평균이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인 가운데, 취업모 가구가 미취업모보다 점수가 높아 빈도가 많은 것으로 보이며, 소득이 높은 가구에서 과섭취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표 Ⅲ-2-4〉 아동의 식생활 진단: 과잉섭취 자제 권장 항목

단위: (명), 점

구분	수	튀김/볶음요리		지방류		짠 음식		단순당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1,308)	2.44	0.65	2.26	0.71	1.45	0.66	2.45	0.69
아동 성별									
남	(679)	2.47	0.63	2.33	0.69	1.45	0.66	2.48	0.67
여	(629)	2.41	0.67	2.20	0.72	1.45	0.67	2.41	0.71
t		1.67		3.41***		-0.06		1.95	
아동 출생순위									
외동아[a]	(140)	2.32	0.67	2.19	0.68	1.45	0.67	2.35	0.76
첫째[b]	(461)	2.49	0.64	2.27	0.71	1.42	0.64	2.46	0.70
둘째 이상[c]	(705)	2.43	0.65	2.28	0.71	1.46	0.68	2.46	0.67
F		3.58* b>a		0.98		0.65		1.56	
모 취업 여부									
취업	(745)	2.45	0.65	2.29	0.71	1.47	0.67	2.48	0.68
미취업	(526)	2.41	0.66	2.22	0.71	1.43	0.65	2.40	0.71
t		1.12		1.57		1.06		2.13*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a]	(273)	2.32	0.67	2.14	0.70	1.45	0.65	2.30	0.74
400~499만원[b]	(230)	2.44	0.66	2.23	0.70	1.43	0.66	2.41	0.69
500~599만원[c]	(270)	2.50	0.60	2.30	0.68	1.44	0.66	2.54	0.67
600~699만원[d]	(168)	2.48	0.66	2.32	0.75	1.42	0.64	2.46	0.69
700만원 이상[e]	(282)	2.48	0.65	2.32	0.72	1.45	0.65	2.50	0.65
F		3.29* c>a		3.19*		0.09		5.03*** c,e>a	

주: 1) 어머니의 응답임.
2) 3점 척도임('1.그런편이다~3.아닌편이다'로 응답되었지만, 해석의 편의를 위해 모두 역코딩을 실시함).
* $p < .05$, *** $p < .001$.

다음으로 균형잡힌 식생활의 측면에서 매일 세 끼를 규칙적인 식사로 하는가라는 질문에서 2.57의 비교적 높은 점수를 보였고 아동출생 순위와 가구 소득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이상 아동보다는 첫째 아동이 보다 규칙적 식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구소득이 높은 집단의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마지막으로, 편식을 하지 않고 다양한 식품을 섭취하는 정도에서는 보통 수준인 2.22점으로 집계되었고 가구소득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표 Ⅲ-2-5〉 아동의 식생활 진단: 균형 잡힌 식생활

단위: (명), 점

구분	수	규칙적인 식사		다양한 식품의 섭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1,308)	2.57	0.64	2.22	0.76
아동 성별					
남	(679)	2.59	0.63	2.18	0.77
여	(629)	2.55	0.65	2.25	0.74
t		1.10		-1.68	
아동 출생순위					
외동아[a]	(140)	2.63	0.59	2.17	0.77
첫째[b]	(461)	2.65	0.58	2.26	0.75
둘째 이상[c]	(705)	2.51	0.67	2.20	0.76
F		7.00*** b〉c		1.40	
모 취업 여부					
취업	(745)	2.56	0.65	2.24	0.75
미취업	(526)	2.60	0.62	2.19	0.76
t		-1.07		1.03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a]	(273)	2.48	0.65	2.11	0.77
400~499만원[b]	(230)	2.57	0.64	2.22	0.75
500~599만원[c]	(270)	2.55	0.65	2.18	0.75
600~699만원[d]	(168)	2.64	0.62	2.30	0.75
700만원 이상[e]	(282)	2.65	0.59	2.28	0.76
F		3.01* e〉a		2.41*	

주: 1) 어머니의 응답임.
2) 3점 척도임('1.그런편이다~3.아닌편이다'로 응답되었지만, 해석의 편의를 위해 모두 역코딩을 실시함).
* $p < .05$, *** $p < .001$.

나) 카페인음료 및 인스턴트식 섭취

최근 7일 동안 탄산 등 카페인음료를 섭취한 빈도를 보면 26.8%는 거의 섭취하지 않는 것으로 응답하였고 주 1~2회가 49.6%로 가장 많았다. 주 2~3회 섭취한다는 응답은 19.2%였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남자아이들의 섭취빈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표 Ⅲ-2-6〉 최근 7일간 아동의 카페인음료(탄산음료) 섭취 빈도

단위: %(명)

구분	최근 7일 동안 마시지 않음	주 1~2회	주 2~3회	주 5회 이상	계(수)
전체	26.8	49.6	19.2	4.5	100.0(1,393)
아동 성별					
남	23.7	50.9	20.2	5.2	100.0(713)
여	30.0	48.2	18.1	3.7	100.0(680)
$x^2(df)$		8.25(3)*			
아동 출생순위					
외동아	28.6	49.7	18.4	3.4	100.0(147)
첫째	30.0	47.4	19.4	3.2	100.0(494)
둘째 이상	24.4	51.1	19.1	5.5	100.0(750)
$x^2(df)$		8.24(6)			
모 취업 여부					
취업	26.8	49.1	19.5	4.7	100.0 (795)
미취업	26.6	50.6	19.2	3.6	100.0(553)
$x^2(df)$		1.02(3)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24.9	51.2	18.6	5.3	100.0(285)
400~499만원	25.4	50.4	20.8	3.3	100.0(240)
500~599만원	24.1	51.4	19.5	5.0	100.0(282)
600~699만원	28.8	47.3	19.0	4.9	100.0(184)
700만원 이상	33.7	46.2	17.2	3.0	100.0(303)
$x^2(df)$		11.7(12)			

주: 아동의 응답임.
* $p < .05$.

최근 7일간 아동이 라면, 피자, 치킨 등 인스턴트식 음식을 섭취한 빈도를 보면 8.8%만이 먹지 않은 것으로 응답하였고 주 1~2회가 58.1%, 주 2~3회는 28.4%였다. 성별이나 소득 등의 집단 간 차이는 없었고 다만 아동 출생순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Ⅲ-2-7〉 최근 7일간 아동의 인스턴트식(라면, 피자, 치킨, 편의점 음식 등) 섭취 빈도

단위: %(명)

구분	최근 7일 동안 먹지 않음	주 1~2회	주 2~3회	주 5회 이상	계(수)
전체	8.8	58.1	28.4	4.7	100.0(1,393)
아동 성별					
남	9.3	55.3	30.0	5.5	100.0(713)
여	8.2	61.2	26.6	4.0	100.0(680)
$x^2(df)$		5.58(3)			
아동 출생순위					
외동아	10.2	61.2	23.8	4.8	100.0(147)
첫째	9.7	62.3	25.9	2.0	100.0(494)
둘째 이상	7.9	54.9	30.8	6.4	100.0(750)
$x^2(df)$		20.52(6)**			
모 취업 여부					
취업	9.3	56.7	29.6	4.4	100.0(795)
미취업	8.5	60.2	26.2	5.1	100.0(553)
$x^2(df)$		2.52(3)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8.1	57.2	29.1	5.6	100.0(285)
400~499만원	11.7	56.7	27.5	4.2	100.0(240)
500~599만원	6.4	58.2	30.5	5.0	100.0(282)
600~699만원	7.6	59.2	27.2	6.0	100.0(184)
700만원 이상	8.9	58.1	28.7	4.3	100.0(303)
$x^2(df)$		6.57(12)			

주: 아동의 응답임.
** $p < .01$.

2) 일과활동

가) 수면

패널아동의 주중 평균 취침 시각은 밤 10시 44분, 기상 시각은 오전 7시 36분으로 나타났다. 취침시각의 경우 표준편차가 1시간 10분이어서 밤 12시가 가까운 시각에 취침하는 경우도 상당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기상시각의 표준편차는 44분으로 거의 모든 아동이 7~8시 사이에 기상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평균 취침시각은 출생순 첫째인 아동에서 다른 순위보다 30분 이상 이른 것으로 나왔고 소득이 낮은 가구일수록 취침 시각이 빨랐다. 또한 기상 시각에서도 첫째가 기상시각이 가장 일렀고 낮은 소득 가구에서 유의하게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주말 취침 시각의 경우 평균 밤 11시 5분으로 주중에 비해 20분 정도 늦었다. 기상시각은 8시 51분으로 평일보다 1시간 15분 늦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말 취침시간에서는 출생순 첫째인 아이가 유의하게 더 늦게 자고 더 일찍 일어나는 것으로 보이고, 주말에는 미취업모 아이가 늦게 자는 대신 일어나는 시간은 취업모 아이가 유의하게 더 늦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소득 집단간 비교에서는 고소득 집단 자녀가 주중과 주말 모두 늦게 기상하고 취침시각에서는 주중에는 저소득집단이 일찍 잠드는 데 비해 주말에는 고소득 가정 자녀의 취침이 빨랐다.

〈표 Ⅲ-2-8〉 아동의 기상 및 취침 시각

단위: (명), 시:분

구분	(수)	주중				주말			
		취침시간		기상시간		취침시간		기상시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1,412)	22:44	1:10	7:36	0:44	23:05	1:19	8:51	1:01
아동 성별									
남	(725)	22:44	1:08	7:36	0:45	23:03	1:17	8:35	1:38
여	(687)	22:44	1:12	7:35	0:42	23:06	1:21	9:08	1:03
t		0.22		0.43		−0.88		−6.09***	
아동 출생순위									
외동아[a]	(150)	22:58	1:10	7:40	0:43	23:17	1:16	9:05	1:02
첫째[b]	(501)	22:24	1:09	7:30	0:45	23:24	1:19	8:35	1:35
둘째 이상[c]	(759)	22:55	1:09	7:39	0:43	23:15	1:18	8:58	1:04
F		33.02*** a,c〉b		6.17** a〉b		25.81*** b〉a,c		9.75*** a,c〉b	
모 취업 여부									
취업	(802)	22:46	1:10	7:36	0:44	23:10	1:21	8:57	1:02
미취업	(563)	22:40	1:11	7:37	0:43	23:36	1:18	8:43	1:00
t		1.59		−0.21		3.05**		2.42*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a]	(288)	22:27	1:16	7:28	0:44	23:29	1:26	8:40	1:02
400~499만원[b]	(245)	22:35	1:12	7:32	0:40	23:06	1:24	8:52	1:09
500~599만원[c]	(286)	22:48	1:03	7:36	0:42	23:06	1:13	8:50	1:39
600~699만원[d]	(185)	22:55	1:09	7:39	0:45	23:11	1:17	8:45	1:25
700만원 이상[e]	(308)	22:59	1:08	7:41	0:46	23:14	1:14	9:07	1:00
F		9.98*** e,d〉a		4.28** e〉a		4.29** e,d〉a		3.17* e〉a	

주: 보호자의 응답임.
* $p < .05$, ** $p < .01$, *** $p < .001$.

일일 수면시간을 보면 주중에는 평균 8.94시간(약 8시간 56분)을 자는 것으로 나타났고 주말에는 9.47시간(9시간 28분)을 자는 것으로 응답되었다. 주중과 주말 간 편차를 계산해보면 0.76시간, 즉 46분 정도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수면시간에 있어 주중에는 첫째 아이가 자는 시간이 유의하게 더 길고 소득이 낮은 가구의 아동이 더 많이 자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말에는 성별 차이가 있어 여자아이들이 유의하게 더 길게 자는 것으로 나왔다.

〈표 Ⅲ-2-9〉 수면시간

단위: 시간(명)

구분	(수)	주중		주말		주중-주말 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1,412)	8.94	0.67	9.47	0.90	0.76	0.73
아동 성별							
남	(725)	8.95	0.65	9.33	0.88	0.68	0.68
여	(687)	8.94	0.69	9.61	0.91	0.85	0.76
t		0.24		−5.93***		−4.30***	
아동 출생순위							
외동아[a]	(150)	8.84	0.66	9.49	0.90	0.81	0.79
첫째[b]	(501)	9.08	0.65	9.52	0.89	0.70	0.65
둘째 이상[c]	(759)	8.87	0.67	9.43	0.91	0.80	0.76
F		15.80*** b〉c,a		1.42		3.21*	
모 취업 여부							
취업	(802)	8.92	0.67	9.48	0.91	0.78	0.75
미취업	(563)	8.99	0.66	9.47	0.88	0.73	0.70
t		−1.84		0.08		1.23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a]	(288)	9.04	0.72	9.53	0.91	0.76	0.74
400~499만원[b]	(245)	9.00	0.68	9.47	0.97	0.77	0.72
500~599만원[c]	(286)	8.90	0.62	9.45	0.90	0.77	0.72
600~699만원[d]	(185)	8.86	0.65	9.34	0.77	0.72	0.63
700만원 이상[e]	(308)	8.85	0.65	9.54	0.89	0.80	0.78
F		4.51** a〉e		1.73		0.44	

주: 1) 9시간 미만 수면을 취하는 경우는 주중 36.0% 주말 15.8%.
2) 보호자의 응답임.
* $p < .05$, *** $p < .001$.

나) 공·사교육 기관 이용시간

아동의 일과활동 시간에서, 주중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을 보면 평균 6.28시간, 주말은 해당사례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평균 3시간으로 나타났다. 월 399만원 이하 소득 가구에서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6.43시간으로 가장 길고 600만원 이상 가구에서는 6.24시간으로 가장 짧았고, 반대로 학교 이외 기관에서 교육/돌봄에 보내는 시간으로는 소득이 높을수록 유의하게 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동아와 첫째 아이가 둘째 이상보다 학교 외 기관에서 보내는 시간이 긴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Ⅲ-2-10〉 아동의 일과활동 시간: 공·사교육 기관 이용

단위: 시간(명)

구분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						학교 이외의 기관에서 교육/돌봄 시간					
	주중			주말			주중			주말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1,410)	6.28	0.89	(124)	3.00	2.12	(1,251)	2.12	0.95	(280)	1.96	1.10
아동 성별												
남	(724)	6.29	0.83	(65)	2.73	2.13	(631)	2.11	0.96	(155)	1.95	1.03
여	(686)	6.27	0.95	(59)	3.31	2.07	(620)	2.13	0.93	(125)	1.97	1.18
t		0.31			−1.52			−0.37			−0.12	
아동 출생순위												
외동아[a]	(150)	6.26	0.78	(15)	2.57	1.81	(135)	2.27	0.94	(33)	1.71	0.83
첫째[b]	(501)	6.31	0.86	(39)	3.45	2.24	(460)	2.17	0.97	(123)	1.92	1.03
둘째 이상[c]	(757)	6.26	0.93	(70)	2.85	2.09	(654)	2.06	0.93	(124)	2.06	1.21
F		0.47			1.38			3.65* a>c			1.49	
모 취업 여부												
취업	(802)	6.28	0.95	(63)	2.75	2.16	(728)	2.13	0.94	(159)	2.05	1.17
미취업	(561)	6.27	0.78	(60)	3.24	2.05	(488)	2.11	0.97	(115)	1.80	1.00
t		0.24			−1.30			0.42			1.85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a]	(288)	6.43	0.99	(28)	2.64	1.76	(222)	1.95	0.93	(32)	1.83	0.96
400~499만원[b]	(244)	6.27	0.89	(22)	3.68	2.30	(216)	1.95	0.94	(50)	1.87	1.13
500~599만원[c]	(285)	6.27	0.79	(23)	2.13	1.67	(261)	2.10	0.84	(61)	1.79	0.89
600~699만원[d]	(185)	6.19	0.92	(16)	2.41	1.60	(171)	2.37	1.01	(35)	2.17	1.22
700만원 이상[e]	(308)	6.27	0.86	(26)	3.42	2.46	(291)	2.24	0.96	(88)	2.09	1.22
F		2.32			2.46*			7.69*** d,e>a,b			1.18	

주: 1) 아동의 하루일과 시간에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포함된 경우는 주중 99.9%, 주말 8.8%이며, 시간 산출은 해당 사례만을 분석함.
2) 아동의 하루일과 시간에 학교 이외의 기관에서 교육/돌봄 시간이 포함된 경우는 주중 88.6%, 주말 19.8%이며, 시간 산출은 해당 사례만을 분석함.
3) 보호자의 응답임.

* $p < .05$, *** $p < .001$.

다) 독서, 숙제 및 학습 관련

아동이 책을 읽는 데 보내는 일일 시간을 살펴보면, 평균 0.72시간(43분)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주말은 1시간 6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인은 거의 없었고 다만 주말 독서 시간에서 취업모보다 미취업모 자녀가 0.08시간(4.8분) 더 긴 것으로 보인다.

〈표 Ⅲ-2-11〉 아동의 책읽기 시간

단위: 시간(명)

구분	책읽기 시간					
	주중			주말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1,049)	0.72	0.34	(1,106)	1.10	0.63
아동 성별						
남	(538)	0.71	0.32	(563)	1.07	0.61
여	(511)	0.73	0.36	(543)	1.14	0.64
t		-1.13			-1.85	
아동 출생순위						
외동아[a]	(114)	0.66	0.24	(121)	1.11	0.62
첫째[b]	(387)	0.75	0.34	(416)	1.15	0.64
둘째 이상[c]	(547)	0.72	0.36	(568)	1.06	0.62
F		2.85			2.63	
모 취업 여부						
취업	(576)	0.70	0.33	(609)	1.06	0.57
미취업	(449)	0.74	0.34	(466)	1.14	0.68
t		-1.58			-2.07*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a]	(197)	0.75	0.36	(220)	1.10	0.66
400~499만원[b]	(182)	0.73	0.37	(192)	1.10	0.67
500~599만원[c]	(225)	0.68	0.31	(226)	1.11	0.61
600~699만원[d]	(135)	0.73	0.37	(146)	1.10	0.64
700만원 이상[e]	(239)	0.73	0.33	(249)	1.08	0.56
F		1.41			0.07	

주: 1) 아동의 하루일과 시간에 책 읽기 시간이 포함된 경우는 주중 74.3%, 주말 78.3%이며, 시간 산출은 해당 사례만을 분석함.
2) 보호자의 응답임.
* $p < .05$

패널아동들은 한 주당 평균 4.43권의 책을 읽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표준편차가 커서 주당 한 권도 읽지 않는 아동도 다수인 것을 짐작할 수 있는데, 17.7%

가 0권이라고 응답하였다. 1~2권이 33.4%로 가장 많았고 10권을 초과하는 경우는 8.3%였다. 주당 평균 권 수에 있어 출생순 첫째인 아동이 둘째 이상 아동들보다 2권 정도 더 읽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2-12〉 아동의 독서량(주당) 빈도표

단위: %(명), 권

구분	0권	1~2권	3~4권	5~6권	7~10권	10권 초과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17.7	33.4	18.7	10.8	11.2	8.3	100.0(1,393)	4.43	6.55
아동 성별									
남	17.0	32.5	19.1	10.4	11.8	9.3	100.0(713)	4.56	6.47
여	18.4	34.3	18.4	11.2	10.6	7.2	100.0(680)	4.30	6.63
t				-				0.76	
아동 출생순위									
외동아[a]	15.6	31.3	21.1	8.8	14.3	8.8	100.0(147)	4.66	6.02
첫째[b]	11.7	30.8	16.8	13.0	15.8	11.9	100.0(494)	5.58	7.12
둘째 이상[c]	21.9	35.6	19.6	9.6	7.6	5.7	100.0(750)	3.64	6.15
F				-				13.33*** b〉c	
모 취업 여부									
취업	18.6	32.8	20.5	10.7	9.8	7.5	100.0(795)	4.19	6.31
미취업	15.2	34.0	17.2	11.0	13.6	9.0	100.0(553)	4.8	6.78
t				-				-1.69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a]	18.6	33.7	21.1	10.2	8.1	8.4	100.0(285)	4.25	6.67
400~499만원[b]	16.7	30.8	19.6	12.5	11.3	9.2	100.0(240)	4.71	6.73
500~599만원[c]	22.0	29.4	19.9	9.6	12.1	7.1	100.0(282)	4.07	5.96
600~699만원[d]	15.2	34.2	16.3	10.9	14.7	8.7	100.0(184)	4.71	6.30
700만원 이상[e]	14.2	38.9	18.5	10.2	10.6	7.6	100.0(303)	4.21	5.92
F				-				0.55	

주: 1) 아동의 응답임.
*** $p < .001$.

아동들이 숙제나 학습을 하는 시간을 보면, 주중에는 평균 0.93시간(56분)으로 나왔고 주말은 조금 더 긴 1.31시간(1시간 19분)이었다. 주중, 주말 모두 여아가 남아보다 유의하게 더 긴 시간을 숙제나 학습하는 것으로 나왔다. 주말 학습시간은 또한 가구소득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었는데 월 600만원 이상인 가정에서 학습시간이 유의하게 가장 길었다.

인터넷 수업 등 통신교육은 26.1%정도가 주중 활용하고 있다는 응답이었는데, 평균 0.71시간, 주말은 0.96시간을 쓰고 있었다. 둘째 이상 출생순 아동의 이용시간이 길었고 고소득가정에서 통신교육 이용시간은 적었다.

〈표 Ⅲ-2-13〉 아동의 숙제 및 학습, 인터넷 수업 등 통신교육 시간

단위: 시간(명)

구분	아동의 숙제 및 학습시간						인터넷 수업 등 통신교육					
	주중			주말			주중			주말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1,279)	0.93	0.45	(1,190)	1.31	0.69	(368)	0.71	0.30	(317)	0.96	0.49
아동 성별												
남	(657)	0.91	0.43	(603)	1.24	0.66	(197)	0.72	0.30	(164)	0.96	0.47
여	(622)	0.96	0.46	(587)	1.38	0.72	(171)	0.71	0.30	(153)	0.95	0.51
t		−2.12*			−3.49***			0.25			0.17	
아동 출생순위												
외동아[a]	(138)	0.92	0.42	(131)	1.27	0.60	(49)	0.68	0.28	(42)	0.94	0.46
첫째[b]	(461)	0.96	0.46	(422)	1.35	0.74	(135)	0.67	0.27	(109)	0.88	0.34
둘째 이상[c]	(679)	0.92	0.44	(636)	1.28	0.67	(183)	0.76	0.32	(165)	1.02	0.57
F		1.38			1.35			3.64* c>b			2.97	
모 취업 여부												
취업	(720)	0.91	0.43	(672)	1.28	0.67	(208)	0.72	0.30	(177)	0.98	0.56
미취업	(518)	0.96	0.46	(480)	1.33	0.71	(150)	0.71	0.30	(132)	0.92	0.40
t		−1.69			−1.16			0.30			1.03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a]	(257)	0.90	0.44	(243)	1.23	0.64	(65)	0.72	0.29	(63)	0.90	0.47
400~499만원[b]	(227)	0.94	0.46	(211)	1.22	0.64	(69)	0.78	0.29	(62)	0.91	0.33
500~599만원[c]	(264)	0.91	0.42	(241)	1.34	0.73	(70)	0.78	0.41	(61)	1.11	0.63
600~699만원[d]	(164)	0.95	0.43	(152)	1.32	0.69	(51)	0.70	0.25	(42)	0.95	0.47
700만원 이상[e]	(274)	0.97	0.46	(259)	1.42	0.75	(89)	0.65	0.23	(70)	0.93	0.51
F		1.13			3.48** e>b			2.51*			1.79	

주: 1) 아동의 하루일과 시간에 숙제 및 학습시간이 포함된 경우는 주중 90.6%, 주말 84.3%이며, 시간 산출에는 해당 사례만을 분석함.
2) 아동의 하루일과 시간에 인터넷 수업 등 통신교육 시간이 포함된 경우는 주중 26.1%, 주말 22.5%이며, 시간 산출에는 해당 사례만을 분석함.
3) 보호자의 응답임.

* $p < .05$, ** $p < .01$, *** $p < .001$.

라) 미디어 이용

아동이 TV나 컴퓨터, 휴대전화 등을 사용하는 시간을 살펴본 결과, 기기를 통한 영상 시청 시간은 주중 기준 평균 일일 1.18시간(1시간 11분)이고, 주말은 2.44시간이었다. 둘째 이상의 출생순위 아동, 취업모 자녀, 저소득 가구에서 이용시간이 유의하게 길었다.

게임하는 시간은 주중 평균 0.98시간(59분), 주말 1.67시간(1시간 40분)이었고 남녀간 성차가 뚜렷하게 나와 남아의 게임시간이 더 길었다. 주말의 경우 취업모 자녀의 게임시간이 유의하게 더 긴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Ⅲ-2-14〉 아동의 TV, 컴퓨터, 휴대전화 등을 통한 영상 시청, 게임 시간

단위: 시간(명)

구분	영상 시청 시간						게임시간					
	주중			주말			주중			주말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1,249)	1.18	0.62	(1,373)	2.44	1.18	(934)	0.98	0.55	(1,153)	1.67	0.93
아동 성별												
남	(640)	1.16	0.57	(706)	2.41	1.13	(535)	1.06	0.59	(647)	1.85	0.97
여	(609)	1.20	0.67	(667)	2.48	1.23	(399)	0.88	0.46	(506)	1.45	0.82
t		-1.38			-1.04			5.47***			7.51***	
아동 출생순위												
외동아[a]	(134)	1.07	0.54	(144)	2.34	1.13	(107)	0.95	0.49	(121)	1.70	0.93
첫째[b]	(420)	1.10	0.60	(486)	2.33	1.14	(287)	0.93	0.54	(394)	1.57	0.86
둘째 이상[c]	(693)	1.25	0.65	(741)	2.54	1.21	(538)	1.02	0.56	(636)	1.73	0.95
F		10.59***	c〉b,a		5.22**	c〉b		2.55			4.08*	c〉b
모 취업 여부												
취업	(711)	1.19	0.63	(780)	2.51	1.20	(528)	1.00	0.54	(662)	1.71	0.94
미취업	(493)	1.14	0.60	(546)	2.33	1.15	(369)	0.93	0.49	(451)	1.57	0.83
t		1.39			2.79**			1.81			2.67**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a]	(271)	1.31	0.69	(282)	2.52	1.20	(199)	1.07	0.62	(244)	1.71	0.94
400~499만원[b]	(220)	1.16	0.59	(234)	2.31	1.19	(170)	0.99	0.55	(201)	1.79	1.03
500~599만원[c]	(257)	1.13	0.60	(282)	2.62	1.23	(190)	0.99	0.51	(232)	1.60	0.84
600~699만원[d]	(160)	1.14	0.59	(182)	2.62	1.18	(120)	0.99	0.59	(152)	1.79	0.97
700만원 이상[e]	(256)	1.10	0.55	(296)	2.25	1.09	(194)	0.91	0.47	(245)	1.56	0.89
F		4.78***	a〉c,e		5.69***	c,d〉e		2.04			2.60*	

주: 1) 아동의 하루일과 시간에 영상 시청 시간이 포함된 경우는 주중 88.5%, 주말 97.2%이며, 시간 산출에는 해당 사례만을 분석함.
2) 아동의 하루일과 시간에 게임시간이 포함된 경우는 주중 66.1%, 주말 81.7%이며, 시간 산출에는 해당 사례만을 분석함.
3) 보호자의 응답임.

* $p < .05$, ** $p < .01$, *** $p < .001$.

스마트폰을 소지하는 비율은 88.8%로 나왔는데, 남자아이보다는 여자아이가, 미취업모 자녀보다는 취업모 자녀가 더 많이 소지하고 있었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시간은 일일 평균 1.83시간(1시간 50분) 정도였고 저소득 가정 자녀의 이용시간이 유의하게 높았다.

〈표 Ⅲ-2-15〉 아동의 스마트폰, PC(인터넷) 이용 여부 및 이용시간

단위: %(명), 시간

구분	스마트폰 소지			스마트폰, PC 이용여부 및 시간					
	소지 여부			이용여부			이용시간(1일)		
	계(수)	있음	없음	계(수)	미이용	이용	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100.0(1,412)	88.8	11.2	100.0(1,391)	1.9	98.1	(1,365)	1.83	1.01
아동 성별									
남	100.0(725)	85.4	14.6	100.0(713)	1.8	98.2	(700)	1.84	1.03
여	100.0(687)	92.4	7.6	100.0(678)	1.9	98.1	(665)	1.82	0.98
$x^2(df)/t$		17.65(1)***			0.02(1)			0.36	
아동 출생순위									
외동아[a]	100.0(150)	91.3	8.7	100.0(148)	2.7	97.3	(144)	1.81	1.04
첫째[b]	100.0(501)	88.0	12.0	100.0(491)	1.8	98.2	(482)	1.60	0.89
둘째 이상[c]	100.0(759)	88.8	11.2	100.0(750)	1.7	98.3	(737)	1.99	1.04
$x^2(df)/F$		1.27(2)			0.64(2)			22.38***	c,a〉b
모 취업 여부									
취업	100.0(802)	90.6	9.4	100.0(786)	1.5	98.5	(774)	1.90	1.01
미취업	100.0(563)	86.0	14.0	100.0(558)	2.3	97.7	(545)	1.70	0.96
$x^2(df)/t$		7.24(1)**			1.15(1)			3.59***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a]	100.0(288)	88.2	11.8	100.0(284)	2.1	97.9	(278)	1.98	1.18
400~499만원[b]	100.0(245)	89.0	11.0	100.0(241)	2.1	97.9	(236)	1.90	0.97
500~599만원[c]	100.0(286)	90.9	9.1	100.0(284)	1.1	98.9	(281)	1.76	0.89
600~699만원[d]	100.0(185)	90.3	9.7	100.0(181)	1.1	98.9	(179)	1.82	0.91
700만원 이상[e]	100.0(308)	86.4	13.6	100.0(303)	1.7	98.3	(298)	1.71	0.99
$x^2(df)/F$		3.63(4)			1.61(4)			3.16*	a〉e

주: 1) 스마트폰, PC 이용시간(1일 평균)은, 스마트폰, PC를 이용하는 아동 98.1%에 해당하는 수치임.
2) 보호자의 응답임.
** p 〈 .01, *** p 〈 .001.

미디어기기 중독 여부를 파악하는 문항에서 전체 평균은 26.31점으로 중독이 아닌, 일반 사용자군에 속하는 정도를 보였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는 성별이나 출생순위, 모취업 여부에서 평균 점수의 유의한 차이를 보여 남자아이, 둘째 이상, 취업모 자녀일 때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왔다.

전체 응답자를 점수에 따라 일반 사용자군,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 고위험 사용자군의 3개 집단으로 구분했을 때 고위험 사용자군에 속하는 비율이 35%나 되는 것으로 분석되어 중독군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남자아이인 경우와 취업모 자녀인 경우에 여자아이나 미취업모 자녀의 경우에 비해 고위험중독자군의 비율이 유의하게 높아 이들 집단에 대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표 Ⅲ-2-16〉 미디어기기 중독

단위: %(명), 점

구분	계(수)	미디어기기 중독 집단 구분			총점(60점 만점)	
		일반 사용자군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	고위험 사용자군	평균	표준편차
전체	100.0(1,308)	55.5	9.5	35.0	26.31	6.36
아동 성별						
남	100.0(679)	51.8	9.4	38.7	26.87	6.38
여	100.0(629)	59.5	9.5	31.0	25.71	6.28
$x^2(df)/t$			8.99(2)*		3.30**	
아동 출생순위						
외동아[a]	100.0(140)	61.4	7.9	30.7	25.78	6.05
첫째[b]	100.0(461)	59.2	9.1	31.7	25.65	6.54
둘째 이상[c]	100.0(705)	52.1	10.1	37.9	26.83	6.25
$x^2(df)/F$			8.11(4)		5.38** c>b	
모 취업 여부						
취업	100.0(745)	52.8	9.5	37.7	26.81	6.43
미취업	100.0(526)	59.9	9.7	30.4	25.45	6.12
$x^2(df)/t$			7.56(2)*		3.79***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a]	100.0(273)	51.6	10.3	38.1	26.86	6.73
400~499만원[b]	100.0(230)	56.5	9.1	34.3	26.39	6.52
500~599만원[c]	100.0(270)	55.9	8.9	35.2	26.29	6.45
600~699만원[d]	100.0(168)	51.2	8.9	39.9	26.83	6.36
700만원 이상[e]	100.0(282)	58.5	10.3	31.2	25.67	5.90
$x^2(df)/F$			5.29(8)		1.46	

주: 1) 10번, 11번 문항 역코딩함.
2) 점수별 사용자군 구분
- 일반 사용자군: 총점이 27점 이하이고, 각 요인별 점수가 모두 충족되는 경우 (1요인 : 12점 이하, 3요인 : 10점 이하, 4요인 : 9점 이하)
-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 총점 28~29점, 각 요인별 점수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경우 (1요인 : 13점 이상, 3요인 : 11점 이상, 4요인 : 10점 이상)
- 고위험 사용자군 : 총점이 30점 이상에 해당하거나, 각 요인별 점수가 모두 해당되는 경우 (1요인 : 14점 이상, 3요인 : 12점 이상, 4요인 : 11점 이상)
  *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과 고위험 사용자군에 중복 해당될 경우, 고위험 사용자군으로 분류

3) 총점이 높을수록 스마트폰 및 인터넷 중독이 심각함을 의미함
4) 어머니의 응답임.
5) 4점 척도임(1.전혀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

* $p < .05$, ** $p < .01$, *** $p < .001$.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를 살펴보면, 엔터테인먼트가 가장 많고 다음이 게임, SNS, 정보검색의 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엔터테인먼트의 경우는 여아가 남아보다 유의하게 자주 사용하는 것으로 나온 반면 게임의 경우는 남아가 여아보다 상당히 이용 비율이 높았다. SNS 또한 여아들의 이용율이 높았다.

학습이나 정보검색 목적의 활용 정도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없었으나, 게임, 엔터테인먼트, SNS 목적 사용에서는 둘째 이상 출생 순위의 아동, 취업모의 자녀가 모두 유의하게 자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구소득은 게임사용 빈도에서 저소득일수록 사용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Ⅲ-2-17〉 아동의 스마트폰, PC(인터넷) 이용 정도

단위: 점(명)

구분	(수)	학습 평균	학습 표준편차	(수)	정보 검색 평균	정보 검색 표준편차	(수)	게임 평균	게임 표준편차	(수)	엔터테인먼트 평균	엔터테인먼트 표준편차	(수)	SNS 평균	SNS 표준편차
전체	(1,374)	2.17	1.03	(1,377)	2.45	0.78	(1,373)	2.84	1.01	(1,369)	2.96	0.97	(1,364)	2.49	1.13
아동 성별															
남	(710)	2.14	1.06	(709)	2.42	0.78	(706)	3.15	0.92	(704)	2.80	1.02	(699)	2.20	1.06
여	(664)	2.21	1.00	(668)	2.48	0.78	(667)	2.51	1.00	(665)	3.13	0.88	(665)	2.79	1.13
t		−1.31			−1.39			12.43***			−6.42***			−10.00***	
아동 출생순위															
외동아[a]	(146)	2.25	1.00	(146)	2.41	0.74	(144)	2.93	0.99	(145)	2.99	0.99	(143)	2.52	1.11
첫째[b]	(488)	2.20	1.04	(488)	2.46	0.77	(488)	2.66	1.03	(485)	2.76	0.99	(484)	2.33	1.11
둘째 이상[c]	(738)	2.13	1.02	(741)	2.44	0.80	(739)	2.93	0.99	(737)	3.08	0.94	(735)	2.59	1.15
F		1.18			0.22			11.11*** a,c>b			15.82***c,a>b			7.56***c>b	
모 취업 여부															
취업	(783)	2.15	1.03	(784)	2.48	0.78	(784)	2.90	1.00	(779)	3.02	0.96	(778)	2.62	1.12
미취업	(546)	2.23	1.01	(548)	2.40	0.78	(543)	2.73	1.03	(544)	2.86	0.98	(540)	2.29	1.12
t		−1.52			1.68			2.91**			2.99**			5.33***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a]	(280)	2.05	0.96	(280)	2.37	0.77	(277)	2.97	0.97	(277)	2.84	0.98	(276)	2.46	1.12
400~499만원[b]	(238)	2.24	1.04	(238)	2.51	0.82	(238)	2.94	0.97	(239)	3.06	0.93	(236)	2.56	1.14
500~599만원[c]	(282)	2.16	1.04	(283)	2.41	(238)	(281)	2.76	1.08	(279)	2.97	0.99	(280)	2.55	1.12
600~699만원[d]	(182)	2.18	1.06	(182)	2.45	0.74	(182)	2.86	1.04	(180)	2.94	1.03	(180)	2.58	1.15
700만원 이상[e]	(299)	2.22	1.07	(300)	2.49	(281)	(302)	2.72	0.99	(301)	2.96	0.94	(300)	2.38	1.17
F		1.46			1.53			3.44**			1.64			1.46	

주: 1) 보호자의 응답임.
2) 4점 척도임(1.전혀 사용 안함~4.매일 사용함).
** $p < .01$, *** $p < .001$.

마) 여가 및 교제

스포츠나 바깥놀이 등 레저활동에 보내는 시간을 보면 주중의 경우 일일 0.93시간(56분)이고 주말은 1.93시간(1시간 56분)인 것으로 산출되었는데, 남녀간 유의

한 차이가 있었다. 주중/주말 모두 남자아이가 여자아이보다 스포츠 활동 등에 보내는 시간이 많았고 동호회 등 취미생활 시간도 남자아이가 유의하게 긴 것으로 조사되었다. 취미생활은 주중 평일의 경우에만 성별 차이를 보였고 주말에는 그렇지 않았다.

〈표 Ⅲ-2-18〉 스포츠, 집 밖 레저 활동 및 취미 생활

단위: 시간(명)

구분	스포츠 및 집 밖 레저 활동						즐거움을 목적으로 하는 동호회 등 취미 생활					
	주중			주말			주중			주말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695)	0.93	0.53	(1,053)	1.93	1.18	(368)	0.83	0.37	(591)	1.44	0.80
아동 성별												
남	(413)	0.97	0.56	(580)	2.03	1.24	(183)	0.87	0.39	(290)	1.46	0.78
여	(282)	0.87	0.46	(473)	1.80	1.09	(185)	0.79	0.34	(301)	1.42	0.81
t		2.48*			3.08**			2.00*			0.54	
아동 출생순위												
외동아[a]	(80)	0.84	0.47	(115)	1.80	1.15	(37)	0.80	0.34	(61)	1.56	0.99
첫째[b]	(240)	0.90	0.54	(390)	1.99	1.20	(130)	0.84	0.39	(209)	1.43	0.73
둘째 이상[c]	(375)	0.97	0.52	(547)	1.91	1.18	(201)	0.83	0.37	(321)	1.43	0.80
F		2.23			1.27			0.21			0.73	
모 취업 여부												
취업	(389)	0.95	0.56	(598)	1.94	1.23	(218)	0.85	0.37	(339)	1.41	0.78
미취업	(287)	0.89	0.43	(418)	1.89	1.12	(140)	0.80	0.38	(235)	1.51	0.83
t		1.54			0.62			1.23			-1.48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a]	(288)	1.00	0.55	(201)	1.94	1.12	(66)	0.86	0.43	(105)	1.44	0.90
400~499만원[b]	(245)	0.91	0.54	(187)	1.77	1.12	(56)	0.87	0.43	(100)	1.60	0.95
500~599만원[c]	(286)	0.94	0.46	(227)	2.01	1.07	(81)	0.80	0.33	(126)	1.34	0.60
600~699만원[d]	(185)	0.89	0.47	(133)	2.02	1.31	(49)	0.89	0.34	(85)	1.39	0.71
700만원 이상[e]	(308)	0.90	0.57	(229)	1.90	1.24	(87)	0.76	0.34	(133)	1.45	0.80
F		0.86			1.37			1.32			1.50	

주: 1) 아동의 하루일과 시간에 스포츠 및 집 밖 레저 활동 시간이 포함된 경우는 주중 49.2%, 주말 74.6%이며 시간 산출에는 해당 사례만을 분석함.
2) 아동의 하루일과 시간에 취미 활동 시간이 포함된 경우는 주중 26.1%, 주말 41.9%이며, 시간 산출에는 해당 사례만을 분석함.
3) 보호자의 응답임.
* $p < .05$, ** $p < .01$.

친인척이나 친구 등과 놀거나 사교활동을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주중 61.8%, 주말 79.7% 정도로 보고되는 가운데, 이러한 활동을 하는 경우 평균 주중 0.79시

간(47분), 주말 1.66시간(1시간 40분)으로 나타났다. 주중 친구들 등과 보내는 사교활동 시간으로는 여아가 남아보다 유의하게 0.06시간(3.6분)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말에 종교활동을 하는 비율은 29.1%로 나타났는데 종교활동을 하는 아동의 경우 평균 2.25시간(2시간 15분)을 종교활동에 소비하고, 월소득 300만원 이하 저소득 가정에서 종교활동에 보내는 시간이 긴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Ⅲ-2-19〉 친인척, 친구 등과의 놀이 등 사교 활동, 종교 활동

단위: 시간(명)

구분	친인척, 친구 등과의 놀이 사교 활동						종교 활동					
	주중			주말			주중			주말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872)	0.79	0.40	(1,125)	1.66	1.18	(95)	0.96	0.46	(411)	2.25	1.35
아동 성별												
남	(404)	0.76	0.34	(557)	1.63	1.18	(47)	1.01	0.46	(211)	2.26	1.40
여	(468)	0.82	0.44	(568)	1.70	1.18	(48)	0.91	0.46	(200)	2.24	1.30
t		−2.02*			−0.94			1.11			0.16	
아동 출생순위												
외동아[a]	(90)	0.80	0.43	(120)	1.81	1.26	(11)	1.32	0.6	(37)	2.14	1.23
첫째[b]	(288)	0.75	0.39	(384)	1.68	1.27	(33)	0.80	0.28	(150)	2.18	1.32
둘째 이상[c]	(493)	0.82	0.4	(619)	1.63	1.1	(51)	0.98	0.48	(224)	2.31	1.39
F		2.22			1.27			5.87** a>c,b			0.54	
모 취업 여부												
취업	(503)	0.79	0.38	(648)	1.68	1.17	(52)	0.95	0.45	(237)	2.16	1.26
미취업	(335)	0.81	0.43	(437)	1.65	1.21	(41)	0.98	0.49	(163)	2.39	1.48
t		−0.83			0.49			−0.24			−1.63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a]	(169)	0.85	0.45	(224)	1.66	1.20	(26)	1.06	0.57	(100)	2.64	1.68
400~499만원[b]	(159)	0.76	0.35	(198)	1.64	1.18	(17)	0.91	0.36	(67)	2.25	1.35
500~599만원[c]	(187)	0.75	0.33	(229)	1.58	1.01	(14)	0.79	0.43	(69)	2.20	1.13
600~699만원[d]	(110)	0.72	0.33	(142)	1.62	1.14	(12)	0.92	0.47	(58)	1.91	1.09
700만원 이상[e]	(194)	0.83	0.43	(253)	1.80	1.30	(14)	0.93	0.39	(81)	1.99	1.23
F		3.05*			1.22			0.82			3.81** a>d	

주: 1) 아동의 하루일과 시간에 사교활동 시간이 포함된 경우는 주중 61.8%, 주말 79.7%이며, 시간 산출에는 해당 사례만을 분석함.
2) 아동의 하루일과 시간에 종교 시간이 포함된 경우는 주중 6.7%, 주말 29.1%이며, 시간 산출에는 해당 사례만을 분석함.
3) 보호자의 응답임.

* $p < .05$, ** $p < .01$.

1주일 동안 한 번에 30분 이상 실내에서 신체활동을 한 일수를 보면 없다는 비율이 21.6%, 5일 이상 한 경우는 24.3%로 나왔다. 이러한 비율은 남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데, 실내 신체활동을 한 경우가 없다고 한 여아의 비율이 25.9%로 남아보다는 상당히 많았다. 반대로 5일 이상 활동을 했다고 응답한 남아는 30.9%에 이르렀는데 여아는 17.3%에 지나지 않아 차이가 있었다.

〈표 Ⅲ-2-20〉 한번에 30분 이상 실내에서 신체활동 한 일수(7일간)

단위: %(명)

구분	없음	1일	2일	3일	4일	5일 이상	계(수)
전체	21.6	14.7	16.3	16.9	6.2	24.3	100.0(1,412)
아동 성별							
남	17.5	13.1	14.8	16.8	6.9	30.9	100.0(725)
여	25.9	16.3	17.9	17.0	5.5	17.3	100.0(687)
$x^2(df)$			43.93(5)***				
아동 출생순위							
외동아	18.0	18.7	12.7	17.3	9.3	24.0	100.0(150)
첫째	18.4	13.6	17.6	19.4	5.4	25.7	100.0(501)
둘째 이상	24.5	14.5	16.2	15.3	6.2	23.3	100.0(759)
$x^2(df)$			16.66(10)				
모 취업 여부							
취업	14.6	15.1	17.0	5.9	25.6		100.0(802)
미취업	14.0	17.8	17.6	6.9	22.4		100.0(563)
$x^2(df)$			3.65(5)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26.0	12.5	17.4	14.2	6.3	23.6	100.0(288)
400~499만원	18.4	11.4	17.6	18.4	4.9	29.4	100.0(245)
500~599만원	24.1	13.6	15.7	17.8	5.6	23.1	100.0(286)
600~699만원	18.9	15.1	18.4	19.5	5.4	22.7	100.0(185)
700만원 이상	17.9	19.5	14.6	15.9	7.1	25.0	100.0(308)
$x^2(df)$			23.47(20)				

주: 1) 신체 활동: 탁구, 수영, 배구, 배드민턴, 빠르게 걷기, 야구, 축구, 농구, 테니스, 골프, 체육시간에 실제 운동한 시간, 운동장·놀이터에서 놀기 등 격렬하거나 중증도의 신체 활동(등하교시 걷는 것은 제외)
2) 보호자의 응답임.
*** $p < .001$.

이번에는 지난 1주일 간 한번에 30분 이상 실외에서 신체활동을 한 일수를 보면 없음이 20.5%정도였고 2일이 20.9%로 가장 많았다. 5일 이상은 15.5%였다. 역시

실외 활동 일수에서도 남녀간 성별 차이가 있었는데 활동 일수가 없다는 비율이 27.2%로 여아들에서 높이 나왔고 5일 이상은 남아가 22.1%인데 비해 여아는 8.6%로 상당히 큰 차이를 보였다.

〈표 Ⅲ-2-21〉 한번에 30분 이상 실외에서 신체활동 한 일수(7일간)

단위: %(명)

구분	없음	1일	2일	3일	4일	5일 이상	계(수)
전체	20.5	18.6	20.9	18.6	6.0	15.5	100.0(1,412)
아동 성별							
남	14.1	15.3	23.3	19.2	6.1	22.1	100.0(725)
여	27.2	22.0	18.3	17.9	6.0	8.6	100.0(687)
$\chi^2(df)$	84.08(5)***						
아동 출생순위							
외동아	18.0	22.0	18.7	20.7	7.3	13.3	100.0(150)
첫째	17.6	20.6	20.8	20.2	5.4	15.6	100.0(501)
둘째 이상	22.9	16.6	21.2	17.1	6.2	15.9	100.0(759)
$\chi^2(df)$	11.96(10)						
모 취업 여부							
취업	21.6	18.8	20.7	18.6	5.2	15.1	100.0(802)
미취업	19.2	18.1	21.0	19.0	7.5	15.3	100.0(563)
$\chi^2(df)$	3.71(5)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21.9	15.3	20.8	20.5	4.9	16.7	100.0(288)
400~499만원	21.2	18.4	20.8	15.9	6.9	16.7	100.0(245)
500~599만원	16.4	21.0	23.1	18.5	6.3	14.7	100.0(286)
600~699만원	23.8	17.3	16.8	22.7	6.5	13.0	100.0(185)
700만원 이상	20.5	20.8	22.7	16.2	4.2	15.6	100.0(308)
$\chi^2(df)$	17.79(20)						

주: 1) 신체 활동: 탁구, 수영, 배구, 배드민턴, 빠르게 걷기, 야구, 축구, 농구, 테니스, 골프, 체육시간에 실제 운동한 시간, 운동장·놀이터에서 놀기 등 격렬하거나 중증도의 신체 활동(등하교시 걷는 것은 제외)
2) 보호자의 응답임.
*** $p < .001$.

아동들의 취미활동을 알아보았다. 악기를 다루는 취미는 57%가 가지고 있다고 하였고 여자아이들이 유의하게 높은 비율을 보였다. 반면 취미로 하는 운동이 있는 경우가 74.4%인데 남자아이들은 84.3%로 63.9%인 여자아이보다 확연히 차이 나게 많은 것으로 응답되었다. 또한 외동아일 때 운동하는 비율이 높았다.

〈표 Ⅲ-2-22〉 취미(악기, 운동)

단위: %(명)

구분	계(수)	악기		운동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전체	100.0(1,412)	57.0	43.0	74.4	25.6
아동 성별					
남	100.0(725)	45.1	54.9	84.3	15.7
여	100.0(687)	69.6	30.4	63.9	36.1
$\chi^2(df)$		86.21(1)***		76.81(1)***	
아동 출생순위					
외동아	100.0(150)	56.0	44.0	79.3	20.7
첫째	100.0(501)	60.1	39.9	78.0	22.0
둘째 이상	100.0(759)	55.2	44.8	71.0	29.0
$\chi^2(df)$		3.00(2)		9.98(2)**	
모 취업 여부					
취업	100.0(802)	55.5	44.5	72.8	27.2
미취업	100.0(563)	60.0	40.0	77.3	22.7
$\chi^2(df)$		2.80(1)		3.46(1)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100.0(288)	54.5	45.5	72.6	27.4
400~499만원	100.0(245)	55.1	44.9	75.9	24.1
500~599만원	100.0(286)	54.2	45.8	72.0	28.0
600~699만원	100.0(185)	54.6	45.4	72.4	27.6
700만원 이상	100.0(308)	63.6	36.4	77.9	22.1
$\chi^2(df)$		7.92(4)		4.02(4)	

주: 보호자의 응답임
** $p < .01$, *** $p < .001$.

취미로 악기를 다루는 경우 사용하는 악기로 피아노가 71.7%로 가장 많았고 오카리나가 20.5%로 다음을 차지하였다. 바이올린 17.4%, 우쿨렐레 12.7%로 비교적 많이 다루는 악기로 응답되었다. 여자아이들이 피아노를 치는 비율이 남자아이들보다 높았고 소득이 높은 가정에서 피아노를 선택하는 비율이 높았다. 기타 악기에 속하는 것으로는 리코더, 단소, 비올라, 소금, 아쟁, 팀파니, 튜바, 하모니카, 기타 등이 있었다.

〈표 Ⅲ-2-23〉 취미(악기 종류)(다중응답)

단위: %(명)

구분	(수)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우쿨렐레	클라리넷	플룻	오카리나	드럼	가야금	기타
전체	(805)	71.7	17.4	1.7	12.7	2.0	7.7	20.5	4.0	1.5	22.2
아동 성별											
남	(327)	62.7	14.1	2.1	7.3	2.4	4.0	18.7	7.6	0.3	28.1
여	(478)	77.8	19.7	1.5	16.3	1.7	10.3	21.8	1.5	2.3	18.2
아동 출생순위											
외동아	(84)	70.2	15.5	3.6	14.3	2.4	4.8	16.7	0.0	0.0	23.8
첫째	(301)	74.1	21.9	1.3	15.9	1.7	9.6	22.3	4.7	1.7	19.3
둘째 이상	(419)	70.2	14.6	1.7	10.0	2.1	6.9	20.0	4.3	1.7	24.1
모 취업 여부											
취업	(445)	72.8	17.3	2.0	10.8	1.8	8.3	19.8	4.5	1.3	21.8
미취업	(338)	69.8	18.0	1.5	15.4	2.1	6.8	21.9	3.6	1.8	23.1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157)	61.1	19.7	0.0	14.0	0.6	6.4	22.9	7.0	1.9	27.4
400~499만원	(135)	71.9	16.3	0.7	12.6	0.7	8.1	19.3	3.7	1.5	19.3
500~599만원	(155)	72.3	13.5	1.9	17.4	0.6	5.2	22.6	3.9	1.3	23.9
600~699만원	(101)	77.2	14.9	1.0	14.9	2.0	7.9	20.8	5.9	2.0	21.8
700만원 이상	(196)	78.6	18.4	3.6	7.7	4.6	9.2	17.3	2.0	1.5	19.9

주: 보호자의 응답임.

취미로 하는 운동의 종류로는 축구가 36.7%로 가장 많았고 태권도 23.4%, 수영 23%의 순으로 많았고 배드민턴이나 농구도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였다.

성별로는 선택에 차이를 보이는데, 남자아이들은 57.1%가 축구를 한다고 응답하여 독보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여자아이들은 모든 운동에서 비교적 낮은데 수영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고 무용이 많은 특징을 보였다.

종목 중 야구에서 고소득 가정 자녀의 향유 비율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2-24〉 취미(운동 종류)(다중응답)

단위: %(명)

구분	(수)	축구	농구	야구	탁구	배구	테니스	배드민턴	골프	수영	스케이트	스키	체조	무용	태권도	기타
전체	(1,050)	36.7	12.3	9.4	5.6	1.5	1.0	17.7	1.0	23.0	5.3	2.7	0.9	6.7	23.4	34.5
아동 성별																
남	(611)	57.1	17.7	15.7	7.2	1.6	1.0	18.8	1.3	20.3	3.4	2.5	0.2	0.5	28.0	25.9
여	(439)	8.2	4.8	0.7	3.4	1.4	0.9	16.2	0.7	26.9	8.0	3.0	1.8	15.3	17.1	46.5

구분	(수)	축구	농구	야구	탁구	배구	테니스	배드민턴	골프	수영	스케이트	스키	체조	무용	태권도	기타
아동 출생순위																
외동아	(119)	35.3	15.1	10.1	6.7	0.8	1.7	20.2	1.7	28.6	7.6	2.5	1.7	6.7	26.1	36.1
첫째	(391)	37.1	13.0	11.0	6.9	1.5	1.0	16.1	1.0	26.1	5.1	3.6	0.8	4.3	23.3	35.3
둘째 이상	(539)	36.7	11.1	8.2	4.5	1.7	0.7	18.4	0.9	19.7	5.0	2.0	0.7	8.3	22.8	33.6
모 취업 여부																
취업	(584)	37.0	12.3	9.8	5.0	1.5	0.9	16.4	1.0	20.5	5.0	2.1	0.5	7.7	23.3	37.8
미취업	(435)	35.6	12.2	9.2	6.2	1.6	1.1	19.5	1.1	26.4	5.5	3.7	1.4	5.5	22.8	29.7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209)	35.9	7.2	8.1	5.3	1.9	0.0	18.7	1.4	18.2	4.3	0.0	0.5	7.2	26.8	35.9
400~499만원	(186)	40.9	12.4	8.1	5.4	1.6	1.6	19.4	0.0	24.7	5.9	4.8	0.5	5.9	25.8	29.0
500~599만원	(206)	38.8	11.7	9.7	5.8	0.5	1.0	17.0	1.0	20.4	4.9	1.0	1.5	4.4	18.0	35.9
600~699만원	(134)	36.6	16.4	9.7	5.2	1.5	0.7	15.7	0.7	32.1	3.7	2.2	0.7	6.0	26.1	32.8
700만원 이상	(240)	31.7	13.8	12.1	6.7	2.1	1.3	16.7	1.7	23.3	5.8	4.6	1.3	9.6	20.4	37.5

주: 보호자의 응답임.

바) 기본생활 및 가사 돕기

패널아동의 하루 일과 중 기본생활을 위해 소요하는 시간은 주중 1.32시간으로(전년도=1.46시간), 주말 1.73시간(전년도=1.80시간)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하루일과 시간 중 가사일 돕는 데 할애하는 아동의 비율은 주중 41.9%, 주말 66.5% 정도이다. 소요되는 시간은 주중이나 주말 모두 1시간 미만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아동성별이나 출생순위, 모 취업여부, 가구소득별로 큰 차이가 없었다.

〈표 Ⅲ-2-25〉 기본생활 시간, 가사 돕기 시간

단위: 시간(명)

구분	식사, 씻기, 옷 입기 등의 기본생활					음식준비, 청소, 정리 등 가사일 돕기					
	(수)	주중		주말		주중			주말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1,412)	1.32	0.59	1.73	0.74	(592)	0.58	0.20	(939)	0.77	0.35
아동 성별											
남	(725)	1.30	0.58	1.72	0.75	(264)	0.57	0.18	(439)	0.77	0.37
여	(687)	1.34	0.59	1.74	0.73	(328)	0.58	0.22	(500)	0.77	0.33
t		-1.05		-0.71			-0.70			-0.33	

구분	식사, 씻기, 옷 입기 등의 기본생활					음식준비, 청소, 정리 등 가사일 돕기				
	(수)	주중		주말		주중			주말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아동 출생순위											
외동아[a]	(150)	1.27	0.61	1.67	0.74	(50)	0.55	0.15	(92)	0.74	0.33
첫째[b]	(501)	1.34	0.59	1.79	0.74	(203)	0.58	0.22	(327)	0.77	0.37
둘째 이상[c]	(759)	1.32	0.58	1.70	0.73	(339)	0.58	0.20	(519)	0.78	0.34
F		0.89		2.97			0.56			0.52	
모 취업 여부											
취업	(802)	1.31	0.58	1.70	0.73	(345)	0.58	0.21	(560)	0.77	0.35
미취업	(563)	1.33	0.60	1.76	0.74	(232)	0.58	0.20	(352)	0.77	0.36
t		−0.67		−1.61			0.12			0.16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a]	(288)	1.21	0.52	1.72	0.77	(135)	0.59	0.22	(196)	0.80	0.44
400~499만원[b]	(245)	1.28	0.54	1.75	0.68	(119)	0.60	0.27	(175)	0.75	0.31
500~599만원[c]	(286)	1.37	0.61	1.78	0.75	(120)	0.55	0.15	(197)	0.77	0.32
600~699만원[d]	(185)	1.34	0.56	1.70	0.72	(69)	0.57	0.18	(119)	0.81	0.36
700만원 이상[e]	(308)	1.38	0.60	1.68	0.74	(109)	0.57	0.18	(189)	0.74	0.32
F		4.38**	e,c〉a	0.87			1.12			1.21	

주: 1) 아동의 하루일과 시간에 음식 준비, 청소, 정리 등 가사일 돕기가 포함된 경우는 주중 41.9%, 주말 66.5%이며 시간 산출은 해당 사례만을 분석함.
2) 보호자의 응답임.
** p 〈 .01.

3) 외출/활동 참여 빈도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패널아동의 지난 1년간 활동별 참여 경험을 조사한 결과, 장보기 및 쇼핑 활동은 91.3%, 친인척 방문은 96.1%로 대부분의 아동이 참여하고 있었다.

참여한 적이 있는 아동의 경우를 대상으로, 평균 참여 횟수를 조사해 보면, 장보기 및 쇼핑은 연 36.42회(전년도=연 45.34회), 친인척 방문은 연 21.07회(전년도 = 26.19회)로 조사되었다. 아동 성별로 살펴보면, 장보기 및 쇼핑하기는 여아가 남아보다 좀 더 높았으며, 친인척 방문 횟수는 외동아나 첫째가 둘째 이상 보다 참여 횟수가 다소 높았다.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서는 어머니가 취업모일 때 친인척 방문 활동이 다소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Ⅲ-2-26〉 아동의 활동별 참여 빈도: 장보기 및 쇼핑, 친인척 방문

단위: %, 회(명)

구분	계(수)	장보기 및 쇼핑				친인척 방문			
		참여여부		연간 참여 횟수		참여여부		연간 참여 횟수	
		참여 안함	참여함	평균	표준 편차	참여 안함	참여함	평균	표준 편차
전체	100.0(1,412)	8.7	91.3	36.42	34.13	3.9	96.1	21.07	32.08
아동 성별									
남	100.0(725)	10.6	89.4	31.01	28.48	4.3	95.7	20.54	28.82
여	100.0(687)	6.7	93.3	42.13	38.42	3.5	96.5	21.62	35.22
$x^2(df)/t$		6.83(1)**		−6.15***		0.58(1)		−0.64	
아동 출생순위									
외동아[a]	100.0(150)	6.7	93.3	38.80	28.63	5.3	94.7	23.27	40.56
첫째[b]	100.0(501)	8.2	91.8	34.63	30.72	3.4	96.6	23.94	34.54
둘째 이상[c]	100.0(759)	9.4	90.6	37.17	37.13	4.0	96.0	18.75	28.17
$x^2(df)/F$		1.36(2)		1.24		1.17(2)		4.35* b〉c	
모 취업 여부									
취업	100.0(802)	8.7	91.3	37.38	33.43	4.1	95.9	22.97	37.87
미취업	100.0(563)	8.2	91.8	36.04	35.71	2.7	97.3	18.76	21.90
$x^2(df)/t$		0.13(1)		0.71		2.05(1)		2.59**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a]	100.0(288)	10.1	89.9	36.24	36.78	6.3	93.8	16.60	20.42
400~499만원[b]	100.0(245)	8.2	91.8	41.89	41.14	3.7	96.3	20.51	30.03
500~599만원[c]	100.0(286)	8.0	92.0	33.99	30.32	4.2	95.8	21.46	37.96
600~699만원[d]	100.0(185)	7.0	93.0	35.76	27.51	0.5	99.5	23.64	25.12
700만원 이상[e]	100.0(308)	10.1	89.9	34.70	32.35	2.9	97.1	21.45	32.47
$x^2(df)/F$		2.23(4)		2.15		11.06(4)*		1.85	

주: 1) 한 달은 12개월, 일주일은 48주를 기준으로 연간 참여 횟수를 환산함.
2) 보호자의 응답임.
* p 〈 .05, ** p 〈 .01, *** p 〈 .001.

패널아동들이 당일 여행 및 나들이, 1박 이상의 국내 여행에 참여한 비율은 대부분 90% 이상인 반면, 해외여행 및 연수 참여는 32.6%로 절반 이하 수준이었다.

당일 여행 및 나들이의 경우 연 평균 19.33회(전년도= 24.17회), 1박 이상의 국내 여행은 평균 4.21회(전년도=5.21회)로 조사되었다. 해외여행 및 연수 횟수는 연 1회 미만으로 나타났다.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아동 출생순위 중 외동아와 첫째인 경우에 둘째 이상보다 당일여행 및 나들이, 국내여행, 해외여행 및 연수 참여 비율이 조금 높았다. 가구소득별로 살펴보면,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활동 참여 비

율이 대체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해외여행 및 연수 참여 비율의 차이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Ⅲ-2-27〉 아동의 활동별 참여 빈도: 당일 여행 및 나들이, 국내여행, 해외연수

단위: %, 회(명)

구분	계(수)	당일여행 및 나들이				1박이상의 국내여행				해외여행 및 연수			
		참여여부		연간 참여횟수		참여여부		연간 참여횟수		참여여부		연간 참여횟수	
		참여 안함	참여함	평균	표준 편차	참여 안함	참여함	평균	표준 편차	참여 안함	참여함	평균	표준 편차
전체	100.0(1,412)	2.5	97.5	19.33	20.06	9.3	90.7	4.21	5.85	67.4	32.6	0.49	1.70
아동 성별													
남	100.0(725)	2.2	97.8	19.05	20.94	9.5	90.5	4.36	6.47	68.0	32.0	0.54	2.24
여	100.0(687)	2.9	97.1	19.62	19.10	9.2	90.8	4.05	5.11	66.8	33.2	0.43	0.81
$x^2(df)/t$		0.70(1)		−0.54		0.05(1)		1.02		0.23(1)		1.19	
아동 출생순위													
외동아[a]	100.0(150)	4.0	96.0	20.81	21.84	11.3	88.7	4.35	6.26	60.7	39.3	0.65	1.51
첫째[b]	100.0(501)	1.8	98.2	22.96	20.79	7.4	92.6	4.93	6.48	65.1	34.9	0.50	1.42
둘째 이상[c]	100.0(759)	2.8	97.2	16.65	18.80	10.3	89.7	3.71	5.26	70.2	29.8	0.45	1.90
$x^2(df)/F$		2.55(2)		15.73*** b,a〉c		3.74(2)		6.72** b〉c		7.09(2)*		0.92	
모 취업 여부													
취업	100.0(802)	2.2	97.8	18.71	18.67	9.0	91.0	4.35	6.10	66.0	34.0	0.55	2.10
미취업	100.0(563)	2.7	97.3	20.60	22.24	9.1	90.9	4.01	5.41	69.3	30.7	0.42	0.97
$x^2(df)/t$		0.25(1)		−1.65		0.00(1)		1.05		1.65(1)		1.30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a]	100.0(288)	4.5	95.5	18.25	22.88	18.4	81.6	3.53	5.74	83.3	16.7	0.44	3.18
400~499만원[b]	100.0(245)	2.9	97.1	19.07	17.22	9.8	90.2	4.04	5.36	74.3	25.7	0.34	0.94
500~599만원[c]	100.0(286)	2.1	97.9	19.52	20.35	5.9	94.1	4.48	6.54	73.8	26.2	0.41	1.30
600~699만원[d]	100.0(185)	2.2	97.8	20.21	16.68	3.8	96.2	4.23	5.28	61.1	38.9	0.52	1.07
700만원 이상[e]	100.0(308)	1.0	99.0	19.96	21.36	5.5	94.5	4.96	6.41	44.2	55.8	0.74	0.79
$x^2(df)/F$		8.09(4)		0.39		45.27(4)***		2.31		122.6(4)***		2.30	

주: 1) 한 달은 12개월, 일주일은 48주를 기준으로 연간 참여 횟수를 환산함.
2) 보호자의 응답임.
* p 〈 .05, ** p 〈 .01, *** p 〈 .001.

패널아동들이 지난 1년간 문화체험 및 예술감상 활동/견학에 참여하는 비율은 84.1%, 종교활동 참여 비율은 35.3% 수준이었다. 문화체험 및 예술 감상, 견학의 참여 횟수는 평균 7.56회(전년도=9.71회)이고, 종교 활동은 평균 17.32회(전년도=49.65회) 참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종교활동은 전년도 49.65회 참여에 비해 올해는 절반정도로 횟수가 줄어들었다.

〈표 Ⅲ-2-28〉 아동의 활동별 참여 빈도: 문화체험 및 예술감상, 견학, 종교활동

단위: %, 회(명)

구분	계(수)	문화체험, 예술감상, 견학				종교활동			
		참여여부		연간 참여 횟수		참여여부		연간 참여 횟수	
		참여 안함	참여함	평균	표준 편차	참여 안함	참여함	평균	표준 편차
전체	100.0(1,412)	15.9	84.1	7.56	13.15	64.7	35.3	17.32	32.48
아동 성별									
남	100.0(725)	16.6	83.4	7.06	10.05	64.1	35.9	17.30	32.17
여	100.0(687)	15.3	84.7	8.09	15.77	65.4	34.6	17.33	32.84
$x^2(df)/t$		0.42(1)		-1.47		0.23(1)		-0.02	
아동 출생순위									
외동아[a]	100.0(150)	16.0	84.0	7.79	9.64	66.7	33.3	16.01	35.60
첫째[b]	100.0(501)	13.2	86.8	8.66	16.73	64.9	35.1	17.67	33.20
둘째 이상[c]	100.0(759)	17.8	82.2	6.80	10.86	64.2	35.8	17.39	31.42
$x^2(df)/F$		4.79(2)		3.05* b>c		0.36(2)		0.15	
모 취업 여부									
취업	100.0(802)	17.1	82.9	7.40	10.91	64.6	35.4	16.68	31.41
미취업	100.0(563)	13.7	86.3	7.45	10.97	64.7	35.3	18.02	33.01
$x^2(df)/t$		2.90(1)		-0.10		0.00(1)		-0.76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a]	100.0(288)	21.9	78.1	6.43	10.12	60.8	39.2	21.82	38.34
400~499만원[b]	100.0(245)	18.4	81.6	6.09	9.50	65.7	34.3	16.27	30.01
500~599만원[c]	100.0(286)	14.7	85.3	9.16	21.83	71.7	28.3	13.89	29.62
600~699만원[d]	100.0(185)	15.7	84.3	7.46	9.20	57.3	42.7	19.11	32.45
700만원 이상[e]	100.0(308)	11.7	88.3	8.30	10.09	67.5	32.5	14.66	30.40
$x^2(df)/F$		12.67(4)*		2.51*		13.64(4)**		2.89*	

주: 1) 한 달은 12개월, 일주일은 48주를 기준으로 연간 참여 횟수를 환산함.
2) 보호자의 응답임.
* $p < .05$, ** $p < .01$.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패널아동의 지난 1년간 활동별 참여 경험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아동의 봉사활동 참여 횟수는 연평균 1.47회, 동아리 활동은 7.29회로 비교적 적은 수치를 보인다. 아동 특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여아의 봉사활동 및 동아리활동 참여가 남아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Ⅲ-2-29〉 아동의 활동별 참여 빈도: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단위: %, 회(명)

구분	계(수)	봉사 활동				동아리 활동			
		참여여부		연간 참여 횟수		참여여부		연간 참여 횟수	
		참여 안함	참여함	평균	표준 편차	참여 안함	참여함	평균	표준 편차
전체	100.0(1,412)	86.4	13.6	1.47	8.49	79.3	20.7	7.29	24.69
아동 성별									
남	100.0(725)	88.0	12.0	1.15	7.04	83.0	17.0	6.10	23.21
여	100.0(687)	84.7	15.3	1.81	9.78	75.4	24.6	8.55	26.12
$x^2(df)/t$		3.24(1)		-1.45		12.53(1)***		-1.86	
아동 출생순위									
외동아[a]	100.0(150)	86.0	14.0	1.45	6.39	78.0	22.0	4.29	11.73
첫째[b]	100.0(501)	87.2	12.8	0.93	4.61	77.0	23.0	7.94	25.09
둘째 이상[c]	100.0(759)	85.9	14.1	1.84	10.57	81.2	18.8	7.42	26.23
$x^2(df)/F$		0.47(2)		1.72		3.31(2)		1.29	
모 취업 여부									
취업	100.0(802)	86.7	13.3	1.26	7.20	79.7	20.3	7.62	27.15
미취업	100.0(563)	85.8	14.2	1.79	10.14	77.8	22.2	7.16	21.42
$x^2(df)/t$		0.21(1)		-1.06		0.70(1)		0.34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a]	100.0(288)	83.7	16.3	2.40	13.22	82.6	17.4	4.16	14.55
400~499만원[b]	100.0(245)	87.3	12.7	1.24	4.77	81.6	18.4	7.97	26.89
500~599만원[c]	100.0(286)	85.7	14.3	1.59	6.71	79.0	21.0	7.22	26.47
600~699만원[d]	100.0(185)	88.1	11.9	1.49	11.28	76.8	23.2	7.96	22.42
700만원 이상[e]	100.0(308)	87.7	12.3	0.84	4.68	78.6	21.4	7.61	26.94
$x^2(df)/F$		3.00(4)		1.28		3.41(4)		1.23	

주: 1) 한 달은 12개월, 일주일은 48주를 기준으로 연간 참여 횟수를 환산함.
2) 보호자의 응답임.
*** $p < .001$.

4) 시간사용 만족도 및 가족 식사

아동의 시간사용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아동에게 일상생활에서 가족과의 시간이 충분한지에 대해 3점 척도로 질문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시간이 충분하고 만족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먼저, 가족과의 시간을 살펴보면, 가족과 대화시간은 평균 1.99시간(전년도=평균 2.30점), 가족과의 식사시간은 평균 2.02시간(전년도=2.42점), 가족과의 여가

활동 시간은 평균 1.84시간(전년도= 2.09점)으로 전년도에 비해 대략 1시간정도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가구소득별로 가족과의 여가시간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나, 대부분 1점 후반대로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표 Ⅲ-2-30〉 아동의 시간사용 만족도: 가족과의 시간

단위: 점(명)

구분	수	가족과 대화시간		가족과의 식사 시간		가족과의 여가 활동 시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1,393)	1.99	0.40	2.02	0.39	1.84	0.51
아동 성별							
남	(713)	1.98	0.40	2.04	0.40	1.86	0.51
여	(680)	1.99	0.39	2.00	0.37	1.82	0.51
t		-0.65		1.96		1.48	
아동 출생순위							
외동아[a]	(147)	2.03	0.47	2.01	0.44	1.87	0.55
첫째[b]	(494)	1.99	0.38	2.04	0.37	1.87	0.49
둘째 이상[c]	(750)	1.97	0.39	2.01	0.39	1.81	0.52
F		1.37		0.62		2.63	
모 취업 여부							
취업	(795)	1.99	0.40	2.02	0.40	1.82	0.54
미취업	(553)	2.00	0.38	2.03	0.37	1.86	0.47
t		-0.47		-0.75		-1.46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a]	(285)	1.96	0.40	2.02	0.40	1.76	0.51
400~499만원[b]	(240)	1.95	0.40	2.02	0.40	1.89	0.50
500~599만원[c]	(282)	2.02	0.39	2.07	0.40	1.87	0.50
600~699만원[d]	(184)	1.98	0.41	2.01	0.38	1.79	0.56
700만원 이상[e]	(303)	1.99	0.36	1.99	0.33	1.85	0.49
F		1.06		1.87		2.76*	

주: 1) 아동의 응답임.
2) 3점 척도임(1. 부족함. 2. 충분함. 3. 지나치게 많음).
* $p < .05$.

아동이 친구, 휴식, 여가활동 시간이 충분한지에 대해 3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은 평균 2.08시간(전년도=2.42점), 휴식 시간은 평균 2.07시간(전년도=2.48점), 여가활동시간은 평균 2.05시간(전년도=2.40점)으로, 전반적으로 전년도와 큰 차이없이 충분하다고 응답하였다.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여가

활동시간에서 남아가 여아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으나, 큰 차이는 아니었다. 모 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이 취업모 가정이 미취업모 가정보다 다소 길게 나타났다.

〈표 Ⅲ-2-31〉 아동의 시간사용 만족도: 친구, 휴식, 여가활동 시간

단위: 점(명)

구분	수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		휴식시간		여가활동 (취미, 운동 등) 시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1,393)	2.08	0.53	2.07	0.48	2.05	0.46
아동 성별							
남	(713)	2.10	0.54	2.07	0.51	2.08	0.49
여	(680)	2.06	0.53	2.07	0.45	2.02	0.42
t		1.17		0.26		2.32*	
아동 출생순위							
외동아[a]	(147)	2.11	0.51	2.04	0.53	2.07	0.45
첫째[b]	(494)	2.02	0.53	2.05	0.47	2.03	0.46
둘째 이상[c]	(750)	2.12	0.54	2.09	0.48	2.06	0.46
F		5.25** c>b		1.36		0.57	
모 취업 여부							
취업	(795)	2.12	0.54	2.07	0.50	2.07	0.46
미취업	(553)	2.03	0.52	2.06	0.46	2.03	0.45
t		3.02**		0.22		1.49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a]	(285)	2.05	0.55	2.11	0.48	2.04	0.46
400~499만원[b]	(240)	2.05	0.54	2.10	0.51	2.09	0.48
500~599만원[c]	(282)	2.09	0.52	2.07	0.48	2.01	0.47
600~699만원[d]	(184)	2.09	0.54	2.06	0.47	2.05	0.43
700만원 이상[e]	(303)	2.12	0.51	2.04	0.45	2.05	0.45
F		0.77		1.10		1.04	

주: 1) 아동의 응답임.
2) 3점 척도임(1. 부족함. 2. 충분함. 3. 지나치게 많음).
* $p < .05$, ** $p < .01$.

다음으로, 아동에게 숙제하는 시간과 집에서 가족을 돕는 시간에의 양에 만족하는지 여부를 3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숙제하는 시간은 평균 2.04(전년도=2.36점), 집에서 가족을 돕는 시간은 평균 1.94시간(전년도=2.18점)으로 대체적으로 가족을

돕는 시간에 대한 평가는 다소 낮아졌다. 아동 특성별로는 큰 차이가 없었다.

〈표 Ⅲ-2-32〉 아동의 시간사용 만족도: 숙제, 가족을 도와주는 시간

단위: 점(명)

구분	수	숙제하는 시간		집에서 가족을 도와주는 시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1,393)	2.04	0.46	1.94	0.47
아동 성별					
남	(713)	2.06	0.48	1.95	0.50
여	(680)	2.02	0.43	1.93	0.45
t		1.56		0.84	
아동 출생순위					
외동아[a]	(147)	2.05	0.53	1.89	0.48
첫째[b]	(494)	2.06	0.43	1.94	0.46
둘째 이상[c]	(750)	2.03	0.46	1.95	0.48
F		0.51		1.06	
모 취업 여부					
취업	(795)	2.04	0.45	1.95	0.49
미취업	(553)	2.05	0.47	1.94	0.45
t		-0.65		0.45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a]	(285)	2.08	0.48	1.96	0.46
400~499만원[b]	(240)	2.07	0.47	1.95	0.49
500~599만원[c]	(282)	2.03	0.45	1.94	0.46
600~699만원[d]	(184)	2.04	0.44	1.92	0.47
700만원 이상[e]	(303)	2.00	0.42	1.94	0.47
F		1.40		0.29	

주: 1) 아동의 응답임.
2) 3점 척도임(1. 부족함. 2. 충분함. 3. 지나치게 많음).

보호자에게 아동이 일주일동안 평균 가족과 몇 번 식사를 하는지 질문한 결과, 주 8회 이상이 58.6%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주 6~7회가 20.6%, 주 3~5회는 15.2%, 주 1~2회는 5.3%순이었다. 세부항목별로는 아동 출생순위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는데, 외동아인 경우가 주 8회 이상 식사 횟수 비율이 다소 낮았으며, 주 1~2회, 주 3~5회 비율에서는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Ⅲ-2-33〉 가족과의 식사 횟수(일주일 평균)

단위: %(명)

구분	거의 안함	주 1~2회	주 3~5회	주 6~7회	주 8회 이상	계(수)
전체	0.3	5.3	15.2	20.6	58.6	100.0(1,412)
아동 성별						
남	0.6	5.5	14.9	21.8	57.2	100.0(725)
여	0.0	5.1	15.6	19.4	60.0	100.0(687)
$\chi^2(df)$			5.48(4)			
아동 출생순위						
외동아	0.0	10.0	16.7	24.7	48.7	100.0(150)
첫째	0.4	3.4	14.0	22.6	59.7	100.0(501)
둘째 이상	0.3	5.7	15.8	18.6	59.7	100.0(759)
$\chi^2(df)$			17.82(8)*			
모 취업 여부						
취업	0.4	5.4	16.5	19.6	58.2	100.0(802)
미취업	0.2	5.2	14.0	22.2	58.4	100.0(563)
$\chi^2(df)$			2.83(4)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0.7	6.3	15.6	18.4	59.0	100.0(288)
400~499만원	0.0	3.7	14.3	25.3	56.7	100.0(245)
500~599만원	0.7	4.5	16.8	18.5	59.4	100.0(286)
600~699만원	0.0	4.9	14.6	20.0	60.5	100.0(185)
700만원 이상	0.0	4.9	15.9	17.9	61.4	100.0(308)
$\chi^2(df)$			13.11(16)			

주: 보호자의 응답임.
* $p < .05$.

라. 신체 및 건강 특성

1) 신체 특성 및 주관적 건강 상태

조사원이 가구 방문 조사 시 측정한 아동의 신체 치수는 신장 평균 148.38cm(전년도=141.16cm), 체중은 평균 43.45kg(전년도=37.63kg), 허리둘레는 평균 72.08cm(전년도=68.35cm), BMI는 평균 19.62kg/m^2(전년도=18.77kg/m^2)로 전년도에 비해 전반적으로 성장하였다.

〈표 Ⅲ-2-34〉 아동의 신체 치수(신장, 허리둘레, 체중, BMI)

단위: cm, kg, kg/m^2, (명)

구분	최소	최대	중위수	평균	표준편차	(수)
신장	122.30	172.00	148.00	148.38	6.57	(1,384)
허리둘레	55.90	94.50	71.00	72.08	9.30	(1,313)
체중	23.40	75.00	42.35	43.45	9.45	(1,372)
BMI	12.27	32.67	19.15	19.62	3.43	(1,368)

패널아동의 신체 치수를 세부항목별로 아동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남아와 여아 신장의 경우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허리둘레, 체중, BMI는 모두 남아가 여아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장에 있어서는 취업모 아동이 미취업모 아동보다 평균이 약간 컸으며,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아동 신장도 약간 더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Ⅲ-2-35〉 아동의 특성별 신체 치수

단위: cm, kg, kg/m^2, (명)

구분	수	신장		수	허리둘레		수	체중		수	BMI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1,384)	148.38	6.57	(1,313)	72.08	9.30	(1,372)	43.45	9.45	(1,368)	19.62	3.43
아동 성별												
남	(709)	148.10	6.70	(670)	73.80	9.90	(706)	44.76	10.05	(704)	20.28	3.66
여	(675)	148.67	6.43	(643)	70.28	8.28	(666)	42.05	8.55	(664)	18.93	3.02
t		−1.60			7.00***			5.39***			7.44***	
아동 출생순위												
외동아[a]	(146)	148.44	6.29	(135)	72.69	9.20	(146)	44.11	9.44	(146)	19.92	3.53
첫째[b]	(491)	148.83	6.73	(472)	71.95	9.17	(484)	43.55	9.37	(483)	19.56	3.41
둘째 이상[c]	(746)	148.06	6.52	(705)	72.05	9.43	(740)	43.23	9.49	(738)	19.60	3.43
F		2.03			0.34			0.59			0.65	
모 취업 여부												
취업	(789)	148.70	6.42	(749)	72.38	9.25	(783)	43.74	9.27	(781)	19.67	3.35
미취업	(550)	147.96	6.71	(520)	71.57	9.26	(546)	42.95	9.53	(544)	19.50	3.46
t		2.05*			1.52			1.50			0.88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a]	(280)	147.32	6.88	(266)	71.64	9.22	(277)	42.58	9.84	(276)	19.51	3.56
400~499만원[b]	(240)	148.39	6.67	(231)	72.65	9.19	(239)	43.92	9.19	(239)	19.86	3.41
500~599만원[c]	(280)	148.54	5.94	(264)	73.10	9.88	(281)	44.08	9.74	(279)	19.84	3.59
600~699만원[d]	(183)	148.53	6.70	(175)	72.51	9.80	(179)	43.98	9.30	(179)	19.83	3.37
700만원 이상[e]	(302)	149.16	6.43	(286)	70.86	8.56	(298)	42.79	8.82	(297)	19.12	3.06
F		3.02* e〉a			2.49*			1.56			2.38*	

* $p < .05$, *** $p < .001$.

패널 참여 아동의 39.8%는 안경을 착용하고 있었으며, 이는 전년도 29.7%보다 조금 비율이 증가하였다. 시력 교정도구를 사용하는 비율은 3.1%(전년도=3.4%)이었다. 아동 특성별로는 뚜렷한 차이가 없었다.

〈표 Ⅲ-2-36〉 아동의 시력 보정 도구 착용 시기[1)]

단위: 세, (명)

구분	안경		수	시력 교정도구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8.76	1.76	(562)	9.80	1.32	(44)
아동 성별						
남	8.68	1.7	(277)	9.61	1.09	(18)
여	8.84	1.81	(285)	9.92	1.47	(26)
t	-1.08			-0.77		
아동 출생순위						
외동아[a]	8.78	1.58	(64)	9.60	1.07	(10)
첫째[b]	8.87	1.65	(192)	9.67	1.68	(15)
둘째 이상[c]	8.69	1.86	(306)	10.00	1.15	(19)
F	0.65			0.40		
모 취업 여부						
취업	8.69	1.85	(311)	9.74	1.40	(27)
미취업	8.84	1.64	(233)	9.88	1.22	(17)
t	-1.00			-0.34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a]	9.01	1.74	(114)	11.00	-	(1)
400~499만원[b]	8.88	1.73	(92)	10.60	1.14	(5)
500~599만원[c]	8.81	1.61	(108)	9.75	1.24	(16)
600~699만원[d]	8.31	1.97	(81)	8.83	1.94	(6)
700만원 이상[e]	8.73	1.70	(129)	9.87	1.13	(15)
F	2.08			1.52		

주: 1) 전체 참여 아동의 39.8%는 안경, 3.1%는 시력 교정도구를 사용하는 것으로 응답함.
2) 안경 착용 시기는 전년도부터 조사되었으며, 전연도 기준 평균 8.19세(SD=1.63)부터 시력 보정 도구는 8.84세(SD=1.08)부터 착용한 것으로 나타났음.
3) 보호자의 응답임.

사춘기 진입이라는 특성을 반영하여 전년도(2018년 조사)에 새로 추가된 2차 성징의 발현 여부 및 시기를 조사하였다. 남아의 경우 몽정 발현 여부는 나타나지 않은 경우가 94.5%(전년도 98.2%)이었다. 처음 발현을 한 아동의 경우에 처음 발현된 시기는 2018년은 10%, 2019년에는 90%이었다.

〈표 Ⅲ-2-37〉 남아의 2차 성징(몽정) 발현 여부 및 처음 나타난 시기

단위: %(명)

구분	몽정 발현 여부			처음 나타난 시기		
	계(수)	나타남	나타나지 않음	계(수)	2019년	2018년
전체	100.0(725)	5.5	94.5	100.0(40)	90.0	10.0
아동 출생순위						
외동아	100.0(81)	4.9	95.1	100.0(4)	100.0	0.0
첫째	100.0(259)	5.8	94.2	100.0(15)	86.7	13.3
둘째 이상	100.0(384)	5.5	94.5	100.0(21)	90.5	9.5
$x^2(df)$	0.09(2)			0.64(2)		
모 취업 여부						
취업	100.0(407)	6.4	93.6	100.0(26)	84.6	15.4
미취업	100.0(294)	4.8	95.2	100.0(14)	100.0	0.0
$x^2(df)$	0.84(1)			2.39(1)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100.0(155)	5.8	94.2	100.0(9)	100.0	0.0
400~499만원	100.0(124)	7.3	92.7	100.0(9)	88.9	11.1
500~599만원	100.0(151)	7.3	92.7	100.0(11)	72.7	27.3
600~699만원	100.0(99)	5.1	94.9	100.0(5)	100.0	0.0
700만원 이상	100.0(149)	1.3	98.7	100.0(2)	100.0	0.0
$x^2(df)$	6.86(4)			4.91(4)		

주: 보호자의 응답임.
* $p < .05$, ** $p < .01$, *** $p < .001$.

여아의 경우는 나타났다는 응답이 25.8%로 전년도 13.2%에 비해 2배 정도 늘어났다. 2차 성징이 발현한 아동 중 발현시기를 살펴본 결과, 대다수인 약 70%가 12차 조사가 진행된 시점인 초등학교 5학년에 처음으로 2차 성징이 나타났다고 응답하였다.

〈표 Ⅲ-2-38〉 여아의 2차 성징(초경) 발현 여부 및 처음 나타난 시기

단위: %(명)

구분	초경 발현 여부			처음 나타난 시기					
	계(수)	나타남	나타나지 않음	계(수)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전체	100.0(687)	25.8	74.2	100.0(177)	70.1	27.1	1.1	0.6	1.1
아동 출생순위									
외동아	100.0(69)	24.6	75.4	100.0(17)	82.4	17.6	0.0	0.0	0.0
첫째	100.0(242)	29.3	70.7	100.0(71)	67.6	26.8	1.4	1.4	2.8
둘째 이상	100.0(375)	23.5	76.5	100.0(88)	69.3	29.5	1.1	0.0	0.0
$x^2(df)$	2.7(2)			5.86(8)					

구분	초경 발현 여부			처음 나타난 시기					
	계(수)	나타남	나타나지 않음	계(수)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모 취업 여부									
취업	100.0(395)	28.9	71.1	100.0(114)	69.3	27.2	0.9	0.9	1.8
미취업	100.0(269)	21.9	78.1	100.0(59)	69.5	28.8	1.7	0.0	0.0
$x^2(df)$	3.99(1)*			1.82(4)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100.0(133)	27.1	72.9	100.0(36)	69.4	30.6	0.0	0.0	0.0
400~499만원	100.0(121)	25.6	74.4	100.0(31)	64.5	29.0	0.0	3.2	3.2
500~599만원	100.0(135)	23.7	76.3	100.0(32)	62.5	34.4	3.1	0.0	0.0
600~699만원	100.0(86)	20.9	79.1	100.0(18)	66.7	33.3	0.0	0.0	0.0
700만원 이상	100.0(159)	25.2	74.8	100.0(40)	75.0	20.0	2.5	0.0	2.5
$x^2(df)$	1.20(4)			11.07(16)					

주: 보호자의 응답임.
* $p < .05$.

패널아동의 어머니가 인식한 자녀의 주관적 건강 상태는 매우 건강하다는 응답이 31.2%, 건강한 편이라는 응답이 57.9%로 대체적으로 아동의 건강 상태는 양호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점 척도 기준으로 평균 4.17점(표준편차 0.71)로 높은 편이었다.

〈표 Ⅲ-2-39〉 어머니가 인식한 아동의 주관적 건강 상태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건강하지 않음	건강하지 않은편임	보통임	건강한 편임	매우 건강함	계(수)	평균	표준 편차
전체	0.9	1.1	8.9	57.9	31.2	100.0(1,412)	4.17	0.71
아동 성별								
남	1.4	0.7	10.6	55.7	31.6	100.0(725)	4.15	0.74
여	0.4	1.6	7.0	60.3	30.7	100.0(687)	4.19	0.67
$x^2(df)/t$	12.59(4)*						-1.00	
아동 출생순위								
외동아[a]	2.0	0.7	6.7	64.0	26.7	100.0(150)	4.13	0.73
첫째[b]	0.4	1.6	10.8	57.9	29.3	100.0(501)	4.14	0.69
둘째 이상[c]	1.1	0.9	8.0	56.7	33.3	100.0(759)	4.20	0.71
$x^2(df)/F$	12.35(8)						1.49	
모 취업 여부								
취업	0.9	1.2	8.2	56.6	33.0	100.0(802)	4.20	0.71
미취업	1.1	1.1	9.8	59.9	28.2	100.0(563)	4.13	0.71
$x^2(df)/t$	4.16(4)						1.68	

구분	전혀 건강하지 않음	건강하지 않은편임	보통임	건강한 편임	매우 건강함	계(수)	평균	표준 편차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a]	0.7	2.1	10.1	58.0	29.2	100.0(288)	4.13	0.72
400~499만원[b]	1.2	0.4	8.2	56.3	33.9	100.0(245)	4.21	0.71
500~599만원[c]	1.7	1.0	9.1	56.3	31.8	100.0(286)	4.15	0.77
600~699만원[d]	0.5	1.1	9.7	54.1	34.6	100.0(185)	4.21	0.70
700만원 이상[e]	0.3	1.0	8.4	59.1	31.2	100.0(308)	4.20	0.65
$\chi^2(df)/F$	10.35(16)						0.73	

주: 1) 보호자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매우 건강하지 않음~5.매우 건강함).
* $p < .05$.

패널아동에게 본인의 신체에 대한 자아상을 4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대체적으로 3점 이상으로 긍정적인 신체 자아상을 가지고 있었다. 다만, 체중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2.87점으로 다른 항목에 비해 낮은 편이었다.

신체적 자아상에 대한 응답은 아동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외모에 대한 만족도, 신장에 대한 만족도는 남아가 여아보다 다소 높게 응답한 반면, 외모에 대해 바꾸고 싶은지에 대해서 여아가 남아보다 다소 높게 응답해 차이를 보였다.

〈표 Ⅲ-2-40〉 신체적 자아상

단위: 점

구분	전체 평균	전체 표준편차	외모 만족 평균	외모 만족 표준편차	체중 만족 평균	체중 만족 표준편차	거울 속 모습 만족 평균	거울 속 모습 만족 표준편차	외모 교체 불필요 의사 평균	외모 교체 불필요 의사 표준편차	신장 만족 평균	신장 만족 표준편차
전체	3.08	0.54	3.19	0.68	2.87	0.90	3.16	0.70	3.14	0.82	3.03	0.87
아동 성별												
남	3.13	0.52	3.23	0.66	2.89	0.90	3.19	0.71	3.23	0.78	3.09	0.88
여	3.03	0.55	3.14	0.70	2.86	0.89	3.13	0.69	3.04	0.85	2.97	0.86
t	3.38***		2.48*		0.75		1.52		4.40***		2.39*	
아동 출생순위												
외동아[a]	3.13	0.54	3.25	0.70	2.93	0.91	3.21	0.69	3.20	0.77	3.05	0.92
첫째[b]	3.10	0.54	3.22	0.67	2.88	0.88	3.19	0.68	3.14	0.82	3.07	0.86
둘째 이상[c]	3.06	0.54	3.16	0.68	2.86	0.90	3.13	0.71	3.13	0.84	3.00	0.87
F	1.58		1.77		0.33		1.39		0.47		0.86	

구분	전체 평균	전체 표준편차	외모 만족 평균	외모 만족 표준편차	체중 만족 평균	체중 만족 표준편차	거울 속 모습 만족 평균	거울 속 모습 만족 표준편차	외모 교체 불필요 의사 평균	외모 교체 불필요 의사 표준편차	신장 만족 평균	신장 만족 표준편차
모 취업 여부												
취업	3.08	0.55	3.19	0.67	2.89	0.89	3.16	0.69	3.13	0.83	3.05	0.87
미취업	3.08	0.53	3.20	0.69	2.85	0.89	3.17	0.70	3.15	0.81	3.01	0.88
t	0.25		−0.29		0.67		−0.21		−0.36		0.81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a]	3.05	0.56	3.13	0.72	2.92	0.95	3.11	0.71	3.09	0.87	3.00	0.86
400~499만원[b]	3.09	0.56	3.22	0.66	2.88	0.89	3.19	0.69	3.10	0.83	3.08	0.88
500~599만원[c]	3.07	0.52	3.20	0.69	2.82	0.88	3.16	0.73	3.15	0.83	3.03	0.90
600~699만원[d]	3.06	0.54	3.21	0.66	2.81	0.90	3.17	0.71	3.08	0.87	3.05	0.89
700만원 이상[e]	3.12	0.53	3.21	0.67	2.96	0.86	3.18	0.69	3.23	0.76	3.04	0.85
F	0.72		1.33		0.49		1.66		0.25		0.77	

주: 1) 아동 응답임.
2) 체중 만족(나는 내 체중에 불만스럽다), 외모교체 욕구(할 수 있다면 나의 외모에 대해 바꾸고 싶은 부분이 많다) 문항은 역코딩
3) 4점 척도임(1.전혀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
* $p < .05$, *** $p < .001$.

2) 질환 및 치료

패널아동의 보호자에게 지난 1년간 자녀의 치료 및 입원 여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응급실 치료 경험은 없다는 응답이 94.8%, 입원 경험도 없다는 응답이 96.5% 정도로 대부분 치료 및 입원 경험이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동 성별로 치료 및 입원 경험 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남아가 여아보다 응급실 치료 및 입원 경험이 있다는 응답 비율이 1.5배 조금 높게 나타났다.

〈표 Ⅲ-2-41〉 아동의 치료 및 입원 여부

단위: %(명)

구분	응급실 치료 경험 있음	응급실 치료 경험 없음	입원 경험 있음	입원 경험 없음	계(수)
전체	5.2	94.8	3.5	96.5	100.0(1,412)
아동 성별					
남	6.5	93.5	4.6	95.4	100.0(725)
여	3.8	96.2	2.3	97.7	100.0(687)
$x^2(df)$	5.24(1)*		5.20(1)*		

구분	응급실 치료 경험		입원 경험		계(수)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아동 출생순위					
외동아	8.0	92.0	4.0	96.0	100.0(150)
첫째	5.2	94.8	4.2	95.8	100.0(501)
둘째 이상	4.6	95.4	2.9	97.1	100.0(759)
$x^2(df)$	2.93(2)		1.64(2)		
모 취업 여부					
취업	5.7	94.3	3.7	96.3	100.0(802)
미취업	4.8	95.2	3.2	96.8	100.0(563)
$x^2(df)$	0.58(1)		0.29(1)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3.1	96.9	3.1	96.9	100.0(288)
400~499만원	7.3	92.7	4.5	95.5	100.0(245)
500~599만원	5.6	94.4	3.5	96.5	100.0(286)
600~699만원	3.2	96.8	4.3	95.7	100.0(185)
700만원 이상	6.2	93.8	2.3	97.7	100.0(308)
$x^2(df)$	6.94(4)		2.61(4)		

주: 보호자의 응답임.
* $p < .05$.

보호자에게 패널아동의 만성질환별 진단 및 치료 여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전체 아동의 2.5%(전년도=2.4%)가 만성 부비동염(축농증)을 진단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외에는 진단받은 질환의 비율은 1% 미만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적은 비율이지만 만성 질환이 있는 경우,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는 질환은 선천성 심장질환, 뇌전증(간질)은 70-80% 이상 정기적인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당뇨는 50% 정도가 질환이 있을 시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다.

〈표 Ⅲ-2-42〉 아동의 만성 질환별 진단 및 치료 여부

단위: %(명)

구분	계(수)	진단받은 질환 (중복응답)	치료 여부		
			정기적으로 받음	간헐적으로 받음	받지 않음
선천성 심장질환	100.0(10)	0.7	80.0	0.0	20.0
뇌전증(간질)	100.0(4)	0.3	75.0	0.0	25.0
당뇨	100.0(2)	0.1	50.0	0.0	50.0
만성 부비동염(축농증)	100.0(35)	2.5	0.0	51.4	48.6
만성 중이염	100.0(12)	0.8	25.0	8.3	66.7
만성 요로감염	100.0(1)	0.1	0.0	0.0	100.0

주: 1) 치료여부는 해당 질환을 진단받은 아동에 한정하여 분석됨.
2) 보호자의 응답임.

보호자에게 패널아동의 알레르기 질환에 대해 질문한 결과, 알레르기 비염이 19.4%(전년도 19.3%)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 다음은 아토피피부염 8.1(전년도=8.2%), 알레르기결막염 4.0%(전년도 4,3%) 순이었다. 알레르기 질환별로 정기적인 치료를 받는 비율은 20% 미만으로 높지 않았으나, 간헐적으로 치료를 받는 비율은 알레르기 결막염(76.8%), 알레르기비염(69.7%)과 아토피피부염(66.7%) 순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다. 식품알레르기는 71.0%, 천식은 51.5%가 치료를 받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표 Ⅲ-2-43〉 아동의 알레르기 질환별 의사 진단 여부

단위: %(명)

구분	계(수)	진단받은 질환 (중복응답)	치료 여부		
			정기적으로 받음	간헐적으로 받음	받지 않음
천식	100.0(33)	2.3	15.2	33.3	51.5
알레르기비염	100.0(274)	19.4	8.4	69.7	21.9
아토피피부염	100.0(114)	8.1	7.9	66.7	25.4
식품알레르기	100.0(31)	2.2	3.2	25.8	71.0
알레르기결막염	100.0(56)	4.0	5.4	76.8	17.9
기타 질환	100.0(17)	1.2	41.2	29.4	29.4

주: 1) 치료여부는 해당 질환을 진단받은 아동에 한정하여 분석됨.
2) 보호자의 응답임.

보호자에게 패널아동이 심리사회적 질환을 진단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심리사회적 질환을 진단받는 경우는 대부분 0.5% 미만으로 적은 편이었다. 의사소통 장애가 0.5%,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와 운동장애가 0.4% 수준으로 진단받은 경험이 있었으며, 이는 전년도와 큰 차이가 없었다.

〈표 Ⅲ-2-44〉 아동의 심리사회적 질환별 의사 진단 여부

단위: %(명)

구분	계(수)	진단받은 질환 (중복응답)	상담 및 치료 여부		
			지속적으로 받음	간헐적으로 받음	받지 않음
의사소통 장애	100.0(7)	0.5	42.9	28.6	28.6
자폐 스펙트럼장애	100.0(2)	0.1	50.0	0.0	50.0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100.0(5)	0.4	80.0	0.0	20.0
특정 학습장애	- (0)	0.0	-	-	-

구분	계(수)	진단받은 질환 (중복응답)	상담 및 치료 여부		
			지속적으로 받음	간헐적으로 받음	받지 않음
운동장애	100.0(5)	0.4	60.0	20.0	20.0
파괴적, 충동통제 및 품행장애	- (0)	0.0	-	-	-
배설장애	100.0(1)	0.1	-	-	100.0
급식 및 섭식장애	- (0)	0.0	-	-	-
불안 장애	100.0(3)	0.2	66.7	0.0	33.3
기타 장애	100.0(3)	0.2	66.7	33.3	0.0

주: 1) 치료여부는 해당 질환을 진단받은 아동에 한정하여 분석됨.
2) 보호자의 응답임.

마. 언어 및 학습 관련 특성

1) 언어 관련

패널아동에게 직접 비속어 사용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전혀 사용하지 않음이 47.5%로 절반보다 약간 낮았으며, 가끔 사용한다는 응답이 45.7%로 비슷하게 응답되었다. 4점 점수로 환산하면 평균 1.61점(표준편차 0.66)으로 비속어 사용을 하는 경우는 낮은 편이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남아가 여아보다 사용하는 비율이 약간 높게 나타났다. 아동 출생순위에서는 외동아나 첫째아보다 둘째 이상일 경우 사용하는 비율이 약간 높았으며, 어머니가 취업모일 때 비속어를 사용하는 비율이 약간 높게 응답되었다.

〈표 Ⅲ-2-45〉 비속어 사용

단위: %, 점(명)

구분	전혀 사용하지 않음	가끔 사용함	자주 사용함	매일 사용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47.5	45.7	5.5	1.4	100.0(1,393)	1.61	0.66
아동 성별							
남	41.8	50.8	6.3	1.1	100.0(713)	1.67	0.65
여	53.4	40.4	4.6	1.6	100.0(680)	1.54	0.66
$x^2(df)/t$	20.56(3)***					3.53***	
아동 출생순위							
외동아[a]	53.1	40.1	5.4	1.4	100.0(147)	1.55	0.66
첫째[b]	52.2	42.7	4.0	1.0	100.0(494)	1.54	0.63
둘째 이상[c]	43.3	48.7	6.4	1.6	100.0(750)	1.66	0.67
$x^2(df)/F$	13.2(6)*					5.98** c>b	

구분	전혀 사용하지 않음	가끔 사용함	자주 사용함	매일 사용	계(수)	평균	표준편차
모 취업 여부							
취업	44.7	47.8	5.9	1.6	100.0(795)	1.65	0.67
미취업	51.5	43.0	4.7	0.7	100.0(553)	1.55	0.62
$x^2(df)/t$	7.90(3)*					2.76**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a]	44.2	47.7	6.0	2.1	100.0(285)	1.66	0.69
400~499만원[b]	47.5	48.3	2.9	1.3	100.0(240)	1.58	0.62
500~599만원[c]	45.0	48.6	5.0	1.4	100.0(282)	1.63	0.65
600~699만원[d]	47.3	43.5	7.6	1.6	100.0(184)	1.64	0.70
700만원 이상[e]	54.5	38.9	5.6	1.0	100.0(303)	1.53	0.65
$x^2(df)/F$	14.51(12)					1.72	

주: 1) 아동의 응답임.
2) 4점 척도임(1. 전혀 사용하지 않음~4. 매일 사용함).
* $p < .05$, ** $p < .01$, *** $p < .001$.

2) 학습 관련

아동이 재학 중인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아동의 평상시 모습을 기준으로 평가한 학업 수행 능력은 상위권(상위 21-40%+상위 20% 이내)에 속한다는 응답이 78.6% 이상으로 높은 편이었다. 상위 20% 이내에 속하는 아동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국어 관련 능력 중 읽기 50.2%, 말하기 46.3%, 쓰기 45.1%로 평가되었다. 수학 관련 능력 중 수 읽고 쓰기 70.2%, 덧셈뺄셈 71.1%로 높았으며, 과학과 사회 모두 40% 이상으로 평가되었다. 중간 50% 내외에서는 수학 관련 능력에 대한 평가가 다른 과목의 학업 수행에 비해 낮은 편이었다.

〈표 Ⅲ-2-46〉 아동의 학업수행 능력

단위: %(명)

구분	하위 20% 이내	하위 21~40%	중간 50% 내외	상위 21~40%	상위 20%이내	계(수)
전반	1.0	5.8	14.6	31.0	47.6	100.0(590)
읽기	1.0	4.7	14.6	29.5	50.2	100.0(590)
말하기	0.3	4.9	16.4	32.0	46.3	100.0(590)
쓰기	1.2	6.3	17.1	30.3	45.1	100.0(590)
영어	3.4	6.4	15.3	29.5	45.4	100.0(590)
수읽고쓰기	0.8	2.0	6.9	20.0	70.2	100.0(590)
덧셈뺄셈	0.8	2.0	6.9	19.2	71.0	100.0(590)
곱셈나눗셈	1.4	4.2	10.3	21.4	62.7	100.0(590)

구분	하위 20% 이내	하위 21~40%	중간 50% 내외	상위 21~40%	상위 20%이내	계(수)
분수소수	2.2	4.2	12.5	25.9	55.1	100.0(590)
측정	1.5	3.4	13.1	26.1	55.9	100.0(590)
과학	0.3	4.4	15.4	32.2	47.6	100.0(590)
사회	0.8	3.7	16.8	31.7	46.9	100.0(590)
운동	1.9	5.1	19.2	28.0	45.9	100.0(590)
미술	1.5	8.3	20.7	29.2	40.3	100.0(590)
음악	1.4	5.9	23.7	34.6	34.4	100.0(590)

주: 담임교사의 응답임.

아동이 재학 중인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평가한 아동의 학업 수행 능력을 살펴보면, 5점 척도로 평가했을 때 국어 4.18점(표준편차 0.88), 영어 4.07점(표준편차 1.08), 수학 4.43점(표준편차 0.82), 과학 4.22점(표준편차 0.89)로 나타났다. 수학 능력의 평균이 다른 과목에 비해 평균은 높은 편이었으며, 영어에서는 표준편차가 다른 과목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모든 과목에서 여아가 남아보다 학업수행 능력 평균이 높았으며, 특히 국어, 영어, 예체능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예체능을 제외한 과목에서 학업수행 평균이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표 Ⅲ-2-47〉 아동의 학업수행 능력(평균)

단위: 점(명)

구분	수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예체능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590)	4.18	0.88	4.07	1.08	4.43	0.82	4.22	0.89	4.20	0.91	4.01	0.80
아동 성별													
남	(315)	4.05	0.94	3.93	1.16	4.38	0.91	4.20	0.94	4.17	0.95	3.79	0.84
여	(275)	4.33	0.78	4.24	0.95	4.47	0.71	4.25	0.83	4.24	0.85	4.27	0.68
t		-3.93***		-3.55***		-1.34		-0.61		-0.96		-7.60***	
아동 출생순위													
외동아[a]	(53)	4.21	0.88	4.15	1.06	4.45	0.83	4.28	0.89	4.30	0.95	3.89	0.78
첫째[b]	(214)	4.28	0.82	4.19	0.97	4.54	0.75	4.35	0.79	4.28	0.84	4.00	0.83
둘째 이상[c]	(323)	4.11	0.91	3.98	1.14	4.35	0.86	4.13	0.94	4.14	0.94	4.04	0.78
F		2.50		2.68		3.60* b>c		3.86* b>c		1.88		0.89	
모 취업 여부													
취업	(342)	4.18	0.86	4.07	1.07	4.45	0.79	4.25	0.85	4.22	0.90	4.06	0.76
미취업	(227)	4.19	0.90	4.12	1.06	4.42	0.83	4.21	0.92	4.20	0.91	3.96	0.85
t		-0.07		-0.57		0.47		0.53		0.18		1.48	

구분	수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예체능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a]	(129)	3.99	1.00	3.72	1.24	4.28	0.96	4.02	1.03	4.07	1.01	3.88	0.89
400~499만원[b]	(112)	4.18	0.86	4.04	1.08	4.31	0.89	4.13	0.95	4.15	0.93	4.04	0.80
500~599만원[c]	(133)	4.15	0.87	4.10	1.03	4.49	0.75	4.29	0.79	4.14	0.88	3.97	0.82
600~699만원[d]	(73)	4.27	0.78	4.30	0.95	4.55	0.62	4.30	0.78	4.29	0.90	4.05	0.76
700만원 이상[e]	(115)	4.37	0.80	4.30	0.94	4.57	0.71	4.40	0.77	4.37	0.79	4.11	0.73
F		3.09* e>a		5.66*** d,e>a		3.23*		3.50** e>a		2.09		1.36	

주: 1) 담임교사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 하위 20% 이내~5. 상위 20% 이내).
* $p < .05$, ** $p < .01$. *** $p < .001$.

패널아동의 학업 스트레스를 분석한 결과 학교성적 스트레스에서 전체 5점 만점에 남아가 1.69점, 여아가 1.89점으로 여아의 학교성적 스트레스가 더 높게 나타났다. 아동 출생순위에 따라서는 학교성적 스트레스, 숙제/시험 스트레스, 공부 스트레스 모두에서 외동아와 첫째에 비해 둘째 이상 아동의 학업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

〈표 Ⅲ-2-48〉 학업 스트레스

단위: 점(명)

구분	수	전체		학교성적 스트레스		숙제/시험 스트레스		공부 스트레스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1,393)	2.13	0.85	1.79	0.88	2.32	1.09	2.28	1.06
아동 성별									
남	(713)	2.09	0.86	1.69	0.85	2.29	1.14	2.30	1.09
여	(680)	2.17	0.84	1.89	0.89	2.34	1.05	2.26	1.03
t		−1.61		−4.30***		−0.94		0.65	
아동 출생순위									
외동아[a]	(147)	2.03	0.90	1.66	0.87	2.24	1.15	2.18	1.10
첫째[b]	(494)	2.06	0.85	1.73	0.85	2.23	1.08	2.21	1.08
둘째 이상[c]	(750)	2.20	0.84	1.85	0.89	2.39	1.09	2.35	1.04
F		5.19** c>a		4.39* c>a		3.46* c>b		3.54*	
모 취업 여부									
취업	(795)	2.14	0.86	1.80	0.88	2.32	1.10	2.30	1.08
미취업	(553)	2.12	0.83	1.77	0.88	2.31	1.09	2.27	1.02
t		0.52		0.67		0.17		0.53	

구분	수	전체		학교성적 스트레스		숙제/시험 스트레스		공부 스트레스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a]	(285)	2.12	0.84	1.82	0.88	2.24	1.06	2.30	1.07
400~499만원[b]	(240)	2.11	0.85	1.79	0.90	2.29	1.09	2.25	1.03
500~599만원[c]	(282)	2.14	0.88	1.83	0.90	2.33	1.14	2.28	1.08
600~699만원[d]	(184)	2.22	0.87	1.79	0.90	2.42	1.09	2.45	1.07
700만원 이상[e]	(303)	2.08	0.81	1.70	0.81	2.32	1.08	2.22	1.03
F		0.97		0.80		1.47		0.81	

주: 1) 아동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 그런적 없다~5. 항상 그렇다).
* $p < .05$, ** $p < .01$, *** $p < .001$.

패널아동의 학업 동기 점수를 T점수로 변환하여 분석한 결과, 아동 성별을 기준으로 할 때 학업적 자기효능감에서는 남아(55.51점)가 여아(54.31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과제수준 선호에서도 남아(50.69점)가 여아(49.20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아동 출생순위를 기준으로 할 때 학업적 자기효능감에서 평균이 외동아(57.05점), 첫째(55.75점), 둘째 이상(53.97점)의 순으로 나타나 외동아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가장 높았다. 자신감, 자기조절 효능감, 과제수준 선호에서도 모두 외동아, 첫째, 둘째 이상의 순으로 나타나 외동아의 자기효능감이 가장 높았다.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학업적 자기효능감, 자신감, 자기조절 효능감, 과제수준 선호에서 모두 가구소득이 399만원 이하인 경우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Ⅲ-2-49〉 학업 동기: 학업적 자기효능감

단위: 점(명)

구분	수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적 자기효능감		자신감		자기조절 효능감		과제수준 선호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1,321)	54.93	9.43	56.70	9.10	55.47	10.39	49.97	9.44
아동 성별									
남	(682)	55.51	9.53	56.99	9.49	55.96	10.56	50.69	9.42
여	(639)	54.31	9.30	56.38	8.65	54.94	10.18	49.20	9.42
t		2.32*		1.21		1.78		2.86**	

구분	수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적 자기효능감		자신감		자기조절 효능감		과제수준 선호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아동 출생순위									
외동아[a]	(138)	57.05	9.58	59.05	8.34	56.56	10.95	51.42	9.80
첫째[b]	(475)	55.75	9.72	57.19	8.89	56.36	10.42	50.55	9.93
둘째 이상[c]	(707)	53.97	9.10	55.93	9.27	54.65	10.21	49.30	8.99
F		9.08***	a〉c	7.93***	a〉c	4.69**	a〉c	4.32*	a〉c
모 취업 여부									
취업	(752)	54.75	9.45	56.64	8.90	55.15	10.41	49.94	9.45
미취업	(527)	55.25	9.43	56.74	9.33	56.11	10.42	50.03	9.46
t		−0.92		−0.20		−1.63		−0.16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a]	(265)	53.08	9.36	55.31	9.44	53.50	10.46	48.86	9.36
400~499만원[b]	(232)	54.80	9.20	56.49	9.32	55.34	10.66	50.00	9.42
500~599만원[c]	(272)	54.92	9.55	56.83	9.44	56.09	10.13	49.36	9.45
600~699만원[d]	(174)	55.39	10.42	56.57	9.42	55.51	10.94	50.99	10.46
700만원 이상[e]	(287)	56.63	8.94	57.99	8.20	57.00	9.89	51.21	8.92
F		4.99***	e〉a	3.00*	e〉a	4.21**	e〉a	2.92*	

주: 1) 아동의 응답임.
2) 6점 척도임(1. 전혀 아니다~6. 매우 그렇다).
3) T점수 기준점: 평균 50, 표준편차 10
* $p < .05$, ** $p < .01$, *** $p < .001$.

패널아동의 학업적 실패내성 점수를 T점수로 변환하여 분석한 결과, 아동 성별에 따라서는 남아(55.25점)가 여아(53.84점)보다 높았다. 행동 및 과제난이도 선호에서도 남아가 여아가 높게 나타났다. 아동 출생순위에 따라서는 과제난이도 선호에서 첫째(51.56점)가 외동아(51.41점) 및 둘째 이상(50.01점)보다 높았다. 모 취업 여부 및 가구 소득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Ⅲ-2-50〉 학업 동기: 학업적 실패내성

단위: 점(명)

구분	수	학업적 실패내성							
		학업적 실패내성		감정		행동		과제난이도 선호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1,321)	54.56	9.66	58.37	9.71	50.18	9.92	50.71	10.14
아동 성별									
남	(682)	55.25	9.95	58.55	9.74	50.92	10.01	51.50	10.15
여	(639)	53.84	9.29	58.17	9.69	49.39	9.77	49.87	10.06
t		2.66**		0.71		2.80**		2.92**	
아동 출생순위									
외동아[a]	(138)	55.65	10.00	59.73	9.93	50.38	10.00	51.41	10.59
첫째[b]	(475)	55.05	9.91	58.04	9.73	50.74	9.99	51.56	10.65
둘째 이상[c]	(707)	54.03	9.40	58.33	9.66	49.77	9.86	50.01	9.65
F		2.55		1.64		1.39		3.72* b>c	
모 취업 여부									
취업	(752)	54.52	9.68	58.59	9.74	50.01	10.08	50.53	10.27
미취업	(527)	54.67	9.62	57.97	9.58	50.60	9.69	51.00	9.98
t		-0.28		1.14		-1.04		-0.81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a]	(265)	53.70	9.06	58.00	9.81	49.46	9.57	49.96	9.82
400~499만원[b]	(232)	55.25	9.38	59.06	9.48	50.99	10.02	50.71	10.26
500~599만원[c]	(272)	54.42	10.39	58.46	10.10	50.34	9.77	50.21	10.33
600~699만원[d]	(174)	54.48	10.82	57.81	9.71	49.45	10.96	51.67	11.21
700만원 이상[e]	(287)	55.59	9.45	58.56	9.45	51.10	9.93	51.87	9.62
F		1.55		0.57		1.52		1.79	

주: 1) 아동의 응답임.
2) 6점 척도임(1. 전혀 아니다~6. 매우 그렇다).
3) T점수 기준점: 평균 50, 표준편차 10
* $p < .05$, ** $p < .01$.

1순위를 기준으로 한 아동의 과목선호도를 보면, 체육을 1순위로 선택한 아동이 전체의 50.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미술(15.1%)과 수학(11.4%)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 성별에 따라서는 남아는 체육(58.5%), 수학(15.1%), 과학(7.9%), 미술(5.2%)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여아는 체육(42.1%), 미술(25.6%), 수학(7.5%), 국어(6.9%)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Ⅲ-2-51〉 아동의 과목선호도: 1순위

단위: %(명)

구분	계(수)	국어	과학	수학	사회	도덕	음악	미술	실과	체육	영어
전체	100.0(1,393)	4.8	5.4	11.4	3.9	0.2	2.9	15.1	1.8	50.5	3.9
아동 성별											
남	100.0(713)	2.8	7.9	15.1	4.2	0.1	2.1	5.2	1.3	58.5	2.8
여	100.0(680)	6.9	2.8	7.5	3.5	0.3	3.8	25.6	2.4	42.1	5.1
아동 출생순위											
외동아	100.0(147)	3.4	10.2	13.6	4.1	0.0	1.4	18.4	2.0	42.2	4.8
첫째	100.0(494)	3.8	5.5	11.1	4.7	0.2	3.0	14.0	1.8	51.0	4.9
둘째 이상	100.0(750)	5.7	4.4	11.1	3.2	0.3	3.2	15.3	1.7	51.9	3.2
모 취업 여부											
취업	100.0(795)	4.5	5.7	10.4	4.0	0.1	2.6	14.2	1.9	52.1	4.4
미취업	100.0(553)	4.9	5.4	12.8	4.0	0.4	3.6	16.5	1.8	47.4	3.3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100.0(285)	4.2	5.6	13.0	3.9	0.0	3.9	16.8	1.1	48.8	2.8
400~499만원	100.0(240)	6.7	4.6	9.2	4.6	0.4	2.9	13.8	2.1	52.1	3.8
500~599만원	100.0(282)	3.9	5.3	11.7	2.8	0.4	3.2	18.1	1.1	49.6	3.9
600~699만원	100.0(184)	6.0	8.7	16.3	3.3	0.0	4.3	9.8	1.6	46.7	3.3
700만원 이상	100.0(303)	3.6	5.6	8.3	5.0	0.3	1.3	15.2	3.6	51.5	5.6

주: 아동의 응답임.

1,2순위 합계를 기준으로 한 아동의 과목선호도를 보면 체육(70.3%), 미술(31.6%), 수학(24.3%), 과학(17.3%), 음악(13.4%)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 성별에 따라서는 남아는 체육(76.2%), 수학(31.7%), 과학(25.0%), 미술(18.1%)의 순으로 나타났고, 여아는 체육(64.1%), 미술(45.7%), 음악(17.9%), 수학(16.5%)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 출생순위에 따라서는 가장 과목선호도가 높은 체육에서 둘째 이상(72.5%), 첫째(68.8%), 외동아(63.9%)의 순으로 둘째 이상의 체육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았다.

〈표 Ⅲ-2-52〉 아동의 과목선호도: 1+2순위

단위: %(명)

구분	국어	과학	수학	사회	도덕	음악	미술	실과	체육	영어
전체	9.7	17.3	24.3	11.1	1.4	13.4	31.6	8.5	70.3	12.6
아동 성별										
남	6.0	25.0	31.7	12.9	1.3	9.0	18.1	7.7	76.2	12.2
여	13.5	9.3	16.5	9.1	1.6	17.9	45.7	9.3	64.1	12.9

구분	국어	과학	수학	사회	도덕	음악	미술	실과	체육	영어
아동 출생순위										
외동아	10.2	21.8	28.6	15.0	0.7	8.2	31.3	4.8	63.9	15.6
첫째	8.9	17.4	24.3	11.9	1.6	14.4	28.7	9.9	68.8	14.0
둘째 이상	10.1	16.3	23.3	9.6	1.5	13.7	33.6	8.3	72.5	11.1
모 취업 여부										
취업	8.7	17.4	23.8	11.6	1.5	13.6	31.6	8.1	71.1	12.8
미취업	10.5	18.4	24.6	11.0	1.3	12.5	31.6	9.0	68.9	12.1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9.8	17.2	22.1	11.9	0.7	13.3	35.8	8.8	69.5	10.9
400~499만원	9.2	20.0	21.7	11.7	2.1	13.8	31.7	6.7	70.8	12.5
500~599만원	9.9	16.3	25.9	9.2	1.1	14.2	32.3	7.1	69.5	14.5
600~699만원	7.6	21.2	33.2	9.8	1.1	17.9	23.9	8.2	66.8	10.3
700만원 이상	10.2	15.2	21.1	12.2	2.3	10.6	32.3	10.2	72.9	12.9

주: 아동의 응답임.

바. 사회 및 정서적 특성

1) 자아개념 및 정서

자아정체감의 조사결과를 보면 아동 출생순위에 따라서는 외동아(2.86점), 첫째(2.79점), 둘째 이상(2.73점)의 순으로 나타나 외동아의 자아정체감이 가장 높았다.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가구소득이 399만원 이하인 경우 아동의 자아탄력성 및 자아정체감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Ⅲ-2-53〉 아동의 자아개념: 자아탄력성 및 자아정체감

단위: 점(명)

구분	수	자아탄력성		자아정체감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1,393)	3.00	0.43	2.77	0.37
아동 성별					
남	(713)	3.02	0.44	2.77	0.37
여	(680)	2.99	0.41	2.76	0.37
t		1.30		0.70	
아동 출생순위					
외동아[a]	(147)	3.02	0.45	2.86	0.39
첫째[b]	(494)	3.03	0.42	2.79	0.39
둘째 이상[c]	(750)	2.99	0.42	2.73	0.34
F		1.28		8.90*** a>b,c	

구분	수	자아탄력성		자아정체감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모 취업 여부					
취업	(795)	3.01	0.42	2.76	0.36
미취업	(553)	3.00	0.43	2.78	0.36
t		0.66		-1.31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a]	(285)	2.93	0.43	2.71	0.33
400~499만원[b]	(240)	3.05	0.43	2.78	0.37
500~599만원[c]	(282)	3.00	0.41	2.76	0.37
600~699만원[d]	(184)	3.04	0.44	2.78	0.36
700만원 이상[e]	(303)	3.02	0.41	2.80	0.39
F		3.65** b>a		2.73* e>a	

주: 1) 아동의 응답임.
2) 모두 4점 척도임(1. 전혀 그렇지 않다~4. 매우 그렇다).
* $p < .05$, ** $p < .01$, *** $p < .001$.

아동의 전반적 행복감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아동 성별에 따라서는 남아(3.28점)가 여아(3.22점)보다 전반적 행복감이 높았다. 아동 출생순위에 따라서는 외동아(3.30점), 첫째(3.27점), 둘째 이상(3.22점)의 순으로 나타나 외동아의 전반적 행복감이 가장 높았다. 가구 소득에 따라서는 가구소득이 399만원 이하인 경우 아동의 전반적 행복감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Ⅲ-2-54> 아동의 전반적 행복감

단위: 점(명)

구분	수	전반적 행복감	
		평균	표준편차
전체	(1,393)	3.25	0.44
아동 성별			
남	(713)	3.28	0.45
여	(680)	3.22	0.44
t		2.28*	
아동 출생순위			
외동아[a]	(147)	3.30	0.49
첫째[b]	(494)	3.27	0.44
둘째 이상[c]	(750)	3.22	0.44
F		3.12*	
모 취업 여부			
취업	(795)	3.25	0.45
미취업	(553)	3.25	0.44
t		0.00	

구분	수	전반적 행복감	
		평균	표준편차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a]	(285)	3.17	0.46
400~499만원[b]	(240)	3.29	0.42
500~599만원[c]	(282)	3.25	0.45
600~699만원[d]	(184)	3.22	0.47
700만원 이상[e]	(303)	3.31	0.42
F		4.23** e〉a	

주: 1) 아동의 응답임.
2) 4점 척도임(1. 전혀 행복하지 않다~4. 매우 행복하다).
* p 〈 .05, ** p 〈 .01.

아동의 자율성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아동 성별, 출생순위, 모 취업 여부에 따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아동의 자율성이 높게 나타났다.

〈표 Ⅲ-2-55〉 아동의 자율성

단위: 점(명)

구분	수	자율성	
		평균	표준편차
전체	(1,393)	2.68	0.34
아동 성별			
남	(713)	2.67	0.35
여	(680)	2.69	0.33
t		-0.93	
아동 출생순위			
외동아[a]	(147)	2.69	0.35
첫째[b]	(494)	2.69	0.33
둘째 이상[c]	(750)	2.66	0.34
F		1.12	
모 취업 여부			
취업	(795)	2.68	0.34
미취업	(553)	2.67	0.34
t		0.58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a]	(285)	2.62	0.35
400~499만원[b]	(240)	2.64	0.36
500~599만원[c]	(282)	2.69	0.33
600~699만원[d]	(184)	2.67	0.35
700만원 이상[e]	(303)	2.74	0.31
F		4.66*** e〉a	

주: 1) 아동의 응답임.
2) 3점 척도임(1. 그렇지 않다~3. 그렇다).
3) 1번 문항(나는 내 생활속에서 압박감을 시달린다)은 역코딩
** p 〈 .01.

2) 성격

2019년 패널조사에서 성격은 외향성,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 신경증의 5가지 영역에서 측정하였다. 각 개인은 영역별로 평균 50, 표준편차 10으로 환산된 표준점수(T점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각 개인은 본인의 점수를 타인과의 규준 비교를 통해 상대적 위치를 파악할 수 있고 한편으로는 개인 내적으로 프로파일 분석을 통해 자신의 성격 특성을 분석해볼 수도 있다.

패널아동 전체(n=1,346)의 성격 영역별 분포를 보면 다음의 〈표 Ⅲ-2-56〉과 같다. 즉, 기준이 되는 정규분포와 비교할 때, 외향성과 친화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아동이 많은 것으로 보이고, 상대적으로 개방성이나 성실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경우가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신경증의 경우는 평균보다 높은 경우가 적은 것으로 파악되어 긍정적인 심리상태임을 알 수 있다.

〈표 Ⅲ-2-56〉 성격검사: 하위 성격 영역별 패널아동 분포

단위: %

구분		1. 아주 낮음	2. 낮음	3. 평균	4. 높음	5. 매우 높음	계 (N=1,346)
		34점 이하	34점 초과 44점 이하	44점 초과 55점 이하	55점 초과 65점 이하	65점 초과	
정규분포		7.0	24.0	38.0	24.0	7.0	100.0
패널아동	외향성	3.9	17.3	43.5	26.6	8.7	100.0
	개방성	7.4	30.3	44.3	14.9	3.0	100.0
	친화성	2.1	17.2	45.4	27.5	7.9	100.0
	성실성	5.9	30.9	45.7	15.0	2.5	100.0
	신경증	4.8	29.4	45.4	17.6	2.8	100.0

가) 외향성

패널아동의 외향성 점수를 T점수로 변환하여 분석한 결과, 자극추구를 보면 아동 성별에 따라서는 남아(48.24점)보다 여아(50.80점)가 더 높았다. 가구 소득에 따라서는 외향성, 지배성에서 가구 소득이 700만원 이상인 아동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사회성에서는 가구 소득이 400~499만원인 아동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자극추구에서는 가구 소득이 600~699만원인 아동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Ⅲ-2-57〉 아동의 성격: 외향성

단위: 점(명)

구분	수	외향성							
		외향성		사회성		지배성		자극추구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1,346)	51.49	9.53	52.14	9.95	51.94	8.76	49.50	9.62
아동 성별									
남	(685)	51.28	9.34	52.49	9.88	52.44	8.76	48.24	9.41
여	(661)	51.71	9.72	51.79	10.01	51.43	8.74	50.80	9.67
t		−0.81		1.30		2.12*		−4.92***	
아동 출생순위									
외동아[a]	(144)	51.78	9.76	53.98	9.66	52.12	8.91	48.29	10.34
첫째[b]	(482)	51.48	10.06	52.14	10.28	51.97	9.19	49.44	10.08
둘째 이상[c]	(719)	51.44	9.12	51.78	9.75	51.88	8.45	49.78	9.15
F		0.08		2.95		0.05		1.45	
모 취업 여부									
취업	(767)	51.62	9.66	52.16	10.03	51.94	8.74	49.78	9.58
미취업	(538)	51.37	9.35	52.07	9.75	52.07	8.88	49.16	9.57
t		0.48		0.16		−0.25		1.15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a]	(271)	49.28	8.74	49.92	9.88	49.78	8.01	48.65	9.59
400~499만원[b]	(236)	52.23	8.94	53.23	9.48	51.78	8.09	50.34	9.50
500~599만원[c]	(273)	51.47	10.21	52.59	10.83	51.95	9.28	49.03	9.32
600~699만원[d]	(177)	52.37	9.39	52.31	9.67	52.89	9.40	50.41	9.81
700만원 이상[e]	(298)	52.40	9.69	53.05	9.45	53.23	8.46	49.46	9.84
F		5.15***	e,d,b,〉a	4.9***	b,e〉a	6.45***	e,d〉a	1.54	

주: 1) 아동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 전혀 아니다~5. 매우 그렇다).
3) T점수 기준점: 평균 50, 표준편차 10
* $p < .05$, *** $p < .001$.

나) 개방성

패널아동의 개방성 점수를 T점수로 변환하여 분석한 결과, 남아가 여아보다 개방성, 정서성, 사고유연성에서 더 높게 나왔고, 출생 순위에 따라서는 사고유연성에서 외동아(46.90점), 첫째(46.37점), 둘째 이상(44.97점)의 순으로 나타나 외동아의 사고유연성이 가장 높았다. 가구 소득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Ⅲ-2-58〉 아동의 성격: 개방성

단위: 점(명)

구분	수	개방성							
		개방성		창의성		정서성		사고유연성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1,346)	47.08	9.46	49.72	9.74	47.35	9.23	45.67	9.55
아동 성별									
남	(685)	47.69	9.02	49.57	9.26	48.11	9.02	46.56	9.53
여	(661)	46.45	9.87	49.88	10.21	46.57	9.38	44.75	9.49
t		2.42*		-0.59		3.07**		3.49***	
아동 출생순위									
외동아[a]	(144)	48.04	10.72	50.36	10.95	47.83	8.97	46.90	11.45
첫째[b]	(482)	47.48	9.63	49.97	9.93	47.37	9.44	46.37	9.77
둘째 이상[c]	(719)	46.64	9.06	49.45	9.35	47.23	9.15	44.97	8.92
F		1.95		0.74		0.25		4.44* a>c	
모 취업 여부									
취업	(767)	47.17	9.35	49.96	9.76	47.43	9.14	45.55	9.48
미취업	(538)	47.25	9.65	49.62	9.70	47.43	9.41	46.14	9.65
t		-0.16		0.63		0.01		-1.08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a]	(271)	45.78	8.99	48.48	8.98	46.68	8.82	44.42	9.26
400~499만원[b]	(236)	47.08	10.05	49.89	10.1	46.97	9.79	45.89	9.49
500~599만원[c]	(273)	47.34	8.99	50.02	9.77	47.60	8.72	45.76	9.25
600~699만원[d]	(177)	47.65	9.09	50.56	9.83	47.08	9.29	46.46	10.2
700만원 이상[e]	(298)	47.93	9.64	50.11	9.74	48.19	9.50	46.54	9.46
F		2.12		1.64		1.17		2.11	

주: 1) 아동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 전혀 아니다~5. 매우 그렇다).
3) T점수 기준점: 평균 50, 표준편차 10
* $p < .05$, ** $p < .01$, *** $p < .001$.

다) 친화성

패널아동의 친화성 점수를 T점수로 변환하여 분석한 결과, 아동 성별에 따라서는 친화성, 온정성, 신뢰성, 관용성에서 모두 남아가 여아보다 높게 나타났다. 출생순위별로는 온정성에서는 첫째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친화성, 신뢰성, 관용성에서는 외동아가 가장 높았다. 가구 소득에 따라서는 가구 소득이 399만원 이하인 가구의 아동의 친화성, 온정성, 신뢰성, 관용성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Ⅲ-2-59〉 아동의 성격: 친화성

단위: 점(명)

구분	수	친화성							
		친화성		온정성		신뢰성		관용성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1,346)	51.87	9.24	51.26	9.64	52.83	9.05	50.38	8.53
아동 성별									
남	(685)	52.80	9.48	52.08	9.68	53.58	9.06	51.05	8.87
여	(661)	50.90	8.88	50.41	9.53	52.06	8.98	49.68	8.10
t		3.80***		3.20**		3.08**		2.97**	
아동 출생순위									
외동아[a]	(144)	53.33	9.98	52.22	10.39	54.16	9.37	51.60	9.02
첫째[b]	(482)	52.59	9.28	52.37	9.62	53.04	9.07	50.90	8.53
둘째 이상[c]	(719)	51.10	8.99	50.32	9.42	52.44	8.95	49.79	8.38
F		5.82** a〉c		7.40*** b〉c		2.35		4.10* a〉c	
모 취업 여부									
취업	(767)	51.66	9.44	50.86	9.74	53.00	9.31	50.10	8.68
미취업	(538)	52.20	8.94	52.04	9.40	52.63	8.73	50.67	8.30
t		-1.04		-2.19*		0.72		-1.19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a]	(271)	49.74	8.76	49.18	9.38	51.01	8.32	49.06	8.14
400~499만원[b]	(236)	52.21	8.83	51.43	9.65	53.49	8.70	50.34	8.43
500~599만원[c]	(273)	52.41	9.84	51.37	9.62	53.59	9.71	50.77	9.13
600~699만원[d]	(177)	51.85	9.51	51.46	10.20	52.39	9.34	50.64	8.29
700만원 이상[e]	(298)	53.44	9.16	52.91	9.55	53.89	9.11	51.54	8.42
F		6.08*** e,c〉a		5.37*** e〉a		4.64** e,c〉a		3.18* e〉a	

주: 1) 아동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 전혀 아니다~5. 매우 그렇다).
3) T점수 기준점: 평균 50, 표준편차 10
* p 〈 .05, ** p 〈 .01, *** p 〈 .001.

라) 성실성

패널아동의 성실성 점수를 T점수로 변환하여 분석한 결과, 아동 성별에 따라서는 남아가 여아보다 성실성, 유능감, 조직성, 책임감이 높게 나타났다. 아동 출생순위별로는 성실성과 조직성, 책임감은 첫째가 가장 높았으나, 유능감은 외동아가 가장 높았다. 가구 소득에 따라서는 가구 소득이 700만원 이상인 가구의 아동이 다른 집단의 아동 보다 성실성, 유능감, 책임감이 유의미하게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Ⅲ-2-60〉 아동의 성격: 성실성

단위: 점(명)

구분	수	성실성							
		성실성		유능감		조직성		책임감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1,346)	47.02	8.76	50.72	9.01	45.94	8.79	45.63	8.95
아동 성별									
남	(685)	47.92	8.68	51.53	9.27	46.76	8.65	46.35	8.77
여	(661)	46.10	8.76	49.87	8.66	45.10	8.86	44.87	9.08
t		3.83***		3.39***		3.49***		3.04**	
아동 출생순위									
외동아[a]	(144)	47.79	9.07	52.50	10.13	45.90	8.77	45.96	8.50
첫째[b]	(482)	47.91	9.04	51.56	9.13	46.80	9.23	46.22	9.12
둘째 이상[c]	(719)	46.28	8.45	49.80	8.59	45.38	8.46	45.18	8.91
F		5.61** b〉c		8.77*** a〉c		3.79* b〉c		2.07	
모 취업 여부									
취업	(767)	46.82	8.93	50.63	9.25	45.72	8.81	45.41	9.02
미취업	(538)	47.46	8.61	50.86	8.75	46.41	8.86	46.17	8.87
t		-1.30		-0.44		-1.39		-1.51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a]	(271)	45.60	8.03	48.66	8.66	45.29	7.89	44.56	8.84
400~499만원[b]	(236)	46.71	9.21	50.96	8.85	45.28	9.46	45.26	9.07
500~599만원[c]	(273)	46.84	8.79	50.85	9.02	45.83	8.94	45.12	8.32
600~699만원[d]	(177)	47.88	9.22	51.44	9.65	46.53	9.18	46.60	9.13
700만원 이상[e]	(298)	48.31	8.81	52.12	8.94	46.83	8.93	46.75	9.31
F		3.91** e〉a		5.69*** e,d〉a		1.65		2.97*	

주: 1) 아동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 전혀 아니다~5. 매우 그렇다).
3) T점수 기준점: 평균 50, 표준편차 10
* p 〈 .05, ** p 〈 .01, *** p 〈 .001.

마) 신경증

패널아동의 신경증 점수를 T점수로 변환하여 분석한 결과, 아동 성별에 따라서는 남아보다 여아가 신경증, 적대감, 충동성이 높게 나타났다. 아동 출생순위에 따라서는 둘째 이상이 신경증, 불안, 적대감, 우울, 충동성, 사회적 위축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구 소득에 따라서는 적대감, 우울에서 가구 소득이 399만원 이하인 아동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Ⅲ-2-61〉 아동의 성격: 신경증

단위: 점(명)

구분	수	신경증											
		신경증		불안		적대감		우울		충동성		사회적 위축		정서충격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1,346)	47.85	8.63	46.93	8.44	47.08	8.70	48.51	8.44	50.87	9.41	46.93	8.58	46.29	8.32
아동 성별															
남	(685)	47.19	8.64	46.77	8.57	46.42	8.78	48.29	8.40	49.70	9.17	46.93	8.77	46.21	8.40
여	(661)	48.53	8.57	47.10	8.31	47.76	8.57	48.72	8.49	52.07	9.51	46.92	8.38	46.38	8.24
t		−2.86**		−0.72		−2.84**		−0.94		−4.65***		0.02		−0.37	
아동 출생순위															
외동아[a]	(144)	45.99	8.27	45.27	8.28	44.62	8.28	46.82	7.13	50.62	10.01	44.63	8.49	45.39	7.53
첫째[b]	(482)	47.30	8.54	46.62	8.35	47.00	8.70	48.45	8.55	49.49	9.31	46.63	8.83	46.19	8.26
둘째 이상[c]	(719)	48.58	8.68	47.47	8.49	47.63	8.71	48.88	8.59	51.83	9.25	47.58	8.34	46.53	8.51
F		6.98***	c〉a	4.61*	c〉a	7.26***	c,b〉a	3.60*	c〉a	9.02***	c〉b	7.60***	c,b〉a	1.18	
모 취업 여부															
취업	(767)	48.14	8.61	47.12	8.49	47.23	8.83	48.62	8.38	51.35	9.37	46.85	8.69	46.47	8.32
미취업	(538)	47.47	8.74	46.83	8.43	46.85	8.63	48.36	8.57	50.04	9.41	47.12	8.33	46.07	8.33
t		1.37		0.62		0.77		0.53		2.46*		−0.57		0.85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a]	(271)	48.87	8.87	47.52	8.38	48.52	9.08	49.62	8.68	51.12	9.06	47.84	8.54	47.03	8.50
400~499만원[b]	(236)	47.77	8.31	47.21	8.44	46.73	8.42	47.81	8.39	51.29	9.60	46.66	8.35	46.12	7.94
500~599만원[c]	(273)	47.54	8.80	46.69	8.44	46.52	8.82	48.52	8.78	50.68	9.80	46.85	8.55	45.65	8.26
600~699만원[d]	(177)	47.94	8.68	47.31	8.78	46.79	8.88	48.85	8.15	50.64	9.66	46.81	8.74	47.03	8.38
700만원 이상[e]	(298)	46.78	8.29	45.96	8.28	46.18	8.14	47.67	7.83	50.08	9.27	46.01	8.44	45.73	8.23
F		2.18		1.51		3.05*	a〉e	2.42*		0.68		1.66		1.67	

주: 1) 아동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 전혀 아니다~5. 매우 그렇다).
3) T점수 기준점: 평균 50, 표준편차 10
* p 〈 .05, ** p 〈 .01, *** p 〈 .001.

3) 폭력 피해 경험

뺨, 얼굴, 머리 등을 맞은 경험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피해 경험이 있는 경우는 연 1~2회가 전체 아동의 9.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주 1~2회 및 일주일에 여러번이 전체 아동의 2.4%로 나타났다. 아동 성별에 따라서는 피해 경험이 연 1~2회인 경우는 남아(13.9%)가 여아(5.0%)보다 높게 나타났다. 모 취업 여부 및 가구 소득에 따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Ⅲ-2-62〉 집단 괴롭힘 피해 경험(뺨, 얼굴, 머리 등을 맞은 경험)

단위: %(명)

구분	일주일에 여러번	주 1~2회	월 2~3회	월 1회	연 1~2회	없다	계(수)
전체	2.4	2.4	1.5	2.2	9.5	82.0	100.0(1,393)
아동 성별							
남	2.7	3.4	2.1	2.5	13.9	75.5	100.0(713)
여	2.1	1.5	0.9	1.8	5.0	88.8	100.0(680)
$x^2(df)$			46.41(5)***				
아동 출생순위							
외동아	4.1	4.1	2.0	1.4	11.6	76.9	100.0(147)
첫째	1.2	1.6	1.4	2.6	9.1	84.0	100.0(494)
둘째 이상	2.8	2.7	1.5	2.0	9.5	81.6	100.0(750)
$x^2(df)$			11.12(10)				
모 취업 여부							
취업	1.8	2.6	1.4	2.8	9.3	82.1	100.0(795)
미취업	3.3	2.2	1.4	1.1	9.8	82.3	100.0(553)
$x^2(df)$			7.89(5)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1.8	2.8	3.2	2.1	11.9	78.2	100.0(285)
400~499만원	1.7	2.1	0.4	2.1	9.2	84.6	100.0(240)
500~599만원	2.8	2.5	1.4	2.1	10.3	80.9	100.0(282)
600~699만원	2.7	3.3	1.6	4.9	8.2	79.3	100.0(184)
700만원 이상	3.3	2.0	1.0	0.7	7.9	85.1	100.0(303)
$x^2(df)$			24.56(20)				

주: 아동의 응답임.
*** $p < .001$.

따돌림 경험에 대한 조사결과 피해 경험이 있는 경우 연 1~2회가 전체 아동의 3.7%로 가장 많았다. 아동 출생순위, 모 취업 여부, 가구 소득에 따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Ⅲ-2-63〉 집단 괴롭힘 피해 경험(따돌림 경험)

단위: %(명)

구분	일주일에 여러번	주 1~2회	월 2~3회	월 1회	연 1~2회	없다	계(수)
전체	1.6	0.4	0.3	0.4	3.7	93.7	100.0(1,393)
아동 성별							
남	1.5	0.3	0.6	0.7	3.4	93.5	100.0(713)
여	1.6	0.4	0.0	0.0	4.1	93.8	100.0(680)
$x^2(df)$			9.38(5)				

구분	일주일에 여러번	주 1~2회	월 2~3회	월 1회	연 1~2회	없다	계(수)
아동 출생순위							
외동아	2.7	0.0	0.0	0.7	4.8	91.8	100.0(147)
첫째	1.4	0.2	0.6	0.2	4.3	93.3	100.0(494)
둘째 이상	1.5	0.5	0.1	0.4	3.2	94.3	100.0(750)
$x^2(df)$	7.87(10)						
모 취업 여부							
취업	1.1	0.1	0.4	0.4	3.9	94.1	100.0(795)
미취업	2.4	0.7	0.2	0.4	3.6	92.8	100.0(553)
$x^2(df)$	6.66(5)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1.8	1.4	0.7	0.0	5.6	90.5	100.0(285)
400~499만원	0.8	0.0	0.0	0.4	4.6	94.2	100.0(240)
500~599만원	1.8	0.0	0.0	0.7	2.5	95.0	100.0(282)
600~699만원	1.6	0.0	0.0	0.5	3.8	94.0	100.0(184)
700만원 이상	2.0	0.0	0.7	0.0	2.6	94.7	100.0(303)
$x^2(df)$	29.53(20)						

주: 아동의 응답임.
* $p < .05$.

험담, 심한 욕설 등 폭언을 들은 경험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피해 경험이 있는 경우 연 1~2회가 10.7%로 가장 많았다. 아동 성별에 따라서는 남아(11.8%)가 여아(9.6%)보다 피해 경험이 연 1~2회인 경우가 더 많았다. 모 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피해 경험이 연 1~2회인 경우에서 미취업모(13%)가 취업모(9.1%)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가구 소득에 따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Ⅲ-2-64〉 집단 괴롭힘 피해 경험(험담, 심한 욕설 등 폭언을 들은 경험)

단위: %(명)

구분	일주일에 여러번	주 1~2회	월 2~3회	월 1회	연 1~2회	없다	계(수)
전체	2.6	2.9	3.0	3.2	10.7	77.6	100.0(1,393)
아동 성별							
남	3.1	3.9	3.9	4.1	11.8	73.2	100.0(713)
여	2.1	1.8	2.1	2.4	9.6	82.2	100.0(680)
$x^2(df)$	19.52(5)**						
아동 출생순위							
외동아	3.4	2.0	1.4	2.0	16.3	74.8	100.0(147)
첫째	2.2	2.6	3.0	3.6	11.5	76.9	100.0(494)
둘째 이상	2.7	3.2	3.3	3.2	9.1	78.5	100.0(750)
$x^2(df)$	10.66(10)						

구분	일주일에 여러번	주 1~2회	월 2~3회	월 1회	연 1~2회	없다	계(수)
모 취업 여부							
취업	1.9	3.8	3.0	3.5	9.1	78.7	100.0(795)
미취업	3.6	1.8	3.1	2.7	13.0	75.8	100.0(553)
$x^2(df)$	13.85(5)*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3.5	3.5	3.2	3.2	15.4	71.2	100.0(285)
400~499만원	1.3	3.3	1.3	1.7	10.4	82.1	100.0(240)
500~599만원	2.8	2.8	3.9	4.6	7.4	78.4	100.0(282)
600~699만원	2.7	2.2	3.8	3.3	11.4	76.6	100.0(184)
700만원 이상	3.0	1.3	2.0	2.3	8.6	82.8	100.0(303)
$x^2(df)$	28.69(20)						

주: 아동의 응답임.
* $p < .05$, ** $p < .01$.

고의적으로 특툭침, 심부름, 숙제를 해오라는 등의 괴롭힘 경험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피해 경험이 있는 경우 일주일에 여러번이 1.4%로 가장 많았다. 아동 출생순위, 모 취업 여부, 가구 소득에 따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Ⅲ-2-65〉 집단 괴롭힘 피해 경험(고의적으로 툭툭침, 심부름, 숙제를 해오라는 등의 괴롭힘)

단위: %(명)

구분	일주일에 여러번	주 1~2회	월 2~3회	월 1회	연 1~2회	없다	계(수)
전체	1.4	0.1	0.3	0.1	1.3	96.7	100.0(1,393)
아동 성별							
남	1.4	0.1	0.4	0.1	1.7	96.2	100.0(713)
여	1.5	0.1	0.1	0.1	0.9	97.2	100.0(680)
$x^2(df)$	2.68(5)						
아동 출생순위							
외동아	2.7	0.7	0.0	0.0	0.7	95.9	100.0(147)
첫째	1.4	0.2	0.2	0.2	1.8	96.2	100.0(494)
둘째 이상	1.2	0.0	0.4	0.1	1.1	97.2	100.0(750)
$x^2(df)$	9.17(10)						
모 취업 여부							
취업	1.0	0.0	0.3	0.1	0.8	97.9	100.0(795)
미취업	2.2	0.4	0.4	0.2	2.0	94.9	100.0(553)
$x^2(df)$	10.28(5)						

구분	일주일에 여러번	주 1~2회	월 2~3회	월 1회	연 1~2회	없다	계(수)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1.1	0.4	1.1	0.4	2.5	94.7	100.0(285)
400~499만원	0.8	0.0	0.0	0.0	1.7	97.5	100.0(240)
500~599만원	1.8	0.0	0.4	0.0	1.1	96.8	100.0(282)
600~699만원	2.2	0.5	0.0	0.5	0.5	96.2	100.0(184)
700만원 이상	2.0	0.0	0.0	0.0	0.7	97.4	100.0(303)
$x^2(df)$			22.26(20)				

주: 아동의 응답임.

돈이나 물건을 빼앗긴 경험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피해 경험이 있는 경우는 연 1~2회가 1.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일주일에 여러번이 1.3%로 그 뒤를 이었다. 아동 성별, 아동 출생순위, 모 취업 여부, 가구 소득에 따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Ⅲ-2-66〉 집단 괴롭힘 피해 경험(돈이나 물건을 빼앗긴 경험)

단위: %(명)

구분	일주일에 여러번	주 1~2회	월 2~3회	월 1회	연 1~2회	없다	계(수)
전체	1.3	0.1	0.2	0.3	1.6	96.5	100.0(1,393)
아동 성별							
남	1.3	0.1	0.3	0.4	2.2	95.7	100.0(713)
여	1.3	0.1	0.1	0.1	0.9	97.4	100.0(680)
$x^2(df)$			5.40(5)				
아동 출생순위							
외동아	2.7	0.0	0.7	0.7	0.7	95.2	100.0(147)
첫째	1.2	0.2	0.2	0.4	1.8	96.2	100.0(494)
둘째 이상	1.1	0.1	0.1	0.1	1.6	96.9	100.0(750)
$x^2(df)$			7.31(10)				
모 취업 여부							
취업	0.8	0.3	0.4	0.1	1.6	96.9	100.0(795)
미취업	2.2	0.0	0.0	0.4	1.1	96.4	100.0(553)
$x^2(df)$			9.89(5)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1.1	0.0	0.4	1.1	2.1	95.4	100.0(285)
400~499만원	0.8	0.4	0.0	0.0	0.8	97.9	100.0(240)
500~599만원	1.4	0.4	0.0	0.0	2.1	96.1	100.0(282)
600~699만원	1.6	0.0	0.5	0.5	1.1	96.2	100.0(184)
700만원 이상	2.0	0.0	0.3	0.0	1.0	96.7	100.0(303)
$x^2(df)$			17.88(20)				

주: 아동의 응답임.

협박이나 위협을 당한 경험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피해 경험이 있는 경우 일주일에 여러번이 1.3%로 가장 많았고 연 1~2회가 1.1%로 그 뒤를 이었다. 모 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일주일에 여러번인 경우에서 미취업모(2.2%)가 취업모(0.8%)보다 높았고, 연 1~2회인 경우에서도 미취업모(1.6%)가 취업모(0.6%)보다 높게 나타났다. 아동 성별과 가구 소득에 따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Ⅲ-2-67〉 집단 괴롭힘 피해 경험(협박이나 위협을 당한 경험)

단위: %(명)

구분	일주일에 여러번	주 1~2회	월 2~3회	월 1회	연 1~2회	없다	계(수)
전체	1.3	0.1	0.1	0.3	1.1	97.1	100.0(1,393)
아동 성별							
남	1.3	0.1	0.3	0.4	1.5	96.4	100.0(713)
여	1.3	0.0	0.0	0.1	0.6	97.9	100.0(680)
$\chi^2(df)$			6.82(5)				
아동 출생순위							
외동아	2.7	0.0	0.0	0.0	0.7	96.6	100.0(147)
첫째	1.2	0.0	0.0	0.2	1.2	97.4	100.0(494)
둘째 이상	1.1	0.1	0.3	0.4	1.1	97.1	100.0(750)
$\chi^2(df)$			6.39(10)				
모 취업 여부							
취업	0.8	0.1	0.0	0.5	0.6	98.0	100.0(795)
미취업	2.2	0.0	0.4	0.0	1.6	95.8	100.0(553)
$\chi^2(df)$			14.53(5)*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1.1	0.0	0.7	0.0	2.1	96.1	100.0(285)
400~499만원	0.8	0.0	0.0	0.0	0.8	98.3	100.0(240)
500~599만원	1.4	0.4	0.0	0.7	1.1	96.5	100.0(282)
600~699만원	1.6	0.0	0.0	1.1	0.5	96.7	100.0(184)
700만원 이상	2.0	0.0	0.0	0.0	1.0	97.0	100.0(303)
$\chi^2(df)$			23.09(20)				

주: 아동의 응답임.
* $p < .05$.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말이나 행동을 당한 경험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피해 경험이 있는 경우 연 1~2회가 3.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일주일에 여러번이 1.5%로 그 뒤를 이었다. 아동 성별, 아동 출생순위, 모 취업 여부, 가구 소득에 따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Ⅲ-2-68〉 집단 괴롭힘 피해 경험(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말이나 행동을 당한 경험)

단위: %(명)

구분	일주일에 여러번	주 1~2회	월 2~3회	월 1회	연 1~2회	없다	계(수)
전체	1.5	0.4	0.2	0.4	3.9	93.5	100.0(1,393)
아동 성별							
남	1.5	0.7	0.1	0.7	4.2	92.7	100.0(713)
여	1.5	0.1	0.3	0.1	3.7	94.3	100.0(680)
$\chi^2(df)$			5.70(5)				
아동 출생순위							
외동아	2.7	0.7	0.0	0.0	6.1	90.5	100.0(147)
첫째	1.4	0.4	0.2	0.8	4.3	92.9	100.0(494)
둘째 이상	1.3	0.4	0.3	0.3	3.3	94.4	100.0(750)
$\chi^2(df)$			7.82(10)				
모 취업 여부							
취업	1.1	0.5	0.3	0.4	3.5	94.2	100.0(795)
미취업	2.2	0.4	0.0	0.5	4.3	92.6	100.0(553)
$\chi^2(df)$			4.65(5)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1.4	0.7	0.7	1.1	7.0	89.1	100.0(285)
400~499만원	0.8	0.4	0.0	0.4	3.8	94.6	100.0(240)
500~599만원	1.8	0.7	0.0	0.4	3.5	93.6	100.0(282)
600~699만원	1.6	0.5	0.0	0.0	1.6	96.2	100.0(184)
700만원 이상	2.0	0.0	0.3	0.3	3.0	94.4	100.0(303)
$\chi^2(df)$			22.09(20)				

주: 아동의 응답임.

욕설 등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피해 경험이 있는 경우 지난 6개월간 1~2회가 5.9%로 가장 많았다. 아동 성별, 아동 출생순위, 모 취업 여부, 가구 소득에 따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Ⅲ-2-69〉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욕설 등)

단위: %(명)

구분	전혀 없음	지난 6개월간 1~2회	월 1~2회	주 1~2회	거의 매일	계(수)
전체	91.7	5.9	0.7	0.8	0.9	100.0(1,393)
아동 성별						
남	91.4	5.8	0.7	1.3	0.8	100.0(713)
여	92.1	6.0	0.7	0.3	0.9	100.0(680)
$\chi^2(df)$			4.20(4)			

구분	전혀 없음	지난 6개월간 1~2회	월 1~2회	주 1~2회	거의 매일	계(수)
아동 출생순위						
외동아	92.5	6.1	0.7	0.0	0.7	100.0(147)
첫째	91.7	4.9	1.4	1.0	1.0	100.0(494)
둘째 이상	91.7	6.4	0.3	0.8	0.8	100.0(750)
$x^2(df)$			8.42(8)			
모 취업 여부						
취업	91.8	5.5	1.0	1.0	0.6	100.0(795)
미취업	91.7	6.3	0.2	0.5	1.3	100.0(553)
$x^2(df)$			6.03(4)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92.6	5.3	0.7	0.7	0.7	100.0(285)
400~499만원	94.2	3.8	0.4	1.3	0.4	100.0(240)
500~599만원	91.1	7.4	0.7	0.4	0.4	100.0(282)
600~699만원	89.7	6.0	0.5	1.6	2.2	100.0(184)
700만원 이상	91.1	6.9	0.7	0.0	1.3	100.0(303)
$x^2(df)$			15.64(16)			

주: 아동의 응답임.

채팅방 따돌림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피해 경험이 있는 경우 지난 6개월간 1~2회인 경우가 1.5%로 가장 많았고, 거의 매일인 경우도 0.9%로 그 뒤를 이었다. 아동 성별, 아동 출생순위, 모 취업 여부, 가구 소득에 따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Ⅲ-2-70〉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채팅방 따돌림)

단위: %(명)

구분	전혀 없음	지난 6개월간 1~2회	월 1~2회	주 1~2회	거의 매일	계(수)
전체	97.0	1.5	0.2	0.4	0.9	100.0(1,393)
아동 성별						
남	96.6	1.4	0.4	0.7	0.8	100.0(713)
여	97.4	1.6	0.0	0.0	1.0	100.0(680)
$x^2(df)$			7.89(4)			
아동 출생순위						
외동아	99.3	0.0	0.0	0.0	0.7	100.0(147)
첫째	96.0	2.0	0.2	0.8	1.0	100.0(494)
둘째 이상	97.3	1.3	0.3	0.1	0.9	100.0(750)
$x^2(df)$			8.42(8)			

구분	전혀 없음	지난 6개월간 1~2회	월 1~2회	주 1~2회	거의 매일	계(수)
모 취업 여부						
취업	96.5	2.0	0.4	0.4	0.8	100.0(795)
미취업	97.6	0.9	0.0	0.2	1.3	100.0(553)
$x^2(df)$			6.01(4)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96.5	1.4	0.4	1.1	0.7	100.0(285)
400~499만원	97.5	1.7	0.0	0.4	0.4	100.0(240)
500~599만원	97.5	1.4	0.4	0.0	0.7	100.0(282)
600~699만원	94.0	3.3	0.5	0.5	1.6	100.0(184)
700만원 이상	97.4	1.0	0.0	0.0	1.7	100.0(303)
$x^2(df)$			15.49(16)			

주: 아동의 응답임.

4) 사회성과 적응

아동의 또래관계를 알아보는 척도 중 하나인 친구 수의 조사결과, 평균 18.15명이었으며, 친구 중 남자친구는 10.3명, 여자친구는 7.85명이었다. 한편 친구 수는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있었는데, 총 친구 수는 남아 19.19명, 여아 17.06명으로 남아가 조금 더 많았다. 또한 남아의 경우 남자친구가 14.7명으로 여아(5.68명)에 비해 많고, 여아의 경우 여자친구가 11.38명으로 남아(4.49명)에 비해 많아서 남아와 여아 모두 이성의 친구보다는 동성친구가 더 많음을 알 수 있었다.

〈표 Ⅲ-2-71〉 아동의 친구 수

단위: 명

구분	(수)	남자친구		여자친구		총 친구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1,393)	10.30	12.10	7.85	9.13	18.15	17.50
아동 성별							
남	(713)	14.70	13.99	4.49	7.63	19.19	19.23
여	(680)	5.68	7.28	11.38	9.24	17.06	15.42
t		15.19***		-15.15***		2.28*	
아동 출생순위							
외동아[a]	(147)	10.87	11.43	7.21	7.53	18.08	14.48
첫째[b]	(494)	9.83	11.90	7.59	9.27	17.42	17.84
둘째 이상[c]	(750)	10.51	12.36	8.16	9.33	18.68	17.83
F		0.65		1.00		0.77	

구분	(수)	남자친구		여자친구		총 친구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모 취업 여부							
취업	(795)	10.14	11.69	7.92	8.85	18.06	16.90
미취업	(553)	10.75	12.98	7.92	9.74	18.67	18.81
t		-0.89		0.00		-0.62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a]	(285)	9.75	12.40	7.22	10.15	16.96	19.82
400~499만원[b]	(240)	11.81	13.58	8.22	8.40	20.03	17.11
500~599만원[c]	(282)	9.68	10.16	7.79	9.43	17.47	16.71
600~699만원[d]	(184)	11.12	11.81	7.79	8.99	18.91	16.45
700만원 이상[e]	(303)	9.76	12.79	8.03	8.08	17.79	16.83
F		1.60		0.47		1.24	

주: 1) 친구 수 중 0명으로 응답한 경우는, 남자 0.42%, 여자 0.14%, 총 0.28%임.
2) 아동의 응답임.
* $p < .05$, *** $p < .001$.

이성친구가 있다는 응답은 7.5%이었다. 11차년도 조사(김은설 외, 2019: 150)에서는 이성친구가 있다는 응답이 12.2%이었던 결과와 비교하면 낮아진 수준이다. 한편 남아들은 9.4%가 이성친구가 있다고 응답하여서 여아(5.6%)보다 더 많았다. 그 외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약간의 응답 차이가 있었으나, 아동의 출생순위, 모 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Ⅲ-2-72〉 이성친구

단위: %(명)

구분	있음	없음	계(수)
전체	7.5	92.5	100.0(1,393)
아동 성별			
남	9.4	90.6	100.0(713)
여	5.6	94.4	100.0(680)
$x^2(df)$	7.24(1)**		
아동 출생순위			
외동아	5.4	94.6	100.0(147)
첫째	7.5	92.5	100.0(494)
둘째 이상	8.0	92.0	100.0(750)
$x^2(df)$	1.16(2)		
모 취업 여부			
취업	8.2	91.8	100.0(795)
미취업	6.5	93.5	100.0(553)
$x^2(df)$	1.31(1)		

구분	있음	없음	계(수)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7.7	92.3	100.0(285)
400~499만원	11.3	88.8	100.0(240)
500~599만원	8.5	91.5	100.0(282)
600~699만원	7.6	92.4	100.0(184)
700만원 이상	4.0	96.0	100.0(303)
$x^2(df)$	10.54(4)*		

주: 아동의 응답임.
* $p < .05$, ** $p < .01$.

아동의 학교적응에 대해 12차년도 조사부터 아동이 직접 응답하도록 하였다. 학교적응은 학습활동, 학교규칙, 교우관계, 교사관계의 4개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모두 4점 척도에서 3점 이상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다. 교우관계는 평균 3.2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학교규칙 3.21점, 교사관계 3.17점, 학습활동 3.11점으로 나타났다.

학교규칙과 교우관계 수준은 남아보다 여아가 높았으며, 학습활동, 학교규칙, 교사관계는 아동의 출생순위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 외동아 혹은 첫째가 다소 높은 수준이었다. 학습활동에 대한 적응 수준은 미취업모 가구에서 취업모 가구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가구소득이 비교적 높은 집단의 경우 소득이 낮은 집단보다 학습활동과 교우관계 수준이 높았다.

〈표 Ⅲ-2-73〉 아동의 학교적응

단위: 점(명)

구분	(수)	학습활동		학교규칙		교우관계		교사관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1,393)	3.11	0.47	3.21	0.45	3.25	0.43	3.17	0.60
아동 성별									
남	(713)	3.10	0.48	3.16	0.47	3.22	0.44	3.16	0.59
여	(680)	3.13	0.46	3.26	0.43	3.29	0.41	3.19	0.61
t		−1.44		−3.99***		−2.89**		−0.90	
아동 출생순위									
외동아[a]	(147)	3.21	0.45	3.20	0.49	3.29	0.41	3.22	0.62
첫째[b]	(494)	3.16	0.47	3.26	0.45	3.25	0.44	3.22	0.59
둘째 이상[c]	(750)	3.07	0.47	3.17	0.45	3.25	0.42	3.13	0.60
F		9.09*** a>c		5.93** b>c		0.78		3.78* b>c	

구분	(수)	학습활동		학교규칙		교우관계		교사관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모 취업 여부									
취업	(795)	3.09	0.47	3.20	0.44	3.25	0.42	3.18	0.60
미취업	(553)	3.16	0.46	3.23	0.47	3.26	0.43	3.18	0.62
t		−2.53*		−1.02		−0.41		0.05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a]	(285)	3.02	0.46	3.18	0.45	3.16	0.43	3.18	0.55
400~499만원[b]	(240)	3.14	0.44	3.23	0.44	3.29	0.42	3.19	0.62
500~599만원[c]	(282)	3.11	0.46	3.21	0.44	3.26	0.42	3.19	0.58
600~699만원[d]	(184)	3.11	0.52	3.18	0.49	3.27	0.44	3.11	0.66
700만원 이상[e]	(303)	3.21	0.45	3.26	0.45	3.30	0.40	3.22	0.58
F		6.33*** e〉a		1.70		4.92*** e,b〉a		1.02	

주: 1) 아동의 응답임.
2) 4점 척도임(1. 전혀 그렇지 않다~ 4. 매우 그렇다).
* p 〈 .05, ** p 〈 .01, *** p 〈 .001.

사회성과 학업수행으로 구성된 적응 척도의 결과를 살펴보면, 보호자가 응답한 적응은 50.15점, 사회성은 49.48점, 학업수행은 52.47점이었다. 취업모 가구 아동의 적응은 51.08점, 사회성은 50.31점으로 미취업모 가구의 아동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가구소득이 600~699만원인 아동의 학업수행은 53.93점으로 비교적 소득이 낮은 집단의 아동보다 학업수행을 더 잘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표 Ⅲ-2-74〉 아동의 적응 및 사회성, 학업수행: 보호자 응답

단위: 점(명)

구분	(수)	적응		사회성		학업수행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1,225)	50.15	16.15	49.48	15.47	52.47	9.05
아동 성별							
남	(633)	50.86	16.45	50.30	15.37	52.94	9.99
여	(592)	49.38	15.81	48.61	15.55	51.97	7.90
t		1.61		1.91		1.88	
아동 출생순위							
외동아[a]	(134)	51.85	15.41	50.54	14.61	53.78	8.35
첫째[b]	(430)	49.85	16.10	48.83	15.22	52.74	9.91
둘째 이상[c]	(660)	50.01	16.34	49.70	15.82	52.05	8.55
F		0.84		0.77		2.31	

구분	(수)	적응		사회성		학업수행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모 취업 여부							
취업	(700)	51.08	15.17	50.31	14.67	52.69	8.32
미취업	(485)	48.83	17.56	48.21	16.60	52.34	10.13
t		2.29*		2.24*		0.63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a]	(260)	49.23	15.61	48.96	15.34	51.19	8.78
400~499만원[b]	(219)	49.77	15.96	49.51	15.38	51.80	9.67
500~599만원[c]	(257)	50.11	15.97	49.53	15.21	52.76	8.75
600~699만원[d]	(158)	52.11	13.77	50.33	13.77	53.93	6.59
700만원 이상[e]	(264)	51.01	17.28	49.95	16.40	53.69	8.17
F		1.01		0.24		4.29** d>a	

주: 1) 적응: 사회성과 학업수행의 총점을 의미하며, T점수가 36점 이하면 임상, 40점 이하면 준임상 수준임.
2) 사회성, 학업수행: T점수가 30점 이하면 임상, 35점 이하면 준임상 수준임.
* $p < .05$, ** $p < .01$.

교사가 응답하는 적응척도는 학업 수행에 해당하는 성적 척도와 학교적응, 성실, 행동 적절성, 학습, 밝은 정서 척도로 구성된다. 먼저, 성적은 53.71점, 학교적응은 56.71점, 성실은 54.43점이었다. 남아의 학교적응 점수는 57.54점으로 여아(55.75점)보다 높았으며, 성적에 대한 평가는 가구소득이 700만원 이상인 경우 55.57점으로 399만원 이하인 집단(52.43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Ⅲ-2-75〉 아동의 적응 및 사회성, 학업수행: 교사 응답(Ⅰ)

단위: 점(명)

구분	(수)	성적		학교적응		성실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590)	53.71	8.03	56.71	8.49	54.43	7.86
아동 성별							
남	(315)	53.95	8.32	57.54	9.08	54.91	8.54
여	(275)	53.43	7.69	55.75	7.65	53.88	6.97
t		0.79		2.59**		1.61	
아동 출생순위							
외동아[a]	(53)	54.08	7.83	57.04	8.89	54.42	8.33
첫째[b]	(214)	54.43	7.80	57.00	8.08	55.22	7.36
둘째 이상[c]	(323)	53.16	8.19	56.46	8.70	53.91	8.08
F		1.69		0.30		1.79	
모 취업 여부							
취업	(342)	53.62	7.86	56.64	8.42	54.20	7.96
미취업	(227)	54.09	8.06	57.13	8.38	55.04	7.42
t		-0.68		-0.68		-1.28	

구분	(수)	성적		학교적응		성실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a]	(129)	52.43	8.91	55.45	8.92	53.60	8.14
400~499만원[b]	(112)	52.56	8.24	56.56	8.00	54.26	7.70
500~599만원[c]	(133)	53.77	7.73	56.92	8.16	54.20	7.62
600~699만원[d]	(73)	54.27	7.35	57.21	8.59	54.66	7.74
700만원 이상[e]	(115)	55.57	6.97	57.36	8.75	55.29	7.95
F		3.11* e>a		0.96		0.75	

주: 1) T점수가 36점 이하면 임상, 40점 이하면 준임상 수준임.
2) 학교적응은 성실, 행동적절성, 학습, 밝은 정서의 총점을 의미함.
* $p < .05$, ** $p < .01$.

교사가 응답한 아동의 행동 적절성은 55.76점, 학습은 54.47점, 밝은 정서는 56.65점이었다. 남아의 학습 점수는 55.38점, 밝은 정서 점수는 57.64점으로 여아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그 외 출생순위, 모 취업 여부,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Ⅲ-2-76〉 아동의 적응 및 사회성, 학업수행: 교사 응답(Ⅱ)

단위: 점(명)

구분	(수)	행동 적절성		학습		밝은 정서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590)	55.76	7.25	54.47	7.44	56.65	7.84
아동 성별							
남	(315)	56.29	7.83	55.38	8.14	57.64	8.01
여	(275)	55.16	6.49	53.43	6.41	55.51	7.49
t		1.89		3.25**		3.33***	
아동 출생순위							
외동아[a]	(53)	55.25	7.78	54.94	7.90	57.55	8.12
첫째[b]	(214)	56.03	6.99	55.23	6.87	55.79	7.95
둘째 이상[c]	(323)	55.67	7.35	53.89	7.70	57.07	7.69
F		0.30		2.19		2.10	
모 취업 여부							
취업	(342)	55.73	7.13	54.32	7.40	56.86	7.79
미취업	(227)	56.03	7.25	54.96	7.24	56.64	7.78
t		-0.49		-1.03		0.32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a]	(129)	55.06	8.04	53.29	8.12	55.29	8.01
400~499만원[b]	(112)	55.64	6.73	54.20	7.48	57.24	8.13
500~599만원[c]	(133)	56.35	6.75	54.44	7.16	56.97	7.10
600~699만원[d]	(73)	55.73	7.29	55.36	7.19	57.19	7.75
700만원 이상[e]	(115)	55.69	7.45	55.21	7.11	56.74	8.05
F		0.51		1.37		1.29	

주: T점수가 36점 이하면 임상, 40점 이하면 준임상 수준임.
** $p < .01$, *** $p < .001$.

5) 문제 행동

다음으로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CBCL)를 이용한 보호자와 교사의 응답을 통해 증후군 척도, DSM 척도, 특수척도에 따른 문제행동과 사회성 및 학업수행을 포함한 적응 수준을 알아보았으며, 각각의 문제행동 및 적응 점수를 T점수로 변환하여 분석하였다. 문제행동은 내재화 문제행동, 외현화 문제행동, 총 문제행동으로 구분하여 점수를 산출하고 있는데, 내재화 문제는 소극적이고 위축된 행동과 같이 지나치게 통제된 행동 문제로 겉으로 드러내기보다는 안으로 들어가 있어 '내면화되고 과잉 통제된 문제'를 의미한다(아동패널 도구 프로파일 참고. https://kicce.re.kr/panel/). 외현화 문제행동은 통제가 부족한 행동 문제로, 통제가 부족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행동들 즉, 외현화되고 과소 통제된 문제를 뜻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증후군 척도에 의해 심한 정도에 따라 임상군, 준임상군, 정상군으로 구분하여 판단되고, 또 다른 척도인 DSM(정신병의 진단과 표준편람: Diagnostic & Standard Manual of Mental Disorders)진단 기준에 따라 정서문제, 불안문제, 신체화문제, 주의력결핍-과잉행동문제(ADHD), 반항행동문제, 품행문제 등 6개의 하위 영역 점수로도 산출되고 있다. 또 특수척도에 의해서도 강박증, 외상후스트레스, 인지속도부진이 측정된다.

2019년 문제행동 측정은 부모가 자녀의 행동을 평가하는 행동평가척도(CBCL-보호자용)과 아동의 담임교사가 동일한 내용을 측정한 행동평가척도(TRF) 두 가지를 모두 사용하여 이루어졌으므로, 본 보고서에서는 동일 항목에 대해 두 가지 점수를 모두 분석하여 실었다.

가) 증후군 척도에 따른 문제행동 분석

증후군 척도에 따른 문제행동 점수의 분포를 먼저 살펴보면, 우선 부모(보호자)의 응답에 따라, 전반적 문제행동에서 정상군에 속하는 비율이 92.3% 정도(남아 91.5%, 여아 93.3%)로 나타나고 있고 임상군에 속하는 병리적 문제에 해당할 만큼의 문제행동을 가진 비율이 거의 3%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내재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으로 구분해 보면 임상군에 속하는 비율이 더 높아지고 있고 특히 남아가 여아보다 내재화 문제행동에서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교사의 평가를 분석해보면, 부모의 응답과 조금 차이가 있는데, 동일 패널아동에 대해 부모보다 교사가 문제행동의 심각성을 더 크게 인식하고 있어 임상

군에 속하는 비율이 부모응답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담임교사는 오히려 여자 아동에 대해서는 부모보다 문제행동 정도를 낮게 평가하여 남녀 아동 성별에 따라 부모와 교사가 차이나는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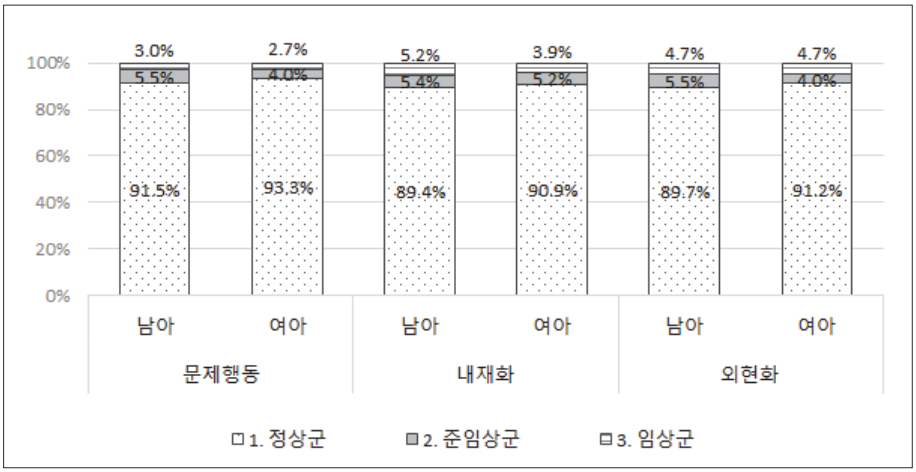
〈표 Ⅲ-2-77〉 증후군 척도에 따른 아동의 문제행동 정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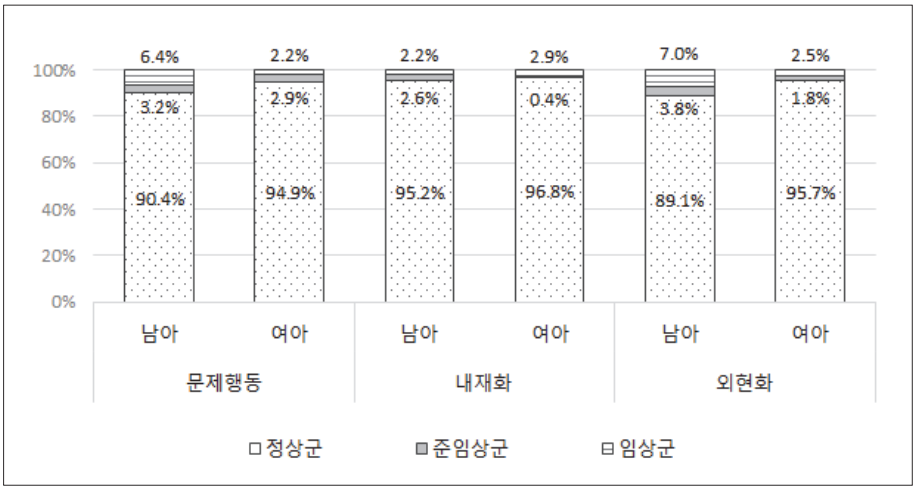
영역	구분	부모의 증후군 평가(CBCL)				교사의 증후군 평가(TRF)			
		정상군	준임상군	임상군	계	정상군	준임상군	임상군	계
총 문제행동	전체	92.3	4.8	2.9	100.0	92.5	3.1	4.4	100.0
	남	91.5	5.5	3.0	100.0	90.4	3.2	6.4	100.0
	여	93.3	4.0	2.7	100.0	94.9	2.9	2.2	100.0
내재화 문제행동	전체	90.1	5.3	4.6	100.0	95.9	1.5	2.5	100.0
	남	89.4	5.4	5.2	100.0	95.2	2.6	2.2	100.0
	여	90.9	5.2	3.9	100.0	96.8	0.4	2.9	100.0
외현화 문제행동	전체	90.5	4.8	4.7	100.0	92.2	2.9	4.9	100.0
	남	89.7	5.5	4.7	100.0	89.1	3.8	7.0	100.0
	여	91.2	4.0	4.7	100.0	95.7	1.8	2.5	100.0

다음의 [그림 Ⅲ-2-1]과 [그림 Ⅲ-2-2]에서는 증후군 척도에 따른 아동의 문제행동 정도를 그래프로 제시하여 한 눈에 남아-여아 간 결과 비교를 가능하도록 하였다. 가장 특이점으로, 부모는 남아의 내재화 문제행동에 대해 가장 높은 임상군 분류 비율을 보인데 비해, 교사는 남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대해 가장 많은 임상군을 평가함을 들 수 있다.

[그림 Ⅲ-2-1] 아동의 문제행동 측정(CBCL-보호자용 분석 결과)



[그림 Ⅲ-2-2] 아동의 문제행동 측정(TRF-교사용 분석 결과)



구체적인 점수로 보면, 보호자가 응답한 문제행동 총점은 46.68점, 내재화 문제행동은 47.78점, 외현화 문제행동은 47.89점이었다. 아동의 성별과 출생순위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문제행동 총점과 내재화 문제행동에서 남아가 여아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출생순위가 첫째인 아동은 둘째 이상인 아동에 비해 내재화, 외현화 문제행동 수준이 더 높았다. 또한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소득이 높은 집단의 경우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집단에 비해 문제행동 점수가 다소 낮게 나타났다.

〈표 Ⅲ-2-78〉 문제행동 점수: 보호자 응답

단위: 점(명)

구분	(수)	문제행동 총점		내재화		외현화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1,225)	46.68	9.98	47.78	8.92	47.89	9.08
아동 성별							
남	(633)	47.38	10.08	48.30	9.12	48.32	9.32
여	(592)	45.94	9.82	47.23	8.68	47.42	8.79
t		2.53*		2.11*		1.73	
아동 출생순위							
외동아[a]	(134)	47.66	10.01	47.97	8.25	48.27	8.97
첫째[b]	(430)	47.69	9.79	49.07	9.34	48.99	8.67
둘째 이상[c]	(660)	45.83	10.03	46.93	8.68	47.11	9.29
F		5.28** b〉c		7.61*** b〉c		5.77** b〉c	

구분	(수)	문제행동 총점		내재화		외현화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모 취업 여부							
취업	(700)	46.51	9.91	47.50	8.84	47.96	9.20
미취업	(485)	47.20	10.11	48.42	9.14	47.99	8.97
t		-1.16		-1.73		-0.06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a]	(260)	47.94	10.17	48.97	9.24	49.00	9.20
400~499만원[b]	(219)	47.02	10.35	47.97	8.72	47.74	9.31
500~599만원[c]	(257)	46.71	10.05	47.71	9.07	47.89	9.26
600~699만원[d]	(158)	46.26	10.00	47.58	9.60	47.75	9.01
700만원 이상[e]	(264)	44.94	9.50	46.44	8.17	46.58	8.65
F		3.12* a>e		2.70* a>e		2.34	

주: T점수가 64점 이상이면 임상, 60점 이상이면 준임상 수준임.
* $p < .05$, ** $p < .01$, *** $p < .001$.

교사가 응답한 문제행동 총점은 44.90점이며, 내재화 문제행동 45.73점, 외현화 문제행동 46.24점이었다. 보호자 응답 결과와 유사하게 문제행동 총점과 내재화 문제행동 수준이 남아가 여아보다 높게 나타났다. 외현화 문제행동은 모 취업 여부에 따라서, 그리고 내재화 문제행동은 가구소득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보고되었다.

〈표 Ⅲ-2-79〉 문제행동 점수: 교사 응답

단위: 점(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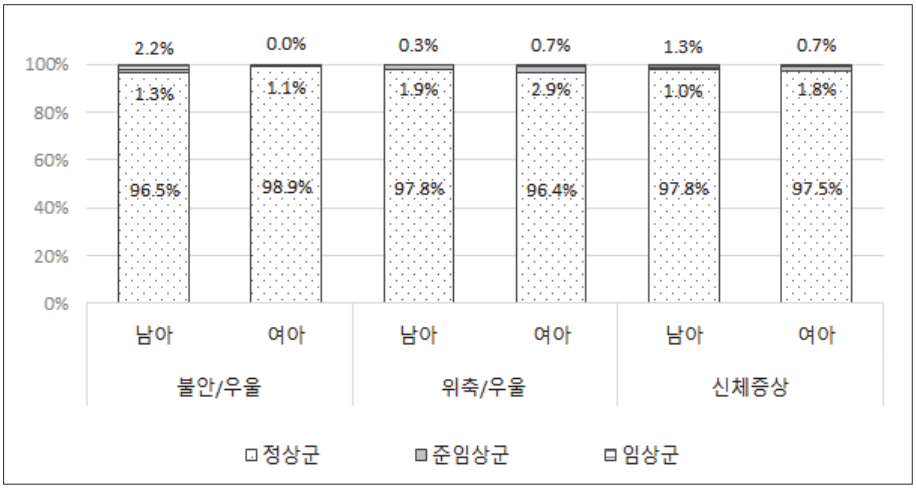
구분	(수)	문제행동 총점		내재화		외현화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590)	44.90	9.32	45.73	8.03	46.24	7.92
아동 성별							
남	(315)	45.90	10.17	46.56	8.95	46.79	9.02
여	(275)	43.75	8.11	44.78	6.71	45.61	6.41
t		2.86**		2.75**		1.84	
아동 출생순위							
외동아[a]	(53)	47.17	9.46	46.98	8.55	48.47	8.06
첫째[b]	(214)	44.42	8.31	46.10	7.99	45.71	7.22
둘째 이상[c]	(323)	44.85	9.89	45.28	7.96	46.23	8.29
F		1.87		1.39		2.60	
모 취업 여부							
취업	(342)	45.39	9.66	45.98	8.91	46.80	8.02
미취업	(227)	43.99	8.39	45.08	6.28	45.28	7.45
t		1.78		1.41		2.27*	

구분	(수)	문제행동 총점		내재화		외현화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a]	(129)	46.02	10.02	47.61	9.76	46.47	8.13
400~499만원[b]	(112)	44.08	8.93	44.54	7.23	46.11	7.55
500~599만원[c]	(133)	44.68	9.34	45.32	8.10	45.42	7.41
600~699만원[d]	(73)	45.40	8.91	45.49	7.55	46.96	8.30
700만원 이상[e]	(115)	44.17	8.76	45.30	6.58	46.23	7.84
F		0.94		2.58*		0.54	

주: T점수가 64점 이상이면 임상, 60점 이상이면 준임상 수준임.
* $p < .05$, ** $p < .01$.

내재화 문제행동에 해당하는 불안/우울, 위축/우울, 신체증상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보면, (교사 응답을 기준으로) 불안/우울에서 임상군 남아의 비율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Ⅲ-2-3] 아동의 내재화 문제행동 (TRF-교사용 분석)



구체적은 점수 분포를 보면, 보호자 응답에서 불안/우울은 52.52점, 위축/우울은 53.13점, 신체증상은 53.10점으로 보고되었다. 불안/우울의 경우 남아(52.90점)가 여아(52.12점)보다 높은 수준이었으며, 내재화 문제행동 전반적으로 출생순위가 첫째인 아동이 다른 아동들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표 Ⅲ-2-80〉 내재화 문제행동: 보호자 응답

단위: 점(명)

구분	(수)	불안/우울		위축/우울		신체증상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1,225)	52.52	4.84	53.13	5.21	53.10	5.24
아동 성별							
남	(633)	52.90	5.36	53.19	5.58	53.24	5.51
여	(592)	52.12	4.19	53.07	4.77	52.95	4.94
t		2.86**		0.40		0.97	
아동 출생순위							
외동아[a]	(134)	52.40	4.19	53.23	4.83	52.83	4.93
첫째[b]	(430)	53.04	5.15	53.95	5.76	53.60	5.55
둘째 이상[c]	(660)	52.22	4.74	52.58	4.83	52.83	5.08
F		3.79* b〉c		9.19*** b〉c		3.05*	
모 취업 여부							
취업	(700)	52.38	4.71	53.05	4.94	53.00	5.13
미취업	(485)	52.85	5.14	53.28	5.67	53.41	5.51
t		-1.62		-0.72		-1.31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a]	(260)	52.80	4.89	53.81	5.64	53.57	5.44
400~499만원[b]	(219)	52.70	4.94	52.99	4.77	53.02	4.77
500~599만원[c]	(257)	52.71	5.53	53.13	5.42	53.05	5.57
600~699만원[d]	(158)	52.31	4.80	52.97	5.56	53.46	5.84
700만원 이상[e]	(264)	52.06	4.12	52.55	4.46	52.41	4.59
F		1.06		2.05		1.89	

주: T점수가 70점 이상이면 임상, 65점 이상이면 준임상 수준임.
* $p < .05$, ** $p < .01$, *** $p < .001$.

아동의 내재화 문제행동에 대한 교사 응답에서는 불안/우울 51.47점, 위축/우울 51.89점, 신체증상 51.04점이었다. 보호자 응답과 유사하게 불안/우울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 남아(51.84점)가 여아(51.04점)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그 외 아동의 출생순위나 모 취업여부,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표 Ⅲ-2-81〉 내재화 문제행동: 교사 응답

단위: 점(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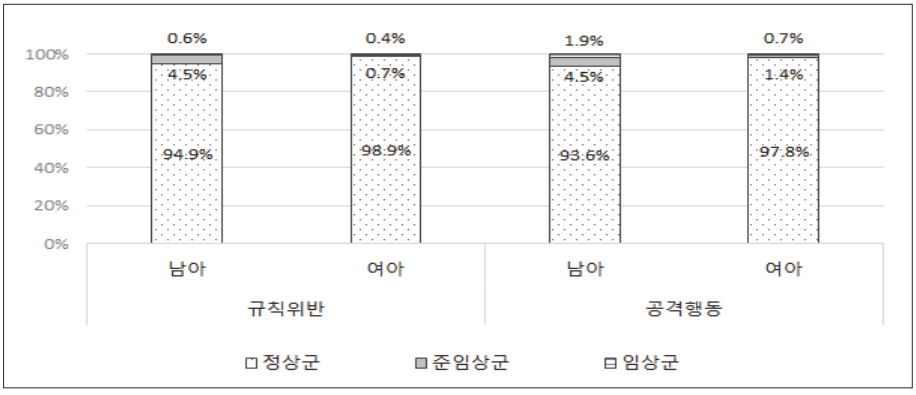
구분	(수)	불안/우울		위축/우울		신체증상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590)	51.47	4.00	51.89	4.02	51.04	3.88
아동 성별							
남	(315)	51.84	4.68	51.98	3.88	51.21	4.21
여	(275)	51.04	2.99	51.78	4.17	50.83	3.45
t		2.50*		0.62		1.20	

구분	(수)	불안/우울		위축/우울		신체증상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아동 출생순위							
외동아[a]	(53)	51.60	4.14	52.25	4.92	51.70	5.16
첫째[b]	(214)	51.63	4.03	52.13	4.17	50.71	2.99
둘째 이상[c]	(323)	51.33	3.96	51.67	3.75	51.14	4.14
F		0.39		1.05		1.63	
모 취업 여부							
취업	(342)	51.63	4.59	51.92	4.14	51.19	4.18
미취업	(227)	51.11	2.76	51.67	3.63	50.67	2.88
t		1.68		0.75		1.76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a]	(129)	52.22	5.41	52.60	4.40	51.77	4.92
400~499만원[b]	(112)	50.99	3.35	51.56	4.09	50.64	2.54
500~599만원[c]	(133)	51.23	3.72	51.65	3.61	50.86	4.02
600~699만원[d]	(73)	51.51	3.25	51.60	3.49	50.79	3.39
700만원 이상[e]	(115)	51.23	3.30	51.71	3.61	50.93	3.82
F		1.80		1.55		1.58	

주: T점수가 70점 이상이면 임상, 65점 이상이면 준임상 수준임.
* $p < .05$.

외현화 문제행동에 해당하는 규칙위반, 공격행동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교사 응답을 기준으로, 공격행동에서 특히 남아가 여아보다 임상군에 속하는 비율이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임상군보다 정도가 덜한 준임상군 비율까지 합하면 남아의 경우는 6.4%가 공격 문제행동을 가진 것으로 교사에게 인식됨을 볼 수 있고, 규칙위반의 경우도 임상+준임상 증후군 비율이 5.1%여서 교사들의 관점에서 외현화 문제행동 측면에서 치료나 주의가 필요한 아동이 여아는 1~2%, 남아는 5~6%여서 이들에 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그림 Ⅲ-2-4]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 (TRF-교사용 분석)



구체적인 평균 점수로 규칙위반은 53.28점, 공격행동은 52.65점으로 보고되었다. 공격행동은 남아가 52.96점으로 여아(52.32점)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어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었으며, 가구소득에 따라서도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2-82〉 외현화 문제행동: 보호자 응답

단위: 점(명)

구분	(수)	규칙위반		공격행동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1,225)	53.28	5.00	52.65	4.81
아동 성별					
남	(633)	53.41	5.25	52.96	5.19
여	(592)	53.14	4.72	52.32	4.35
t		0.96		2.36*	
아동 출생순위					
외동아[a]	(134)	53.63	5.15	52.65	4.51
첫째[b]	(430)	53.45	4.88	52.95	4.81
둘째 이상[c]	(660)	53.10	5.05	52.46	4.87
F		1.02		1.37	
모 취업 여부					
취업	(700)	53.42	5.08	52.73	4.79
미취업	(485)	53.09	4.89	52.66	4.96
t		1.12		0.23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a]	(260)	53.42	5.07	53.27	5.10
400~499만원[b]	(219)	53.07	4.80	52.81	4.85
500~599만원[c]	(257)	53.33	5.37	52.58	5.19
600~699만원[d]	(158)	53.75	5.22	52.39	4.69
700만원 이상[e]	(264)	52.81	4.60	52.00	4.12
F		1.06		2.44*	

주: T점수가 70점 이상이면 임상, 65점 이상이면 준임상 수준임.
* $p < .05$.

교사가 보고한 외현화 문제행동 점수를 살펴보면, 규칙위반 및 공격행동 모두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 규칙위반은 남아 52.33점, 여아 51.40점, 공격행동은 남아 52.42점, 여아 51.27점으로 남아가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취업모 가구의 아동이 미취업모 가구의 아동보다 공격행동 점수가 높게 보고되었다.

〈표 Ⅲ-2-83〉 외현화 문제행동: 교사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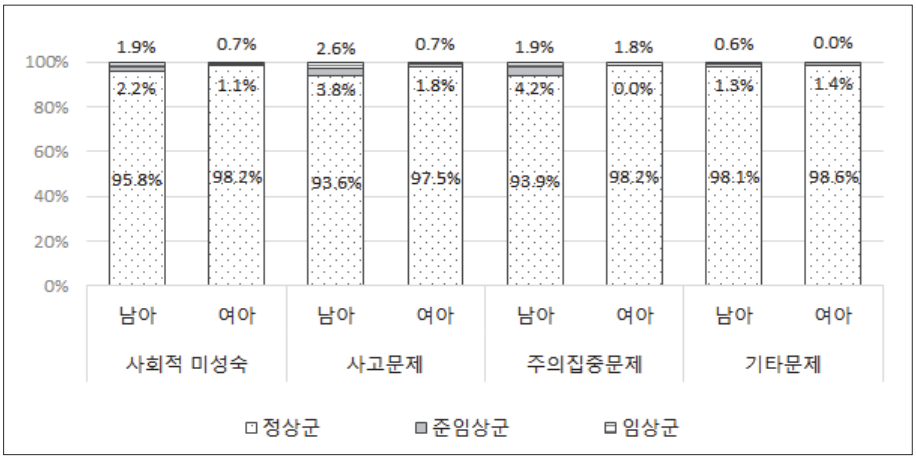
단위: 점(명)

구분	(수)	규칙위반		공격행동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590)	51.89	4.19	51.88	4.60
아동 성별					
남	(315)	52.33	4.84	52.42	5.41
여	(275)	51.40	3.22	51.27	3.35
t		2.79**		3.15**	
아동 출생순위					
외동아[a]	(53)	52.36	4.40	52.77	4.87
첫째[b]	(214)	51.50	3.45	51.61	3.91
둘째 이상[c]	(323)	52.08	4.57	51.92	4.96
F		1.60		1.38	
모 취업 여부					
취업	(342)	52.14	4.42	52.14	4.78
미취업	(227)	51.50	3.71	51.38	4.03
t		1.87		2.04*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a]	(129)	52.00	3.94	52.22	5.06
400~499만원[b]	(112)	51.86	3.98	51.78	4.30
500~599만원[c]	(133)	51.63	4.23	51.51	4.19
600~699만원[d]	(73)	51.88	3.85	52.26	4.82
700만원 이상[e]	(115)	52.05	4.46	51.85	4.15
F		0.20		0.56	

주: T점수가 70점 이상이면 임상, 65점 이상이면 준임상 수준임.
* $p < .05$, ** $p < .01$.

증후군 척도를 통한 문제행동 중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속하지 않는 사회적 미성숙, 비현실적이고 기이한 사고 및 행동과 관련된 사고문제, 주의집중 문제, 손톱을 깨물거나 잘 안 먹는 등의 기타문제에 대한 조사결과는 다음의 [그림 Ⅲ-2-5]와 같다(교사응답 기준). 이 중 특히 주의집중 문제행동과 사고문제 영역에서 교사가 생각하는 임상군 또는 준임상군 비율이 높은데,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의 결과임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문제행동은 향후 해당 아동의 학습, 학교적응, 교우관계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되므로 정상군이 아닌 아동에 대해서는 치료적 개입의 검토를 제안해볼 필요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동패널 조사의 한계로 개별 아동에 대한 정보를 임의로 당사자에게 제공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이에 대한 윤리적 논의가 더 구체적으로 필요해 보인다.

[그림 III-2-5] 아동의 기타 문제행동 (TRF-교사용 분석)



위와 같은 네 가지의 문제행동 평가에 대한 점수 분포를 확인해 보았다. 보호자 응답에 따르면, 사회적 미성숙은 52.52점, 사고문제는 53.24점, 주의집중문제는 52.21점, 기타문제는 53.38점이었다. 사회적 미성숙과 기타문제는 여아보다 남아의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주의집중문제는 가구소득 수준이 높을 때 더 낮은 경향을 보였다.

〈표 III-2-84〉 기타문제행동 하위요인: 보호자 응답

단위: 점(명)

구분	(수)	사회적 미성숙		사고문제		주의집중 문제		기타문제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1,225)	52.52	4.79	53.24	5.23	52.21	4.92	53.38	5.15
아동 성별									
남	(633)	52.83	5.25	53.51	5.53	52.18	4.86	53.95	5.58
여	(592)	52.19	4.22	52.96	4.88	52.25	4.99	52.78	4.58
t		2.37*		1.87		-0.25		4.01***	
아동 출생순위									
외동아[a]	(134)	53.28	4.91	53.82	5.49	52.75	5.55	54.08	5.25
첫째[b]	(430)	52.57	4.84	53.36	5.09	52.16	4.89	53.61	5.10
둘째 이상[c]	(660)	52.33	4.72	53.05	5.27	52.13	4.81	53.10	5.15
F		2.19		1.36		0.89		2.69	
모 취업 여부									
취업	(700)	52.36	4.61	53.03	4.92	52.09	4.44	53.32	5.00
미취업	(485)	52.85	5.13	53.65	5.70	52.46	5.64	53.49	5.36
t		-1.68		-1.94		-1.19		-0.55	

구분	(수)	사회적 미성숙		사고문제		주의집중 문제		기타문제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a]	(260)	53.03	5.18	53.24	5.42	52.73	4.89	53.60	5.14
400~499만원[b]	(219)	52.46	4.71	53.21	5.08	52.75	6.03	53.55	5.28
500~599만원[c]	(257)	52.53	5.30	53.55	5.87	52.22	5.16	53.34	5.41
600~699만원[d]	(158)	52.42	4.58	53.17	4.85	51.94	4.76	53.28	4.94
700만원 이상[e]	(264)	51.92	3.89	52.95	4.92	51.54	3.87	52.98	4.85
F		1.79		0.43		2.70*		0.58	

주: T점수가 70점 이상이면 임상, 65점 이상이면 준임상 수준임.
* $p < .05$, *** $p < .001$.

교사의 응답에 따르면, 사회적 미성숙은 51.92점, 사고문제는 52.23점, 주의집중 문제는 52.14점, 기타문제는 52.32점이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문제행동 점수들에서 보호자 응답에 비해 교사 응답의 점수가 약간 낮은 경향을 보였는데, 사고문제와 주의집중 문제는 보호자 응답과 교사 응답 수준 간에 거의 차이가 없었다. 한편 교사들은 이러한 네 가지 문제행동 모두 여아보다 남아들의 수준을 더 높게 평가하였으며, 사회적 미성숙의 경우 취업모 가구 아동이 미취업모 가구 아동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Ⅲ-2-85〉 기타문제행동 하위요인: 교사 응답

단위: 점(명)

구분	(수)	사회적 미성숙		사고문제		주의집중 문제		기타문제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590)	51.92	4.55	52.23	5.10	52.14	5.16	52.32	4.10
아동 성별									
남	(315)	52.33	5.01	52.48	5.64	52.56	5.91	52.94	4.65
여	(275)	51.44	3.92	51.95	4.40	51.65	4.07	51.61	3.24
t		2.40*		1.27		2.19*		4.08***	
아동 출생순위									
외동아[a]	(53)	52.38	5.41	52.32	5.06	53.02	5.80	52.96	4.28
첫째[b]	(214)	52.09	4.28	52.19	4.86	51.68	4.66	52.24	3.95
둘째 이상[c]	(323)	51.72	4.58	52.24	5.27	52.29	5.34	52.27	4.18
F		0.71		0.02		1.78		0.71	
모 취업 여부									
취업	(342)	52.14	4.84	52.24	5.38	52.35	5.35	52.33	4.24
미취업	(227)	51.41	3.87	51.98	4.45	51.57	4.24	52.11	3.57
t		2.00*		0.60		1.93		0.64	

구분	(수)	사회적 미성숙		사고문제		주의집중 문제		기타문제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a]	(129)	52.45	5.70	52.26	5.12	52.63	6.36	52.87	4.56
400~499만원[b]	(112)	51.63	3.90	52.12	4.49	51.96	4.10	51.45	3.26
500~599만원[c]	(133)	51.80	4.43	52.17	5.29	51.95	4.80	52.41	4.59
600~699만원[d]	(73)	51.99	4.05	53.41	6.46	52.41	5.57	52.89	4.20
700만원 이상[e]	(115)	51.70	4.08	51.83	4.53	51.79	4.48	52.13	3.42
F		0.65		1.16		0.56		2.31	

주: T점수가 70점 이상이면 임상, 65점 이상이면 준임상 수준임.
* $p < .05$, *** $p < .001$.

나) DSM(정신병 진단) 기준에 따른 문제행동 분석

DSM 진단기준에 따라 문제행동 점수를 평가하는 방식은 정서문제, 불안문제, 신체화문제와 과잉행동/주의력결핍(ADHD), 반항행동문제, 품행문제의 6개 하위 문제행동에서 임상적 치료가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근거로서 활용된다.

다음의 〈표 Ⅲ-2-86〉에서 제시되었듯이 DSM 척도에 따른 결과를 보면, 부모가 응답한 내용에서는 신체화문제(특별한 의학적 원인 없이 심리적 문제로 신체적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가장 임상군 비율이 높고 다음은 불안문제의 임상군으로 나타났다. 즉, 심인성 문제로 인해 복통, 두통 등 신체적 문제가 발생하거나 불안증상이 있는 아동이 1.3~2% 수준이었다. 담임교사의 응답은 조금 다른 경향을 보이는데, 가장 많은 임상군으로 분류된 항목은 과잉행동/주의력결핍(ADHD) 문제였고 다음은 반항행동문제와 정서문제였다. 각각 1.5~2%가 임상군으로 분류되었다.

아동의 성별에 따라서 문제행동 평가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모든 항목에서 남아가 여아보다 임상군 비율이 높다. 그러나 부모 응답에서 불안문제에 대해서는 여아가 2배 이상 임상군 평가 비중이 높았고 신체화문제에 있어서도 여아와 남아가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교사 평가에서는 불안이나 신체화에서 여아의 임상군 분류가 거의 없었고 다만 준임상수준에서 여아의 신체화문제 비율이 높아 남아가 모든 문제행동에 대해 주의를 요하는 아동이 1~3%정도 있다고 하더라도 여아는 불안이나 신체화문제를 가진 경우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섬세하게 치료적 접근이 요구됨을 짐작할 수 있다.

〈표 Ⅲ-2-86〉 DSM 척도에 따른 아동의 문제행동 정도

단위: %

영역	구분	보호자의 DSM 평가(CBCL 6-18)				교사의 DSM 평가(TRF)			
		정상군	준임상군	임상군	계	정상군	준임상군	임상군	계
정서문제	전체	96.3	2.7	1.1	100.0	97.6	0.8	1.5	100.0
	남	96.1	2.2	1.7	100.0	97.8	0.0	2.2	100.0
	여	96.5	3.2	0.3	100.0	97.5	1.8	0.7	100.0
불안문제	전체	95.4	3.3	1.3	100.0	97.8	1.2	1.0	100.0
	남	95.0	4.3	0.8	100.0	97.1	1.3	1.6	100.0
	여	95.8	2.4	1.9	100.0	99.3	0.7	0.0	100.0
신체화 (somatic) 문제	전체	94.8	3.2	2.0	100.0	97.8	1.2	1.0	100.0
	남	95.7	2.2	2.1	100.0	98.4	0.3	1.3	100.0
	여	93.8	4.2	2.0	100.0	97.1	2.2	0.7	100.0
과잉행동/주의력결핍 (ADHA)	전체	96.8	2.8	0.4	100.0	96.1	1.7	2.2	100.0
	남	96.8	3.0	0.2	100.0	95.2	1.9	2.9	100.0
	여	96.8	2.5	0.7	100.0	97.1	1.4	1.4	100.0
반항행동 문제	전체	97.4	1.7	0.9	100.0	95.6	2.9	1.5	100.0
	남	97.8	1.1	1.1	100.0	94.2	3.8	1.9	100.0
	여	97.0	2.4	0.7	100.0	97.1	1.8	1.1	100.0
품행문제	전체	95.7	3.3	1.1	100.0	96.9	2.4	0.7	100.0
	남	95.9	2.7	1.4	100.0	95.2	4.2	0.6	100.0
	여	95.4	3.9	0.7	100.0	98.9	0.4	0.7	100.0

6개의 문제행동의 결과를 평균 점수 기준에서 분포를 살펴보면, 먼저 정서문제는 52.38점, 불안문제는 52.59점, 신체화문제는 52.86점이었다. 불안문제는 아동의 성별, 출생순위, 모 취업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특히 남아가 여아보다, 미취업모 가구의 아동이 취업모 가구의 아동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표 Ⅲ-2-87〉 DMS 진단척도 1: 보호자 응답

단위: 점(명)

구분	(수)	정서문제		불안문제		신체화문제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1,225)	52.38	4.79	52.59	5.23	52.86	4.92
아동 성별							
남	(633)	52.55	5.25	52.88	5.53	52.81	4.86
여	(592)	52.20	4.22	52.28	4.88	52.92	4.99
t		1.27		2.13*		-0.34	
아동 출생순위							
외동아[a]	(134)	52.22	4.91	53.13	5.49	52.66	5.55
첫째[b]	(430)	52.76	4.84	52.90	5.09	53.06	4.89
둘째 이상[c]	(660)	52.17	4.72	52.27	5.27	52.78	4.81
F		2.07		3.03*		0.45	

구분	(수)	정서문제		불안문제		신체화문제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모 취업 여부							
취업	(700)	52.29	4.61	52.40	4.92	52.73	4.44
미취업	(485)	52.55	5.13	53.00	5.70	53.21	5.64
t		-0.92		-1.98*		-1.45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a]	(260)	52.89	5.05	53.08	5.14	53.09	5.61
400~499만원[b]	(219)	52.42	4.59	52.75	5.03	52.83	5.00
500~599만원[c]	(257)	52.58	5.30	52.53	5.46	52.88	5.76
600~699만원[d]	(158)	52.42	4.95	52.25	4.84	53.15	5.83
700만원 이상[e]	(264)	51.70	3.99	52.21	4.34	52.43	4.96
F		2.15		1.27		0.64	

주: T점수가 70점 이상이면 임상, 65점 이상이면 준임상 수준임.
* $p < .05$.

교사가 응답한 정서문제는 51.99점, 불안문제는 51.47점, 신체화문제는 50.86점으로 보호자 응답보다는 약간 낮은 점수였다. 아동의 성별이나 출생순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며, 취업모 가구의 아동이 정서문제와 불안문제 점수가 각각 52.19점과 51.74점으로 미취업모 가구의 아동보다 높게 보고되어 보호자 응답의 결과와는 차이를 보였다.

〈표 Ⅲ-2-88〉 DMS 진단척도 1: 교사 응답

단위: 점(명)

구분	(수)	정서문제		불안문제		신체화문제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590)	51.99	4.37	51.47	3.92	50.86	3.84
아동 성별							
남	(315)	52.17	4.67	51.55	4.44	50.91	4.10
여	(275)	51.77	4.00	51.39	3.24	50.80	3.53
t		1.10		0.50		0.35	
아동 출생순위							
외동아[a]	(53)	51.85	4.34	51.94	4.13	51.70	5.54
첫째[b]	(214)	52.22	4.42	51.36	3.57	50.52	2.75
둘째 이상[c]	(323)	51.85	4.35	51.47	4.12	50.94	4.10
F		0.50		0.47		2.19	
모 취업 여부							
취업	(342)	52.19	4.75	51.74	4.52	51.00	4.19
미취업	(227)	51.45	3.32	51.04	2.86	50.52	2.89
t		2.19*		2.28*		1.61	

구분	(수)	정서문제		불안문제		신체화문제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a]	(129)	52.57	5.19	52.24	5.04	51.38	4.83
400~499만원[b]	(112)	51.87	3.96	51.21	3.37	50.48	2.27
500~599만원[c]	(133)	51.70	4.09	51.25	3.99	50.80	4.15
600~699만원[d]	(73)	51.88	4.50	51.45	3.40	50.59	2.94
700만원 이상[e]	(115)	51.83	3.88	51.33	3.52	50.77	3.99
F		0.80		1.45		0.97	

주: T점수가 70점 이상이면 임상, 65점 이상이면 준임상 수준임.
* $p < .05$.

DSM 진단기준에 따른 문제행동 중 ADHD는 52.15점, 폭력적, 비협조적 행동 등의 반항행동문제는 52.66점,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는 품행문제는 52.47점으로 보고되었다. 아동의 성별, 출생순위, 모 취업 여부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적은 차이이기는 하지만 가구소득이 높은 아동의 ADHD와 품행문제 점수가 다른 집단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Ⅲ-2-89〉 DSM 진단척도 2: 보호자 응답

단위: 점(명)

구분	(수)	ADHD		반항행동문제		품행문제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1,225)	52.15	4.63	52.66	4.91	52.47	4.83
아동 성별							
남	(633)	52.13	4.50	52.79	5.32	52.73	5.08
여	(592)	52.18	4.77	52.51	4.42	52.19	4.54
t		-0.22		1.02		1.96	
아동 출생순위							
외동아[a]	(134)	52.99	5.30	52.60	4.24	52.38	4.73
첫째[b]	(430)	51.97	4.36	52.87	4.64	52.67	4.62
둘째 이상[c]	(660)	52.11	4.65	52.54	5.20	52.37	4.98
F		2.53		0.60		0.54	
모 취업 여부							
취업	(700)	52.06	4.39	52.66	4.80	52.64	4.80
미취업	(485)	52.36	5.03	52.75	5.17	52.27	4.93
t		-1.04		-0.29		1.30	

구분	(수)	ADHD		반항행동문제		품행문제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a]	(260)	52.55	4.63	53.22	4.99	53.07	5.22
400~499만원[b]	(219)	52.83	5.45	52.84	5.16	52.28	4.28
500~599만원[c]	(257)	52.05	4.98	52.64	5.41	52.29	5.19
600~699만원[d]	(158)	51.94	4.57	52.30	4.59	52.89	5.12
700만원 이상[e]	(264)	51.48	3.37	52.06	4.35	51.86	4.20
F		3.14* b〉e		2.07		2.52*	

주: T점수가 70점 이상이면 임상, 65점 이상이면 준임상 수준임.
* p 〈 .05.

교사 응답에 따르면, ADHD는 52.40점, 반항행동문제는 52.52점, 품행문제는 51.80점이었으며, 보호자 응답 결과와는 다르게 아동의 성별과 모 취업 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남아가 여아보다 세 가지 문제행동에서 모두 높은 수준이었으며, 취업모 가구의 아동이 미취업모 가구의 아동보다 반항행동문제 수준이 높게 평가되었다.

〈표 Ⅲ-2-90〉 DSM 진단척도 2: 교사 응답

단위: 점(명)

구분	(수)	ADHD		반항행동문제		품행문제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590)	52.40	6.05	52.52	5.19	51.80	4.37
아동 성별							
남	(315)	52.90	7.26	53.03	6.01	52.34	5.14
여	(275)	51.83	4.21	51.92	3.97	51.17	3.17
t		2.23*		2.69**		3.37***	
아동 출생순위							
외동아[a]	(53)	53.64	7.71	53.36	4.81	52.45	4.46
첫째[b]	(214)	51.70	4.76	52.01	4.14	51.45	3.74
둘째 이상[c]	(323)	52.66	6.46	52.71	5.82	51.92	4.72
F		2.85		1.93		1.39	
모 취업 여부							
취업	(342)	52.58	6.05	52.88	5.55	52.01	4.44
미취업	(227)	51.91	5.34	51.85	4.19	51.42	4.07
t		1.39		2.52*		1.61	

구분	(수)	ADHD		반항행동문제		품행문제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a]	(129)	52.73	6.86	52.70	5.17	51.99	4.15
400~499만원[b]	(112)	52.29	5.63	52.39	4.78	51.80	4.01
500~599만원[c]	(133)	52.26	5.90	52.08	5.49	51.40	4.02
600~699만원[d]	(73)	52.70	6.71	52.97	5.54	51.74	4.20
700만원 이상[e]	(115)	52.04	4.73	52.77	5.22	51.90	4.41
F		0.27		0.50		0.39	

주: T점수가 70점 이상이면 임상, 65점 이상이면 준임상 수준임.
* $p < .05$, ** $p < .01$, *** $p < .001$.

다) 특수척도 기준에 따른 문제행동 분석

문제행동 특수척도는 특정 사고나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과 관련된 강박증상, 심각한 회상적인 사건에 직면한 후 나타날 수 있는 외상후 스트레스 문제, 정신 및 신체적으로 수동적이고 활동 저하와 관련된 인지속도부진이라는 세 가지 영역에서 문제행동 점수를 산출하고 있다.

결과를 보면 임상군에 속하는 비율은 1.0~1.7% 수준으로 해당 문제행동들은 임상수준까지 심각한 정도로 평가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표 Ⅲ-2-91 참조). 그러나 준임상군까지 포함하여 살펴보면 강박증상(보호자 평가)이 약 5%정도에서 발견되며 특히 남아는 7%이상이다. 여아의 경우는 인지속도부진에서 5.1%로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이고 이는 교사 평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므로 강박증상 및 인지속도부진의 준임상/임상군 아동에 대한 적절한 개입이 필요해보인다.

〈표 Ⅲ-2-91〉 특수척도에 따른 아동의 문제행동 정도

단위: %

영역	구분	보호자의 특수척도 평가(CBCL 6-18)				교사의 특수척도 평가(TRF)			
		정상군	준임상군	임상군	계	정상군	준임상군	임상군	계
강박증상	전체	95.1	3.7	1.2	100.0	96.4	1.9	1.7	100.0
	남	92.9	5.5	1.6	100.0	95.2	2.2	2.6	100.0
	여	97.5	1.7	0.8	100.0	97.8	1.4	0.7	100.0
외상 후 스트레스 문제	전체	97.4	1.5	1.1	100.0	96.6	2.4	1.0	100.0
	남	97.0	1.6	1.4	100.0	96.2	1.9	1.9	100.0
	여	97.8	1.3	0.8	100.0	97.1	2.9	0.0	100.0
인지속도 부진	전체	96.5	2.0	1.5	100.0	96.3	2.5	1.2	100.0
	남	97.9	1.3	0.8	100.0	96.5	1.6	1.9	100.0
	여	94.9	2.9	2.2	100.0	96.0	3.6	0.4	100.0

구체적으로 특수척도에 따른 문제행동의 점수분포에서 보호자 응답을 보면, 강박증상은 52.98점, 외상후 스트레스 문제는 52.59점, 인지속도부진은 52.07점이었다.

〈표 Ⅲ-2-92〉 문제행동 특수척도: 보호자 응답

단위: 점(명)

구분	(수)	강박증상		외상후 스트레스 문제		인지속도부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1,225)	52.98	5.06	52.59	4.81	52.07	5.20
아동 성별							
남	(633)	53.02	5.35	52.83	5.20	52.11	5.33
여	(592)	52.94	4.74	52.32	4.36	52.04	5.06
t		0.28		1.86		0.23	
아동 출생순위							
외동아[a]	(134)	52.82	4.88	52.71	4.32	52.31	5.19
첫째[b]	(430)	53.35	5.13	52.88	4.96	52.47	5.79
둘째 이상[c]	(660)	52.78	5.04	52.37	4.81	51.77	4.76
F		1.78		1.49		2.58	
모 취업 여부							
취업	(700)	52.96	5.00	52.58	4.75	51.96	4.82
미취업	(485)	53.12	5.25	52.72	5.01	52.33	5.78
t		-0.55		-0.47		-1.17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a]	(260)	53.05	5.00	53.12	5.07	52.31	5.15
400~499만원[b]	(219)	53.01	5.03	52.59	4.73	52.26	6.00
500~599만원[c]	(257)	53.16	5.69	52.57	5.19	52.13	5.25
600~699만원[d]	(158)	52.88	4.88	52.34	5.25	51.87	4.95
700만원 이상[e]	(264)	52.91	4.82	52.18	4.06	51.72	4.82
F		0.12		1.33		0.56	

주: T점수가 70점 이상이면 임상, 65점 이상이면 준임상 수준임.

교사 응답에 따르면, 강박증상은 52.84점, 외상후 스트레스 문제는 52.13점, 인지속도부진은 52.31점이었다. 인지속도부진의 경우 모 취업 여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는데, 취업모 가구의 아동이 미취업모 가구의 아동보다 높은 수준으로 보고되었다.

〈표 Ⅲ-2-93〉 문제행동 특수척도: 교사 응답

단위: 점(명)

구분	(수)	강박증상		외상후 스트레스 문제		인지속도부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590)	52.84	5.16	52.13	4.71	52.31	5.16
아동 성별							
남	(315)	53.20	5.83	52.38	5.32	52.43	5.34
여	(275)	52.43	4.24	51.84	3.88	52.18	4.96
t		1.86		1.44		0.59	
아동 출생순위							
외동아[a]	(53)	53.25	5.45	52.58	4.63	53.23	7.68
첫째[b]	(214)	52.84	4.75	51.99	4.38	52.48	5.26
둘째 이상[c]	(323)	52.78	5.38	52.15	4.94	52.05	4.55
F		0.19		0.35		1.37	
모 취업 여부							
취업	(342)	52.87	5.65	52.28	5.18	52.61	5.64
미취업	(227)	52.66	4.25	51.74	3.62	51.74	4.24
t		0.47		1.45		2.10*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a]	(129)	53.22	5.88	52.73	5.83	52.86	6.62
400~499만원[b]	(112)	52.29	4.98	52.02	4.08	52.38	4.97
500~599만원[c]	(133)	52.95	5.17	51.89	4.65	51.79	4.48
600~699만원[d]	(73)	53.95	5.75	52.40	4.69	52.88	5.60
700만원 이상[e]	(115)	52.25	4.20	51.68	4.00	51.96	4.00
F		1.69		0.94		1.05	

주: T점수가 70점 이상이면 임상, 65점 이상이면 준임상 수준임.
* $p < .05$.

6) 삶의 만족도 및 미래 의식

삶의 만족도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4점 척도 기준 3.33점으로 나타났으며, 아동 성별에 따라서는 남아(3.37점)가 여아(3.29점)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가구 소득에 따라서는 가구 소득이 600만원대 가구의 아동이 삶의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아동 출생순위, 모 취업 여부에 따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Ⅲ-2-94〉 삶의 만족도

단위: 점(명)

구분	(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1,393)	3.33	0.52
아동 성별			
남	(713)	3.37	0.52
여	(680)	3.29	0.52
t		2.84**	
아동 출생순위			
외동아[a]	(147)	3.41	0.50
첫째[b]	(494)	3.34	0.53
둘째 이상[c]	(750)	3.32	0.52
F		2.09	
모 취업 여부			
취업	(795)	3.32	0.52
미취업	(553)	3.36	0.52
t		-1.28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a]	(285)	3.28	0.55
400~499만원[b]	(240)	3.39	0.50
500~599만원[c]	(282)	3.36	0.52
600~699만원[d]	(184)	3.27	0.53
700만원 이상[e]	(303)	3.36	0.50
F		2.58*	

주: 1) 아동의 응답임.
2) 4점 척도임(1.전혀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
* $p < .05$, ** $p < .01$.

패널아동에게 어른이 되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조사한 결과, 행복한 가정을 이룬 사람이 되고 싶다는 응답이 30.7%로 가장 많았으며, 돈을 잘 버는 사람 20.0%, 일보다 취미나 여가를 즐기는 사람 18.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성별에 따라 의미 있는 차이가 있었는데, 남아의 경우 돈을 잘 버는 사람(22.9%), 유명한 사람(19.5%)이 되고 싶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 경향보다 많았으며, 여아의 경우 행복한 가정을 이룬 사람(32.9%), 일보다 취미나 여가를 즐기는 사람(23.2%)이 되고 싶다는 응답이 많았다.

〈표 Ⅲ-2-95〉 아동의 미래기대

단위: %(명)

구분	돈을 잘 버는 사람	유명한 사람	사회에서 높은 지위를 갖는 사람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	행복한 가정을 이룬 사람	일보다 취미/여가를 즐기는 사람	계(수)
전체	20.0	16.4	1.9	12.6	30.7	18.4	100.0(1,393)
아동 성별							
남	22.9	19.5	2.1	13.2	28.5	13.9	100.0(713)
여	16.9	13.2	1.8	11.9	32.9	23.2	100.0(680)
$\chi^2(df)$	33.89(5)***						
아동 출생순위							
외동아	19.0	14.3	2.7	10.9	32.7	20.4	100.0(147)
첫째	18.6	16.8	2.4	12.6	30.8	18.8	100.0(494)
둘째 이상	20.9	16.7	1.3	12.9	30.3	17.9	100.0(750)
$\chi^2(df)$	5.01(10)						
모 취업 여부							
취업	20.6	16.5	2.4	12.3	29.9	18.2	100.0(795)
미취업	19.0	17.4	1.4	12.1	32.4	17.7	100.0(553)
$\chi^2(df)$	2.72(5)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19.3	15.4	1.8	11.2	35.8	16.5	100.0(285)
400~499만원	20.8	16.3	1.3	12.1	29.2	20.4	100.0(240)
500~599만원	18.8	16.7	2.5	11.3	30.1	20.6	100.0(282)
600~699만원	21.2	20.1	2.7	12.0	27.7	16.3	100.0(184)
700만원 이상	19.5	16.2	2.0	15.8	28.1	18.5	100.0(303)
$\chi^2(df)$	13.17(20)						

주: 아동의 응답임.
*** $p < .001$.

미래에 결혼할 생각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에서 결혼 의사가 있다는 응답은 39.0%이었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50.0%로 많았다.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는데, 남아는 결혼 의사가 있다는 응답이 42.5%이나 여아는 35.3%이며, 반대로 결혼 의사가 없다는 응답이 남아는 7.3%인 반면 여아는 15.0%이었다.

미래에 자녀를 가질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50.2%로 가장 많았으며,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남아의 경우 자녀양육 의사가 있다는 응답은 41.9%, 없다는 응답은 8.1%이나, 여아의 경우 자녀양육 의사가 있다는 응답은 32.4%, 없다는 응답은 17.2%이었다.

〈표 Ⅲ-2-96〉 결혼 의사/자녀양육 의사

단위: %(명)

구분	결혼 의사				자녀양육 의사			
	있음	없음	모름	계(수)	있음	없음	모름	계(수)
전체	39.0	11.1	50.0	100.0(1,393)	37.3	12.6	50.2	100.0(1,393)
아동 성별								
남	42.5	7.3	50.2	100.0(713)	41.9	8.1	49.9	100.0(713)
여	35.3	15.0	49.7	100.0(680)	32.4	17.2	50.4	100.0(680)
$\chi^2(df)$	23.35(2)***				31.39(2)***			
아동 출생순위								
외동아	44.9	9.5	45.6	100.0(147)	42.9	12.9	44.2	100.0(147)
첫째	35.8	10.7	53.4	100.0(494)	33.8	12.1	54.0	100.0(494)
둘째 이상	39.9	11.6	48.5	100.0(750)	38.4	12.8	48.8	100.0(750)
$\chi^2(df)$	5.36(4)				6.00(4)			
모 취업 여부								
취업	38.5	10.1	51.4	100.0(795)	36.9	11.2	51.9	100.0(795)
미취업	40.7	11.8	47.6	100.0(553)	38.3	13.9	47.7	100.0(553)
$\chi^2(df)$	2.26(2)				3.31(2)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40.7	11.2	48.1	100.0(285)	37.9	14.4	47.7	100.0(285)
400~499만원	37.5	11.3	51.3	100.0(240)	36.3	11.3	52.5	100.0(240)
500~599만원	39.4	12.1	48.6	100.0(282)	39.7	13.8	46.5	100.0(282)
600~699만원	38.6	11.4	50.0	100.0(184)	37.0	12.5	50.5	100.0(184)
700만원 이상	38.3	10.2	51.5	100.0(303)	35.3	11.2	53.5	100.0(303)
$\chi^2(df)$	1.38(8)				4.76(8)			

주: 아동의 응답임.
*** $p < .001$.

7) 아동의 경제관념

상대적 박탈지수(가정형편)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10점 만점(10점이 매우 잘 산다)에서 7점이 22.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5점(19.2%), 6점(18.5%), 8점(17.2%)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 소득에 따라서는 가구 소득이 600~699만원인 아동이 7점인 경우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가구 소득이 399만원 이하인 아동이 5점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표 Ⅲ-2-97〉 상대적 박탈지수(가정형편)

단위: %(명), 점

구분	점 수										계(수)	평균	표준편차
	1	2	3	4	5	6	7	8	9	10			
전체	0.2	0.4	0.7	3.4	19.2	18.5	22.4	17.2	8.0	10.0	100.0(1,393)	6.90	1.72
아동 성별													
남	0.4	0.3	0.1	3.9	18.2	18.2	23.4	16.5	7.3	11.5	100.0(713)	6.95	1.73
여	0.0	0.6	1.3	2.9	20.1	18.8	21.3	17.8	8.7	8.4	100.0(680)	6.84	1.70
$\chi^2(df)/t$					17.35(9)*							1.15	
아동 출생순위													
외동아[a]	1.4	0.7	0.0	3.4	17.0	19.0	21.1	19.7	8.8	8.8	100.0(147)	6.89	1.79
첫째[b]	0.0	0.4	0.6	2.2	17.2	18.6	24.7	15.6	9.5	11.1	100.0(494)	7.04	1.68
둘째 이상[c]	0.1	0.4	0.9	4.3	20.8	18.4	21.1	17.7	6.8	9.5	100.0(750)	6.80	1.72
$\chi^2(df)/F$					25.35(18)							2.79	
모 취업 여부													
취업	0.1	0.5	0.5	3.1	19.4	19.1	23.3	17.2	7.2	9.6	100.0(795)	6.88	1.68
미취업	0.2	0.0	0.9	3.8	18.6	17.9	21.2	17.7	9.2	10.5	100.0(553)	6.96	1.72
$\chi^2(df)/t$					7.09(9)							-0.93	
가구 소득													
399만원이하[a]	0.7	0.7	1.4	7.0	25.6	16.8	17.5	17.5	4.2	8.4	100.0(285)	6.49	1.82
400~499만원[b]	0.0	0.8	0.4	2.9	21.3	17.9	22.5	17.9	4.2	12.1	100.0(240)	6.88	1.73
500~599만원[c]	0.4	0.4	0.7	2.8	20.9	17.4	24.1	18.1	7.4	7.8	100.0(282)	6.82	1.66
600~699만원[d]	0.0	0.5	0.0	1.6	12.5	17.4	28.3	15.2	14.1	10.3	100.0(184)	7.24	1.60
700만원 이상[e]	0.0	0.0	0.0	1.3	14.2	21.5	23.4	18.2	10.2	11.2	100.0(303)	7.18	1.57
$\chi^2(df)/F$					80.26(36)***							8.55***	d,e〉a

주: 1) 아동의 응답임.
2) 10점 척도임(1. 매우 못 산다~10. 매우 잘 산다).
* p 〈 .05, *** p 〈 .001.

패널아동의 저축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평소 저축을 하고 있는지, 주로 어떤 돈으로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저축을 하는지를 알아보았다. 먼저, 평소 저축을 하고 있는 아동은 전체의 73.9%이었다. 출생순위가 둘째 이상인 아동보다는 외동아나 첫째인 경우 저축을 하고 있다는 응답이 다소 많았다. 또한 취업모 가구에서보다 미취업모 가구의 아동에게서 저축하고 있다는 응답의 비율이 높았다.

주로 어떤 돈으로 저축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결과, 명절 등에 친척, 손님이 비정기적으로 주는 용돈으로 저축한다는 응답이 59.0%로 과반수이었고, 33.0%는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받는 용돈으로 저축을 하고 있었다. 이에 관해서는 아동의 성별, 출생순위, 모 취업여부나 가구소득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III-2-98〉 저축 실태

단위: %(명)

구분	평소 저축 실태		주로 어떤 돈으로 저축하는지				
	저축함	(수)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받는 용돈	명절 등에 친척, 손님이 비정기적으로 주는 용돈	집안 일 돕기, 부모님 심부름, 아르바이트 등으로 번 돈	기타	계(수)
전체	73.9	(1,393)	33.0	59.0	4.7	3.3	100.0(1,029)
아동 성별							
남	71.8	(713)	33.6	57.6	5.3	3.5	100.0(512)
여	76.0	(680)	32.5	60.3	4.1	3.1	100.0(517)
$x^2(df)$	3.21(1)		1.37(3)				
아동 출생순위							
외동아	76.2	(147)	26.8	67.0	1.8	4.5	100.0(112)
첫째	78.1	(494)	36.8	56.2	5.2	1.8	100.0(386)
둘째 이상	70.5	(750)	31.6	59.4	4.9	4.2	100.0(529)
$x^2(df)$	9.39(2)**		11.53(6)				
모 취업 여부							
취업	72.5	(795)	33.0	60.6	4.0	2.4	100.0(576)
미취업	77.4	(553)	32.2	57.5	5.6	4.7	100.0(428)
$x^2(df)$	4.19(1)*		5.46(3)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69.8	(285)	29.6	60.3	5.5	4.5	100.0(199)
400~499만원	75.8	(240)	43.4	49.5	5.5	1.6	100.0(182)
500~599만원	73.0	(282)	31.1	61.2	4.9	2.9	100.0(206)
600~699만원	79.9	(184)	35.4	59.9	2.7	2.0	100.0(147)
700만원 이상	72.9	(303)	28.5	63.3	5.4	2.7	100.0(221)
$x^2(df)$	6.57(4)		17.27(12)				

주: 아동의 응답임.
* $p < .05$, ** $p < .01$.

아동이 저축을 하는 주된 방식으로는 저금통에 모은다 30.5%, 지갑에 모아둔다 29.4%, 부모님께 맡겨 모은다 20.3%, 직접 은행에 저금한다 18.4%로 응답하였다. 이러한 저축 방식은 출생순위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특히 외동아는 첫째나 둘째 이상의 아동과 다른 양상을 보였다. 외동아들은 지갑에 모아둔다는 응답(18.8%)보다는 직접 은행에 저금한다(26.8%), 부모님께 맡겨 모은다(26.8%)는 응답이 많았다.

〈표 Ⅲ-2-99〉 저축의 방식

단위: %(명)

구분	저축의 방식					
	저금통에 모은다	내가 직접 은행에 저금	지갑에 모아둔다	부모님께 맡겨 모은다	기타	계(수)
전체	30.5	18.4	29.4	20.3	1.4	100.0(1,029)
아동 성별						
남	28.1	19.1	28.3	23.2	1.2	100.0(512)
여	32.9	17.6	30.6	17.4	1.5	100.0(517)
$\chi^2(df)$			7.26(4)			
아동 출생순위						
외동아	24.1	26.8	18.8	26.8	3.6	100.0(112)
첫째	32.9	17.4	30.3	18.1	1.3	100.0(386)
둘째 이상	30.1	17.2	31.2	20.6	0.9	100.0(529)
$\chi^2(df)$			20.12(8)**			
모 취업 여부						
취업	29.0	21.2	28.1	20.3	1.4	100.0(576)
미취업	32.7	14.0	31.1	20.8	1.4	100.0(428)
$\chi^2(df)$			8.81(4)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34.7	12.6	35.2	16.6	1.0	100.0(199)
400~499만원	34.6	18.1	28.6	16.5	2.2	100.0(182)
500~599만원	32.0	21.8	24.8	20.4	1.0	100.0(206)
600~699만원	25.9	19.0	30.6	23.8	0.7	100.0(147)
700만원 이상	25.3	19.5	29.9	23.5	1.8	100.0(221)
$\chi^2(df)$			21.2(16)			

주: 아동의 응답임.
** $p < .01$.

3. 부모 및 가구 특성

가. 부모 및 가구 특성 관련 변인 구성

12차년도 부모의 특성은 개인 및 부부 특성, 신체 및 건강 특성, 직업 특성, 양육 특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고, 가구 특성의 경우는 인구학적 특성, 물리적 특성, 경제적 특성으로 구분하여 각 세부 변인을 조사하였다. 부모 특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어머니와 아버지가 모두 응답하였고, 가구 특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주양육자의 응답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각 특성별 상세한 내용은 〈표 Ⅲ-3-1〉과 같다.

〈표 Ⅲ-3-1〉 12차년도 부모 특성 변인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부모 특성	개인 및 부부 특성	인구학적 특성	• 연령, 최종학력
			• ○○(이)와 동거 여부, 비동거 이유
		심리적 특성	• 우울
			• 주관적 행복감, 일상적 스트레스, 삶의 만족도
			• 일-가정 양립시 이점과 갈등
		부부 특성	• 결혼 상태, 결혼 상태 유지 기간
			• 결혼만족도
	신체 및 건강 특성	신체 특성	• 주관적 건강 상태
		질환/장애	• 1·2급 장애 유무
		음주 및 흡연	• 음주 여부, 횟수, 양, 과음 횟수
			• 흡연 여부, 하루 흡연량
	직업 특성	일반적 특성	• 취/학업 상태
		취업 특성	• 재직 상태, 직장 변동 여부, 지위, 직업분류
			• (주중, 주말) 근무 일, 시간, 출퇴근 시간
			• 전반적 일자리 만족도
	양육 특성	양육 실제	• 양육방식(성취압력)
			• 아동학대
			• 부모애착
			• 보호자가 인식한 친구 수
			• 부모 감독, 하루 중 성인 없이 있는 시간
			• 학습에 대한 부모 참여
가구특성	인구학적 특성	가구 구성	• 가구 구성 형태, 가구원 수
		구성원 특성	• 성별, 생년월일, 결혼 여부, 합가 사유
	물리적 특성	주거환경	• ○○(이) 개별 방 여부
		생활환경	• 애완동물 수
	경제적 특성	소득	• 가구 소득, 취업 모 근로 소득
			•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 경제적 상황에 대한 가족의 걱정 빈도
		지출	• 가구 및 자녀에 대한 소비성, 비소비성 지출
			• ○○(이) 용돈 지급 여부, 지급액
			• 용돈 사용처
		자산 및 부채	• 부동산, 금융자산
			• 부채 여부, 부채액, 월 상환액

나. 부모 특성

1) 개인 및 부부특성

가) 인구학적 특성

패널아동이 초등학교 5학년(만11세)이 되는 2019년(12차년도 조사) 기준으로 아버지는 평균 44.56세, 어머니는 평균 42.09세로 나타났다. 어머니, 아버지의 최종학력으로는 11차년도 조사와 동일하게 모두 대학교 졸업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구체적으로 전체 패널 어머니의 38.1%, 아버지의 41.3%가 대졸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Ⅲ-3-2〉 부모의 인구학적 특성

단위: %(명), 세

연령	어머니	아버지	학력	어머니	아버지
20대	0.0	0.0	초졸	0.1	0.0
30대	22.7	9.1	중졸	0.4	0.5
40대	74.5	81.5	고졸	25.5	25.3
50대 이상	2.8	9.4	전문대졸	29.2	20.6
평균	42.09	44.56	대졸	38.1	41.3
표준편차	3.63	3.91	대학원졸	6.7	12.2
계(수)	100.0(1,387)	100.0(1,366)	계(수)	100.0(1,387)	100.0(1,366)

패널아동과 부모와의 동거 여부 및 비동거 이유를 조사한 결과, 어머니의 경우는 99.4%, 아버지 94.4%로 대부분의 경우는 패널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과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그 이유를 살펴보면 타지역 근무 혹은 학업으로 인해 떨어져 산다고 응답한 경우가 부모 각각 90.8%, 87.5%로 가장 많았다. 그 외에 국내외 유학중, 장기입원/요양중, 기타 등의 이유도 일부 있었다.

〈표 Ⅲ-3-3〉 아동과의 동거 여부 및 비동거 이유

단위: %(명)

구분	동거 여부			비동거 이유				
	동거	비동거	계(수)	타지역 근무 (학업)	국내외 유학중	장기입원, 요양중	기타	계(수)
어머니	99.4	0.6	100.0(1,387)	87.5	12.5	0.0	0.0	100.0(8)
아버지	94.4	5.6	100.0(1,363)	90.8	2.6	1.3	5.3	100.0(76)

주: 보호자의 응답임.

나) 심리학적 특성

부모의 심리학적 특성에서 가장 먼저 살펴볼 특성은 우울이다. 부모의 우울 수준은 Kessler 우울척도(K6)를 사용하여 총 6개 문항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조사되었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한국아동패널 홈페이지, 인출일: 2020. 08.10[6]). 6개 문항에 대하여 합산 점수를 사용하여, 6점~13점은 정상수준, 14점~18점은 경도/중등도 우울로, 19점에서 30점 사이는 중도 우울로 구분하도록 되어있다(한국아동패널 홈페이지, 인출일: 2020.08.10[8]). 이렇게 구분한 우울 수준에 따른 패널가구 부모의 우울 정도를 측정한 결과, 어머니의 18.2%가 경도/중증도, 6.0%는 중도 수준의 우울 증세를 보였고, 아버지의 20.8%가 경도/중증도, 5.8%는 중도 수준의 우울 증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특성집단별로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경우는 가구 소득수준과 최종학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Ⅲ-3-4〉 부모의 우울

단위: %(명)

구분	어머니				아버지			
	정상	경도/중등도	중도	계(수)	정상	경도/중등도	중도	계(수)
전체	75.8	18.2	6.0	(1,308)	73.4	20.8	5.8	(1,243)
모 취업 여부								
취업	76.0	18.5	5.5	(745)	73.1	19.9	6.9	(692)
미취업	76.0	17.7	6.3	(526)	73.8	21.9	4.3	(507)
$\chi^2(df)$	0.44(2)				3.93(2)			
부모 학력								
고졸이하	67.1	24.0	8.9	(337)	69.8	22.8	7.4	(325)
전문대졸	79.8	15.2	5.0	(381)	77.8	16.0	6.2	(257)
대졸이상	79.0	16.5	4.5	(575)	73.3	21.7	4.9	(649)
$\chi^2(df)$	21.65(4)***				7.33(4)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68.5	19.0	12.5	(273)	73.8	21.0	5.2	(248)
400~499만원	73.5	19.6	7.0	(230)	71.7	20.2	8.1	(223)
500~599만원	74.1	21.5	4.4	(270)	68.6	25.8	5.7	(264)
600~699만원	83.3	13.7	3.0	(168)	77.8	15.2	7.0	(158)
700만원 이상	82.3	14.9	2.8	(282)	77.0	18.9	4.1	(270)
$\chi^2(df)$	37.57(8)***				11.74(8)			

8) 한국아동패널 홈페이지〉자료실〉자료안내〉 도구프로파일〉[부모 특성변인] 우울 https://panel.kicce.re.kr/panel/board/view.do?menu_idx=42&editMode=ADD&board_idx=33354&manage_idx=26&old_menu_idx=0&old_manage_idx=0&old_board_idx=0&group_depth=0&parent_idx=0&group_idx=0&group_ord=0&viewMode=NORMAL&search_type=title&search_text=%EC%9A%B0%EC%9A%B8&rowCount=10&viewPage=1.에서 2020. 8. 10 인출함.

구분	어머니				아버지			
	정상	경도/중등도	중도	계(수)	정상	경도/중등도	중도	계(수)
지역								
대도시	73.9	19.3	6.8	(528)	71.2	22.9	5.9	(493)
중소도시	77.0	17.6	5.4	(709)	74.4	19.6	6.0	(679)
읍면	77.5	15.5	7.0	(71)	78.9	18.3	2.8	(71)
$x^2(df)$	2.39(4)				3.62(4)			

주: 1) 어머니/아버지의 응답임.
2) 5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
** $p < .01$, *** $p < .001$.

패널가구 부모의 주관적 행복감은 7점 만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조사결과, 어머니의 주관적 행복감은 평균 5.19점, 아버지는 5.30점으로 나타났다. 우울과 유사한 패턴으로 최종학력, 가구 소득에 따라 집단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부모 모두 최종학력이 전문대 졸업 이상인 경우 고등학교 졸업 집단에 비해 행복감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구 소득의 경우에도 소득수준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행복감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표 Ⅲ-3-5〉 부모의 주관적 행복감

단위: 점(명)

구분	어머니			아버지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5.19	1.00	(1,308)	5.30	0.95	(1,243)
모 취업 여부						
취업	5.17	0.99	(745)	5.27	0.94	(692)
미취업	5.23	1.01	(526)	5.34	0.96	(507)
t	-1.15			-1.19		
부모 학력						
고졸이하[a]	4.90	1.07	(337)	5.11	0.99	(325)
전문대졸[b]	5.30	0.89	(381)	5.32	0.93	(257)
대졸이상[c]	5.30	0.97	(575)	5.38	0.91	(649)
F	20.68*** c,b〉a			9.06*** c,b〉a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a]	4.99	1.13	(273)	5.17	1.01	(248)
400~499만원[b]	5.11	1.01	(230)	5.18	1.04	(223)
500~599만원[c]	5.12	0.96	(270)	5.22	0.89	(264)
600~699만원[d]	5.33	0.86	(168)	5.34	0.86	(158)
700만원 이상[e]	5.46	0.89	(282)	5.54	0.87	(270)
F	9.55*** e〉a,b,c · d〉a			7.07*** e〉c,b,a		

구분	어머니			아버지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지역						
대도시[a]	5.17	1.01	(528)	5.24	0.94	(493)
중소도시[b]	5.22	0.99	(709)	5.33	0.95	(679)
읍면[c]	5.16	0.93	(71)	5.31	0.98	(71)
F	0.45			1.28		

주: 어머니/아버지의 응답임.
*** $p < .001$.

다음으로는 패널가구 부모의 일상적 스트레스 수준을 조사·분석하였는데, 4점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일상적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먼저 12차년도 어머니의 일상적 스트레스는 평균 2.91점으로, 응답자 전체의 58.8%가 약간 받음으로 응답하였다. 어머니의 최종학력이 고졸이하인 경우에 다른 집단에 비해 일상적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편차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었는데, 읍면지역의 어머니가 중소지역의 어머니보다 일상적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3-6〉 모의 일상적 스트레스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받지 않음	별로 받지 않음	약간 받음	많이 받음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0.6	24.3	58.8	16.3	100.0(1,308)	2.91	0.65
모 취업 여부							
취업	0.5	22.4	60.9	16.1	100.0(745)	2.93	0.63
미취업	0.8	27.0	56.3	16.0	100.0(526)	2.87	0.67
$x^2(df)/t$	4.05(3)					1.39	
모 학력							
고졸이하[a]	1.2	20.2	56.1	22.6	100.0(337)	3.00	0.69
전문대졸[b]	0.5	25.5	59.6	14.4	100.0(381)	2.88	0.64
대졸이상[c]	0.3	25.6	60.5	13.6	100.0(575)	2.87	0.62
$x^2(df)/F$	17.79(6)**					4.64** a>b,c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a]	1.1	20.9	56.8	21.2	100.0(273)	2.98	0.68
400~499만원[b]	0.4	24.3	58.7	16.5	100.0(230)	2.91	0.65
500~599만원[c]	0.7	25.6	58.5	15.2	100.0(270)	2.88	0.65
600~699만원[d]	0.6	28.6	56.0	14.9	100.0(168)	2.85	0.66
700만원 이상[e]	0.4	25.5	60.3	13.8	100.0(282)	2.88	0.63
$x^2(df)/F$	10.20(12)					1.46	

구분	전혀 받지 않음	별로 받지 않음	약간 받음	많이 받음	계(수)	평균	표준 편차
지역							
대도시[a]	0.6	24.8	56.1	18.6	100.0(528)	2.93	0.67
중소도시[b]	0.6	25.0	60.6	13.8	100.0(709)	2.88	0.63
읍면[c]	1.4	14.1	60.6	23.9	100.0(71)	3.07	0.66
$x^2(df)/F$	12.01(6)					3.23*	c>b

주: 1) 어머니의 응답임.
2) 4점 척도임.(1. 전혀 스트레스 받지 않음 ~ 4. 많이 받음).
* $p < .05$, ** $p < .01$.

다음으로 12차년도 패널가구 아버지의 일상적 스트레스는 평균 2.92점으로, 어머니의 스트레스 정도(2.91점)에 비해 근소하게 높았다. 아버지의 경우는 어머니와 다르게, 최종학력, 거주지역에 따른 집단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표 Ⅲ-3-7> 부의 일상적 스트레스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받지 않음	별로 받지 않음	약간 받음	많이 받음	계(수)	평균	표준 편차
전체	1.3	21.2	61.7	15.8	100.0(1,243)	2.92	0.64
모 취업 여부							
취업	1.0	19.8	63.2	16.0	100.0(692)	2.94	0.63
미취업	1.2	21.7	61.3	15.8	100.0(507)	2.92	0.65
$x^2(df)/t$	0.76(3)					0.67	
부 학력							
고졸이하[a]	2.2	22.8	58.8	16.3	100.0(325)	2.89	0.68
전문대졸[b]	0.4	18.7	68.1	12.8	100.0(257)	2.93	0.57
대졸이상[c]	0.9	21.1	61.0	16.9	100.0(649)	2.94	0.64
$x^2(df)/F$	9.80(6)					0.62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a]	3.2	21.8	61.7	13.3	100.0(248)	2.85	0.68
400~499만원[b]	1.3	20.6	59.2	18.8	100.0(223)	2.96	0.67
500~599만원[c]	0.4	18.2	64.0	17.4	100.0(264)	2.98	0.61
600~699만원[d]	0.0	19.6	65.2	15.2	100.0(158)	2.96	0.59
700만원 이상[e]	1.5	26.3	56.7	15.6	100.0(270)	2.86	0.68
$x^2(df)/F$	19.34(12)					2.16	
지역							
대도시[a]	1.0	21.1	63.5	14.4	100.0(493)	2.91	0.62
중소도시[b]	1.2	21.4	60.7	16.8	100.0(679)	2.93	0.65
읍면[c]	4.2	21.1	59.2	15.5	100.0(71)	2.86	0.72
$x^2(df)/F$	6.60(6)					0.44	

주: 1) 아버지의 응답임.
2) 4점 척도임.(1. 전혀 스트레스 받지 않음 ~ 4. 많이 받음).

어머니가 느끼는 삶의 만족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5점 만점에 평균 3.53점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만족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과반수 이상(55.2%)을 차지하였고, 보통이라고 한 경우는 33.1%로 그 뒤를 이었다. 어머니가 느끼는 삶의 만족도는 어머니의 최종학력과 가구 소득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집단 차이를 보였는데, 전문대 이상 학력의 어머니가 고졸 이하 어머니 집단 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가구 소득의 경우에는 소득수준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행복감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표 Ⅲ-3-8〉 모의 삶의 만족도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만족하지 못함	만족하지 못하는 편임	보통	만족하는 편임	매우 만족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1.2	6.9	33.1	55.2	3.6	100.0(1,308)	3.53	0.73
모 취업 여부								
취업	1.3	6.4	34.5	55.0	2.7	100.0(745)	3.51	0.72
미취업	1.0	7.0	31.6	55.5	4.9	100.0(526)	3.56	0.74
$x^2(df)/t$			5.72(4)				−1.26	
모 학력								
고졸이하[a]	2.1	9.5	43.9	42.7	1.8	100.0(337)	3.33	0.76
전문대졸[b]	1.0	6.0	28.6	59.8	4.5	100.0(381)	3.61	0.72
대졸이상[c]	0.7	5.4	29.4	60.3	4.2	100.0(575)	3.62	0.69
$x^2(df)/F$			43.90(8)***				20.28***	c,b〉a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a]	2.2	10.6	42.1	43.6	1.5	100.0(273)	3.32	0.77
400~499만원[b]	2.2	8.3	36.1	49.6	3.9	100.0(230)	3.45	0.79
500~599만원[c]	1.1	4.8	35.9	55.9	2.2	100.0(270)	3.53	0.68
600~699만원[d]	0.0	3.0	29.8	61.9	5.4	100.0(168)	3.70	0.62
700만원 이상[e]	0.7	4.6	23.0	67.0	4.6	100.0(282)	3.70	0.66
$x^2(df)/F$			61.12(16)***				13.49*** e,d,c〉a·e,d〉b	
지역								
대도시[a]	1.9	8.1	34.7	52.8	2.5	100.0(528)	3.46	0.76
중소도시[b]	0.8	6.2	31.7	56.7	4.5	100.0(709)	3.58	0.71
읍면[c]	0.0	4.2	35.2	57.7	2.8	100.0(71)	3.59	0.62
$x^2(df)/F$			11.51(8)				4.37*	

주: 1) 어머니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 전혀 만족하지 못함 ~ 5. 매우 만족).
* p 〈 .05, ** p 〈 .01, *** p 〈 .001.

아버지가 느끼는 삶의 만족도는 평균 3.54점으로 어머니 평균 3.53점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응답 경향과 마찬가지로 만족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과반을 넘어 51.4%였고,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34.8%로 그 다음으로 나타났다. 아버지가 느끼는 삶의 만족도는 어머니 삶의 만족도와 유사하게 최종학력과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최종학력의 경우는 대졸 이상 집단이 고졸 이하 집단 보다 삶의 만족도가 유의하게 높고, 가구 소득의 경우에는 소득수준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표 Ⅲ-3-9〉 부의 삶의 만족도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만족하지 못함	만족하지 못하는 편임	보통	만족하는 편임	매우 만족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0.6	7.4	34.8	51.4	5.7	100.0(1,243)	3.54	0.74
모 취업 여부								
취업	0.7	8.1	33.7	51.7	5.8	100.0(692)	3.54	0.76
미취업	0.6	5.9	36.5	51.9	5.1	100.0(507)	3.55	0.71
$x^2(df)/t$			2.90(4)				−0.30	
부 학력								
고졸이하[a]	0.6	8.9	43.4	43.4	3.7	100.0(325)	3.41	0.73
전문대졸[b]	1.2	5.8	38.1	51.4	3.5	100.0(257)	3.50	0.71
대졸이상[c]	0.5	7.2	29.3	55.9	7.1	100.0(649)	3.62	0.74
$x^2(df)/F$			30.12(8)***				9.57*** c〉a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a]	0.8	8.9	45.6	40.7	4.0	100.0(248)	3.38	0.74
400~499만원[b]	0.9	13.0	42.6	38.6	4.9	100.0(223)	3.34	0.80
500~599만원[c]	0.4	5.7	36.0	54.2	3.8	100.0(264)	3.55	0.68
600~699만원[d]	0.0	4.4	29.7	62.0	3.8	100.0(158)	3.65	0.63
700만원 이상[e]	0.7	3.7	23.0	63.3	9.3	100.0(270)	3.77	0.70
$x^2(df)/F$			78.63(16)***				15.34*** e,d〉a,b·e〉c〉b	
지역								
대도시[a]	1.0	8.5	35.1	50.1	5.3	100.0(493)	3.50	0.77
중소도시[b]	0.4	6.6	33.9	52.9	6.2	100.0(679)	3.58	0.73
읍면[c]	0.0	7.0	42.3	46.5	4.2	100.0(71)	3.48	0.69
$x^2(df)/F$			6.13(8)				1.78	

주: 1) 아버지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 전혀 만족하지 못함 ~ 5. 매우 만족).
* p 〈 .05, ** p 〈 .01, *** p 〈 .001.

취업 중인 어머니를 대상으로 일과 가정생활을 동시에 병행하는데 있어 긍정적인 점과 갈등을 조사한 결과, 이점은 5점 만점에 3.81점, 갈등은 5점 만점에 2.28점으로 나타났다. 이점과 갈등 모두 어머니 최종학력 수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집단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어머니 최종학력이 대졸 이상인 경우는 고졸 이하인 경우에 비해 이점이 많다고 느꼈고, 고졸 이하인 경우가 전문대 졸업한 어머니에 비해 갈등이 많다고 느꼈다.

〈표 Ⅲ-3-10〉 모 일-가정 양립 시 일-가정 이점과 갈등

단위: 점(명)

구분	일-가정 양립: 일-가정 이점			일-가정 양립: 일-가정 갈등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3.81	0.54	(802)	2.28	0.72	(802)
모 학력						
고졸이하[a]	3.69	0.55	(185)	2.38	0.78	(185)
전문대졸[b]	3.79	0.56	(230)	2.21	0.72	(230)
대졸이상[c]	3.87	0.52	(387)	2.27	0.69	(387)
F	7.34*** c〉a			3.28* a〉b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a]	3.83	0.53	(97)	2.31	0.74	(97)
400~499만원[b]	3.77	0.49	(121)	2.30	0.75	(121)
500~599만원[c]	3.79	0.53	(177)	2.22	0.73	(177)
600~699만원[d]	3.82	0.54	(132)	2.23	0.72	(132)
700만원 이상[e]	3.86	0.55	(231)	2.31	0.69	(231)
F	0.80			0.57		
지역						
대도시[a]	3.79	0.53	(312)	2.35	0.74	(312)
중소도시[b]	3.81	0.55	(443)	2.24	0.70	(443)
읍면[c]	3.88	0.59	(47)	2.16	0.73	(47)
F	0.55			3.10*		

주: 1) 어머니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 전혀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
* $p < .05$, *** $p < .001$.

다음은 취업 중인 어머니가 일과 양육을 병행하는데 있어 느끼는 긍정적인 점과 갈등에 대한 응답 결과이다. 이점은 5점 만점에 3.62점이고, 갈등은 2.41점으로 나타났다. 일-양육 이점에 대해서는 학력, 가구 소득, 지역에 따른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던 것에 반해, 일-양육 갈등에 대해서는 어머니 최종학력과 거주

지역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고졸 이하의 어머니가 전문대졸 이상의 어머니 보다, 대도시에 거주하는 어머니가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보다 일-양육 양립에 대한 갈등을 많게 느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Ⅲ-3-11〉 모 일-가정 양립 시 일-양육 이점과 갈등

단위: 점(명)

구분	일-가정 양립: 일-양육 이점			일-가정 양립: 일-양육 갈등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3.62	0.65	(802)	2.41	0.76	(802)
모 학력						
고졸이하[a]	3.55	0.64	(185)	2.56	0.76	(185)
전문대졸[b]	3.65	0.66	(230)	2.35	0.77	(230)
대졸이상[c]	3.63	0.65	(387)	2.38	0.75	(387)
F	1.41			4.49* a〉c,b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a]	3.49	0.80	(97)	2.42	0.79	(97)
400~499만원[b]	3.63	0.61	(121)	2.40	0.80	(121)
500~599만원[c]	3.62	0.60	(177)	2.41	0.74	(177)
600~699만원[d]	3.63	0.66	(132)	2.42	0.82	(132)
700만원 이상[e]	3.67	0.63	(231)	2.43	0.72	(231)
F	1.23			0.04		
지역						
대도시[a]	3.61	0.62	(312)	2.51	0.79	(312)
중소도시[b]	3.61	0.67	(443)	2.34	0.73	(443)
읍면[c]	3.76	0.66	(47)	2.43	0.79	(47)
F	1.18			4.51* a〉b		

주: 1) 어머니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 전혀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
* $p < .05$.

취업 중인 아버지에 대해서도 직장과 가정생활을 병행하는 데 있어 겪는 긍정적인 점과 갈등을 질문한 결과, 이점에 대해서는 5점 만점에 평균 3.9점, 갈등은 2.24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살펴본 어머니(평균 3.81점)에 비해 이점은 근소한 차이로 높게 나왔고, 갈등은 어머니(평균 2.28점)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경우는 일과 가정 병행에 있어 느끼는 이점에 대해 최종학력 수준과 가구 소득 특성에 따라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대졸 이상 아버지인 경우 전문대졸 이하 아버지 보다, 가구 소득이 700만원 이상 아버지의

경우 499만원 이하 아버지에 비해 일과 가정 양립에 대한 이점이 많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3-12〉 부 일-가정 양립 시 일-가정 이점과 갈등

단위: 점(명)

구분	일-가정 양립: 일-가정 이점			일-가정 양립: 일-가정 갈등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3.90	0.61	(1,243)	2.24	0.68	(1,243)
부 학력						
고졸이하[a]	3.77	0.61	(325)	2.23	0.69	(325)
전문대졸[b]	3.86	0.58	(257)	2.26	0.65	(257)
대졸이상[c]	3.98	0.60	(649)	2.23	0.68	(649)
F	14.25*** c>b,a			0.21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a]	3.78	0.62	(248)	2.24	0.69	(248)
400~499만원[b]	3.85	0.63	(223)	2.30	0.72	(223)
500~599만원[c]	3.88	0.57	(264)	2.26	0.66	(264)
600~699만원[d]	3.90	0.59	(158)	2.22	0.67	(158)
700만원 이상[e]	4.05	0.60	(270)	2.18	0.66	(270)
F	7.08*** e>b,a			1.12		
지역						
대도시[a]	3.86	0.59	(493)	2.24	0.66	(493)
중소도시[b]	3.93	0.63	(679)	2.24	0.70	(679)
읍면[c]	3.81	0.65	(71)	2.18	0.61	(71)
F	2.59			0.26		

주: 1) 아버지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 전혀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
*** $p < .001$.

또한 취업 중인 아버지에게 일과 자녀양육 병행 시 느끼는 긍정적인 점과 갈등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점에 대해서는 5점 만점 기준에 평균 3.96점, 갈등은 평균 2.07점으로 나타났다. 관련하여 어머니가 느끼는 이점이 5점 만점에 3.62점이고, 갈등은 2.41점이었던 것에 비해 이점은 많다고 느끼고, 갈등은 적게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버지의 최종학력 수준과 가구 소득에 따라 일과 양육 양립 시 느끼는 이점에 차이를 보였는데, 아버지의 최종학력이 대졸 이상인 경우 다른 집단에 비해, 가구 소득이 700만원 이상인 아버지의 경우는 399만원 이하의 아버지에 비해 일-양육 양립시 긍정적인 점이 많다고 느끼고 있었다.

〈표 Ⅲ-3-13〉 부 일-가정 양립 시 일-양육 이점과 갈등

단위: 점(명)

구분	일-가정 양립: 일-양육 이점			일-가정 양립: 일-양육 갈등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3.96	0.67	(1,243)	2.07	0.70	(1,243)
부 학력						
고졸이하[a]	3.84	0.67	(325)	2.12	0.68	(325)
전문대졸[b]	3.91	0.68	(257)	2.12	0.68	(257)
대졸이상[c]	4.05	0.64	(649)	2.01	0.70	(649)
F	11.86*** c〉b,a			3.69*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a]	3.83	0.68	(248)	2.07	0.71	(248)
400~499만원[b]	3.92	0.68	(223)	2.12	0.73	(223)
500~599만원[c]	3.99	0.65	(264)	2.08	0.66	(264)
600~699만원[d]	3.93	0.66	(158)	2.06	0.69	(158)
700만원 이상[e]	4.11	0.65	(270)	2.01	0.69	(270)
F	6.25*** e〉a			0.71		
지역						
대도시[a]	3.95	0.66	(493)	2.06	0.70	(493)
중소도시[b]	3.98	0.67	(679)	2.07	0.70	(679)
읍면[c]	3.88	0.76	(71)	2.02	0.66	(71)
F	0.86			0.19		

주: 1) 아버지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 전혀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
* $p < .05$, *** $p < .001$.

다) 부부 특성

패널가구 부부 특성으로 먼저 부모의 결혼 상태 및 기간을 살펴보면 다수의 경우 유배우 초혼(94.8%)으로 응답하였으며, 평균 결혼기간은 178.7개월로 약 14.9년이었다.

〈표 Ⅲ-3-14〉 부모의 결혼 상태 및 기간

단위: %(명), 개월

구분	결혼 상태								결혼 기간	
	미혼	유배우-초혼	유배우-재혼	동거(사실혼)	사별	이혼	별거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0.1	94.8	1.1	0.0	0.7	3.1	0.2	100.0(1,403)	178.70	37.63

주: 보호자의 응답임.

패널가구 부모의 결혼만족도를 5점 만점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어머니는 평균 3.79점, 아버지는 평균 4.11점으로 어머니에 비해 아버지가 결혼에 대한 만족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아버지 모두 최종학력, 가구 소득 특성에 따라 결혼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 어머니, 아버지 모두 최종학력이 고졸 이하인 경우 보다 전문대졸 이상이 경우에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경우 가구 소득이 700만원 이상인 경우 399만원 이하인 경우에 비해, 아버지의 경우 가구 소득이 700만원 이상인 경우 499만원 이하인 경우에 비해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3-15〉 부모의 결혼만족도

단위: 점(명)

구분	어머니			아버지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3.79	0.82	(1,260)	4.11	0.75	(1,182)
모 취업 여부						
취업	3.72	0.85	(718)	4.09	0.75	(664)
미취업	3.89	0.76	(511)	4.13	0.73	(486)
t	−3.63***			−0.76		
부모 학력						
고졸이하[a]	3.60	0.84	(323)	3.89	0.84	(310)
전문대졸[b]	3.88	0.79	(370)	4.10	0.72	(243)
대졸이상[c]	3.85	0.81	(558)	4.22	0.69	(620)
F	12.06*** b,c〉a			21.24*** c,b〉a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a]	3.66	0.90	(251)	4.00	0.78	(227)
400~499만원[b]	3.72	0.84	(223)	4.01	0.77	(214)
500~599만원[c]	3.78	0.80	(263)	4.06	0.70	(252)
600~699만원[d]	3.86	0.72	(164)	4.20	0.61	(149)
700만원 이상[e]	3.96	0.79	(277)	4.27	0.77	(265)
F	5.12*** e〉a			6.12*** e〉b,a		
지역						
대도시[a]	3.73	0.90	(511)	4.05	0.77	(464)
중소도시[b]	3.84	0.77	(678)	4.16	0.73	(653)
읍면[c]	3.75	0.76	(71)	4.00	0.78	(65)
F	2.85			3.57*		

주: 1) 어머니/아버지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 매우 불만족 ~ 5. 매우 만족).
* $p < .05$, *** $p < .001$.

2) 신체 및 건강 특성

가) 신체 특성

패널아동의 어머니와 아버지 자신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건강 상태를 조사하였다. 먼저, 어머니의 경우 건강 상태가 보통이다 44.6%, 건강한 편이다 41.7% 등으로 응답하였다. 학력이 고졸 이하인 집단인 경우 평균 3.25점으로 다른 집단에 비해 낮게 나타났으며, 가구소득이 399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평균 3.22점으로 가구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집단에 비해 건강 수준을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표 Ⅲ-3-16〉 모의 주관적 건강 상태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건강하지 않음	건강하지 않은 편임	보통임	건강한 편임	매우 건강함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0.6	10.5	44.6	41.7	2.6	100.0(1,308)	3.35	0.73
모 취업 여부								
취업	0.8	9.3	44.7	42.3	3.0	100.0(745)	3.37	0.73
미취업	0.4	12.0	45.1	40.5	2.1	100.0(526)	3.32	0.72
$\chi^2(df)/t$			4.20(4)				1.30	
모 학력								
고졸이하[a]	0.9	12.5	49.0	36.2	1.5	100.0(337)	3.25	0.72
전문대졸[b]	0.5	9.4	42.0	44.4	3.7	100.0(381)	3.41	0.73
대졸이상[c]	0.5	9.7	43.5	43.7	2.6	100.0(575)	3.38	0.72
$\chi^2(df)/F$			11.53(8)				5.15**	b,c〉a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a]	0.4	15.4	47.6	34.8	1.8	100.0(273)	3.22	0.74
400~499만원[b]	0.9	10.4	47.4	37.8	3.5	100.0(230)	3.33	0.74
500~599만원[c]	0.4	8.9	47.8	41.5	1.5	100.0(270)	3.35	0.68
600~699만원[d]	1.2	8.3	34.5	52.4	3.6	100.0(168)	3.49	0.75
700만원 이상[e]	0.4	8.2	40.8	48.2	2.5	100.0(282)	3.44	0.69
$\chi^2(df)/F$			32.06(16)**				4.91***	d,e〉a
지역								
대도시[a]	1.1	11.4	47.0	38.1	2.5	100.0(528)	3.29	0.74
중소도시[b]	0.3	9.7	43.4	43.9	2.7	100.0(709)	3.39	0.71
읍면[c]	0.0	11.3	38.0	47.9	2.8	100.0(71)	3.42	0.73
$\chi^2(df)/F$			9.64(8)				2.99	

주: 1) 어머니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 전혀 건강하지 않음 ~ 5. 매우 건강함).
** p 〈 .01, *** p 〈 .001.

아버지의 경우 45.1%는 건강 상태가 보통이다, 42.0%는 건강한 편이다 등으로 응답하였다. 어머니의 주관적 건강 상태 응답과 비교하면 어머니는 평균 3.35점, 아버지는 평균 3.41점이었다. 아버지의 경우 학력이 고졸 이하인 경우 대졸 이상인 집단에 비해 건강 상태를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3-17〉 부의 주관적 건강 상태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건강하지 않음	건강하지 않은 편임	보통임	건강한 편임	매우 건강함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0.4	8.3	45.1	42.0	4.2	100.0(1,243)	3.41	0.72
부 학력								
고졸이하[a]	0.3	12.0	48.3	36.0	3.4	100.0(325)	3.30	0.73
전문대졸[b]	0.4	7.0	46.7	42.4	3.5	100.0(257)	3.42	0.69
대졸이상[c]	0.5	7.1	43.0	44.8	4.6	100.0(649)	3.46	0.71
$\chi^2(df)/F$			13.73(8)				5.38**	c〉a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a]	0.4	10.5	46.0	39.5	3.6	100.0(248)	3.35	0.73
400~499만원[b]	0.4	9.4	46.6	39.5	4.0	100.0(223)	3.37	0.73
500~599만원[c]	0.0	8.3	48.1	40.2	3.4	100.0(264)	3.39	0.69
600~699만원[d]	0.0	8.2	43.7	45.6	2.5	100.0(158)	3.42	0.68
700만원 이상[e]	0.7	6.7	39.6	46.7	6.3	100.0(270)	3.51	0.75
$\chi^2(df)/F$			15.07(16)				1.94	
지역								
대도시[a]	0.2	8.7	48.1	38.3	4.7	100.0(493)	3.39	0.72
중소도시[b]	0.6	8.0	43.2	44.9	3.4	100.0(679)	3.43	0.71
읍면[c]	0.0	8.5	43.7	39.4	8.5	100.0(71)	3.48	0.77
$\chi^2(df)/F$			10.59(8)				0.77	

주: 아버지의 응답임.
** p 〈 .01.

나) 질환 및 장애

부모의 1·2급 장애 유무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장애가 있는 경우는 어머니 0.9%, 아버지 1.2%이었다.

〈표 Ⅲ-3-18〉 부모의 1·2급 장애 유무

단위: %(명)

구분	있음	없음	계(수)
어머니	0.9	99.1	100.0(1,387)
아버지	1.2	98.8	100.0(1,366)

주: 보호자의 응답임.

다) 음주 및 흡연

부모의 음주 및 흡연 실태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음주 실태를 살펴보면, 음주 횟수, 음주량, 그리고 과음 횟수 모든 측면에서 어머니보다 아버지가 음주를 더 자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 횟수의 경우 어머니는 월 1회 이하(33.3%), 월 2~4회(30.4%)가 가장 많고, 아버지는 월 2~4회(34.5%), 주 2~3회(27.8%)가 가장 많았다. 음주량은 어머니는 과반수(56.2%)가 1잔 또는 2잔이라고 응답한 반면, 아버지는 3잔 또는 4잔 ~ 7잔 또는 9잔까지 골고루 응답이 분포되었다. 과음 회수의 경우 어머니는 전혀 없다 41.8%, 한 달에 1번 미만 28.8% 등으로 응답하였으나 아버지는 일주일에 1번 정도 29.1%, 한 달에 1번 정도 25.5%, 한 달에 1번 미만 22.9%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Ⅲ-3-19〉 부모의 음주 실태

단위: %(명)

음주 횟수			음주량			과음 횟수		
구분	어머니	아버지	구분	어머니	아버지	구분	어머니	아버지
최근 1년간 안 마심	24.8	10.8	1잔 또는 2잔	56.2	17.9	전혀 없음	41.8	15.7
월 1회 이하	33.3	16.8	3잔 또는 4잔	25.5	21.8	한 달에 1번 미만	28.8	22.9
월 2~4회	30.4	34.5	5잔 또는 6잔	11.3	22.7	한 달에 1번 정도	17.1	25.5
주 2~3회	9.6	27.8	7잔에서 9잔	5.3	21.4	일주일에 1번 정도	11.8	29.1
주 4회 이상	1.9	10.1	10잔 또는 그 이상	1.7	16.2	거의 매일	0.5	6.8
계 (수)	100.0 (1,308)	100.0 (1,243)	계 (수)	100.0 (983)	100.0 (1,109)	계 (수)	100.0 (983)	100.0 (1,109)

주: 어머니/아버지의 응답임.

다음으로 흡연 실태를 살펴보면, 아버지는 흡연 중이라는 응답이 42.7%이며, 어머니는 1.4%이었다. 음주 실태와 마찬가지로 흡연에서도 아버지와 어머니 즉, 남녀의 차이가 나타났다.

〈표 Ⅲ-3-20〉 부모의 흡연 실태

단위: %(명)

구분	피움	피우지 않음	계(수)
어머니	1.4	98.6	100.0 (1,308)
아버지	42.7	57.3	100.0 (1,243)

주: 어머니/아버지의 응답임.

3) 직업 특성

가) 일반적 특성

부모의 취업 및 학업 상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95.5%)의 아버지가 취업 중이었으며, 3.5%는 미취업 혹은 미학업 상태였다. 어머니의 경우 56.1%가 취업 중이었으며, 미취업 혹은 미학업 상태는 40.9%이었다. 어머니의 취업률은 11차년도 조사(김은설 외, 2019: 174)에서 52.8%이었던 결과에 비하면 약 3.3%p 높아진 수치이다.

한편 어머니의 취업 및 학업 상태는 아동의 출생순위, 학력 및 가구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아동이 둘째 이상인 경우 취업률은 61.2%, 그리고 어머니의 학력이 대졸 이상인 경우 60.8%로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편이었으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어머니가 취업 중인 경우가 더 많았다.

〈표 Ⅲ-3-21〉 부모 취/학업 상태

단위: %(명)

구분	취업 (휴직 포함)	학업 (휴학 포함)	취업/학업 병행	미취/미학업	계(수)
아버지	95.5	0.1	0.9	3.5	100.0(1,243)
어머니	56.1	0.4	2.6	40.9	100.0(1,365)
아동 출생순위					
외동아	50.7	0.7	3.4	45.2	100.0(146)
첫째	50.0	0.4	2.9	46.7	100.0(480)
둘째 이상	61.2	0.3	2.3	36.2	100.0(737)
$x^2(df)$	17.27(6)**				

구분	취업 (휴직 포함)	학업 (휴학 포함)	취업/학업 병행	미취/미학업	계(수)
모 학력					
고졸이하	50.6	0.3	1.4	47.8	100.0(356)
전문대졸	53.9	0.5	3.8	41.9	100.0(399)
대졸이상	60.8	0.3	2.6	36.2	100.0(610)
$x^2(df)$		16.40(6)*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33.7	1.1	2.2	63.0	100.0(270)
400~499만원	48.3	0.0	2.1	49.6	100.0(240)
500~599만원	61.3	0.0	1.4	37.2	100.0(282)
600~699만원	70.9	0.6	2.8	25.7	100.0(179)
700만원 이상	73.3	0.3	3.7	22.7	100.0(300)
$x^2(df)$		132.23(12)***			
지역					
대도시	54.2	0.2	2.9	42.7	100.0(546)
중소도시	57.0	0.5	2.4	40.1	100.0(746)
읍면	61.6	0.0	2.7	35.6	100.0(73)
$x^2(df)$		3.57(6)			

주: 어머니/아버지의 응답임.
* $p < .05$, ** $p < .01$, *** $p < .001$.

나) 취업 특성

부모의 취업 특성으로는 부모의 재직 상태, 종사상 지위, 그리고 어머니의 근무일과 시간, 어머니의 일자리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먼저, 재직 상태를 조사한 결과를 알아보면, 취업 중인 어머니 중에서 2.4%는 휴직 중이었다. 그리고 어머니의 87.5%, 아버지의 90.1%가 작년과 비교하여 직장이나 직위의 변동이 없이 유지되고 있었다.

〈표 Ⅲ-3-22〉 부모의 재직 상태 및 직장 변동 여부

단위: %(명)

구분	재직상태		직장/직위 변동 여부					
	재직	휴직	변동 없음	직장이 바뀜	직위가 바뀜	지난 조사시 미취/미학	2018 조사 불참	계(수)
어머니	97.6	2.4	87.5	9.3	3.2	0.0	-	100.0(711)
아버지	-	-	90.1	8.6		-	1.3	100.0(1,198)

주: 어머니/아버지의 응답임.

종사상 지위를 살펴보면, 어머니(61.5%)와 아버지(66.4%) 모두 상용직이 가장 많았다. 그리고 어머니는 자영업자 14.2%, 임시직 10.1% 순으로 많았으며, 아버지는 자영업자 11.8%, 고용주 9.2%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Ⅲ-3-23〉 부모의 종사상 지위

단위: %(명)

구분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종업원을 둔 고용주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계(수)
어머니	61.5	10.1	2.2	7.6	14.2	4.4	100.0 (802)
아버지	66.4	5.0	6.7	9.2	11.8	0.8	100.0 (119)

주: 어머니/아버지의 응답임.

어머니의 근무일과 시간을 조사한 결과, 근무일은 주중 평균 4.84일, 주말 평균 0.28일이었으며, 근무시간은 주중 평균 7.57시간, 주말 평균 6.98시간이었다. 한편 근무일과 시간에 있어 아동의 출생순위나 어머니 학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아동이 둘째 이상인 경우 어머니의 1주일 근로시간은 40.04시간으로 외동아인 경우(38.57시간)에 비해 더 길게 일하고 있었다. 또한 어머니의 학력이 고졸이하인 경우 근무일은 5.36일, 근무시간은 42.37시간으로 다른 집단에 비해 더 길게 나타났다.

〈표 Ⅲ-3-24〉 어머니 근무일 및 시간

단위: 일, 시간

구분	근무일		근로시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주중 평균	4.84	0.57	7.57	1.88
주말 평균	0.28	0.55	6.98	2.52
1주일 전체	5.12	0.77	38.99	11.79
아동 출생순위				
외동아[a]	5.11	0.82	38.57	10.61
첫째[b]	5.06	0.70	37.13	11.34
둘째 이상[c]	5.16	0.79	40.04	12.11
F	1.43		4.93** c〉a	
모 학력				
고졸이하[a]	5.36	0.75	42.37	12.39
전문대졸[b]	5.15	0.72	38.89	10.80
대졸이상[c]	4.99	0.77	37.45	11.77
F	15.15*** a〉b,c		10.91*** a〉b,c	

구분	근무일		근로시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a]	5.14	0.82	40.04	14.25
400~499만원[b]	5.07	0.89	37.12	12.15
500~599만원[c]	5.18	0.81	39.08	12.32
600~699만원[d]	5.17	0.64	39.22	10.03
700만원 이상[e]	5.07	0.69	39.63	10.30
F	0.87		1.10	
지역				
대도시[a]	5.06	0.84	38.43	12.31
중소도시[b]	5.15	0.72	39.35	11.28
읍면[c]	5.24	0.69	39.41	13.07
F	2.02		0.57	

주: 어머니의 응답임.
** $p < .01$, *** $p < .001$.

어머니의 일자리 만족도를 살펴보면, 대체로 만족한다는 응답이 67.3%로 가장 많았고, 보통이라는 응답은 21.4% 등으로 평균 3.85점이었다.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는 어머니의 학력과 가구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어머니의 학력이 전문대졸이나 대졸이상인 경우 고졸이하 집단에 비해 만족도가 높았으며, 가구소득이 700만원 이상인 경우 가구소득이 낮은 집단에 비해 만족도가 더 높았다.

〈표 Ⅲ-3-25〉 어머니의 일자리 만족도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만족하지 않음	대체로 만족하지 않음	보통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0.2	1.4	21.4	67.3	9.6	100.0(802)	3.85	0.60
아동 출생순위								
외동아[a]	0.0	2.5	24.1	65.8	7.6	100.0(79)	3.78	0.61
첫째[b]	0.0	0.0	21.3	67.7	11.0	100.0(254)	3.90	0.56
둘째 이상[c]	0.4	1.9	21.2	67.3	9.2	100.0(468)	3.83	0.62
$\chi^2(df)/F$			7.97(8)				1.52	
모 학력								
고졸이하[a]	0.5	3.8	29.2	58.9	7.6	100.0(185)	3.69	0.69
전문대졸[b]	0.0	0.9	20.9	67.4	10.9	100.0(230)	3.88	0.58
대졸이상[c]	0.3	0.5	18.1	71.3	9.8	100.0(387)	3.90	0.56
$\chi^2(df)/F$			22.84(8)**				8.09*** c,b>a	

구분	전혀 만족하지 않음	대체로 만족하지 않음	보통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계(수)	평균	표준편차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a]	1.0	3.1	33.0	53.6	9.3	100.0(97)	3.67	0.73
400~499만원[b]	0.0	0.8	29.8	63.6	5.8	100.0(121)	3.74	0.57
500~599만원[c]	0.0	0.6	21.5	68.9	9.0	100.0(177)	3.86	0.56
600~699만원[d]	0.0	2.3	20.5	67.4	9.8	100.0(132)	3.85	0.61
700만원 이상[e]	0.4	0.9	11.3	74.9	12.6	100.0(231)	3.98	0.56
$\chi^2(df)/F$			38.55(16)**				6.08***	e>b,a

주: 1) 어머니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 전혀 만족하지 않음 ~ 5. 매우 만족).
** $p < .01$, *** $p < .001$.

4) 양육 특성

가) 양육실제

부모의 양육실제는 성취압력, 아동학대, 부모애착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부모의 성취압력은 평균 2.30점으로 보고되었다. 아동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남아(2.35점)의 경우 여아(2.26점)에 비해 부모에게서 학업에 대한 성취 압력을 더 많이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Ⅲ-3-26〉 부모의 성취압력

단위: 점(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2.30	0.66	(1,393)
아동 성별			
남	2.35	0.66	(713)
여	2.26	0.67	(680)
t	2.40*		
아동 출생순위			
외동아[a]	2.28	0.64	(147)
첫째[b]	2.30	0.70	(494)
둘째 이상[c]	2.31	0.65	(750)
F	0.19		
모 취업 여부			
취업	2.30	0.65	(795)
미취업	2.33	0.67	(553)
t	-0.89		

구분	평균	표준편차	(수)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a]	2.27	0.69	(285)
400~499만원[b]	2.29	0.64	(240)
500~599만원[c]	2.31	0.66	(282)
600~699만원[d]	2.36	0.70	(184)
700만원 이상[e]	2.33	0.65	(303)
F	0.69		

주: 1) 아동 응답임.
2) 5점 척도임(1. 전혀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
* $p < .05$.

부모의 아동학대 정도는 신체적 학대(내 몸에 멍이 들거나 상처가 남을 정도로 부모님(보호자)께서 나를 심하게 대하신 적이 있다)와 언어적 학대(부모님은 나에게 심한 말이나 욕을 하신 적이 있다)로 구분하여 아동이 응답하도록 하였다.

신체적 학대 경험은 대부분 전혀 없음(87.6%)으로 응답하였으며, 지난 6개월 간 한두 번 8.2%, 한 달에 한두 번 3.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남아의 경우 전혀 없음 84.0%, 지난 6개월 간 한두 번 10.2%로 응답한 반면 여아인 경우 전혀 없음 91.3%, 지난 6개월 간 한두 번 6.0%로 응답하여 남아가 신체적 학대를 경험한 빈도가 좀 더 높았다.

〈표 Ⅲ-3-27〉 아동학대 (신체적 학대 경험)

단위: %(명)

구분	전혀 없음	지난 6개월간 한두번	한 달에 한두번	일주일에 한두번	거의 매일	계(수)
전체	87.6	8.2	3.2	0.7	0.4	100.0(1,393)
아동 성별						
남	84.0	10.2	3.9	1.1	0.7	100.0(713)
여	91.3	6.0	2.4	0.3	0.0	100.0(680)
$x^2(df)$			20.48(4)***			
아동 출생순위						
외동아	88.4	6.1	4.1	1.4	0.0	100.0(147)
첫째	86.8	7.5	4.7	0.6	0.4	100.0(494)
둘째 이상	87.9	9.1	2.0	0.7	0.4	100.0(750)
$x^2(df)$			10.44(8)			
모 취업 여부						
취업	88.4	7.3	2.9	0.9	0.5	100.0(795)
미취업	86.6	9.2	3.4	0.5	0.2	100.0(553)
$x^2(df)$			3.34(4)			

구분	전혀 없음	지난 6개월간 한두번	한 달에 한두번	일주일에 한두번	거의 매일	계(수)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86.7	8.1	3.9	0.4	1.1	100.0(285)
400~499만원	85.8	9.2	3.3	1.7	0.0	100.0(240)
500~599만원	87.6	6.7	3.9	1.4	0.4	100.0(282)
600~699만원	85.9	9.8	4.3	0.0	0.0	100.0(184)
700만원 이상	90.4	7.3	1.7	0.3	0.3	100.0(303)
$x^2(df)$			17.81(16)			

주: 아동 응답임.
*** $p < .001$.

언어적 학대의 경우에도 전혀 없음이 78.2%, 지난 6개월 간 한두 번 12.7% 등의 순으로 응답이 나타났으나, 신체적 학대 경험보다는 언어적 학대를 경험한 아동이 더 많았다. 또한 남아(전혀 없음 74.8%)가 여아(전혀 없음 81.8%)에 비해 언어적인 학대를 경험하였다는 응답이 더 많이 나타났다.

〈표 Ⅲ-3-28〉 아동학대 (언어적 학대 경험)

단위: 점(명)

구분	전혀 없음	지난 6개월간 한두번	한 달에 한두번	일주일에 한두번	거의 매일	(수)
전체	78.2	12.7	6.0	2.4	0.7	100.0(1,393)
아동 성별						
남	74.8	14.4	6.9	2.8	1.1	100.0(713)
여	81.8	10.9	5.1	1.9	0.3	100.0(680)
$x^2(df)$			11.88(4)*			
아동 출생순위						
외동아	73.5	14.3	8.2	3.4	0.7	100.0(147)
첫째	76.5	13.6	6.9	2.6	0.4	100.0(494)
둘째 이상	80.1	11.9	5.1	2.0	0.9	100.0(750)
$x^2(df)$			7.20(8)			
모 취업 여부						
취업	78.6	12.1	6.0	2.3	1.0	100.0(795)
미취업	77.8	13.4	6.1	2.4	0.4	100.0(553)
$x^2(df)$			2.32(4)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75.4	15.1	5.3	3.5	0.7	100.0(285)
400~499만원	76.7	13.3	7.1	2.5	0.4	100.0(240)
500~599만원	79.4	9.9	8.9	1.1	0.7	100.0(282)
600~699만원	73.9	15.8	4.9	4.3	1.1	100.0(184)
700만원 이상	83.8	10.6	4.0	1.3	0.3	100.0(303)
$x^2(df)$			23.86(16)			

주: 아동 응답임.
* $p < .05$.

부모 애착은 아동이 어머니와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해 각각 응답하였으며, 의사소통, 소외감, 신뢰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관계를 의미한다. 아동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은 의사소통 3.94점, 소외감 3.45점, 신뢰감 4.19점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출생순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외동아인 경우 둘째 이상인 아동에 비해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수준이 긍정적이고 소외감을 느끼고 있지 않았다. 한편 큰 차이는 아니었으나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소외감이나 신뢰감 수준에서 긍정적인 경향을 보였다.

〈표 Ⅲ-3-29〉 부모애착: 어머니

단위: 점(명)

구분	(수)	의사소통		소외감		신뢰감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1,383)	3.94	0.74	3.45	0.76	4.19	0.71
아동 성별							
남	(708)	3.94	0.74	3.46	0.78	4.18	0.72
여	(675)	3.94	0.74	3.44	0.74	4.20	0.69
t		0.07		0.52		-0.58	
아동 출생순위							
외동아[a]	(146)	4.07	0.75	3.61	0.74	4.25	0.72
첫째[b]	(493)	3.98	0.71	3.46	0.77	4.20	0.69
둘째 이상[c]	(742)	3.88	0.75	3.41	0.75	4.17	0.71
F		5.30** a〉c		3.94* a〉c		0.84	
모 취업 여부							
취업	(794)	3.91	0.74	3.42	0.74	4.19	0.70
미취업	(553)	3.98	0.73	3.50	0.80	4.20	0.71
t		-1.68		-1.93		-0.28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a]	(277)	3.92	0.73	3.38	0.78	4.13	0.74
400~499만원[b]	(240)	3.89	0.77	3.41	0.76	4.13	0.73
500~599만원[c]	(282)	3.97	0.72	3.51	0.76	4.23	0.66
600~699만원[d]	(184)	3.90	0.74	3.36	0.78	4.15	0.74
700만원 이상[e]	(303)	3.99	0.73	3.52	0.72	4.27	0.68
F		0.84		2.58*		2.43*	

주: 1) 아동 응답임.
2) 5점 척도임(1. 전혀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
* $p < .05$, ** $p < .01$.

아동의 아버지에 대한 애착은 의사소통 3.52점, 소외감 3.34점, 신뢰감 4점으로 보통 이상의 긍정적인 수준이었으며, 어머니와의 애착 점수와 비교하면 약간 낮은

수준이었다. 아버지와의 애착 수준에서도 아동의 출생순위 및 가구소득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아동이 외동아인 경우 둘째 이상인 아동에 비해 의사소통 수준이 긍정적이었다. 또한 가구소득이 700만원 이상인 집단에서 가구소득이 가장 낮은 집단에 비해 의사소통 점수가 높게 나타났는데, 아버지와의 애착 전반적으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경향을 보였다.

〈표 Ⅲ-3-30〉 부모애착: 아버지

단위: 점(명)

구분	(수)	의사소통		소외감		신뢰감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1,374)	3.52	0.79	3.34	0.75	4.00	0.79
아동 성별							
남	(705)	3.54	0.79	3.36	0.78	3.99	0.80
여	(669)	3.49	0.80	3.32	0.73	4.02	0.77
t		1.12		0.94		-0.75	
아동 출생순위							
외동아[a]	(145)	3.66	0.82	3.38	0.79	4.07	0.80
첫째[b]	(490)	3.58	0.77	3.37	0.78	4.04	0.79
둘째 이상[c]	(737)	3.45	0.80	3.31	0.73	3.96	0.78
F		6.90** a〉c		1.04		2.39	
모 취업 여부							
취업	(780)	3.48	0.79	3.32	0.74	3.97	0.79
미취업	(550)	3.56	0.79	3.37	0.77	4.04	0.78
t		-1.78		-1.28		-1.46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a]	(273)	3.42	0.81	3.19	0.83	3.86	0.84
400~499만원[b]	(237)	3.49	0.81	3.38	0.75	4.05	0.76
500~599만원[c]	(280)	3.50	0.77	3.39	0.74	4.06	0.76
600~699만원[d]	(183)	3.54	0.80	3.36	0.70	4.00	0.82
700만원 이상[e]	(302)	3.64	0.77	3.36	0.74	4.06	0.75
F		2.91* e〉a		3.18*		3.32*	

주: 1) 아동 응답임.
2) 5점 척도임(1. 전혀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
* $p < .05$, ** $p < .01$.

나) 부모 감독과 참여

부모의 자녀에 대한 관심이나 감독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부모가 자녀의 학교생활 등에 얼마나 참여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보호자가 알고 있는 아동의 친구

수, 하루 중 성인이 없는 시간, 자녀 감독 수준, 부모 참여 정도를 조사하였다.

첫째, 부모(보호자)가 알고 있는 아동의 친구 수는 평균 8.3명이었다. 11차년도 조사(김은설 외, 2019: 182)에서는 평균 9.15명이었으므로 다소 감소한 결과이다. 아동의 출생순위, 어머니의 취업 여부, 학력 및 가구소득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아동이 외동이거나 첫째일 때 둘째 이상에 비해 더 많은 친구를 알고 있었으며, 어머니가 미취업 중일 때, 학력이 대졸 이상인 경우, 그리고 가구소득이 700만원 이상으로 고소득인 경우 알고 있는 친구의 수가 더 많았다.

〈표 Ⅲ-3-31〉 보호자가 알고 있는 아동의 친구 수

단위: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8.30	7.58	(1,412)
아동 성별			
남	8.20	7.32	(725)
여	8.41	7.85	(687)
t	-0.52		
아동 출생순위			
외동아[a]	10.34	8.52	(150)
첫째[b]	9.42	9.30	(501)
둘째 이상[c]	7.17	5.72	(759)
F	19.87*** a,b〉c		
모 취업 여부			
취업	7.81	6.83	(802)
미취업	9.39	8.62	(563)
t	-3.63***		
모 학력			
고졸이하[a]	7.41	5.60	(361)
전문대졸[b]	7.94	6.98	(405)
대졸이상[c]	9.26	8.85	(621)
F	7.88*** c〉b,a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a]	7.32	6.33	(288)
400~499만원[b]	8.74	7.75	(245)
500~599만원[c]	8.36	7.32	(286)
600~699만원[d]	7.46	5.48	(185)
700만원 이상[e]	9.65	9.72	(308)
F	4.31** e〉d,a		

주: 보호자의 응답임.
** $p < .01$, *** $p < .001$.

둘째, 하루 중 아동이 성인 없이 있는 시간은 평균 2.6시간이었다. 아동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나 출생순위가 첫째인 경우 둘째 이상인 아동에 비해 성인 없이 있는 시간이 짧았다. 그리고 어머니가 취업 중인 경우 그리고 학력이 고졸이하인 경우 다른 집단의 아동에 비해 성인 없이 있는 시간이 더 길었다.

〈표 Ⅲ-3-32〉 하루 중 성인 없이 있는 시간

단위: 시간(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2.60	1.30	(1,412)
아동 성별			
남	2.62	1.32	(725)
여	2.57	1.28	(687)
t	0.68		
아동 출생순위			
외동아[a]	2.54	1.36	(150)
첫째[b]	2.38	1.15	(501)
둘째 이상[c]	2.75	1.37	(759)
F	12.24*** c〉b		
모 취업 여부			
취업	2.90	1.35	(802)
미취업	2.18	1.08	(563)
t	10.90***		
모 학력			
고졸이하[a]	2.80	1.51	(361)
전문대졸[b]	2.56	1.19	(405)
대졸이상[c]	2.50	1.22	(621)
F	6.23** a〉b,c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a]	2.67	1.46	(288)
400~499만원[b]	2.64	1.44	(245)
500~599만원[c]	2.69	1.28	(286)
600~699만원[d]	2.58	1.14	(185)
700만원 이상[e]	2.51	1.23	(308)
F	0.93		

주: 보호자의 응답임.
** $p < .01$, *** $p < .001$.

셋째, 부모(보호자)가 자녀의 행방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서로 연락을 주고받는지 등을 포함하는 부모의 자녀 감독 수준은 평균 4.66점으로 감독이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아동이 외동인 경우 4.8점으로 형제자매가 있는 아동에 비해 부모의 자녀 감독 수준이 높았고, 어머니가 미취업 중인 경우 그리고 학력이 대졸 이상인 경우 감독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다.

〈표 Ⅲ-3-33〉 부모의 자녀 감독 수준

단위: 점(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4.66	0.55	(1,412)
아동 성별			
남	4.66	0.59	(725)
여	4.66	0.50	(687)
t	0.06		
아동 출생순위			
외동아[a]	4.80	0.74	(150)
첫째[b]	4.68	0.55	(501)
둘째 이상[c]	4.62	0.50	(759)
F	7.10*** a〉b,c		
모 취업 여부			
취업	4.60	0.57	(802)
미취업	4.76	0.51	(563)
t	−5.57***		
모 학력			
고졸이하[a]	4.61	0.52	(361)
전문대졸[b]	4.66	0.51	(405)
대졸이상[c]	4.70	0.59	(621)
F	3.00* c〉a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a]	4.66	0.57	(288)
400~499만원[b]	4.70	0.41	(245)
500~599만원[c]	4.66	0.62	(286)
600~699만원[d]	4.60	0.48	(185)
700만원 이상[e]	4.71	0.61	(308)
F	1.19		

주: 1) 보호자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 전혀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
* $p < .05$, *** $p < .001$.

마지막으로 부모 참여는 자녀의 학습과 관련하여 가정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얼마나 부모가 참여하는지를 의미한다. 가정 기반 참여도는 평균 2.54점, 학교 기반 참여도는

평균 2.06점이었으며, 전체 평균은 2.34점이었다. 부모 참여에 있어 아동 성별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출생순위에 따른 차이는 있었는데, 가정 및 학교 기반 참여도 모두 아동이 둘째 이상일 때 보다는 외동이거나 첫째일 때 높았다. 또한 어머니가 미취업 중인 경우 취업 중인 경우에 비해 가정 및 학교 기반 참여도가 더 높았다. 또한 가정 기반 참여도는 700만원 이상의 고소득 가구가 399만원 이하의 저소득 가구에 비해 높았으며, 읍면지역보다는 도시지역에서 더 높은 수준으로 보고되었다.

〈표 Ⅲ-3-34〉 부모 참여

단위: 점(명)

구분	계(수)	가정 기반 참여도		학교 기반 참여도		전체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100.0(1,412)	2.54	0.49	2.06	0.70	2.34	0.49
아동 성별							
남	100.0(725)	2.56	0.49	2.08	0.71	2.36	0.49
여	100.0(687)	2.53	0.49	2.04	0.69	2.33	0.49
t		1.07		1.08		1.25	
아동 출생순위							
외동아[a]	100.0(150)	2.60	0.46	2.16	0.75	2.42	0.49
첫째[b]	100.0(501)	2.63	0.47	2.19	0.67	2.45	0.47
둘째 이상[c]	100.0(759)	2.48	0.50	1.96	0.70	2.26	0.50
F		16.14^{***}	b,a〉c	18.32^{***}	b,a〉c	23.66^{***}	b,a〉c
모 취업							
취업	100.0(802)	2.50	0.48	1.97	0.69	2.28	0.48
미취업	100.0(563)	2.62	0.49	2.22	0.68	2.46	0.49
t		-4.40^{***}		-6.65^{***}		-6.50^{***}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a]	100.0(288)	2.46	0.51	1.99	0.76	2.27	0.53
400~499만원[b]	100.0(245)	2.53	0.48	2.06	0.69	2.34	0.49
500~599만원[c]	100.0(286)	2.53	0.48	2.06	0.68	2.34	0.48
600~699만원[d]	100.0(185)	2.58	0.45	2.13	0.67	2.39	0.46
700만원 이상[e]	100.0(308)	2.62	0.49	2.09	0.70	2.41	0.48
F		4.39^{**}	e〉a	1.38		3.42^{**}	e〉a
지역							
대도시[a]	100.0(566)	2.57	0.49	2.08	0.71	2.37	0.50
중소도시[b]	100.0(771)	2.54	0.48	2.05	0.70	2.34	0.48
읍면[c]	100.0(75)	2.39	0.52	2.02	0.75	2.24	0.54
F		4.47^{*}	a,b〉c	0.57		2.53	

주: 1) 보호자의 응답임.
2) 4점 척도임(1. 드물다 ~ 4. 항상 그렇다)
* p 〈 .05, ** p 〈 .01, *** p 〈 .001.

다. 가구 특성

1) 인구학적 특성

패널가구의 특성을 살펴보면 가구 구성에 있어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 형태의 가구가 86.8%로 가장 많았으며, 조부모, 부모 및 자녀로 구성된 가구는 8.8%, 친척도 함께 거주하는 가구는 3.8% 등이었다. 평균 가구원 수는 4.67명이었다.

〈표 Ⅲ-3-35〉 가구 구성 및 가구원 수

단위: %(가구), 명

가구 구성						가구원 수	
부모+자녀	조부모+부모+자녀	부모+자녀+친척	조부모+부모+자녀+친척	기타	계(수)	평균	표준편차
86.8	8.8	0.6	3.8	0.1	100.0(1,412)	4.67	1.95

주: 보호자의 응답임.

2) 물리적 특성

아동에게 단독 방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방이 있는 아동은 전체의 69.0%이었다.

〈표 Ⅲ-3-36〉 패널아동의 단독 방 여부

단위: %, 명

있음	없음	(수)
69.0	31.0	100.0(1,412)

주: 보호자의 응답임.

3) 경제적 특성

가) 소득

근로소득을 비롯하여 금융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을 모두 포함한 패널가구의 월평균 가구 소득은 약 565만원이었으며, 그 범위는 최솟값은 0원, 최댓값은 9천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월평균 가구 소득에 대한 이전 조사결과를 비교하면 10

차년도 조사에서는 약 551만원, 11차년도 조사에서는 약 556만원으로 약간 높아진 수준이다(김은설 외, 2019: 188). 어머니의 소득은 월평균 약 239만원으로 나타났으며, 10차년도 조사에서는 약 239만원, 11차년도 조사에서는 약 231만원이었다(김은설 외, 2019: 188).

〈표 Ⅲ-3-37〉 월평균 가구 소득 및 어머니 근로소득

단위: 만원(가구)

구분	평균	표준편차	중위값	최솟값	최대값	(수)
월평균 가구 소득	565.39	425.62	500.00	0.00	9,000.00	(1,312)
월평균 어머니 소득	239.23	199.26	200.00	0.00	4,000.00	(746)

주: 보호자의 응답임.

보호자가 인식한 주관적인 사회경제적 지위는 대한민국에서의 지위와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나 공동체에서의 지위로 나누어서 조사하였다. 먼저, 대한민국에서의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는 평균 5.17단계로 10점 척도에서 중간 정도의 수준이다.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 및 공동체에서의 지위는 평균 5.49단계로 대한민국에서의 수준보다는 약간 높은 수준으로 응답하였다. 어머니의 학력과 가구소득에 따라 응답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표 Ⅲ-3-38〉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단위: 점(명)

구분	지위: 대한민국			지위: 지역 사회 및 공동체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5.17	1.38	(1,372)	5.49	1.42	(1,353)
모 취업 여부						
취업	5.17	1.38	(785)	5.49	1.42	(773)
미취업	5.18	1.34	(540)	5.52	1.41	(534)
t	-0.05			-0.33		
모 학력						
고졸이하[a]	4.65	1.34	(344)	5.03	1.43	(340)
전문대졸[b]	5.15	1.30	(396)	5.49	1.29	(388)
대졸이상[c]	5.52	1.33	(607)	5.80	1.39	(600)
F	48.17*** c〉b〉a			34.62*** c〉b〉a		

구분	지위: 대한민국			지위: 지역 사회 및 공동체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a]	4.41	1.27	(275)	4.88	1.41	(271)
400~499만원[b]	4.88	1.27	(241)	5.30	1.33	(237)
500~599만원[c]	5.12	1.23	(280)	5.47	1.26	(276)
600~699만원[d]	5.48	1.25	(183)	5.79	1.31	(180)
700만원 이상[e]	5.96	1.33	(305)	6.10	1.44	(303)
F	59.91*** e〉d〉c,b〉a			31.90*** e,d〉b〉a · e〉c〉a		

주: 1) 보호자의 응답임.
2) 10점 척도임(1. 가장 낮은 수준 ~ 10. 매우 높은 수준).
*** p 〈 .001.

경제적 상황에 대해 가족들이 얼마나 걱정을 하는지에 대해 아동에게 응답하도록 한 결과, 가끔 걱정한다는 응답이 50.6%로 가장 많았으며, 38.8%는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8.3%는 자주 걱정 한다 등으로 응답하였다. 여아들은 남아에 비해 가족들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걱정 빈도를 좀 더 빈번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가구소득이 499만원 이하인 집단에서 고소득 집단에 비해 가족들이 걱정을 한다는 응답이 더 많이 나타났다.

〈표 Ⅲ-3-39〉 경제적 상황에 대한 가족의 걱정 빈도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걱정 하지 않음	가끔 걱정함	자주 걱정함	항상 걱정함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38.8	50.6	8.3	2.3	100.0(1,393)	1.74	0.70
아동 성별							
남	42.6	47.4	8.0	2.0	100.0(713)	1.69	0.70
여	34.7	54.0	8.7	2.6	100.0(680)	1.79	0.71
$x^2(df)/t$	9.51(3)*					-2.65**	
아동 출생순위							
외동아[a]	44.9	48.3	6.1	0.7	100.0(147)	1.63	0.63
첫째[b]	38.5	51.4	8.3	1.8	100.0(494)	1.73	0.69
둘째 이상[c]	37.7	50.5	8.8	2.9	100.0(750)	1.77	0.73
$x^2(df)/F$	6.40(6)					2.59	
모 취업 여부							
취업	39.0	50.3	8.7	2.0	100.0(795)	1.74	0.70
미취업	38.2	51.5	8.1	2.2	100.0(553)	1.74	0.70
$x^2(df)/t$	0.31(3)					-0.16	

구분	전혀 걱정 하지 않음	가끔 걱정함	자주 걱정함	항상 걱정함	계(수)	평균	표준편차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a]	30.9	54.0	11.6	3.5	100.0(285)	1.88	0.74
400~499만원[b]	37.9	48.8	10.0	3.3	100.0(240)	1.79	0.75
500~599만원[c]	40.4	50.4	7.8	1.4	100.0(282)	1.70	0.67
600~699만원[d]	41.3	48.4	8.2	2.2	100.0(184)	1.71	0.71
700만원 이상[e]	48.5	46.2	4.3	1.0	100.0(303)	1.58	0.62
$x^2(df)/F$	30.58(12)**					7.31*** a,b〉e	

주: 아동의 응답임.
* p 〈 .05, ** p 〈 .01, *** p 〈 .001.

나) 지출

패널가구의 월평균 지출은 소비성 지출과 비소비성 지출, 그리고 가구 전체와 자녀에 대한 지출로 나누어서 조사하였다. 그 결과, 가구의 소비성 지출은 평균 약 263만원, 그 중 자녀에 대한 지출은 약 106만원이었으며, 가구의 비소비성 지출은 약 198만원, 자녀에 대한 지출은 약 48만원이었다.

〈표 Ⅲ-3-40〉 월평균 지출

단위: 만원

구분	가구 전체					전체 자녀				
	평균	표준편차	중위값	최솟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중위값	최솟값	최대값
소비성 지출	262.63	133.65	250.00	20.00	1,300.00	105.68	73.01	100.00	0.00	800.00
비소비성 지출	198.30	130.85	160.00	0.00	1,300.00	47.51	44.52	30.00	0.00	300.00

주: 보호자의 응답임.

아동에게 용돈을 지급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급 시 액수는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먼저, 용돈 지급 여부에 대해서는 필요 시 지급한다는 응답이 47.5%, 정기적으로 지급한다는 응답이 44.1% 등이었다. 11차년도 조사결과(김은설 외, 2019: 191)에서는 필요 시 지급하는 경우가 50.5%, 정기적으로 용돈을 지급하는 경우가 36.2%이었으므로 학년이 높아지면서 용돈을 정기 지급하는 경우가 좀 더 많아졌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어머니가 미취업 중인 경우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응답이 11.7%로 취업 중인 가구에 비해 비교적 많았다. 그리고 대도시, 중소도시 그리고 읍면지역으로 갈수록 용돈을 정기적으로 주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아동에게 용돈을 지급하는 경우 용돈의 일주일 평균 금액은 약 5,650원이었다. 11차년도 조사(김은설 외, 2019: 191)에서의 4,390원에 비해서 높아진 수준이다. 아동의 출생순위에 따라서 용돈 액수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첫째 아동은 약 4,770원인 반면 외동인 아동은 약 6,810원이었다. 미취업모 가구에 비해 취업모 가구에서, 그리고 가구소득이 700만원 이상인 고소득 가구에서 더 많은 용돈을 아동에게 지급하고 있었다.

〈표 Ⅲ-3-41〉 패널아동에 대한 용돈 지급 여부 및 지급 시 액수

단위: %(가구), 천원(명)

구분	용돈 지급 여부				일주일 용돈 지급액		
	주지않음	필요시 지급	정기지급	계(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8.4	47.5	44.1	100.0(1,412)	5.65	6.96	100.0(1,239)
아동 출생순위							
외동아[a]	8.0	52.0	40.0	100.0(150)	6.81	10.80	100.0(134)
첫째[b]	7.2	44.5	48.3	100.0(501)	4.77	3.80	100.0(443)
둘째 이상[c]	9.4	48.5	42.2	100.0(759)	6.00	7.54	100.0(660)
$\chi^2(df)/F$		6.68(4)			6.31** a〉b		
모 취업 여부							
취업	5.9	48.8	45.4	100.0(802)	6.01	7.48	100.0(726)
미취업	11.7	46.4	41.9	100.0(563)	4.89	5.90	100.0(473)
$\chi^2(df)/t$		15.04(2)***			2.88**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a]	8.7	53.8	37.5	100.0(288)	4.78	4.04	100.0(247)
400~499만원[b]	7.8	47.3	44.9	100.0(245)	5.69	8.07	100.0(221)
500~599만원[c]	7.0	45.8	47.2	100.0(286)	5.41	5.37	100.0(259)
600~699만원[d]	9.7	39.5	50.8	100.0(185)	5.49	3.95	100.0(161)
700만원 이상[e]	9.1	47.7	43.2	100.0(308)	7.12	10.50	100.0(268)
$\chi^2(df)/F$		11.95(8)			3.88** e〉a		
지역							
대도시[a]	9.0	51.6	39.4	100.0(566)	5.76	8.33	100.0(496)
중소도시[b]	7.9	45.8	46.3	100.0(771)	5.52	5.96	100.0(679)
읍면[c]	9.3	33.3	57.3	100.0(75)	6.09	4.90	100.0(64)
$\chi^2(df)/F$		12.85(4)*			0.31		

주: 보호자의 응답임.
* p 〈 .05, ** p 〈 .01, *** p 〈 .001.

다음으로 패널아동의 용돈 사용처를 조사한 결과, 간식 및 군것질이 79.5%로 가장 많았으며, 저축 8.6%, 장난감이나 취미, 오락 활동 8.3% 등의 순으로 보고하였다. 용돈의 사용에 있어서는 아동 및 가구특성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Ⅲ-3-42〉 패널아동의 용돈 사용처

단위: %(명)

구분	학습 자료 (학용품, 준비물 등)	저축	간식 및 군것질하기	장난감이나 취미, 오락 활동	기타	계(수)
전체	2.6	8.6	79.5	8.3	1.0	100.0(1,239)
아동 출생순위						
외동아	1.5	11.2	76.9	9.0	1.5	100.0(134)
첫째	3.2	8.4	77.9	9.9	0.7	100.0(443)
둘째 이상	2.4	8.3	81.1	7.1	1.1	100.0(660)
$x^2(df)$			6.25(8)			
모취업						
취업	2.2	7.9	81.7	7.3	1.0	100.0(726)
미취업	3.2	10.1	75.9	9.7	1.1	100.0(473)
$x^2(df)$			6.03(4)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2.8	7.3	81.0	8.1	0.8	100.0(247)
400~499만원	1.8	7.7	81.4	8.6	0.5	100.0(221)
500~599만원	1.9	9.3	79.9	7.7	1.2	100.0(259)
600~699만원	1.2	9.3	82.6	5.6	1.2	100.0(161)
700만원 이상	3.7	9.0	78.0	9.0	0.4	100.0(268)
$x^2(df)$			8.31(16)			
지역						
대도시	3.2	8.3	79.0	8.9	0.6	100.0(496)
중소도시	2.4	9.1	79.4	8.0	1.2	100.0(679)
읍면	0.0	6.3	84.4	7.8	1.6	100.0(64)
$x^2(df)$			5.01(8)			

주: 보호자의 응답임.
* $p < .05$, ** $p < .01$, *** $p < .001$.

마지막으로 패널가구의 자산에 대해 조사한 결과, 부동산은 약 3억 4,081만원, 금융 자산은 약 8,346만원이었다. 금액의 범위는 최솟값은 부동산과 금융자산 모두 0원, 최댓값은 부동산 50억, 금융자산 10억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부채액의

경우 약 1억 712만원이며, 월 상환금은 약 63만원으로 조사되었다.

〈표 Ⅲ-3-43〉 가구 자산

단위: 만원(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중위값	최솟값	최대값	사례수
부동산	34,081.58	37,365.15	27,000.00	0.00	500,000.00	(1,208)
금융 자산	8,346.20	12,014.77	5,000.00	0.00	100,000.00	(1,125)
부채액	10,712.24	11,241.60	8,000.00	0.00	100,000.00	(820)
월 상환금	63.65	61.13	50.00	0.00	550.00	(797)

주: 보호자의 응답임.

4. 학교, 지역사회 및 정책 특성

12차년도 학교·사교육 특성 조사 변인은 다음 〈표 Ⅲ-4-1〉과 같이 돌봄(이용특성), 학교(이용 특성, 학교 특성, 물리적 특성, 교사 특성, 학급운영, 가정협력), 사교육(이용특성, 사교육 인식)으로 분류하였다.

〈표 Ⅲ-4-1〉 12차년도 학교·사교육 특성 조사 변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돌봄	이용 특성	• (학기/방학 중) 이용 유형, 시간, 빈도, 비용, 만족도
학교	이용 특성	• 학교 진학 여부, 미진학 사유, 대체 이용 기관
		• 전학 여부, 결석 여부, 이유
	학교 특성	• 소속 교육청
		• 설립 유형
		• 시범학교 유형
	물리적 특성	• 학급 수, 학급 학생 수, 학교 환경
	교사특성	• 성별, 연령, 최종학력, 교사 경력, 근무 시간
		• 업무 스트레스
	학급운영	• 교사-아동 관계(친밀, 갈등)
		• 창의적 학교 환경
	가정협력	• 부모의 행사 참여 정도, 학교생활 관심 정도
사교육	이용 특성	• 이용 종류, 시간, 기관, 만족도, 비용, 비용 부담 정도
	사교육 인식	• 아동이 인식하는 사교육

12차년도 지역 및 정책 특성 조사 변인은 다음 〈표 Ⅲ-4-2〉와 같다. 지역 특성은 일반적 특성(가구 특성)과 양육환경(교육·복지·의료문화·여가, 사회 안전)으로 분류하였고, 정책 특성은 국가지원(수혜), 직징지원(시행 및 이용), 기타지원(시행 및 이용)으로 분류하였다.

〈표 Ⅲ-4-2〉 12차년도 지역 및 정책 특성 조사 변인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역 특성	일반적 특성	가구 특성	• 지난 조사 후 이사 횟수
			• 지역 규모, 6개 권역 구분, 시/군/구 • 17개 시/도 구분
	양육환경	교육·복지·의료 문화·여가	• 교육·의료·복지 시설, 공공 여가 공간·시설, 문화시설 접근 편리성 및 이용 만족도
		사회 안전	• 양육환경 안전성
정책 특성	국가지원	수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구분
			• 정책 수혜 여부 및 만족도
	직장지원	시행 및 이용	• 육아지원제도
			•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기타지원	시행 및 이용	• 생활비 지원 여부 및 지원처

가. 돌봄서비스

돌봄서비스 이용 여부를 보면 전체 아동의 13.5%가 학기 중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였고, 전체 아동의 15.4%가 방학 중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였다. 이용유형을 보면 학기 중에는 조부모/친인척을 이용한 비율이 77.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14.8%, 초등돌봄교실 5.9%, 비혈연 대리양육자 3.0%, 기타 2.2%, 아이돌보미 1.5%의 순으로 나타났다. 방학 중에는 조부모/친인척이 84.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13.0%, 초등돌봄교실 3.9%, 비혈연 대리양육자 2.6%, 아이돌보미 0.6%의 순으로 나타났다. 돌봄서비스 이용 유형은 학기 중과 방학 중 모두 조부모/친인척이 가장 많았다.

〈표 Ⅲ-4-3〉 돌봄서비스 이용 여부 및 유형

단위: %(명)

구분	이용 여부			이용 유형(중복응답)					
	이용	미이용	계(수)	조부모/친인척	비혈연 대리양육자	아이돌보미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	기타
학기 중	13.5	86.5	100.0(1,412)	77.8	3.0	1.5	5.9	14.8	2.2
방학 중	15.4	84.6	100.0(1,412)	84.4	2.6	0.6	3.9	13.0	0.0

주: 보호자의 응답임.

돌봄서비스 하루 평균 이용시간을 보면 학기 중에는 조부모/친인척이 4.51시간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3.54시간, 기타 3시간, 아이돌보미 2.67시간, 비혈연 대리양육자 2.6시간, 초등돌봄교실 2.33시간의 순으로 나타났다. 방학 중에는 조부모/친인척이 6.3시간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5.57시간, 초등돌봄교실 4시간, 비혈연 대리양육자 3시간, 아이돌보미 2시간으로 나타났다. 돌봄서비스 하루 평균 이용시간은 학기 중과 방학 중 모두 조부모/친인척이 가장 많았다.

〈표 Ⅲ-4-4〉 돌봄서비스 하루 평균 이용시간

단위: 시간

구분	학기 중				방학 중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조부모/친인척	1.00	24.00	4.51	4.20	1.00	24.00	6.30	5.59
비혈연 대리양육자	1.00	5.00	2.60	1.82	1.00	5.00	3.00	1.58
아이돌보미	2.00	3.00	2.67	0.58	1.00	3.00	2.00	1.41
초등돌봄교실	1.00	4.00	2.33	0.89	1.00	7.00	4.00	2.06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	1.00	7.00	3.54	1.45	3.00	9.00	5.57	1.69
기타	1.00	6.00	3.00	2.16	-	-	-	-

주: 보호자의 응답임.

돌봄서비스 주당 이용일을 보면 학기 중에는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가 5.11시간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조부모/친인척 5.09일, 아이돌보미 5일, 비혈연 대리양육자 4.4일, 초등돌봄교실 4일, 기타 4일의 순으로 나타났다. 방학 중에는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가 5.14일로 가장 많았고, 아이돌보미 5.00일, 조부모/친인척 4.77일, 초등돌봄교실 4.56일, 비혈연 대리양육자 4.4일의 순

으로 나타났다. 돌봄서비스 주당 이용 일은 학기 중과 방학 중 모두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가 가장 많았다.

〈표 Ⅲ-4-5〉 돌봄서비스 주당 이용일

단위: 일

구분	학기 중				방학 중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조부모/친인척	1.00	7.00	5.09	1.74	1.00	7.00	4.77	2.05
비혈연 대리양육자	3.00	5.00	4.40	0.89	3.00	5.00	4.40	0.89
아이돌보미	5.00	5.00	5.00	0.00	5.00	5.00	5.00	0.00
초등돌봄교실	1.00	5.00	4.00	1.65	1.00	5.00	4.56	1.33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5.00	6.00	5.11	0.31	4.00	7.00	5.14	0.52
기타	1.00	7.00	4.00	2.45	-	-	-	-

주: 보호자의 응답임.

돌봄서비스 월 평균 이용 비용을 보면 학기 중에는 비혈연 대리양육자가 52.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조부모/친인척 28.18만원, 기타 17.6만원, 아이돌보미 13.33만원,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1.07만원, 초등돌봄교실 0.67만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방학 중에는 비혈연 대리양육자가 56.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조부모/친인척 24.10만원, 아이돌보미 15만원, 초등돌봄교실 1.44만원,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1.25만원으로 나타났다. 돌봄서비스 월평균 총 비용은 학기중이 23.94만원, 방학 중이 21.88만원이었다. 돌봄서비스 월 평균 이용 비용은 학기 중과 방학 중 모두 비혈연 대리양육자가 가장 높았고, 학기 중에는 초등돌봄교실이 가장 낮았으나, 방학 중에는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가 가장 낮았다.

〈표 Ⅲ-4-6〉 돌봄서비스 월 평균 이용 비용

단위: 만원

구분	학기 중				방학 중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조부모/친인척	0	180	28.18	34.86	0	150	24.10	32.36
비혈연 대리양육자	0	110	52.00	52.63	0	110	56.00	53.20
아이돌보미	0	30	13.33	15.28	0	30	15.00	21.21
초등돌봄교실	0	5	0.67	1.61	0	10	1.44	3.36

구분	학기 중				방학 중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0	10	1.07	2.84	0	10	1.25	2.93
기타	0	60	17.60	25.91	-	-	-	-
총 비용	0	180	23.94	33.65	0	150	21.88	31.93

주: 보호자의 응답임.

돌봄서비스 이용 만족도를 보면 학기 중에는 조부모/친인척이 4.32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4.29점, 초등돌봄교실 4.17점, 아이돌보미 4점, 기타 3.8점, 비혈연 대리양육자 3.6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방학 중에는 조부모/친인척이 4.33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4.29점, 초등돌봄교실 4.22점, 아이돌보미 4점, 비혈연 대리양육자 3.6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돌봄서비스 이용 만족도는 학기 중과 방학 중 모두 조부모/친인척이 가장 높았고, 비혈연 대리양육자가 가장 낮았다.

〈표 Ⅲ-4-7〉 돌봄서비스 이용 만족도

단위: 점

구분	학기 중				방학 중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조부모/친인척	2	5	4.32	0.69	1	5	4.33	0.74
비혈연 대리양육자	3	4	3.60	0.55	3	4	3.60	0.55
아이돌보미	3	5	4.00	1.00	3	5	4.00	1.41
초등돌봄교실	3	5	4.17	0.72	3	5	4.22	0.83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3	5	4.29	0.53	3	5	4.29	0.53
기타	3	5	3.80	0.84	-	-	-	-

주: 1) 보호자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 전혀 만족하지 않음 ~ 5. 매우 만족함).

나. 학교 특성

1) 이용 특성

전학 여부를 보면 전학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전체 아동의 9.8%였고, 아동 출생 순위, 모취업 여부, 가구 소득, 지역에 따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Ⅲ-4-8〉 전학 여부

단위: %(명)

구분	전학한적 없음	전학한적 있음	계(수)
전체	90.2	9.8	100.0(1,408)
아동 출생순위			
외동아	89.9	10.1	100.0(149)
첫째	89.0	11.0	100.0(501)
둘째 이상	91.0	9.0	100.0(756)
$\chi^2(df)$	1.35(2)		
모취업			
취업	91.4	8.6	100.0(801)
미취업	88.8	11.3	100.0(560)
$\chi^2(df)$	2.61(1)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91.7	8.3	100.0(288)
400~499만원	92.7	7.3	100.0(245)
500~599만원	89.9	10.1	100.0(286)
600~699만원	91.9	8.1	100.0(185)
700만원 이상	87.3	12.7	100.0(306)
$\chi^2(df)$	6.05(4)		
지역			
대도시	90.8	9.2	100.0(565)
중소도시	89.3	10.7	100.0(768)
읍면	94.7	5.3	100.0(75)
$\chi^2(df)$	2.59(2)		

주: 보호자의 응답임.

결석 여부 및 결석 이유를 보면 결석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전체 아동의 17.5%였고, 13.0%는 사고와 질병으로 인해 결석하였고, 4.5%는 다른 이유로 인해 결석하였다. 아동 출생순위, 모취업 여부, 모학력, 가구 소득, 지역에 따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Ⅲ-4-9〉 결석/결석이유

단위: %(명)

구분	결석한적 없음	사고와 질병	사고와 질병 외 이유	계(수)
전체	82.5	13.0	4.5	100.0(1,408)
아동 출생순위				
외동아	81.2	12.1	6.7	100.0(149)
첫째	81.4	13.8	4.8	100.0(501)
둘째 이상	83.6	12.6	3.8	100.0(756)
$\chi^2(df)$	3.11(4)			

구분	결석한적 없음	사고와 질병	사고와 질병 외 이유	계(수)
모취업				
취업	82.3	12.9	4.9	100.0(801)
미취업	82.5	13.4	4.1	100.0(560)
$\chi^2(df)$		0.49(2)		
모학력				
고졸이하	83.1	11.6	5.3	100.0(361)
전문대졸	85.4	11.1	3.5	100.0(404)
대졸이상	80.1	15.2	4.7	100.0(618)
$\chi^2(df)$		6.23(4)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82.3	13.5	4.2	100.0(288)
400~499만원	81.2	13.1	5.7	100.0(245)
500~599만원	83.9	12.9	3.1	100.0(286)
600~699만원	83.8	10.8	5.4	100.0(185)
700만원 이상	83.0	13.4	3.6	100.0(306)
$\chi^2(df)$		3.86(8)		
지역				
대도시	84.1	12.2	3.7	100.0(565)
중소도시	81.0	13.9	5.1	100.0(768)
읍면	86.7	9.3	4.0	100.0(75)
$\chi^2(df)$		3.49(4)		

주: 보호자의 응답임.

2) 학교 특성

학교의 설립유형을 보면 국공립 99.0%, 사립 0.8%, 대안학교 0.2%로 나타났다.

〈표 Ⅲ-4-10〉 설립유형

단위: %(명)

구분	국공립 학교	사립 학교	국제 (외국인)학교	대안학교	기타	계
전체	99.0	0.8	0.0	0.2	0.0	100.0(590)
지역규모						
대도시	99.2	0.8	0.0	0.0	0.0	100.0(253)
중소도시	98.7	1.0	0.0	0.3	0.0	100.0(307)
읍면지역	100.0	0.0	0.0	0.0	0.0	100.0(30)

주: 담임교사의 응답임.

학교 유형을 보면 전체 학교의 31.4%가 일반학교 외에 해당되었고, 기타 11.2%, 혁신학교 10.5%, 연구학교 8.3%, 시범학교 1.4%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Ⅲ-4-11〉 학교 유형

단위: %(명)

구분	연구학교	시범학교	혁신학교	기타	해당없음	계
전체	8.3	1.4	10.5	11.2	68.6	100.0(590)
지역규모						
대도시	12.3	2.0	7.9	6.3	71.5	100.0(253)
중소도시	4.6	0.0	13.0	15.0	67.4	100.0(307)
읍면지역	13.3	10.0	6.7	13.3	56.7	100.0(30)

주: 담임교사의 응답임.

전체 학급 수 및 해당학급 학생 수를 보면 평균 학급 수는 5.67학급, 학급당 평균 학생 수는 24.75명이고, 학급 내 남아 1명당 여아 수는 0.96명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별 학급당 평균 학생 수는 중소도시가 25.61명으로 가장 많았고, 읍면 19.67명으로 가장 적었다.

〈표 Ⅲ-4-12〉 전체 학급 수 및 해당학급 학생 수

단위: 학급, 명, (명)

구분	학급 수		학생 수		학급 내 아동성별 비율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5.67	3.28	24.75	4.92	0.96	0.24	(590)
지역규모							
대도시[a]	5.55	2.83	24.30	4.17	0.97	0.22	(253)
중소도시[b]	5.87	3.55	25.61	4.86	0.96	0.25	(307)
읍면[c]	4.73	3.72	19.67	7.40	0.86	0.34	(30)
F	1.99		23.48*** b,a〉c		2.90		

주: 1) 학급 내 아동성별 비율=남아 1명당 여아 수
2) 담임교사의 응답임.
*** p 〈 .001.

학교 환경에 대한 인식을 보면 5점 척도 기준으로 건물상태는 3.69점, 기자재 및 시설은 3.76점, 주변환경은 3.81점, 통학조건(교통 편의성)은 3.89점으로 나타났다. 통학조건(교통 편의성)을 지역규모별로 보면 중소도시가 3.94점으로 가장 높았고, 읍면이 3.33점으로 가장 낮았다.

〈표 Ⅲ-4-13〉 학교 환경에 대한 인식

단위: 점(명)

구분	건물상태		기자재 및 시설		주변환경		통학조건 (교통 편의성)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3.69	1.00	3.76	0.93	3.81	1.00	3.89	1.08	(590)
지역규모									
대도시[a]	3.66	1.00	3.74	0.95	3.79	1.03	3.90	1.08	(253)
중소도시[b]	3.74	0.99	3.78	0.91	3.84	0.98	3.94	1.06	(307)
읍면[c]	3.43	1.01	3.83	1.09	3.73	0.83	3.33	1.09	(30)
F	1.46		0.26		0.25		4.41* b,a〉c		

주: 1) 담임교사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 매우 나쁘다 ~ 5. 매우 좋다).
* p 〈 .05.

3) 교사 특성

교사 성별을 보면 여성이 69.7%, 남성이 30.3%이다. 교사 성별을 지역규모별로 보면 여성의 비율이 대도시 73.9%, 중소도시 70.4%이지만 읍면은 26.7%로 지역 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4-14〉 교사 성별

단위: %(명)

구분	여	남	계(수)
전체	69.7	30.3	100.0(590)
지역규모			
대도시	73.9	26.1	100.0(253)
중소도시	70.4	29.6	100.0(307)
읍면지역	26.7	73.3	100.0(30)
$\chi^2(df)$	28.47(2)***		

주: 담임교사의 응답임.
*** p 〈 .001.

교사 연령은 평균 36.51세이고, 지역규모별로 보면 대도시 37.68세, 중소도시 35.7세, 읍면 34.8세로 나타나 지역규모가 클수록 교사 연령이 높았다. 교사 경력은 평균 12.12년이고, 지역규모별로 보면 대도시 13.5년, 중소도시 11.28년, 읍면 9.1년으로 지역규모가 클수록 교사 경력이 길었다. 교사 월평균 주중 근무시간(월평균 주중 근무일 22일 상정)은 평균 181.77시간이었다.

〈표 Ⅲ-4-15〉 교사 연령 및 경력

단위: 세, 년, 시간(명)

구분	교사 연령		교사 경력		교사 월평균 주중 근무시간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36.51	8.53	12.12	8.10	181.77	14.64	(590)
지역규모							
대도시[a]	37.68	8.39	13.50	7.95	182.22	15.99	(253)
중소도시[b]	35.70	8.64	11.28	8.18	181.53	13.71	(307)
읍면[c]	34.80	7.51	9.10	6.70	180.48	12.12	(30)
F	4.41* a〉c		7.57*** a〉c		0.28		

주: 1) 월 평균 주중 근무일을 22일로 상정하여 월 평균 근무시간을 계산함.
2) 담임교사의 응답임.
* p 〈 .05, ** p 〈 .01, *** p 〈 .001.

교사 최종학력을 보면 대졸 64.1%, 석사 25.4%, 석사과정 9.2%, 박사과정 1.2%, 박사 0.2%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졸인 경우는 대도시 53.4%, 읍면 53.3%에 비해 중소도시 73.9%로 나타나 중소도시에서 대졸 교사 비율이 높았다.

〈표 Ⅲ-4-16〉 교사 최종학력

단위: %(명)

	대졸	석사과정	석사	박사과정	박사	계(수)
전체	64.1	9.2	25.4	1.2	0.2	100.0(590)
지역규모						
대도시	53.4	10.3	34.4	2.0	0.0	100.0(253)
중소도시	73.9	7.5	17.6	0.7	0.3	100.0(307)
읍면지역	53.3	16.7	30.0	0.0	0.0	100.0(30)
$x^2(df)$	31.87(8)***					

주: 담임교사의 응답임.
*** p 〈 .001.

교사 업무 스트레스를 보면 5점 척도 기준으로 학부모와의 관계는 2.97점, 생활지도는 3.35점, 수업지도는 2.59점, 행정업무는 3.13점으로 나타났다. 수업지도의 경우 교사 경력에 따라서는 10년차 이하 2.70점, 11~20년 2.52점, 21~30년 2.41점, 31년차 이상 2.33점으로 나타나 교사 경력이 길수록 교사 업무 스트레스가 적었다.

〈표 Ⅲ-4-17〉 교사 업무 스트레스

단위: 점, (명)

구분	학부모와 관계		생활지도		수업지도		행정업무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2.97	1.10	3.35	1.14	2.59	1.00	3.13	1.11	(590)
교사 연령									
20대[a]	2.93	1.09	3.35	1.16	2.56	1.02	3.02	1.08	(162)
30대[b]	3.04	1.10	3.44	1.13	2.73	1.02	3.25	1.12	(201)
40대[c]	2.99	1.11	3.27	1.12	2.51	0.94	3.14	1.11	(187)
50대 이상[d]	2.70	1.07	3.33	1.14	2.45	1.06	2.93	1.19	(40)
F	1.20		0.73		2.02		1.77		
교사 경력									
10년차 이하[a]	3.02	1.07	3.42	1.14	2.70	1.02	3.12	1.11	(307)
11~20년[b]	3.02	1.11	3.31	1.11	2.52	0.93	3.19	1.08	(188)
21~30년[c]	2.67	1.13	3.17	1.20	2.41	1.06	3.04	1.18	(83)
31년차 이상[d]	3.08	1.08	3.58	1.00	2.33	1.07	3.00	1.35	(12)
F	2.41		1.35		2.83*		0.44		

주: 1) 담임교사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 전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 5.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 $p < .05$.

4) 학급운영

아동과 교사 관계를 보면 5점 척도 기준으로 친밀 정도는 평균 3.9점이고, 갈등 정도는 평균 1.36점으로 나타났다.

〈표 Ⅲ-4-18〉 아동과 교사 관계

단위: 점, (명)

구분	친밀		갈등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3.90	0.62	1.36	0.52	(590)
교사 연령					
20대[a]	3.89	0.60	1.34	0.54	(162)
30대[b]	3.87	0.60	1.33	0.42	(201)
40대[c]	3.92	0.64	1.40	0.57	(187)
50대 이상[d]	4.04	0.67	1.47	0.62	(40)
F	0.92		1.23		
교사 경력					
10년차 이하[a]	3.86	0.60	1.33	0.47	(307)
11~20년[b]	3.92	0.64	1.41	0.57	(188)
21~30년[c]	4.01	0.63	1.39	0.58	(83)
31년차 이상[d]	4.06	0.57	1.31	0.42	(12)
F	1.75		1.01		

주: 1) 담임교사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 전혀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

창의적 학교 환경에 대한 아동의 응답을 보면 5점 척도 기준으로 친구들의 지지/즐거운 반 분위기는 평균 3.95점, 교사지지/즐거운 반 분위기는 평균 3.86점, 엄격한 규칙과 지시적 분위기는 평균 3.63점으로 나타났다. 교사 연령 및 교사 경력에 따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Ⅲ-4-19〉 창의적 학교 환경

단위: 점

구분	친구들의지지 /즐거운 반 분위기		교사지지 /즐거운 반 분위기		엄격한 규칙과 지시적 분위기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3.95	0.76	3.86	0.75	3.63	0.71
교사 연령						
20대[a]	4.00	0.71	3.98	0.69	3.68	0.73
30대[b]	3.91	0.77	3.85	0.70	3.61	0.71
40대[c]	4.01	0.75	3.89	0.79	3.73	0.65
50대 이상[d]	3.87	0.95	3.86	0.75	3.54	0.82
F	0.85		1.04		1.29	
교사 경력						
10년차 이하[a]	3.95	0.75	3.93	0.70	3.65	0.71
11~20년[b]	4.02	0.72	3.88	0.74	3.69	0.69
21~30년[c]	3.88	0.87	3.84	0.82	3.63	0.72
31년차 이상[d]	4.06	0.72	3.89	0.73	3.75	0.85
F	0.88		0.40		0.23	

주: 1) 아동의 응답임.
2) 4점 척도임(1. 전혀 그렇지 않다 ~ 4. 매우 그렇다).

5) 가정협력

부모의 학교생활 참여도를 보면 대체로 참여함이 35.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보통 24.9%, 항상 참여 21.5%, 참여하지 않는 편 12.7%, 전혀 참여하지 않음 5.8%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성별, 아동출생순위, 가구소득, 지역규모에 따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Ⅲ-4-20〉 부모의 학교생활 참여도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참여하지 않음	참여하지 않는 편	보통	대체로 참여함	항상 참여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5.8	12.7	24.9	35.1	21.5	100.0(590)	3.54	1.13
아동성별								
남아	5.7	13.3	23.8	35.9	21.3	100.0(315)	3.54	1.13
여아	5.8	12.0	26.2	34.2	21.8	100.0(275)	3.54	1.13
$\chi^2(df)/t$		0.68(4)					-0.06	
아동출생순위								
외동아[a]	3.8	11.3	15.1	47.2	22.6	100.0(53)	3.74	1.06
첫째[b]	6.1	11.2	28.5	29.9	24.3	100.0(214)	3.55	1.15
둘째 이상[c]	5.9	13.9	24.1	36.5	19.5	100.0(323)	3.50	1.13
$\chi^2(df)/F$		9.92(8)					1.02	
가구소득								
399만원 이하[a]	7.8	13.2	22.5	35.7	20.9	100.0(129)	3.49	1.19
400~499만원[b]	5.4	15.2	20.5	30.4	28.6	100.0(112)	3.62	1.20
500~599만원[c]	5.3	10.5	34.6	27.1	22.6	100.0(133)	3.51	1.11
600~699만원[d]	6.8	12.3	26.0	31.5	23.3	100.0(73)	3.52	1.18
700만원 이상[e]	4.3	11.3	23.5	45.2	15.7	100.0(115)	3.57	1.03
$\chi^2(df)/F$		19.98(16)					0.23	
지역규모								
대도시[a]	6.3	13.8	24.9	35.6	19.4	100.0(253)	3.48	1.14
중소도시[b]	5.5	12.1	24.4	34.9	23.1	100.0(307)	3.58	1.13
읍면[c]	3.3	10.0	30.0	33.3	23.3	100.0(30)	3.63	1.07
$\chi^2(df)/F$		2.35(8)					0.67	

주: 담임교사의 응답임.

부모의 학교행사 참여 여부(중복응답)을 보면 운동회, 자원봉사, 학부모 공개 수업, 담임 상담에서는 어머니만 참여가 과반수로 가장 많았고, 부모교육 프로그램, 학교 운영 위원회, 학부모 총회에서는 참여한 적 없음이 과반수로 가장 많았다. 특히 담임 상담은 어머니만 참여가 80.6%였고, 학교 운영 위원회는 참여한 적 없음이 82.4%였다.

〈표 Ⅲ-4-21〉 부모의 학교행사 참여 여부(중복응답)

단위: %(명)

구분	참여한 적 없음	어머니만 참여	아버지만 참여	부모 모두 참여	행사 미개최
운동회	18.1	52.6	2.5	13.8	13.0
자원봉사	39.3	52.7	2.0	2.8	3.3
학부모 공개 수업	22.2	63.4	2.9	7.9	3.7
부모교육 프로그램	58.3	36.5	0.4	1.0	3.8
담임 상담	14.4	80.6	2.1	2.1	0.8
학교 운영 위원회	82.4	13.1	0.6	0.4	3.5
학부모총회	58.7	37.5	0.8	1.1	1.9
사례수	(4,143)	(4,749)	(159)	(410)	(423)

주: 보호자의 응답임.

부모의 학교생활 관심정도는 대체로 관심보임이 40.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매우 관심많음 34.2%, 보통 19.7%, 가끔 관심보임 5.6%, 전혀 관심없음 0.3%로 나타났다. 아동성별, 아동출생순위, 가구소득, 지역규모에 따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Ⅲ-4-22〉 부모의 학교생활 관심정도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관심없음	가끔 관심보임	보통	대체로 관심보임	매우 관심많음	계(수)	평균	표준 편차
전체	0.3	5.6	19.7	40.2	34.2	100.0(590)	4.02	0.89
성별								
남아	0.3	6.3	20.3	41.0	32.1	100.0(315)	3.98	0.90
여아	0.4	4.7	18.9	39.3	36.7	100.0(275)	4.07	0.88
$x^2(df)/t$				1.88(4)			-1.25	
아동출생순위								
외동아[a]	0.0	3.8	15.1	43.4	37.7	100.0(53)	4.15	0.82
첫째[b]	0.5	4.7	16.4	40.7	37.9	100.0(214)	4.11	0.87
둘째 이상[c]	0.3	6.5	22.6	39.3	31.3	100.0(323)	3.95	0.91
$x^2(df)/F$				6.62(8)			2.69	
가구소득								
399만원 이하[a]	0.8	8.5	20.9	38.8	31.0	100.0(129)	3.91	0.96
400~499만원[b]	0.9	2.7	17.9	40.2	38.4	100.0(112)	4.13	0.86
500~599만원[c]	0.0	3.8	26.3	33.1	36.8	100.0(133)	4.03	0.89
600~699만원[d]	0.0	8.2	19.2	38.4	34.2	100.0(73)	3.99	0.94
700만원 이상[e]	0.0	6.1	14.8	49.6	29.6	100.0(115)	4.03	0.83
$x^2(df)/F$				18.84(16)			0.92	

구분	전혀 관심없음	가끔 관심보임	보통	대체로 관심보임	매우 관심많음	계(수)	평균	표준 편차
지역규모								
대도시[a]	0.0	5.5	18.6	43.9	32.0	100.0(253)	4.02	0.85
중소도시[b]	0.7	5.2	19.9	38.1	36.2	100.0(307)	4.04	0.91
읍면[c]	0.0	10.0	26.7	30.0	33.3	100.0(30)	3.87	1.01
$x^2(df)/F$				6.54(8)			0.51	

주: 담임교사의 응답임.

6) 사교육

학교 수업 이외 교육에 대해서는 전체의 96.3%가 이용한다고 응답하였고, 사교육에 대해서는 전체의 93.0%가 이용한다고 응답하였다. 아동 출생순위별로는 외동아인 경우가 학교 수업 이외 교육 및 사교육을 이용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출생순위가 높을수록 이용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가구 소득별로는 가구 소득이 500~599만원인 경우가 학교 수업 이외 교육 및 사교육을 이용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가구 소득이 399만원 이하인 경우가 이용 비율이 가장 낮았다.

〈표 Ⅲ-4-23〉 학교 수업 이외 교육 및 사교육 여부

단위: %(명)

	학교 수업 이외 교육 여부			사교육 여부		
	이용함	이용하지 않음	계(수)	이용함	이용하지 않음	계(수)
전체	96.3	3.7	100.0(1,412)	93.0	7.0	100.0(1,412)
아동 성별						
남	96.3	3.7	100.0(725)	92.7	7.3	100.0(725)
여	96.4	3.6	100.0(687)	93.3	6.7	100.0(687)
$x^2(df)$	0.01(1)			0.20(1)		
아동 출생순위						
외동아	99.3	0.7	100.0(150)	96.0	4.0	100.0(150)
첫째	97.6	2.4	100.0(501)	94.8	5.2	100.0(501)
둘째 이상	94.9	5.1	100.0(759)	91.2	8.8	100.0(759)
$x^2(df)$	10.71(2)**			8.47(2)*		
모 취업 여부						
취업	96.8	3.2	100.0(802)	93.9	6.1	100.0(802)
미취업	96.4	3.6	100.0(563)	92.5	7.5	100.0(563)
$x^2(df)$	0.10(1)			0.97(1)		

	학교 수업 이외 교육 여부			사교육 여부		
	이용함	이용하지 않음	계(수)	이용함	이용하지 않음	계(수)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90.6	9.4	100.0(288)	82.3	17.7	100.0(288)
400~499만원	97.1	2.9	100.0(245)	93.1	6.9	100.0(245)
500~599만원	98.6	1.4	100.0(286)	96.9	3.1	100.0(286)
600~699만원	97.8	2.2	100.0(185)	96.2	3.8	100.0(185)
700만원 이상	98.1	1.9	100.0(308)	96.8	3.2	100.0(308)
$x^2(df)$	35.02(4)***			65.38(4)***		
지역규모						
대도시	96.3	3.7	100.0(566)	92.8	7.2	100.0(566)
중소도시	96.4	3.6	100.0(771)	93.4	6.6	100.0(771)
읍면지역	96.0	4.0	100.0(75)	90.7	9.3	100.0(75)
$x^2(df)$	0.03(2)			0.85(2)		

주: 보호자의 응답임.
* $p < .05$, ** $p < .01$, *** $p < .001$.

학교 수업 이외 교육서비스 이용 유형(중복응답)을 보면 영어가 78.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수학 72.1%, 체육 52.1%, 국어 44.1%, 음악 32.6%, 과학 26.1%, 컴퓨터 18.7%, 한자 17.9%, 미술 14.0%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원을 이용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교육서비스는 영어(67.1%), 체육(66.2%), 음악(63.5%), 미술(59.6%), 수학(53.0%)이었다. 학습지(방문교사)를 이용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유형은 한자(56.1%)와 국어(35.0%)이고, 교내 방과후 교실을 이용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유형은 컴퓨터(85.2%)로 나타났다.

〈표 Ⅲ-4-24〉 학교 수업 이외 교육서비스 이용 유형(중복응답)

단위: %(명)

구분		학원	가정 내 개인/그룹 지도(과외)	학습지 (방문교사)	인터넷 화상 강의	교내 방과후 교실	문화센터, 종교기관 및 사설기관	주민센터, 복지관 등 공공기관	사례수
영어	78.0	67.1	11.5	9.4	8.7	6.2	1.0	1.0	(1,101)
국어	44.1	32.0	19.5	35.0	13.0	1.3	1.3	2.1	(622)
수학	72.1	53.0	15.3	24.6	8.2	3.9	0.9	1.9	(1,018)
과학	26.1	27.7	15.2	23.9	19.3	14.1	1.4	2.7	(368)
컴퓨터	18.7	6.8	3.4	0.8	3.0	85.2	1.1	0.4	(264)
한자	17.9	11.5	11.1	56.1	8.3	12.3	0.8	1.6	(253)
음악	32.6	63.5	11.1	0.9	0.9	21.1	5.0	2.0	(460)

구분		학원	가정 내 개인/그룹 지도(과외)	학습지 (방문교사)	인터넷 화상 강의	교내 방과후 교실	문화센터, 종교기관 및 사설기관	주민센터, 복지관 등 공공기관	사례수
미술	14.0	59.6	9.1	2.0	2.0	22.7	4.0	3.5	(198)
체육	52.1	66.2	3.0	0.0	0.1	23.0	9.8	3.5	(736)

주: 보호자의 응답임.

학교 외 교육서비스 주당 이용시간을 보면 학원이 8.49시간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주민센터, 복지관 등 공공기관 4.98시간, 가정 내 개인/그룹지도(과외) 3.9시간, 문화센터, 종교기관 및 사설기관 3.44시간, 교내 방과후 교실 3.33시간, 인터넷 화상 강의 3.28시간, 학습지(방문교사) 1.5시간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Ⅲ-4-25〉 학교 외 교육서비스 주당 이용시간

단위: 시간(명)

구분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학원	0.50	20.00	8.49	4.73	(1,133)
가정 내 개인/그룹지도(과외)	0.50	20.00	3.90	3.42	(340)
학습지(방문교사)	0.50	20.00	1.50	2.07	(382)
인터넷 화상 강의	0.50	20.00	3.28	2.71	(153)
교내 방과후 교실	0.50	20.00	3.33	2.64	(516)
문화센터, 종교기관 및 사설기관	0.50	20.00	3.44	3.48	(115)
주민센터, 복지관 등 공공기관	0.50	20.00	4.98	5.60	(63)

주: 보호자의 응답임.

학교 외 교육서비스 만족도를 보면 유형에 관계없이 대체로 만족이 가장 많았다.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은 주민센터, 복지관 등 공공기관이 33.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Ⅲ-4-26〉 학교 외 교육서비스 만족도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만족하지 않음	대체로 만족하지 않음	보통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계(수)	평균	표준편차
학원	0.2	0.7	12.9	73.3	13.0	100.0(1,133)	3.98	0.55
가정 내 개인/그룹지도(과외)	0.3	1.2	13.8	66.8	17.9	100.0(340)	4.01	0.63
학습지(방문교사)	0.0	1.3	22.3	66.2	10.2	100.0(382)	3.85	0.60

구분	매우 만족하지 않음	대체로 만족하지 않음	보통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계(수)	평균	표준 편차
인터넷 화상 강의	0.0	2.0	25.5	66.0	6.5	100.0(153)	3.77	0.59
교내 방과후 교실	0.0	0.6	12.0	70.9	16.5	100.0(516)	4.03	0.55
문화센터, 종교기관 및 사설기관	0.9	0.9	12.2	67.8	18.3	100.0(115)	4.02	0.65
주민 센터, 복지관 등 공공기관	0.0	0.0	9.5	57.1	33.3	100.0(63)	4.24	0.61

주: 보호자의 응답임.

학교 외 교육서비스 월 평균 이용비용을 보면 학원이 36.67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가정 내 개인/그룹과외가 20.19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주민센터, 복지관 등 공공기관은 4.42만원으로 이용비용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Ⅲ-4-27〉 학교 외 교육서비스 월 평균 이용비용

단위: 만원, (명)

구분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학원	0.00	250.00	36.67	25.16	(1,133)
가정 내 개인/그룹지도(과외)	0.00	150.00	20.19	17.50	(340)
학습지(방문교사)	0.00	50.00	10.91	7.29	(382)
인터넷 화상 강의	0.00	40.00	8.34	5.85	(153)
교내 방과 후 교실	0.00	50.00	5.96	5.83	(516)
문화센터, 종교기관 및 사설기관	0.00	70.00	9.27	13.78	(115)
주민 센터, 복지관 등 공공기관	0.00	70.00	4.42	9.94	(63)

주: 보호자의 응답임.

학교 외 교육서비스 비용 부담 정도를 보면 부담된다는 응답은 학원이 가장 높았고(부담되는 편 37.5%, 매우 부담 6.3%), 교내 방과후 교실이 가장 낮았다(부담되는 편 7.4%, 매우 부담 1.1%).

〈표 Ⅲ-4-28〉 학교 외 교육서비스 비용 부담 정도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부담되지 않음	부담되지 않는 편	적당함	부담 되는 편	매우 부담	계(수)	평균	표준 편차
학원	3.2	10.5	42.5	37.5	6.3	100.0(1,128)	3.33	0.87
가정 내 개인/그룹지도(과외)	4.7	11.6	49.8	28.8	5.0	100.0(319)	3.18	0.87
학습지(방문교사)	4.2	14.2	58.3	21.4	1.8	100.0(379)	3.02	0.77
인터넷 화상 강의	8.3	10.5	57.9	19.5	3.8	100.0(133)	3.00	0.89

구분	전혀 부담되지 않음	부담되지 않는 편	적당함	부담 되는 편	매우 부담	계(수)	평균	표준 편차
교내 방과 후 교실	11.7	21.6	58.2	7.4	1.1	100.0(445)	2.65	0.82
문화센터, 종교기관 및 사설기관	14.6	15.6	49.0	19.8	1.0	100.0(96)	2.77	0.97
주민 센터, 복지관 등 공공기관	27.0	16.2	40.5	13.5	2.7	100.0(37)	2.49	1.12

주: 보호자의 응답임.

패널아동이 받고 있는 사교육 개수가 적당한지 여부를 질문한 결과, 적당하다는 응답이 77.4%로 가장 많았다. 적은편이라는 응답은 16.8%, 많은 편이라는 응답은 5.8%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 특성별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표 Ⅲ-4-29〉 아동이 인식한 사교육: 개수

단위: 개, (명)

	적은편	적당한편	많은편	계(수)
전체	16.8	77.4	5.8	100.0(1,223)
아동 성별				
남	15.9	77.5	6.6	100.0(618)
여	17.9	77.2	5.0	100.0(605)
$x^2(df)$		2.20(2)		
아동 출생순위				
외동아	16.4	73.9	9.7	100.0(134)
첫째	17.3	78.7	4.0	100.0(446)
둘째 이상	16.7	77.1	6.2	100.0(641)
$x^2(df)$		6.50(4)		
모 취업 여부				
취업	18.5	75.9	5.6	100.0(713)
미취업	14.0	79.7	6.3	100.0(479)
$x^2(df)$		4.28(2)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16.9	78.7	4.3	100.0(207)
400~499만원	20.1	72.7	7.2	100.0(209)
500~599만원	17.2	77.5	5.3	100.0(262)
600~699만원	14.5	76.9	8.7	100.0(173)
700만원 이상	14.4	80.7	4.9	100.0(285)
$x^2(df)$		8.26(8)		
지역규모				
대도시	15.7	79.3	5.0	100.0(497)
중소도시	18.0	75.8	6.2	100.0(665)
읍면지역	13.1	78.7	8.2	100.0(61)
$x^2(df)$		3.19(4)		

주: 아동 응답임.

패널아동이 인식하는 사교육의 부담 정도에 대해 질문한 결과, 부담스럽지 않다는 응답(전혀 부담스럽지 않음+부담스럽지 않은편)이 64.3%로 절반 이상이었다. 부담스럽다는 응답과 매우 부담스럽다는 응답은 4.9%로 적은 편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아동 특성별로 큰 차이가 없었다.

〈표 Ⅲ-4-30〉 아동이 인식한 사교육: 부담 정도

단위: %(명)

	전혀 부담스럽지 않음	부담스럽지 않은편	보통	부담스러운 편	매우 부담스러움	계(수)
전체	36.1	28.2	30.7	3.9	1.0	100.0(1,223)
아동 성별						
남	35.4	28.0	31.1	4.2	1.3	100.0(618)
여	36.9	28.4	30.4	3.6	0.7	100.0(605)
$x^2(df)$			1.74(4)			
아동 출생순위						
외동아	37.3	28.4	30.6	2.2	1.5	100.0(134)
첫째	39.5	25.1	31.4	3.4	0.7	100.0(446)
둘째 이상	33.5	30.4	30.3	4.7	1.1	100.0(641)
$x^2(df)$			8.47(8)			
모 취업 여부						
취업	35.2	28.8	30.7	4.3	1.0	100.0(713)
미취업	36.7	27.8	30.9	3.5	1.0	100.0(479)
$x^2(df)$			0.76(4)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33.8	32.4	29.5	3.4	1.0	100.0(207)
400~499만원	45.9	24.9	25.4	3.8	0.0	100.0(209)
500~599만원	37.4	29.8	28.2	4.2	0.4	100.0(262)
600~699만원	30.6	25.4	37.0	5.8	1.2	100.0(173)
700만원 이상	33.7	29.1	31.6	3.9	1.8	100.0(285)
$x^2(df)$			22.20(16)			
지역규모						
대도시	35.2	26.6	34.8	2.8	0.6	100.0(497)
중소도시	37.0	28.6	28.7	4.7	1.1	100.0(665)
읍면지역	34.4	37.7	19.7	4.9	3.3	100.0(61)
$x^2(df)$			15.42(8)			

주: 아동 응답임.

다. 지역사회 특성

1) 일반적 특성

패널가구의 아동 출생 후 총 이사 횟수는 1회가 31.2%, 2회가 13.4%였으며 이사한 적이 없는 경우가 49.6%를 차지하였다.

〈표 Ⅲ-4-31〉 출생 후 총 이사 횟수

단위: %(명), 회

0회	1회	2회	3회	4회	5회	계(수)	평균	표준편차
49.6	31.2	13.4	4.7	0.8	0.4	100.0(1,412)	0.77	0.94

주: 보호자의 응답임.

아동패널가구가 거주하는 지역 규모는 중소도시가 54.6%로 전년도(53.6%)와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대도시는 40.1%, 읍면지역이 5.3%순이었다.

〈표 Ⅲ-4-32〉 지역규모

단위: %(명)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계(수)
전체	40.1	54.6	5.3	100.0(1,412)
아동 성별				
남	39.6	55	5.4	100.0(725)
여	40.6	54.1	5.2	100.0(687)
아동 출생순위				
외동아	38.7	54.7	6.7	100.0(150)
첫째	43.5	52.3	4.2	100.0(501)
둘째 이상	38.2	56	5.8	100.0(759)
모 취업 여부				
취업	38.9	55.2	5.9	100.0(802)
미취업	41.6	53.8	4.6	100.0(563)
모 학력				
고졸이하	41.6	50.4	8	100.0(361)
전문대졸	37.0	56.3	6.7	100.0(405)
대졸이상	41.4	55.9	2.7	100.0(621)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43.1	46.2	10.8	100.0(288)
400~499만원	38.4	57.1	4.5	100.0(245)
500~599만원	39.5	55.9	4.5	100.0(286)
600~699만원	38.9	59.5	1.6	100.0(185)
700만원 이상	40.3	55.5	4.2	100.0(308)

주: 보호자의 응답임.

패널 거주지역을 6개 권역으로 구분하였을 때, 경인권에 거주하는 가구가 전체 31.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부산/울산/경남권 17.8%, 대전/충청/강원권 14.7%, 광주/전라권 13.2%, 서울권이 12.0%순이었다.

〈표 Ⅲ-4-33〉 6개 권역 구분

단위: %(명)

구분	서울권	경인권	대전/충청/강원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광주/전라권	계(수)
전체	12.0	31.0	14.7	11.3	17.8	13.2	100.0(1,412)
아동 성별							
남	11.6	30.1	14.2	12.7	17.1	14.3	100.0(725)
여	12.4	32.0	15.3	9.8	18.5	12.1	100.0(687)
아동 출생순위							
외동아	13.3	30.7	9.3	12.7	20.7	13.3	100.0(150)
첫째	12.6	30.1	13.4	11.4	18.6	14.0	100.0(501)
둘째 이상	11.3	31.6	16.7	10.9	16.7	12.6	100.0(759)
모 취업 여부							
취업	11.1	30.4	15.7	10.3	17.3	15.1	100.0(802)
미취업	13.1	31.8	13.3	12.4	18.5	10.8	100.0(563)
모 학력							
고졸이하	7.5	28.3	18.6	13.9	20.8	11.1	100.0(361)
전문대졸	9.4	30.1	12.8	13.6	17.3	16.8	100.0(405)
대졸이상	16.3	33.2	13.7	8.2	16.4	12.2	100.0(621)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10.1	21.9	15.6	17.4	19.8	15.3	100.0(288)
400~499만원	8.2	33.5	13.5	11.8	20.4	12.7	100.0(245)
500~599만원	11.2	27.3	17.8	13.3	18.5	11.9	100.0(286)
600~699만원	13.5	33.5	11.9	8.1	17.8	15.1	100.0(185)
700만원 이상	14.9	35.7	12.7	7.5	15.3	14.0	100.0(308)

2) 양육환경

패널아동의 부모에게 지역 내 교육, 의료, 복지 시설의 접근 편리성에 대해 조사하였다. 의료기관 접근이 편리하다는 응답이 51.6%, 매우 편리하다는 응답이 12.4%이었으며, 대도시나 중소도시가 읍면지역보다 편리하다는 응답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교육기관 접근이 편리하다는 응답이 39.0%, 매우 편리하다는 응답이 8.2%이었

다. 이는 지역규모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도시지역이 읍면지역에 비해 접근성이 편리하다는 응답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공공복지시설 접근이 편리하다는 응답은 34.1%, 매우 편리하다는 응답은 5.6%이었다. 지역 규모별로 분석한 결과, 대도시에서 중소도시, 읍면지역으로 갈수록 편리성은 감소하였으며, 대도시와 읍면지역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표 Ⅲ-4-34〉 교육·의료·복지시설 편리성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불편함	불편한 편임	보통임	편리한 편임	매우 편리함	계(수)	평균	표준 편차
의료 기관	전체	3.0	8.4	24.6	51.6	12.4	100.0(1,412)	3.62	0.91
	대도시[a]	1.4	6.2	23.0	56.4	13.1	100.0(566)	3.73	0.82
	중소도시[b]	2.9	8.8	25.9	49.8	12.6	100.0(771)	3.60	0.92
	읍면[c]	17.3	20.0	22.7	34.7	5.3	100.0(75)	2.91	1.21
	$\chi^2(df)/F$			82.55(8)***				28.55***	a,b〉c
교육 기관	전체	5.9	15.2	31.7	39.0	8.2	100.0(1,412)	3.28	1.01
	대도시[a]	3.0	15.4	32.9	41.7	7.1	100.0(566)	3.34	0.93
	중소도시[b]	6.0	14.1	31.5	39.0	9.3	100.0(771)	3.32	1.02
	읍면[c]	28.0	24.0	24.0	18.7	5.3	100.0(75)	2.49	1.23
	$\chi^2(df)/F$			87.48(8)***				25.02***	a,b〉c
공공 복지 시설	전체	5.4	14.9	40.0	34.1	5.6	100.0(1,412)	3.20	0.94
	대도시[a]	3.5	15.5	38.9	36.9	5.1	100.0(566)	3.25	0.90
	중소도시[b]	5.7	14.9	40.7	32.6	6.1	100.0(771)	3.18	0.96
	읍면[c]	16.0	9.3	41.3	29.3	4.0	100.0(75)	2.96	1.10
	$\chi^2(df)/F$			24.77(8)**				3.19*	a〉c

주: 보호자의 응답임.
* p 〈 .05, ** p 〈 .01, *** p 〈 .001.

패널아동의 부모에게 여가공간과 시설 접근 편리성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 결과, 놀이터, 공원, 산책로, 놀이공원 이용이 편리하다(편리한 편+매우 편리함)이라는 응답이 각각 74.0%, 68.0%, 70.1%, 22.6% 순이었다. 놀이터와 공원, 놀이공원이 편리하다는 응답은 도시지역보다 읍면지역에서 응답 비율에 차이가 있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산책로는 지역규모별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실내체육시설, 실외 체육시설 접근이 편리하다(편리한 편+매우 편리함)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8.4%, 43.6%로 여가공간의 편리성에 대한 응답보다는 다소 낮게

나타났다. 시설기관의 편리성에 대한 응답은 도시지역보다 읍면으로 갈수록 낮아졌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표 Ⅲ-4-35〉 여가 공간·시설 편리성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불편함	불편한 편임	보통임	편리한 편임	매우 편리함	계(수)	평균	표준 편차
놀이터	전체	3.5	6.9	15.5	51.8	22.2	100.0(1,412)	3.82	0.97
	대도시[a]	1.4	6.4	16.1	53.2	23.0	100.0(566)	3.90	0.87
	중소도시[b]	3.0	7.0	15.2	53.0	21.8	100.0(771)	3.84	0.94
	읍면[c]	24.0	10.7	14.7	29.3	21.3	100.0(75)	3.13	1.49
	$\chi^2(df)/F$			108.48(8)***				21.47***	a,b〉c
공원	전체	2.8	9.2	20.0	48.5	19.5	100.0(1,412)	3.73	0.97
	대도시[a]	1.8	8.8	19.1	50.2	20.1	100.0(566)	3.78	0.93
	중소도시[b]	2.6	9.6	19.6	49.3	18.9	100.0(771)	3.72	0.96
	읍면[c]	13.3	8.0	30.7	28.0	20.0	100.0(75)	3.33	1.27
	$\chi^2(df)/F$			43.71(8)***				7.10***	a,b〉c
산책로	전체	2.2	7.9	19.9	49.4	20.7	100.0(1,412)	3.78	0.93
	대도시[a]	1.6	7.1	18.2	53.7	19.4	100.0(566)	3.82	0.88
	중소도시[b]	2.1	8.7	20.4	47.2	21.7	100.0(771)	3.78	0.95
	읍면[c]	8.0	5.3	28.0	38.7	20.0	100.0(75)	3.57	1.12
	$\chi^2(df)/F$			23.05(8)**				2.44	
놀이공원	전체	19.3	31.8	26.3	19.5	3.1	100.0(1,412)	2.55	1.10
	대도시[a]	14.0	30.2	28.8	23.0	4.1	100.0(566)	2.73	1.09
	중소도시[b]	20.2	32.8	25.9	18.4	2.6	100.0(771)	2.50	1.09
	읍면[c]	49.3	33.3	10.7	5.3	1.3	100.0(75)	1.76	0.94
	$\chi^2(df)/F$			67.68(8)***				28.63***	a,b〉c
실내 체육시설 / 놀이시설	전체	6.3	14.7	30.6	38.0	10.4	100.0(1,412)	3.31	1.05
	대도시[a]	2.7	11.7	29.7	44.0	12.0	100.0(566)	3.51	0.94
	중소도시[b]	7.4	17.0	31.9	34.4	9.3	100.0(771)	3.21	1.07
	읍면[c]	22.7	14.7	24.0	29.3	9.3	100.0(75)	2.88	1.31
	$\chi^2(df)/F$			65.09(8)***				20.56***	a〉b〉c
실외 체육시설	전체	6.0	17.1	33.2	36.3	7.3	100.0(1,412)	3.22	1.01
	대도시[a]	3.5	16.6	33.0	39.0	7.8	100.0(566)	3.31	0.96
	중소도시[b]	6.5	17.5	33.9	35.4	6.7	100.0(771)	3.18	1.01
	읍면[c]	20.0	17.3	28.0	25.3	9.3	100.0(75)	2.87	1.27
	$\chi^2(df)/F$			36.06(8)***				7.34***	a,b〉c

주: 보호자의 응답임.
** p 〈 .01, *** p 〈 .001.

패널아동 부모에게 거주지의 문화시설 편리성에 대해 질문하였다. 문화시설은 크게 영화관, 관람 및 체험시설, 공연시설, 도서관으로 구분하였다. 영화관, 관람 및 체험시설, 공연시설, 도서관의 접근 편리성에 대해 조사하였는데, 영화관과 도서관 접근이 편리하다(편리한 편+매우 편리함)이 각각 57.3%, 63.8%로 절반 이상이었다. 그에 반해 관람 및 체험시설과 공연시설의 접근 편리성은 각각 30.1%, 29.8%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지역 규모별로 문화시설 접근 편리성은 도시지역보다 읍면 지역에서 낮게 응답되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표 Ⅲ-4-36〉 문화시설 편리성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불편함	불편한 편임	보통임	편리한 편임	매우 편리함	계(수)	평균	표준 편차
영화관	전체	5.1	11.1	26.4	44.6	12.7	100.0(1,412)	3.49	1.02
	대도시[a]	3.9	9.2	25.8	47.0	14.1	100.0(566)	3.58	0.97
	중소도시[b]	4.2	11.9	26.8	44.9	12.2	100.0(771)	3.49	0.99
	읍면[c]	24.0	17.3	26.7	24.0	8.0	100.0(75)	2.75	1.28
	$x^2(df)/F$			70.88(8)***				23.11***	a,b〉c
관람 및 체험시설	전체	10.8	24.6	34.4	25.6	4.5	100.0(1,412)	2.88	1.05
	대도시[a]	7.1	22.3	35.9	29.5	5.3	100.0(566)	3.04	1.01
	중소도시[b]	11.8	25.8	34.1	24.1	4.2	100.0(771)	2.83	1.05
	읍면[c]	29.3	29.3	26.7	12.0	2.7	100.0(75)	2.29	1.10
	$x^2(df)/F$			46.84(8)***				19.36***	a,b〉c
공연시설	전체	10.1	26.3	33.9	26.1	3.7	100.0(1,412)	2.87	1.03
	대도시[a]	7.1	24.7	36.0	27.7	4.4	100.0(566)	2.98	0.99
	중소도시[b]	10.8	27.4	32.3	26.1	3.5	100.0(771)	2.84	1.04
	읍면[c]	26.7	26.7	33.3	13.3	0.0	100.0(75)	2.33	1.02
	$x^2(df)/F$			36.96(8)***				13.79***	a,b〉c
도서관	전체	2.8	7.7	25.7	46.6	17.2	100.0(1,412)	3.68	0.94
	대도시[a]	1.9	9.0	24.4	47.5	17.1	100.0(566)	3.69	0.92
	중소도시[b]	2.3	7.0	27.0	46.4	17.3	100.0(771)	3.69	0.92
	읍면[c]	13.3	5.3	22.7	41.3	17.3	100.0(75)	3.44	1.23
	$x^2(df)/F$			36.21(8)***				2.54	

주: 보호자의 응답임.
*** p 〈 .001.

패널아동 부모의 교육, 의료, 복지시설 이용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의료기관은 만족한다(대체로 만족함+매우 만족함)는 응답이 53.0%, 교육기관은 40.6%, 공공복지시설은 36.2%로 의료기관에 대한 이용 만족도가 절반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지역규모별로는 의료기관, 교육기관의 이용 만족도가 도시지역과 읍면 지역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특히 대도시와 읍면지역은 1.5배 가량 만족도에서 차이를 보였다. 공공복지시설의 경우에는 도시지역보다 읍면지역의 만족도가 낮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표 Ⅲ-4-37〉 교육·의료·복지시설 이용 만족도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만족하지 않음	약간 만족하지 않음	보통임	대체로 만족함	매우 만족함	계(수)	평균	표준편차
의료기관	전체	4.5	7.9	34.6	44.6	8.4	100.0(1,387)	3.45	0.92
	대도시[a]	2.7	8.0	31.2	50.8	7.3	100.0(561)	3.52	0.85
	중소도시[b]	5.4	7.3	36.4	41.2	9.8	100.0(758)	3.43	0.95
	읍면[c]	8.8	14.7	42.6	30.9	2.9	100.0(68)	3.04	0.97
	$\chi^2(df)/F$			31.26(8)***				8.63***	a,b〉c
교육기관	전체	7.2	13.4	38.7	34.5	6.1	100.0(1,342)	3.19	0.99
	대도시[a]	5.5	14.2	36.1	39.3	4.9	100.0(549)	3.24	0.95
	중소도시[b]	7.9	12.1	40.8	31.9	7.3	100.0(737)	3.19	1.01
	읍면[c]	16.1	23.2	37.5	21.4	1.8	100.0(56)	2.70	1.04
	$\chi^2(df)/F$			28.71(8)***				7.77***	a,b〉c
공공복지시설	전체	6.3	13.4	44.1	31.7	4.5	100.0(1,279)	3.15	0.93
	대도시[a]	5.1	13.5	41.0	37.0	3.4	100.0(505)	3.20	0.90
	중소도시[b]	7.0	13.3	45.9	28.2	5.6	100.0(713)	3.12	0.95
	읍면[c]	8.2	13.1	49.2	27.9	1.6	100.0(61)	3.02	0.90
	$\chi^2(df)/F$			16.00(8)*				1.71	

주: 보호자의 응답임.
* $p < .05$, *** $p < .001$.

패널아동 부모에게 지역 내 여가공간 및 시설 이용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여가공간에 대해 만족한다(대체로 만족함+매우 만족함)는 응답은 놀이터는 61.6%, 공원은 65.5%, 산책로 66.1%, 놀이공원 32.4% 이었다. 놀이공원을 제외하고는 여가공간에 대한 만족한다가 60% 이상으로 만족도는 높은 편이었다. 여가공간에 대한 만족도는 도시지역이 읍면지역보다 높았으며, 놀이터, 놀이공원에 대한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시설 이용 만족도는 만족한다(대체로 만족함+매우 만족

함)는 응답이 실내 체육/놀이시설은 45.3%, 실외 체육시설은 40.5%로 여가공간에 대한 만족도에 비해 다소 낮은 편이었다. 실내 체육/놀이시설은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 만족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표 Ⅲ-4-38〉 여가 공간·시설 이용 만족도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만족하지 않음	약간 만족하지 않음	보통임	대체로 만족함	매우 만족함	계(수)	평균	표준편차
놀이터	전체	3.4	6.0	28.9	51.8	9.8	100.0(1,337)	3.59	0.87
	대도시[a]	3.3	4.8	29.0	53.9	9.0	100.0(542)	3.61	0.85
	중소도시[b]	3.0	6.7	28.0	51.8	10.4	100.0(731)	3.60	0.87
	읍면[c]	9.4	7.8	39.1	34.4	9.4	100.0(64)	3.27	1.06
	$\chi^2(df)/F$			16.5(8)*				4.53*	a,b〉c
공원	전체	2.7	6.5	25.3	52.4	13.1	100.0(1,347)	3.67	0.88
	대도시[a]	2.0	6.7	24.8	54.2	12.3	100.0(537)	3.68	0.85
	중소도시[b]	2.8	6.3	25.5	51.7	13.7	100.0(745)	3.67	0.89
	읍면[c]	6.2	7.7	27.7	46.2	12.3	100.0(65)	3.51	1.02
	$\chi^2(df)/F$			5.61(8)				1.13	
산책로	전체	2.5	6.8	24.6	50.9	15.2	100.0(1,345)	3.69	0.90
	대도시[a]	2.3	6.2	21.4	57.0	13.2	100.0(532)	3.73	0.85
	중소도시[b]	2.9	7.0	26.1	47.5	16.6	100.0(748)	3.68	0.93
	읍면[c]	0.0	9.2	33.8	41.5	15.4	100.0(65)	3.63	0.86
	$\chi^2(df)/F$			17.35(8)*				0.61	
놀이공원	전체	12.7	19.7	35.2	27.7	4.7	100.0(1,251)	2.92	1.08
	대도시[a]	9.2	20.8	33.9	31.6	4.4	100.0(519)	3.01	1.04
	중소도시[b]	14.1	18.9	36.9	25.0	5.1	100.0(681)	2.88	1.09
	읍면[c]	29.4	19.6	25.5	23.5	2.0	100.0(51)	2.49	1.21
	$\chi^2(df)/F$			25.97(8)**				6.41**	a,b〉c
실내 체육시설 /놀이시설	전체	6.5	12.6	35.5	37.7	7.6	100.0(1,314)	3.27	1.00
	대도시[a]	4.7	10.7	33.9	44.4	6.4	100.0(534)	3.37	0.93
	중소도시[b]	8.1	13.6	36.5	33.3	8.5	100.0(718)	3.20	1.04
	읍면[c]	4.8	16.1	38.7	32.3	8.1	100.0(62)	3.23	0.98
	$\chi^2(df)/F$			21.62(8)**				4.34*	a〉b
실외 체육시설	전체	6.8	15.2	37.4	34.5	6.0	100.0(1,291)	3.18	0.99
	대도시[a]	3.8	15.4	38.0	38.6	4.2	100.0(521)	3.24	0.90
	중소도시[b]	8.7	15.3	36.2	32.6	7.2	100.0(712)	3.14	1.05
	읍면[c]	10.3	12.1	46.6	22.4	8.6	100.0(58)	3.07	1.06
	$\chi^2(df)/F$			24.26(8)**				1.85	

주: 보호자의 응답임.
* p 〈 .05, ** p 〈 .01.

문화시설 이용 만족도에 대해 질문한 결과, 영화관에 대한 만족도(대체로 만족함+매우 만족함)가 61.9%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은 도서관이 60.8%, 관람 및 체험시설은 36.5%, 공연시설은 33.0% 이었다. 지역규모별로 만족도는 영화관, 관람 및 체험시설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도시지역보다 읍면지역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다.

〈표 Ⅲ-4-39〉 문화시설 이용 만족도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만족하지 않음	약간 만족하지 않음	보통임	대체로 만족함	매우 만족함	계(수)	평균	표준편차
영화관	전체	5.1	6.7	26.3	50.1	11.8	100.0(1,370)	3.57	0.96
	대도시[a]	5.2	6.1	25.1	50.2	13.4	100.0(554)	3.60	0.97
	중소도시[b]	4.8	6.7	26.9	50.5	11.1	100.0(756)	3.56	0.94
	읍면[c]	8.3	11.7	30.0	43.3	6.7	100.0(60)	3.28	1.04
	$\chi^2(df)/F$				7.95(8)			3.01*	a,b〉c
관람 및 체험시설	전체	9.0	15.2	39.3	31.0	5.5	100.0(1,293)	3.09	1.02
	대도시[a]	6.7	14.3	36.5	36.7	5.7	100.0(523)	3.20	0.98
	중소도시[b]	10.0	15.5	41.5	27.4	5.6	100.0(711)	3.03	1.03
	읍면[c]	16.9	20.3	37.3	23.7	1.7	100.0(59)	2.73	1.06
	$\chi^2(df)/F$				22.36(8)**			8.28***	a,b〉c
공연시설	전체	9.3	18.4	39.4	28.9	4.1	100.0(1,274)	3.00	1.00
	대도시[a]	8.1	17.7	39.4	31.7	3.1	100.0(508)	3.04	0.97
	중소도시[b]	9.8	18.2	39.9	27.2	5.0	100.0(707)	2.99	1.02
	읍면[c]	13.6	25.4	33.9	25.4	1.7	100.0(59)	2.76	1.04
	$\chi^2(df)/F$				9.94(8)			2.10	
도서관	전체	3.6	7.0	28.6	47.0	13.8	100.0(1,360)	3.60	0.93
	대도시[a]	4.5	6.7	28.8	47.9	12.2	100.0(539)	3.57	0.94
	중소도시[b]	3.1	6.9	28.0	46.7	15.4	100.0(754)	3.64	0.93
	읍면[c]	3.0	10.4	34.3	43.3	9.0	100.0(67)	3.45	0.91
	$\chi^2(df)/F$				7.64(8)			2.06	

주: 보호자의 응답임.
* $p < .05$, ** $p < .01$, *** $p < .001$.

패널아동 부모에게 지역 내 양육환경 안전성에 대해 질문한 결과, 안전하다는 응답(대체로 그러함+매우 그러함) 위주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답한 비율이 61.2%로(전년도 55.4%), '유해시설로부

터 안전하다'고 답한 비율이 72.7%(전년도 69)%, '경찰이나 방범대원들이 정기 순찰한다'고 답한 비율이 61.2%(전년도 57.6%)로 전년도에 비해 안전성에 대한 평가는 높아졌다. '취객이나 싸움이 없다'는 질문에는 그렇다는 응답이 82%로 가장 높았다. 반면, '이웃 간에 서로 도와주고 협조하는 분위기'라고 응답한 비율이 49.8%(전년도 48.7%), '아이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면 바로 잡아준다'는 비율이 35.6%(전년도 32.8%)는 다른 양육환경 응답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으나,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의 응답이었다. 양육환경의 안정성은 지역 규모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이었다. 다만, 정기순찰에 대한 평가는 대도시와 읍면 지역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뚜렷하였다.

〈표 Ⅲ-4-40〉 양육환경 안전성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보통임	대체로 그러함	매우 그러함	잘모름	계(수)	평균	표준편차
취객, 싸움 없음	전체	1.6	3.6	12.0	49.6	32.4	0.8	100.0(1,412)	4.09	0.85
	대도시[a]	1.6	4.8	13.3	49.3	30.4	0.7	100.0(566)	4.03	0.88
	중소도시[b]	1.3	3.0	10.6	50.3	33.7	1.0	100.0(771)	4.13	0.82
	읍면[c]	4.0	1.3	16.0	45.3	33.3	0.0	100.0(75)	4.03	0.96
	$\chi^2(df)/F$			12.78(10)					1.59	
범죄로부터 안전	전체	6.1	9.6	22.4	40.9	20.3	0.8	100.0(1,412)	3.60	1.10
	대도시[a]	4.6	10.6	22.1	43.3	18.4	1.1	100.0(566)	3.61	1.05
	중소도시[b]	6.4	9.1	22.4	39.8	21.7	0.6	100.0(771)	3.62	1.11
	읍면[c]	14.7	8.0	24.0	33.3	20.0	0.0	100.0(75)	3.36	1.30
	$\chi^2(df)/F$			17.47(10)					2.13	
유해시설로부터의 안전	전체	5.4	7.0	14.3	36.4	36.3	0.6	100.0(1,412)	3.92	1.13
	대도시[a]	4.2	7.8	15.7	39.8	32.0	0.5	100.0(566)	3.88	1.08
	중소도시[b]	5.3	6.6	13.5	34.6	39.4	0.5	100.0(771)	3.97	1.13
	읍면[c]	14.7	5.3	12.0	29.3	37.3	1.3	100.0(75)	3.70	1.41
	$\chi^2(df)/F$			25.04(10)**					2.16	
정기순찰	전체	1.6	8.0	25.1	41.9	19.3	4.1	100.0(1,412)	3.72	0.93
	대도시[a]	0.7	7.1	21.7	46.1	20.8	3.5	100.0(566)	3.82	0.88
	중소도시[b]	1.7	9.1	27.4	39.2	17.9	4.8	100.0(771)	3.66	0.95
	읍면[c]	6.7	4.0	28.0	38.7	21.3	1.3	100.0(75)	3.65	1.08
	$\chi^2(df)/F$			31.25(10)***					3.39* a〉c	

구분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보통임	대체로 그러함	매우 그러함	잘모름	계(수)	평균	표준편차
협조 분위기	전체	1.5	10.6	36.0	36.5	13.3	2.0	100.0(1,412)	3.51	0.91
	대도시[a]	1.2	10.8	35.9	39.4	10.2	2.5	100.0(566)	3.48	0.87
	중소도시[b]	1.2	11.3	36.4	35.1	14.5	1.4	100.0(771)	3.51	0.92
	읍면[c]	6.7	2.7	33.3	29.3	24.0	4.0	100.0(75)	3.64	1.10
	$\chi^2(df)/F$			36.74(10)***					1.36	
행동 바로 잡아주기	전체	3.0	17.3	40.1	27.5	8.1	4.0	100.0(1,412)	3.21	0.94
	대도시[a]	3.0	15.7	40.5	27.6	8.7	4.6	100.0(566)	3.24	0.94
	중소도시[b]	2.6	18.8	41.0	27.1	7.0	3.5	100.0(771)	3.18	0.92
	읍면[c]	8.0	13.3	28.0	32.0	14.7	4.0	100.0(75)	3.33	1.15
	$\chi^2(df)/F$			18.93(10)*					1.71	
시설물 설치	전체	1.2	6.8	31.5	40.8	17.1	2.5	100.0(1,412)	3.68	0.89
	대도시[a]	0.7	5.5	30.9	43.6	16.6	2.7	100.0(566)	3.72	0.84
	중소도시[b]	1.0	7.7	31.8	39.7	17.5	2.3	100.0(771)	3.67	0.90
	읍면[c]	6.7	8.0	33.3	30.7	17.3	4.0	100.0(75)	3.46	1.10
	$\chi^2(df)/F$			26.71(10)**					1.99	
안전설비 구비	전체	1.1	8.0	32.4	39.3	16.3	2.8	100.0(1,412)	3.63	0.90
	대도시[a]	0.7	6.9	32.5	41.0	16.1	2.8	100.0(566)	3.67	0.86
	중소도시[b]	0.9	8.6	32.4	38.9	16.2	3.0	100.0(771)	3.63	0.90
	읍면[c]	6.7	10.7	32.0	30.7	18.7	1.3	100.0(75)	3.45	1.12
	$\chi^2(df)/F$			26.16(10)**					2.28	

주: 1) 보호자의 응답임.
2) 평균값은 잘모름을 제외하고 분석함.
3) 취객, 싸움 없음(술 취한 사람이나 싸우는 사람을 쉽게 볼 수 있다) 문항은 역코딩을 실시함.
* $p < .05$, ** $p < .01$, *** $p < .001$.

라. 정책 특성

1) 국가지원

아동패널가구의 경제적 특성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분석하였다. 전체 패널가구 중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97.3%로 차상위계층은 1.9%,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는 0.8%로 조사되었다. 모 학력, 가구소득에 따라 패널가구의 경제적 특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나, 차상위계층 및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 속한 응답자가 소수이기 때문에 통계적 차이에 의미를 부여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진다.

〈표 Ⅲ-4-4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구분

단위: %(명)

구분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해당없음	계(수)
전체	0.8	1.9	97.3	100.0(1,376)
모 취업 여부				
취업	0.4	1.8	97.8	100.0(786)
미취업	1.5	1.7	96.9	100.0(543)
$\chi^2(df)$		4.68(2)		
모 학력				
고졸이하	2.0	3.2	94.8	100.0(347)
전문대졸	0.5	1.3	98.2	100.0(396)
대졸이상	0.3	1.2	98.5	100.0(608)
$\chi^2(df)$		14.66(4)**		
가구소득				
399만원 이하	3.2	6.1	90.7	100.0(280)
400~499만원	0.4	0.4	99.2	100.0(237)
500~599만원	0.0	1.1	98.9	100.0(280)
600~699만원	0.0	0.6	99.4	100.0(179)
700만원 이상	0.0	0.3	99.7	100.0(302)
$\chi^2(df)$		66.04(8)***		
지역규모				
대도시	1.3	2.3	96.4	100.0(555)
중소도시	0.4	1.7	97.9	100.0(748)
읍면지역	1.4	0.0	98.6	100.0(73)
$\chi^2(df)$		5.42(4)		

주: 보호자의 응답임.
** $p < .01$, *** $p < .001$.

지난 1년간 정부보조금을 포함한 생활비 지원을 받았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생활비 지원을 받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가 89.0%로 전년도 91.4%에 비해 다소 줄어들었다. 소수이긴 하지만 생활비 지원처를 살펴보면, 정부보조금이 51.9%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회사 30.5%, 친척 및 친지 등 이웃 27.9%, 복지관/종교단체 7.1% 순이었다. 생활비 지원 여부는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지역규모가 중소도시에서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지원 받는 가구가 소수이기 때문에 해석 시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표 Ⅲ-4-42〉 생활비 지원 여부 및 지원처

단위: %(명)

구분	지원 받음	지원받지 않음	계(수)	정부 보조금	친척, 친지 등 이웃	복지관/ 종교단체	회사	(수)
전체	11.0	89.0	100.0(1,398)	51.9	27.9	7.1	30.5	(154)
모 취업 여부								
취업	10.0	90.0	100.0(798)	52.5	25.0	5.0	28.8	(80)
미취업	11.2	88.8	100.0(555)	53.2	32.3	6.5	30.6	(62)
$\chi^2(df)$	0.46(1)					-		
모 학력								
고졸이하	12.9	87.1	100.0(356)	67.4	19.6	6.5	19.6	(46)
전문대졸	10.0	90.0	100.0(402)	50.0	32.5	7.5	32.5	(40)
대졸이상	9.7	90.3	100.0(616)	41.7	31.7	3.3	38.3	(60)
$\chi^2(df)$	2.68(2)					-		
가구소득								
399만원 이하	22.5	77.5	100.0(284)	68.8	31.3	12.5	10.9	(64)
400~499만원	7.5	92.5	100.0(241)	38.9	16.7	5.6	38.9	(18)
500~599만원	9.5	90.5	100.0(284)	40.7	25.9	0.0	48.1	(27)
600~699만원	7.1	92.9	100.0(184)	38.5	23.1	0.0	53.8	(13)
700만원 이상	6.2	93.8	100.0(307)	42.1	31.6	5.3	47.4	(19)
$\chi^2(df)$	53.11(4)***					-		
지역규모								
대도시	11.4	88.6	100.0(559)	51.6	28.1	6.3	31.3	(64)
중소도시	9.7	90.3	100.0(764)	50.0	29.7	5.4	33.8	(74)
읍면지역	21.3	78.7	100.0(75)	62.5	18.8	18.8	12.5	(16)
$\chi^2(df)$	9.63(2)**					-		

주: 보호자의 응답임.
** $p < .01$, *** $p < .001$.

2) 직장 내 육아지원제도

지난 1년간 직장 내 육아지원제도를 활용한 경우를 아버지와 어머니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90% 이상으로 전년도와 큰 차이는 없었다. 적은 비율이기는 하지만 이용률이 높은 제도는 아버지는 유연근무제가 5.1%(전년도 5.2%), 어머니는 육아휴직이 3.5%(전년도 4.2%)이었다.

〈표 Ⅲ-4-43〉 지난 1년간 직장 내 육아지원제도 이용비율

단위: %(명)

구분	출산휴가	육아휴직	유연 근무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 휴직	모두 이용안함	사례수
아버지	0.2	0.9	5.1	0.2	0.8	93.4	(1,243)
어머니	2.1	3.5	3.5	0.5	0.5	92.8	(802)

주: 어머니/아버지의 응답임.

3) 학교 정책

아동 패널 부모에게 학교 정책의 수혜 여부에 대해 질문하였다. 그 결과, '학교폭력예방정책'이 63.2%(전년도 67.3%), '학교급식안전관리'가 63.0%(전년도 65.5%)로 가장 높았으며, 전년도에 비해 다소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60% 이상으로 높은 편이었다. 그 다음은 '진로탐색교육'이 51.3%(전년도 48.3%)로 전년도에 비해 수혜여부는 늘어났으며, '가족체험 학습 출석인정'이 39.9%(전년도 45.5%)로 전년도에 비해 다소 줄어들었다. 학교정책 수혜여부는 아동 특성, 가구 특성, 지역 규모별 차이는 없었다.

〈표 Ⅲ-4-44〉 학교정책 수혜여부

단위: %(명)

구분	가족체험 학습 출석 인정	진로 탐색 교육	학교 폭력 예방 정책	학교 급식 안전 관리	장애 학생 지원 제도	교육비 지원 제도	인성 체육 예술 교육	사례수
전체	39.9	51.3	63.2	63.0	11.0	9.1	36.9	(1,412)
성별								
남아	38.6	49.7	64.4	62.5	11.3	10.3	36.8	(725)
여아	41.3	53.1	61.9	63.5	10.8	7.7	37.0	(687)
아동출생순위								
외동아	49.3	56.0	66.0	66.0	13.3	10.7	45.3	(150)
첫째	39.9	50.3	64.9	62.9	10.4	7.6	36.9	(501)
둘째 이상	38.2	51.1	61.4	62.3	10.9	9.7	35.2	(759)
모 취업 여부								
취업	38.2	51.1	61.8	62.6	10.6	7.9	36.7	(802)
미취업	43.5	53.3	66.1	64.1	11.7	10.1	39.3	(563)

구분	가족체험 학습 출석 인정	진로 탐색 교육	학교 폭력 예방 정책	학교 급식 안전 관리	장애 학생 지원 제도	교육비 지원 제도	인성 체육 예술 교육	사례수
모 학력								
고졸이하	39.1	48.8	64.8	64.8	11.6	13.0	36.8	(361)
전문대졸	40.5	53.1	65.7	63.7	10.4	6.9	33.3	(405)
대졸이상	40.7	53.0	61.0	61.8	11.1	7.7	40.6	(621)
가구소득								
399만원 이하	35.4	53.5	68.4	68.1	11.5	17.0	38.9	(288)
400~499만원	43.3	51.0	63.3	60.4	7.8	5.7	33.5	(245)
500~599만원	38.8	49.3	64.3	63.3	10.5	5.9	35.3	(286)
600~699만원	41.1	51.9	59.5	63.2	12.4	7.0	41.6	(185)
700만원 이상	40.3	51.9	61.4	62.3	12.0	7.5	36.7	(308)
지역규모								
대도시	34.1	52.5	62.5	61.7	11.8	8.0	34.5	(566)
중소도시	44.6	50.2	62.6	62.8	10.1	9.5	38.4	(771)
읍면지역	36.0	54.7	73.3	74.7	14.7	13.3	40.0	(75)

주: 보호자의 응답임.

패널아동 부모에게 수혜를 입은 학교정책 만족도를 질문하였다. 대부분의 정책에 대해 만족도(대체로 만족함과 매우 만족함을 모두 포함) 비율은 70% 이상으로 전년도 69% 이상에 비해 다소 높아졌다. 특히 '가족체험 학습 출석 인정' 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82.8%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은 '인성체육예술교육'이 72.4%, '학교급식안전관리'가 71.3%로 만족도가 높은 정책이었다.

〈표 Ⅲ-4-45〉 학교정책 만족도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만족하지 않음	대체로 만족하지 않음	보통	대체로 만족함	매우 만족함	계(수)	평균	표준 편차
가족체험 학습 출석 인정	0.5	0.9	15.8	65.8	17.0	100.0(564)	3.98	0.64
진로탐색교육	0.7	1.5	29.0	63.0	5.8	100.0(725)	3.72	0.63
학교폭력예방정책	0.3	1.3	30.4	62.3	5.6	100.0(892)	3.72	0.60
학교급식안전관리	0.4	0.8	27.4	64.3	7.0	100.0(889)	3.77	0.60
장애학생지원제도	1.3	2.6	26.9	61.5	7.7	100.0(156)	3.72	0.70
교육비지원제도	3.1	5.5	25.8	53.9	11.7	100.0(128)	3.66	0.87
인성체육예술교육	0.8	1.0	25.9	65.5	6.9	100.0(521)	3.77	0.62

주: 보호자의 응답임.

Ⅳ

주요 변인 종단적 추이 분석

01 아동 특성

02 부모 및 가구 특성

03 탈락 패널 성향 분석

Ⅳ. 주요 변인 종단적 추이 분석

2008년 0세부터 시작하여 2019년 만11세가 될 때까지 전반적인 변화의 추이를 볼 수 있는 몇 가지 지표를 선정하여 해마다의 측정결과를 연속적으로 표시해보았다. 가능한 지속적으로 측정하여 빠짐없이 값을 가져올 수 있었던 변인만을 선택하였다.

1. 아동 특성

가. 신체 변화

체중의 변화를 보면, 만11세가 넘은 2019년에는 이전년도에 비해 남녀모두 약 6㎏의 증가가 있었고 증가폭이 그 전 어느 때보다도 커진 것을 알 수 있다. 출생시기 체중의 약 13배 이상 증가하여, 만10세에서 11세 사이에 체증 증가량이 급격해짐을 확인할 수 있다. 직전 연도(11차 조사) 대비로 보면 남아는 평균 5.9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전 10차와 11차년도 사이 4.64㎏ 성장한 경우보다 평균 1.3㎏이 더 증가한 것이다. 8차 이전의 경우 2~3㎏씩 체중이 증가하던 것에 비하면 만8세 이후 증가 폭이 커진 것을 알 수 있다. 여아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11차와 12차 사이에 평균 5.69㎏ 성장하여 이전 차수 간 증가치에 비해 성장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1-1〉 조사 차수별 아동의 체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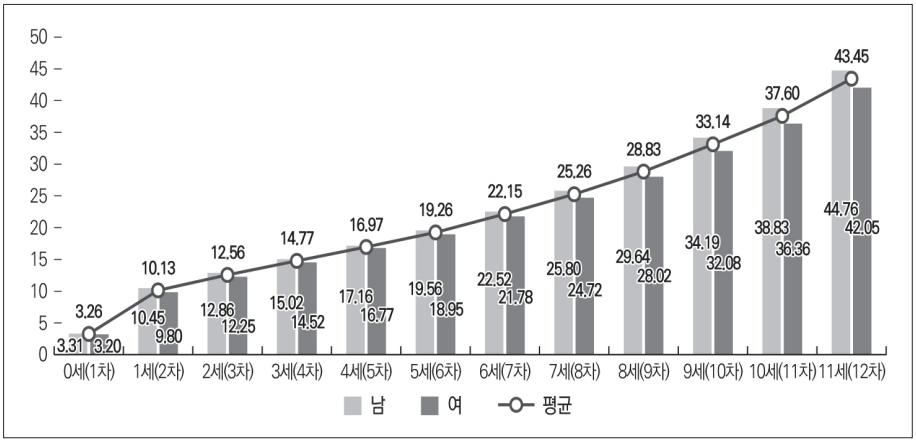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체중(남)					체중(여)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수)
0세(1차)	3.31	0.41	1.4	4.7	(1,055)	3.20	0.40	1.2	4.9	(1,018)
1세(2차)	10.45	1.09	5.7	15.0	(858)	9.80	1.03	7.0	13.0	(851)
2세(3차)	12.86	1.44	7.0	21.0	(883)	12.25	1.37	8.6	20.0	(854)

구분	체중(남)					체중(여)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수)
3세(4차)	15.02	1.67	11.0	21.0	(902)	14.52	1.66	10.0	21.0	(852)
4세(5차)	17.16	2.09	11.0	25.0	(870)	16.77	2.14	11.6	29.6	(833)
5세(6차)	19.56	2.67	13.0	33.0	(853)	18.95	2.63	11.0	34.5	(802)
6세(7차)	22.52	3.65	15.4	38.8	(794)	21.78	3.49	14.0	38.6	(756)
7세(8차)	25.80	4.64	16.8	48.2	(797)	24.72	4.34	17.0	48.7	(759)
8세(9차)	29.64	5.88	19.4	54.30	(769)	28.02	5.36	18.00	55.00	(726)
9세(10차)	34.19	7.38	20.6	69.30	(751)	32.08	6.64	18.80	60.00	(724)
10세(11차)	38.83	8.42	20.0	75.5	(725)	36.36	7.80	21.3	75.6	(696)
11세(12차)	44.76	10.05	23.4	75.0	(706)	42.05	8.55	24.4	75.0	(666)

[그림 Ⅳ-1-1] 조사 차수별 아동의 체중 변화

단위: kg



패널아동 신장의 성장을 살펴보면, 우선 12차년도에는 남녀 간 신장의 차이가 역전된 결과를 찾을 수 있다. 10차년도까지는 남아가 평균 1~1.5㎝정도씩 더 컸고 11차년도(10세)에 이르러 남녀가 겨우 0.1㎝ 차이를 보이다가 12차년도(11세)에는 결국 여아의 평균이 0.47㎝ 더 커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표준편차는 남녀 모두 6.70㎝, 6.43㎝로 이전의 수치들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큰 크기를 나타내, 개인간 신장의 차이가 이 시기부터 급격히 벌어지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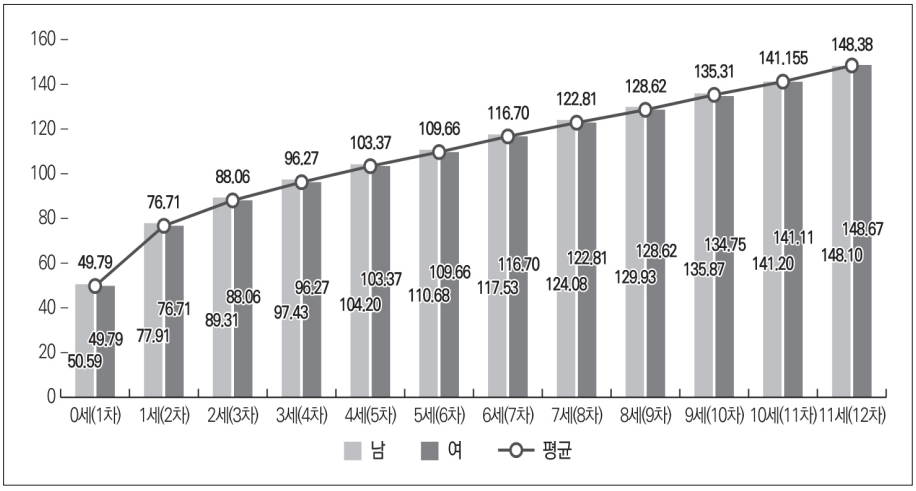
〈표 Ⅳ-1-2〉 조사 차수별 아동의 신장

단위: cm(명)

구분	신장(남)					신장(여)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수)
0세(1차)	50.59	2.35	36.5	60.0	(908)	49.79	2.74	29.4	58.0	(907)
1세(2차)	77.91	4.09	60.0	96.0	(558)	76.71	3.98	60.0	100.0	(561)
2세(3차)	89.31	4.11	65.0	110.0	(716)	88.06	3.89	69.0	100.0	(699)
3세(4차)	97.43	3.82	85.0	111.0	(902)	96.27	3.56	85.0	110.0	(851)
4세(5차)	104.20	4.19	85.0	125.0	(870)	103.37	3.93	91.2	120.0	(833)
5세(6차)	110.68	4.55	97.0	130.0	(851)	109.66	4.31	98.0	125.0	(801)
6세(7차)	117.53	4.70	103.0	132.0	(791)	116.70	4.62	104.0	130.5	(757)
7세(8차)	124.08	5.02	109.0	144.0	(798)	122.81	4.98	107.2	140.5	(761)
8세(9차)	129.93	5.27	114.0	148.8	(769)	128.62	5.19	113.0	147.0	(727)
9세(10차)	135.87	5.58	119.0	155.0	(750)	134.75	5.68	116.0	154.0	(724)
10세(11차)	141.20	6.43	123.1	172.2	(718)	141.11	6.43	120.3	164.7	(687)
11세(12차)	148.10	6.70	129.0	172.0	(709)	148.67	6.43	122.3	168.0	(675)

[그림 Ⅳ-1-2] 조사 차수별 아동의 신장 변화

단위: cm



아동의 체중과 신장을 이용하여 체질량 지수를 산출하였고, 남녀 평균 각각 20.28kg/m^2, 18.93kg/m^{2}으로 나와서, 이전년도들에 비해 꾸준히 늘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아의 경우보다 남아의 경우 BMI 증가 폭은 전반적으로 큰

것으로 보이고 남아는 11세에 평균이 20kg/m^{2}을 넘어서고 있어 체질량 지수 증가에 주의를 두어야 할 경우도 꽤 많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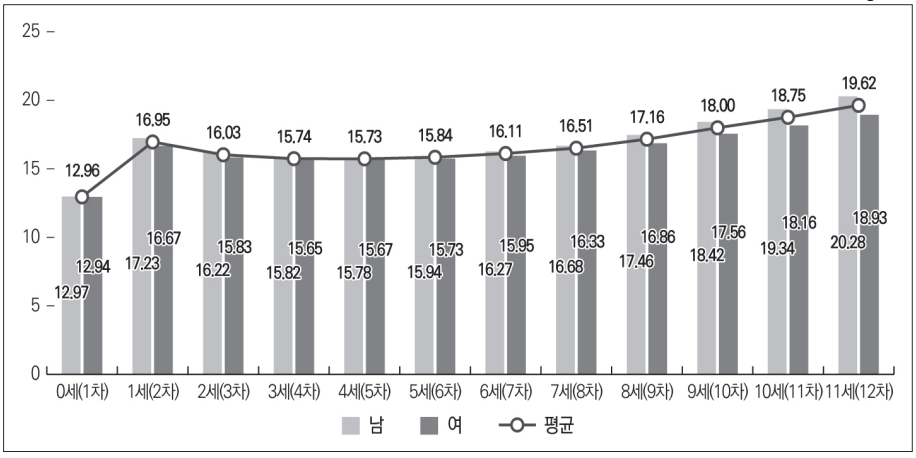
〈표 Ⅳ-1-3〉 조사 차수별 아동의 BMI

단위: kg/m^2(명)

구분	BMI(남)					BMI(여)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수)
0세(1차)	12.97	1.45	5.40	28.37	(908)	12.94	1.73	7.89	34.01	(907)
1세(2차)	17.23	1.90	10.85	33.33	(557)	16.67	2.02	9.50	30.56	(559)
2세(3차)	16.22	1.78	8.33	30.28	(714)	15.83	1.72	10.63	24.69	(698)
3세(4차)	15.82	1.42	10.68	22.71	(902)	15.65	1.43	10.37	22.45	(851)
4세(5차)	15.78	1.39	11.70	22.07	(870)	15.67	1.48	12.08	23.97	(833)
5세(6차)	15.94	1.64	11.34	24.35	(851)	15.73	1.69	9.26	24.65	(800)
6세(7차)	16.27	2.05	12.42	30.85	(790)	15.95	1.97	11.57	24.86	(753)
7세(8차)	16.68	2.33	12.49	28.80	(797)	16.33	2.24	11.21	27.49	(759)
8세(9차)	17.46	2.72	12.76	26.80	(769)	16.86	2.46	12.68	28.06	(726)
9세(10차)	18.42	3.19	11.81	32.07	(749)	17.56	2.80	12.25	28.70	(724)
10세(11차)	19.34	3.45	12.71	30.30	(716)	18.16	3.12	12.74	40.89	(683)
11세(12차)	20.28	3.66	12.27	30.82	(704)	18.93	3.02	13.23	32.67	(664)

[그림 Ⅳ-1-3] 조사 차수별 아동의 BMI

단위: kg/m^2



나. 생활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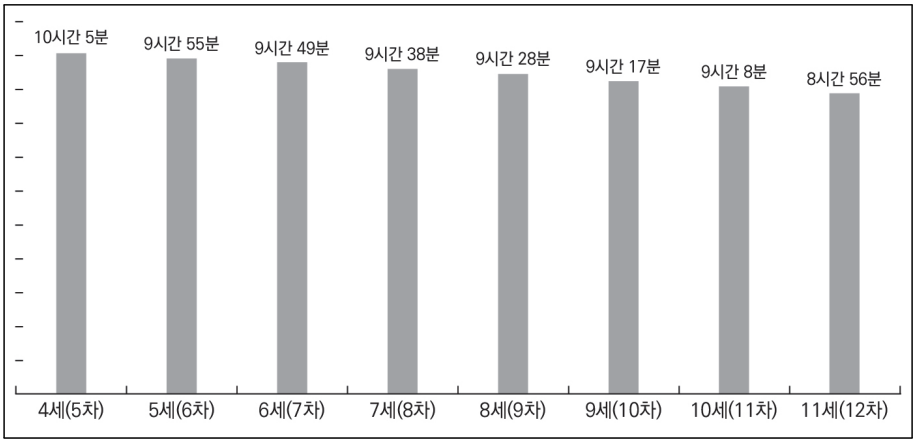
아동의 생활시간 중 수면과 미디어 이용시간을 자료가 구축되어 있는 5차 조사 결과부터 살펴보았다. 수면시간을 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는데, 평균 매년 10분 정도씩 수면시간이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결과적으로 수면시간을 처음 측정하였던 5차년도에 비해 11차년도는 1시간 9분이 감소되어, 우리나라 초등학교 5학년 아동들은 8시간 56분 정도를 자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만11세가 되면서 수면시간이 8시간대에 진입하고 있고 이 때 표준편차는 40분이므로 8시간 초반 대 수면을 취하는 아동도 상당함을 짐작할 수 있다.

〈표 Ⅳ-1-4〉 차수별 아동의 수면, 미디어이용, 독서시간

구분	수면	
	평균	표준편차
4세(5차)	10시간 5분	48분
5세(6차)	9시간 55분	46분
6세(7차)	9시간 49분	42분
7세(8차)	9시간 38분	37분
8세(9차)	9시간 28분	38분
9세(10차)	9시간 17분	37분
10세(11차)	9시간 8분	40분
11세(12차)	8시간 56분	40분

주: 해당 자료에서 사용된 시간들은 모두 주중 기준임.

[그림 Ⅳ-1-4] 차수별 아동의 수면시간



아동이 스마트폰이나 PC, 태블릿 등의 기기를 이용해서 인터넷에 접속하는, 미디어 이용시간을 보면, 12차년도에는 평균 1시간 50분으로 나와 조사가 시작된 9차년도 이래 지속적으로 길어지고 있고 지난 4년 동안 51분 늘어난 결과를 보였다. 표준편차 또한 커져서 12차년도에는 표준편차가 60분으로 나왔는데, 이를 미루어보면 일일 3시간 가까이 인터넷을 하는 아동도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독서시간은 8차년도 41분에서 12차년도 32분으로 5년에 걸쳐 꾸준히 줄어든 경향을 보인다. 11차년도까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4학년과 5학년 사이 연령에서 5분이 줄어들어 확연히 독서시간이 적어진 모습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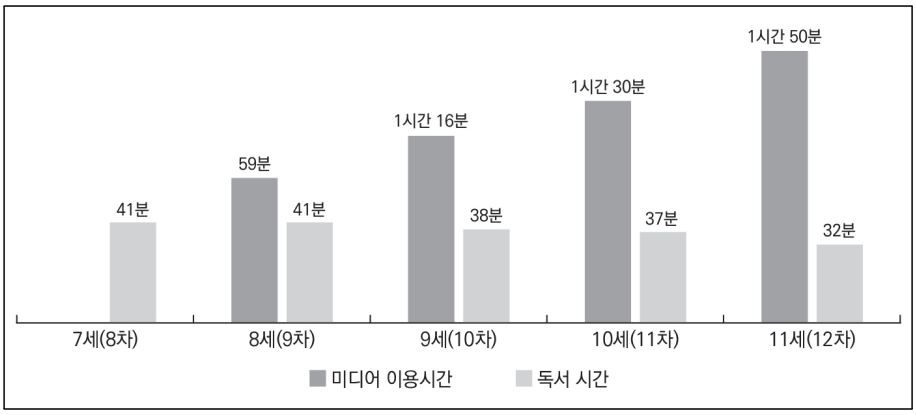
〈표 Ⅳ-1-5〉 차수별 아동의 미디어(인터넷) 이용시간 및 독서 시간

구분	미디어(인터넷) 이용시간		독서시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7세(8차)	-	-	41분	28분
8세(9차)	59분	41분	41분	26분
9세(10차)	1시간 16분	45분	38분	26분
10세(11차)	1시간 30분	58분	37분	27분
11세(12차)	1시간 50분	60분	32분	25분

주: 독서시간의 경우, 전체사례를 포괄하여 주중 평균시간을 산출함.

[그림 Ⅳ-1-5]를 보면, 미디어 이용시간을 점차 길어지고 독서시간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경향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Ⅳ-1-5] 차수별 아동의 미디어이용, 독서시간



2. 부모 및 가구 특성

가. 부모의 취업

어머니의 취업률은 해마다 조금씩 상향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자녀가 11세가 된 12차년도 조사에서는 어머니의 59.1%가 취업한 것으로 나타나 이전년도 조사에서 이 비율이 55.3%였던 것에 비해 약 4%p가 늘어난 결과를 보였다. 그리고 이는 우리나라 전체의 여성 취업률이 약 51%로 알려져 있는데 비해서도 높은 비율인 것이다. 패널조사 시작 시기 자녀가 0세였던 1차 조사에서는 30%였으나 11세가 된 이제는 그 두 배에 가까운 여성이 취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이 되었던 8차년도에 이전년도에 비해 2%p 떨어지는 결과를 보이다가 8세가 되는 9차년도부터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10차년도에 과반을 넘어섰다. 자녀의 연령이 높아지고 초등학교 적응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어머니 취업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표 Ⅳ-2-1〉 차수별 부모의 취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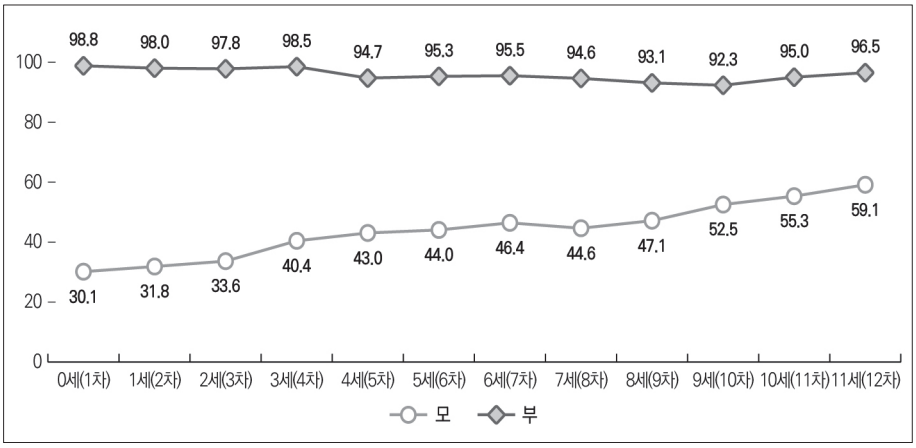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어머니			아버지		
	취업	미취업	계(수)	취업	미취업	계(수)
0세(1차)	30.1	69.9	100.0(2,078)	98.8	1.2	100.0(2,010)
1세(2차)	31.8	68.2	100.0(1,887)	98.0	1.7	100.0(1,892)
2세(3차)	33.6	66.4	100.0(1,801)	97.8	2.2	100.0(1,788)
3세(4차)	40.4	59.6	100.0(1,741)	98.5	1.5	100.0(1,740)
4세(5차)	43.0	57.0	100.0(1,683)	94.7	5.3	100.0(1,616)
5세(6차)	44.0	56.0	100.0(1,638)	95.3	4.7	100.0(1,540)
6세(7차)	46.4	53.6	100.0(1,587)	95.5	4.5	100.0(1,483)
7세(8차)	44.6	55.4	100.0(1,568)	94.6	5.4	100.0(1,469)
8세(9차)	47.1	52.9	100.0(1,492)	93.1	6.9	100.0(1,371)
9세(10차)	52.5	47.5	100.0(1,442)	92.3	7.7	100.0(1,304)
10세(11차)	55.3	44.3	100.0(1,391)	95.0	5.0	100.0(1,331)
11세(12차)	59.1	40.9	100.0(1,365)	96.5	3.5	100.0(1,244)

주: 취업에는 학업중인 경우도 포함됨.

[그림 Ⅳ-2-1] 부모의 취업률 변화

단위: %



아버지의 경우는 자녀가 11세인 12차년도 조사에서 96.5%가 취업중인 것으로 나타나 연도 간 1~3%p씩 차이를 보이고는 있으나 12차년도에는 11차년도에 비해 아버지 미취업 비율이 1.5%p 떨어졌음이 특이점이다(표 Ⅳ-2-1 참조).

취업모인 경우 어머니의 종사상 지위를 연도별로 비교해보면, 자녀가 태어날 무렵에는 85.7%가 정규직/상용직이었으나 자녀 1세일 때 80% 이하로 비율이 떨어졌고 점차 줄어들어 10차년도에 62.7%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다 11차년도에는 정규직 비율이 조금 높아지는 경향으로 나타났으나 12차년도에는 다시 5차년도(자녀연령 만4세) 수준인 61.5%로 떨어졌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취업 어머니의 정규직 비율은 65% 이내로 정체되어 있는 경향이고 자녀 0~1세 시기의 80% 수준까지는 회복되지 않고 있다.

〈표 Ⅳ-2-2〉 어머니의 종사상 지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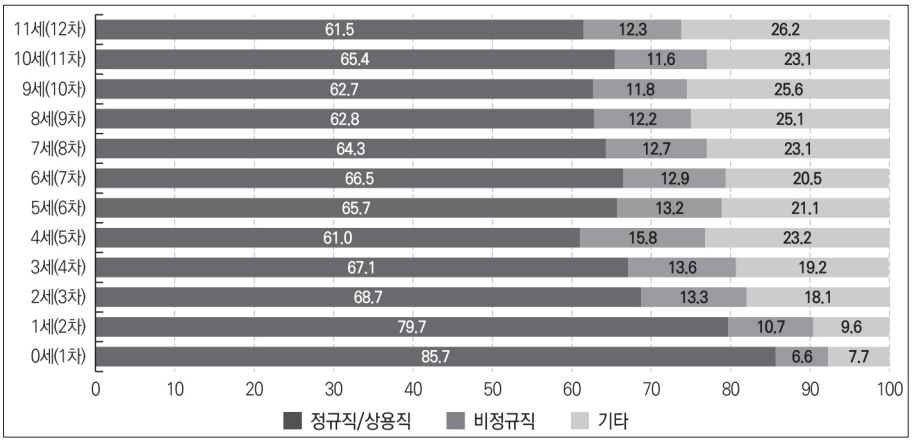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어머니				
	정규직/상용직	비정규직		기타	계(수)
		임시직	일용직		
0세(1차)	85.7	4.8	1.8	7.7	100.0(622)
1세(2차)	79.7	8.3	2.4	9.6	100.0(591)
2세(3차)	68.7	11.6	1.7	18.1	100.0(588)
3세(4차)	67.1	12.4	1.2	19.2	100.0(691)

구분	어머니				
	정규직/상용직	비정규직		기타	계(수)
		임시직	일용직		
4세(5차)	61.0	12.9	2.9	23.2	100.0(715)
5세(6차)	65.7	11.7	1.5	21.1	100.0(711)
6세(7차)	66.5	12.1	0.8	20.5	100.0(725)
7세(8차)	64.3	11.1	1.6	23.1	100.0(694)
8세(9차)	62.8	10.9	1.3	25.1	100.0(698)
9세(10차)	62.7	10.3	1.5	25.6	100.0(751)
10세(11차)	65.4	9.7	1.8	23.1	100.0(807)
11세(12차)	61.5	10.1	2.2	26.2	100.0(802)

[그림 Ⅳ-2-2] 어머니의 종사상 지위

단위: %(명)



나. 가구 소득과 지출

월평균 가구소득을 보면 꾸준히 증가되고 있는 경향을 알 수 있는데, 12차년도에는 평균 565.4만원으로 조사되어 전년도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11차년도가 10차년도에 비해 23만원이 증가했던 것에 비하면 본 조사가 실시된 2019년에는 각 패널가구가 2018년에 비해 소득이 증가한 정도가 미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표준편차는 다소 줄어들어 소득 간 격차는 적어진 듯하다. 중간값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총지출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12차년도에는 이전년도에 비해 12만원 가량 높아졌다. 그러나 11차년도부터는 자녀에 대한 지출이 평균 150만원

을 넘어선 것으로 보고되어 있어, 자녀양육에 소비되는 비용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평균 2명의 자녀가 있다고 볼 때 초등생 연령(추정) 자녀 1인당의 지출 비용이 75만원을 초과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자녀에 대한 지출이 전체 가구 지출의 33.2%를 차지하고 가구 소득 대비는 27.1%를 차지한다, 기존의 자녀에 대한 지출을 전체 가구 지출 대비 비율로 보면, 각 연령별로는 0세는 24.5%, 2세 17.4%, 5세 32.7%, 8세 33.4%로 나타나 영아기를 벗어나서 유아기부터 아동기는 거의 비슷한 비중으로 지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Ⅳ-2-3〉 차수별 월평균 가구소득 및 총 지출

단위: 만원(명)

구분	0세(1차)	1세(2차)	2세(3차)	3세(4차)	4세(5차)	5세(6차)
			월평균 가구 소득			
평균	310.4	331.4	352.39	526.8	474.47	422.13
표준편차	138.33	222.54	257.81	857.67	470.66	187.42
중위값	300	300	300	380	400	400
(수)	(1,363)	(1,359)	(1,367)	(1,367)	(1,367)	(1,361)
			가구 총 지출			
평균	229.4	261.7	279.69	301.64	339.13	376.56
표준편차	108.69	213.2	217.06	128.78	149.8	163.68
중위값	210	230	250	280	300	350
(수)	(1,293)	(1,366)	(1,365)	(1,366)	(1,366)	(1,367)
			자녀에 대한 총 지출			
평균	56.16	45.8	48.7	104.72	118.46	122.96
표준편차	65.1	55.41	61.36	60.29	62.56	68.4
중위값	35	34	35	90	110	110
(수)	(1,284)	(1,337)	(1,365)	(1,355)	(1,362)	(1,284)
구분	**6세(7차)**	**7세(8차)**	**8세(9차)**	**9세(10차)**	**10세(11차)**	**11세(12차)**
			월평균 가구 소득			
평균	441.98	460.44	492.66	541.81	564.95	565.39
표준편차	184.94	191.44	231	483.15	524.24	425.63
중위값	400	400	450	500	500	500
(수)	(1,365)	(1,354)	(1,519)	(1,335)	(1,293)	(1,312)
			가구 총 지출			
평균	400.02	424.63	431.71	435.88	448.61	460.93
표준편차	197.79	226.34	189.84	251.01	220.53	264.5
중위값	370	400	400	400	400	410
(수)	(1,367)	(1,366)	(1,514)	(1,484)	(1,434)	(1,312)
			자녀에 대한 총 지출			
평균	131.08	138.97	144.22	137.9	151.27	153.19
표준편차	79.02	77.09	76.55	83.93	95.53	117.53
중위값	115	120	130	120	130	130
(수)	(1,337)	(1,365)	(1,355)	(1,362)	(1,434)	(1,312)

다. 부모의 결혼생활

1차년도부터 측정해온 부모갈등 점수를 보면 어머니의 경우 7차년도 6세를 기점으로 갈등점수가 줄어들면서 안정화된 모습을 보이고, 아버지의 경우는 연도마다 오르락내리락하는 점수 변화를 보인다. 아버지와 어머니 간 부부갈등 점수를 비교해보면 꾸준히 어머니의 점수가 높은 경향을 보이나 2016년도 9차년도 조사에서는 어머니보다 아버지의 점수가 미세하나마 0.2점 높은 것으로 나와 역전 현상을 보였다. 그러나 11차년도 조사결과는 아버지가 다시 0.1점 낮은 것으로 조사되어 부부 간 거의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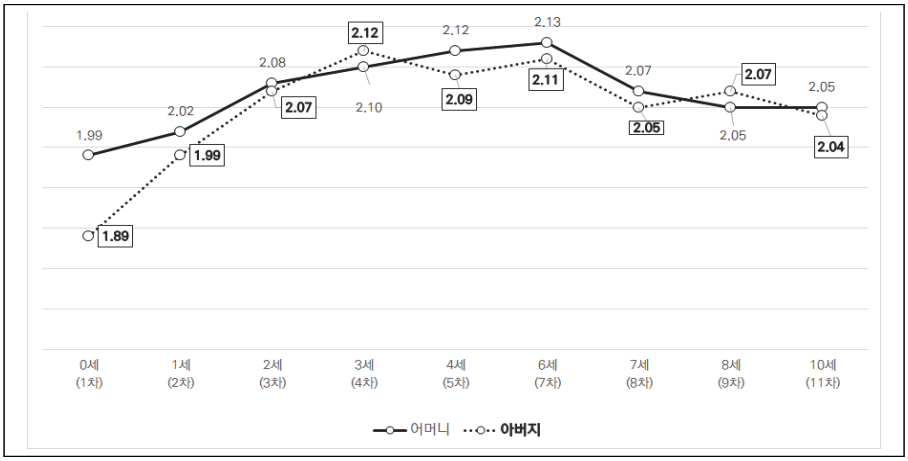
〈표 Ⅳ-2-4〉 차수별 부모의 부부갈등

단위: 점(명)

구분	어머니			아버지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0세(1차)	1.99	0.77	(1,858)	1.89	0.70	(1,649)
1세(2차)	2.02	0.76	(1,815)	1.99	0.70	(1,727)
2세(3차)	2.08	0.77	(1,710)	2.07	0.74	(1,620)
3세(4차)	2.10	0.76	(1,696)	2.12	0.73	(1,621)
4세(5차)	2.12	0.78	(1,664)	2.09	0.72	(1,607)
6세(7차)	2.13	0.84	(1,563)	2.11	0.77	(1,479)
7세(8차)	2.07	0.82	(1,545)	2.05	0.73	(1,467)
8세(9차)	2.05	0.82	(1,435)	2.07	0.77	(1,359)
10세(11차)	2.05	0.81	(1,401)	2.04	0.79	(1,182)

[그림 Ⅳ-2-3] 부모의 부부갈등

단위: 점



부모의 결혼만족도는 매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보이나, 어머니는 0.02점이 하락하였고 아버지는 0.01점이 상승하여, 자녀의 6세 이후 부부 모두 결혼만족도 점수가 조금씩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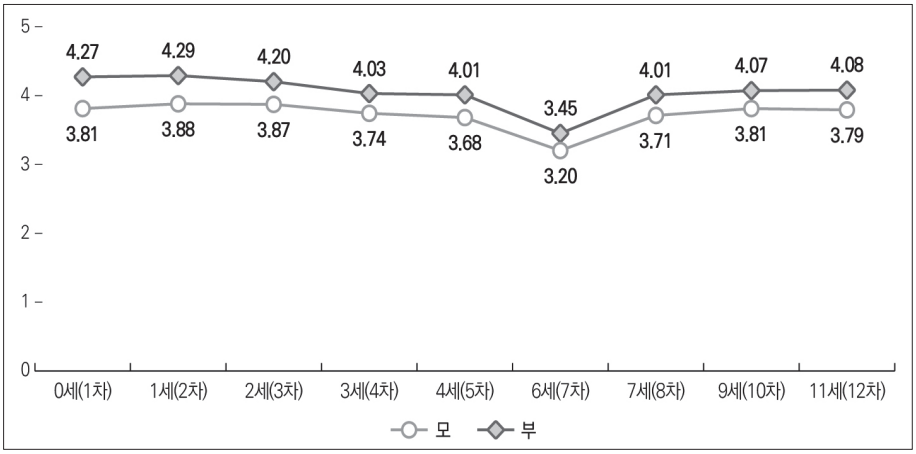
〈표 Ⅳ-2-5〉 부모의 결혼만족도

단위: 점(명)

구분	어머니			아버지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0세(1차)	3.81	0.77	(1,857)	4.27	0.68	(1,648)
1세(2차)	3.88	0.79	(1,874)	4.29	0.71	(1,788)
2세(3차)	3.87	0.77	(1,756)	4.20	0.72	(1,673)
3세(4차)	3.74	0.73	(1,690)	4.03	0.65	(1,622)
4세(5차)	3.68	0.76	(1,665)	4.01	0.66	(1,611)
6세(7차)	3.20	0.67	(1,564)	3.45	0.56	(1,479)
7세(8차)	3.71	0.81	(1,547)	4.01	0.73	(1,467)
9세(10차)	3.81	0.94	(1,394)	4.07	0.85	(1,304)
11세(12차)	3.79	0.85	(1,245)	4.08	0.79	(1,157)

[그림 Ⅳ-2-4] 부모의 결혼만족도

단위: 점



라. 양육환경

자녀양육 환경을 살펴본다는 측면에서 거주 가정에서 여가시설 및 문화시설 이용이 얼마나 편리한지를 해마다 측정해왔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영아기에는 이들

시설에 대한 접근 편리성이 높은 편이다가 유아기가 되면서 떨어졌다. 그러나 자녀가 초등학교에 들어간 이후에는 조금씩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유아기에 비해서는 초등학생이 되면 부모와 함께 즐길 수 있는 여가, 문화시설이 더 많다고 느끼는 것으로 보여진다. 전반적으로 편리성에 대한 인식은 점점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표 Ⅳ-2-6〉 여가 시설 및 문화시설 이용 편리성

단위: 점(명)

구분	여가 시설 접근 편리성			문화시설 접근 편리성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0세(1차)	3.25	1.08	(1,864)	2.57	1.10	(1,855)
1세(2차)	3.15	1.07	(1,895)	2.51	1.06	(1,897)
2세(3차)	3.23	1.05	(1,771)	2.53	1.04	(1,770)
3세(4차)	3.12	1.02	(1,700)	2.50	1.02	(1,701)
4세(5차)	3.13	1.19	(1,673)	2.41	1.10	(1,672)
5세(6차)	3.13	1.18	(1,613)	2.43	1.09	(1,613)
6세(7차)	3.24	1.16	(1,565)	2.50	1.07	(1,565)
7세(8차)	3.18	1.18	(1,556)	2.92	1.15	(1,556)
8세(9차)	3.25	1.08	(1,525)	3.03	1.06	(1,525)
9세(10차)	3.38	1.03	(1,484)	3.16	1.05	(1,484)
10세(11차)	3.35	0.78	(1,434)	3.18	0.86	(1,434)
11세(12차)	3.40	0.75	(1,412)	3.23	0.82	(1,412)

3. 탈락 패널 성향 분석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의 패널 조사를 통해 조사 참여 거부를 밝히고 조사에서 최종 탈락한 149가구에 대해 특성을 분석해보았다. 이것은 탈락한 패널의 성향을 확인함으로써 향후 패널 탈락률을 낮추고 패널 유지를 위해 더욱 주의해서 보아야 할 점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한 종단 분석의 일종이다. 탈락가구와 대비되는 유지패널로서는 2008년 초기부터 2019년까지 중도 복구 없이 꾸준히 조사에 참여하였던 1,061가구의 자료를 같이 분석하였다.

가. 지역별 패널 탈락 현황

전국 17개 시·도별로 지난 3년 간 조사에서 탈락한 패널의 분포를 살펴보면, 조사대상수가 매우 적은(4명)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경북과 인천에서 탈락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각각 18.3%와 18.2%). 인천의 경우 사례 수 자체가 많지 않아 탈락률이 높아 보이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비슷한 패널 수를 가진 광주나 충북에 비해서도 비율이 높고 사례수가 10가구나 적은 강원에 비해서도 탈락률이 높아 지역 특성이 있어 보인다 (표 Ⅳ-3-1 참조).

반면, 패널 수가 많은 편인 경남이나 서울, 충남은 비교적 탈락률이 낮은 편이어서 한 자릿수의 탈락률을 보이고 있고, 패널 수가 40가구에 불과한 전북의 경우도 3년간 2가구만 조사에서 탈락한 것으로 나타나 5%의 탈락률을 보여 경남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낮은 탈락률 위치이고 숫자로는 가장 적은 탈락 패널 현황을 보이고 있다. 서울의 경우 비교적 탈락률이 낮아 시지역이나 도지역 등 지역규모나 행정특성별로 일정한 경향성을 찾기는 어렵다.

〈표 Ⅳ-3-1〉 탈락 패널의 거주 시·도 분포(2017~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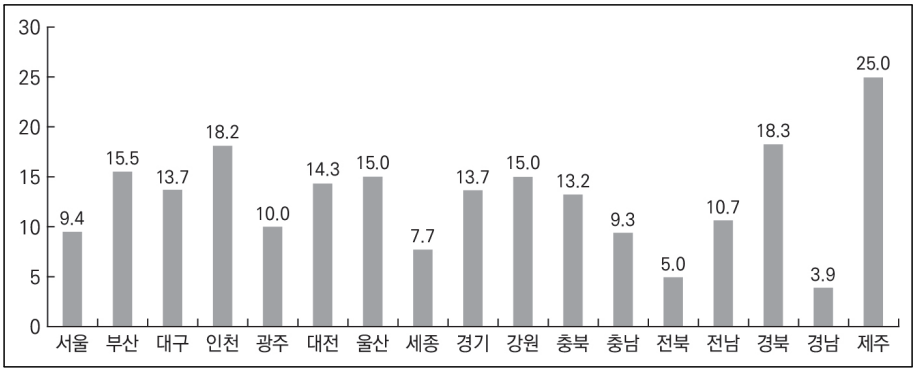
단위: 명, %

거주 시·도	사례수주)	탈락 현황		거주 시·도	사례수	탈락 현황	
		수	비율(%)			수	비율(%)
서울	128	12	9.4	강원	20	3	15.0
부산	71	11	15.5	충북	38	5	13.2
대구	95	13	13.7	충남	75	7	9.3
인천	**33**	**6**	**18.2**	전북	40	2	5.0
광주	30	3	10.0	전남	75	8	10.7
대전	56	8	14.3	**경북**	**60**	**11**	**18.3**
울산	60	9	15.0	경남	76	3	3.9
세종	13	1	7.7	제주	4	1	25.0
경기	336	46	13.7	전체	1,210	149	12.3

주: 2016년 실시 조사까지 지속적으로 참여해온 가구 수

[그림 Ⅳ-3-1] 시·도별 패널 탈락율(2017~2019 기준)

단위: %



나. 특성별 패널 탈락 현황

2017년부터 3년 사이 패널 조사에서 탈락한 149명을 이사 여부, 어머니의 취업 여부, 결혼상태의 변화, 어머니 최종학력, 가수소득 정도, 아동의 성별 등 특성별로 분석해보았다. 〈표 Ⅳ-3-2〉를 보면, 패널 조사 탈락자와 조사 참여 유지자 간 유의미한 정도로 차이를 나타내는 변수로는 시군구 간 이동이 있은 이사 사건(event)과 어머니의 취업 여부가 탈락비율에서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시도 간 이사나 사별이나 이혼으로 인한 결혼 상태의 변화, 가구소득 등은 패널 탈락 여부에 차이를 가져오지 않았다.

〈표 Ⅳ-3-2〉 제 특성별 패널 탈락 현황 (2017~2019)

범주	세부 특성	해당 사례 수	탈락		유의도주)
			수	비율(%)	
이사	시도 이동	222	29	13.1	p 〉 .05
	시군구 이동	**647**	**64**	**9.9**	***p* 〈 .01**
모 취업	**취업모**	**614**	**57**	**9.3**	***p* 〈 .01**
	정규직 취업모	372	34	9.1	p 〉 .05
결혼 상태	결혼상태변화 (사별, 이혼 등)	26	4	15.4	p 〉 .05
모 학력	고졸이하	340	50	14.7	p 〉 .05
	전문대졸	360	46	12.8	p 〉 .05
	대졸 이상	503	52	10.3	p 〉 .05
가구소득	(2016년도 가구소득 평균)	1,210 (480.7만원)	149 (465.4만원)		p 〉 .05
아동 성별	남	615	80	11.6	p 〉 .05
	여	595	69	13.0	p 〉 .05

주: '가구소득'은 두 집단 평균차 분석(t 검정) 결과이며 나머지는 교차분석(x^2) 결과임. 교차분석의 경우 탈락/유지-특성 해당/비해당 등 셀로 구분하여 유의도를 검정함.

다. 패널 조사 탈락에의 영향 요인 분석

앞서의 특성별 탈락률 분석의 결과를 참고하여 해당 변인들을 모두 투입하여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적합도 검정을 위해 Hosmer-Lemeshow 검정을 실시하였고 분석 단계의 유의수준이 .05 이하임을 확인함으로써 추정된 모형은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표 Ⅳ-3-3〉을 보면, 패널 가구의 시군구 간 이사와 어머니의 취업 여부 요인, 그리고 좀더 유의수준을 넓히면 시도 간 이사 여부가 패널의 탈락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자녀의 성별이나 가구소득, 결혼 상태의 변화, 어머니의 학력 등은 패널 조사 탈락에 영향이 없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표 Ⅳ-3-3〉에서 추정된 계수(B)를 보면 시군구 간 이사는 .689이므로 어머니 취업 .609보다는 미세하게 영향력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고 시도 간 이사는 이보다 영향력이 떨어진다. 한편, 승산비(Exp(B))를 보면 시군구 간 이사 변인(Exp(B)=1.992)과 모의 취업 여부(Exp(B)=1.839)는 모두 1보다 크므로 패널을 유지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쪽으로 관련이 있고(데이터에서 패널 탈락=1, 유지=2) 시도 간 이사 여부는 Exp(B)=.620으로 1보다 작아서 패널 탈락에 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데이터솔루션 컨설팅팀, 2018).

결론적으로, 시군구내에서 이사를 하는 경우와 어머니가 취업하고 있는 가구의 경우 패널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시도 간 이사를 하는 가구의 경우는 패널 조사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고 탈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Ⅳ-3-3〉 아동패널 탈락 영향 요인 분석(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

		B	*S.E,*	*Wald*	자유도	유의확률	*Exp(B)*
1단계	성별(1=남)	-.123	.182	.458	1	.499	.884
	이동_시군구(1=이사)	**.689**	**.216**	**10.200**	**1**	**.001**	**1.992**
	이동_시도(1=이사)	**-.479**	**.273**	**3.070**	**1**	**.080**	**.620**
	모최종학력			4.705	4	.582	
	모최종학력_고졸이하	-1.515	1.574	.926	1	.336	.220
	모최종학력_전문대졸	-.840	.553	2.303	1	.129	.432
	모최종학력_대졸	-.535	.532	1.012	1	.314	.586
	모최종학력_대학원졸	-.335	.516	.420	1	.517	.716
	가구소득_2016년	.000	.000	.118	1	.731	1.000
	모취업여부_(1=취업)	**.609**	**.188**	**10.513**	**1**	**.001**	**1.839**
	결혼상태_주)			1.624	5	.898	.000
	상수항	19.709	40191.910	.000	1	1.000	362713411.342

주: '결혼상태'의 하위 변인(이혼, 사별, 별거 등 5종)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본 표에서 제시를 생략함.

V

정책적 시사점

01 주제별 요약 및 주요 논의점

02 정책 개발을 위한 시사점

Ⅴ. 정책적 시사점

본 장에서는 2019년도 아동패널 제12차년도 조사의 결과를 특이점 중심으로 요약하고 이러한 결과에 근거하여 생각할 수 있는 육아, 교육 정책 관련 시사점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1. 주제별 요약 및 주요 논의점

가. 아동 특성

1) 일상생활 특성

먼저 아동의 일상생활 특성을 보여주는 변인 중 식생활 진단 측면에서, 남녀 아동 간 섭취 경향에 차이가 있어 유제품이나 단백질류는 남아의 섭취빈도가 높고 채소나 과일은 여아의 섭취가 많았다. 또한 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정도에서는 소득이 높은 가구에서 규칙적으로 한다는 응답이 낮은 가구보다 높은 것으로 나왔고 수면시간에서는 소득이 낮은 가구의 아동 수면시간이 비교적 더 긴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동의 숙제나 학습시간의 길이에서도 가구 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소득이 높은 가구에서 학습시간이 긴 것으로 나왔고, TV나 컴퓨터 등 미디어 이용과 게임시간은 취업모 가정의 자녀가 미취업모 가정 자녀보다 상대적으로 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또한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이용시간에서는 소득이 높은 집단의 이용시간이 긴 것으로 조사되었고 미디어 중독 정도 검사에서는 남자아이의 고위험 사용 비율이 높았다. 반면 신체활동이나 운동 정도에서도 남자아이의 활동성이 높은 것으로 나왔다.

2) 신체 및 건강 특성

아동의 신체 및 건강 특성을 보면, 12세 패널아동 전체의 41%가 안경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신의 신장이나 외모 등에 만족하는 정도에서는 남아가

여아보다 대체로 높았으며 지난 1년간 입원이나 응급실 치료 경험이 있는가라는 질문에서도 남아가 유의하게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언어 및 인지 발달

언어 및 인지 발달의 측면에서, 담임교사들이 평정한 패널아동의 학업수행 능력이 상위 20% 이상이 47.6%에 달해 많은 수가 우수한 학업 능력을 가졌다고 볼 수 있는데, 특히 과목 들 중 수 연산 등 수학 능력 측면에서 특히 높은 능력을 가진 것으로 교사들이 평가하였다. 구체적 과목에서는 국어나 영어 능력에서 여아들이 남아보다 평정 점수가 높았고 가구소득 집단별로도 고소득 집단의 점수가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영역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반면 학교성적에 대한 스트레스에서 여자아이들의 점수가 남아보다 높은데, 학업적 자기효능감에서는 남아가 높은 것으로 나와 학업 능력과 인식 측면에서 성별 차이가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4) 사회 및 정서 발달

사회 및 정서 발달 영역의 분석 결과에서 보면, 아동의 출생순위에 따라 자아정체감 수준이 다른 것으로 나타나는데 외동아가 가장 정체감 점수가 높은 것이 특이한 결과이며 가구소득에 따라서도 자아정체감에 차이가 나타났다. 전반적 행복감에서는 남아가 여아보다 유의하게 점수가 높았고, 과목선호도에 있어서도 남아는 체육과목과 수학에서의 선호가 비교적 높고 여아는 국어와 미술이 남아에 비해 높은 것으로 측정되었다. 성격점수에서는 지배성, 개방성, 사고유연성, 친화성 등에서 남아의 점수가 높은 반면, 여아는 신경증, 적대감, 충동성 등 신경증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소득이 낮은 집단 아동이 적대감, 우울감 점수가 높고 고소득 집단 아동의 지배성 점수가 높은 특징이 있었다.

문제행동검사에 의한 측정 결과를 보면, 영역에 따라 1~3%가 임상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임상군 아동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내재화, 외현화 문제행동과 정신병리적 진단, 특수척도 등 대부분의 진단에서 남아의 문제행동 점수가 여아보다 높았고 부모보다는 교사가 평가하는 문제행동 점수가 비교적 더 높았다.

학교폭력에의 노출을 보면 전혀 없다가 82%여서, 18%는 연중 1번 이상의 폭력

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 중 8.5%는 보다 심각한 정도로 보여, 이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해보이고 특히 남자아이들의 경우에 노출 정도가 많았다. 직접 폭력 외에 따돌림이나 폭언, 그 외 괴롭힘 또한 유형에 따라 3~22%까지 나타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삶의 전반적 만족도와 상대적 발달지수에서 남아가 여아보다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학교적응에서는 여아의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교적응에서 취업모 자녀보다 미취업모 자녀 점수가 높은 것은 특이점이며, 마지막으로 결혼과 자녀양육에 대한 의사를 묻는 질문에서 여아가 남아보다 2배 이상 부정적 의사를 나타내어 큰 성차를 보였다.

5) 함의

아동의 특성에 대한 이와 같은 결과들을 볼 때, 남아와 여아에 대한 양육방법, 교육 지도, 심리적 지원 등의 여러 측면에서, 증거에 기반하여 다르게 접근하고 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가정의 경제적인 지위나 어머니의 취업 등이 자녀의 여러 발달 인지, 사회 발달의 지표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성별의 영향을 제외한 상태에서 이에 대해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나. 부모 및 가구 특성

첫째, 부모의 심리적 특성이나 부부 특성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 최종학력 수준과 가구소득 수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가구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부모 개인의 심리적 특성과 부부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머니와 아버지의 응답을 비교하면, 심리적 특성에서 서로 유사한 수준이나, 주관적 행복감과 같은 긍정적 특성에서 근소하게 아버지가 높게 나타났다(주관적 행복감 어머니 5.19점, 아버지 5.30점, 삶의 만족도 어머니 3.53점, 아버지 3.54점, 일상적 스트레스의 어머니 2.91점, 아버지 2.92점). 이러한 차이는 결혼만족도 조사결과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 어머니는 평균 3.79점, 아버지는 평균 4.11점으로 어머니에 비해 아버지가 결혼에 대한 만족감을 더 높게 보고하였다.

일-가정생활(양육) 병행 시 경험하는 이점과 갈등에서도 아버지와 어머니 간 응

답에 차이가 있었다. 직장과 가정생활을 병행하면서 겪는 이점은 아버지(아버지 평균 3.9점, 어머니 평균 3.81점)가 더 높게 인식하고 있었고, 갈등은 어머니(아버지 평균 2.24점, 어머니 평균 2.28점)가 더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동일하게 일과 자녀양육 병행 시 느끼는 이점은 아버지(아버지 평균 3.96점, 어머니 평균 3.62점)가 더 높게 인식하고 있었고, 갈등은 어머니(아버지 평균 2.07점, 어머니 평균 2.41점)가 더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일-가정(양육) 양립에 있어 여전히 어머니 부담이 크고 갈등을 더 많이 경험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개인의 심리적 특성이나 부부 특성이 일-가정(양육) 양립의 상황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어머니의 일-양육 양립 시 이점과 갈등에서, 대도시에 거주하는 어머니가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어머니보다 갈등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대도시에 육아를 지원하는 지역사회 자원이 더 많이 구축되어 있어서 양육 부담이 적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예상과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지역 환경에서의 차이뿐만 아니라 근로 특성 등 대도시 거주 어머니의 일-양육 갈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밝히기 위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겠다.

둘째, 부모의 건강 특성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부모가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주관적 건강 상태도 보통 이상의 수준이었다. 음주와 흡연에서는 어머니와 아버지 응답에서 차이를 보여, 아버지가 어머니에 비해 음주나 흡연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부모의 직업 특성에서 어머니의 취업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어머니의 취업률은 56.1%로 11차년도 조사결과(김은설 외, 2019: 174)에서 비하면 약 3.3%p 높아진 수치이다.

한편 어머니의 근로 여건과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어머니의 학력이 고졸 이하로 비교적 낮은 경우 근무일과 근무시간이 길어서 근무 강도는 높으나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는 다른 집단에 비해 더 낮게 보고되었다. 자녀를 둔 저학력 여성의 근로 환경에 대해 시사점을 갖는 결과이며, 이러한 취업 특성은 양육을 포함한 가정생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진다.

넷째, 부모의 양육 특성을 살펴보면, 먼저 부모의 성취압력에 대해 남아가 여아보다 학업에 대한 성취압력을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신체적

학대를 경험한 적 없는 아동은 87.6%, 언어적 학대를 경험한 적 없는 아동은 78.2%이었다.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와 보통 수준 이상의 긍정적인 애착 수준을 형성하고 있었으며, 점수만 비교하였을 때는 어머니와의 애착 수준이 좀 더 높게 나타났다.

한편 부모의 감독이나 참여와 관련된 문항에서 대부분 어머니의 학력, 취업 여부, 그리고 가구소득에 따른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가구의 사회경제적 변인이 서로 역동적으로 관련되어서 양육의 실제에도 차이를 가져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앞서 부모의 취업상태에 대한 조사에서 고졸 이하의 취업모인 경우 근무시간이 더 길다는 결과가 있었는데, 어머니가 고졸 이하인 경우 부모의 자녀 감독 수준이 더 낮고, 자녀가 성인 없이 있는 시간이 더 길게 나타났다. 즉, 근로환경의 차이가 양육할 수 있는 시간이나 자녀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심리적·물리적 여건에도 차이를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섯째, 가구 특성을 조사한 결과, 패널가구는 대부분(86.6%)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 형태이며, 평균 가구원 수는 4.67명이었다.

또한 가구소득 및 지출과 관련하여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동에게 가족들이 경제적 상황에 대해 얼마나 걱정을 하는지에 대해 응답하도록 한 결과, 여아들이 남아에 비해 가족들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걱정 빈도를 좀 더 빈번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아동에게 정기적으로 용돈을 지급하고 있는 가구는 44.1%이며, 이는 작년 조사(김은설 외, 2019: 191)에 비해 증가한 결과여서 학년이 높아지면서 용돈을 정기 지급하는 경우가 좀 더 많아졌음을 알 수 있었다.

다. 학교, 지역사회 및 정책 특성

1) 돌봄서비스

아동패널가구의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은 학기 중 13.5%, 방학 중 15.4%로 나타났는데, 이는 2018년 11차년도 조사의 학기 중 27.6%, 방학 중 18.5%보다 감소한 것이다. 이는 아동이 성장함에 따라 돌봄서비스 이용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돌봄서비스 이용 유형은 조부모/친인척이 80% 내외로 나타나 조부모/친인척에

대한 돌봄 의존도가 매우 높은 수준임을 보여주었다. 학기 중 초등돌봄교실 이용 비율은 5.9%이나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비율은 14.8%로 작년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 저학년 중심인 초등돌봄교실보다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돌봄서비스의 하루 평균 이용시간은 조부모/친인척이 학기 중 4.51시간, 방학 중 6.30시간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 역시 조부모/친인척에 대한 돌봄 의존도가 높음을 보여준다. 돌봄서비스의 주당 이용일은 학기 중과 방학 중 모두 평균적으로 4~5일로 나타났는데 주중 대부분이 이용일에 해당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돌봄서비스 월 평균 이용 비용은 학기 중과 방학 중 모두 비혈연 대리양육자가 가장 높았고, 학기 중에는 초등돌봄교실이 가장 낮았으나, 방학 중에는 지역아동센터가 가장 낮았다. 돌봄서비스 이용 만족도는 학기 중과 방학 중 모두 조부모/친인척이 가장 높았고, 비혈연 대리양육자가 가장 낮았다. 이를 보면 비혈연 대리양육자는 학기 중과 방학 중 모두 이용 비용이 가장 높은 반면, 이용 만족도는 가장 낮음을 알 수 있다.

2) 학교 특성

전체 아동의 9.8%가 전학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17.5%가 결석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학교 특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학교의 설립유형은 국공립 99.0%, 사립 0.8%, 대안학교 0.2%로 나타났고, 전체 학교의 31.4%가 연구학교, 시범학교, 혁신학교 등의 유형에 포함되었다. 전체 학급 수는 평균 5.67학급, 학급당 평균 학생 수는 24.75명이었다. 학교 환경에 대한 인식은 5점 척도 기준으로 건물상태는 3.69점, 기자재 및 시설은 3.76점, 통학조건(교통 편의성)은 3.89점으로 대체로 양호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통학조건(교통 편의성)은 지역규모별로 차이가 있는데, 중소도시가 3.94점으로 가장 높았고, 읍면이 3.33점으로 가장 낮았다. 이는 읍면지역의 교통 편의성이 열악함을 보여주고 있다.

교사 특성을 조사한 결과, 교사 성별은 여성이 69.7%, 남성이 30.3%였는데, 여성의 비율이 대도시 73.9%, 중소도시 70.4%이지만, 읍면은 26.7%로 지역 간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교사 연령은 평균 37.68세, 교사 경력은 평균 12.12년으로

나타났고, 지역규모가 클수록 교사 연령 및 교사 경력이 높았다. 교사 최종학력은 대졸 64.1%, 석사 25.4%로 나타났다. 교사 업무 스트레스에서는 수업 지도의 경우 교사 경력이 길수록 교사 업무 스트레스가 적었다.

학급운영에서 아동 교사 관계는 5점 척도 기준으로 평균 3.9점, 갈등 정도는 평균 1.36점으로 양호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창의적 학교 환경에 대한 아동의 응답을 보면 교사 연령 및 교사 경력에 따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가정협력에서 부모의 학교생활 참여도는 참여한다는 응답이 56.6%(대체로 참여함 35.1%, 항상 참여 21.5%)이었고, 부모의 학교생활 관심 정도는 관심을 보인다는 응답이 74.4%(대체로 관심 보임 40.2%, 매우 관심 많음 34.2%)였다. 부모의 학교행사 참여 여부(중복응답)를 보면, 운동회, 자원봉사, 학부모 공개 수업, 담임 상담에서는 어머니만 참여하는 경우가 과반수로 가장 많았고, 부모교육 프로그램, 학교 운영위원회는 참여한 적이 없는 경우가 과반수로 가장 많았다. 특히, 담임 상담은 어머니만 참여하는 경우가 80.6%였고, 학교 운영위원회는 참여한 적이 없는 경우가 82.4%였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학교생활 참여는 어머니에게 편중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보호자를 대상으로 사교육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학교 수업 이외 교육에 대해서는 전체의 96.3%가 이용한다고 응답하였고, 사교육에 대해서는 전체의 93.0%가 이용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대부분의 아동이 사교육을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학교 수업 이외의 교육서비스 이용 유형(중복응답)을 보면 영어가 78.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수학이 72.1%였다. 학교 외 교육서비스 주당 이용시간을 보면 학원이 8.49시간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주민센터, 복지관 등 공공기관이 4.98시간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사교육에서 학원을 중심으로 한 학습의 비중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학교 외 교육서비스 월평균 이용 비용을 보면 학원이 36.67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가정 내 개인/그룹과외가 20.19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주민센터, 복지관 등 공공기관은 4.42만원으로 이용 비용이 가장 낮았다. 학교 외 교육서비스 비용 부담 정도를 보면 부담된다는 응답은 학원이 가장 높았고, 교내 방과후 교실이 가장 낮았다. 패널아동이 받고 있는 사교육 개수가 적당한지에 대해서는 적당하다는 응답이 77.4%로 가장 많았다. 패널아동이 인식하는 사교육의 부담 정도

에 대해서는 부담스럽지 않다는 응답이 64.2%로 과반수였다.

3) 지역사회 특성

패널가구의 출생 후 총 이사 횟수는 1회가 31.2%, 2회가 13.4%였다. 패널가구가 거주하는 지역 규모는 54.6%가 중소도시이고, 대도시는 40.1%, 읍면지역은 5.3%였다. 패널 거주지역을 6개 권역으로 구분한 결과, 경인권에 거주하는 가구가 31.0%로 가장 많았다.

보호자에게 양육환경에 대해 조사한 결과, 패널가구 중 60% 이상이 의료기관 접근성이 편리하다고 응답하였고, 47.2%와 39.7%의 가구가 각각 교육기관과 공공복지시설 접근이 편리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접근성은 대도시가 읍면지역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읍면지역의 의료기관, 교육기관, 공공복지시설 접근성이 떨어짐을 보여준다.

여가공간과 시설 접근 편리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놀이터, 공원, 산책로 이용이 편리하다는 응답이 많았고, 이러한 응답은 대도시가 읍면지역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실내체육시설 및 실외체육시설에 대한 접근성도 대도시가 읍면지역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거주지의 문화시설 편리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영화관과 도서관 접근이 편리하다는 응답이 과반수였으며, 대도시가 읍면지역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의료기관, 교육기관, 공공복지시설과 마찬가지로 여가공간과 시설 접근성에 있어서도 읍면지역이 불리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교육, 의료, 복지시설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의료기관에 대한 만족도가 60%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의료기관과 교육기관의 이용 만족도는 대도시가 읍면지역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지역 내 여가공간 및 시설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놀이터, 공원, 산책로에 대한 만족도가 6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문화시설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영화관과 도서관에 대한 만족도가 6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양육환경 안전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범죄로부터의 안전, 유해시설로부터의 안전, 경찰이나 방범대원의 정기순찰은 6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정기순찰에 대한 평가는 대도시가 읍면지역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정기순찰과 같은 치안서비스에서 읍면지역이 불리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4) 정책 특성

전체 패널가구 중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97.3%로 차상위계층은 1.9%,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는 0.8%로 나타났다. 지난 1년간 정부보조금을 포함한 생활비 지원을 받았는지를 질문한 결과, 생활비 지원을 받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가 89.0%로 전년도 91.4%에 비해 약간 줄어들었다.

지난 1년간 직장 내 육아지원제도를 활용한 경우를 아버지와 어머니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90% 이상으로 전년도와 별다른 차이는 없었다. 이용률이 높은 제도는 아버지는 유연근무제(5.1%), 어머니는 육아휴직(3.5%)으로 나타났다. 현 시점에서 패널아동이 초등학교 6학년이므로 육아휴직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여 패널아동의 초등 저학년 이하 동생을 대상으로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했을 것으로 짐작이 가능하다.

보호자에게 학교 정책의 수혜 여부에 대해 질문한 결과, 학교폭력예방정책, 학교급식안전관리가 6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진로탐색교육은 51.3%로 전년도의 48.3%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다.

학교정책 만족도에 대한 질문에서는 대부분의 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70% 이상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족체험 학습 출석 인정 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82.8%로 가장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정책 만족도가 대체적으로 양호한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

2. 정책 개발을 위한 시사점

초등학교 5학년 만11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2019년에 진행되었던 패널조사의 결과 분석에서 가장 눈에 띄는 실태를 몇 가지 짚어 보고 이러한 이슈가 가지는 정책적 함의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

가. 초등학교 내 집단 폭력의 심각성 인지와 적극적 대응 필요

먼저, 아동 특성에 있어 초등학교 5학년에서 학교폭력, 또래 간 폭력에 노출되는 비율이 18%에 이르고, 이 중 8.5%는 월 1회 이상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다고 응답

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욕설 등 폭언으로 인한 괴롭힘 경험은 이보다 더 높아 월 1회 이상 피해 경험을 보고한 아동이 13%로 나타났다. 학교가 이들 아동에게는 안전한 곳이 아니며 또래 간 폭력이 초등학교에서 이미 만연하고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더 어린 연령의 유아들 간에도 따돌림 등의 집단 괴롭힘이 있다는 교사들의 보고가 있었음(김은설 외, 2013)을 상기하면, 초등학교 시기 아동들 간 폭언, 폭력, 따돌림 등 학교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가해 아동에 대한 재발 방지 교육, 피해 아동에 대한 정서적, 심리적 치료를 통해 이러한 현상이 더 심화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할 필요가 있다. 아동패널 조사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아동의 경우 대부분 부모와의 관계가 양호하고 가정불화 문제가 덜한 가구임을 가정한다면 초등학교에서의 학교폭력 문제는 실제로는 더 심각한 수준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학교심리전문가, 아동상담사 등 전문가들이 학교에서 일어나는 아동 간 폭력 해당자들에 대해 보다 전문적으로 접근하여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만하다.

나. 아동 성별에 따른 전문적 심리 건강 지원

두 번째는 초등학생 남아와 여아가 가진 성차에 따라 심리적 건강과 발달을 지원하는 강조점을 다르게 둘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물론 개인에 따른 기질과 성격의 차이가 가장 크겠지만, 본 연구의 조사결과를 보면 성별에 따라 집단 간 유의미한 점수 차가 보이는 변인에 대해서는 주의와 관심을 두는 것이 장기적 사회 문제의 예방이라는 측면에서 요구되는 부분이다. 여아에 비해 남아는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점수가 높고 자신의 외모에 대해 만족하고 유지하고 싶어하는 성향 점수가 높으며 학업적으로도 효능감과 자신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성격 점수에서 개방성, 친화성, 사고유연성, 유능감, 성실성, 책임감, 조직성, 신뢰감, 관용성, 온정성 등 긍정적 성격 점수가 높고 지배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비해 여자아이들은 적대감, 신경증, 충동성 등의 신경증적 성격 성향 점수가 높고 자신의 외모에 대한 불만족, 외모를 다르게 대체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높으며 삶의 전반적 만족도도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그러나 교사가 평가하는 학업 능력 점수와 학교적응에 있어서는 남아보다 여아

가 유의미가 높은 것으로 나와서 객관적 성취의 비교에서는 스스로가 평가하는 것과 결과가 다름을 보게 된다. 그럼에도 남자 아동이 스스로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자신을 '유능'하다고 평가하는 자기 인식의 방식이, 자신의 외모나 능력에 만족함이 적고 적대감이나 자극추구 성향이 큰 여자 아동보다 긍정 심리와 심리적 건강의 측면에서 점수에서 높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사춘기에 접어들고 있는 5학년 아동들의 자신에 대한 평가는 연령이 좀더 높아지면서 보다 객관적 평가에 근거하게 됨으로써 성별 차가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만, 발달의 누진성을 이해한다면 해당 시기 여아들에 대해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과 자기효능감을 높여줄 수 있는 훈련을 보다 자주 접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 초등 자녀 양육과 교육 활동에의 아버지 참여 활성화

셋째, 초등학생 자녀 양육과 교육에 대한 아버지의 참여를 더 장려하고 사회적으로도 학교 상담이나 자녀교육 활동에 아버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활용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 조사결과를 보면, 담임 상담에서 어머니만 참여하는 경우가 80% 이상이고 운동회, 자원봉사 등에도 어머니만 참여하는 경우가 과반을 넘는 것으로 나오고 있다. 정규직 풀타임 직업을 가진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5학년 자녀 어머니의 취업률이 거의 60%에 육박하고 있으므로, 자녀의 학교생활이나 교육에 대한 관여와 참여가 어머니에게만 편중되는 상황은 이제 변화되고 극복되어야 할 문제이다. 아버지라면 누구나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고 학교 행사에 어머니와 비슷한 비율로 참가할 수 있도록 직장과 사회가 자녀 양육 관련 시간을 배려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유연근무제 활용 등을 통해 아버지의 참여 기회를 높일 수 있어야 한다.

매년 이루어지는 자료 분석 과정에서 패널아동들의 초등학교 입학 이후 거의 동일하게 산출되고 있는 결과 중 하나는 미래 결혼과 자녀 양육에 대한 의사에서 여자 아동이 남자 아동보다 훨씬 낮은 비율로 결혼과 자녀 출산에 동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패널아동 어머니와 아버지 조사에서 결혼만족도 점수를 비교해보면 예외 없이 아버지의 결혼만족도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들의 시각에서 자녀 양육을 포함한 결혼생활이 어머니보다는 아버지에 유리하도록 되어 있는 구조가 보이는 것으로도 이해되며 이러한 인식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는 아버지의 양육 참여를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한편으로는 성별에 따라 결혼관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라. 한국아동패널 자료에 대한 심층 분석 필요

마지막으로, 한국아동패널이라는 대체불가의 방대한 자료를 활용한 보다 심층적이고 다양한 분석 연구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과정을 통해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확산적 시각에서 발견할 수 있고 증거에 기반한 정책 아이디어들을 개개 변인으로부터 도출할 여지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아동패널 사업은 해마다의 학술대회 개최를 통해 학문 연구자들이 심층 분석과 유용한 결과 산출의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였고 실제로 그러한 효과를 얻어 왔다. 그러나 학술대회에서 논의되는 연구문제들은 이 분야 연구자들의 주 관심영역이라 할 아동발달이나 가족관계, 학교적응 등 미시적 학술 영역에 국한되는 경향이 있어 정책 개발과 정책 사업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얻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보다 집중적으로 패널데이터를 들여다보고 다측면에서 분석하고 거시적 시각에서 예측변인과 종속변인을 찾아내는 추가적 노력이 필요해 보이며, 이에 대한 투자를 통해 한국아동패널 20년 종단데이터의 활용성을 최대치로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할 별도의 시간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희경(2003). 학동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척도 개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2), 31-38.

김기현·강희경(1997).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35(5), 141-150.

김양분·남궁지영·김정민·박경호·임현정(2014). 한국교육종단연구(KELS) 2013 (II)-조사개요보고서-. 한국교육개발원.

김은설·최은영·조아라(2013).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영유아기 인성교육 강화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김은설·최정원·정혜원·조혜주·김희수(2019).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2019 (한국아동패널 II). 육아정책연구소.

도남희·배윤진·이예진·이윤진·김문정·임준범·김희수(2017).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2017(한국아동패널II). 육아정책연구소.

데이터솔루션 컨설팅팀(2018). SPSS Statistics 회귀분석. 데이터솔루션.

류정희·이상정·전진아·박세경·여유진·이주연·김지민·송현종·유민상·이봉주(2019). 2018 아동종합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송현주(2014). 간편형 자기보고식 아동 청소년 집행기능 곤란 질문지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3(1), 121-137.

신광우·김동일·정여주·이주영·이윤희·김명찬·강은비·금창민·남지은(2011). 스마트폰중독 진단척도 개발 연구. 한국정보화진흥원.

신승욱(2008). A/B형 행동유형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의 직무 스트레스와 정신건강과의 관계 분석. 춘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안현의·안창규(2017). NEO 성격검사 전문가 지침서. ㈜인싸이트.

이정림·최은영·도남희·송신영·왕영희·정영혜(2011). 한국아동패널 2011 사업보고서. 육아정책연구소.

이종구·현성용·최인수(2015). 다요인 지능검사 전문가 지침서. 서울: 학지사 심리검사연구소.

이종환(2012).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군의 정서조절 능력: 억제 기능, 과민반응,

조절곤란을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장명림·신나리·박수연(2006). 아동패널조사(Ⅰ): 아동패널모형 개발. 육아정책개발센터

조복희·신나리·안재진·이정림·최윤경·송신영·김주연·김영원(2009).한국아동패널 2009. 육아정책연구소

조신옥(2002). 초등학교 고학년의 가사작업에 대한 의식 및 참여도에 관한 연구.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조용래(2007). 정서조절곤란의 평가: 한국판 척도의 심리측정적 속성. 한국심리학회: 임상, 26(4), 1015-1038.

Bronnfenbrenner, U.(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Bronnfenbrenner, U.(1989). Ecological system theory. In R.Vasta (Ed.), *Annals of Child Development* (Vol.6, pp.187-249). Greenwich, CT: JAI Press.

Elder, G. H. Jr.(1998). *Life course dynamics.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Elder, G. H. Jr.(2006). The life course and human development. In W. Damon (Series Ed.) & R. M. Lerner (Vol.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1. *Theoretical model of human development* (5th ed., pp.939-991). New York: Wiley.

[웹사이트]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국민건강영양조사: 청소년용 질문지(2016년) 중 청소년 행태 조사지_비만 및 체중조절 문항: 만12-18세 대상 https://knhanes.cdc.go.kr/knhanes/sub04/sub04_01_02.do?classType=2 (인출일: 2020.04.01.)

한국아동패널 홈페이지〉자료실〉자료안내〉 도구프로파일〉[부모 특성변인] 우울 https://panel.kicce.re.kr/panel/board/view.do?menu_idx=42&editMode=ADD&board_idx=33354&manage_idx=26&old_menu_idx=0&old_manage_idx=0&old_board_idx=0&group_depth=0&parent_idx=0&group_idx=0&group_ord=0&viewMode=NORMAL&search

_type=title&search_text=%EC%9A%B0%EC%9A%B8&rowCount=10&viewPage=1. (인출일: 2020.08.10.)

한국 아동·청소년 데이터 아카이브 홈페이지. 한국청소년패널조사 초4패널, 중2패널 설문지. https://www.nypi.re.kr/archive/mps/program/examinDataCode/dataDwloadAgreeView?menuId=MENU00226 (인출일: 2020.04.23.)

현주·임소현·한미영·임현정·손경원(2014), KEDI 인성검사 실시요강. 한국교육개발원. 인성교육지원센터 사이트 http://insung.kedi.re.kr/kedi/kedi02.do (인출일: 2020.06.10.)

Abstract

2020 Longitudinal Study of Growth and Development of Korean Children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

Eunseol Kim · Yun-Jin Bae · Keun Jin Kim · Hyejoo Jo · Hyejin Kim

The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PSKC) provides longitudinal and cross-sectional data to scholars in the related fields in order to enrich their academical research and develop national policies for children through the studies. We have also offered the annual research reports with PSKC data since 2008 by analyzing the major variables on children's cognitive, linguistic, physical, and socio-emotional development and effects of the various environment surrounding the panels

The 13th wave of PSKC in 2020 consisted of producing the annual research report, providing the whole PSKC data on the "Public Open Data" web-site, and holding the nation-wide conference on research papers using PSKC data. The regular panel questionnaires and developmental inventories for children, parent interviews and questionnaires, and the web-based survey for school teachers of each child are conducted. There were 1,412 panel families participating in the 13th year of the survey, which means the retention rate is 65.7% of the initial panels. A few representative points from the research results in 2020 are as follows:

First, 12 year old panel children's mean height is 148.38㎝(SD=6.57) and weight 43.45㎏(SD=9.45). The percentage of possessing a cell-phone is 88.8% and using hours are 1.98h per day(SD=0.13) for a boy and 1.98h per day(SD=0.14) for a girl. The average hour of watching TV or other

video clips are 1.18 hour on weekdays and 2.44 hours on weekends.

Second, the average sleeping hours are 8.94 hours on weekdays and 9.47 hours on weekends. The 57.0% of the panel children play musical instruments and enjoy sports 74.4%: boys prefer soccer and Taegwondo while girls enjoy swimming most.

Third, the mean score of getting stress regarding academic achievement is 2.13(SD=0.85) on the 5-point-scale: girls' average score is higher than boys'. The average score of children's resilience is 3.00(SD=0.43) on the 5-point-scale and that of the perception of overall happiness is 3.25(SD=0.44) on the 4-point-scale, which shows pretty high level.

Fourth, the proportion of getting bullying in school was 2.9~22.4% according to the kinds of the bulling. The rate of experiencing verbal bulling such as calling names and abusive language is 22.4%.

Fifth, 39.0% of the children responded positively to the question of their intention on marriage in the future. The proportion for girls is lower than that for boys. 37.3% of the children said yes on the question if they would have a child in their future.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urvey, we suggested some implications :developing the system of special care for children from low income family and providing well-designed and gender-balanced education for bullying and school adjustment.

Keyword: panel, longitudinal data, Korean children, age 12

부록

부록 1. 한국아동패널 2020 소개 리플렛

한국아동패널

국무총리 산하 국책 연구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에서는 우리나라 아동의 성장 과정을 장기적으로 추적 조사하는 『한국아동패널』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아동패널』은 우리나라 최초의 신생아 패널 연구이며, 아동이 출생한 2008년부터 성인이 되는 2027년까지 단일 연령 집단의 횡단(Cross-sectional) 자료와 시간의 변화에 따른 종단(Longitudinal) 자료를 국가 수준에서 수집·제공합니다. 한국아동패널 조사에는 아동의 성장·발달, 가정의 양육 환경,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 학교에서의 아동 경험 등이 포함되며, 수집된 자료는 우리나라 육아정책 개발에 초석이 될 것입니다.

한국아동패널 표집 의료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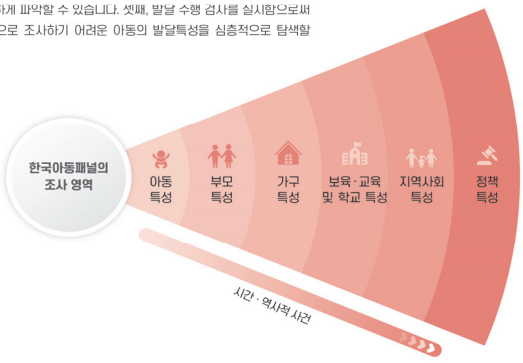
한국아동패널 조사대상

『한국아동패널』의 조사대상은 아동과 아동의 부모, 아동이 다니는 보육·교육 기관과 학교의 담임교사로, 『한국아동패널』 연구는 다면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표본은 2008년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아동 2,150명이며,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층화다단계추출법을 사용하여 2단계로 표집하였습니다. 1단계에서는 전국을 6개 권역(서울, 경인, 충청/강원, 경북, 경남, 전라)으로 구분한 후 신생아를 분만하는 의료기관을 추출하였고, 2단계에서는 해당 기관에서 분만한 산모를 대상으로 2,150명의 신생아 가구를 표집하였습니다. 2020년 현재 패널아동은 초등학교 6학년이 되었고, 약 1,500가구가 조사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아동패널 조사 내용과 특징

『한국아동패널』은 Bronfenbrenner의 생태학적 이론과 Elder의 생애이론을 기초로 아동발달, 부모 특성, 가족 특성, 영유아기 보육·교육 서비스 및 학교 특성, 지역사회 특성, 육아지원정책 등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을 조사합니다.

『한국아동패널』 연구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아동의 성장·발달과 환경을 고려하여 매해 조사 내용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조사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2015년부터는 학교생활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둘째, 아동은 물론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모와 담임교사에게 조사를 실시하므로, 발달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 아동의 특성을 다양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셋째, 발달 수행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설문 응답만으로 조사하기 어려운 아동의 발달특성을 심층적으로 탐색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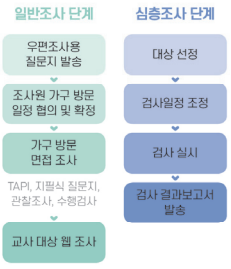


한국아동패널 조사방법

「한국아동패널」 조사는 일반조사와 심층조사로 구성됩니다. 일반조사는 아동이 출생한 2008년부터 2027년까지 2,150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매해 실시하며, 심층조사는 발달상 중요한 시기에 일부 패널을 선별하여 전문가를 통해 수행검사를 실시합니다.

일반조사는 대상과 내용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가구 방문 전에는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우편조사용 질문지가 발송되며, 가구 방문 시 TAPI (Tablet-Assisted Personal Interview)를 이용한 면접과 지필식 질문지, 조사원의 환경 관찰, 그리고 아동발달 측정을 위한 개별 수행 검사를 실시합니다. 가구 방문 후에는 아동의 담임 교사를 대상으로 웹(Web) 질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를 진행합니다.

심층조사는 일반조사로 다루기 어려운 주제를 일부 패널을 대상으로 집중조사하여 심층분석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기에 따라 방문 수행검사 또는 온라인, TAPI조사로 진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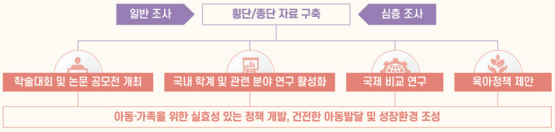


한국아동패널 연도별 조사 실시 계획

「한국아동패널」은 아동이 출생한 2008년 1차 조사를 시작으로, 만 19세가 되는 2027년까지 총 20차의 조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영유아기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초등학령기	7세~12세																				
중등학령기	13~15세																				
고등학령기	16~18세																				
성인기	19세																				
심층조사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한국아동패널 공헌



한국아동패널 연구 분석 결과

- **변화하는 환경과 부모양육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시사점 제공**
  - 여아 선호 사상의 증가
  - 아내의 결혼만족도 및 자아존중감이 남편에 비해 낮은 편임
  - 아버지의 양육협조 및 양육태도가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 도움이 됨
- **여성의 일과 가정 양립에 대한 객관적 자료 제공**
  - 영유아 자녀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어머니의 취업 확률은 높아지나 비정규직이 다수임
  - 가구 내 영유아 자녀가 1명 증가함에 따라 어머니의 취업 확률이 낮아짐
  - 전업주부의 양육스트레스가 취업모보다 높음
- **한국 아동의 생활 및 발달 진단**
  - 부모의 음주·흡연이 자녀의 알레르기 질환 발생 위험을 높임
  - 초등 4학년 의사소통능력에서 여아가 남아보다 점수가 높음
  - 초등 패널아동의 1/4이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에 속함

한국아동패널 제공 자료 및 데이터 다운로드 방법

- **제공 자료** : 연구보고서, 사용자 매뉴얼, 도구프로파일, 코드북 등
- **다운로드 방법** : 한국아동패널 홈페이지 (panel.kicce.re.kr) » 자료실 » 원시자료에서 데이터 다운로드

부록 2. 차수별 조사내용 상세표[9)]

〈부록 표 2-1〉 차수별 아동 특성 변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10차	11차	12차	13차
인구학적 특성	인구학적 특성	아동 이름	☆	☆	☆	☆	☆	☆	☆	☆	☆	☆	☆	☆	☆
		아동 이름 변동 사유	–	–	–	○	○	○	○	○	○	○	○	○	○
		성별	○	○	○	○	○	○	○	○	○	○	○	○	○
		출산 예정일, 재태기간	○	–	–	–	–	–	–	–	–	–	–	–	–
		출생월, 월령	○	○	○	○	○	○	○	○	○	○	○	○	○
	출생순위	출생순위	○	○	○	○	○	○	○	○	○	○	○	○	○
		출생순위 변동 사유	–	○	○	○	○	○	○	○	○	○	○	○	○
일상생활 특성	수면	수면습관 특성	○	○	○	○	–	–	–	–	–	–	–	–	–
		혼자 자기 시작한 시기, 주로 재워주는 사람, 함께 자는 사람, 아침에 스스로 기상 여부/횟수	–	–	–	–	–	–	–	○	–	–	–	–	–
		낮잠 여부/시간	–	–	○	○	○	○	○	–	–	–	–	–	–
		낮잠 횟수	–	–	○	○	–	–	–	–	–	–	–	–	–
		기상/취침 시각, 수면시간	–	–	○	○	○	○	○	○	○	○	○	○	○
		숙면 여부	–	–	○	○	○	○	○	○	–	–	–	–	–
		밤잠 중 깨는 횟수	–	–	○	○	–	–	–	○	–	–	–	–	–
	식생활	모유수유 여부	○	○	○	○	–	–	–	–	–	–	–	–	–
		수유 방법, 혼합수유 시작 시기, 이유식 시작 시기	–	–	–	–	–	–	○	–	–	–	–	–	–
		모유수유 중단 시기, 이유, 수유 및 식습관 특성	○	○	○	○	–	–	–	–	–	–	–	–	–
		식습관 자립도, 식사 양, 속도, 편식, 규칙적 식사	–	–	–	–	○	○	○	–	–	–	–	–	–

9) ☆은 내부 검토를 통해 비공개로 결정된 자료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10차	11차	12차	13차
		간식 횟수	–	–	–	○	○	○	○	–	–	–	–	–	–
		아침식사 횟수, 외식 횟수	–	–	–	–	○	○	○	–	–	–	–	–	–
		가족과의 식사 횟수	–	–	–	–	–	○	○	–	–	–	○	○	○
		식생활 진단	–	–	–	–	–	–	–	○	○	○	○	○	○
		주로 마시는 물의 종류, 음료수 섭취 빈도	–	–	–	–	–	–	–	○	–	–	–	–	–
		유산균 복용 여부, 기간, 마지막 복용 시기	–	–	–	–	–	–	–	○	–	–	–	–	–
		탄산음료 섭취	–	–	–	–	–	–	–	–	–	–	○	○	○
		인스턴트식 섭취	–	–	–	–	–	–	–	–	–	–	○	○	○
	실내/외 활동	배변/씻기 습관 특성	○	○	○	○	–	–	–	–	–	–	–	–	–
		일과 활동 시간	–	–	○	○	○	○	○	○	○	○	○	○	○
		실내 놀이 일, 바깥놀이 및 외출일	–	–	–	–	–	○	○	–	–	–	–	–	–
		실내, 실외 신체활동	–	–	–	–	–	–	–	○	○	–	○	○	○
		독서량	–	–	–	–	–	–	–	–	○	○	○	○	○
		활동별 참여 빈도	–	–	–	–	–	–	–	○	○	○	○	○	○
	미디어	미디어 이용시간	–	–	–	–	○	○	○	○	○	○	○	○	○
		미디어 이용일	–	–	–	–	–	○	○	–	–	–	–	–	–
		미디어 이용 정도	–	–	–	–	○	○	○	–	○	○	○	○	○
		미디어 이용 시작 시기	–	–	–	–	○	–	–	–	–	–	–	–	–
		미디어 이용 이유	–	–	–	–	–	–	–	○	–	–	–	–	–
		미디어 이용 순위	–	–	–	–	–	–	–	–	○	–	–	–	–
		미디어 기기 중독	–	–	–	–	–	–	–	–	–	○	○	○	○
		휴대폰(스마트폰) 소유 여부	–	–	–	–	–	–	–	○	○	○	○	○	○
		사이버 비행	–	–	–	–	–	–	–	–	–	–	○	–	○
		컴퓨터 사용능력	–	–	–	–	–	–	–	–	–	–	○	–	○
	저축	저축관	–	–	–	–	–	–	–	–	–	–	○	○	○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10차	11차	12차	13차
	취미	악기연주, 스포츠경험	-	-	-	-	-	-	-	-	-	-	○	○	○
신체 및 건강 특성	신체 특성	두위	○	○	-	-	-	-	-	-	-	-	-	-	-
		시력 보정도구 착용 시기 및 여부	-	-	-	-	-	○	○	○	○	○	○	○	○
		체중, 신장	○	○	○	○	○	○	○	○	○	○	○	○	○
		허리둘레	-	-	-	-	-	-	○	○	○	○	○	○	○
		주관적 건강 상태	-	-	-	-	-	-	-	○	○	○	○	○	○
		처음 유치가 빠진 시기, 빠진 유치 개수, 충치 개수	-	-	-	-	-	-	-	○	○	○	-	-	-
		2차 성장이 나타난 시기	-	-	-	-	-	-	-	-	-	-	○	○	○
		신체적 자아상	-	-	-	-	-	-	-	-	-	-	-	○	○
		체중조절경험	-	-	-	-	-	-	-	-	-	-	-	-	○
	운동 능력	운동발달, 미세운동 및 적응발달[K-Denver Ⅱ]	○	○	○	-	-	-	-	-	-	-	-	-	-
		대/소근육 운동	○	○	○	-	-	○	○	-	-	-	-	-	-
		우세 손	-	-	-	-	-	○	○	○	-	-	-	-	-
	질환 및 치료	장애 판정 여부, 유형, 정도	-	○	○	○	○	○	○	○	○	○	○	○	○
		예방접종 여부 및 횟수	○	○	○	○	-	-	-	-	-	-	-	-	-
		(사고 및 중독으로 인한) 응급실 치료 여부	-	○	○	○	○	○	○	○	○	○	○	○	○
		(사고 및 중독으로 인한) 응급실 치료 횟수	-	○	○	○	○	○	○	○	-	-	-	-	-
		(사고 및 중독으로 인한) 응급실 치료 이유	-	-	-	-	-	-	-	-	○	○	○	-	-
		통원 치료 횟수	-	○	○	○	○	○	○	○	-	-	-	-	-
		입원 치료 여부	○	○	○	○	○	○	○	○	○	○	○	○	○
		입원 치료 기간	○	○	○	○	○	○	○	○	-	-	-	-	-
		입원 치료 횟수	-	○	○	○	○	○	○	○	-	-	-	-	-
		입원 치료 이유	-	-	-	○	○	○	○	○	○	○	○	-	-
		항생제, 진통제/해열제 복용 여부 및 횟수	-	-	-	-	-	○	○	○	-	-	-	-	-
		만성 질환별 의사 진단 여부, 시기	-	○	○	○	○	○	○	○	○	○	○	○	○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10차	11차	12차	13차
		만성 질환별 상담 또는 병원 치료 여부	–	–	–	–	–	–	–	–	○	○	○	○	○
		심리사회적 질환별 의사 진단 여부, 시기	–	–	–	–	–	–	–	○	○	○	○	○	○
		심리사회적 질환별 의사 상담 또는 병원 치료 여부	–	–	–	–	–	–	–	–	○	○	○	○	○
		알레르기 질환별 징후, 응급실 방문 및 입원 횟수, 의사 진단 여부	–	–	–	–	–	○	○	○	–	–	–	–	○
		알레르기 질환별 의사 진단 여부, 시기	–	–	–	–	–	○	–	○	–	○	○	○	○
		알레르기 질환별 치료 여부, 치료 기간 및 약물	–	–	–	–	–	○	○	○	–	–	–	–	○
		알레르기 질환 유발 의심 식품	–	–	–	–	–	○	–	○	–	–	–	–	○
		알레르기 유발 의심 식품 제한	–	–	–	–	–	–	–	○	–	–	–	–	–
인지 및 언어 발달	인지 발달	문제해결[K-ASQ]	○	○	○	–	–	–	–	–	–	–	–	–	–
		창의성(유창성, 독창성, 민감성, 개방성)	–	–	–	–	○	–	–	–	–	○	–	–	–
		지능(인지, 동작)	–	○	–	–	–	○	–	–	–	–	–	–	–
		인지 발달(교실상황 관찰형)	–	–	–	–	○	○	–	–	–	–	–	–	–
		집행기능(계획 및 조직화 곤란, 행동 통제 곤란, 정서 통제 곤란, 부주의)	–	–	–	–	–	–	–	○	○	○	○	–	○
		다요인 지능(어휘적용력, 언어유추력, 도식화능력, 수리력, 공간지각력, 추리력)	–	–	–	–	–	–	–	–	○	–	–	–	○
	언어 발달	언어발달[K-Denver Ⅱ], 의사소통[K-ASQ]	○	○	○	–	–	–	–	–	–	–	–	–	–
		수용 어휘력	–	–	–	○	–	○	–	○	–	–	–	–	–
		표현 어휘력	–	–	–	○	–	○	○	○	–	–	–	–	–
		언어 발달(교실상황 관찰형)	–	–	–	–	○	○	–	–	–	–	–	–	–
		발화능력(조음평정치,읽기유창성,모방오류어절,발음오류어절,오류자음,읽기지수)	–	–	–	–	–	–	○	–	–	–	–	–	–
		의사소통(화용언어)	–	–	–	–	–	–	–	–	–	○	○	–	–
		비속어 사용	–	–	–	–	–	–	–	–	–	○	○	○	○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10차	11차	12차	13차
	학습 관련	학습준비도(사회정서발달,학습에대한태도,의사소통, 인지발달및일반적지식), 학업 능력(언어 및 문해능력, 수리적 사고)	-	-	-	-	-	-	○	-	-	-	-	-	-
		학업수행 능력	-	-	-	-	-	-	-	○	○	○	○	○	○
		학업 스트레스	-	-	-	-	-	-	-	-	-	-	○	○	○
		학업 동기	-	-	-	-	-	-	-	-	-	-	-	○	-
		학습태도	-	-	-	-	-	-	-	-	-	-	-	-	○
	전반적 발달	신체발달 및 성장, 언어발달, 인지발달, 사회정서발달, 기관에서의 적응	-	-	-	-	-	-	○	-	-	-	-	-	-
사회 및 정서 발달	자아 발달	기질(활동성, 부정적 정서성)	○	○	○	○	○	-	-	-	-	-	-	-	-
		기질(수줍음, 사회성)	-	-	○	○	○	-	-	-	-	-	-	-	-
		기질[ECBQ]	-	○	-	-	-	-	-	-	-	-	-	-	-
		자아개념(중요성, 유능성, 영향력, 일반적 평가, 덕목)	-	-	-	-	-	○	-	-	-	-	-	-	-
		자아개념(자아탄력성, 자아정체감)	-	-	-	-	-	-	-	-	-	-	-	○	-
		자아존중감	-	-	-	-	-	-	○	○	○	○	○	-	○
		GRIT	-	-	-	-	-	-	-	-	-	-	○	-	○
		자율성	-	-	-	-	-	-	-	-	-	-	-	○	-
		성격	-	-	-	-	-	-	-	-	-	-	-	○	-
	정서 발달	선호 놀이 영역 순위, 육아지원기관 선호도	-	-	-	○	○	○	○	-	-	-	-	-	-
		주관적 행복감	-	-	-	-	-	-	○	○	-	-	-	-	-
		행복감	-	-	-	-	-	-	○	-	-	-	-	-	-
		전반적 행복감	-	-	-	-	-	-	-	○	○	○	○	○	○
		일상적 스트레스	-	-	-	-	-	-	○	-	-	-	-	-	-
		학교생활느낌(교사 선호도 포함)	-	-	-	-	-	-	-	○	○	○	○	○	○
		교사 선호도	-	-	-	○	○	○	○	○	○	○	○	○	-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10차	11차	12차	13차
		과목 선호도	–	–	–	–	–	–	–	–	–	–	–	○	○
		시간사용 만족도	–	–	–	–	–	–	–	–	–	○	○	○	○
	사회성 발달	개인-사회성[K-ASQ, K-Denver II]	○	○	○	–	–	–	–	–	–	–	–	–	–
		어머니와의 애착	–	○	–	–	–	–	–	–	–	–	–	–	–
		놀이 및 사회적 활동 특성	–	–	○	–	–	–	–	–	–	–	–	–	–
		또래상호작용(상호작용, 방해, 단절)	–	–	–	○	○	○	○	–	–	–	–	–	–
		문제행동[K-CBCL]	–	–	–	–	○	○	○	○	–	○	–	○	–
		문제행동[TRF]	–	–	–	–	–	–	–	–	–	–	–	○	–
		사회적유능감(교사용-주장성, 협력성, 자기통제) (부모용-주장성, 협력성, 자기통제, 책임성)	–	–	–	–	–	–	○	–	–	–	–	–	–
		친구 수	–	–	–	–	–	–	–	○	○	○	○	○	○
		친구와의 놀이, 싸움 빈도	–	–	–	–	–	–	–	○	○	○	○	–	–
		학교적응	–	–	–	–	–	–	–	○	○	○	○	○	○
		강점/난점(정서증상, 행동문제, 과잉행동/부주의, 또래문제, 사회지향)	–	–	–	–	–	–	–	–	○	○	○	–	–
		또래애착	–	–	–	–	–	–	–	–	–	○	○	–	○
		삶의 만족도	–	–	–	–	–	–	–	–	–	–	○	○	○
		상대적 박탈지수(가정형편)	–	–	–	–	–	–	–	–	–	–	○	○	○
		이성관계	–	–	–	–	–	–	–	–	–	–	○	○	○
		집단괴롭힘	–	–	–	–	–	–	–	–	–	–	○	○	○
		사이버폭력	–	–	–	–	–	–	–	–	–	–	–	○	○
		인성(공감, 정서조절, 자기존중)	–	–	–	–	–	–	–	–	–	–	–	–	○
	미래/진로	장래희망	–	–	–	–	–	–	–	–	–	○	○	○	○
		진로관(미래직업인식)	–	–	–	–	–	–	–	○	○	○	○	○	○
		진로성숙도	–	–	–	–	–	–	–	–	–	–	–	–	○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10차	11차	12차	13차
		미래에 대한 인식	–	–	–	–	–	–	–	–	–	–	–	○	○
	사회 관련 의식	결혼관, 자녀관	–	–	–	–	–	–	–	–	–	–	○	○	○
		공동체 의식	–	–	–	–	–	–	–	–	–	–	○	–	○
		안전의식 및 대처	–	–	–	–	–	–	–	–	–	–	–	–	○

〈부록 표 2-2〉 차수별 부모 특성 변인

구분	중분류	소분류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10차	11차	12차	13차
개인 및 부부 특성	인구학적 특성	생년월일(주민등록 기준)	☆	☆	☆	☆	☆	☆	☆	☆	☆	☆	☆	☆	☆
		연령	○	○	○	○	○	○	○	○	○	○	○	○	○
		대한민국 국민 여부, 귀화 여부, 국적, 귀화 전 국적	○	○	○	○	–	–	–	–	–	–	–	–	–
		종교 유무 및 유형	○	○	○	○	–	–	–	–	–	–	–	–	–
		최종학력, 동거 여부, 비동거 이유	○	○	○	○	○	○	○	○	○	○	○	○	○
		비동거 시 아동과 만나는 일수	–	–	–	–	○	–	–	–	–	–	–	–	–
	심리적 특성	우울	○	○	○	○	○	○	○	○	–	○	–	○	–
		자아존중감	○	○	○	○	○	○	○	○	○	–	○	–	○
		부정적 자기효능감	○	○	○	○	○	–	–	–	–	–	–	–	–
		성격	–	○	–	–	–	–	–	–	–	–	–	–	○
		주관적 행복감	–	–	–	–	–	–	○	○	○	○	○	○	○
		일상적 스트레스	–	–	–	–	–	–	○	○	○	○	○	○	○
		삶의 만족도	–	–	–	–	–	–	–	○	○	○	○	○	○
		일-가정 양립시 이점과 갈등	–	–	–	–	–	–	–	○	○	○	○	○	○
		성역할 가치	–	–	–	–	–	–	○	–	–	–	–	–	–
		자기조절(정서조절곤란)	–	–	–	–	–	–	–	–	–	–	–	–	○

구분	중분류	소분류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10차	11차	12차	13차
		행동유형	–	–	–	–	–	–	–	–	–	–	–	–	○
	일상생활 특성	하루 일과 활동 시간	–	–	–	–	○	–	–	–	–	–	–	–	–
		미디어 중독	–	–	–	–	–	–	–	–	–	–	–	–	○
	부부 특성	결혼 상태, 결혼 기간	○	○	○	○	○	○	○	○	○	○	○	○	○
		배우자 동일 여부	–	○	○	○	–	–	–	–	–	–	–	–	–
		결혼일	☆	☆	☆	☆	☆	☆	☆	☆	☆	☆	☆	☆	☆
		결혼 만족도	○	○	○	○	○	–	○	○	–	○	–	○	–
		부부 갈등	○	○	○	○	○	–	○	○	○	–	○	–	○
		배우자의 일상적 스트레스	–	–	–	–	–	–	○	–	–	–	–	–	–
신체 및 건강 특성	신체특성	신장, 임신/출산 전 체중	○	–	–	–	–	–	–	–	–	–	–	–	–
		주관적 건강 상태	–	–	–	–	–	–	–	○	○	○	○	○	○
	질환 및 장애	장애 유무와 장애 정도	○	○	○	○	○	○	○	○	○	○	○	○	○
		희귀난치성 질환 유무	○	○	○	○	○	–	–	–	–	–	–	–	–
		알레르기질환 병력	–	–	–	–	–	○	–	○	○	○	○	–	–
	음주 및 흡연	음주 여부, 횟수, 양	○	○	○	○	○	○	○	○	○	○	○	○	○
		과음 횟수	–	–	○	○	○	○	○	○	○	○	○	○	○
		음주 시 홍조 여부	–	–	–	–	–	–	○	–	–	–	–	–	–
		흡연 여부, 하루 흡연량	○	○	○	○	○	○	○	○	○	○	○	○	○
		아침 흡연 선호 여부, 시간, 집중 여부, 흡연 욕구 자제의 어려움, 아플 때의 흡연 여부	○	○	○	–	–	–	–	–	–	–	–	–	–
직업 특성	일반적 특성	취업/학업상태	○	○	○	○	○	○	○	○	○	○	○	○	○
		희망 근로 형태	○	–	–	○	○	–	–	○	–	–	–	–	–
		시간제 희망 이유	–	–	–	○	○	–	–	○	–	–	–	–	–
		희망하는 일자리 수입	–	–	–	○	–	–	–	–	–	–	–	–	–
	미취/학업	취/학업 중단 시기, 향후 취/학업 계획	○	○	○	○	○	–	–	–	–	–	–	–	–

구분	중분류	소분류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10차	11차	12차	13차
	특성	경력 단절 시 취/학업 상태	-	○	○	○	-	-	-	-	-	-	-	-	-
		취/학업 중단 이유	○	○	○	○	○	-	-	○	-	-	-	-	-
		구직활동 여부	-	-	-	○	○	-	-	-	-	-	-	-	-
		구직활동 이유	-	-	-	○	-	-	-	-	-	-	-	-	-
	학업 특성	재학 상태, 학업 과정, 학업 시간, 휴학시기, 복학 계획 여부, 복학 예정 시기, 복학/입학 시기, 미복학 사유	○	○	○	○	-	-	-	-	-	-	-	-	-
		통학 소요시간	-	○	○	○	-	-	-	-	-	-	-	-	-
		휴학 여부	-	-	○	○	-	-	-	-	-	-	-	-	-
		휴학 사유	○	-	○	○	-	-	-	-	-	-	-	-	-
	취업 특성	재직 상태	○	○	○	○	○	○	○	○	○	○	○	○	○
		직장 변동 여부	-	○	○	○	○	○	○	○	○	○	○	○	○
		직장/직위 변동 이유	-	-	○	○	○	-	-	-	-	-	-	-	-
		일을 하는 이유	-	-	-	○	○	-	-	○	-	-	-	-	-
		근로 유형	○	○	○	○	-	-	-	-	-	-	-	-	-
		직장(사업체) 명, 직장의 사업 내용(업종), 직장에서 주로 하는 일, 직장(사업체) 내 직위	☆	☆	☆	☆	☆	☆	☆	☆	☆	☆	☆	☆	☆
		직업 군(대·중·소분류), 종사상 지위	○	○	○	○	○	○	○	○	○	○	○	○	○
		근무 일 수	-	-	-	-	○	○	○	○	○	○	○	○	○
		근무 시간	○	○	○	○	○	○	○	○	○	○	○	○	○
		왕복 출퇴근 시간	-	○	○	○	○	○	○	○	○	○	○	○	○
		주 40시간 미조사 내용 근로 이유	-	-	-	-	○	-	-	-	-	-	-	-	-
		직무만족도	○	○	○	○	-	-	-	-	-	-	-	-	-
		전반적 일자리 만족도	○	○	○	○	-		○	○	○	○	○	○	○
		직장 종사자 수	-	-	-	○	○	-	-	-	-	-	-	-	-

구분	중분류	소분류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10차	11차	12차	13차
		임신 중 취업/학업 여부, 출퇴근/등하교 시간	–	–	–	–	–	–	○	–	–	–	–	–	–
		복직 계획 여부/시기, 향후 이직·퇴직 계획/사유	○	○	○	○	–	–	–	–	–	–	–	–	–
		복직/취업 시기	○	○	–	○	–	–	–	–	–	–	–	–	–
		지난 1년간 휴직 여부, 사유	–	–	○	○	–	–	–	–	–	–	–	–	–
		휴직 시기	–	–	○	○	○	–	–	–	–	–	–	–	–
양육 특성	부모됨	후속 출산 계획 여부, 계획 자녀 수, 미계획 사유	○	○	○	○	○	○	○	○	–	–	–	–	–
		후속 출산 계획 시기	–	○	○	○	○	○	○	–	–	–	–	–	–
		이상 자녀 수, 기대 자녀 수, 성별 구성	○	○	○	○	○	○	○	○	–	–	–	–	–
		후속 출산결정의 주 영향자	–	○	○	○	–	–	–	–	–	–	–	–	–
	임신 및 출산	○○(이)의 임신 계획 여부, 기대 성별, 임신 확인 시, 출산 시 기분, 임신 시 보조생식술 도움, 분만형태, 분만 직후 아기 접촉 여부	○	–	–	–	–	–	–	–	–	–	–	–	–
		임신 중 항생제 복용 여부 및 횟수	–	–	–	–	–	–	○	–	–	–	–	–	–
		임신 중 흡연 여부, 담배 연기 노출 여부	–	–	–	–	–	○	–	–	–	–	–	–	–
	양육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	○	○	○	○	○	–	–	–	–	–	–	–	–
		양육 신념	○	○	○	–	○	–	–	–	–	–	–	–	–
		자녀 가치, 자녀의 미래 기대	○	○	○	○	–	○	–	–	–	–	–	–	–
		교육열	–	–	–	–	–	–	–	–	○	–	–	–	–
	양육 실제	양육 지식	○	○	○	–	–	–	–	–	–	–	–	–	–
		양육 행동(사회적)	○	○	○	○	–	–	–	–	–	–	–	–	–
		양육 행동(온정적, 통제적)	–	–	–	○	○	○	○	○	–	–	–	–	–
		양육 행동(권위적, 권위주의적, 허용적)	–	–	–	–	–	–	–	–	–	○	○	–	–
		양육 시간	–	–	○	○	○	–	–	–	–	–	–	–	–
		양육 스트레스	○	○	○	○	○	○	○	○	–	–	–	–	○

구분	중분류	소분류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10차	11차	12차	13차
		양육 효능감	–	–	–	–	–	–	○	–	○	–	–	–	–
		성취압력	–	–	–	–	–	–	–	–	–	–	○	○	○
		부모애착	–	–	–	–	–	–	–	–	–	–	–	○	–
		아동학대	–	–	–	–	–	–	–	–	–	–	–	○	○
		아버지의 양육 참여	○	○	○	○	○	–	–	–		–	–	–	–
		양육 분담	–	–	–	–	–	○	○	–	–	–	–	–	–
		부모공동양육(가족통합, 훈육, 비난, 갈등)	–	–	–	–	–	–	○	○	○	–	–	–	–
		부모-자녀 상호작용	–	–	–	–	–	○	○	○	○	–	–	–	–
		보호자가 인식한 ○○의 친구 수	–	–	–	–	–	–	–	○	○	○	○	○	○
		하루 중 성인 없이 있는 시간, 부모 감독	–	–	–	–	–	–	–	○	○	○	○	○	○
		부모의 학업 관심도	–	–	–	–	–	–	–	○	○	○	○	○	–
		학습에 대한 부모 참여	–	–	–	–	–	–	–	–	–	–	–	○	○
		○○의 숙제 시 도움 제공자, 도움 정도	–	–	–	–	–	–	–	○	○	–	–	–	–
	지원 특성	사회적 지원 정도(도구적, 사교적, 정보적, 정서적)	○	○	○	○	–	○	○	○	○	○	○	–	○
		사회적 지원 인원	–	–	–	–	–	○	○	○	○	○	○	–	○

〈부록 표 2-3〉 차수별 가구 특성 변인

구분	중분류	소분류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10차	11차	12차	13차
인구학적 특성	가구 구성	가구 구성 형태, 가구원 수	○	○	○	○	○	○	○	○	○	○	○	○	○
		○○(이)와 부모의 동거 여부	–	–	–	–	–	○	○	○	○	○	○	○	○
		가구원 수: ○○(이)의 조부모, 친인척, 기타 가구원	–	–	–	–	–	○	○	○	○	○	○	○	○
		가구원 수: 자녀	–	–	–	○	○	○	○	○	○	○	○	○	○
	구성원	성별	☆	☆	☆	☆	☆	–	–	○	○	○	○	○	○

구분	중분류	소분류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10차	11차	12차	13차
	특성	연령	☆	☆	☆	☆	☆	-	-	-	○	○	○	○	○
		결혼 상태	☆	-	-	-	-	-	-	○	○	○	○	○	○
		입양 여부	-	☆	☆	☆	☆	-	-	○	○	○	○	○	○
		○○(이) 형제자매의 알레르기 질환력	-	-	-	-	-	○	-	-	-	-	-	-	-
물리적 특성	주거환경	거주 주택 유형	○	○	○	○	-	-	-	○	-	-	-	-	-
		패널아동의 개별 방 여부	-	-	-	-	-	-	-	○	○	○	-	○	○
		습기 여부, 장소별 습기 정도	-	-	-	-	-	○	-	○	○	-	-	-	-
		곰팡이 여부	-	-	-	-	-	○	○	○	○	-	-	-	-
		곰팡이 냄새 정도	-	-	-	-	-	○	○	-	-	-	-	-	-
		집의 연식, 바닥재, 난방 형태, 주방 유형	-	-	-	-	-	-	-	○	-	-	-	-	-
		리모델링 여부, 종류	-	-	-	-	-	-	○	○	○	-	-	-	-
		리모델링 시기	-	-	-	-	-	-	○	-	-	-	-	-	-
	생활환경	플라스틱 용기 사용 여부, 사용 형태. 따뜻한 음식 보관 여부	-	-	-	-	-	-	-	○	-	-	-	-	-
		음료수 용기, 음료의 플라스틱 용기 보관 여부	-	-	-	-	-	-	-	○	-	-	-	-	-
		환기 시간, 횟수, 공기 청정기 설치 여부 및 장소, 조리시 주 열 공급원, 환풍기 사용	-	-	-	-	-	-	○	-	-	-	-	-	-
		방향제 또는 디퓨져 사용 여부, 횟수,	-	-	-	-	-	-	-	○	○	-	-	-	-
		가습기 사용 여부, 가습기 살균제 사용 여부, 기간, 종류	-	-	-	-	-	-	-	○	○	-	-	-	-
		가습기 살균제 사용 빈도, 시간, 투입 횟수	-	-	-	-	-	-	-	-	○	-	-	-	-
		애완동물 수	-	-	-	-	-	○	-	○	○	○	○	○	○
경제적 특성	소득	가구 소득	○	○	○	-	-	○	○	○	○	○	○	○	○
		취업 모 근로 소득	-	-	-	○	○	○	○	○	○	○	○	○	○
		희망 근로 소득, 출산 전후 소득 변화 및 이유	-	-	-	○	-	-	-	-	-	-	-	-	-

구분	중분류	소분류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10차	11차	12차	13차
		근로(사업), 이전, 자산, 기타, 공적 소득	–	–	–	○	○	–	–	–	–	–	–	–	–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	–	–	○	–	–	–	○	○	○	○	○	○
	지출	가구의 소비성, 비소비성 지출	○	○	○	○	○	○	○	○	○	○	○	○	○
		자녀에 대한 소비성, 비소비성 지출	–	–	–	○	○	○	○	○	○	○	○	○	○
		○○(이)에 대한 소비성, 비소비성 지출	○	○	○	○	○	–	–	–	–	–	–	–	–
		○○(이)에 대한 교육/보육 비용, 비용 부담	–	–	–	–	–	–	○	–	–	–	–	–	–
		○○(이)에 대한 용돈 지급 여부, 지급액	–	–	–	–	–	–	–	○	○	○	○	○	○
		○○(이)의 용돈 사용처	–	–	–	–	–	–	–	–	–	–	○	○	○
	자산 및 부채	부동산, 금융자산	○	○	○	○	○	○	○	○	○	○	○	○	○
		주택 소유 형태, 추가 주택 소유 여부	○	○	○	○	–	–	–	–	–	–	–	–	–
		부채 여부, 부채액, 월 상환액	○	○	○	○	○	○	○	○	○	○	○	○	○
가정환경 특성	가정환경의 질	가정환경의 질[HOME]	–	–	–	○	○	○	○	○	○	○	–	–	–
	가족생활	가족생활 사건(비규범적, 규범적)	○	○	○	○	○	–	–	–	–	–	–	–	–
		가족 상호작용(균형 있는 응집성, 유연성)	–	–	–	–	–	○	○	–	○	–	–	–	–
	유해환경 노출	간접 흡연	–	–	–	–	–	○	○	○	○	–	–	–	–
	위탁 가구 특성	위탁 여부, 위탁 가구 동일 여부, 위탁 사유	–	○	○	○	–	–	–	–	–	–	–	–	–
		위탁 시기	–	–	○	○	–	–	–	–	–	–	–	–	–

〈부록 표 2-4〉 차수별 교육 및 돌봄 특성 변인: 영유아기

구분	중분류	소분류	영아기			유아기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육아지원 서비스	이용 특성	낮시간 주양육자	○	○	○	○	○	–	–

구분	중분류	소분류	영아기			유아기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최초 이용한 육아지원 서비스 유형, 시작 시기	○	–	–	–	–	–	–
		지난 1년간 육아지원 서비스 이용 유형	–	○	○	○	○	–	–
		지난 1년간 육아지원 서비스 이용 수	–	○	○	○	○	○	○
	이용/미이용 이유	향후 기관/시설 이용 계획	–	○	○	○	–	–	–
		육아지원 서비스 이용 유형	○	○	○	○	○	○	○
		서비스 이용 이유, 중복 이용 이유	○	○	○	○	○	○	○
		서비스 미이용 이유	–	○	○	○	○	–	○
대인 서비스	이용관련 특성	대리양육 선택 시 최우선 고려사항, 이용 경로	○	○	○	○	–	–	–
		이용 이유, 비용, 시작 시기	○	○	○	○	○	–	–
		추가 지원자 이용 비용	–	○	○	○	–	–	–
		이용 비용 부담도	–	○	○	○	○	–	○
		이용 빈도, 시간, 전반적 이용 만족도, 비용 지불 여부 및 방식	○	○	○	○	○	○	–
		대리양육자 동일 여부, 변경 이유	–	–	–	○	○	–	–
	대리양육자 특성	아동과의 관계, 대리양육자 성별, 최종학력, 자녀 양육 경험, 국적, 거주지	○	○	○	○	○	–	–
		대리양육자의 연령	–	–	–	–	○	–	–
		대리양육자의 결혼상태	○	○	○	○	–	–	–
	비급여 양육도우미	지원 인력 여부 및 수, 지원자의 아동과의 관계	–	○	○	○	○	–	–
		동거 여부, 거주 거리, 시간	–	○	○	○	–	–	–
보육/교육 기관	이용 특성	이용 여부 및 유형	–	–	–	–	○	–	○
		등/하원 시간, 이용 일, 기관 이용 비용	○	○	○	○	○	○	○
		등/하원 동반자, 등/하원 방법	–	–	–	○	○	○	○
		일시보육 이용 여부, 이용시간, 이용 일	–	–	–	–	–	○	–
		기관 이용 시작 시기	○	○	○	○	○	–	–
		기관 변경 여부, 변경 이유	–	–	–	–	○	–	–
		기관 선택시 고려사항	–	–	–	–	–	○	○

구분	중분류	소분류	영아기			유아기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이용시간	○	○	○	○	-	○	○
		기관 이용 비용 부담도	-	○	○	○	○	○	○
		전반적 이용 만족도	○	○	○	○	○	-	○
	기관 특성	설립 유형, 시설 유형	○	○	○	○	○	○	○
		기관 평가 여부	-	○	○	○	○	○	○
		기관 평가 시기	-	-	-	○	○	○	○
		간식 제공 횟수	-	-	-	○	-	-	-
		서울형 어린이집 여부	-	-	○	-	-	-	-
		학급 수, 재원 아동 수, 학급 연령 구성, 학급 내 교사 및 아동 수	-	-	-	○	○	○	○
		학급 아동 수 적절성	-	-	-	-	-	○	○
	물리적 특성	기관 입지 지역 유형	○	○	○	○	-	-	-
		적정 교사 대 아동 비율 인식, 교실 규모 적절성, 일상생활 공간 규모 적절성	-	-	-	-	-	○	○
		실내 대근육 활동 공간 유무	-	-	-	-	○	○	○
		실외 놀이 공간, 아동의 휴식 공간 유무	-	-	-	○	○	○	○
	교사 특성	성별, 연령, 학력, 전공, 자격, 경력, 근무 일(주말), 근무 시간(주중, 주말)	-	-	-	○	○	○	○
		경력 안정성	-	-	-	○	-	-	-
		교수 효능감	-	-	-	○	○	○	○
		업무 스트레스, 주관적 행복감	-	-	-	-	-	-	○
		○○(이)의 담임이 된 시기	-	-	-	-	○	○	○
	학급 운영	교실 환경	-	-	-	○	○	○	○
		교실 영역 구성, 프로그램 운영 시간, 실내/외 자유선택활동 시간·횟수, 표준보육과정/유치원교육과정 인지 정도, 실시 여부	-	-	-	○	-	-	-
		아동과의 상호작용	-	-	-	○	○	○	○
	특별	특별활동 이용 여부, 종류, 수	-	-	○	○	○	○	○

구분	중분류	소분류	영아기			유아기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활동	특별활동 이용 횟수, 시간	–	–	–	○	○	○	○
		부모의 선택 가능 여부, 특별활동 만족도, 특별활동 강사, 별도 비용 지불 여부	–	–	○	–	–	–	–
		특별활동 비용	–	–	○	○	○	–	–
	가정 협력	부모 참여 행사(교육) 참여 여부	○	–	–	○	○	○	○
		부모 참여 행사(교육)의 주요 내용(순위)	–	–	–	○	–	–	–
		부모의 방문 빈도	–	–	–	○	○	○	○
		부모의 기관 생활 관심 정도	–	–	–	–	○	○	○
		육아지원기관의 지원 만족도, 기관 선호도, 교사 선호도	–	–	–	–	–	–	○
		부모 참여 행사(교육) 장소	○	–	–	–	–	–	–
		부모 참여 행사(교육)의 안내 여부, 만족도	–	–	–	○	–	–	–
		부모 참여 행사(교육) 실시 횟수, 참석 횟수	–	–	–	○	–	–	○
		참여가 많은 부모 참여 행사(교육), 가장 중요한 유형,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부모와의 의사소통	–	–	–	○	–	–	–
보육/교육 기관 외	특별 활동	특별활동 이용 여부, 종류, 시간, 횟수, 비용	○	○	○	○	○	○	○
		특별활동 수	–	○	○	○	–	○	○
		특별활동 이용기간, 진행 방식, 장소, 학습지 이용 여부	–	○	○	○	–	–	–
		특별활동 이용 시작 시기	–	–	○	○	○	–	–
		학습지 교사 유무, 특별활동 이용 연속성	–	–	○	○	–	–	–
		특별활동 만족도	–	–	–	–	–	–	○
		특별활동 이용 이유	–	–	–	–	–	○	–
	가정학습	가정 내 영어학습 자료 보유 여부 및 유형, 시작 시기, 진행 동반자, 시간, 비용	–	–	○	–	–	–	–

〈부록 표 2-5〉 차수별 학교·사교육 특성 변인: 아동기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아동기					
			8차	9차	10차	11차	12차	13차
돌봄서비스	이용 특성	(학기 중, 방학 중) 이용 유형, 시간, 빈도, 비용, 만족도	○	○	○	○	○	○
학교	이용 특성	학교 진학 여부, 초등학교 대체 이용 기관	○	○	○	○	○	○
		결석 여부 및 이유	○	○	○	○	○	○
		결석일	○	–	–	–	–	–
	학교 특성	소속 교육청, 설립 유형	○	○	○	○	○	○
		시범학교 유형	–	–	–	○	○	○
		등교 시간	○	–	–	–	–	–
		무상 급식 여부 및 장소, 특색사업 해당 여부, 아동 발달에 도움 정도	○	–	–	–	–	–
		학교장의 지도성, 동료 교사 태도 인식	○	–	–	–	–	–
		학교폭력발생정도	–	–	–	○	–	–
	물리적 특성	학급 수, 학급 학생 수, 학교 환경	○	○	○	○	○	○
		교사 대 아동 비율 인식, 교실 크기 적절성	○	–	–	–	–	–
		특별실 및 기타 시설 구비 여부, 구비 환경 인식	○	–	–	–	–	–
		리모델링 여부, 리모델링 종류(학교 및 학원)	○	○	–	–	–	–
		교육시설 만족도	–	–	–	○	–	–
	교사 특성	성별, 연령, 최종학력, 교사 경력, 근무 시간, 업무 스트레스	○	○	○	○	○	○
		직위, 근무 일(주말)	○	–	–	–	–	–
		교수 효능감, 교직 동기, 교직 만족도, 해당 학년 담임 경력	○	–	–	–	–	–
	학급 운영	초등 돌봄 교실 참여 정도, 통합학급 학생 여부	○	–	–	–	–	–
		과제 부과 정도, 과제 소요 예상 시간, 과제량 적절성, 수업 활동	○	–	–	–	–	–
		교사-아동 관계	–	○	○	○	○	○
		창의적 학교 환경	–	–	○	○	○	○
	유아-초등 연계	유아기 발달 특성에 대한 인지 정도, 유아-초등교육과정 간의 연계 필요성, 연계 관련 연수 여부, 학기 초 적응활동 도움 정도, 생활기록부 연계의 도움 정도	○	–	–	–	–	–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아동기					
			8차	9차	10차	11차	12차	13차
	가정 협력	등·하교길 동반 빈도	○	–	–	–	–	–
		행사 참여 여부, 정도, 부모의 학교생활 관심 정도	○	○	○	○	○	○
		행사 참여 빈도, 부모의 행사 참여 필요성	○	–	–	–	–	–
사교육 특성	이용 특성	이용 기관, 종류, 시간, 비용, 만족도, 비용 부담 정도	○	○	○	○	○	○
	이용/미이용 이유	미이용 이유, 이용 이유, 영어 사교육 이유	○	–	–	–	–	–
	사교육인식	아동이 인식하는 사교육	–	–	–	–	○	○

〈부록 표 2-6〉 차수별 지역사회 변인: 일반적 특성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10차	11차	12차	13차
일반적 특성	가구 특성	이사 시기	○	–	○	○	○	○	–	–	–	–	–	–	–
		이사 여부	–	–	–	–	–	○	–	–	–	–	–	–	–
		○○(이) 출산 후 이사 횟수	–	–	–	–	–	○	○	○	○	○	○	○	○
		지난 조사 후 이사 횟수	–	–	–	–	–	–	–	○	○	○	○	○	○
		거주지역 유형	○	○	○	○	○	○	○	○	–	–	–	–	–
		거주지역 규모, 6개 권역 구분, 17개 시/도 구분, 시/군/구	○	○	○	○	○	○	○	○	○	○	○	○	○
	교통과 산업	집에서 가장 가까운 도로의 차선, 거리	–	–	–	–	–	–	–	○	○	–	–	–	–
		도로의 통행량	–	–	–	–	–	–	–	○	–	–	–	–	–
양육환경	교육·복지·의료	육아지원기관 충분성(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	○	○	○	○	○	○	–	–	–	–	–	–
		교육·의료·복지 시설 접근 편리성 및 이용 만족도	–	–	–	–	–	–	–	○	○	○	○	○	○
		공공복지시설 접근 편리성 및 이용 만족도	–	–	–	–	–	–	–	○	○	○	○	○	○
	문화·여가	문화시설, 공공 여가 공간·시설 접근 편리성 및 이용 만족도	○	○	○	○	○	○	○	○	○	○	○	○	○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10차	11차	12차	13차
		문화시설, 공공 여가공간·시설 월별 이용 일	–	–	–	–	–	○	○	–	–	–	–	–	–
		문화시설, 공공 여가 공간·시설 접근 이용 만족도	–	–	–	–	–	–	–	○	○	○	○	○	○
	사회 안전	전반적 양육 적절성	○	○	○	○	○		–	–	–	–	–	–	–
		안전사고 측면, 치안 측면 안전성	○	○	○	○	–	○	○	–	–	–	–	–	–
		양육환경 안전성	–	–	–	–	–		–	○	○	○	○	○	○
위탁가구 환경	일반적 특성	이사 시기, 거주지역 유형	○	○	○	○	–	–	–	–	–	–	–	–	–
	양육 환경	육아지원기관 충분성, 공공 여가 공간·시설, 문화시설 편리성, 치안, 안전사고 안전성, 전반적 양육 적절성	○	○	○	○	–	–	–	–	–	–	–	–	–

〈부록 표 2-7〉 차수별 정책 변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10차	11차	12차	13차
국가지원	수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구분	○	○	○	○	○	○	○	○	○	○	○	○	○
		양육지원 정책 도움 정도	–	–	–	–	–	○	○	○	–	–	–	–	–
		보육비 면제(감면) 여부	○	○	○	○	○	○	○	–	–	–	–	–	–
		보육비 면제(감면) 사유, 농어민 가정 육아비 지원 여부	○	○	○	○	–	–	–	–	–	–	–	–	–
		양육지원 정책 수혜 여부	–	–	○	○	○	○	○	○	–	–	–	–	–
		도우미 지원 서비스 이용 여부 및 유형	○	○	○	○	–	○	–	–	–	–	–	–	–
		양육지원 정책 지원 유형	–	–	○	○	○	○	○	–	–	–	–	–	–
		양육지원 정책 수혜 비용	–	–	○	○	–	–	–	–	–	–	–	–	–
		양육지원 정책 추가 지불 비용 여부	–	–	○	○	○	○	–	–	–	–	–	–	–
		양육지원 정책 수혜 만족도	–	–	○	○	○	–	–	○	–	–	–	–	–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10차	11차	12차	13차
	정책에 대한 의견	육아지원 정책 개선 방안	○	○	○	○	-	○	-	-	-	-	-	-	-
		교육/보육기관 지원의 후속출산 의사 영향 여부	-	○	○	○	○	○	-	-	-	-	-	-	-
		금액 지원 시 후속출산 의사, 지원 적정 금액	-	○	○	○	○	-	-	-	-	-	-	-	-
		교육/보육 지원 인식 여부	-	-	-	○	○	○	○	-	-	-	-	-	-
		교육/보육 지원 필요성	-	-	-	-	○	○	○	-	-	-	-	-	-
		양육지원 정책의 출산 및 양육환경 향상에 대한 영향력	-	-	-	○	○	-	○	-	-	-	-	-	-
직장 지원	시행 및 이용	출산 및 육아지원 제도/방식 시행 여부	○	○	○	○	○	-	○	○	-	-	-	-	-
		출산 및 육아지원 제도/방식 이용 여부	○	○	○	○	-	-	○	○	-	○	○	○	○
		출산 및 육아지원 제도/방식 이용/미이용 이유, 양육 도움도	-	-	-	○	-	-	-	-	-	-	-	-	-
		출산 및 육아지원 제도/방식 이용 만족도	○	○	○	○	-	-	-	-	-	○	○	○	??
	지원에 대한 의견	출산 및 육아지원 제도/방식 필요성	○	○	○	○	○	○	○	-	-	-	-	-	-
		출산 및 육아지원 제도/방식 필요 우선순위	○	○	○	○	○	○	○	○	-	-	-	-	-
	기타 지원	생활비 지원 여부 및 지원처	-	-	-	-	-	-	-	○	○	○	○	○	○
		국가 및 직장 지원이 출산 및 양육환경 향상에 미치는 영향	-	-	-	-	-	-	○	○	-	-	-	-	-

부록 3. 제11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연구논문 공모 안내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한국아동패널

제11회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연구논문 공모 안내

공모부분

- 한국아동패널 1-11차년도(2008년-2018년) 자료를 이용한 연구논문
  ※ 종단 연구 방법론을 적용한 연구논문 우대

참가대상

- 한국아동패널(영유아기-초등4학년)조사 내용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 및 대학원생

일반부문	학생부문
- 제1저자는 박사학위 소지자에 한함 - 1인당 2개의 연구 주제까지 참여 가능 - 학술대회 발표 시 소정의 발표료 지급 (공동 연구는 팀별 지급)	- 석·박사 과정 재학생 및 수료자 - 당선작은 시상 및 학술대회 발표 자격 부여 - 1등 100만원, 2등 70만원, 3등 50만원 (각 1편)

주요 일정

연구계획서 공모 마감	2020년 5월 10일(일)
연구계획서 공모 심사 결과 발표	2020년 5월 18일(월)
최종 원고 마감	2020년 7월 31일(금)
최종 원고 심사 결과 발표	2020년 8월 10일(월)
학술대회 개최	2020년 9월 25일(금), 13:30

제출방법

- 연구계획서 A4용지 1~2매(첨부 양식 참조)
  - 연구계획서는 국문으로 제출
- 학생 부문 응시자는 재학 증명서(사본) 1매 포함
- 제출 방법: 이메일 제출(panel@kicce.re.kr)
  ※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제출방법

- 한국아동패널 1-11차년도(2008년-2018년) 및 심층조사(2009년, 2013년) 데이터를 제공함.
  -1~10차년도 및 심층조사 자료는 한국아동패널 홈페이지(https://panel.kicce.re.kr) 원시자료 또는 공공데이터 포털(https://www.data.go.kr/) 국가중점 데이터에서 제한 없이 다운로드할 수 있음.
  -11차년도(2018년) 자료는 연구계획서 심사 통과된 경우에 한해 메일로 전달될 예정임.
- 한국아동패널 데이터는 SPSS, STATA, SAS, EXCEL, CSV형태로 제공됨.
- 문의 02-398-7715 / panel@kicce.re.kr

부록 4. 제11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포스터

부록 5. 13차년도(2020) IRB 승인통지서

육아정책연구소 기관생명윤리위원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Institutional Review Board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70 서울중앙우체국 9층(04535)

Tel. 02-398-7727, 7717 Email. hmlee@kicce.re.kr

심 의 일 자	2020. 05. 07.
과 제 번 호	220996-200507-HR-004

의뢰하신 다음의 연구가 본 연구소 IRB의 심의를 거쳐 승인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연 구 제 목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2020 (한국아동패널 II)
연 구 책 임 자	김 은 설
연 구 승 인 일	2020. 05. 19.
연 구 승 인 기 간	2020. 05. 19. ~ 2020. 12. 31.
연 구 승 인 번 호	KICCEIRB-2020-제02호

육아정책연구소 기관생명윤리위원장 KICCE 기관생명윤리 위원회

부록 6. 13차년도(2020) 조사 안내문

한국아동패널

2020년도 한국아동패널 조사 및 참여혜택 안내

안녕하세요, 한국아동패널 조사팀입니다.
한국아동패널 조사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으로 올해 13년차를 맞았습니다.
패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한국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정책 수립에 큰 기여를 해왔습니다.
지속적으로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0년 7월부터 시작되는 한국아동패널 13차년도 조사에도 패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01. 조사 진행 절차

- 본 조사는 담당 조사원이 개별적으로 유선 연락을 드린 후 귀 댁을 방문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방문에 앞서 우편으로 보내드린 '어머니 질문지', '아버지 질문지'를 미리 작성하셔서 조사원이 방문할 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동에게 중요한 환경인 학교생활에 대한 조사를 위해 담임 선생님의 조사 참여가 필요합니다. 담당 조사원이 방문할 때, 보호자께서 동의해주시면 담임 선생님께서 온라인으로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어머니 질문지'와 '아버지 질문지'의 경우, 배우자와 서로 상의·공유하지 마시고, 다른 가족의 도움 없이 스스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02. 조사 참여 혜택

- 지난 5~6월 사전 연락을 드리고, LG생활건강의 핸드워시·손소독제·소독용티슈 세트를 보내드렸습니다.
- 본 조사시 아동 다요인 지능검사(M-FIT)를 진행하며, 검사결과를 제공해 드립니다.
- 조사 참여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보호자께 3만원권, 아동에게 1만원권 상품권을 드리며, 조사에 참여해주시는 담임 선생님께도 1만원권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 조사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연말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으며, 추가로 경품 추첨을 진행하여 선정된 50분께는 푸짐한 상품도 보내드립니다(작년 경품 : 1등 아이패드, 2등 미니 공기청정기, 3등 분리세척 가습기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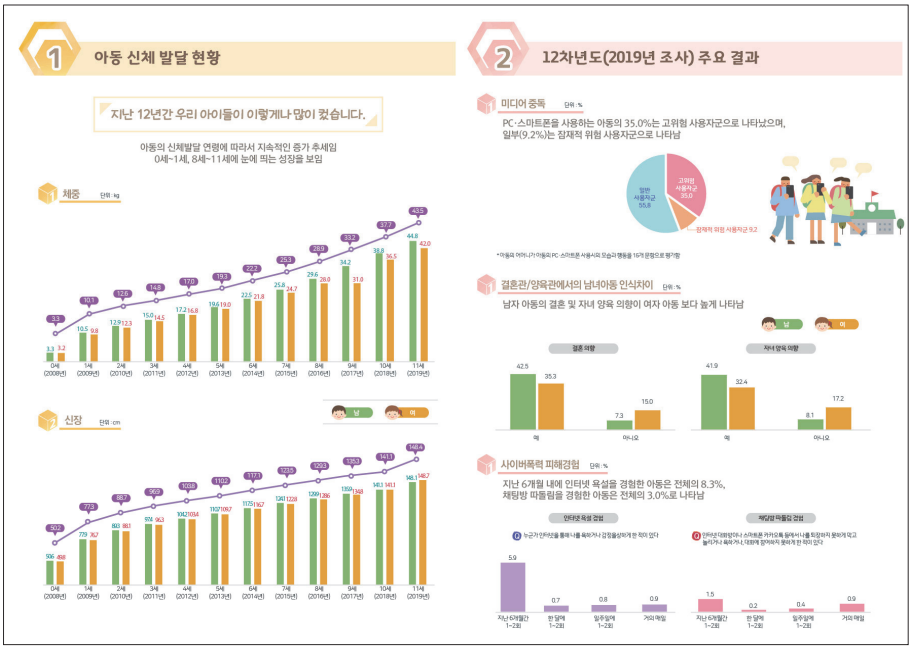
핫라인(010-9772-2133 : 전화, 문자, 카카오톡)을 통해 이사 정보를 알려주시는 분께는 독일 스테들러사의 트리플러스펜(20세)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연구기관
육아정책연구소
서울시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9층
한국아동패널 연구팀
TEL) 02-398-7729

조사기관
한국갤럽조사연구소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70 한국갤럽 4층
한국아동패널 조사팀
TEL) 02-3702-2612 핫라인) 010-9772-2133

※ 본 조사를 통해 얻어진 정보는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개인정보는 통계법(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철저하게 보호됩니다.
※ 한국아동패널 홈페이지(http://panel.kicce.re.kr/)에서 자녀 양육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한국아동패널 소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록 7. 한국아동패널조사 주요 결과 리플렛



부록 8. 가중치 작성[10] 및 추정

가. 가중치 부여방법

패널 조사의 주요 목적은 시점별 모집단 현황 파악과 종단적 변화를 파악하기 위함이므로, 한국아동패널에서는 이를 위한 횡·종단면 가중치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한국아동패널과 같이 층화다단계 표본추출에 의해 구축된 복합표본설계(Complex sample design)의 경우, 표본설계와 조사 차수별 응답실태를 반영하여 산출한 가중치를 적용한 추정과정을 통해 적절한 통계분석이 가능하다.

패널 조사에서는 매년 동일한 표본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므로, 일시적으로 특정 조사 차수에 참여하지 않거나, 사망, 이민, 강력거절 등의 사유로 패널에서 완전히 이탈하는 표본 마모(Sample attrition)가 발생하여 표본 구성에서 조사 차수별 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연구 대상의 모집단인 2008년 전국 출생아의 수에도 매년 변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 자료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가중치 보정이 매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아동패널에서는 표본설계 시 의료기관과 신생아 가구 추출에 따른 추출확률을 결합하여 계산한 설계가중치를 기초로, 표본 마모 등의 무응답 발생에 따른 모수 추정의 편향을 보정하기 위한 무응답 보정계수와 사후층화변수에 대한 보정승수를 종합한 횡단면 가중치와 종단면 가중치를 개발하여 모두를 제공하고 있다[11].

한국아동패널 산출된 가중치는 우리나라 2008년 신생아 전체의 분포적 특성을 나타내므로 모집단의 특성치인 모평균(또는 모비율)을 추정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표본가중평균(標本加重平均)[12]을 사용한다.

$$\bar{y} = \frac{\sum_{h=1}^{L}\sum_{i=1}^{k_h}\sum_{j=1}^{n_{hi}} w_{hij} y_{hij}}{\sum_{h=1}^{L}\sum_{i=1}^{k_h}\sum_{j=1}^{n_{hi}} w_{hij}} = \frac{\sum_{h=1}^{L}\sum_{i=1}^{k_h}\sum_{j=1}^{n_{hi}} w_{hij} y_{hij}}{w_{...}}$$

10) 한국아동패널의 가중치 부여 방법은 매해 동일한 방식이 적용되므로 설계 가중치가 지속적으로 이용되며, 설계 가중치에 대한 내용은 1차년도 보고서(조복희 외, 2009)를 참고

11) 12차년도 횡·종단면 가중치는 조사 실사를 담당한 한국갤럽 소속 이계오 통계학 박사가 산출하였으며 산출과정과 방법에 대한 설명을 작성함.

12) h는 지역층, i는 층내 의료기관, j는 표본가구를 나타내는 첨자임.

w_{hij} : 각 표본 신생아 가구에 부여된 가중치

y_{hij} : 각 조사대상 가구에서 얻은 각종 조사 변수에 대한 관측치들

$w_{...} = \sum_{h=1}^{L}\sum_{i=1}^{k_h}\sum_{j=1}^{n_{hi}} w_{hij}$: 모든 표본 가구에 대한 가중치의 합

한국아동패널에서는 공개 자료를 활용하여 통계적으로 타당한 분석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가중치를 사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12차년도 조사가 완료된 1,412가구 자료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는 12차년도 횡단면 가중치를 사용해야 하고, 1~12차년도 조사에 지속적으로 참여한 1,059가구를 활용한 분석에서는 반드시 함께 제공된 1~12차년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하여 분석해야 한다.

나. 12차년도 가중치 보정

가중치 보정을 위해 패널가구의 응답 패턴을 분석하고, 응답 가구와 무응답 가구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패널 조사의 가중치 보정을 위해서는 우선 패널가구의 응답 패턴을 분석하는 동시에 조사누락으로 인한 편향(Bias)을 줄이기 위하여 응답 가구와 무응답 가구의 특성상 차이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1~12차년도 패널가구의 응답 여부에 따른 가구 특성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횡·종단면 가중치를 작성하였다.

한국아동패널 조사의 1~12차년도 조사 참여 분포는 〈부표 2-1〉과 같다. 우선 원패널[13] 가구 중에서 12차년도 조사까지 모두 참여한 가구는 1,059가구로 원패널 기준 표본 유지율은 49.3%로 전년대비 5.8%p 하락하였다. 2~3차 조사에 신규 추가된 가구를 포함한 전체패널[14] 기준 대비 표본 유지율은 50.6%였다. 12차년도 조사에서 단조 결측 패턴[15]에 해당하지 않는 무응답 가구를 포함한 전체 패널 대비 응답률은 65.7%로, 11차년도 응답률인 66.7%에 비해 1.0%p 낮아졌다.

---

13) 원패널: 한국아동패널 1차 조사에 참여한 2,078가구를 의미함.

14) 전체패널: 한국아동패널는 예비 표본의 합류를 3차년도까지 허용하여, 1차년도(2008년) 조사에 참여하지 않고 2차년도(52가구), 3차년도(20가구)에 신규로 참여한 경우를 모두 포괄하여 총 2,150가구를 전체 패널로 정의함.

15) 단조 결측 패턴(Monotone missing pattern)이란 패널참여 시점부터 꾸준히 조사에 참여하다가 특정 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조사에 불참하는 것을 의미함.

한국아동패널의 무응답의 일부는 단조 결측 패턴을 보이지 않았기에 횡·종단면 가중치를 각각 별도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따라서 한국아동패널의 12차년도 횡단면 가중치는 2019년 조사에 참여한 1,412가구, 종단면 가중치는 2008년부터 2019년 조사에 모두 참여한 1,059가구를 기준으로 산출하였다.

〈부록 표 4-1〉 연도별 한국아동패널조사 참여 분포

구분		참여 여부												가구 수	%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10차	11차	12차		
원패널	전체 조사 성공	O	O	O	O	O	O	O	O	O	O	O	O	1059	49.3
	12차년도 탈락	O	O	O	O	O	O	O	O	O	O	O	X	38	1.8
	11차년도 탈락	O	O	O	O	O	O	O	O	O	O	X	X	39	1.9
	10차년도 탈락	O	O	O	O	O	O	O	O	O	X	X	X	43	2.0
	9차년도 탈락	O	O	O	O	O	O	O	O	X	X	X	X	28	1.3
	8차년도 탈락	O	O	O	O	O	O	O	X	X	X	X	X	24	1.1
	7차년도 탈락	O	O	O	O	O	O	X	X	X	X	X	X	23	1.1
	6차년도 탈락	O	O	O	O	O	X	X	X	X	X	X	X	44	2.0
	5차년도 탈락	O	O	O	O	X	X	X	X	X	X	X	X	37	1.7
	4차년도 탈락	O	O	O	X	X	X	X	X	X	X	X	X	36	1.7
	3차년도 탈락	O	O	X	X	X	X	X	X	X	X	X	X	76	3.5
	2차년도 탈락	O	X	X	X	X	X	X	X	X	X	X	X	89	4.1
2차년도 신규; 조사 성공		-	O	O	O	O	O	O	O	O	O	O	O	19	0.9
3차년도 신규; 조사 성공		-	-	O	O	O	O	O	O	O	O	O	O	9	0.4
기타; 12차년도 성공		※	※	※	※	※	※	※	※	※	※	※	O	325	15.1
기타; 12차년도 탈락		※	※	※	※	※	※	※	※	※	※	※	X	261	12.1
전체														2,150	100.0

주: 1) 12차년도 조사 성공 사례수는 1,412가구임.
2) 'O'는 해당 차수에 참여, 'X'는 해당 차수에 비참여, '-'는 해당 차수에는 표본에 속하지 않았음을, '※'는 단조 결측 패턴이 아닌 경우를 의미함.

가중치 산출은 무응답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편향을 보정하는 승수와 사후층화(Post-stratification)변수에 대한 보완 가중치를 계산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첫째, 가중치 산출을 위하여 우선, 무응답에 따른 편향 감소 및 가중치 산출 방안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불참 패널에 대한 무응답 보정을 실시하였다. 무응답 보정은 기존 가중치 산출에 적용했던 무응답 조정 계급(Non-response adjustment class)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따라서 기존과 동일하게 조사 참여 여부를 종속변수, 가구별로 가장 최근에 조사된 거주지(권역), 어머니 취·학업 여부, 아동의 출생 순위를 설명 변수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응답확률을 계산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는 〈부표 2〉와 같다.

설명변수 3개중에서 아동 출생순위만 종단면 데이터의 무응답 패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거주권역과 어머니 취·학업여부는 횡단면데이터의 무응답 패턴에 매우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연도별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중치 보정 과정에는 패널가구의 거주지, 어머니의 취·학업 여부, 아동의 출생 순위 변수를 사용하여 무응답 조정 계급을 구성하였다. 거주지 6개 범주(서울, 경인, 대전·충청·강원,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라), 출생 순위 2개 범주(첫째, 둘째 이상), 어머니의 취·학업 2개 범주(취·학업, 미취·학업)을 기준으로 총 24개 무응답 조정 계급을 구성하고, 각 계급 내 가중 응답률(Weighted response rate)을 산출하였다. 산출된 값의 역수를 무응답 조정 승수로 사용하여, 해당 계급 내의 응답 가구 가중치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부록 표 4-2〉 12차년도 횡·종단면 자료 무응답 로지스틱 모형 분석결과

구분	12차년도 횡단면 자료			1~12차년도 종단면 자료		
	df	Wald-x^2	p-value	df	Wald-x^2	p-value
출생순서	1	2.2299	0.1354	1	6.6331	0.0100
모 취업여부	1	47.4453	〈0.0001	1	2.0851	0.1487
지역(권역)	5	31.6434	〈0.0001	5	6.2252	0.2849

둘째, 모집단 변동을 반영하고, 패널 마모에 따른 편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9년 17개 시·도별[16] 만 11세 남·여 아동(주민등록인구 기준)수와 한국아동패널의 해당 범주별 표본 가중치의 합이 일치하도록 벤치마킹하는 사후 층화 보정[17]을 통해 가중치를 계산하였다. 계산된 가중치 중에서 이상치(Outlier)는 절사 조정하여 최종적으로 가중치를 산출하였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산출된 가중치의 기술통계량은 〈부록 표 4-3〉과 같다.

〈부록 표 4-3〉 12차년도 최종 횡·종단면 가중치 부여 결과

구분	평균	중위수	표준편차	사례수	최솟값	최댓값
12차 횡단면 가중치	332.16	269.08	193.52	1,412	36.43	951.17
1~12차 종단면 가중치	442.88	364.92	274.51	1,059	49.20	1,283.58

16) 세종시는 충청남도, 제주도는 전라남도로 병합하여 계산함.

17) 사후층화 과정에서 가중치의 사분위수와 사분위수 범위(Inter-Quartile Range; IQR)를 기준으로 Q_3+3IQR을 넘는 수치를 극단(Outlier)로 간주하고 절사하였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해당 값이 포함된 계급 내의 다른 가중치들을 절사된 만큼 부풀리는 방식을 적용해 극단적으로 크게 산출된 가중치를 조정함.

부록 9. 2020 한국아동패널 코로나 19 대응 전략

I 면접조사 관련 대응 방안

1) 조사원 선발: 선발 단계에서부터 문진 항목 적합성 파악

⇒ 조사원 선발 시 전화접촉으로 문진표 항목의 문제 여부를 파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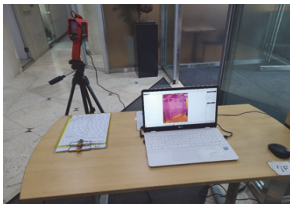
: 해외 여행 이력, 발열 및 기침 증상, 기타 건강상 문제, 자가격리자 및 확진자 접촉 여부 등

⇒ 조사원 및 직원 건강 자가진단 앱을 통한 선발 과정에서부터 안전성 확보

: 앱 개발 완료 단계로 7월부터 시행 예정

2) 조사원 교육: 조사원 감염 예방·행동 수칙 교육 실시

⇒ 교육 장소(본관) 입구에서 체온 측정 및 37.5도 이상 시 입장 제한 (지방 실사의 경우 전자식 휴대용 체온계로 체온 측정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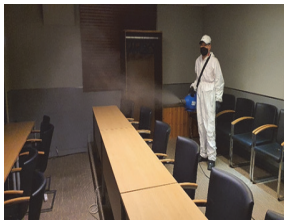


⇒ 조사원 교육장 내 개인용 손소독제 및 마스크 제공, 아크릴 칸막이 설치

⇒ 조사원 교육 시 기본 위생 교육 진행(감염예방교육, 코로나 예방수칙 등)

: 조사 시 예방·위생 수칙을 숙지하고 이를 반드시 준수하도록 교육 철저

⇒ 교육 전/후, 교육에 사용되는 책상, 의자, 기구 등 교육장 소독 실시



3) 조사 전 준비: 조사 현장 이동 전, 조사원 건강 및 준비물 체크

⇒ 실사 진행 전체 기간동안 TAPI에서 건강 자가진단 앱을 실행해야 조사 진행이 가능하도록 설정(7월 중 시스템 적용 예정)

⇒ 방문 조사원에게 손 소독제. 손 세정 티슈 및 마스크 제공

: 코로나 19 방역수칙 미진행 사례 발생시, 한국갤럽 전 조사에서 즉시 배제

⇒ 방문 전 응답자에게 미리 코로나 19 대응 전략을 안내하여 응답 불안 감소

4) 조사 진행: 마스크 착용 후, 응답자-조사원 간 1m 이상 거리 유지 등

⇒ 조사 시작 전 조사원뿐 아니라 응답자도 손소독제를 사용하도록 하고, 조사원 및 응답자 마스크 착용 필수

⇒ 응답자-조사원 간 최소 1m 이상 거리를 유지하고 조사 진행

⇒ 조사 완료 시 응답자와 조사원은 손 소독제를 사용하고, 조사원은 스프레이형 소독제로 태블릿PC 소독

II 전화조사(컨택) 관련 대응 방안

□ 현재 아래의 방역수칙을 수행하고 있음

1) 전화조사실 부스 칸막이 권장높이 90cm 준수(현재 부스 높이 135cm)
2) 부스 일방향 설치(마주보는 방향에 비해 감염 위험성 낮음)
3) 조사원 선발 시 문진표 작성 후, 선발(해외 여행 이력, 최근 발열/기침 등)
4) 조사원 교육 시 감염 예방·행동 수칙 교육 실시
5) 전화조사실 입퇴실 및 근무시 마스크 착용 필수
6) 입실 및 점심시간을 통해 체온계 점검(37.5도 이상 발열시 근무 금지)
7) 전화조사실 코로나 19 대응 메뉴얼 제작 및 배포
8) 손소독제 사용 필수
9) 매주 주말 방역 실시(2/15일부터 매주 실시)
10) 개인별 고정 근무자리 배치(자리 이동 최소화)
11) 공기청정기, 환풍기 24시간 가동
12) 전화조사실 효율적 이용 : 조사원 간 거리두기를 통해 밀집 최소화
13) 점심시간 시차운영 및 본인 자리에서 먹기 시행
14) 책상, 의자, 사무기기, 스위치 버튼 등 1일 2회 이상 소독 실시(개별 소독 분무기 지급)
15) 헤드셋, 마이크 덮개 수시 교체
16)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구축(보건소, 구청 등)

붙임 1	한국아동패널 수행 관련 조사원 안내 지침

〈 조사원 안내 사항 〉

❍ 패널가구 방문 전 준수해야 할 사항(기관 방문 14일 전부터)

- 자가 발열 체크(1일 2회 오전·오후 조사원 관리 앱에 표시) 및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체

  * 37.5℃ 이상 시 담당 SV에 즉각 통보

❍ 코로나 감염·예방을 위한 철저한 개인위생관리 안내

-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히 씻기
- 기침이나 재채기 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
-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않기
- 위생환경 개선, 청소·소독·환기 강화 등 패널가구 방문 전 개인위생 관리 강화 요청

❍ 패널가구 방문 시 준수사항 안내

- 패널가구 입장 및 퇴장 시 때까지 보건용 마스크(KF94 등) 착용
- 방문 시, 손소독제를 이용하여 손 소독 진행
- 패널과 1m 이상 거리 유지하며 조사 진행

❍ 호흡기 전파(비말 감염)를 유발할 수 있는 환경 배제

- 조사 진행 과정에서 커피, 다과 등을 먹거나 마스크를 내리고 대화를 하지 않도록 함

  * 음료, 간식 등을 제공할 경우, 정중히 거절
- 감기나 알러지 등으로 인한 증상이 있을 경우, 조사 연기하여 진행

❍ 조사원 코로나 감염 의심 증상 발현 시 격리 조치

- 격리 후 선별진료소로 신속 이송될 수 있도록 하며, 검사 결과 즉시 보고

〈 패널가구 방문 전후 지침 〉

장소	조사원 준수사항	패널가구 협조사항
패널가구 방문 전	• 패널가구 입장 전·후 마스크 반드시 착용	• 조사원이 패널가구에 방문하는 동안 외부인과 접촉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동선 고려
패널가구 방문 즉시	• 손소독 진행 • 생활속 거리 유지(1m 이상)	• 패널 부모 및 아동과의 신체 접촉이 없는 상황에서 조사 진행 • 패널가구 내에서 사람 간 사회적 거리 유지(1m 이상)
조사 공간 (거실 및 아동 방)	• 생활속 거리 유지(1m 이상) • 불필요한 접촉 자제 • 음료 및 다과 제공 거절	• 응답자와의 사회적 거리 유지(1m 이상) • 불필요한 접촉 자제 • 손세정제 및 세정 티슈를 이용한 수시 손 소독 진행(패널아동 및 부모 포함) • 음료 및 다과 제공시 정중히 거절
조사 완료 후 퇴장	• 마스크는 반드시 착용	• 마스크 착용 후, 퇴장하여 손 소독 진행

붙임 2	한국아동패널 가구방문 안내지침

❍ 조사원 선발 시, 문진 항목 적합성 확인
- 해외 여행 이력, 발열 및 기침 증상, 자가격리자 및 확진자 접촉 여부 등을 확인 후, 안전이 확보된 조사원만 선발하여 교육 진행
- 조사원 건강 자가진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매일 오전 발열 여부 및 건강 상태 확인

❍ 조사원 교육 진행 시, 감염 예방·행동 수칙 교육 실시
- 조사원별 손 소독제, 소독 티슈, 마스크 제공
- 조사원 교육 시 기본 위생 교육 진행(감염예방교육, 코로나 예방수칙 등)
- 조사 시 예방·위생 수칙을 숙지하고 이를 반드시 준수하도록 교육 철저

❍ 패널가구 방문 전, 조사원 건강 및 준비물 체크
- 건강 자가진단 앱을 실행해야 건강 상태에 문제가 없을 때에만 조사원 로그인이 가능하도록 설정
- 방문 전 조사도구(태블릿PC 등) 소독 진행(스프레이, 소독 티슈 사용)
- 방문 전 마스크 착용 및 손 소독제, 소독 티슈 준비
  * 코로나 19 방역수칙 미진행 사례 발생시, 한국갤럽 전 조사에서 즉시 배제

❍ 조사 진행 시, 안전 확보된 상황에서 조사 진행
- 마스크 착용 후, 응답자-조사원 간 1m 이상 거리 유지
- 조사 종료 시까지 마스크 항시 착용(음료, 다과 제공 금지)
- 조사 진행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 금지

부록 10. 12차년도(2019) 질문지

PSKC 2019 면접조사(보호자용)(12차) 질문지

번호	문항 내용
D01-1. DHu19int003	조사 날짜는? (DHu19int003b)월 (DHu19int003c)일
D01-2. DCh19int000	아동 이름은? (DCh19int000)
D01-3. DCh19int007	아동 이름이 바뀐 이유는? ① 개명 ② 지난조사에서의 입력 오류 ③ 부모의 결혼상태 변동 ④ 기타(DCh19int008)
삽입 DCh19dmg001	"아동" 성별 ① 남아 ② 여아
삽입 DCh19dmg006a	"아동" 출생월
생성 DCh19dmg006	"아동" 월령[만 ( )개월]
D01-4. DCh19int005	귀하와 아동의 관계는? ① 어머니 ② 아버지 ③ ○○(이)의 조부모 ④ 기타 친인척
D01-5. DCh19int013a~016	귀하의 성명과 연락처를 입력해 주세요. 1) 응답자 성명: (DCh19int013a or DCh19int013b or DCh19int013c) 2) 집 전화: ① 집 전화 없음 ② 집 전화 있음(전화번호: DCh19int014) 3) 어머니 휴대폰: (DCh19int015) 4) 아버지 휴대폰: (DCh19int016)

번호	문항 내용
D01-6. **DCh19int017~018**	귀하의 성명이 바뀐 이유는? ① 개명 ② 지난조사에서의 입력 오류 ③ 결혼상태 변동 ④ 기타(DCh19int018)
D01-7. **DHu19cmm015**	귀댁의 주소지를 입력해 주세요. ▶ 2019년 현 거주지 전체 주소: DHu19cmm015 시·도: DHu19cmm015c , 시·군·구: DHu19cmm015b, 상세주소: DHu19cmm015e
D01-8. **DHu19cmm020a**	귀댁은 아래 주소지 거주 이후 몇 번이나 이사를 하셨습니까? 2018년 거주지: **전체주소** (DHu18cmm015) 시·도 (**DHu18cmm015c**) 시·군·구 (DHu18cmm015b) ▶ 총 이사 횟수 **(** DHu19cmm020a **)** 회
생성 **DHu19cmm020**	○○(이) 출생 후 총 이사 횟수 ( )번
생성 **DHu19cmm002**	패널 거주지역 규모 ① 대도시 ② 읍면 ③ 중소도시
생성 **DHu19cmm001**	패널 거주지역 6개 권역 구분 ① 서울권 ② 경인권 ③ 대전/충청/강원권 ④ 대구/경북권 ⑤ 부산/울산/경남권 ⑥ 광주/전라권
생성 **DHu19cmm019**	패널 거주지역 5개 특성 구분 ① 서울 ② 광역시 ③ 도농복합시 ④ 시 ⑤ 군
생성 **DHu19cmm014**	패널 거주지역 17개 시/도 구분 ① 서울특별시 ② 부산광역시 ③ 대구광역시 ④ 인천광역시 ⑤ 광주광역시 ⑥ 대전광역시 ⑦ 울산광역시 ⑧ 경기도 ⑨ 강원도 ⑩ 충청북도 ⑪ 충청남도 ⑫ 경상북도 ⑬ 경상남도 ⑭ 전라북도 ⑮ 전라남도 ⑯ 제주도 ⑰ 세종시
생성 **DHu19cmm015b**	패널 거주지역[시/군/구]

번호	문항 내용	
전환	**다음은 귀하와 귀하의 배우자에 관한 질문입니다.**	
D02-1.	○○(이) 부모님의 현재 결혼상태는?	
DMt19dmg003 DFt19dmg003	☑ 본 조사의 어머니, 아버지는 ○○(이)의 호적상 부모임.	
	☑ 1) 어머니	☑ ① 미혼 ② 유배우-초혼 ③ 유배우-재혼 ④ 동거(사실혼 포함) ⑤ 사별 ⑥ 이혼 ⑦ 별거
	☑ 2) 아버지	☑ ① 미혼 ② 유배우-초혼 ③ 유배우-재혼 ④ 동거(사실혼 포함) ⑤ 사별 ⑥ 이혼 ⑦ 별거
D02-2. DHu19dmg004a,b	○○(이) 어머니, 아버지의 현재 결혼일은? (DHu19dmg004a) 년 (DHu19dmg004b) 월	
생성 DHu19dmg004	"부모" 현 결혼상태 유지기간[( )개월]	
D02-3.	○○ 부모님의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은?	
DM/DFt19dmg006 a~c	1) 어머니	(DMt19dmg006a) 년 (DMt19dmg006b) 월 (DMt19dmg006c) 일
	2) 아버지	(DFt19dmg006a) 년 (DFt19dmg006b) 월 (DFt19dmg006c) 일
D02-3-1 DFt19dmg006d	결혼상태가 동일한데 귀하 또는 배우자의 생년월일이 바뀐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기존에 응답한 내용이 틀림 ② 결혼상태 잘못 응답 → D02-1번 문항으로 ③ 기타( )	
생성 DMt19dmg006	"모" 연령[만 ( )세]	
생성 DFt19dmg006	"부" 연령[만 ( )세]	
D02-4.	○○(이) 부모님의 최종학력은?	
DMt19dmg014 FDFt19dmg014	1) 어머니	① 무학 ② 초등학교 졸업 ③ 중학교 졸업 ④ 고등학교 졸업 ⑤ 2~3년제 대학 졸업 ⑥ 4년제 대학교 졸업(5년제 포함) ⑦ 대학원 졸업
	2) 아버지	上同

번호	문항 내용	
D02-5.	○○(이) 부모님은 장애가 있습니까?	
DMt19hlt019 DFt19hlt019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 등급이 폐지되고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됩니다.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3등급)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기존 4~6등급)	
	1) 어머니	① 아니요(장애 없음) ② 예,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③ 예,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2) 아버지	① 아니요(장애 없음) ② 예,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③ 예,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D02-7.	부모님과 ○○(이)는 주 **4일 이상 함께 살고** 있습니까?	
DMt19dmg029 DFt19dmg029	1) 어머니	① ○○(이)와 함께 살고 있음 ② ○○(이)와 떨어져 살고 있음
	2) 아버지	① ○○(이)와 함께 살고 있음 ② ○○(이)와 떨어져 살고 있음
D02-8.	어머니 또는 아버지와 ○○(이)가 떨어져 살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DMt19dmg012 DMt19dmg018	1) 어머니	① 어머니가 타지역(또는 해외)에 근무 중(학업 포함) ③ 어머니가 장기 입원, 요양 중 ④ ○○(이)가 국내·외 유학중 ⑤ 기타(DMt19dmg018)
DFt19dmg012 DFt19dmg018	2) 아버지	① 아버지가 타지역(또는 해외)에 근무 중(학업 포함) ② 군 복무 중 ③ 아버지가 장기 입원, 요양 중 ④ ○○(이)가 국내·외 유학중 ⑤ 기타(DFt19dmg018)
전환	**다음은 귀하의 취업/학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D03-1.	현재 귀하의 취업/학업 상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DMt19jcg003	☑ 육아휴직, 출산휴가, 기타 질병/사고 등 특별한 사유로 잠시 휴직 중인 경우도 취업 중에 해당함. ☑ 시간제로 일하는 경우 또는 가족/친지가 경영하는 사업체에서 일정한 보수 없이 일하는 경우에도 일주일에 18시간 이상 일하면 취업 중에 해당함. ☑ 프리랜서 및 자영업자의 경우 시간제약은 없으나 취업 중에 해당함.	

번호	문항 내용
	① 취업 중(휴직 중 포함) ⇨ Go D03-2 ② 학업 중(휴학 중 포함) ⇨ Go D06-1 ③ 취업/학업 병행 중 ⇨ Go D03-2 ④ 미취업/미학업 ⇨ Go D06-1
D03-2. **DMt19jce012**	현재 귀하의 취업 상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① 재직 중 ② 휴직 중
D03-3. **DMt19jce024**	지난 조사 이후 귀하의 직장 또는 주 업무의 변동이 있습니까? 직장이 2군데 이상일 경우, 주 직장을 중심으로 응답해주세요. 지난 조사 시 응답: 직장명 (DMt18jce001), 주 업무 (DMt18jce003) ① 아니오(변동 없음) ⇨ Go D03-8 ② 직장이 바뀜 ⇨ Go D03-4 ③ 직장은 그대로이나, 주 업무가 바뀜(전근, 부서, 직위 변경 포함) ⇨ Go D03-6 ④ 지난 조사 시, 미취업/미학업이었음 ⇨ Go D03-4
D03-4. **DMt19jce001**	귀하가 현재 일하는 직장(사업체)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소속되어 있는 지점이나 공장의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응답해주세요. ☑ 일반 회사인 경우 회사명과 지점명까지 / 교사인 경우 초등·중등·고등학교까지 / 공무원인 경우 중앙부처·시군구명·읍면 동사무소까지 ☑ 예: ◎◎전자 ◎◎공장 / ◎◎초등학교 / 서울시청 / 프리랜서 직장(사업체)명: ( )
D03-5. **DMt19jce002**	귀하의 직장(사업체)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 직장명으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알 수 없는 중소기업체인 경우 제조업, 유통업, 서비스업 등 업종을 표기해 주세요. ☑ 프리랜서의 경우 업무 장소를 기입해 주세요. 직장의 사업 내용(업종): ( )
D03-6. **DMt19jce003**	귀하의 직장(사업체)에서 귀하가 주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 사무직인 경우 행정직, 전산직, 기술직 / 음식점인 경우 한식조리, 양식조리, 서빙 등 / 교사인 경우 영어, 수학 등 과목명 기입 주로 하는 일: ( )

번호	문항 내용
D03-7.	귀하의 직장(사업체)에서 귀하의 직위는 무엇입니까?
DMt19jce004	☑ 프리랜서 / 공무원의 경우 급수 / 회사원의 경우 평사원, 대리, 과장, 부장 등의 직위 / 음식점의 경우 사장, 매니저, 일반 직원 등 직장(사업체) 내 직위: (　　)
생성 DMt19jce018	“모” 직업군: 대분류
생성 DMt19jce019	“모” 직업군: 중분류
생성 DMt19jce020	“모” 직업군: 소분류
생성 DMt19jce005	“모” 직업군: 총분류
D03-8.	귀하의 현재 종사상 지위는 무엇입니까?
DMt19jce021	☑ 무급 가족 종사자: 혈연관계인 가족이 운영하는 개인 사업체에 정규적인 보수 없이 적어도 주당 18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① 상용직(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이나 원하면 계속 일할 수 있는 경우) ② 임시직(1개월 이상 1년 미만의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한 경우) ③ 일용직(1개월 미만의 근로계약기간 또는 일당제 급여인 경우) ④ 종업원을 둔 고용주 ⑤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 ⑥ 무급 가족 종사자
D03-9.	귀하의 근무 일수, 근무 시간, 왕복 출퇴근 시간을 응답해주십시오.
DMt19jce036a,b DMt19jce025a,b DMt19jce026a,b	☑ 업무성 회식 및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 직장이 2군데 이상일 경우, 총 합산 시간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는 경우 1일 평균 ‘9’시간 근무입니다.

번호	문항 내용

구분	주중(월~금)	주말(토, 일)
1) 근무 일수	(DMt19jce036a)일 근무	(DMt19jce036b)일 근무
2) 근무 시간	1일 평균 (DMt19jce025a)시간 근무	1일 평균 (DMt19jce025b)시간 근무
3) 왕복 출퇴근 시간	1일 평균 왕복 (DMt19jce026a) 소요	1일 평균 왕복 (DMt19jce026b) 소요

생성 DMt19jce025	총 근무시간[주당 ( )시간]
D03-10. DMt19vct001~006	귀하가 지난 1년간 다음의 항목 중 이용한 지원 제도/방식을 모두 골라주세요. ① 출산휴가 ② 육아휴직 ③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 재택근무, 스마트워크 등)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⑤ 가족돌봄휴직 ⑥ 모두 이용 안함
D03-11. DMt19jce011	귀하는 자신의 (주된) 일자리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 ① 전혀 만족하지 않음 ② 대체로 만족하지 않음 ③ 보통임 ④ 대체로 만족함 ⑤ 매우 만족함
전환	**다음은 귀하의 일과 가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D04-1. DMt19wfb001~014 DMt19wfb015~026	귀하가 하고 있는 일과 가정생활에 관하여 다음 각 문장에서 본인과 가깝다고 느끼는 쪽에 응답해 주세요.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일과 가정에 모두 책임감을 갖는다는 것은...					
1) 나를 더 균형 잡힌 사람으로 만든다.	①	②	③	④	⑤
2) 내 삶을 더 다양하게 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의 모든 재능을 발휘하도록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를 최상의 수준으로 북돋아준다.	①	②	③	④	⑤
5) 나의 시간을 더 잘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①	②	③	④	⑤
6)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를 더 유능한 사람으로 느끼게 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8) 직장에서 해야 할 일들이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방해한다.	①	②	③	④	⑤

번호	문항 내용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9) 가족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내가 맡고 싶었던 업무상 제안이나 활동을 거절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가족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일하는 시간이 덜 즐겁고, 부담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11) 일을 할 때, 가족에 관한 일이나 집에서 해야 할 일로 인해 방해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12) 일 때문에 나는 참여하고 싶었던 가족 행사나 활동에 빠진다.	①	②	③	④	⑤
13) 일 때문에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덜 즐겁고, 부담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14) 일하던 중 차라리 가족과 함께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 화가 난다.	①	②	③	④	⑤
15) 일과 가정에서의 의무로 인한 갈등에서 벗어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16) 내가 할 일이 과도하게 많아진다.	①	②	③	④	⑤
17) 내가 일을 하는 것은 내 아이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①	②	③	④	⑤
18) 내가 일을 함으로 인해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을 더 감사히 여기게 된다.	①	②	③	④	⑤
19) 일을 함으로써 내 자신도 좋아지고, 내 아이에게도 좋은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20) 일을 하는 것은 내가 더 좋은 부모라고 느끼게 한다.	①	②	③	④	⑤
21) 일을 하는 것이 자녀에게 부담을 주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22) 일을 하는 동안 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걱정된다.	①	②	③	④	⑤
23) 일을 하느라 시간이 없어서 내가 되고자 했던 부모가 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24) 내 아이에 대해 신경 쓰느라 직장에서 업무가 방해된다.	①	②	③	④	⑤
25) 일을 하면서 부모로서 받는 보상을 일부 놓치게 된다.	①	②	③	④	⑤
26) 일하느라 힘들어서 내가 되고자 하는 부모가 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전환	다음은 ○○(이)에 대한 질문입니다.
D06-1. DCh19scl001	○○(이)는 초등학교(대안학교 포함)에 다니고 있습니까? ① 예, 초등학교(대안학교 포함)에 다니고 있음 ⇨ Go D06-4 ② 아니오, 다니고 있지 않음

번호	문항 내용
D06-2. DCh19chg030	○○(이)가 학교에 다니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
D06-3. DCh19chg008, 015	○○(이)가 초등학교 대신에 현재 이용하는 기관은 어느 곳입니까? ① 이용하는 기관 없음　③ 학원　④ 홈스쿨링　⑤ 기타(DCh19chg015) ⇨ Go D06-11
D06-4. DCh19int020	○○(이)의 학교생활을 알기 위해 담임 선생님께 조사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아이들의 건강한 발달과 합리적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위하여, ○○(이)의 담임 선생님께 조사를 부탁드리도록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담임 선생님께서 동의하실 경우에만 조사가 진행되며, 인터넷을 통해 선생님께서 편안한 시간에 약 10분 정도의 조사가 진행됩니다. ① 네, 동의함　② 아니오, 동의하지 않음 ⇨ Go D06-7
D06-5. DCh19int019a~c	○○(이)가 다니고 있는 초등학교 이름과 학급을 응답해 주세요. (DCh19int019a) 초등학교 (DCh19int019b) 학년 (DCh19int019c)반
D06-6. DCh19int021	○○(이) 담임 선생님 성함과 연락처는 무엇입니까? 담임 선생님 성함: (DCh19int021)
D06-7. DCh19chg032	○○(이)는 지난 조사 이후 전학을 한 적이 있습니까? ① 전학한 적 없음　② 전학한 적 있음
D06-8. DCh19scm001~002	○○(이)가 다니는 학교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① 국립학교　② 공립학교　③ 사립학교　④ 국제(외국인)학교　⑤ 대안학교　⑥ 기타(DCh19scm002)
D06-9. DCh19scl012	○○(이)는 지난 학기 동안 학교를 결석한 적이 있습니까? ① 결석한 적 없음 ② 사고 및 질병으로 결석한 적 있음　③ 사고 및 질병 외 다른 이유로 결석한 적 있음
D06-11. DCh19psa042	귀하가 이름을 알고 있는 ○○(이)의 친구는 몇 명입니까? (　　)명

번호	문항 내용
D06-13. DCh19slp022a,b DCh19slp023a,b DCh19slp022f,i DCh19slp023f,i DCh19slp024a DCh19slp024c	○○(이)는 평소 학기 중 밤에 몇 시에 잠들어 아침 몇 시에 일어납니까? ▣ 30분 단위로 입력해 주세요.

1) 주중	(DCh19slp022a)시 (DCh19slp022b)분에 잠들어 ~ (DCh19slp023a)시 (DCh19slp023b)분에 일어남	▶ 주중 총 (DCh19slp024a) 시간
2) 주말	(DCh19slp022f)시 (DCh19slp022i)분에 잠들어 ~ (DCh19slp023f)시 (DCh19slp023i)분에 일어남	▶ 주말 총 (DCh19slp024c) 시간

D06-14.

DCh19slp024b
DCh19dsc010a
DCh19dsc001a
DCh19dsc002a
DCh19dsc003a
DCh19dsc021a
DCh19dsc004a
DCh19dsc005a
DCh19dsc022a
DCh19dsc023a
DCh19dsc024a
DCh19dsc025a
DCh19dsc026a
DCh19dsc027a
DCh19dsc028a
DCh19dsc029a
DCh19dsc011a

○○(이)의 **학기 중 가장 일상적인 주중 하루**를 회상하고 응답해 주십시오. 다음의 활동을 보통 얼마동안 합니까?

☑ 방학 중에 하는 조사일 경우, 학기 중 일상적 하루를 회상하여 응답하도록 함
☑ 시간 환산 예: 30분(0.5시간) 단위로 응답 가능

시간	활동안함	30분	1시간	1시간30분	2시간	2시간30분	3시간	3시간30분	4시간	4시간30분	5시간	5시간30분
응답	0.0	0.5	1.0	1.5	2.0	2.5	3.0	3.5	4.0	4.5	5.0	5.5
시간	6시간	6시간30분	7시간	7시간30분	8시간	8시간30분	9시간	9시간30분	10시간	10시간30분	11시간	11시간30분
응답	6.0	6.5	7.0	7.5	8.0	8.5	9.0	9.5	10.0	10.5	11.0	11.5

구분	활동 내용	주말 하루
생활필수행동	1) 수면시간(밤)	(DCh19slp024b)시간
	2) 식사, 간식 먹기, 씻기, 옷 입기 등의 기본생활 시간	(DCh19dsc010a)시간
학습	3)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교내 방과후 교실 포함)	(DCh19dsc001a)시간
	4) 학교 이외의 기관에서 교육 및 돌봄을 받는 시간 (학원, 개인/그룹 지도 및 과외, 학습지 지도, 문화센터, 공공기관, 지역아동센터 등)	(DCh19dsc002a)시간
	5) 숙제, 학습지 등 혼자 공부를 하는 시간	(DCh19dsc003a)시간
	6) 인터넷 수업 등 통신 교육	(DCh19dsc021a)시간
여가 및 교제	7) 책 읽는 시간	(DCh19dsc004a)시간
	8) TV, 컴퓨터, 휴대전화 등을 통한 영상 시청	(DCh19dsc005a)시간
	9) 컴퓨터, 휴대전화, 가정용콘솔 등을 통한 게임	(DCh19dsc022a)시간
	10) 즐거움을 목적으로 하는 동호회 등 취미생활	(DCh19dsc023a)시간

번호	문항 내용

구분	활동 내용	주말 하루
	11) 스포츠 및 집 밖 레저 활동	(DCh19dsc024a)시간
	12) 친인척, 친구 등과의 놀이 등 사교 활동 (대면교제, SNS 카카오톡 등 통신기기 이용 교제 등)	(DCh19dsc025a)시간
	13) 애완동물 돌보기	(DCh19dsc026a)시간
	14) 종교 활동	(DCh19dsc027a)시간
가정관리	15) 음식준비, 의류관리, 청소 및 정리 등 가사일 돕기	(DCh19dsc028a)시간
기타	16) 이동 시간	(DCh19dsc029a)시간
	17) 기타 시간	(Ch19dsc11a)시간
	▶ 현재까지 시간의 합	( ) / 24시간

D06-15.

DCh19slp024d
DCh19dsc010b
DCh19dsc001b
DCh19dsc002b
DCh19dsc003b
DCh19dsc021b
DCh19dsc004b
DCh19dsc005b
DCh19dsc022b
DCh19dsc023b
DCh19dsc024b
DCh19dsc025b
DCh19dsc026b
DCh19dsc027b
DCh19dsc028b

○○(이)의 **학기 중 가장 일상적인 주말 하루**를 회상하고 응답해 주십시오. 다음의 활동을 보통 얼마동안 합니까?

☑ 방학 중에 하는 조사일 경우, 학기 중 일상적 하루를 회상하여 응답하도록 함
☑ 시간 환산 예: 30분(0.5시간) 단위로 응답 가능

시간	활동안함	30분	1시간	1시간30분	2시간	2시간30분	3시간	3시간30분	4시간	4시간30분	5시간	5시간30분
응답	0.0	0.5	1.0	1.5	2.0	2.5	3.0	3.5	4.0	4.5	5.0	5.5
시간	6시간	6시간30분	7시간	7시간30분	8시간	8시간30분	9시간	9시간30분	10시간	10시간30분	11시간	11시간30분
응답	6.0	6.5	7.0	7.5	8.0	8.5	9.0	9.5	10.0	10.5	11.0	11.5

구분	활동 내용	주말 하루
생활필수행동	1) 수면시간(밤)	(DCh19slp024d)시간
	2) 식사, 간식 먹기, 씻기, 옷 입기 등의 기본생활 시간	(DCh19dsc010b)시간
학습	3)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교내 방과후 교실 포함)	(DCh19dsc001b)시간
	4) 학교 이외의 기관에서 교육 및 돌봄을 받는 시간 (학원, 개인/그룹 지도 및 과외, 학습지 지도, 문화센터, 공공기관, 지역아동센터 등)	(DCh19dsc002b)시간
	5) 숙제, 학습지 등 혼자 공부를 하는 시간	(DCh19dsc003b)시간
	6) 인터넷 수업 등 통신 교육	(DCh19dsc021b)시간

번호	문항 내용
DCh19dsc029b DCh19dsc011b	

구분	활동 내용	주말 하루
여가 및 교제	7) 책 읽는 시간	(DCh19dsc004b)시간
	8) TV, 컴퓨터, 휴대전화 등을 통한 영상 시청	(DCh19dsc005b)시간
	9) 컴퓨터, 휴대전화, 가정용콘솔 등을 통한 게임	(DCh19dsc022b)시간
	10) 즐거움을 목적으로 하는 동호회 등 취미생활	(DCh19dsc023b)시간
	11) 스포츠 및 집 밖 레저 활동	(DCh19dsc024b)시간
	12) 친인척, 친구 등과의 놀이 등 사교 활동 (대면교제, SNS 카카오톡 등 통신기기 이용 교제 등)	(DCh19dsc025b)시간
	13) 애완동물 돌보기	(DCh19dsc026b)시간
	14) 종교 활동	(DCh19dsc027b)시간
가정관리	15) 음식준비, 의류관리, 청소 및 정리 등 가사일 돕기	(DCh19dsc028b)시간
기타	16) 이동 시간	(DCh19dsc029b)시간
	17) 기타 시간	(DCh19dsc011b)시간
	▶ 현재까지 시간의 합	(　　) / 24시간

생성 DCh19slp024e : DCh19dsc011c	“아동” (항목 명) 주중-주말 시간 편차 [총 (　)시간] “아동” 주중-주말 시간 편차 [총 ( )시간] 1) 수면시간(밤) : “아동” 주중-주말 시간 편차 [총 ( )시간] 17) 기타 시간
D06-16. DCh19enn001	○○(이)는 일주일에 평균 몇 번 가족과 함께 식사합니까?(외식 포함) ① 거의 안함 ② 주 1~2회 ③ 주 3~5회 ④ 주 6-7회 ⑤ 주 8회 이상
D06-18. DCh19mid012	○○(이)는 휴대폰이나 스마트폰 등이 있습니까? ① 있음　② 없음

번호	문항 내용
D06-19.	○○(이)는 스마트폰, PC(인터넷) 등을 다음의 항목에 1일 평균 몇 시간 사용합니까?
DCh19mid017	**구분** / **① 이용시간** 1) 학습 2) 정보 검색 3) 게임 4) 엔터테인먼트(음악 감상, 동영상 감상 등) 5) SNS(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1일 평균 (DCh19mid017)시간
D06-20.	○○(이)가 하루 평균 (**DCh19mid017**) 시간 이용하는 스마트폰, PC(인터넷) 등을 다음의 항목에 각각 어느 정도 사용합니까?
DCh19mid015a~e	**구분** / **① 전혀 사용 안함 / ② 가끔 사용함 ③ 자주 사용함 / ④ 매일 사용함** 1) 학습 — 上同 2) 정보 검색 — 上同 3) 게임 — 上同 4) 엔터테인먼트(음악 감상, 동영상 감상 등) — 上同 5) SNS(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 上同
D06-21.	○○(이)는 주당 몇 권의 책을 읽습니까?
Ch18dsc16~17	☑ e-book, 학습 만화 포함 ☑ '2주에 1권을 읽는 경우 '0.5'로 입력해 주세요' ① 안 읽음 ② 1주일에 평균 (Ch18dsc17)권을 읽음
D06-22.	○○(이)가 지난 1년간 다음 활동에 얼마나 참여했는지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DCh19dsc012a~h DCh19dsc013a~h	☑ **한 달은 4주 기준임** ☑ 문화체험활동: 과학관, 천체관, 역사관, 체험관 등 ☑ 예술감상활동: 미술관, 음악회, 전시회, 영화, 연극, 뮤지컬 관람 등

번호	문항 내용

구분	① 참여안함	② 1년에 (　　)회	③ 한 달에 (　　)회	④ 일주일에 (　　)회
1) 장보기 및 쇼핑	DCh19dsc012a	DCh19dsc013a		
2) 친인척 방문	DCh19dsc012b	DCh19dsc013b		
3) 당일 여행 및 나들이	DCh19dsc012c	DCh19dsc013c		
4) 1박이상의 국내 여행(가족 또는 단체)	DCh19dsc012d	DCh19dsc013d		
5) 해외 여행 및 연수	DCh19dsc030d	DCh19dsc031d		
6) 문화체험 및 예술감상활동, 견학	DCh19dsc012e	DCh19dsc013e		
7) 종교활동(예배·예불/미사 참석, 캠프 등)	DCh19dsc012f	DCh19dsc013f		
8) 봉사활동	DCh19dsc012g	DCh19dsc013g		
9) 동아리활동(합창단, 스카우트 등)	DCh19dsc012h	DCh19dsc013h		

생성 DCh19dsc014a~h	"아동" (항목 명) 참여 횟수[1년간 대략 (　　)회]
D06-23. DCh19hob001	○○이는 취미로 연주하는 악기가 있습니까? ① 있다 ⇨ GO D06-24　　② 없다 ⇨ GO D06-25
D06-24. DCh19hob002a~j, hob003	○○이가 연주하는 악기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모두 선택) ① 피아노 ② 바이올린 ③ 첼로 ④ 우쿨렐레 ⑤ 클라리넷 ⑥ 플룻 ⑦ 오카리나 ⑧ 드럼 ⑨가야금 ⑩ 기타 (기입: DCh19hob003)
D06-25. DCh19hob004	○○이는 현재 즐겨 하는 운동이 있나요? ① 있다 ⇨ GO D06-26　　② 없다⇨ GO D06-27
D06-26. DCh19hob005a~o, hob006	○○이는 어떤 운동을 즐겨 하나요? (모두 선택) ① 축구 ② 농구 ③야구 ④ 탁구 ⑤ 배구 ⑥ 테니스 ⑦ 배드민턴 ⑧ 골프 ⑨ 수영 ⑩ 스케이트 ⑪ 스키 ⑫체조(기계체조, 리듬체조 등) ⑬ 무용(발레, 고전무용, 방송댄스 등) ⑭ 태권도 ⑮ 기타(기입: DCh19hob006)

번호	문항 내용
D06-27. DCh19hob007	**[보기] 신체활동**: 탁구, 수영, 배구 배드민턴, 빠르게 걷기, 야구, 축구, 농구, 테니스, 골프, 체육시간에 실제 운동한 시간, 운동장·놀이터에서 놀기 등 격렬하거나 중등도의 신체활동 (등하교시 걷는 것은 제외) ○○이가 지난 7일 동안 **실내**에서 한번에 [보기]와 같은 신체활동(운동)을 30분 이상 한 날은 며칠 입니까? ① 없음 ② 1일 ③2일 ④3일 ⑤4일 ⑥5일 이상
D06-28. DCh19hob008	**[보기] 신체활동**: 탁구, 수영, 배구 배드민턴, 빠르게 걷기, 야구, 축구, 농구, 테니스, 골프, 체육시간에 실제 운동한 시간, 운동장·놀이터에서 놀기 등 격렬하거나 중등도의 신체활동; 등하교시 걷는 것은 제외 ○○이가 지난 7일 동안 **실외**에서 한번에 [보기]와 같은 신체활동(운동)을 30분 이상 한 날은 며칠 입니까? ① 없음 ② 1일 ③2일 ④3일 ⑤4일 ⑥5일 이상
전환	**다음은 학교에 대한 가족참여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D06-29. DCh19par001~017	다음은 OO(이)의 학교와 가족 참여에 관련 문항입니다. 각 항목에 대해 활동을 수행하는 빈도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내 용	드물다	가끔	자주	항상 그렇다
1) 자녀의 미디어 사용시간을 제한한다.	①	②	③	④
2) 자녀가 학교에서 공부한 것을 살펴본다	①	②	③	④
3) 나는 자녀를 도서관에 데리고 간다.	①	②	③	④
4) 자녀가 규칙적인 기상/취침 시간을 지키도록 한다.	①	②	③	④
5) 자녀의 교육을 위해 지역 내 문화시설(박물관, 미술관, 음악회) 에 데리고 간다.	①	②	③	④
6) 자녀를 위해 집에 학습 자료를 구비해둔다.	①	②	③	④
7) 자녀가 집에서 지켜야하는 명확한 규칙이 있다.	①	②	③	④
8) 자녀에게 학교생활이 어땠는지 물어본다	①	②	③	④
9) 자녀가 해야 하는 집안일이 있다.	①	②	③	④
10) 자녀의 숙제를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11) 자녀의 학교에서 제공하는 워크숍이나 교육에 참석한다.	①	②	③	④
12) 자녀의 교실에서 자원봉사를 한다.	①	②	③	④

번호	문항 내용

문 항 내 용	드물다	가끔	자주	항상 그렇다
13) 다른 학부모들과 학교 회의와 행사에 대해 이야기한다.	①	②	③	④
14) 자녀의 학교 학부모들이 서로 지원하는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15) 학교에서 주관하는 교사-학부모 상담에 참석한다.	①	②	③	④
16) 반의 다른 가족들과 학교 밖에서 만남을 가진다.	①	②	③	④
17) 학교에서 주관하는 운동회 등 가족 참여 행사에 참가한다.	①	②	③	④

전환	**다음은 ○○(이)의 돌봄 및 양육에 대한 질문입니다.**
D07-1.	○○(이)의 돌봄 및 양육을 도와주는 사람이나 장소를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DCh19chg037a~f DCh19chg038a~f	☑ 돌봄이 아닌 교육이 이용목적인 사람이나 장소는 해당되지 않음.

구분	1) 학기 중	2) 방학 중
(1) 조부모 및 친인척	하루 평균 ( )시간 이용	하루 평균 ( )시간 이용
(2) 비혈연 대리양육자(양육도우미 등)	하루 평균 ( )시간 이용	하루 평균 ( )시간 이용
(3) 아이돌보미(건강가정지원센터)	하루 평균 ( )시간 이용	하루 평균 ( )시간 이용
(4) 초등돌봄교실	하루 평균 ( )시간 이용	하루 평균 ( )시간 이용
(5) 지역아동센터	하루 평균 ( )시간 이용	하루 평균 ( )시간 이용
(6) 기타	하루 평균 ( )시간 이용	하루 평균 ( )시간 이용

D07-2. ○○(이)는 다음의 돌봄 및 양육을 일주일에 며칠 이용합니까?

DCh19chg035a~f
DCh19chg036a~f

구분	1) 학기 중	2) 방학 중
(1) 조부모 및 친인척	1주일에 ( )일	1주일에 ( )일
(2) 비혈연 대리양육자(양육도우미 등)	1주일에 ( )일	1주일에 ( )일
(3) 아이돌보미(건강가정지원센터)	1주일에 ( )일	1주일에 ( )일
(4) 초등돌봄교실	1주일에 ( )일	1주일에 ( )일
(5) 지역아동센터	1주일에 ( )일	1주일에 ( )일
(6) 기타	1주일에 ( )일	1주일에 ( )일

번호	문항 내용		
D07-3.	○○(이)가 이용하는 다음의 돌봄 및 양육의 월 평균 이용 비용은 얼마 입니까?		
DCh19chg039a~f DCh19chg040a~f	구분	1) 학기 중	2) 방학 중
		▶ 총 (DCh19chg039)만원 지출	▶ 총 (DCh19chg040)만원 지출
	(1) 조부모 및 친인척	월 평균 ( )만원	월 평균 ( )만원
	(2) 비혈연 대리양육자(양육도우미 등)	월 평균 ( )만원	월 평균 ( )만원
	(3) 아이돌보미(건강가정지원센터)	월 평균 ( )만원	월 평균 ( )만원
	(4) 초등돌봄교실	월 평균 ( )만원	월 평균 ( )만원
	(5) 지역아동센터	월 평균 ( )만원	월 평균 ( )만원
	(6) 기타	월 평균 ( )만원	월 평균 ( )만원
D07-4.	○○(이)가 이용하는 다음의 돌봄 및 양육의 이용 만족도는 어떠합니까?		
DCh19chg041a~f DCh19chg042a~f	구분	1) 학기 중	2) 방학 중
	(1) 조부모 및 친인척	① 매우 불만족 ② 대체로 불만족 ③ 보통임 ④ 대체로 만족 ⑤ 매우 만족	① 매우 불만족 ② 대체로 불만족 ③ 보통임 ④ 대체로 만족 ⑤ 매우 만족
	(2) 비혈연 대리양육자(양육도우미 등)	上同	上同
	(3) 아이돌보미(건강가정지원센터)	上同	上同
	(4) 초등돌봄교실	上同	上同
	(5) 지역아동센터	上同	上同
	(6) 기타	上同	上同
D07-5. DCh19dsc015	○○(이)가 하루 중 어른 없이 집에 혼자 있거나 형제자매끼리만 있는 경우는 몇 시간입니까? ① 없음 ② 1시간 미만 ③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④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⑤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 ⑥ 4시간 이상		

번호	문항 내용
D07-6.	다음의 항목에 대해 귀하는 어떠하신지 응답해 주십시오.

DMt19crs052~055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해당 없음
	1) ○○(이)가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있는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⑨
	2) ○○(이)가 몇 시에 들어오는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⑨
	3) ○○(이)가 어른 없이 있을 때 무엇을 하는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⑨
	4) ○○(이)가 어른 없이 있을 때 연락을 주고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⑨

D07-7.	다음의 ○○(이)의 학교 행사에 부모님은 **올해** 참여하셨습니까?

DMt19ppe030a~g	구분	참여 여부
	1) 행사(운동회, 발표회 등)	① 참여한 적 없음 ② ○○(이)의 어머니만 참여 ③ ○○(이)의 아버지만 참여 ④ ○○(이)의 어머니, 아버지 모두 참여 ⑤ 해당 없음(행사 미개최)
	2) 자원봉사 (녹색어머니, 급식 검수, 어머니폴리스회/안전둥지회, 야외활동, 수업보조, 학부모 재능 기부, 청소 등)	
	3) 학부모 공개 수업	
	4) 부모교육프로그램(강연회, 워크숍 등)	
	5) 담임상담	
	6) 학교운영위원회	
	7) 학부모(총)회	

전환	**다음은 ○○(이)가 이용하는 교육서비스에 대한 질문입니다.**
D08-1 구현 전 화면	초등학교 정규수업 이외에 추가로 이용하는 모든 서비스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의 예시를 잘 살펴봐 주세요.

번호	문항 내용

구분	종류
1) 미술	그림, 공작, 공예, 도예, 서예, 요미요미, 종이접기, 클레이, POP 등
2) 음악	가야금, 국악, 노래교실, 바이올린, 오르프, 우쿨렐레, 사물놀이, 시조창, 성악, 중창 등
3) 체육	골프, 농구, 댄스, 발레, 배드민턴, 수영, 스케이트, 승마, 야구, 줄넘기, 축구, 태권도, 풋살, 인라인 등
4) 과학	건축, 과학, 과학실험, 로봇, 항공 등
5) 수학	도형, 숫자, 산수, 주산 등
6) 국어	논술, 동화구연, 웅변, 스피치, 한글 등
7) 컴퓨터	
8) 한자	
9) 영어	
10) 기타 외국어	중국어, 일본어 등
11) 기타	여러 과목, 통합 교과, 전과목(재능피자, 다높이, 멀티존 등), 뇌교육, 바둑, 루크, 레고, 보드게임, 체스, 전통놀이, 컵쌓기, 마술, 요리, 세계문화, 연극, 아나운서 등

D08-1.

○○(이)가 현재 학교 수업 이외의 교육을 받는 기관 및 매체를 모두 체크해 주십시오.

☑ 방학 중에 조사하는 경우, 학기 중 한 달간을 기준으로 함.

DCh19cht023a~m
DCh19cht026a~m
DCh19cht027a~m
DCh19cht028a~m
DCh19cht029a~m
DCh19cht030a~m
DCh19cht031a~m

구분	이용 안함	학원	가정내 개인/그룹 지도(과외)	학습지 (방문교사)	인터넷 화상강의	교내 방과 후 교실	문화센터, 종교기관 등 사설기관	주민센터, 복지관 등 공공기관
1) 미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2) 음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3) 체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4) 과학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5) 수학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6) 국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7) 컴퓨터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번호	문항 내용

구분	이용 안함	학원	가정내 개인/그룹 지도(과외)	학습지 (방문교사)	인터넷 화상강의	교내 방과 후 교실	문화센터, 종교기관 등 사설기관	주민센터, 복지관 등 공공기관
8) 한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9) 영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10) 기타 외국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11) 기타1 (DCh19cht024a)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12) 기타2 (DCh19cht024b)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13) 기타3 (DCh19cht024c)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D08-2.

○○(이)는 현재 아래의 교육 기관 및 서비스를 일주일에 총 몇 시간 이용합니까?

시간	활동안함	30분	1시간	1시간30분	2시간	2시간30분	3시간	3시간30분	4시간	4시간30분	5시간	5시간30분
응답	0.0	0.5	1.0	1.5	2.0	2.5	3.0	3.5	4.0	4.5	5.0	5.5
시간	6시간	6시간30분	7시간	7시간30분	8시간	8시간30분	9시간	9시간30분	10시간	10시간30분	11시간	11시간30분
응답	6.0	6.5	7.0	7.5	8.0	8.5	9.0	9.5	10.0	10.5	11.0	11.5

DCh19cht033b~h

구분	일주일 총 이용시간
2) 학원	일주일 총 (DCh19cht033b)시간
3) 가정 내 개인/그룹 지도(과외)	일주일 총 (DCh19cht033c)시간
4) 학습지(방문교사)	일주일 총 (DCh19cht033d)시간
5) 인터넷/화상 강의	일주일 총 (DCh19cht033e)시간
6) 교내 방과 후 교실	일주일 총 (DCh19cht033f)시간
7) 문화센터, 종교기관 등 사설기관	일주일 총 (DCh19cht033g)시간
8) 주민센터, 복지관 등 공공기관	일주일 총 (DCh19cht033h)시간

번호	문항 내용
D08-3.	○○(이)가 현재 이용하는 아래의 교육 기관 및 서비스의 이용 만족도는 어떠합니까?

구분	이용 만족도
1) ○○(이)의 초등학교	① 매우 만족하지 않음 ② 대체로 만족하지 않음 ③ 보통임 ④ 대체로 만족함 ⑤ 매우 만족함
2) 학원	上同
3) 가정 내 개인/그룹 지도(과외)	上同
4) 학습지(방문교사)	上同
5) 인터넷/화상 강의	上同
6) 교내 방과 후 교실	上同
7) 문화센터, 종교기관 등 사설기관	上同
8) 주민센터, 복지관 등 공공기관	上同

DCh19cht034a~h

D08-4. ○○(이)가 현재 이용하는 아래의 교육 기관 및 서비스의 월평균 교육비용은 얼마입니까?

☑ 교육비용: 교재비 등을 제외하고 교육비 목적으로만 지출하는 비용을 의미함.

금액	1천원	2천원	3천원	4천원	5천원	6천원	7천원	8천원	9천원	1만원	…	1만 5천원	…
응답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	1.5	…

구분	▶ 총 월평균 교육 비용(Ch18cht35)원 월 평균 교육 비용
1) ○○(이)의 초등학교	월 평균 총 (DCh19cht035i)만원
2) 학원	월 평균 총 (DCh19cht035b)만원
3) 가정 내 개인/그룹 지도(과외)	월 평균 총 (DCh19cht035c)만원
4) 학습지(방문교사)	월 평균 총 (DCh19cht035d)만원
5) 인터넷/화상 강의	월 평균 총 (DCh19cht035e)만원
6) 교내 방과 후 교실	월 평균 총 (DCh19cht035f)만원
7) 문화센터, 종교기관 등 사설기관	월 평균 총 (DCh19cht035g)만원
8) 주민센터, 복지관 등 공공기관	월 평균 총 (DCh19cht035h)만원

DCh19cht035,
DCh19cht035b~i

번호	문항 내용
D08-5. DCh19cht036a~h	○○(이)가 현재 이용하는 아래의 교육 기관 및 서비스의 이용 비용 부담 정도는 어떠합니까?

구분	비용 부담 정도
1) ○○(이)의 초등학교	① 전혀 부담되지 않음 ② 부담되지 않는 편임 ③ 적당함 ④ 부담되는 편임 ⑤ 매우 부담됨
2) 학원	上同
3) 가정 내 개인/그룹 지도(과외)	上同
4) 학습지(방문교사)	上同
5) 인터넷/화상 강의	上同
6) 교내 방과 후 교실	上同
7) 문화센터, 종교기관 등 사설기관	上同
8) 주민센터, 복지관 등 공공기관	上同

전환	**다음은 ○○(이)의 신체 발달 및 건강에 대한 질문입니다.**
D09-1. DCh19hlt049	○○(이)의 건강 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건강하지 않음 ② 건강하지 않은 편임 ③ 보통임 ④ 건강한 편임 ⑤ 매우 건강함
D09-2. DCh19hlt021	○○(이)는 지난 1년 간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치료 경험 있음(이유: DCh19hlt050) ② 치료 경험 없음
D09-3. DCh19hlt008	○○(이)는 지난 1년 간 입원한 적이 있습니까? ① 입원한 적 있음(이유: DCh19hlt023) ② 입원한 적 없음
D09-4. DCh19hlt028a~q (판정 여부) DCh19hlt029a~p (장애 유형 및 판정급수)	지난 조사 이후 ○○(이)는 아래의 장애를 판정받았습니까? 장애 판정 받은 모든 장애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 등급이 폐지되고,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됩니다.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3등급) -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기존 4~6등급 (각 장애별) ①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②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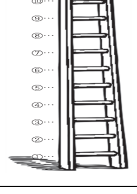
번호	문항 내용					
	장애 유형	판정 여부	장애 정도	장애 유형	판정 여부	장애 정도
	1) 지체장애	1. 장애 없음 2. 장애 있음	1.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9) 간장애	1. 장애 없음 2. 장애 있음	1.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2) 뇌병변장애			□ 10) 호흡기장애		
	3) 시각장애			□ 11) 장루, 요루장애		
	□ 4) 청각장애			□ 12) 간질장애		
	□ 5) 언어장애			□ 13) 지적장애		
	□ 6) 안면장애			□ 14) 정신장애		
	□ 7) 신장장애			□ 15) 자폐성장애		
	□ 8) 심장장애			□ 16) 기타(DCh19hlt028q)		
				17) 없음 ⇨ Go D09-5		

D09-5.	○○(이)가 진단 받은 다음의 질환의 **병원 치료 여부**에 대해 응답해 주세요.		
DCh19hlt031 DCh19hlt033 DCh19hlt034 a,c,d,f~n	질환 유형	1) 최초 진단일	2) 병원 치료 여부
	□ 1) 선천성 심장질환	② 진단 받음: (DCh19hlt031a)년 (DCh19hlt033a)월	DCh19hlt034a ① 정기적으로 받음 ② 간헐적으로 받음 ③ 받지 않음
	□ 2) 간질	上同	上同
	□ 3) 당뇨	上同	上同
	□ 4) 만성 부비동염(축농증)	上同	上同
	□ 5) 만성 중이염	上同	上同
	□ 6) 만성 요로감염	上同	上同
	□ 7) 천식	上同	上同
	□ 8) 만성 비염(알레르기성 포함)	上同	上同
	□ 9) 아토피 피부염	上同	上同
	□ 10) 식품알레르기	上同	上同
	□ 11) 알레르기 결막염	上同	上同
	□ 12) 기타 (DCh19hlt031b)	上同	上同
	□ 13) 없음 ⇨ Go D09-6		

번호	문항 내용		
D09-6.	○○(이)가 진단 받은 다음의 질환의 **상담 및 병원 치료 여부**에 대해 응답해 주세요		
DCh19hlt032 DCh19hlt035 DCh19hlt036a~j	**질환 유형**	**1) 최초 진단일**	**2) 상담 및 병원 치료 여부**
	□ 1) 의사소통 장애 (언어장애, 발화음장애, 말더듬기, 사회적 의사소통 장애)	② 진단 받음: (DCh19hlt032a)년 (DCh19hlt035a)월	DCh19hlt036a ① 정기적으로 받음 ② 간헐적으로 받음 ③ 받지 않음
	□ 2) 자폐 스펙트럼 장애	上同	上同
	□ 3)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上同	上同
	□ 4) 특정 학습장애	上同	上同
	□ 5) 운동장애(틱장애, 정형적 동작장애, 발달성 운동조정장애)	上同	上同
	□ 6) 파괴적, 충동통제 및 품행장애 (적대적 반항장애, 간헐적 폭발성 장애, 품행장애, 방화증, 도벽증)	上同	上同
	□ 7) 배설장애	上同	上同
	□ 8) 급식 및 섭식장애	上同	上同
	□ 9) 불안 장애(분리불안장애, 선택적 함구증)	上同	上同
	□ 10) 기타 장애(DCh19hlt037)	上同	上同
	□ 11) 없음 ⇨ Go D09-7		
D09-7. DCh19hlt045a~c DCh19hlt046 DCh19hlt047	○○(이)는 안경 또는 시력교정도구를 사용합니까? 모두 응답해 주세요. ① 예, 안경 사용함(사용 시작 시기: 만 DCh19hlt046세) ② 예, 시력교정도구 사용함(사용 시작 시기: 만 DCh19hlt047세) ③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음		
D-09-10. DCh19hlt039	○○(이)는 몽정(남아) 또는 초경(여아) 등 2차 성징이 나타났습니까? ① 예 ⇨ GO D-09-11 ② 아니오 ⇨ GO D10-1.		
D-09-11 DCh19hlt040	○○(이)가 처음으로 2차 성징이 나타난 시기는 언제입니까? 시작 년도 : (DCh19hlt040)		

번호	문항 내용
전환	**다음은 귀 댁의 경제적 특성 및 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D10-1.	귀 댁의 지난 1년 동안의 월 평균 가구소득은 얼마입니까? **실 수령액**으로 응답해주십시오.
DHu19ses006	☑ 가구소득: 근로, 금융, 사업, 임대, 이전, 기타 소득 등을 모두 포함하여 모든 가구원의 소득을 합산한 것을 지칭함. ☑ 소득세, 주민세, 재산세, 이자소득세 등을 비롯하여 국민연금, 의료 보험료 등을 제외한 실수령액. 월 평균 실 수령 가구소득 **(** DHu19ses006 **)** 만원
생성 **DHu19ses006p**	예년 대비 소득 증가율[( )%]
D10-2. **DMt19ses008**	귀하의 근로소득은 얼마입니까? **실 수령액**으로 응답해주십시오. 월 평균 어머니의 실 수령 근로소득 ( )만원
생성 **Mt18ses08p**	예년 대비 어머니 근로소득 증가율[( )%]
D10-3.	귀 댁의 지난 1년 동안의 **월 평균 가구지출**은 얼마입니까? 아래의 항목에 따라 응답해 주십시오.
DHu19ses171 **DHu19ses182** **DHu19ses019** **DHu19ses020** **DHu19ses017** **DHu19ses018**	**구분** / ▶ 가구 총 지출 비용 (DHu19ses171) 만원 ▶ 자녀에 대한 총 지출 비용 (DHu19ses182) 만원 **비소비성 지출: 각종 세금, 적금, 보험, 타 가구원을 위한 용돈, 월 상환금 등** 1) 가구 전체의 비소비성 지출 / 월 평균 가구 총 비소비성 지출 (DHu19ses019) 만원 2) 이 중 자녀(들)에 대한 비소비성 지출 / 월 평균 자녀(들)을 위한 총 비소비성 지출 (DHu19ses020) 만원 **소비성 지출: 식비, 주거비, 교육비, 양육비, 의료비, 현물 구입비, 용돈, 기타 잡비 등** 3) 가구 전체의 소비성 지출 / 월 평균 가구 총 소비성 지출 (DHu19ses017) 만원 4) 이 중 자녀(들)에 대한 소비성 지출 / 월 평균 자녀(들)을 위한 총 소비성 지출 (DHu19ses018) 만원 ▶ ○○(이)의 월 평균 교육비용: (DCh19cht035a) 만원 ▶ ○○(이)의 월 평균 돌봄/양육비용: (DCh19chg039 or 040) 만원
생성 **DHu19ses019a**	예년 대비 가구 지출 증가율[( )%]

번호	문항 내용
생성 DHu19ses018a	예년 대비 자녀를 위한 가구 지출 증가율[( )%]
생성 DHu19ses006v	가구 소득 대비 가구 총 지출
생성 DHu19ses191a	가구 총 지출 대비 자녀에 대한 지출
생성 DHu19ses191b	가구 총 지출 대비 ○○(이)의 교육비용
생성 DHu19ses191c	가구 총 지출 대비 ○○(이)의 학기 중 돌봄 비용
생성 DHu19ses191d	가구 총 지출 대비 ○○(이)의 방학 중 돌봄 비용
생성 DHu19ses182a	가구 총 자녀를 위한 지출 대비 ○○(이)의 교육비용
생성 DHu19ses182b	가구 총 자녀를 위한 지출 대비 ○○(이)의 학기 중 돌봄 비용
생성 DHu19ses182c	가구 총 자녀를 위한 지출 대비 ○○(이)의 방학 중 돌봄 비용
D10-4. DHu19ses033	귀하는 ○○(이)에게 용돈을 줍니까? ① 주지 않음 ⇨ Go D10-6 ② 필요할 때마다 줌 ③ 정기적으로 줌
D10-5. DHu19ses034	○○(이)가 일주일간 받는 용돈은 평균적으로 얼마입니까? ☑ 반올림 금액으로 입력해 주세요. 400원은 0원, 500원은 1,000원입니다. 일주일에 ( )**천원**
D10-5-1 DHu19ses035	○○(이)는 용돈을 주로 어디에 가장 많이 사용합니까? ① 학습 자료(학용품, 준비물 등) ② 저축 ③ 간식 및 군것질 하기 ④ 장난감이나 취미, 오락 활동 ⑤기타

번호	문항 내용
D10-6. **DHu19ses009**	귀 댁의 소유 부동산(주택, 건물, 임야, 토지 등)은 얼마입니까? 현 시가로 응답해 주십시오. 시가 (DHu19ses009)만원
D10-7. **DHu19ses012**	귀 댁의 금융자산(예금, 보험, 주식, 채권, 타지 않은 계, 빌려준 돈, 전월세 임대료 등)은 얼마입니까? 총 (DHu19ses012)만원
D10-8. **DHu19ses031**	귀 댁은 은행대출, 개인적으로 빌린 돈, 임대보증금 등의 부채가 있습니까? ① 부채 있음 ② 부채 없음 ⇨ Go D10-10
D10-9. **DHu19ses015,016**	귀 댁의 갚아야 할 부채(은행대출, 개인적으로 빌린 돈, 임대보증금 등)와 월 상환금(원금 또는 이자)은 얼마입니까? **구분** / **금액** 1) 부채 / 총 (DHu19ses015) 만원 2) 월 상환금 / 총 (DHu19ses016) 만원
D10-10. **DHu19sss001**	현재 귀 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①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② 차상위계층 ③ 해당없음
D10-11. **DHu19sss030a~d**	지난 1년간 귀댁에서는 다음과 같은 생활비 지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정부보조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의료급여, 한부모가족지원, 소년소녀가장보호비, 기타 보조금 (기초노령연금, 통신비 감면, 바우처, 희망키움통장 등) ① 정부(주민센터)로부터 받은 보조금(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제외) [DHu19sss030a] ② 친척·친지, 친구나 이웃에게서 받은 현금과 물품 [DHu19sss030b] ③ 복지관, 종교·사회단체로부터 받은 현금과 물품(학교장학금 포함) [DHu19sss030c] ④ 회사로부터 받은 현금과 물품(자녀학자금 보조 포함) [DHu19sss030d] ⑤ 없음
D10-12 구현 전 화면	다음은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에 관한 문항입니다. 다음의 사다리가 우리사회의 구조를 나타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사다리의 꼭대기에는 최상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가장 재산이 많고, 교육을 많이 받았으며, 사회에서 존경받는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사다리의 맨 밑에는 최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재산이 거의 없고, 교육도 적게 받거나 전혀 받지 못했으며, 누구도 원치 않거나, 존경하지 않는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번호	문항 내용
D10-12. DHu19ses035a	이 사다리가 **대한민국의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면, 귀하는 이 사다리의 어디쯤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다리 중 나의 위치 (　　)
D10-13. DHu19ses036	이 사다리가 귀하가 속해 있는 **의미 있는 지역사회나 공동체**(직장, 교회, 친인척 일가, 친구, 동호회 등)를 나타내고 있다면, 귀하는 이 사다리의 어디쯤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다리 중 나의 위치 (　　)
D10-14	다음의 정책 중 ○○(이)가 올해 이용한 내용이 있다면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DHu19edu001 ~007	☑ **가족체험학습** 학부모가 명예교사가 되어 가족동반으로 학교외의 장소에서 체험학습을 진행하는 것을 말하며, 체험학습 기간 중에는 학부모 책임하에 모든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함 ☑ **진로탐색교육/진로체험프로그램** 진로체험은 "학생이 직업 현장을 방문하여 견학 및 체험을 하거나, 직업인과 대화를 나누는 '직업체험'과 진로캠프, 진로특강과 같이 학교 내외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활동"을 의미함 예) 현장직업체험, 직업실무체험, 현장견학, 강연 및 대화, 학과체험, 진로캠프 ☑ **학교폭력예방정책 교육**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교육 및 피해학생 치료, 전문상담교사 배치, 유관기관 협력 등의 학교폭력에 관한 지원사항 및 예방교육을 말함 예) Wee 프로젝트(Wee 클래스, Wee 센터, Wee 스쿨) ☑ **학교급식 및 안전관리 교육** 학교단위에서 영양(교)사가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조리종사자,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임 예) 올바른 손씻기 교육 등 개인위생관리 교육, 배식방법 교육, 위생수칙 교육 등 ☑ **장애학생 지원제도** 특수 학교(급) 신설 및 증설 확대 제도 및 병원 학교 설치 및 원격 수업 지원 등 장애 학생을 위한 지원을 말함 ☑ **교육비 지원제도**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선정하여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임 ☑ **인성, 체육, 예술 교육** 인성교육 우수 학교 및 시범학교, 일부 일반 학교에서 이뤄지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의미함

번호	문항 내용
	종류 / 이용 여부 1) 가족 체험학습 / ① 이용함 ② 이용 안함 ③ 모름 2) 진로탐색교육/진로체험프로그램 / 上同 3) 학교폭력예방정책 교육 / 上同 4) 학교급식 및 안전관리 교육 / 上同 5) 장애학생 지원제도 / 上同 6) 교육비 지원제도 / 上同 7) 인성·체육·예술 교육 / 上同
D10-15	○○(이)가 지원 받은 내용에 대한 이용 만족도에 대하여 해당하는 보기를 선택해 주십시오. 정책 항목별 상세 설명은 조사원 자료를 참고해 주세요.
DHu19edu001a~007a	종류 / 이용 만족도 1) 가족 체험학습 / ① 매우 만족하지 않음 ② 대체로 만족하지 않음 ③ 보통임 ④ 대체로 만족함 ⑤ 매우 만족함 2) 진로탐색교육/진로체험프로그램 / 上同 2) 학교폭력예방정책 교육 / 上同 3) 학교급식 및 안전관리 교육 / 上同 4) 장애학생 지원제도 / 上同 5) 교육비 지원제도 / 上同 6) 인성·체육·예술 교육 / 上同
전환	**다음은 귀 가구의 가구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D11-1. DHu19dmg011	○○(이)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까? ① 엄마, 아빠와 함께 살고 있음 ② 엄마와 함께 살고 있음 ③ 아빠와 함께 살고 있음 ④ 엄마, 아빠와 함께 살고 있지 않음

번호	문항 내용
D11-2.	귀 댁의 **가구 구성원 수** 및 ○○**(이)의 출생순위**를 응답해 주세요.

번호	구분	▶ 총 가구원 수 (Hu18dmg19)명
DHu19dmg019 DCh19dmg002 DCh19dmg002a,b Hu19dmg19c~g,k	1) 자녀 수	(DCh19dmg002a) 남 (DCh19dmg002b) 녀 ⇒ 총 (DHu19dmg019k) 명
	2) ○○(이)의 출생순위	(DCh19dmg002)
	3) ○○(이)의 부모	(DHu19dmg019g) 명
	4) ○○(이)의 할아버지, 할머니	(DHu19dmg019c) 명
	5) ○○(이)의 친인척 ○○(이)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조카, 증조부모 포함	(DHu19dmg019d) 명
	6) 기타(DHu19dmg019f)	(DHu19dmg019e) 명

번호	문항 내용
생성 DHu19dmg020	가구 구성 형태
D11-3.	○○(이)의 형/오빠, 누나/언니에 대해 응답해 주세요.

번호	구분	1) 출생년도	2) 성별	3) 결혼 여부
DHu19dmg031a~d DHu19dmg033a~d DHu19dmg035a~d	첫째	(DHu19dmg031a)년도	① 남아 ② 여아	① 미혼 ② 기혼
	둘째	(DHu19dmg031b)년도	① 남아 ② 여아	① 미혼 ② 기혼
	셋째	(DHu19dmg031c)년도	① 남아 ② 여아	① 미혼 ② 기혼
	넷째	(DHu19dmg031d)년도	① 남아 ② 여아	① 미혼 ② 기혼

번호	문항 내용
D11-4.	○○(이)의 동생에 대해 응답해 주세요.

번호	구분	1) 출생년도	2) 성별	3) 입적 사유
DHu19dmg032a~d DHu19dmg034a~d DHu19dmg036a~d	동생 1	(DHu19dmg032a)년도	① 남아 ② 여아	① 출산 ② 입양 ③ 재혼
	동생 2	(DHu19dmg032b)년도	① 남아 ② 여아	① 출산 ② 입양 ③ 재혼
	동생 3	(DHu19dmg032c)년도	① 남아 ② 여아	① 출산 ② 입양 ③ 재혼
	동생 4	(DHu19dmg032d)년도	① 남아 ② 여아	① 출산 ② 입양 ③ 재혼

번호	문항 내용
D11-5 DHu19pet001~004	귀 댁에서는 애완동물을 키웁니까? 해당되는 보기에 모두 응답해 주세요. ① 키우지 않음 ② 개 ③ 고양이 ④ 기타(DHu19pet004a)
D11-6. DCh19hom060	○○(이)는 개인 방이 있습니까? 개인 방: 혼자만 사용하는 공부방, 침실 등으로 형제자매와 함께 쓰는 방은 해당하지 않음 ① 예, 개인 방이 있음 ② 아니오, 개인 방이 없음
전환	**다음은 귀하께서 살고계신 동네에 대한 질문입니다.**
D12-1. DHu19cmm025~032	**귀하가 살고 계시는 동네**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동을 양육하는데 있어** 다음의 각 문항에 **얼마나 동의하시는지** 해당하는 곳에 응답해 주십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음	대체로 그렇지 않음	보통임	대체로 그러함	매우 그러함	잘 모름
1) 술 취한 사람이나 싸우는 사람을 쉽게 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2) 아동성폭행, 강도, 절도 등의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3) 유해시설(유흥가, 윤락가 등)로부터 떨어져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4) 경찰이나 방범대원들이 정기적으로 순찰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5) 이웃 간에 서로 도와주고 협조하는 분위기다.	①	②	③	④	⑤	⑥
6) 아이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면 동네 사람들은 바로 잡아준다.	①	②	③	④	⑤	⑥
7) 각종 시설물 설치나 재해 방지 시설이 잘 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8) 각종 사고(교통사고, 화재, 추락 등)에 대비한 안전 설비가 잘 구비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생성 DHu19cmm000	양육 환경 적절성
D12-2. DHu19cmm009a DHu19cmm009b	다음은 귀하가 현재 살고 계시는 곳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음의 각 시설에 관해 응답해 주십시오. 13) 공공복지시설: 국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곳을 의미함. 청소년문화의집과 같은 수련시설도 포함됨.

번호	문항 내용											
	종류	거리상 접근 편리성					이용 만족도					
		매우 불편함	불편한 편임	보통임	편리한 편임	매우 편리함	이용 안함	매우 만족하지 않음	대체로 만족하지 않음	보통임	대체로 만족함	매우 만족함
DHu19cmm009c DHu19cmm010d DHu19cmm010g DHu19cmm010c DHu19cmm009d DHu19cmm010f DHu19cmm009e DHu19cmm009f DHu19cmm021a DHu19cmm021b DHu19cmm021c	1) 놀이터	①	②	③	④	⑤	⓪	①	②	③	④	⑤
	2) 공원	①	②	③	④	⑤	⓪	①	②	③	④	⑤
	3) 산책로	①	②	③	④	⑤	⓪	①	②	③	④	⑤
	4) 영화관	①	②	③	④	⑤	⓪	①	②	③	④	⑤
	5) 관람 및 체험시설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천체관, 수족관, 동식물원 등)	①	②	③	④	⑤	⓪	①	②	③	④	⑤
	6) 공연시설 (문예회관, 음악회, 연극 등)	①	②	③	④	⑤	⓪	①	②	③	④	⑤
	7) 놀이공원(어린이대공원 등)	①	②	③	④	⑤	⓪	①	②	③	④	⑤
DHu19cmm022a~c DHu19cmm023d,g,c DHu19cmm022d DHu19cmm023f DHu19cmm022e, f DHu19cmm024a~c	8) 도서관(어린이도서관 포함)	①	②	③	④	⑤	⓪	①	②	③	④	⑤
	9) 실내 체육시설 및 놀이시설 (체육관, 수영장 등)	①	②	③	④	⑤	⓪	①	②	③	④	⑤
	10) 실외 체육시설 (농구장, 축구장 등)	①	②	③	④	⑤	⓪	①	②	③	④	⑤
	11) 의료기관(보건소, 병원 등)	①	②	③	④	⑤	⓪	①	②	③	④	⑤
	12) 교육기관(학원, 대학교 등)	①	②	③	④	⑤	⓪	①	②	③	④	⑤
	13) 공공복지시설 (건강가정지원센터, 복지관 등)	①	②	③	④	⑤	⓪	①	②	③	④	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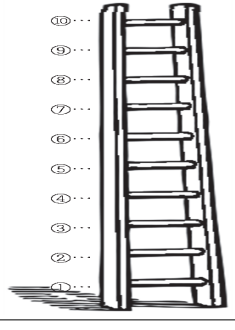
※ 본 조사의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33조 및 제3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PSKC 2019 면접조사(아동용)(12차) 질문지

※ 본 조사의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33조 및 제3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번호	문항 내용
전환	**다음은 ○○(이)의 신체발달에 대한 질문입니다.** ※ 아동의 신체 측정 시 보호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J01-1	○○(이)의 현재 몸무게는 몇 kg 입니까?
JCh19hlt012	☑ 2018년 측정 몸무게: (**JCh18hlt012** kg) ① 몸무게 미계측 ② 계측 몸무게(**JCh19hlt012** kg)
J01-2	○○(이)의 현재 키는 몇 cm 입니까?
JCh19hlt013	☑ 벽면에 아동의 발, 엉덩이, 머리를 밀착시키고, 허리를 편 상태에서 측정해 주세요. ☑ 어머니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17년 측정 키: (**JCh18hlt013** cm) ① 키 미계측 ② 계측 키(**JCh19hlt013** cm)
J01-3	○○(이)의 현재 허리둘레는 몇 cm 입니까?
JCh19hlt025	☑ 줄자가 배꼽을 지나 수평으로 재주세요. ☑ 어머니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17년 측정 허리둘레: (**JCh18hlt025** cm) ① 허리둘레 미계측 ② 계측 허리둘레(cm)

번호	문항 내용
전환	**지금부터 선생님이 ○○(이)의 하루에 대해 물어볼 거야.**
J02-1 Ch18dsc## 추후 재코딩 후 지정	〈아동 생활시간 조사〉 • 별도의 용지에 아동의 학교 가는 날의 하루 일과 그리기 - 데이터 화 이전에 스캔본으로 저장 - 조사 시점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 가는 날의 일과(방학식, 운동회 등 특이한 경우 제외) • 조사원 주의 사항 - 아동이 자유롭게 하루 일과를 회상하며 생활시간을 그리도록 안내 - 하루 24시간 중 비는 시간이 없도록 안내 - 이동시간이 별도 표시가 어려운 경우 뒤에 넣도록 안내 - 부모, 형제의 도움 가능
전환	**지금부터는 ○○(이)와 어머니가 분리된 장소에서 각각 조사에 참여해 주세요.**
J02-2 JCh19dsc031	가족과 함께 대화하는 시간은 충분하니? ① 부족함 ② 적절함 ③ 많음
J02-3 JCh19dsc032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은 충분하니? ① 부족함 ② 적절함 ③ 많음
J02-4 JCh19dsc033	가족과 함께 여가활동(취미, 운동 등)하는 시간은 충분하니? ① 부족함 ② 적절함 ③ 많음
J02-5 JCh19dsc034	친구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충분하니? ① 부족함 ② 적절함 ③ 많음
J02-6 JCh19dsc035	휴식을 취하는 시간은 충분하니? ① 부족함 ② 적절함 ③ 많음

번호	문항 내용
J02-7 JCh19dsc036	여가활동 시간(취미, 운동 등)은 충분하니? ① 부족함 ② 적절함 ③ 많음
J02-8 JCh19dsc037	숙제하는 시간은 충분하니? ① 부족함 ② 적절함 ③ 많음
J02-9 JCh19dsc038	집에서 가족을 도와주는 시간은 충분하니? [?] 가족을 도와주는 시간은 음식 준비, 의류 관리, 청소 및 정리 등의 가사일 돕기를 의미함 ① 부족함 ② 적절함 ③ 많음
J02-10 JCh19ses037	○○(이)의 가족들은 돈 문제로 얼마나 자주 걱정을 하니? ① 전혀 걱정하지 않음 ② 가끔 걱정함 ③ 자주 걱정함 ④ 항상 걱정함
J02-11 JCh19ses038	○○(이)의 가정형편(경제수준)은 다음 사다리 중에서 어디쯤이라고 생각하니? (1: 매우 못산다, 10: 매우 잘산다) 
J02-12 JCh19sav001	○○(이)는 평소에 저축을 하니? ① 예 ⇨ J02-13 ② 아니오 ⇨J02-15
J02-13 JCh19sav002~003	○○(이)는 저축을 주로 어떤 돈으로 하니? ①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받는 용돈으로 ② 명절 등에 친척, 손님이 비정기적으로 주신 돈으로 ③ 집안 일을 돕거나 부모님 심부름·아르바이트 등을 해서 번 돈으로 ④ 기타(JCh19sav003)

번호	문항 내용
J02-14 JCh19sav004~005	○○(이)는 저축을 주로 어떤 방법으로 하니? ① 저금통에 모은다 ② 내가 직접 은행에 저금한다(은행의 예금, 적금 상품가입) ③ 지갑에 모아둔다 ④ 부모님께 맡겨 모은다. ⑤ 기타(JCh19sav005)
J02-15 JCh19eat001	○○(이)는 최근 1주일 동안 탄산음료(예시: 콜라, 사이다 등 탄산음료)를 얼마나 자주 먹었니? ① 최근 7일 동안 마시지 않음 ② 주 1-2번 ③ 주 2-3번 ④ 주 5회 이상
J02-16 JCh19eat002	○○(이)는 최근 1주일 동안 인스턴트(라면, 피자, 치킨, 편의점 음식 등)를 얼마나 자주 먹었니? ① 최근 7일 동안 마시지 않음 ② 주 1-2번 ③ 주 2-3번 ④ 주 5회 이상
전환	**지금부터 ○○(이)가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 볼거야.**
J02-19 JCh19pss001	○○(이)의 부모님은 ○○(이)가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니?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항상 그렇다
J02-20 JCh19pss002	○○(이)의 부모님은 ○○(이)가 친구들 때문에 공부하는 시간이 적어질까봐 걱정하시니?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항상 그렇다
J02-21 JCh19pss003	○○(이)의 부모님은 ○○(이)가 학교 성적이 조금 떨어져도 꾸중을 하시니?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항상 그렇다
J02-22 JCh19pss004	○○(이)의 부모님은 ○○(이)에게 남보다 더 좋은 성적을 얻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니?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항상 그렇다
J02-23 JCh19pss005	○○(이)의 부모님은 ○○(이)에게 공부가 제일 중요하다 하시니?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항상 그렇다
J02-24 JCh19pss006	○○(이)의 부모님은 ○○(이)의 공부에 대하여 잔소리가 많은 편이시니?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항상 그렇다
J02-25 JCh19pss007	○○(이)의 부모님은 ○○(이)가 공부 말고 다른 것을 하는 것은 아닌지 신경을 쓰시니?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항상 그렇다
J02-26 JCh19pss008	○○(이)의 부모님은 ○○(이)의 공부에 대하여 걱정을 많이 하시니?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항상 그렇다
J02-27 JCh19pss009	○○(이)의 부모님은 “○○(이)는 꼭 성공해야 한다”는 말씀을 종종 하시니?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항상 그렇다

번호	문항 내용
J02-28 JCh19pss010	○○(이)의 부모님은 ○○(이)가 공부해야 할 시간에 잠을 자면 깨우시니?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항상 그렇다
J02-29 JCh19pss011	○○(이)의 부모님은 ○○(이)가 컴퓨터(또는 핸드폰)에 빠져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 것을 싫어하시니?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항상 그렇다
J02-30 JCh19pss012	○○(이)의 부모님은 ○○(이)가 친구들과 노는 시간을 정해두고 더 이상 놀지 못하도록 하시는 편이니?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항상 그렇다
J02-31 JCh19pss01	○○(이)의 부모님은 ○○(이)가 공부하지 않고 친구들과 외출하는 것을 싫어하시니?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항상 그렇다
J02-32 JCh19pss014	○○(이)의 부모님은 시험 때가 되면 평소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하라고 하시니?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항상 그렇다
J02-33 JCh19pss015	○○(이)의 부모님이 ○○(이)에 대해 가장 큰 관심을 갖는 부분은 학교 성적이니?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항상 그렇다
전환	**지금부터 OO이가 부모님과 관계에서 느끼는 점에 대해서 물어볼거야. 좋고 나쁜 답이 없으니 솔직하게 대답해 줘. 먼저 아버지에 대해서 물어볼거야.**

J02-34

JCh19ach001~012

문항	전혀 아니다	거의 아니다	때때로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아버지는 나의 감정을 존중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아버지께 나의 문제나 어려움을 이야기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아버지는 나의 어려움에 대하여 이야기 하도록 격려해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4) 어떤 일을 의논할 때, 아버지는 나의 의견을 고려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내가 어떤 것에 화를 낼 때 아버지는 이해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6) 아버지는 나의 어려움을 알면 그것에 대해 물어 보신다.	①	②	③	④	⑤
7) 아버지는 내가 화나 난 것을 모를 때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8) 아버지는 자신의 문제가 있으므로 나는 나의 문제로 아버지를 힘들게 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9) 아버지는 요즘 나의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아버지는 있는 그대로 나를 인정한다.	①	②	③	④	⑤

번호	문항 내용					
	문항	전혀 아니다	거의 아니다	때때로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11) 나는 아버지에게 화가 난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솔직히 이야기해야 할 때 아버지를 믿고 이야기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전환	**이제는 어머니에 대해서 물어볼거야**					
J02-35	문항	전혀 아니다	거의 아니다	때때로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JCh19ach013~024	1) 어머니는 나의 감정을 존중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어머니께 나의 문제나 어려움을 이야기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어머니는 나의 어려움에 대하여 이야기 하도록 격려해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4) 어떤 일을 의논할 때, 어머니는 나의 의견을 고려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내가 어떤 것에 화를 낼 때 어머니는 이해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6) 어머니는 나의 어려움을 알면 그것에 대해 물어 보신다.	①	②	③	④	⑤
	7) 어머니는 내가 화가 난 것을 모를 때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8) 어머니는 자신의 문제가 있으므로 나는 나의 문제로 어머니를 힘들게 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9) 어머니는 요즘 나의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어머니는 있는 그대로 나를 인정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어머니에게 화가 난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솔직히 이야기해야 할 때 어머니를 믿고 이야기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전환	**부모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물어볼거야. 정답은 없으니 솔직하게 대답해줘**					
J02-51 **JCh19par001**	내 몸에 멍이 들거나 상처가 남을 정도로 부모님(보호자)께서 나를 심하게 대하신 적이 있다 ① 전혀 없음 ② 지난 6개월간 한두번 ③ 한달에 한두번 ④ 일주일에 한두번 ⑤ 거의 매일					
J02-52 **JCh19par002**	나에게 심한 말이나 욕을 하신 적이 있다 ① 전혀 없음 ② 지난 6개월간 한두번 ③ 한달에 한두번 ④ 일주일에 한두번 ⑤ 거의 매일					

번호	문항 내용
전환	**지금부터 선생님이 몇 개의 그림을 보여주면서 물어볼 거야. 가장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걸 말해주면 돼.**
J03-1 JCh19shs006	○○(이)는 학교 공부를 생각하면 어떠니? ①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 ②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 ③ 행복한 편이예요 ④ 매우 행복해요
J03-2 JCh19shs007	○○(이)의 외모에 대해 생각하면 어떠니? ①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 ②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 ③ 행복한 편이예요 ④ 매우 행복해요
J03-3 JCh19shs008	○○(이)는 가족에 대해 생각하면 어떠니? ①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 ②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 ③ 행복한 편이예요 ④ 매우 행복해요
J03-4 JCh19shs009	○○(이)는 친구에 대해 생각하면 어떠니? ①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 ②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 ③ 행복한 편이예요 ④ 매우 행복해요
J03-5 JCh19shs010	○○(이)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 대해 생각하면 어떠니? ①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 ②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 ③ 행복한 편이예요 ④ 매우 행복해요
J03-6 JCh19shs011	○○(이)는 하루하루를 생각하면 어떠니? ①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 ②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 ③ 행복한 편이예요 ④ 매우 행복해요
생성 JCh19shs000	“아동” 전반적 행복감
J03-7 JCh19sel001~014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 친구에게 너그럽다	①	②	③	④
2) 나는 갑자기 놀라는 일을 당해도 금방 괜찮아지고 것을 잘 이겨 낸다	①	②	③	④
3) 나는 평소에 잘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일을 해 보는 것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4) 나는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5) 나는 새로운 음식을 먹어 보는 것을 즐긴다	①	②	③	④
6) 나는 매우 에너지(힘)가 넘치는 사람이다	①	②	③	④
7) 나는 같은 장소에 갈 때도 늘 가던 길 보다는 다른 길로 가 보는 것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8)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호기심이 많다	①	②	③	④
9) 나는 보통 행동하기 전에 생각을 많이 한다	①	②	③	④

번호	문항 내용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0) 나는 새롭고 다양한 종류의 일하는 것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11) 내 생활은 매일 흥미로운 일들로 가득하다	①	②	③	④
	12) 나는 내가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13) 나는 다른 사람에게 화가 나도 금방 괜찮아진다	①	②	③	④
	14) 나는 내가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다	①	②	③	④
J03-8 JCh19sel015~022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뚜렷한 삶의 목표를 정해놓고 있다	①	②	③	④
	2) 나는 한 가지 일에 꾸준히 몰두하지 못한다(R)	①	②	③	④
	3) 나는 계획한 대로 일을 끝까지 실행한다	①	②	③	④
	4) 대다수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저 따라가는 것이 최선이다(R)	①	②	③	④
	5) 남들의 좋은 생각을 기다리기보다는 스스로 생각해서 행동 한다	①	②	③	④
	6) 남의 말을 잘 받아들이고 타인의 말과 행동에 영향받기 쉽다(R)	①	②	③	④
	7) 나는 낯선 사람을 만나는 것을 꺼려한다(R)	①	②	③	④
	8) 나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마음이 불편하다(R)	①	②	③	④
생성 JCh19sel023	“아동” 자아인식: 자아탄력성				
생성 JCh19sel024	“아동” 자아인식: 자아정체감				
J03-12 JCh19sfs042	○○(이)의 생활은 즐겁니?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J03-13 JCh19sfs043	○○(이)는 걱정거리가 별로 없니?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번호	문항 내용
J03-14 JCh19sfs044	○○(이)는 ○○(이)의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니?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생성 JCh19sfs000	"아동" 삶의 만족도
J03-15 JCh19aut001	나는 내 생활속에서 압박감에 시달린다. ① 그렇지 않다 ② 보통이다 ③ 그렇다
J03-16 JCh19aut002	나는 내 생활방식을 스스로 결정할 자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① 그렇지 않다 ② 보통이다 ③ 그렇다
J03-17 JCh19aut003	나는 내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① 그렇지 않다 ② 보통이다 ③ 그렇다
J03-18 JCh19aut004	나는 일상생황에서 나답게 살 수 있다고 느낀다. ① 그렇지 않다 ② 보통이다 ③ 그렇다
J03-19 JCh19aut005	나는 내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에 대하여 충분히 선택할 수 있다. ① 그렇지 않다 ② 보통이다 ③ 그렇다
생성 JCh19aut000	"아동" 자율성
J03-20 JCh19fut000	너의 미래의 모습을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드니? 매우 어둡다 ① / 어두운편 ② / 보통 ③ / 밝은편 ④ / 매우 밝다 ⑤
생성 JCh19fut001	미래에 대한 인식
J03-21 JCh19bod001	나는 내 외모에 만족한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편이다, ④ 매우그렇다
J03-22 JCh19bod002	나는 내 체중이 불만족스럽다. (R)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편이다, ④ 매우그렇다

번호	문항 내용
J03-23 **JCh19bod003**	나는 거울에 비치는 내 모습이 좋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편이다, ④ 매우그렇다
J03-24 **JCh19bod004**	할 수 있다면 나의 외모에 대해 바꾸고 싶은 부분이 많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편이다, ④ 매우그렇다
J03-25 **JCh19bod005**	나는 내 키에 만족한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편이다, ④ 매우그렇다
생성 **JCh19bod000**	"아동" 신체적 자아상
전환	**지금부터는 공부에 대해서 물어볼거야.**
J03-15 **JCh19str001**	○○(이)는 학교성적이 좋지 않아서 스트레스를 받니? ① 그런적 없다 ② 거의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자주 그렇다 ⑤ 항상 그렇다
J03-16 **JCh19str002**	○○(이)는 숙제나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니? ① 그런 적 없다 ② 거의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자주 그렇다 ⑤ 항상 그렇다
J03-17 **JCh19str003**	○○(이)는 공부가 지겨워서 스트레스를 받니? ① 그런 적 없다 ② 거의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자주 그렇다 ⑤ 항상 그렇다
전환	**지금부터는 OO이가 다니고 있는 학원이나, 과외에 대해서 물어볼거야**
J03-30 **JCh19pri001**	현재 학원을 다니거나, 과외를 받고 있니? ① 예 ② 아니오
J03-31 **JCh19pri002**	몇 개의 학원/과외를 다니고 있니?
J03-32 **JCh19pri003**	현재 다니고 있는 학원/과외의 개수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니? ① 적은 편 ② 적당한 편 ③ 많은편
J03-33 **JCh19pri004**	현재 다니고 있는 학원/과외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니? ①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 ② 부담스럽지 않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부담스러운 편이다 ⑤ 매우 부담스럽다.

번호	문항 내용
전환	**지금부터는 선생님이 ○○(이)의 친구들에 대해 물어볼 거야.**
J04-1 JCh19psa040~041	○○(이)가 친하게 지내는 친구는 몇 명이니? 남자친구 (JCh19psa040)명, 여자친구 (JCh19psa041)명
J04-14 JCh19psa055	○○(이)는 서로 좋아하며 사귀는 이성친구(나와 성별이 다른 친구)가 있니? ① 있다 ② 없다
전환	**지금부터는 선생님이 ○○(이)의 올해 학교생활에 대해 물어볼 거야.**
J05-1 JCh19cla001 JCh19cla002	지금부터 OO(이)가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목 중에, OO이가 좋아하는 과목을 순서대로 두가지 선택해 줄래? 1순위:(JCh19cla001) 2순위: (JCh19cla002) ① 국어 ② 과학 ③ 수학 ④ 사회 ⑤ 도덕 ⑥ 음악 ⑦ 미술 ⑧ 실과 ⑨ 체육 ⑩ 영어

J05-2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학교 수업 시간이 재미있다	①	②	③	④
2) 학교 숙제를 빠뜨리지 않고 한다	①	②	③	④
3)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4) 모르는 것이 있을 때 다른 사람(부모님이나 선생님 또는 친구들)에게 물어본다	①	②	③	④
5) 공부 시간에 딴 짓을 한다(R)	①	②	③	④
6) 학급당번 등 반에서 맡은 활동을 열심히 한다	①	②	③	④
7) 복도와 계단을 다닐 때 뛰지 않고 조용히 다닌다	①	②	③	④
8) 학교 물건을 내 것처럼 소중히 사용한다	①	②	③	④
9) 화장실이나 급식실에서 차례를 잘 지킨다	①	②	③	④
10) 휴지나 쓰레기를 버릴 때 꼭 휴지통에 버린다	①	②	③	④
11) 우리 반 아이들과 잘 어울린다	①	②	③	④
12) 친구와 다투었을 때 먼저 사과한다	①	②	③	④
13) 친구가 교과서나 준비물을 안 가져왔을 때 함께 보거나 빌려 준다	①	②	③	④
14) 친구가 하는 일을 방해한다(R)	①	②	③	④
15) 놀이나 모둠활동을 할 때 친구들이 내 말을 잘 따라 준다	①	②	③	④

JCh19adj001~021

번호	문항 내용
	문항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그런 편이다 / 매우 그렇다 16) 선생님을 만나면 반갑게 인사한다 / ① / ② / ③ / ④ 17) 선생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편하다 / ① / ② / ③ / ④ 18) 학교 밖에서 선생님을 만나면 반갑다 / ① / ② / ③ / ④ 19) 우리 선생님께서는 나에게 친절하시다 / ① / ② / ③ / ④ 20) 내년에도 지금 선생님께서 담임선생님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 ① / ② / ③ / ④ 21) 졸업한 다음에도 담임 선생님을 찾아뵙고 싶다 / ① / ② / ③ / ④
J05-10 **JCh19scl016**	선생님은 ○○(이)가 무엇을 만들면 관심을 가지시니?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J05-11 **JCh19scl017**	선생님은 ○○(이)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여러 방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J05-12 **JCh19scl018**	선생님은 ○○(이) 말을 들어주기 보다는 지시하는 경우가 많으시니?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J05-13 **JCh19scl019**	○○(이) 친구(들)는 ○○(이)가 힘들 때 따뜻하게 위로해 주니?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J05-14 **JCh19scl020**	선생님은 ○○(이)가 새로운 것에 도전하려고 하면 말리시니?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J05-15 **JCh19scl021**	○○(이) 친구들은 ○○(이)가 자신감을 갖도록 도와주니?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J05-16 **JCh19scl022**	○○(이) 반에는 지켜야할 규칙이 많이 있니?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J05-17 **JCh19scl023**	선생님은 야단을 많이 치시니?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J05-18 **JCh19scl024**	선생님은 ○○(이)를 믿어주시니?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번호	문항 내용
J05-19 **JCh19scl025**	○○(이) 친구들은 ○○(이)의 의견을 존중해 주니?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전환	**지금부터는 선생님이 ○○(이)의 학교에서 경험에 대해 물어볼거야**
J05-20 **JCh19vio001**	다른 학생(친구)에게 **뺨**, 얼굴, 머리 등을 주먹이나 발로 맞은 적이 있니? ① 일주일에 여러번 ② 1주에 1-2번 ③ 한 달에 2-3번 ④ 한 달에 1번 ⑤ 1년에 1-2번 ⑥ 없다
J05-21 **JCh19vio002**	다른 학생(친구)에게 왕따나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니? ① 일주일에 여러번 ② 1주에 1-2번 ③ 한 달에 2-3번 ④ 한 달에 1번 ⑤ 1년에 1-2번 ⑥ 없다
J05-22 **JCh19vio003**	다른 학생(친구)에게 험담, 심한(상스러운) 욕설 등 폭언을 들은 적이 있니? ① 일주일에 여러번 ② 1주에 1-2번 ③ 한 달에 2-3번 ④ 1달에 1번 ⑤ 1년에 1-2번 ⑥ 없다
J05-23 **JCh19vio004**	다른 학생(친구)이 **OO(이)를** 고의적으로 툭툭 치고, 심부름을 시키고, 숙제를 해 오라는 등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니? ① 일주일에 여러번 ② 1주에 1-2번 ③ 한 달에 2-3번 ④ 1달에 1번 ⑤ 1년에 1-2번 ⑥ 없다
J05-24 **JCh19vio005**	다른 학생(친구)에게 돈이나 물건(학용품, 가방, 시계 등)을 빼앗긴 적이 있니? ① 일주일에 여러번 ② 1주에 1-2번 ③ 한 달에 2-3번 ④ 1달에 1번 ⑤ 1년에 1-2번 ⑥ 없다
J05-25 **JCh19vio006**	다른 학생(친구)에게 "시키는대로 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죽이겠다." 등의 협박이나 위협을 당한 적이 있니? ① 일주일에 여러번 ② 1주에 1-2번 ③ 한 달에 2-3번 ④ 1달에 1번 ⑤ 1년에 1-2번 ⑥ 없다
J05-26 **JCh19vio007**	다른 학생(친구)에게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끼는 말이나 행동을 당한 적이 있니? ① 일주일에 여러번 ② 1주에 1-2번 ③ 한 달에 2-3번 ④ 1달에 1번 ⑤ 1년에 1-2번 ⑥ 없다
전환	**최근 1년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하면서 아래와 같은 피해를 당한 적이 있나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전혀 없음'을 선택하고, 있었다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선택해 주세요.**
J05-27 **JCh19ivo001**	누군가 인터넷을 통해 나를 욕하거나 감정을 상하게 한 적이 있다. ① 전혀없음 ② 지난 6개월간 한두번 ③ 한 달에 한두번 ④ 일주일에 한두번 ⑤ 거의 매일
J05-28 **JCh19ivo002**	인터넷 대화방이나 스마트폰 카카오톡 등에서 나를 퇴장하지 못하게 막고 놀리거나 욕하거나, 대화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 적이 있다. ① 전혀없음 ② 지난 6개월간 한두번 ③ 한 달에 한두번 ④ 일주일에 한두번 ⑤ 거의 매일

번호	문항 내용
전환	**지금부터는 선생님이 ○○(이)에 대해 물어볼 거야.**
J06-1 JCh19dsc039	○○(이)는 다음과 같은 언어를 얼마나 자주 사용하니? 예 존나, 새끼, 개XX 등의 비속어 ①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② 가끔 사용한다 ③ 자주 사용한다 ④ 매일 사용한다
J06-2 JCh19cre009 JCh19cre010	○○(이)는 어떤 직업을 가장 원하니? 가장 원하는 직업과 그 다음으로 원하는 직업을 이야기해 줄래? 원하는 직업 1순위 (JCh19cre009), 원하는 직업 2순위 (JCh19cre010)
J06-3 JCh19cre007	○○(이)는 어른이 되면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① 돈을 잘 버는 사람 ② 유명한 사람 ③ 우리사회에서 높은 지위를 갖는 사람 ④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 ⑤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사람 ⑥ 일보다 취미/여가를 즐기는 사람
J06-4 JCh19cre011	○○(이)는 미래에 결혼할 생각이니? ① 예 ② 아니오 ③ 잘 모르겠음
J06-5 JCh19cre012	○○(이)는 자녀(아이)를 가질 생각이니? ① 예 ② 아니오 ③ 잘 모르겠음

PSKC 2019(12차) 학교용 질문지[Web]

※ 본 조사의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33조 및 제3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번호	문항 내용
전환	**다음은 학교에 관한 질문입니다.**
L01-1. **LIn19iev001** **LIn19iev007,008** **LIn19iev053**	현재 근무하고 계신 학교의 규모는 어떠합니까? 1) 학급 수: 담당 학년 총 (LIn19iev001)학급 2) 담당 학급 학생 수: 남아 (LIn19iev007)명, 여아 (LIn19iev008)명 총 (LIn19iev053)명
L01-2. **LIn19scm001,002**	현재 근무하고 계신 학교의 설립유형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① 국립학교 ② 공립학교 ③ 사립학교 ④ 국제(외국인)학교 ⑤ 대안학교 ⑥ 기타(LIn19scm002)
L01-2-1. **LIn19scm004,005**	현재 근무하고 계신 학교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① 연구학교 ⇨ GO L01-2-2. ② 시범학교 ⇨ GO L01-2-2. ③ 혁신학교 ⇨ GOL 01-2-2. ④ 기타(LIn19scm005) ⇨ GO L01-3. ⑤ 해당 없음 ⇨ GO L01-3.
L01-2-2. **LIn19scm006**	(L01-2-1의 ①,②,③ 해당되는 경우) 현재 근무하고 계신 연구학교의 추진(연구)과제명은 무엇입니까? 예) 서울형 작은학교 모델학교
L01-3. **LIn19iev049~052**	선생님께서 근무하시는 학교의 환경에 대해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에 체크해주십시오.

문 항 내 용	매우 나쁘다	나쁜 편이다	보통이다	좋은 편이다	매우 좋다
1) (학교) 전반적인 건물상태	①	②	③	④	⑤
2) 기자재 및 시설	①	②	③	④	⑤
3) 학교 주변환경	①	②	③	④	⑤
4) 학생들의 통학 조건(교통 편의성)	①	②	③	④	⑤

번호	문항 내용
전환	**다음은 선생님께서 담당하고 계신 ○○(이)에 대한 질문입니다.**
L02-2.	다음 문항을 읽고 ○○(이)의 **평소 모습에 기초**하여 해당되는 보기를 선택해주십시오.

번호	급우들에 비해...	하위 20% 이내	하위 21%~ 40%	중간 50% 내외	상위 21%~ 40%	상위 20% 이내
LCh19acs030	1) ○○(이)의 글을 읽고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능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②	③	④	⑤
LCh19acs031	2) ○○(이)의 말하기 능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②	③	④	⑤
LCh19acs032	3) ○○(이)의 문단을 이해하고 글 쓰는 능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②	③	④	⑤
LCh19acs044	4) ○○(이)의 일상생활의 간단한 대화를 영어로 듣고 말하며, 알파벳을 인식하는 능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②	③	④	⑤
LCh19acs034	5) ○○(이)의 네 자리 이하 수를 이해하고 읽고 쓰는 능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②	③	④	⑤
LCh19acs035	6) ○○(이)의 세 자리 수의 범위에서 덧셈과 뺄셈 능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②	③	④	⑤
LCh19acs045	7) ○○(이)의 곱셈과 나눗셈 능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②	③	④	⑤
LCh19acs046	8) ○○(이)의 분수와 소수를 이해하는 능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②	③	④	⑤
LCh19acs037	9) ○○(이)의 시간과 길이, 들이와 무게의 단위를 이해하고 측정하는 능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②	③	④	⑤
LCh19acs049	10) ○○(이)의 과학 현상을 이해하고 탐구하는 능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②	③	④	⑤
LCh19acs050	11) ○○(이)의 사회 현상을 이해하고 탐구하는 능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②	③	④	⑤
LCh19acs041	12) ○○(이)의 신체활동 및 운동 능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②	③	④	⑤
LCh19acs042	13) ○○(이)의 미술적 표현 능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②	③	④	⑤
LCh19acs043	14) ○○(이)의 음악적 표현 능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②	③	④	⑤
LCh19acs039	15) ○○(이)의 학업 수행을 전반적으로 평가한다면 어느 정도입니까?	①	②	③	④	⑤

번호	문항 내용
전환	**다음은 선생님과 ○○(이)에 대한 질문입니다.**
L03-1.	선생님과 ○○(이)의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와의 관계**를 가장 잘 기술하는 번호에 체크해 주세요.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이)와 다정하고 따뜻한 관계를 맺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이)와 나는 항상 의견이 부딪히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3) ○○(이)는 속상한 일이 있으면 나에게 위안을 받으려 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4) ○○(이)는 내가 하는 가벼운 스킨십(머리 쓰다듬기 등)에 대해 불편해 한다.	①	②	③	④	⑤
5) ○○(이)는 나와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내가 칭찬을 하면, ○○(이)는 뿌듯해한다.	①	②	③	④	⑤
7) ○○(이)는 자발적으로 나에게 자신에 대해 이야기한다.	①	②	③	④	⑤
8) ○○(이)는 나에게 쉽게 화를 낸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이)가 느끼는 감정에 쉽게 공감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이)는 훈육을 받으면 계속 화를 내거나 반항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이)를 상대하면 나는 진이 빠진다.	①	②	③	④	⑤
12) ○○(이)의 기분이 좋지 않을 때, 나는 고단한 하루를 보낸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에 대한 ○○(이)의 감정은 예측할 수 없거나 한순간에 변할 수도 있다.	①	②	③	④	⑤
14) ○○(이)는 나를 영악하게 조종하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이)는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나와 솔직하게 나눈다.	①	②	③	④	⑤

LCh19tcn011~025

전환	**다음은 ○○(이) 부모님의 학교 참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L04-1. **Lln19ppe034**	○○(이)의 어머니 또는 아버지(또는 주양육자)는 학교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입니까? ①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 ② 참여하지 않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참여한다 ⑤ 항상 참여한다
L04-2. **Lln19ppe032**	○○(이)의 어머니 또는 아버지(또는 주양육자)는 자녀의 학교생활과 교육에 관심을 보입니까? ①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② 관심을 보이지 않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관심을 보인다 ⑤ 매우 관심이 많다

번호	문항 내용
전환	**다음은 선생님에 대한 질문입니다.**
L06-1. **LIn19dmg001**	선생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여 ② 남
L06-2 **LIn19dmg006**	선생님의 연령은 몇 세인가요? **만 나이**로 응답해 주세요. 만 ( )세
L06-3. **LIn19dmg004**	선생님은 올해 육아휴직, 군경력을 제외한 교사경력 몇년 차이십니까? 총 ( )년차 / 육아휴직, 군경력 제외, 교육경력만
L06-4. **LIn19jce025a** **LIn19jce025b**	선생님께서 학교에서 실제 근무하는 시간을 응답해주세요. 주중 1일 평균 (LIn19jce025a)시간 (LIn19jce025b)분 근무
L06-5. **LIn19dmg014**	선생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초대졸(2, 3년제졸) ② 대졸(4년제 이상) ③ 석사과정 ④ 석사 ⑤ 박사과정 ⑥ 박사
L05-1. **LIn19prs016~019**	선생님께서는 아래의 각 영역(업무)에 대하여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으십니까?

문 항 내 용	전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별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보통이다	약간 스트레스를 받는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1) 학부모와의 관계	①	②	③	④	⑤
2) 생활지도	①	②	③	④	⑤
3) 수업지도	①	②	③	④	⑤
4) 행정업무	①	②	③	④	⑤

한국아동패널 2019(12차) 어머니 대상 질문지

※ 본 조사의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33조 및 제3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질문지는 2008년 4~7월 사이에 출생하여 한국아동패널 조사에 참여한 아이와 가족에 관한 것으로, **아이의 어머니께서 응답하시는 질문지**입니다.

사별, 이혼 등의 이유로 식구 중 어머니가 계시지 않는 경우, 아버지 또는 그 외 패널아동을 주로 돌보시는 주양육자께서 응답하셔도 무방합니다.
단, 주양육자는 아이와 친인척관계인 분만 포함됩니다.

본 질문지에 응답하는 데에는 **약 20분가량** 소요됩니다.

아동 이름	
질문지 작성일	_____월 _____일
질문지 작성자	① 어머니 ② 아버지 ③ 할머니 ④ 할아버지 ⑤ 기타 친인척 ⑥ 형제자매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⑦ 기타( )
조사방법 (조사원 기입 사항)	⓪ 미참여 ① 유치조사(조사원 수거) ② 우편 조사

	다음은 귀하의 자녀(패널아동 – 이하 ○○)에 관한 질문입니다.
ECh19mid018~032	3. 다음의 문장을 읽고 자녀의 모습과 비교해서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께서 각 문항에 해당하는 ○○**(이)의 모습과 행동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시고** 해당되는 보기를 선택해 주십시오. ☞ PC·스마트폰은 게임하기, SNS 보내기, 동영상 보기, 인터넷 하기 등 미디어 기기를 이용한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1) PC·스마트폰 사용 문제로 가족들과 자주 싸운다. 2) 평소와는 달리, PC·스마트폰을 할 때만 자신감이 있어 보인다. 3) PC·스마트폰에 빠진 이후로, 폭력(언어적, 신체적)적으로 변했다. 4) 하루에 4시간 이상 움직이지 않고 한 곳에서 PC·스마트폰을 한다. 5) 식사나 휴식 없이 화장실도 가지 않고 PC·스마트폰을 한다. 6) PC·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나 반응에 무관심하다. 7) PC·스마트폰을 사용하는데 건드리면 화내거나 짜증을 낸다. 8) 하루 이상을 밤을 새우면서 PC·스마트폰을 사용한다. 9) PC·스마트폰 사용으로 학교 성적이 떨어졌다. 10) PC·스마트폰을 할 때 건드려도 화내거나 짜증내지 않는다. 11) 밤새워서 PC·스마트폰을 하지는 않는다. 12) PC·스마트폰 사용 때문에 피곤해서 수업시간에 잔다고 한다. 13) PC·스마트폰을 안 할 때, 다른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불안해 보인다. 14) 점점 더 많은 시간동안 PC·스마트폰을 사용한다. 15) PC·스마트폰 사용하느라 약속을 지키지 않고 거짓말을 자주 한다.
ECh19eat026~035	4. ○○(이)의 식생활을 간단히 평가해 볼 수 있는 식생활진단표입니다. 해당란에 표시해 주십시오. ① 그런편이다 ② 보통이다 ③ 아닌편이다 1) 우유나 유제품 (요거트, 요플레 등)을 매일 2병 이상 마신다. 2) 육류, 생선, 달걀, 콩, 두부 등으로 된 음식을 끼니마다 먹는다. 3) 김치 이외의 채소를 끼니마다 먹는다. 4) 과일 (1개)이나 과일주스 (1잔)를 매일 먹는다. 5) 튀김이나 기름에 볶는 요리를 주 2회 이상 먹는다. 6) 지방이 많은 육류 및 생선류 (삼겹살, 갈비, 장어 등)를 주 2회 이상 먹는다. 7) 식사할 때 음식에 소금이나 간장을 더 넣는다. 8) 식사는 매일 세끼를 규칙적으로 한다. 9) 아이스크림, 케이크, 과자류, 탄산음료 (콜라, 사이다 등)를 간식으로 주 2회 이상 먹는다. 10) 모든 식품을 골고루 섭취한다 (편식을 하지 않는다).

다음은 귀 부부에 대한 평소 느낌이나 생각에 관한 질문입니다.	
EMt19mrs001~004	6. 다음은 부부간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각 문항별로 얼마나 만족하시는지 해당하는 보기를 선택해주십시오. ① 매우 불만족 ② 비교적 불만족 ③ 보통 ④ 비교적 만족 ⑤ 매우 만족 1) 귀하는 배우자로서의 남편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2) 귀하는 결혼생활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3) 귀하는 남편과의 관계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4) 귀하는 아이의 아버지로서의 남편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다음은 귀하 자신에 대한 평소 느낌이나 생각에 관한 질문입니다.	
EMt19prs012	7. 귀하는 평소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습니까? ① 전혀 스트레스 받지 않음 ② 별로 스트레스 받지 않음 ③ 약간 스트레스 받음 ④ 스트레스를 많이 받음
EMt19shs012	8. 귀하는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① 전혀 만족하지 못함 ② 만족하지 못하는 편임 ③ 보통임 ④ 만족하는 편임 ⑤ 매우 만족함
EMt19hlt049	9. 귀하의 건강 상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건강하지 않음 ② 건강하지 않은 편임 ③ 보통임 ④ 건강한 편임 ⑤ 매우 건강함
EMt19dpr013~018	10. 귀하는 지난 30일 동안 다음의 느낌을 얼마나 자주 느끼셨는지 해당하는 보기를 선택해주십시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 지난 30일 동안 불안하셨습니까? 2) 지난 30일 동안 무기력하셨습니까? 3) 지난 30일 동안 안절부절 못하셨습니까? 4) 지난 30일 동안 매사에 힘이 드셨습니까? 5) 지난 30일 동안 너무 슬퍼서 뭘 해도 기운이 나지 않으셨습니까? 6) 지난 30일 동안 자기 자신이 가치 없는 존재라고 느끼셨습니까?
EMt19shs001~004	11. 아래 문항을 읽고 **자신을 가장 잘 설명**한다고 생각하는 보기를 선택해주십시오. 1) 전반적으로 나는 … ① 매우 불행한 사람이다 ② → ③ → ④ 보통이다 ⑤ → ⑥ → ⑦ 아주 행복한 사람이다 2)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나는 … ① 매우 행복하지 않다 ② → ③ → ④ 보통이다 ⑤ → ⑥ → ⑦ 매우 행복하다 3) 어떤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아주 행복하다. 무슨 일이 있어도 개의치 않고 즐겁게 지내는 편이다. 나는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 ③ → ④ 보통이다 ⑤ → ⑥ → ⑦ 매우 그렇다 4) 어떤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아주 불행하다. 특별히 우울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게 보인다. 나는 … ① 매우 그렇다 ② → ③ → ④ 보통이다 ⑤ → ⑥ → ⑦ 전혀 그렇지 않다

다음은 귀하의 음주와 흡연 습관에 대한 질문입니다.	
EMt19drn 002	12. 귀하는 평소에 술을 얼마나 자주 마십니까? **최근 1년을 기준**으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① 월 1회 이하 ② 월 2회~4회 ③ 주 2회~3회 ④ 주 4회 이상 ⑤ 최근 1년간 전혀 마시지 않음 ⇨ **15번 문항으로**
EMt19drn 003	13. 술을 마시면 보통 몇 잔정도 마시는 편입니까? 소주, 양주 구분 없이 각각의 술잔으로 계산합니다. ☑ 단, 캔맥주 1개(355cc)는 맥주 1.6잔과 같습니다. ① 1잔 또는 2잔 ② 3잔 또는 4잔 ③ 5잔 또는 6잔 ④ 7잔에서 9잔 ⑤ 10잔 또는 그 이상
EMt19drn 004	14. 한 번의 술좌석에서 5잔 이상(또는 맥주 3캔 정도)을 마시는 횟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 아버지께서 응답하시는 경우, 7잔 이상(또는 맥주 5캔 정도)을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① 전혀 없음 ② 한 달에 1번 미만 ③ 한 달에 1번 정도 ④ 일주일에 1번 정도 ⑤ 거의 매일
EMt19drn 005	15. 귀하는 평소에 담배를 피우십니까? 피운다면 하루에 담배를 몇 개비 정도 피우십니까? ⓪ 피우지 않음 ① 10개비 **이하** ② 11~20개비 ③ 21~30개비 ④ 31개비 이상

한국아동패널 2019(12차) 아버지 대상 질문지

※ 본 조사의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33조 및 제3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질문지는 2008년 4~7월 사이에 출생하여 한국아동패널 조사에 참여한 아이와 가족에 관한 것으로, **아이의 아버지께서 응답하시는 질문지**입니다.

본 질문지의 응답은 다른 가족의 도움 없이 아버지께서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어머니 대상 질문지를 응답하셨을 경우, 본 질문지는 응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본 질문지에 응답하는 데에는 **약 20분가량** 소요됩니다.

질문지에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 이름	
질문지 작성일	_____월 _____일
질문지 작성자	① 아버지 ② 기타
조사방법 (조사원 기입 사항)	① 유치조사(조사원 수거) ② 우편 조사

	다음은 귀 부부에 대한 평소 느낌이나 생각에 관한 질문입니다.
FFt19mrs001~004	1. 다음은 부부간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각 문항별로 얼마나 만족하시는지 해당하는 보기를 선택해주십시오. ① 매우 불만족 ② 비교적 불만족 ③ 보통 ④ 비교적 만족 ⑤ 매우 만족 1) 귀하는 배우자로서의 아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2) 귀하는 결혼생활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3) 귀하는 아내와의 관계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4) 귀하는 아이의 어머니로서의 아내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다음은 귀하 자신에 대한 평소 느낌이나 생각에 관한 질문입니다.
FFt19prs012	2. 귀하는 평소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습니까? ① 전혀 스트레스 받지 않음 ② 별로 스트레스 받지 않음 ③ 약간 스트레스 받음 ④ 스트레스를 많이 받음
FFt19shs012	3. 귀하는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① 전혀 만족하지 못함 ② 만족하지 못하는 편임 ③ 보통임 ④ 만족하는 편임 ⑤ 매우 만족함
FFt19hlt049	4. 귀하의 건강 상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건강하지 않음 ② 건강하지 않은 편임 ③ 보통임 ④ 건강한 편임 ⑤ 매우 건강함
FFt19dpr013~018	5. 귀하는 지난 30일 동안 다음의 느낌을 얼마나 자주 느끼셨는지 해당하는 보기를 선택해주십시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 지난 30일 동안 불안하셨습니까? 2) 지난 30일 동안 무기력하셨습니까? 3) 지난 30일 동안 안절부절 못하셨습니까? 4) 지난 30일 동안 매사에 힘이 드셨습니까? 5) 지난 30일 동안 너무 슬퍼서 뭘 해도 기운이 나지 않으셨습니까? 6) 지난 30일 동안 자기 자신이 가치 없는 존재라고 느끼셨습니까?
FFt19shs001~004	6. 아래 문항을 읽고 자신을 **가장 잘 설명**한다고 생각하는 보기를 선택해주십시오. 1) 전반적으로 나는 … ① 매우 불행한 사람이다 ② → ③ → ④ 보통이다 ⑤ → ⑥ → ⑦ 아주 행복한 사람이다 2)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나는 … ① 매우 행복하지 않다 ② → ③ → ④ 보통이다 ⑤ → ⑥ → ⑦ 매우 행복하다 3) 어떤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아주 행복하다. 무슨 일이 있어도 개의치 않고 즐겁게 지내는 편이다. 나는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 ③ → ④ 보통이다 ⑤ → ⑥ → ⑦ 매우 그렇다 4) 어떤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아주 불행하다. 특별히 우울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게 보인다. 나는 … ① 매우 그렇다 ② → ③ → ④ 보통이다 ⑤ → ⑥ → ⑦ 전혀 그렇지 않다

다음은 귀하의 음주와 흡연 습관에 대한 질문입니다.	
FFt19drn002	7. 귀하는 평소에 술을 얼마나 자주 마십니까? **최근 1년을 기준**으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① 월 1회 이하 ② 월 2회~4회 ③ 주 2회~3회 ④ 주 4회 이상 ⑤ 최근 1년간 전혀 마시지 않음 ⇨ **10번 문항으로**
FFt19drn003	8. 술을 마시면 보통 몇 잔정도 마시는 편입니까? 소주, 양주 구분 없이 각각의 술잔으로 계산합니다. ☑ 단, 캔맥주 1개(355cc)는 맥주 1.6잔과 같습니다. ① 1잔 또는 2잔 ② 3잔 또는 4잔 ③ 5잔 또는 6잔 ④ 7잔에서 9잔 ⑤ 10잔 또는 그 이상
FFt19drn004	9. 한 번의 술좌석에서 5잔 이상(또는 맥주 3캔 정도)을 마시는 횟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 아버지께서 응답하시는 경우, 7잔 이상(또는 맥주 5캔 정도)을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① 전혀 없음 ② 한 달에 1번 미만 ③ 한 달에 1번 정도 ④ 일주일에 1번 정도 ⑤ 거의 매일
FFt19smk005	10. 귀하는 평소에 담배를 피우십니까? 피운다면 하루에 담배를 몇 개비 정도 피우십니까? ⓪ 피우지 않음 ① 10개비 **이하** ② 11~20개비 ③ 21~30개비 ④ 31개비 이상
다음은 귀하의 취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FFt19jcg003	11. 귀하는 현재 취업 중 이십니까? ① 취업 중(휴직 중 포함) ⇨ 12번 문항으로 ② 학업 중(휴학 중 포함) ⇨ 14번 문항으로 ③ 취업/학업 병행 중 ⇨ 12번 문항으로 ④ 아니요 ⇨ 14번 문항으로
FFt19jce024	12. 귀하의 현재 직장, 주 업무는 2018년 조사 때와 동일합니까? ① 2018년 조사에 참여하지 않았음 ⇨ 13-1번 문항으로 ② 아니요, 직장 또는 업무내용이 바뀜 ⇨ 13-1번 문항으로 ③ 예, 2018년과 동일함 ⇨ 14번 문항으로
FFt19jce001	13-1. 귀하가 현재 일하시는 <u>직장(사업체)의 이름</u>은 무엇입니까? 소속되어 있는 지점이나 공장의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세요. ☑ 일반 회사인 경우 회사명과 지점명까지 / 교사인 경우 초등·중등·고등학교까지 / 공무원인 경우 중앙부처·시군구명·읍면 동사무소까지 예: ◎◎전자 ◎◎공장 / ◎◎초등학교 혹은 서울시청 / 프리랜서 직장(사업체) 명: ( )
FFt19jce002	13-2. 귀하의 직장(사업체)은 구체적으로 <u>무엇을 하는 곳</u>입니까? ☑ 직장명으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알 수 없는 중소기업체인 경우 제조업, 유통업, 서비스업 등의 업종 표기 요망 ☑ 프리랜서의 경우 업무 장소를 기입 직장의 사업 내용(업종): ( )
FFt19jce003	13-3. 귀하의 직장(사업체)에서 귀하가 <u>주로 하시는 일</u>은 무엇입니까? ☑ 사무직인 경우 행정직·전산직·기술직/ 음식점인 경우 한식·양식조리·서빙 등/ 교사인 경우 영어·수학 등 과목명 주로 하는 일: ( )
FFt19jce004	13-4. 귀하의 직장(사업체)에서 귀하의 직위는 무엇입니까? ☑ 프리랜서 / 공무원의 경우 급수 / 회사원의 경우 평사원·대리·과장·부장 등의 직위 / 음식점의 경우 사장·매니저·일반직원 등 직장(사업체) 내 직위: ( )

다음은 귀하의 취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FFt19jce021	13-5. 귀하의 현재 종사상 지위는 어떻습니까? ① 상용직(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이나 원하면 계속 일할 수 있는 경우) ② 임시직(1개월 이상 1년 미만의 근로계약기간) ③ 일용직(1개월 미만의 근로계약기간 또는 일당제 급여) ④ 종업원을 둔 고용주 ⑤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 ⑥ 무급 가족 종사자 (혈연관계인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보수 없이 주당 18시간 이상 근무자)
FFt19jce001a FFt19jce002a FFt19jce003a FFt19jce004a FFt19jce005 FFt19jce006	14. 귀하가 지난 1년간 다음의 항목 중 이용한 지원 제도/방식을 모두 골라주세요. ① 출산휴가 ② 육아휴직 ③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 재택근무, 스마트워크 등)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⑤ 가족돌봄휴직 ⑥ 모두 이용 안함
FFt19wfb001~026	15. **귀하가 하고 있는 일과 가정생활에 관하여** 다음 문장과 **가깝다고 느끼는 쪽**에 응답해 주세요.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일과 가정에 모두 책임감을 갖는다는 것은... 1) 나를 더 균형 잡힌 사람으로 만든다. 2) 내 삶을 더 다양하게 해 준다. 3) 나의 모든 재능을 발휘하도록 한다. 4) 나를 최상의 수준으로 북돋아준다. 5) 나의 시간을 더 잘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6)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한다. 7) 나를 더 유능한 사람으로 느끼게 해 준다. 8) 직장에서 해야 할 일들이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방해한다. 9) 가족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내가 맡고 싶었던 업무상 제안이나 활동을 거절한 적이 있다. 10) 가족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일하는 시간이 덜 즐겁고, 부담스럽다. 11) 일을 할 때, 가족에 관한 일이나 집에서 해야 할 일로 인해 방해 받는다. 12) 일 때문에 나는 참여하고 싶었던 가족 행사나 활동에 빠진 적이 있다. 13) 일 때문에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덜 즐겁고, 부담스럽다. 14) 일하던 중 차라리 가족과 함께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 화난 적이 있다. 15) 일과 가정에서 요구되는 상충하는 역할을 양립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16) 내가 할 일이 과도하게 많아진다. 17) 내가 일을 하는 것은 내 아이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18) 내가 일을 함으로 인해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을 더 감사히 여기게 된다. 19) 일을 함으로써 내 자신도 좋아지고, 내 아이에게도 좋은 것 같다.

다음은 귀하의 취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20) 일을 하는 것은 내가 더 좋은 부모라고 느끼게 한다.
	21) 일을 하는 것이 자녀에게 부담을 주는 것 같다.
	22) 일을 하는 동안 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걱정된다.
	23) 일을 하느라 시간이 없어서 내가 되고자 했던 부모가 되기 어렵다.
	24) 내 아이에 대해 신경 쓰느라 직장에서 업무가 방해된다.
	25) 일을 하면서 부모로서 받는 보상을 일부 놓치게 된다.
	26) 일하느라 힘들어서 내가 되고자 하는 부모가 되기 어렵다.

다음은 귀하의 음주와 흡연 습관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은 귀하의 취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12. 귀하는 현재 취업 중 이십니까? ① 취업 중(휴직 중 포함) ⇨ 13번 문항으로 ② 학업 중(휴학 중 포함) ⇨ 15번 문항으로 ③ 취업/학업 병행 중 ⇨ 13번 문항으로 ④ 아니요 ⇨ 15번 문항으로
	13. 귀하의 현재 직장, 주 업무는 2017년 조사 때와 동일합니까? ① 2017년 조사에 참여하지 않았음 ⇨ 14-1번 문항으로 ② 아니요, 직장 또는 업무내용이 바뀜 ⇨ 14-1번 문항으로 ③ 예, 2017년과 동일함 ⇨ 15번 문항으로
	14-1. 귀하가 현재 일하시는 직장(사업체)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소속되어 있는 지점이나 공장의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세요. ☑ 일반 회사인 경우 회사명과 지점명까지 / 교사인 경우 초등·중등·고등학교까지 / 공무원인 경우 중앙부처·시군구명·읍면 동사무소까지 예: ◎◎전자 ◎◎공장 / ◎◎초등학교 혹은 서울시청 / 프리랜서 직장(사업체) 명: ( )
	14-2. 귀하의 직장(사업체)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 직장명으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알 수 없는 중소기업체인 경우 제조업, 유통업, 서비스업 등의 업종 표기 요망 ☑ 프리랜서의 경우 업무 장소를 기입 직장의 사업 내용(업종): ( )
	14-3. 귀하의 직장(사업체)에서 귀하가 주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 사무직인 경우 행정직·전산직·기술직/ 음식점인 경우 한식·양식조리·서빙 등/ 교사인 경우 영어·수학 등 과목명 주로 하는 일: ( )
	14-4. 귀하의 직장(사업체)에서 귀하의 직위는 무엇입니까? ☑ 프리랜서 / 공무원의 경우 급수 / 회사원의 경우 평사원·대리·과장·부장 등의 직위 / 음식점의 경우 사장·매니저·일반직원 등 직장(사업체) 내 직위: ( )
	"부" 직업종류: 대분류 "부" 직업종류: 중분류 "부" 직업종류: 소분류
	14-5. 귀하의 현재 종사상 지위는 어떻습니까? ① 상용직(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이나 원하면 계속 일할 수 있는 경우) ② 임시직(1개월 이상 1년 미만의 근로계약기간) ③ 일용직(1개월 미만의 근로계약기간 또는 일당제 급여) ④ 종업원을 둔 고용주 ⑤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 ⑥ 무급 가족 종사자 (혈연관계인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보수 없이 주당 18시간 이상 근무자)
	15. 귀하가 지난 1년간 다음의 항목 중 이용한 지원 제도/방식을 모두 골라주세요. ① 출산휴가 ② 육아휴직 ③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 재택근무, 스마트워크 등)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⑤ 가족돌봄휴직 ⑥ 모두 이용 안함

다음은 귀하의 취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16. **귀하가 하고 있는 일과 가정생활에 관하여** 다음 문장과 **가깝다고 느끼는 쪽**에 응답해 주세요.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일과 가정에 모두 책임감을 갖는다는 것은... 1) 나를 더 균형 잡힌 사람으로 만든다.
	2) 내 삶을 더 다양하게 해 준다.
	3) 나의 모든 재능을 발휘하도록 한다.
	4) 나를 최상의 수준으로 북돋아준다.
	5) 나의 시간을 더 잘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6)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한다.
	7) 나를 더 유능한 사람으로 느끼게 해 준다.
	8) 직장에서 해야 할 일들이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방해한다.
	9) 가족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내가 맡고 싶었던 업무상 제안이나 활동을 거절한 적이 있다.
	10) 가족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일하는 시간이 덜 즐겁고, 부담스럽다.
	11) 일을 할 때, 가족에 관한 일이나 집에서 해야 할 일로 인해 방해 받는다.
	12) 일 때문에 나는 참여하고 싶었던 가족 행사나 활동에 빠진 적이 있다.
	13) 일 때문에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덜 즐겁고, 부담스럽다.
	14) 일하던 중 차라리 가족과 함께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 화난 적이 있다.
	15) 일과 가정에서 요구되는 상충하는 역할을 양립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16) 내가 할 일이 과도하게 많아진다.
	17) 내가 일을 하는 것은 내 아이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18) 내가 일을 함으로 인해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을 더 감사히 여기게 된다.
	19) 일을 함으로써 내 자신도 좋아지고, 내 아이에게도 좋은 것 같다.
	20) 일을 하는 것은 내가 더 좋은 부모라고 느끼게 한다.
	21) 일을 하는 것이 자녀에게 부담을 주는 것 같다.
	22) 일을 하는 동안 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걱정된다.
	23) 일을 하느라 시간이 없어서 내가 되고자 했던 부모가 되기 어렵다.
	24) 내 아이에 대해 신경 쓰느라 직장에서 업무가 방해된다.
	25) 일을 하면서 부모로서 받는 보상을 일부 놓치게 된다.
	26) 일하느라 힘들어서 내가 되고자 하는 부모가 되기 어렵다.

빠진 문항이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응답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소중한 자료로 사용하겠습니다.

부록 11. 13차년도(2020) 조사 신규포함 문항 도구프로파일[18)]

1) [부모] 미디어중독

한국아동패널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도구 프로파일 (Profile Tool)

대분류	기타	중분류	기타	소분류	미디어 중독
도구명	스마트폰 중독 자가진단 척도 (Smartphone Addiction Proneness Scale for Adult, S척도)				

1. 차수별 반영사항

	w8 (2015)	w9 (2016)	w10 (2017)	w11 (2018)	w12 (2019)	w13 (2020)
초등학령기	-	-	-	-	-	○

	w14 (2021)	w15 (2022)	w16 (2023)	w17 (2024)	w18 (2025	w19 (2026)	w20 (2027)
청소년기							

2. 도구 출처

•신광우·김동일·정여주·이주영·이윤희·김명찬·강은비·금창민·남지은(2011). 스마트폰 중독 진단척도 개발 연구. 한국정보화진흥원.

3. 조사 특성

1) 자료수집 방법 (응답자)	- 지필식 (어머니/아버지)
2) 문항 수/하위영역	- 총 15문항 - 총 4가지 하위 요인(일상생활, 가상세계지향, 금단, 내성)으로 구성됨.
3) 척도 수준 및 점수화 방식	- 4점 Likert 척도 -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그렇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 - 총정 및 요인별 점수에 따라 고위험 사용자군,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 일반 사용자군으로 나누어짐. ☞ 총 점 ① 1~15번 합계 ☞ 요 인 별 ② 1요인(1,5,9,12,15번) 합계 ③ 3요인(4,8,11,14번) 합계 ④ 4요인(3,7,10,13번) 합계

18) 변수코드는 현재(2020년 12월 기준) 미확정으로 13차년도 데이터 공개 시 이를 포함하여 한국아동패널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임.

<table>
<tr><td></td><td>
<table>
<tr><th>구분</th><th>점수</th><th>기준</th></tr>
<tr><td>고위험
사용자군</td><td>총 점; ① 44점 이상
요인별: ② 1요인 15점 이상
③ 3요인 13점 이상
④ 4요인 13점 이상</td><td>①에 해당하거나, ②~④ 모두 해당되는 경우</td></tr>
<tr><td>잠재적 위험
사용자군</td><td>총 점: ① 40점 이상~43점 이하
요 인: ② 1요인 14점 이상</td><td>①~②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경우</td></tr>
<tr><td>일반
사용자군</td><td>총 점: ① 39점 이하
요인별: ② 1요인 13점 이하
③ 3요인 12점 이하
④ 4요인 12점 이하</td><td>①~④ 모두 해당되거나 고위험 및 잠재적위험군에 속하지 않는 경우</td></tr>
</table>
</td></tr>
<tr><td>4) 특이 사항</td><td>- 어머니, 아버지 각각 질문</td></tr>
</table>

4. 문항 내용 및 변수 코드

코드	문 항 내 용	하위영역
	1) 스마트폰의 지나친 사용으로 일의 능률이 떨어진다	일상생활 장애
	5) 수시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지적을 받은 적이 있다	
	9) 스마트폰을 너무 자주 또는 오래한다고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 불평을 들은 적이 있다	
	12) 스마트폰을 사용하느라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집중이 안된 적이 있다	
	15) 스마트폰 사용이 지금 하고 일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2)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면 온 세상을 잃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가상세계 지향성
	6)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더 즐겁다	
	4) 스마트폰이 없어도 불안하지 않다	금단
	11) 스마트폰이 옆에 없으면, 하루종일 일이 손에 안 잡힌다	
	8)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견디기 힘들 것이다	
	14) 스마트폰이 없으면 안절부절 못하고 초조해진다	
	3)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그만해야지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계속 한다	내성
	7) 스마트폰 사용기간을 줄이려고 해보았지만 실패한다	
	10) 스마트폰 사용에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	
	13) 스마트폰 사용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습관화되었다	

* 역채점 문항: 4, 10, 15

2) [부모] 양육스트레스(13차 신규)

한국아동패널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도구 프로파일 (Profile Tool)

대분류	양육 특성	중분류	양육 실제	소분류	양육스트레스
도구명	양육스트레스				

1. 차수별 반영사항

	w8 (2015)	w9 (2016)	w10 (2017)	w11 (2018)	w12 (2019)	w13 (2020)
초등학령기	-	-	-	-	-	○

	w14 (2021)	w15 (2022)	w16 (2023)	w17 (2024)	w18 (2025	w19 (2026)	w20 (2027)
청소년기							

2. 도구 출처

- 강희경(2003). 학동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척도 개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2), 31-38.

3. 조사 특성

1) 자료수집 방법 (응답자)	- 지필식 (어머니/아버지)
2) 문항 수/하위영역	- 총 24문항 - 학부모역할 스트레스 17문항, 부모생활 스트레스 7문항
3) 척도 수준 및 점수화 방식	- 4점 Likert 척도 -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그렇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 -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 수준이 높음을 의미함.
4) 특이 사항	- 어머니, 아버지 각각 질문 - 강희경(2003)의 연구에서 Abidin(1990)의 PSI(Parenting Stress Index)와 김기현·강희경(1997)의 양육스트레스 척도를 바탕으로 학령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요인을 고려하여 개발함.

4. 문항 내용 및 변수 코드

코드	문 항 내 용	하위영역
	1) 아이가 선생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학부모 역할 스트레스
	2) 선생님이 아이를 차별대우할까봐 걱정된다	
	3) 아이가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	
	4) 학교에서 좋지 않은 친구를 사귀지 않을지 걱정된다	
	5) 아이가 다른 친구들에게서 나쁜 행동이나 욕을 배울까 우려된다	
	6) 선생님이 학생들에 대한 충분한 애정을 갖고 있는지 염려된다	
	7) 나는 아이를 소신껏 교육시키면서도,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들과 비교될 때는 불안하다	
	8) 아이의 적성을 잘 찾아줄 수 있을지 걱정된다	
	9) 학부모 간의 보이지 않는 경쟁 심리가 부담스럽다	
	10) 학교 선생님과 나의 교육관이 달라서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	
	11) 사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어서 답답하다	
	12) 소신 있는 교육관을 갖는다지만 흔들릴 때가 있다	
	13)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 행동을 통제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14) 내가 부모역할을 잘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뒤처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다	
	15) 학교 행사에 학부모가 동원되는 것이 부담스럽다	
	16) 아이의 학업 성적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	
	17) 아이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미안한 마음이 든다	
	18) 아이를 돌보는 것 때문에 개인적인 시간을 가질 수 없다	부모생활 스트레스
	19) 아이가 태어난 이후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없었다	
	20) 나의 시간은 대부분 아이를 위해 소비된다	
	21) 아이를 돌보는 것이 신체적으로 힘들다	
	22) 아이 때문에 나의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가 많다	
	23) 대개 아이를 위해 나 자신을 포기한다	
	24) 아이가 태어난 이후 친구들을 만나거나 새로운 친구들을 사귄다는 것이 어려워졌다	

3) [부모] 한국판 정서조절곤란 척도 (K-DERS)

한국아동패널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도구 프로파일 (Profile Tool)

대분류	개인 및 부부 특성	중분류	심리적 특성	소분류	자기조절
도구명	한국판 정서조절곤란 척도 (K-DERS)				

1. 차수별 반영사항

	w8 (2015)	w9 (2016)	w10 (2017)	w11 (2018)	w12 (2019)	w13 (2020)
초등학령기	-	-	-	-	-	○(심층조사)

	w14 (2021)	w15 (2022)	w16 (2023)	w17 (2024)	w18 (2025	w19 (2026)	w20 (2027)
청소년기							

2. 도구 출처

- 조용래(2007). 정서조절곤란의 평가: 한국판 척도의 심리측정적 속성.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6(4), 1015-1038.

3. 조사 특성

1) 자료수집 방법 (응답자)

- 지필식 (어머니/아버지)

2) 문항 수/하위영역

- 총 35문항

하위 척도	해당 문항 번호	문항 수	신뢰도(α)
충동통제곤란	3, 14, 19, 27, 32	5	.89
정서에 대한 주의/자각 부족	1, 2, 6, 7, 8, 10, 34	7	.83
정서에 대한 비수용성	11, 12, 21, 23, 25, 29, 30	7	.87
정서적 명료성 부족	4, 5, 9	3	.76
정서조절전략 접근 제한	15, 16, 28, 31, 35	5	.79
목표지향행동 수행 어려움	13, 18, 26	3	.86
※ 하위척도 미포함 문항	20, 22, 24, 33, 36	5	-
전체		35	.92

3) 척도 수준 및 점수화 방식

- 5점 Likert 척도
-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
-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조절곤란의 정도가 더 심함을 의미함.

4) 특이 사항

- Gratz와 Roemer(2004)가 제작한 정서조절곤란척도(Difficulties in Emotional Regulation Scale: DERS)를 조용래(2007)가 번안 및 타당화하고 최종 구성한 35문항을 사용하였다(Cronbach α=.92).
- 정서조절곤란은 충동통제곤란(α=.89), 정서에 대한 주의와 자각 부족(α=.83), 정서에 대한 비수용성(α=.87), 정서적 명료성의 부족(α=.76), 정서조절전략에 대한 접근 제한(α=.79), 목표지향행동의 어려움(α=.86) 등 6개 하위척도로 구성됨.

4. 문항 내용 및 변수 코드

코드	문 항 내 용
	1) 나는 내 감정에 대해 분명하게 알고 있다
	2)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해 주의를 기울인다
	3) 내가 감정에 압도되고 감정을 통제하기 힘들다고 여긴다
	4) 내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
	5) 내 감정을 이해하기 어렵다
	6) 나는 내 감정에 주의를 기울인다
	7) 나는 내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안다
	8) 내가 느끼고 있는 것에 관심이 있다
	9) 내가 느끼는 감정(방식)에 대해 혼란스럽다
	10)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쁠 때, 내 감정을 알아차린다
	11)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그렇게 느끼는 나 자신에게 화가 난다
	12)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그렇게 느끼는 것에 대해 당황하게 된다
	13)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일을 끝마치기가 어렵다
	14)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자제하지 못한다
	15)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오랫동안 내가 그런 상태로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16)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결국에는 내가 아주 우울하게 느낄 것이라고 믿는다
	17)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다른 일에 집중하기가 어렵다
	18)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자제하지 못한다고 느낀다
	19)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더라도, 여전히 일은 끝마칠 수 있다
	20)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그렇게 느끼는 것에 대해 부끄럽게 느낀다
	21)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궁극적으로 기분이 더 좋아지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다고 믿는다
	22)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내가 나약한 사람처럼 느껴진다
	23)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더라도, 내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24)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그렇게 느끼는 것에 죄책감을 느낀다
	25)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집중하기 어렵다
	26)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내 행동을 통제하기가 어렵다
	27)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내 기분을 더 좋아지게 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 것도 없다고 믿는다
	28)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그렇게 느끼는 나 자신에게 짜증이 난다
	29)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나 자신에 대해 기분이 매우 나빠지기 시작한다
	30)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그 상태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라고 믿는다
	31)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내 행동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버린다
	32)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다른 어떤 일에 대해서도 생각하기가 어렵다
	33)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내가 진정으로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 신중하게 이해한다
	34)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내 기분이 더 좋아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35)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내 감정들에 의해 압도당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 역채점 문항: 1, 2, 6, 7, 8, 10, 19, 21, 23, 33

4) [부모] Type A 행동유형

한국아동패널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도구 프로파일 (Profile Tool)

대분류	개인 및 부부 특성	중분류	심리적 특성	소분류	행동유형
도구명	Type A 행동유형				

1. 차수별 반영사항

	w8 (2015)	w9 (2016)	w10 (2017)	w11 (2018)	w12 (2019)	w13 (2020)
초등학령기	-	-	-	-	-	O

	w14 (2021)	w15 (2022)	w16 (2023)	w17 (2024)	w18 (2025	w19 (2026)	w20 (2027)
청소년기							

2. 도구 출처

- 신승욱(2008). A/B형 행동 유형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의 직무 스트레스와 정신건강과의 관계 분석. 춘천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 조사 특성

1) 자료수집 방법 (응답자)	- 지필식 (어머니/아버지)
2) 문항 수/하위영역	- 총 10문항
3) 척도 수준 및 점수화 방식	- 5점 Likert 척도 -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대체로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 - 점수가 높을수록 A형 행동 유형이 강함을 의미함.
4) 특이 사항	- Girdano & Everly(1979)와 Dusek(1990)가 연구에서 사용한 Hart Type A Scale을 장현갑·강성군(1996)이 번역했고 본 연구에서는 공소영(2007)의 척도를 그대로 인용한 신승욱(2008)판을 사용하였다(Cronbach α= 0.72).

4. 문항 내용 및 변수 코드

코드	문 항 내 용
	1) 나는 약속시간에 늦는다든지 또는 일이 느리게 진행되는 것을 참지 못한다
	2) 나는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을 싫어한다
	3) 사람들은 내가 쉽게 흥분한다고 말한다
	4) 나는 무엇이든지 경쟁적으로 하려 한다
	5)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미루고 잠시 쉬고 있을 때는 어쩐지 죄스럽다
	6) 나는 대화에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가로채는 면이 있다
	7) 나는 심한 압력 하에 있을 때에 쉽게 흥분하고 화를 내는 편이다
	8) 나는 시간을 정해 놓고 그 안에 끝내려고 강박적으로 일을 한다
	9)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다른 사람에 의해 좌우되는 것을 싫어한다
	10) 나는 현실적으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도 나 자신을 몰아세운다

5) [부모] NEO 성격검사(대학·성인용) (NEO Personality Assessment System)

한국아동패널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도구 프로파일 (Profile Tool)

대분류	개인 및 부부 특성	중분류	심리적 특성	소분류	성격
도구명	NEO 성격검사(대학·성인용) (NEO Personality Assessment System)				

1. 차수별 반영사항

	w8 (2015)	w9 (2016)	w10 (2017)	w11 (2018)	w12 (2019)	w13 (2020)
초등학령기	-	-	-	-	-	○(심층조사)

	w14 (2021)	w15 (2022)	w16 (2023)	w17 (2024)	w18 (2025	w19 (2026)	w20 (2027)
청소년기							

2. 도구 출처

- 안현의·안창규(2017). NEO 성격검사 전문가 지침서. ㈜인싸이트.

3. 조사 특성

1) 자료수집 방법 (응답자)	- 지필식 (어머니/아버지)
2) 검사의 목적 및 특징	- 일반적인 정상인의 기질적 성격구조를 파악함과 동시에 불안, 공격성, 우울 등의 임상적 성격을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이 검사는 한 개인의 대인관계 스타일, 창의적인 특성, 과제수행 스타일, 학습 스타일 및 진로선택의 보조적 정보를 제공해줌. 특히 행동장애들 즉, 불안, 분노, 우울, 사회적 위축, 학대 경험, 정서적 충격, 반사회적 행동 등의 예측과 예방적 지도 및 치료적 상담의 효율성을 위한 정보를 제공해줌. - 이 검사는 자기보고법과 타인평정법이 모두 가능함. 아동패널조사에서는 부와 모가 각각 자기보고식으로 응답하도록 하였음. - 검사대상: 대학생 및 성인 - 검사시간: 약 45분
3) 문항 수/하위영역	- 5요인과 26개의 하위척도들로 이루어지며, 신뢰도 측정 문항 3개를 포함하여 모두 21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1) E외향성 (E1사회성, E2지배성, E3자극추구, E4활동성*) 2) O개방성 (O1창의성, O2정서성, O3사고유연성, O4행동진취성*) 3) A친화성 (A1온정성, A2신뢰성, A3공감성*, A4관용성) 4) C성실성 (C1유능감, C2성취동기*, C3조직성, C4책임감) 5) N신경증 (N1불안, N2적대감, N3우울, N4충동성, N5사회적 위축, N6정서충격, N7심약*, N8특이성*, N9반사회성*, N10자손감*) *는 성인용에만 해당하는 척도임(12차년도에 실시한 아동용에는 포함되지 않음)
4) 척도 수준	- 5점 리커트 척도 (1)전혀아니다 (2)아니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그렇다

5) 점수화 방식	- 채점은 인싸이트 심리검사연구소에서 실시 후 각 요인과 하위척도에 대하여 T점수 및 수준으로 제시함. - T점수: 평균이 50, 표준편차가 10인 분포를 이루는 정규분포의 표준점수 체계로 전국의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과 비교하기 위한 점수임. 전국의 평균을 50점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 각 대상자들의 점수가 전국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높고 낮은가를 상대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임. - 수준: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으로 제시됨.

4. 요인 및 하위영역 정의

요인	하위영역	
E 외향성	신체심리적 에너지 수준	
	E1 사회성	여러 사람들과 만나서 함께 하는 것을 좋아하며 여러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정도
	E2 지배성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고 지배하며 지도력을 발휘하고 싶어 하며 자기주장을 잘하는 정도
	E3 자극추구	밝고 화려한 색깔이나 떠들썩한 환경을 좋아하며, 스릴 있고 자극적인 것을 원하는 성향
	E4 활동성	힘이 넘치고 매사에 바쁘며 활동적·적극적이고 열정과 추진력이 있는 정도
O 개방성	상상력과 창의성이 높고, 아이디어가 많고, 감정적·정서적으로 풍부해서 예술적 감성이 높으며 진취적인 행동 특성. 새로운 경험에 대한 수용성	
	O1 창의성	독특한 생각하기를 즐기며 상상력이 풍부하여 창의성이 높은 정도
	O2 정서성	감정의 개방성을 의미함. 음악, 미술 등 예술 분야를 좋아하고, 섬세하고 깊은 감정을 풍부하게 느낄 수 있는 정도
	O3 사고 유연성	지적인 호기심이 많고 지식에 대한 욕구가 강하며, 논리적·분석적인 사고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정도
	O4 행동 진취성	정해진 대로 일을 하기보다는 다양하고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시도하는 정도
A 친화성	대인관계 성향을 대표하는 차원으로, 타인에게 따스한 감정을 가지고 신뢰하며 친밀한 관계를 맺고 남을 돕고자 하는 성향	
	A1 온정성	사람들에게 자상하고 따뜻하고 친절하여 사람들을 순수하게 좋아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성향
	A2 신뢰성	사람들이 정직하고 착하다고 보고 다른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믿고 잘 받아들이는 성향
	A3 공감성	상대방이 느끼고 생각하고 경험하고 있는 것들을 상대방의 입장에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성향
	A4 관용성	다른 사람들의 잘못에 너그럽고 쉽게 용서하며 갈등적인 관계를 피하려는 성향
C 성실성	매사에 자신감이 있고, 체계적·계획적으로 일을 처리하고 책임감이 강하며 신중한 특성	
	C1 유능감	자기 스스로 능력이 있고 현명하며 신중하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며 잘 적응하는 사람으로 평가하는 정도
	C2 성취동기	자신의 노력으로 바람직한 일을 성취하고 성공하는 상상과 공상을 자주하며 어려움을 극복하고 과제를 성취하려는 욕구의 강도
	C3 조직성	정리 정돈된 생활을 잘 유지하며 일을 계획하고 규칙적이고 일정하게 조직하고 처리하는 성향
	C4 책임감	자신의 엄격한 행동 기준이나 의무에 충실하며 책임감을 나타내는 정도

요인	하위영역	
N 신경증	정서적으로 얼마나 안정되어 있는지 여부. 정서적 불안정성이나 부적응의 수준으로 자신의 충동을 잘 조절하지 못하며, 스트레스에 대해 잘 대처하지 못하는 특성	
	N1 불안	늘 불안하고 초조하며, 긴장되어 있으면서 두려움과 걱정이 많은 정도
	N2 적대감	다른 사람을 적대적으로 여기고 화를 내거나 복수하고 공격하고 싶은 정도
	N3 우울	우울한 정서를 경험하는 경향에서 정상적인 개인의 차이. 매사에 의욕이 없거나 슬픔, 죄책감, 우울한 감정이 자주 들고 외로움을 느끼며 쉽게 포기하는 성향
	N4 충동성	주의가 산만하고 한곳에 조용히 집중하지 못하며, 자신을 통제하는 힘이 부족하여 한 일에 대해 후회하는 정도
	N5 사회적 위축	쉽게 수치스러워하고 당황스러워하는 사회적 불안 경향으로, 타인에 대하여 불편해하며 거북하고 어색하게 느끼는 정도
	N6 정서충격	어릴 때 또는 현재 겪고 있는 심리적 충격과 상처를 느끼는 정도
	N7 심약	조그마한 스트레스에도 잘 견디지 못하고 마음이 약해지며 쉽게 포기해 버리고 무력해지는 성향
	N8 특이성	심리적 소외, 현실성의 결핍, 망상, 환각을 느끼는 정도
	N9 반사회성	어른과 사회의 권위, 가치, 관습, 법, 규칙을 존중하고 잘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정도
	N10 자손감	자신의 능력이나 가치에 대하여 낮게 평가하고 자신을 쓸모없다고 느끼는 정도

6) [아동] 가사참여

한국아동패널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도구 프로파일 (Profile Tool)

대분류	일상생활	중분류	참여	소분류	가사 참여 여부
도구명	가사참여				

1. 차수별 반영사항

	w8 (2015)	w9 (2016)	w10 (2017)	w11 (2018)	w12 (2019)	w13 (2020)
초등학령기	-	-	-	-	-	○

	w14 (2021)	w15 (2022)	w16 (2023)	w17 (2024)	w18 (2025	w19 (2026)	w20 (2027)
청소년기							

2. 도구 출처

- 연구진이 개발함.

3. 조사 특성

1) 자료수집 방법 (응답자)	- TAPI (아동)
2) 문항 수/하위영역	- 총 4 문항 - 의생활 참여. 식생활 참여, 주생활 참여, 가족돌봄
3) 척도 수준 및 점수화 방식	- 4점 Likert 척도 (1: 전혀 하지 않는다 ~ 4: 항상 한다) - 총점: 4개 문항의 합산 점수
4) 특이 사항	- 조신옥(2002)의 '집에서 하는 일에 대한 참여도 조사' 문항을 참고하여 연구진이 개발 - 조신옥(2002). 초등학교 고학년의 가사작업에 대한 의식 및 참여도에 관한 연구.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 문항 내용 및 변수 코드

코드	문 항 내 용
	[의생활] 벗은 옷을 옷걸이에 걸기, 빨랫감 모으기, 세탁기 돌리기, 빨래 널거나 개기, 세탁소에 세탁물 맡기기 등
	[식생활] 반찬이나 수저를 식탁에 놓기, 요리 돕기, 간식 만들어 먹거나 밥 챙겨 먹기, 과일 깎기, 식탁 정리, 설거지 등
	[주생활] 내방 정리, 청소기 돌리기, 쓰레기 분리수거, 화분에 물주기, 현관의 신발 정리, 간단한 집안 수리(못질하기, 전구 갈기) 등
	[돌봄] 부모님 심부름, 동생 돌보기, 가족이 아플 때 돕기, 우편물 챙기기, 집안행사(명절, 생일 등) 준비 등

7) [아동] 다요인 지능검사 (M-FIT)

한국아동패널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도구 프로파일 (Profile Tool)

대분류	인지 및 언어발달	중분류	인지발달	소분류	인지
도구명	다요인 지능검사 (M-FIT)				

1. 차수별 반영사항

	w8 (2015)	w9 (2016)	w10 (2017)	w11 (2018)	w12 (2019)	w13 (2020)
초등학령기	-	○ (수행검사)	-	-	-	○ (수행검사)

	w14 (2021)	w15 (2022)	w16 (2023)	w17 (2024)	w18 (2025	w19 (2026)	w20 (2027)
청소년기							

2. 도구 출처

- 이종구·현성용·최인수(2015). 다요인 지능검사 전문가 지침서. 서울: 학지사 심리검사연구소.

3. 조사 특성

1) 자료수집 방법 (응답자)	- 아동 수행 검사
2) 하위영역	- 총 6개의 하위검사(영역)로 구성됨. - 각 소검사는 20개의 사지선다형 문항으로 제한된 시간 안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응답하도록 구성됨.
3) 점수화 방식	- 학지사 심리검사연구소에서 제시하고 있는 진행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조사원이 안내하여 실시하였으며, 아동이 수행한 검사 기록지는 학지사 심리검사연구소로 전달하여 하위검사별 원점수, T점수, 백분위 점수가 계산되어 코딩됨.

하위 검사	측정내용
어휘적용력	기본적인 어휘력과 문장의 정확한 이해 및 문맥에 맞게 적절한 어휘를 선택하는 능력
언어유추력	측정하고자 하는 것은 단어 간의 인과관계와 의미간의 위계, 범주를 파악하고 분류한 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관계성을 도출해 내는 능력
도식화능력	언어적인 내용을 그림으로 전환하고 세부 그림들을 조직하고 통합하여 제시된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의 틀을 만들어내는 능력
수리력	수와 기초적인 연산개념에 대한 이해와 자동적 처리를 바탕으로 수량을 비교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계산하는 능력
공간지각력	공간과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시각적인 사고력과 공간 환경에서의 적응력
추리력	문제를 인식하고 자료를 토대로 문제해결을 위한 규칙을 추론하는 귀납추론 능력

4) 특이 사항	- 문항 내용에 대한 저작권은 '학지사 심리검사 연구소'에 있음. - 각 소검사 실시 전 문항 풀이 방식에 대한 안내 및 연습문제를 통해 아동이 문항에 충분히 적응할 수 있도록 함. - 도구 개발자와의 간담회 결과, 각 학년별 문항은 교과서, 전과, 국어사전 등을 분석하고 이전 학년까지의 내용을 토대로 구성되었으며, 학년별로 서로 다른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연습효과는 없음. - 한국아동패널에서는 아동의 인지적 발달능력을 추적하기 위하여 초등학령기 전반(2학년), 후반(6학년)에 검사를 실시하였고, 향후 중학교 혹은 고등학교 시기에 추가 검사를 진행할 예정임.

4. 문항 내용 및 변수 코드: 〈 문항 내용 비공개 〉

구분	코드			
	원문항	원점수	T점수	백분위 점수
어휘적용력	mfi001a~mfi020a	mfi099a	mfi098a	mfi097a
언어유추력	mfi001b~mfi020b	mfi099b	mfi098b	mfi097b
도식화능력	mfi001d~mfi020d	mfi099d	mfi098d	mfi097d
수리력	mfi001e~mfi020e	mfi099e	mfi098e	mfi097e
공간지각력	mfi001f~mfi020f	mfi099f	mfi098f	mfi097f
추리력	mfi001g~mfi020g	mfi099g	mfi098g	mfi097g

8) [아동] 안전의식 및 대처

한국아동패널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도구 프로파일 (Profile Tool)

대분류	사회 및 정서 발달	중분류	사회 관련 의식	소분류	안전의식 및 대처
도구명	안전의식 및 대처				

1. 차수별 반영사항

	w8 (2015)	w9 (2016)	w10 (2017)	w11 (2018)	w12 (2019)	w13 (2020)
초등학령기	-	-	-	-	-	○

	w14 (2021)	w15 (2022)	w16 (2023)	w17 (2024)	w18 (2025	w19 (2026)	w20 (2027)
청소년기							

2. 도구 출처

- 연구진이 개발함.

3. 조사 특성

1) 자료수집 방법 (응답자)	- TAPI (아동)
2) 문항 수/하위영역	- 총 5개 문항 - 안전체감 4문항, 대처인식 1문항
3) 척도 수준 및 점수화 방식	- 5점 Likert 척도 -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
4) 특이 사항	

4. 문항 내용 및 변수 코드

코드	문 항 내 용
	1) 나는 우리집에서 안전하다고 느낀다
	2) 나는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안전하다고 느낀다
	3) 나는 우리 동네가 안전하다고 느낀다
	4) 나는 우리나라가 안전하다고 느낀다
	5) 나는 지난 1년간 학교에서 받은 안전교육* 내용이 실제 위험에 대처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학교안전교육(생활안전교육, 교통안전교육,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교육, 약물 및 사이버중독예방교육, 재난안전교육, 직업안전교육, 응급처치교육)을 의미함.

9) [아동] KEDI 인성검사

한국아동패널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도구 프로파일 (Profile Tool)

대분류	사회 및 정서 발달	중분류	사회성 발달	소분류	인성
도구명	KEDI 인성검사				

1. 차수별 반영사항

	w8 (2015)	w9 (2016)	w10 (2017)	w11 (2018)	w12 (2019)	w13 (2020)
초등학령기	-	-	-	-	-	○(심층조사)

	w14 (2021)	w15 (2022)	w16 (2023)	w17 (2024)	w18 (2025	w19 (2026)	w20 (2027)
청소년기							

2. 도구 출처

- 현주·임소현·한미영·임현정·손경원(2014). KEDI 인성검사 실시요강. 한국교육개발원. (인성교육지원센터 http://insung.kedi.re.kr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3. 조사 특성

1) 자료수집 방법 (응답자)

- 지필식 (아동)

2) 문항 수/하위영역

- 총 70문항

하위요인		문항 번호	문항 수	총점 범위
1	자기존중	1, 11, 21, 31, 41, 51, 60	7	7점~35점
2	성실	2, 12, 22, 32, 42, 52, 61, 66	8	8점~40점
3	배려·소통	3, 13, 23, 33, 43, 53, 62, 67, 69, 70	10	10점~50점
4	(사회적) 책임	4, 14, 24, 34, 44, 54	6	6점~30점
5	예의	5, 15, 25, 35, 45, 55, 63	7	7점~35점
6	자기조절	6, 16, 26, 36, 46, 56	6	6점~30점
7	정직·용기	7, 17, 27, 37, 47, 57, 64	7	7점~35점
8	지혜	8, 18, 28, 38, 48, 58	6	6점~30점
9	정의	9, 19, 29, 39, 49	5	5점~25점
10	시민성	10, 20, 30, 40, 50, 59, 65, 68	8	8점~40점

3) 척도 수준 및 점수화 방식

- 5점 Likert 척도
- '전혀 아니다(1점)' ~ '매우 그렇다(5점)'
- 검사의 채점은 KEDI 인성검사의 각 하위요인별 총점(원점수)을 산출한 후에 각 하위요인별 해당 총점(원점수)에 해당하는 환산점수(T점수)와 백분위점수를 확인 함.

4) 특이 사항

4. 문항 내용 및 변수 코드

〈아래 문항을 읽고 평소 자신의 모습이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응답 하나에 체크표시 해주십시오.〉

코드	문 항 내 용	비고
	1. 나는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자기존중(1요인)
	2. 나는 오늘 해야 할 일을 다음으로 미루지 않는다	성실(2요인)
	3. 나는 친구들의 고민을 잘 해결해준다	배려·소통(3요인)
	4. 나는 여러 사람과 협력활동을 할 때 내 역할에 최선을 다한다	(사회적) 책임(4요인)
	5. 나는 부모님(보호자)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	예의(5요인)
	6. 나는 짜증이 나더라도 내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다	자기조절(6요인)
	7. 나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내 잘못이라고 솔직히 말한다	정직·용기(7요인)
	8. 나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항상 충분한 근거를 생각한다	지혜(8요인)
	9. 나는 인종, 성별, 재산이나 능력 등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정의(9요인)
	10. 나는 태극기, 무궁화, 애국가 등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것을 소중히 여긴다	시민성(10요인)
	11. 나는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자기존중(1요인)
	12. 나는 계획을 세운 것은 잘 지킨다	성실(2요인)
	13. 나는 친구와 갈등이 있을 때 잘 해결한다	배려·소통(3요인)
	14. 나는 학교에서 맡은 역할을 잘 해내려고 노력한다	(사회적) 책임(4요인)
	15. 나는 나의 부모님(보호자)을 존경한다	예의(5요인)
	16. 나는 내 감정과 행동을 잘 조절한다	자기조절(6요인)
	17. 나는 야단을 맞더라도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한다	정직·용기(7요인)
	18. 나는 친구들에 비해 생각이 깊은 편이다	지혜(8요인)
	19. 나는 왕따를 당하는 학급친구들에게도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정의(9요인)
	20. 나는 우리나라의 문화와 역사가 자랑스럽다	시민성(10요인)
	21. 나는 나 자신을 아끼고 소중히 여긴다	자기존중(1요인)
	22. 나는 해야 할 일이 있을 경우, 마지막에 하기보다 미리미리 준비한다	성실(2요인)
	23. 친구들은 나에게 자주 내 의견을 묻는다	배려·소통(3요인)
	24. 나는 모둠과제(조별과제)나 학습행사에서 내가 맡은 일을 책임지고 한다	(사회적) 책임(4요인)
	25. 나는 부모님(보호자)을 기쁘게 해 드리기 위해 노력한다	예의(5요인)
	26. 나는 쉽게 흥분하지 않는다	자기조절(6요인)
	27. 나는 실수를 했을 때 변명을 하거나 책임을 피하지 않는다	정직·용기(7요인)
	28. 나는 어떤 일이든지 장단점을 고루 살펴본다	지혜(8요인)
	29. 나는 따돌리거나 괴롭히는 생동으로 친구의 인권(생명, 자유, 평등 등을 보장받을 권리)을 침해하지 않는다	정의(9요인)
	30. 나는 다문화 친구의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시민성(10요인)
	31. 나는 현재의 나에 대해 만족한다	자기존중(1요인)
	32. 나는 나의 목표를 위해 현재의 유혹을 잘 참는다	성실(2요인)
	33. 나는 친구가 화가 나있거나 슬퍼하고 있을 때, 그 친구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배려·소통(3요인)
	34. 나는 단체 활동에서 힘든 역할이 주어져도 잘 협조한다	(사회적) 책임(4요인)
	35. 나는 부모님(보호자)의 말씀을 잘 따른다	예의(5요인)
	36. 나는 화가 나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화풀이를 하지 않는다	자기조절(6요인)
	37. 나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게 행동한다	정직·용기(7요인)
	38. 나는 어떤 일이든 신중하게 판단한다	지혜(8요인)
	39. 나는 친구를 형편과 여건(학업능력, 가정여건, 외모 등)에 상관없이 평등하게 대한다	정의(9요인)
	40. 나는 다른 나라나 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다	시민성(10요인)

코드	문 항 내 용	비고
	41. 나는 내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기존중(1요인)
	42. 나는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게임이나 채팅 등의 유혹을 잘 견딘다	성실(2요인)
	43. 친구들은 내 의견을 중요하게 여긴다	배려·소통(3요인)
	44. 나는 가족회의나 학급회의에서 정한 규직은 지킨다	(사회적) 책임(4요인)
	45. 나는 어른들께 예의를 갖추어 공손하게 대한다	예의(5요인)
	46. 나는 내 생각이나 판단이 늘 옳다고 고집하지 않는다	자기조절(6요인)
	47. 나는 진솔하다(진실하고 솔직하다)	정직·용기(7요인)
	48. 어떤 일을 현명하게 판단하는 능력은 나의 장점 중 하나이다	지혜(8요인)
	49. 나는 게임이나 운동을 잘 못하는 친구를 따돌리지 않고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정의(9요인)
	50. 기회가 된다면, 나는 어려운 지구촌 아이들을 돕기 휘해 용돈이나 물품 등을 기부하고 싶다	시민성(10요인)
	51. 나는 장래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기존중(1요인)
	52. 나는 하던 일을 중간에 그만두지 않는다	성실(2요인)
	53. 나는 다른 사람의 기분이나 마음을 잘 알아차린다	배려·소통(3요인)
	54. 나는 내가 한 일에 책임을 지려고 노력한다	(사회적) 책임(4요인)
	55. 주변 어른들은 나에게 예의가 바르다고 말씀하신다	예의(5요인)
	56. 나는 남을 비난하기 전에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	자기조절(6요인)
	57. 나는 내가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 솔직히 사과한다	정직·용기(7요인)
	58. 나는 무언가를 결정할 때 시간을 갖고 충분히 생각한다	지혜(8요인)
	59. 나는 외국인 노동자들도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누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민성(10요인)
	60. 나는 어려운 일도 잘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기존중(1요인)
	61. 어떤 일을 끈기있게 하는 것은 나의 장점 중 하나이다	성실(2요인)
	62. 친구가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주려고 노력한다	배려·소통(3요인)
	63. 나는 길이나 집 근처에서 아는 어른을 만나면 인사를 잘 한다	예의(5요인)
	64. 나는 옳은 일이라고 생각되면 야단맞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행동한다	정직·용기(7요인)
	65. 나는 세계의 공동문제(환경, 인권, 빈곤, 세계평화 등)에 관심이 있다	시민성(10요인)
	66. 나는 부모님과 약속한 게임/TV시청 시간을 지키려고 노력한다	성실(2요인)
	67. 나는 다른 사람을 잘 도와준다	배려·소통(3요인)
	68. 나는 집단(예: 학습, 학교, 국가 등)의 이익을 위해 내 이익을 양보할 수 있다	시민성(10요인)
	69. 나는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과도 이야기를 잘 한다	배려·소통(3요인)
	70. 나는 친구가 상을 받으면 같이 기뻐하며 축하해준다	배려·소통(3요인)

10) [아동] 진로성숙도

한국아동패널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도구 프로파일 (Profile Tool)

대분류	사회 및 정서 발달	중분류	미래/진로	소분류	진로성숙도
도구명	진로성숙도				

1. 차수별 반영사항

	w8 (2015)	w9 (2016)	w10 (2017)	w11 (2018)	w12 (2019)	w13 (2020)
초등학령기	-	-	-	-	-	○

	w14 (2021)	w15 (2022)	w16 (2023)	w17 (2024)	w18 (2025	w19 (2026)	w20 (2027)
청소년기							

2. 도구 출처

- 류정희·이상정·전진아·박세경·여유진·이주연·김지민·송현종·유민상·이봉주(2019). 2018 아동종합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한국 아동·청소년 데이터 아카이브 홈페이지. 한국청소년패널조사 초4패널, 중2패널 설문지. https://www.nypi.re.kr/archive/mps/program/examinDataCode/dataDwloadAgreeView?menuId=MENU00226 (인출일: 2020.04.23.)

3. 조사 특성

1) 자료수집 방법(응답자)	- TAPI (아동)
2) 문항 수/하위영역	- 총 7 문항 - 의생활 참여. 식생활 참여, 주생활 참여, 가족돌봄
3) 척도 수준 및 점수화 방식	- 4점 Likert 척도 (1: 전혀 아니다 ~ 4: 매우 그렇다) - 점수가 낮을수록 진로성숙도가 높음을 의미함.

4. 문항 내용 및 변수 코드

코드	문 항 내 용
	1. 향후 진로결정과 관련하여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 잘 알지 못한다.
	2. 향후 진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진로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3. 향후 진로에 대해 잘 알고 있지만 너무 많아 하나를 선택하기가 힘들다
	4. 내가 가보고 싶은 향후 진로가 자주 바뀐다.
	5. 향후 진로설정에 대해 나와 부모님의 의견차이가 너무 커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6. 미래란 알 수 없는 것이므로 향후 진로를 미리 설정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
	7. 나의 향후 진로설정에 있어서 나 자신의 의견보다는 부모님의 의견을 더 따르는 편이다

11) [아동] 집행기능 곤란 (Executive Function Difficulty Screening Questionnaire)

한국아동패널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도구 프로파일 (Profile Tool)

대분류	인지 및 언어 발달	중분류	인지 발달	소분류	집행기능
도구명	집행기능 곤란(Executive Function Difficulty Screening Questionnaire)				

1. 차수별 반영사항

	w8 (2015)	w9 (2016)	w10 (2017)	w11 (2018)	w12 (2019)	w13 (2020)
초등학령기	E04, L10	E06	E02	E02	-	○

	w14 (2021)	w15 (2022)	w16 (2023)	w17 (2024)	w18 (2025	w19 (2026)	w20 (2027)
청소년기							

2. 도구 출처

- 송현주(2014). 간편형 자기보고식 아동 청소년 집행기능 곤란 질문지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3(1), 121-137.

3. 조사 특성

1) 자료수집 방법 (응답자)	

	8차	9차	10차	11차	13차
지필식 (어머니)	○	○	○	○	
web (소속 학급 담임교사)	○				
TAPI (아동)					○

2) 문항 수/하위영역	- 총 40문항 - 4개 하위 영역으로 구성됨 • 계획-조직화 곤란(planning-organizing difficulties), 11문항 • 행동통제 곤란(behavior control difficulty), 11문항 • 정서통제 곤란(emotional control difficulty), 8문항 • 부주의(attention-concentration difficulty), 10문항
3) 척도 수준 및 점수화 방식	- 3점 Likert 척도 - '전혀 아니다(1점)' ~ '자주 그렇다(3점)'
4) 특이 사항	-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타당화한 질문지이나 8~11차년도 조사에서는 성인용으로 전환한 질문지를 저자로부터 전달받아 사용함. - 13차년도 조사부터 아동이 직접 응답할 수 있도록 함. - 변수명 지정 시, 8차년도 자료의 경우 '어머니'와 '교사'에게 동일하게 질문됨에 따라 대상 코드를 'Mt'와 'In'으로 구분하였으나, 9차년도 자료부터는 어머니에게만 질문함에 따라 대상 코드를 'Ch'로 변경함.

4. 문항 내용 및 변수 코드

※ 8~11차년도

코드	문 항 내 용	하위영역
exf01	1) 무슨 일이든 시작하기를 힘들어 한다.	계획-조직화 곤란
exf02	2) 해야 할 일(숙제, 공부 혹은 심부름 등)이 많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러워 한다.	
exf03	3) 해야 할 일(숙제, 공부, 혹은 심부름 등)이 있을 때 거의 마지막까지 미루다가 하는 편이다.	
exf4	4) 차근차근 순서대로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것을 어려워한다.	
exf5	5) 어떤 일을 해야 될 때 그 일을 끝까지 하려면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릴지 미리 예측하지 못한다.	
exf6	6) 머릿속으로 생각은 잘 하는데(나름대로 계획은 하는데) 실천은 하지 못한다.	
exf7	7)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실제 행동을 하는 것을 어려워한다.	
exf8	8) 어떤 내용을 이해할 때 부분적으로는 이해하는 것 같은데 정말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는 것 같다.	
exf9	9) 스스로 알아서 앞장서서 하지 못한다.	
exf10	10) 어떤 활동이든 순서대로 차근차근 계획해서 행동하는 것을 어려워한다.	
exf11	11) 숙제나 공부 혹은 심부름 등 일을 할 때 집중해서 하지 못한다.	
exf12	12) 또래 다른 친구들과 비교해 볼 때 행동을 스스로 조절하는데 더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	행동통제 곤란
exf13	13) 스스로 행동을 조절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exf14	14) 너무 거칠게 행동한다.	
exf15	15) 어른이 곁에서 지켜보면서 도와주지 않으면 혼자서 숙제, 공부 혹은 심부름 등을 하기가 어렵다.	
exf16	16) 글쓰기를 어려워한다.	
exf17	17) 다른 사람을 방해한다.	
exf18	18) 앉아서 집중해야 할 때 자리에 잘 앉아 있지 못한다.	
exf19	19) 줄서서 있어야 할 때 서 있지 않고 잘 벗어난다.	
exf20	20) 자신의 행동이 남을 귀찮게 하는 것인지 아닌지 잘 알아채지 못한다.	
exf21	21) 누가 옆에서 지키지 않으면 숙제나 공부를 꾸준히 앉아서 하지 못한다.	
exf22	22) 자신의 행동에 대해 주변 사람이 야단을 치거나 핀잔을 주어도 별 상관하지 않는다.	
exf23	23) 사소한 일에도 화를 쉽게 폭발한다.	정서통제 곤란
exf24	24) 상황에 따라 기분 변화가 심하다.	
exf25	25) 잘 참지 못하고 성질을 낸다.	
exf26	26) 자주 울컥한다.	
exf27	27) 그럴 일이 아닌데도 잘 투덜거린다.	
exf28	28) 사소한 일에도 과도하게 반응한다.	
exf29	29) 원래 계획한 일에 변화가 생기면(원래 생각했던 것과 달라지면) 순간 화를 벌컥 낸다.	
exf30	30) 기분 변화가 심하다.	
exf31	31) 자신의 물건을 챙기지 못해 여기저기 흘리고 다닌다.	부주의
exf32	32) 옷, 안경, 양말, 장난감, 책, 연필 등 물건을 잘 찾지 못한다.	
exf33	33) 방의 정리정돈을 못한다.	
exf34	34) 숙제를 다 해가도 선생님께 제출하는 것을 잊고 온다.	
exf35	35) 소지품이나 숙제 등을 잘 잃어버린다.	
exf36	36) 잘 잊어버린다.	
exf37	37) 해야 할 일을 잘 잊는다.	
exf38	38) 방이 늘 어질러져 있다.	
exf39	39) 방안이나 책상 위에 있는 물건을 잘 찾지 못한다.	
exf40	40) 물건이나 방을 잘 어질러서 다른 사람이 치워야 한다.	

※ 13차년도

코드	문 항 내 용	하위영역
exf01	1) 무슨 일이든 시작하기가 힘들다.	계획-조직화 곤란
exf02	2) 해야 할 일(숙제, 공부 혹은 심부름 등)이 많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exf03	3) 해야 할 일(숙제, 공부, 혹은 심부름 등)이 있을 때 거의 마지막까지 미루다가 하는 편이다.	
exf4	4) 차근차근 순서대로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것이 어렵다	
exf5	5) 어떤 일을 해야 될 때 그 일을 끝까지 하려면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릴지 미리 예측하기 어렵다.	
exf6	6) 머릿속으로 생각은 잘 하는데 실천은 하지 못한다.	
exf7	7)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실제 행동을 하는 것이 어렵다.	
exf8	8) 어떤 내용을 이해할 때 부분적으로는 알겠는데 정말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다.	
exf9	9) 스스로 알아서 앞장서서 하지 못한다.	
exf10	10) 어떤 활동이든 순서대로 차근차근 계획해서 행동하는 것이 어렵다.	
exf11	11) 숙제나 공부 혹은 심부름 등 일을 할 때 집중해서 하지 못한다.	
exf12	12) 나는 다른 친구들 보다 내 행동을 스스로 조절하기가 더 어려운 것 같다.	행동통제 곤란
exf13	13) 스스로 행동을 조절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exf14	14) 너무 거칠게 행동한다.	
exf15	15) 어른이 곁에서 지켜보면서 도와주지 않으면 혼자서 숙제, 공부 혹은 심부름 등을 하기가 어렵다.	
exf16	16) 글쓰기가 어렵다.	
exf17	17) 다른 사람을 방해한다.	
exf18	18) 앉아서 집중해야 할 때 자리에 잘 앉아 있지 못한다.	
exf19	19) 줄서서 있어야 할 때 서 있지 않고 잘 벗어난다.	
exf20	20) 나의 행동이 남을 귀찮게 하는 것인지 아닌지 잘 알아채지 못한다.	
exf21	21) 누가 옆에서 지키지 않으면 숙제나 공부를 꾸준히 앉아서 하지 못한다.	
exf22	22) 내 행동에 대해 주변 사람이 야단을 치거나 핀잔을 주어도 별 상관하지 않는다.	
exf23	23) 사소한 일에도 화를 쉽게 폭발한다.	정서통제 곤란
exf24	24) 상황에 따라 기분 변화가 심하다.	
exf25	25) 잘 참지 못하고 성질을 낸다.	
exf26	26) 자주 울컥한다.	
exf27	27) 그럴 일이 아닌데도 잘 투덜거린다.	
exf28	28) 사소한 일에도 과도하게 반응한다.	
exf29	29) 원래 계획한 일에 변화가 생기면(원래 생각했던 것과 달라지면) 순간 화가 치솟는다.	
exf30	30) 기분 변화가 심하다.	
exf31	31) 내 물건을 챙기지 못해 여기저기 흘리고 다닌다.	부주의
exf32	32) 옷, 안경, 양말, 장난감, 책, 연필 등 물건을 잘 찾지 못한다.	
exf33	33) 방의 정리정돈을 못한다.	
exf34	34) 숙제를 다 해가도 선생님께 제출하는 것을 잊고 온다.	
exf35	35) 점심 도시락, 숙제 등을 잘 잃어버린다.	
exf36	36) 잘 잊어버린다.	
exf37	37) 해야 할 일을 잘 잊는다.	
exf38	38) 방이 늘 어질러져 있다.	
exf39	39) 방안이나 책상 위에 있는 물건을 잘 찾지 못한다.	
exf40	40) 물건이나 방을 잘 어질러서 다른 사람이 치워야 한다.	

12) [아동] 체형에 대한 인식 및 체중조절경험

도구 프로파일 (Profile Tool)

대분류	신체 및 건강 특성	중분류	신체특성	소분류	체중조절경험
도구명	체형에 대한 인식 및 체중조절경험				

1. 차수별 반영사항

	w8 (2015)	w9 (2016)	w10 (2017)	w11 (2018)	w12 (2019)	w13 (2020)
초등학령기	-	-	-	-	-	○

	w14 (2021)	w15 (2022)	w16 (2023)	w17 (2024)	w18 (2025	w19 (2026)	w20 (2027)
청소년기							

2. 도구 출처

-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국민건강영양조사: 청소년용 질문지(2016년) 중 청소년 행태 조사지_비만 및 체중조절 문항: 만12-18세 대상 https://knhanes.cdc.go.kr/knhanes/sub04/sub04_01_02.do?classType=2 (인출일: 2020.04.01.)

3. 조사 특성

1) 자료수집 방법 (응답자)	- TAPI (아동)
2) 문항 수/하위영역	- 2개 하위 질문으로 구성 - 체형에 대한 인식, 체중조절 경험여부
3) 척도 수준 및 점수화 방식	- 없음
4) 특이 사항	-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만12-18세 대상으로 함.

4. 문항 내용 및 변수 코드

- 체형에 대한 인식

코드	문 항 내 용
	현재 본인의 체형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마른 편이다 ② 약간 마른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비만이다 ⑤ 매우 비만이다

- 체중조절 경험

코드	문 항 내 용
	최근 1년동안 본인의 의지로 몸무게를 조절하려고 노력한 적이 있습니까? ① 몸무게를 줄이려고 노력했다 ② 몸무게를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③ 몸무게를 늘리려고 노력했다 ④ 몸무게를 조절하기 위해 노력해본 적 없다

13) [아동] 학습태도

한국아동패널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도구 프로파일 (Profile Tool)

대분류	인지 및 언어 발달	중분류	학습 관련	소분류	학습태도
도구명	학습태도				

1. 차수별 반영사항

	w8 (2015)	w9 (2016)	w10 (2017)	w11 (2018)	w12 (2019)	w13 (2020)
초등학령기	-	-	-	-	-	○

	w14 (2021)	w15 (2022)	w16 (2023)	w17 (2024)	w18 (2025	w19 (2026)	w20 (2027)
청소년기							

2. 도구 출처

- 김양분·남궁지영·김정민·박경호·임현정(2014). 한국교육종단연구(KELS) 2013(II)-조사개요보고서-. 한국교육개발원. p.115.

3. 조사 특성

1) 자료수집 방법 (응답자)	- TAPI (아동)
2) 문항 수/하위영역	- 총 12개 문항
3) 척도 수준 및 점수화 방식	- 4점 Likert 척도 -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그렇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
4) 특이 사항	- 학습자 특성 검사에서 공부태도 12개 문항을 사용함.

4. 문항 내용 및 변수 코드

코드	문 항 내 용
	1) 교과목 공부를 위해 수업시간 이외의 시간을 잘 활용한다
	2) 내가 계획한 공부 시간표를 지킨다
	3) 공부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사용한다
	4) 집중할 수 있는 장소에서 공부한다
	5) 나는 일정한 장소에서 공부한다
	6) 잘 이해되지 않는 내용은 선생님께 질문한다
	7) 선생님께 공부에 필요한 자료나 도움을 구한다
	8) 수업시간에 이해하지 못한 내용은 다른 학생(친구들)에게 질문한다.
	9) 필요하다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친구들을 찾으려고 한다
	10) 내가 잘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아는 사람에게 물어 본다
	11) 내가 잘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도서관 등에서 다른 책들을 찾아본다
	12) 숙제나 공부를 하다가 잘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인터넷을 이용한다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2020
(한국아동패널 II)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93330
9 791190 485791
ISBN 979-11-90485-79-1